

## 차례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 . . . .	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 . . . .	iii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 . . . .	ix
주석:	
누가복음 서론 . . . . .	1
누가복음 1 장 . . . . .	6
누가복음 2 장 . . . . .	42
누가복음 3 장 . . . . .	62
누가복음 4 장 . . . . .	77
누가복음 5 장 . . . . .	98
누가복음 6 장 . . . . .	110
누가복음 7 장 . . . . .	128
누가복음 8 장 . . . . .	137
누가복음 9 장 . . . . .	153
누가복음 10 장 . . . . .	173
누가복음 11 장 . . . . .	188
누가복음 12 장 . . . . .	205
누가복음 13 장 . . . . .	223
누가복음 14 장 . . . . .	231
누가복음 15 장 . . . . .	237
누가복음 16 장 . . . . .	245
누가복음 17 장 . . . . .	258
누가복음 18 장 . . . . .	268
누가복음 19 장 . . . . .	279
누가복음 20 장 . . . . .	289
누가복음 21 장 . . . . .	303
누가복음 22 장 . . . . .	313
누가복음 23 장 . . . . .	332
누가복음 24 장 . . . . .	344
부록 1: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 . . . .	356
부록 2: 본문비평 . . . . .	363
부록 3: 용어해설 . . . . .	366
부록 4: 교리적 선언 . . . . .	373

## 누가복음의 특별주제 목차

아르케, 1:2 . . . . .	10
로고스의 히브리어 및 헬라어 배경, 1:2 . . . . .	10
의, 1:6 . . . . .	12
그룹, 1:19 . . . . .	16
하나님의 아들, 1:33 . . . . .	20
영원히(헬라어 관용어), 1:33 . . . . .	21
거룩한, 1:35 . . . . .	22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 1:45 . . . . .	23
믿다, 1:45 . . . . .	26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신인동형적 언어, 1:51 . . . . .	28
마음, 1:51 . . . . .	29
신약의 예언, 1:67 . . . . .	31
하나님의 이름들, 1:68 . . . . .	33
속량하다/구속하다, 1:68 . . . . .	35
언약, 1:72 . . . . .	37
강하여지다, 1:80 . . . . .	40
신약에서의 영(프뉴마), 1:80 . . . . .	40
장자, 2:7 . . . . .	44
영광, 2:9 . . . . .	46
밥의 복음적 편향, 2:10 . . . . .	46
성경에서의 기름부음, 2:11 . . . . .	47
메시아, 2:11 . . . . .	47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2:14 . . . . .	49
위로하다, 2:25 . . . . .	53
영감, 2:25 . . . . .	53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2:36 . . . . .	55
바울과 사역에 함께한 여인들, 2:36 . . . . .	57
영지주의 2:40 . . . . .	58
본디오 빌라도, 3:1 . . . . .	63
헤롯대왕의 가족, 3:1 . . . . .	64
회개, 3:3 . . . . .	66
구약에서의 용서, 3:3 . . . . .	66
오실 특별한 분에 대한 구약의 호칭, 3:16 . . . . .	69
불, 3:16 . . . . .	70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3:17 . . . . .	71
삼위일체, 3:22 . . . . .	73

성경에 나타난 성령, 4:1 . . . . .	80
구약에 나오는 귀신, 4:1 . . . . .	81
시험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 시제와 그 함축적 의미, 4:1 . . . . .	82
사탄, 4:2 . . . . .	83
회당에서의 예배, 4:16 . . . . .	87
하나님의 왕국, 4:21 . . . . .	89
아멘, 4:24 . . . . .	89
귀신(더러운 영), 4:33 . . . . .	91
나사렛 예수, 4:34 . . . . .	93
거룩하신 자, 4:34 . . . . .	93
손을 얹음, 4:40 . . . . .	95
바리새인, 5:17 . . . . .	103
예수와 성령, 5:17 . . . . .	103
서기관, 5:21 . . . . .	104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9:2 . . . . .	105
인자, 5:24 . . . . .	105
사도들의 이름 도표, 5:27 . . . . .	106
금식, 5:33. . . . .	108
안식일, 6:1 . . . . .	112
열둘, 6:13 . . . . .	115
베드로, 6:45 . . . . .	116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6:37 . . . . .	122
외식하는 자, 6:42 . . . . .	124
인간의 팔, 6:45 . . . . .	124
배교, 6:46 . . . . .	125
나실인의 서약, 7:33 . . . . .	134
예수를 따른 여인들, 8:3 . . . . .	142
신약에 나오는 신비(비밀), 8:10 . . . . .	144
인내의 필요. . . . .	146
이 세대와 오는 세대, 9:2 . . . . .	156
산헤드린, 9:22 . . . . .	159
부활, 9:22 . . . . .	161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신약의 용어, 9:26 . . . . .	162
재림, 9:26 . . . . .	163
섬기는 지도자, 9:46-48 . . . . .	167
주의 이름, 9:48 . . . . .	168
보내다, 9:48 . . . . .	168
동양의 문학, 9:50 . . . . .	169

승천, 9:51 . . . . .	170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50:3 . . . . .	175
상과 별의 정도, 10:12 . . . . .	178
슬픔의 의식, 10:13 . . . . .	180
가장 큰 계명, 10:27 . . . . .	184
성화, 11:4 . . . . .	191
용서받지 못하는 죄, 11:19 . . . . .	194
관대한/신실한, 11:34 . . . . .	198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 11:40 . . . . .	199
구제, 11:41 . . . . .	200
십일조, 11:42 . . . . .	201
유일신 주의, 12:5 . . . . .	208
시인, 12:8 . . . . .	210
인격이신 성령, 12:12 . . . . .	211
부, 12:21 . . . . .	212
규빗, 12:25 . . . . .	215
언제라도 일어날 예수의 재림과 아직은 아닌 재림(신약의 역설), 12:39 . . . . .	218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신약의 용어, 9:26 . . . . .	219
남은 자의 세 의미, 13:23 . . . . .	227
보호와 돌봄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인 “그들,” 13:34 . . . . .	229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 15:8 . . . . .	240
고대 근동의 도량형, 16:6 . . . . .	248
히브리 정경의 구분, 16:16 . . . . .	252
구약에서의 회개, 17:4 . . . . .	260
선택, 18:7 . . . . .	270
멸망, 19:10 . . . . .	282
권세( <i>엑수시아</i> ), 20:2 . . . . .	291
모퉁이 돌, 20:17 . . . . .	294
사두개인, 20:27 . . . . .	296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20:36 . . . . .	298
구름을 타고 오심, 21:27 . . . . .	309
곧 오심, 21:31 . . . . .	310
그 날, 21:34 . . . . .	311
가룟, 22:3 . . . . .	316
제 1 세기의 유대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순서, 22:17 . . . . .	319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22:18 . . . . .	319
붓다, 22:20 . . . . .	321
요한복음 6 장에 나오는 주의 만찬, 22:20 . . . . .	321

섬기는 지도자, 22:25-27 . . . . .	322
예수 및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여행한 여자들, 22:28 . . . . .	323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함, 22:30 . . . . .	324
아버지, 22:42 . . . . .	327
산헤드린이 밤에 재판한 일의 불법성, 22:66 . . . . .	330
장례 관습, 23:53 . . . . .	342
장례에 사용한 향품, 24:1 . . . . .	346
초대교회의 <i>케리그마</i> , 24:27 . . . . .	350
예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심, 24:34 . . . . .	351

##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요하지만 이를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 단위 설정을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신약 헬라어 본문은 네 번째 개정판이다(UBS<sup>4</sup>). 이 책은 현대 원문 연구학자에 의해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2.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 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3.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6.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과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과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

##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담담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좌절,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음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랬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문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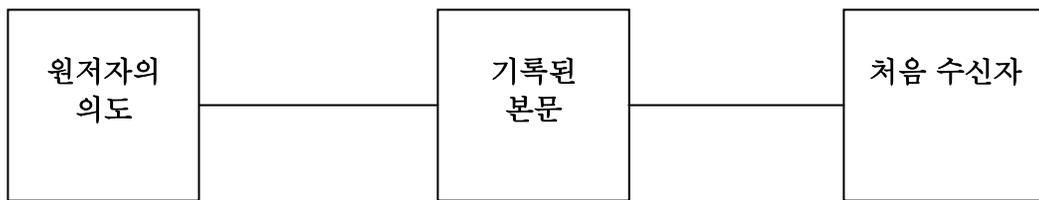
### I. 전체들

- (1)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 (2)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3)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4)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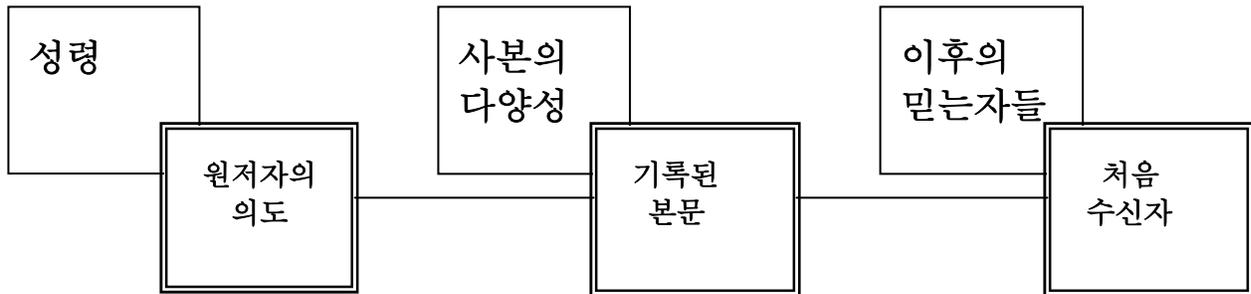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 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문서 간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 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 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 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엠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급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에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세계성서공회 헬라이어 본문, 제 4 개정판(UBS<sup>4</sup>)
  2.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3. 뉴킹제임스역(NKJV)
  4. 신개정표준역(NRSV)
  5. 현대영어성경(TEV)
  6. 예루살렘역(JB)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영어 등가 번역본인 예루살렘역
-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 (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쇄,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AGD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학의 헬라어-영어 사전, 월터 바우어, F. W. 킹리치와 프레드릭 당커, 제 2 판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 GBS, 1997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 (4 권), 조지 A. 버트립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빅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 (페쉬타), 조지 M. 램사
LXX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IDNTT	새 국제 신약신학 사전 (4 권), 콜린 브라운 편저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RSV	새 개정 표준역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CNT	20 세기 신약성경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5 권), 메릴 C. 텐니 편저

# 누가복음 서론

## I. 들어가는 말

- 가. 누가복음은 가장 긴 복음서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의 어떤 저자가 쓴 책 보다는도 더 많은 수의 절이 있다(만일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제 2 세대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직접 보거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 나. 누가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한 신약의 어떤 저자 보다는도 정확한 문법과 세련된 문체의 *코이네* 헬라어를 사용하였다. 헬라어가 누가의 모국어였음이 분명하다. 그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의사였다(참조, 골 4:14).
- 다. 누가복음은 유대 지도자들이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사랑하셨고 돌보셨음을 강조한다
1. 여인들(즉,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마리아와 마르다 등)
  2. 가난한 자(즉, 누가의 산상수훈[눅 6:20-23] 및 부에 대한 가르침, 참조 12:13-21; 16:9-13,19-31)
  3.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
    - ㄱ. 부도덕한 여인들(참조, 7:36-50)
    - ㄴ. 사마리아 사람들(참조, 9:51-56; 10:29-37; 17:11-16)
    - ㄷ. 문둥병자들(참조, 17:11-19)
    - ㄹ. 세리들(참조, 3:12-13; 15:1-2; 18:9-14; 19:1-10)
    - ㅁ. 죄인들(참조, 23:35-43)
    - ㅂ. 반역하는 가족 구성원들(참조, 15:11-32)
    - ㅅ. 가난한 자들(참조, 6:20; 16:19-31)
    - ㅇ. 이방인들(참조, 13:29; 14:23)
- 라. 누가는 마리아의 기억에 따른 증거 및 그녀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다(즉, 3:23-38). 그의 복음서는 면담과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참조, 1:1-4).

## II. 저자

- 가. 초대교회의 전통은 이구동성으로 누가가 바울의 선교에 동역하였음을 말한다
1. 이레니우스(주후 175-195 년, *이단에 대항하여* 3.1.1; 3.14.10)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누가가 책으로 기록했다”고 특별히 언급한다.
  2. 누가복음에 대한 반 말시온 서언(주후 175 년)은 누가가 복음서의 저자였다고 말한다.
  3. 터툴리안(주후 150/160-220/240 년, *말시온에 대항하여* 4.2,3; 4.5,3)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가 알기 쉽게 기록하였다고 말한다.
  4. 무라토리안 단편(주후 180-200 년)은 누가를 저자로 말하며 그가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였다고 말한다. 이 단편은 그가 전해들은 말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말한다(그가 목격자들을 면담했다는 의미임).
  5. 유세비우스가 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인용한 내용(*Hist. Eccl.* 6.25.6)에 따르면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임을 오리겐이 주장했다.
  6. 유세비우스(*Hist. Eccl.* 3.4.2,6-7)는 또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임을 확증했다.
- 나. 누가가 저자임을 입증하는 내적 증거
1. 이 복음서는 성경의 여러 책들과 마찬가지로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2. 만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라면(이 점은 비슷한 서론에 의해 사실로 보인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본문(참조, 16:10-17; 20:5-16; 21:1-18; 27:1-28:16)은 바울이 행한 선교 활동에 대한 목격자적 진술을 의미한다.
  3. 누가복음의 서론(참조, 1:1-4)은 예수의 삶을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하기 위해 누가가 목격자들을 면담하였고 그들의 기록을 연구하였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제 2 세대에 속하는 신자였음을 나타낸다. 누가복음의 서론은 사도행전도 그 범주에 넣어 다룬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 일부 겹친다(즉, 부활 이후의 사건들).

## III. 누가라는 인물

- 가. 누가복음에 대한 반 말시온 서언(주후 175 년)은 누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시리아 안디옥 출신
  2. 의사
  3. 독신
  4. 바울의 추종자
  5. 아가야에서 기록했다
  6. 84 세에 보에오티아에서 죽음
- 나.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주후 275-339 년)는 *Hist. Eccl.* III.4.2 에서 누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안디옥 출신
  2. 바울의 선교 동역자
  3. 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
- 다. 제롬(주후 346-420 년, *Migna* XXVI.18)은 누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아가야에서 기록함
  2. 보에오티아에서 죽음
- 라. 누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1. 그가 사용한 코이네 헬라이어 문법은 훌륭함
  2. 많은 어휘를 사용함(특히 의학과 항해와 관련하여)
  3. 연구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이를 사용함(참조, 1:1-4)
  4. 아마도 의사였다(참조, 골 4:14). 누가는 약, 치료, 질병 등과 관련된 용어를 300 회 이상 사용하였다(참조, W. K. 호바르트, *누가의 의학용어*, 혹은 더 좋은 자료로서 A. 하르낙, *의사 누가*). 또한 막 5:26 에 나오는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이와 평행을 이루는 눅 8:43 에는 빠져 있다.
- 마.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1. 바울은 골 4:10-11 에서 자기를 돕고 있는 자들을 열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즉, “할례당”)과 다른 조력자들(즉, 에바브라, 누가, 데마)을 구분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행 1:19 에서 누가는 아람어를 가리키는 “본 방언”에 대해 언급한다. 이 사실은 이 언어가 그의 언어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3. 그가 쓴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구두 율법과 관련한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모두 생략하고 있다.
- 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목격자도 아닌(즉, 사도가 아닌) 이방인이 택함을 받아 가장 긴 복음서 및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신약의 다른 저자 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점은 놀랍다. 한편 이 사실은 초대 교회가 일치하게 증거하는 전통이다.

#### IV. 저작 시기

- 가. 우리는 다음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1. 누가가 사용한 최초의 연구 자료(아마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만들어졌을 것임[참조, 행 23-26 장, 특히 24:27])
  2. 누가의 최종 작품(즉, 그가 마가복음과 “Q”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누가복음)
  3. 누가복음 및 사도행전의 유통(테오빌로에게 또는 테오빌로를 위해)
- 나. 만일 클레멘트 1 서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인용하였거나 암시하였고 또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을 뒤따르는 내용이라면, 이 책은 주후 95 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1. 행 13:22—클레멘트 1 서, 18:1
  2. 행 20:36—클레멘트 1 서, 2:1
- 다. 사도행전은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주후 70 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1.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주후 64-68 년)
  2. 행 7 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는 성전의 파괴를 포함하지 않는다. 성전파괴는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나타낸다.
  3. 바울이 행 21 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만일 누가가 주후 70 년 이후에 기록하였다면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했을 것이다.

- 라. 만일 누가가 마가복음의 개요를 사용하였고 또 그가 팔레스타인에서 자신이 조사하여 살펴본 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라면, 누가복음의 저작시기는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이 된다(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감옥에 있던 시기 직후인 주후 62-63년에 쓰여졌을 것이다)

## V. 수신자

- 가. 이 책은 데오빌로에게 헌정되었다(참조, 눅 1:1-4; 행 1:1). 그의 정체에 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그가 로마의 관료인데, 그 이유는 누가가 그를 “각하”로 눅 1:3에서 부르고 있고 이 칭호를 벨릭스(참조, 행 23:26; 24:3)와 베스도(참조, 행 26:25)에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2. 부유한 후원자(데오빌로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혼한 이름이었다)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필사하며 이를 배포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였다
  3.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 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이 복음서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 설명을 한다
  2. 이 복음서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참조, 2:10)
  3. 이 복음서는 “모든 육체”를 가리키는 예언을 인용한다(참조, 3:5-6은 이사야서 40장의 인용이다)
  4. 족보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간다(즉, 모든 인류, 참조, 3:38)
  5. 이 복음서에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가 많이 있다(예, 누가는 메시아의 만찬에 참여할 사람들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13:29)
  6. 이 복음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약의 예를 많이 제시한다(참조, 2:32; 4:25-77)
  7. 누가복음에 있는 대위임은 죄의 용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함을 주장한다(참조, 24:47)

## VI. 누가의 저작 목적

- 가. 모든 복음서가 복음전도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참조, 요 20:30-31)
1.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2.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3.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4.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 누가는 70인의 선교를 독특하게 언급한다(참조, 10:1-24). 랍비들은 70이 온 세계의 언어를 뜻한다고 이해했다(참조, 창 10장). 예수께서 70인의 설교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 나. 가능한 다른 저작목적들

1. 늦어지는 재림을 다루기 위함
  - ㄱ. 눅 21장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마 24장 및 막 13장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면을 갖는다
  - ㄴ. 한편 누가복음은 세계에 대한 복음전도에 대해 말하는데 이 일은 교회가 힘써 성취해야 할 일이다(참조, 24:47)
  - ㄷ. 누가(바울처럼)는 하나님의 왕국이 앞으로 성취될 일이면서 또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강조한다(참조, 10:9,11; 11:20; 17:21)
  - ㄹ. 19:11-27에 있는 비유는 주인이 더디 옴을 종말적 배경에서 다룬다
  - ㅁ. 성경 학자들의 견해와 논의를 앵커 성경 주석, 제 28권 231-235쪽에서 요약하여 제시한다
2.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함(사도행전도 같은 취지를 갖는다)
  - ㄱ. “각하”라는 호칭이 있는 서론
  - ㄴ. 눅 23장에서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를 세 번 말한다(참조, 23:4,14-15,22)
  - ㄷ.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부 관리들이 좋은 쪽으로 등장한다. 바울이 로마의 관리들에게 한 연설에서 그들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고 그들도 바울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한다(참조, 행 26:31-32)
  - ㄹ. 십자가에 있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께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참조, 눅 23:47)

### 다. 누가의 저작목적과 관련을 갖는 독특한 신학적 주제가 나온다

1. 누가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다
  - ㄱ. 가난한 자 대 부자(즉, 누가복음의 산상수훈, 6:20-23)
  - ㄴ. 소외된 자들
    - (1) 부도덕한 여인들(참조, 7:36-50)

- (2) 사마리아인들(참조, 9:51-56; 10:29-37)
  - (3) 종교적 도망자들(참조, 15:11-32)
  - (4) 세리들(참조, 19:1-10)
  - (5) 문둥병자들(참조, 17:11-19)
  - (6) 죄인들(참조, 23:39-43)
2.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언급한다. 복음은 유대인과 그들의 성경에서 시작되었지만(즉,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 그들은 그를 거부했다(참조, 11:14-36).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참조, 10:1-24) 자신으로 그들의 성전을 대신하셨다(참조, 막 14:58; 15:29; 요 2:19-22)

## VII. 누가복음의 자료

- 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공관복음)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모든 초대교회의 전통은 이방인 의사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한다
  2. 1776년에 A. E. 레싱(후에 기젤러가 1818년에)이 공관(“함께 보다”)복음서의 발전과정에 구전의 시기가 있음을 이론화 했다. 각 공관복음서는 각 저자가 목표로 하는 대상에 맞도록 초기의 구전을 적합시켰다고 그는 주장했다
    - ㄱ. 마태복음: 유대인
    - ㄴ. 마가복음: 로마인
    - ㄷ. 누가복음: 이방인
 각 복음서는 기독교의 중심지와 관련이 있다고 그는 보았다
    - ㄱ. 마태복음: 시리아 안디옥 혹은 유대
    - ㄴ. 마가복음: 이탈리아의 로마
    - ㄷ. 누가복음: 팔레스타인의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 혹은 아가야
    - ㄹ. 요한복음: 소아시아의 에베소
  3. 19세기 초에 J. J. 그리스바는 마태와 누가가 예수의 생애에 대해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기록했고 마가는 두 복음서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간략하게 복음서를 썼다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4. 20세기 초에 H. J. 홀트만은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이며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의 골격과 Q(독일어로 *Quelle* 혹은 “원천”)로 불리는 예수의 말씀을 포함한 또 다른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두 자료” 이론으로 불린다(1832년에 프레드릭 쉘라이엘마허가 일컬음).
  5. 후에 B. H. 스트리터는 개선된 “두 자료”설로서 그가 “네 자료설”로 부른 이론을 제시한다. 그는 “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과 Q를 추가시켰다
  6. 앞서 제시된 공관복음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들은 단지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 “Q”자료나 “원 누가복음” 모두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사본적 역사적 증거가 없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복음서들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누가 그것을 기록하였는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이러한 점은 구약의 율법과 전기 예언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은 신앙적이고 역사적 자료로서 성경이 갖는 영감성과 신실성에 대해 교회가 가진 견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7. 공관복음서 사이에 구조적 어휘적 유사성이 분명히 있고 또 주의를 끄는 많은 상이점도 있다. 상이점은 목격자적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삶에 대한 세 가지의 목격자적 진술로 인한 다양성을 힘들어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점은 각 복음서가 목표로 하는 청중, 저자의 스타일 및 다른 언어의 사용(아람어와 헬라어)으로 인한 차이일 것이다. 예수의 삶과 관련된 사건과 가르침을 선택하고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요약함에 있어서 영감받은 이 저자들, 편집자들, 혹은 편찬자들이 자유를 가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13-148 쪽)
- 나. 누가는 자신이 예수의 삶에 대해 목격자들의 진술을 조사하여 확인했음을 특별히 주장한다(눅 1:1-4). 바울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바닷가인 가이사라에 감금될 때 누가가 이 목격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1장과 2장은 3장에 있는 족보와 더불어 마리아의 회상을 나타낸다(윌리엄 램세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를 보라*)
- 다. 초대 교회의 여러 자료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한 여행하는 선교사였음을 언급한다. 이 가운데 어떤 자료는 누가 복음이 바울의 설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진한다. 전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교가 분명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예언의 성취로서 여겨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 VIII. 누가복음의 독특성

- 가. 누가복음의 처음 두 장은 독특한데 이 내용은 8:23-28의 족보처럼 마리아에게서 왔을 것이다

- 나. 누가복음에 독특한 기적
  1.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남, 7:12-17
  2. 병든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침을 받음, 13:10-17
  3. 병든 남자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침을 받음, 14:1-6
  4. 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음; 오직 한 사람 곧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감사함, 17:11-18
  
- 다. 누가복음에 독특한 비유
  1. 선한 사마리아 사람, 10:25-37
  2. 간청하는 친구, 11:5-13
  3. 어리석은 부자, 12:13-21
  4. 잃어버린 동전, 15:8-10
  5. 두 아들, 15:11-32
  6. 불의한 청지기, 16:1-8
  7. 부자와 나사로, 16:19-31
  8. 불의한 재판관, 18:1-8
  9. 바리새인과 세리, 18:9-14
  
- 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지만 각각 다른 형태와 문맥을 갖는 비유
  1. 12:39-46(마 24:32-44)
  2. 14:16-24(마 22:2-14)
  3. 19:11-27)마 25:14-30)
  
- 마. 기타 독특한 내용
  1. 처음 두 장에 있는 사건들
  2. 세리장 삭개오, 19:1-10
  3.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 심문받게 함, 23:8-12
  4.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 24:13-32
  
- 바. 누가복음에서 가장 독특한 내용은 눅 9:51-18:14 에 나온다. 여기서 누가는 마가복음이나 “Q”(즉, 아마도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건가 가르침도 다른 형태로 제시된다. 이 단락의 통일적인 주제(문학적 구조에 따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이다(참조, 9:51; 13:22,33; 17:11; 18:31; 19:11,28). 실제로 이 부분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심을 나타낸다.

**독서의 첫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한 책을 단번에 읽으라. 주요 주제(들)를 파악하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1. 책 전체의 주제
2. 문학적 종류(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한 책을 단번에 읽으라. 주요 주제(들)를 파악하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1. 첫 번째 문단의 주제
2. 두 번째 문단의 주제
3. 세 번째 문단의 주제
4. 네 번째 문단의 주제
5. 기타

# 누가복음 1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데오빌로에게의 헌정	데오빌로에게의 헌정	서론	서론	서언
1:1-4	1:1-4	1:1-4	1:1-4	1:1-4
예고된 침례(세례)요한의 출생	스가랴에게 예고된 침례(세례)요한의 출생	요한과 예수의 출생 (1:5-2:40)	침례(세례)요한의 출생이 예고되다	예고된 침례(세례)요한의 출생
1:5-20	1:5-25	1:5-7	1:5-7	1:5-7
		1:8-20	1:8-17	1:8-10
			1:18	1:11-22
			1:19-20	
1:21-25		1:21-23	1:21-22	
			1:23-25	1:23-25
		1:24-25		
예고된 예수의 출생	그리스도의 출생이 마리아에게 예고되다		예수의 출생이 예고되다	수태고지
1:26-38	1:26-38	1:26-38	1:26-28	1:26-38
			1:29-33	
			1:34	
			1:35-37	
			1:38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방문
1:39-45	1:39-45	1:39-45	1:39-45	1:39-45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송영
1:46-55	1:46-55	1:46-55	1:46-55	1:46-55

1:56	1:56	1:56	1:56	1:56
침례(세례)요한의 출생	침례(세례)요한의 출생		침례(세례)요한의 출생	침례(세례)요한의 출생
1:57-66	1:57-58	1:57-58	1:57-58	1:57-58
	침례(세례)요한의 할례			침례(세례)요한의 할례
	1:59-66	1:59-66	1:59-60	1:59-66
			1:61-62	
			1:63-66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	축복기도
1:67-79	1:67-79	1:67-79	1:67-75	1:67-79
			1:76-79	침례(세례)요한의 감추인 삶
1:80	1:80	1:80	1:80	1:8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역사가 누가

1. 1-4 절에는 헬라의 역사기록과 관련이 있는 헬라어 단어로써 드물게 사용된 여러 단어가 나타난다. 누가는 자신의 목적이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하여 자신이 조사한 바를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누가는 제 1 세기의 헬라-로마 세계에서 잘 교육받은 시민이었다.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해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

2. 누가복음의 헬라어적 경향과 관련된 문제는 헬라 역사의 성격과 관련을 가짐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오늘날의 역사가보다 더욱 흥미와 홍보적 목적을 위해 자료를 선택하고 기록하는 일과 관련이 깊다. 누가는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헬라적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역사적 감각을 따랐다. 헷족속과 히브리인들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훌륭한 역사가들에 속한다(즉, 정확함에 있어서).
3. 커다란 질문은 역사란 무엇인가이다. 오늘날의 서구 역사는 시대순으로 원인과 결과를 다룬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역사는 누가 그것을 기록했고 왜 기록을 했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본질상 편견을 갖고 이를 취사선택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4. 누가복음은 현대인의 역사나 역사기록이 아니라, 아주 잘 쓰여진 참 역사에 속한다. 네 복음서는 사실상 복음의 소책자로서 복음전도적 목적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선택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각 사건들과 그것의 상호관계는 시간적 순서에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 해석되었다. 이 사실은 복음서의 기록이 허위거나 조작된 내용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록이 서양이 아닌 동양의 기록이며, 역사적인 동시에 신학적 기록임을 뜻한다.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나쁘거나 거짓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127-148 쪽)를 보라.

5. 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보내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그 당시의 가장 좋은 내용을 사용하였다. 그는 분명히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누가는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개종시키려고(신자도 격려하며)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6. 사복음서는 서로 다르되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각 복음서는 사실이다—목격자의 진실된 진술,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의 진실된 요약—하지만 사복음서는 오늘날의 역사책이 아니다.
7. 분명히 누가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팔레스타인과 로마의 역사적 틀 안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 ㄱ. 유대왕 헤롯이 통치할 때에 사가랴가 본 환상(참조, 1:5)
  - 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칙령과 관련된 출생(참조, 2:1)
  - ㄷ. 구레네가 시리아를 다스릴 때와 관련이 있는 출생(참조, 2:2)
  - ㄹ. 요한의 설교(참조, 3:1-2)
    - (1) 디베료 가이사(그의 통치 제 15 년)
    - (2)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 (3)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 (4) 분봉왕 빌립이 이두래를 다스림
    - (5) 구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 (6)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나. 제 1 장과 2 장에 나오는 축복

1. 이 내용이 구약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러한 구약의 기대를 분명히 성취하셨지만, 그 이상을 행하셨다. 이러한 축복을 복음의 선구자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들은 전세계를 향하는 구약의 표현이다(즉, 유대인 대 이방인이 아니라 신자 대 불신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역을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참조, 24:47).
2. 예수의 출생에 대해 먼저 알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영향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말한 축복을 누가가 제 1 장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축복들은 구약의 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참조, 46-55 절과 67-79 절) 구약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구약의 시는 지혜문학으로 불리는 장르를 포함한다. 이것은 독특한 해석 과정을 요한다(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6-230 쪽을 보라).
  - ㄱ.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가 드린 찬송), 1:46-55
  - ㄴ. “축복송”(사가랴가 드린 찬송), 1:68-79
  - ㄷ.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천사들의 찬송), 2:14
  - ㄹ. “시므온의 노래”(시므온이 드린 찬송), 2:29-32

다. 침례(세례)요한과 예수의 공통점

1. 경건한 부모
2. 가브리엘이 출생을 예고함
3. 초자연적 임신
4. 두 경우 다 모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5.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말함
6. 두 아기가 예언을 이룸
7. 모세의 율례에 따른 할례를 특별히 언급함
8.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성장과 더불어 탁월한 영적 성장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1-4

<sup>1</sup>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sup>2</sup>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sup>3</sup>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sup>4</sup>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1:1-4 이 부분은 하나의 긴 헬라이어 문장이다.

### 1:2

NASB, NKJV	“~이므로”
NRSV	“~이기에”
NJB	“보면서”

이 헬라이어 단어 *επειταπερς*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코이네 파피루스에는 나온다(제임스 물톤과 조지 밀리간, *헬라이어 성경의 용어*를 보라).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지금까지 ~이므로” 혹은 “~를 고려할 때”이다.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여러 기록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누가는 자신이 이 책을 쓰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그 기록은 마가복음(이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문학적 골격을 형성한다) 및 “Q”(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사용한 예수의 어록)를 포함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후 60년대에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 기록된 여러 자료들이 교회내에서 회람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 ▣

NASB	“기록”
NKJV	“이야기”
NRSV	“순서적으로 정리된 기록”
TEV	“보고서”
NJB	“기록들”

이 헬라이어 단어 *διεκείρισ*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 단어는 70 인역의 사사기에서 두 번 사용되어(참조, 5:14; 7:15) ‘서기관이 어떤 것을 기록함’을 나타낸다. 헬라이어 문학에서 이 단어는 ‘완전하게 완성된 이야기’를 뜻한다. 누가는 예수의 생애에 대하여 이전에 행해진 주의 깊은 역사적 연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3 절).

### ▣

NASB	“이루어진 일들”
NKJV	“아주 분명히 믿어지는 그 일들”
NRSV	“성취된 사건들”
TEV	“일어난 일들”
NJB	“성취가 된 사건들”

이 동사는 **완료 수동 분사**로서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 그의 행하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련된 약속이 성취되어 그 결과가 남아있음을 뜻한다. 이 **수동태**는 성부 하나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플레오포레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다.

1. 바울은 충분히 설득됨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롬 4:21; 14:5; 골 2:2; 4:12(참조, NKJV)에서 사용한다
2. 파피루스는 “성취됨” 혹은 “완전히 완성됨”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참조, NASB, NRSV, NJB) 데오빌로는 위의 두 의미를 다 필요로 했다! 구약의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1:2 “전하여 준 그대로” 이것은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이어로서 종종 “전통”으로 번역되었다(참조, 막 7:3,5,8,9,13; 고전 11:2,23; 15:3). 누가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목격자들로부터 자신이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을 뜻한다

1. 그의 기록의 정확성
2. 그가 제 2 세대의 신자임을 받아들임

▣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이것은 열 두 사도보다 더 큰 수를 가리키며, 몇 그룹을 뜻할 것이다

1. 예수와 사도들을 따랐던 여인들(참조, 8:2-3)
2. 오순절 날 다락방에 있던 120 명의 제자(참조, 행 1:15)
3.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고려되었던 여러 남자들(참조, 1:21-22)

**특별주제: 아르케**

“지배”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어떤 것의 “시작” 혹은 “기원”을 의미한다.

1. 창조된 질서의 시작(참조, 요 1:1; 요일 1:1; 히 1:10)
2. 복음의 시작(참조, 막 1:1; 빌 4:15; 살후 2:13; 히 2:3)
3. 처음 목격자들(참조, 눅 1:2)
4. 표적의 시작(기적, 참조, 요 2:11)
5. 권세의 시작(참조, 히 5:12)
6.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확신의 시작(참조, 히 3:14)
7. 시작(골 1:18; 계 3:14)

이것은 “다스림” 혹은 “권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인간 정부의 관리
  - ㄱ. 눅 12:11
  - ㄴ. 눅 20:20
  - ㄷ. 롬 13:3; 딤후 3:1
2. 천사적 권세자
  - ㄱ. 롬 8:38
  - ㄴ. 고전 15:24
  - ㄷ. 엡 1:21; 3:10; 6:10
  - ㄹ. 골 1:16; 2:10,15
  - ㅁ. 유 6 절

거짓 교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경멸했다. 그들은 무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천사, 공공적 권세와 교회의 지도력보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욕구를 더 앞세웠다.



NASB, NRSV “말씀의 종들”  
 NKJV, NJB “말씀의 사역자들”  
 TEV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

“처음부터” 목격자 된 이들은 책임감있는 복음의 전파자였다(참조, 고전 4:1). 진리를 아는 것은 그 진리의 청지기가 됨을 뜻한다(참조, 고전 4:12; 딤후 1:7; 뱀전 4:10)!

로고스(말씀)이라는 용어는 요 1:1 에서 예수께 직접 사용되었는데, 이곳(참조, 눅 8:12)과 행 6:4; 8:4; 10:36; 11:19; 14:25 에서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로고스의 히브리어 및 헬라어 배경**

로고스라는 용어의 배경

1. 히브리어 배경
  - ㄱ. 말씀한 말의 능력(사 55:11; 시 33:6; 107:20; 147:15,18), 창조시(창 1:8,6,9,11,14,20,24,26,29) 및 족장들의 축복에서(창 27:1 이하; 49:1)
  - ㄴ. 잠 8:12-23 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창조에 있어서 그가 대리자였다고 말한다(참조, 시 33:6 과 정경이 아닌 솔로몬의 *지혜서* 9:9)
  - ㄷ. 탈군(아람어로 된 역본 및 주석)은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하는데 그 이유는 신인동형적 용어의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갖기 때문이다
2. 헬라어 배경
  - ㄱ. 헤라클레투스—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인간이 아닌 신과 불변하는 로고스가 하나로 되고 변화의 과정을 이끈다
  - ㄴ. 플라톤--신(인간이 아님)과 불변하는 로고스가 행성이 궤도에 있게 하며 계절을 결정짓는다
  - ㄷ. 스토익학과--로고스가 “세계 이성” 혹은 관리인이지만 절반은 인간이다
  - ㄹ. 필로—그는 로고스를 인격화시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대제사장,”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혹은 “우주의 운행자가 모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 손잡이”로 말함(*코스모크라텔*)

1:3 이 절은 1-4 절의 주절로서 누가의 연구방법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핵심 용어를 갖고 있다.

1. “미루어 살핀.” 이것은 “따르다”를 뜻하는 단어의 **완료 능동 분사**이다. 이 단어의 은유적 용법은 “어떤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진실을 알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일”을 뜻한다(로우와 니다의 헬라이어 영어 사전, 제 1 권 331 쪽과 요세푸스의 아피온에 대항하여 1.10 을 보라).
2. “자세히.” 이것은 아크리보스라는 헬라이어로서 “정확히,” “부지런히” 또는 “그대로”로 번역되었다(참조, 요세푸스의 아피온에 대항하여 1.10). 로우와 니다의 헬라이어 영어 사전, 제 1 권 674 쪽은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엄밀히 따르는 일로서, 그 세부 내용 및 성취와 관련을 갖는다”로 이 단어를 설명한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신 19:18; 단 7:19). 아마도 이 단어의 가장 적합한 용법은 병의 증상을 자세히 점검함과 관련하여 갈렌(의사)이 사용한 경우일 것이다.
3. “근원부터.” 이것은 자료를 가리킨다. 이 경우 (1) 요한과 예수의 출생의 시작 혹은 (2) 예수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처음부터 목격자인 사람들(즉, 사도들, 참조, 행 1:21-22)을 말한다.
4. “차례대로.” 이 용어는 “계속되는 순서,” “연속적으로” 혹은 “연속해서”를 뜻한다.

누가는 자신이 예수의 생애와 사역과 관련된 사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한 단어 한 단어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그의 기록은 허위나 과장이 아니다.

▣ “각하” 이것은 영예와 존경을 표현하는 1 세기의 호칭이다. 이 사람은 누가의 저술을 후원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호칭은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23:26; 24:3)와 베스도(26:25)에게 사용되었다. 이 호칭은 70 인역에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참조, 삼상 15:15; 시 15:6; 22:5) 혹은 “주요한”(참조, 암 6:2)을 나타낸다.

▣ “데오빌로” 이 이름은 지중해 지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며 *빌로*는 (1)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혹은 (2) 친구, 즉 “하나님의 친구”를 의미한다.

▣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것도 갈렌이 사용했던 의학용어로서 ‘병의 진단을 위해 자세히 검진함’을 나타낸다.

1:4 “차례대로” 이것은 목적절이다(*히나가 가정법과 함께 사용됨*).

▣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강조된 형태(*에피기노스코*)로서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해 갖는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을 뜻한다. 이 내용은 데오빌로가 복음의 일부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 “알고 있는 바를” 이것은 로고스라는 헬라이어로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2 절에서 이 단어는 (1) 누가가 기록한 예수께 대한 진리를 뜻한다(참조, 7:17) (2) 데오빌로가 배운 내용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가 새신자였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우리가 이 서론의 단어들에서 너무나 많은 내용을 이끌어 내려고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 서론은 훨씬 후기에 이르러서야 교회 안에서 특별한 용법을 갖게 되었다).

▣ “알고 있는 바를” 이 헬라이어 단어에서 영어의 “교리문답”이 나왔다. 이 내용은 데오빌로가 새신자였음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평범한 용어에 속하기에 그러한 해석은 확실하지 않다.

▣

NASB	“그 일들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NKJV	“그 일들의 확실성을”
NRSV	“그 일들에 관련된 진리를”
TEV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NJB	“그 가르침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아스팔레이아*라는 용어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코이네 헬라이어 파피루스에서 (1) 안전, 안심 (2) 믿기에 확실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누가는 복음서의 저자요 연구가로서 자신이 가진 부지런함과 정확성에 대해 자신의 1 세기 독자인 데오빌로 및 나중 시기의 독자들이 확신을 갖기를 기대했다. 누가의 진술은 정확하며 신뢰할 만하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서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

개역개정 1:5-7

<sup>5</sup>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sup>6</sup>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sup>7</sup>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1:5 “헤롯” 이 사람은 헤롯대왕(주전 37-4 년)을 가리킨다. 그는 이두매 사람(에돔 출신)으로서 정치적 책략과 마크 안토니에 대한 지지를 통해 주전 40 년에 로마 원로원의 임명을 받아 팔레스타인의 대부분(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3:1 의 특별주제: 헤롯의 가족을 보라.

▣ “**사가라**” 그의 이름은 “야웨께서 기억하시는 자”를 의미한다(BDB 272). 그는 침례(세례)요한의 아버지이다.

▣ “**아비아 반열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레위의 24 반열 가운데 4 반열만 돌아왔다(참조, 대상 24:7-18; 대하 23:8). 그들은 지파의 지류로서(참조, 스 2:36-39) 매주 돌아가며 성전의 일을 감당했다. 아비아 반열은 가장 적은 반열에 속했다. 제사장의 반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유대 백과사전* 제 12 권 89-93 에 나온다.

▣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다. 그녀의 히브리 이름은 (1) “하나님이 맹세자이시다” 혹은 (2) “하나님이 온전히 만족하신다”를 뜻한다.

1: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문맥에서 “의”는 바울의 정의(참조, 롬 4 장)보다는 마태의 정의(참조, 마 6:1)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죄없음을 뜻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해하는 대로 신실하게 응답함’을 뜻한다(참조, 신 6:25. 구약의 예는 노아[창 6:9; 7:1]와 욥[욥 1:1]이다). 이 구는 이 부부가 영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신체적 문제로 인해 자식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가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4. 예전 동산에서의 교제를 회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길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שֶׁפֶט* 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문학적 용례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에서 사용한 *δικαιοσύνη* 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둘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앎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26; 4:3,5,13; 9:30; 10:4,6,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디모데 전서 6:11
  - ㄹ. 디모데 후서 2:22; 3:16
  - ㅁ. 요한일서 3:7
  - ㅂ. 베드로 전서 2:24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4.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건실하게 추구해야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 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견* 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 (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을 더 강조하거나 어느 한 쪽을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1:7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무자함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다(참조, 창 20:18; 29:31; 30:2; 출 23:26; 레 20:20-21; 신 7:14; 삼상 1:5; 렘 22:30). 성경에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러 여인이 나온다:

1. 사라, 창 11:30; 16:1
2. 리브가, 창 25:21
3. 라헬, 창 29:31; 30:1
4. 마노아의 아내, 사 1:2,3
5. 한나, 삼상 1:2,5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신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사라의 경우처럼). 이러한 조건은 인간의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신학적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도움(이삭의 경우처럼, 참조, 창 18 장; 요셉의 경우처럼, 참조, 창 30:22-24; 삼손의 경우처럼, 참조, 사 13 장; 사무엘의 경우처럼, 참조, 삼상 1 장;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사 7:14-16). 침례(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참조, 사 40 장과 말 3 장).

#### 개역개정 1:8-17

<sup>8</sup>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sup>9</sup>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sup>10</sup>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sup>11</sup>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sup>12</sup>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sup>13</sup>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sup>14</sup>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sup>15</sup>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sup>16</sup>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sup>17</sup>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8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미쉬나(탈무드의 한 부분)는 당시에 아주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기에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에 한 번 밖에 분향할 수 없었고 어떤 이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1:9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계적인 방법이였다(참조, 행 1:21-26). 같은 시간에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이것은 의식을 실행하기 위한 결정을 짓는 정규적 방법이였다.

구약에서 “제비”는 원래 우렁과 둌뭇을 가리키는데(참조, 레 16:8), 대제사장은 이것을 흉패 뒤에 가지고 다녔다. 이것은 여호수아 13-19 장에서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초대교회에서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행 1 장).

▣ “분향하고” 이 과정은 출 25:6; 30:7; 31:11 에 나와 있다. 향에 대하여는 출 30:34-38 에서 설명한다.

1:10 이것은 항상 오전 9 시와 오후 3 시에 드리는 번제와 관련된 기도 시간이다(하루에 두 차례 드리는 희생과 양의 번제). 유대인의 자료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하여 하루에 두 번 분향할 것을 명한다(참조, 출 30:7-8).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상징이였다.

1:11 “주의 사자가” 이 구는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천사(참조, 창 24:7,40; 출 23:20-23; 32:34; 민 22:22; 사 5:23; 삼상 24:16; 대상 21:15 이하; 숙 1:28)
2. 야웨께서 직접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방법(참조,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2,4; 13:21; 14:19; 사 2:1; 6:22-24; 13:3-23; 숙 3:1-2)

누가는 이 구를 1 항의 의미로 종종 사용했다(참조, 눅 1:11,13; 2:9; 행 5:19; 7:30; 8:26; 12:7,11,23; 10:3; 27:23). 신약은 “주의 천사”를 2 항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단, 행 18:26,29 이 성령을 가르키는 경우 이외에는).

▣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은 성소에 있었고 지성소의 장막 옆에 있었다. 이 금향단에 대한 내용이 출 30:1-10 에 나온다. 천사가 향단과 일곱 가지를 가진 촛대(메노라)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1:12 두려움은 영적인 세계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갖는 공통된 반응이다(참조, 창 15:1; 21:17; 출 14:13,31; 수 8:1; 10:8; 단 10:12,19; 계 1:17). 한편 늘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이다(참조, 1:13,30; 2:10).

1:13 “무서워하지 말라” 이 절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 부정의 불변화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이미 진행된 행동을 그치라는 의미이다. 영어의 “공포”는 이 헬라이어 단어(포보스)에서 왔다.

▣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라는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사가라가 속한 제사장 세계에서 분향을 함은 커다란 영예였다. 그것은 또한 개인적 간구를 드리는 특별한 기회로도 간주되었다.

▣ “요한” 히브리어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혹은 “야웨는 은혜로우시다”를 뜻한다(BDB 220).

1:14 요한의 출생은 사가라와 그의 가족에게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든 자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1:15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관용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왕국을 특별한 방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를 가리킨다. 그는 메시아의 약속된 선구자이다(참조, 사 40:3; 말 3:1; 4:5,6). 1:32 에서는 “큰”이라는 똑같은 용어가 예수께 대해 사용되었다.

▣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것은 강력한 이중 부정과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 사용된 경우이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온전히 드러진 특별한 헌신을 뜻하는 나사렛(참조, 민 6 장)인이 될 것이다. 술(발효)과 술취함(중독)에 대한 특별주제를 22:18 에서 보라.

▣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심을 확증하는 구약의 방법이였다(참조, 출 28:3; 31:3; 35:31,35, 여기서 이것은 성막짓기를 도운 사람들의 경우를 가리킨다). 성령이 이렇듯 특별히 임재하시고 활동하신 일은 400 년 동안 그쳐졌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새 시대가 왔다.

이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 및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약의 강력한 관용적 표현이 될 것이다(참조, 행 2:5; 3:10; 4:8,31; 9:17; 13:9; 엡 5:18). 12:12 의 특별주제: 인격이신 성령을 보라.

▣ “모태로부터” 이것은 임신 뿐 아니라 태아의 영적 발달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며 축복하심을 보여준다(참조, 1:41). 이 구는 램 1:4 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증과도 평행을 이룬다(참조, 사 49:1; 시 139:13-16).

1:16 요한의 주요한 사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이었다(참조, 막 1:15).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여 회복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말라기 이후에 활동한 최초의 참 선지자(즉, 성령으로 충만한)였다. 영적으로 굶주린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로 모여 들었다.

헬라이어 동사인 *επιστρέφω*는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하기 위해 70 인역에서 사용한 단어이다(습, 참조, 민 10:36; 신 30:2). 이 단어가 이러한 의미로서 눅 1:16,17; 22:32; 행 3:19; 9:35; 11:21; 14:15; 15:19; 26:18,20; 28:27 에서 사용되었다. 3:3 의 특별주제: 회개를 보라.

▣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것은 아마도 구약에서 합성하여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킬 것이다. 창 2:4,5,7,8 과 다른 여러 곳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1. 주-야웨(구속자와 언약을 세우시는 분, 참조, 창 3:14-15)
2. 하나님-엘로힘(참조자, 공급자, 모든 생명의 유지자, 참조, 창 1:1)

이것은 누가가 1:16,32,68 에서 사용한 용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1:17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절은 말 3:1 과 4:5-6 의 예언에 대한 암시이다.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앞서야 했다. 한편,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다(참조, 마 11:14; 17:10-13). 요한이 엘리야와 관련된 예언을 성취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서구의 문자적 방법을 성경에 적용함에 있어서 경고가 된다!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 엘리야의 영감을 받았고(참조, 왕상 19:16),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감절을 구했다(참조, 왕하 2:9). 어떤 의미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 감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한 일이다; 그는 말 3장과 4장에서 예언된 엘리야의 종말론적 사역을 연장하여 감당하였다.

**개역개정 1:18-20**

<sup>18</sup>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sup>19</sup>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sup>20</sup>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1:18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은 아브라함(참조, 창 15:6)과 마리아(참조, 1:34)가 한 대답과 매우 비슷하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명확히 아시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하는 모습으로 응답했다(참조, 마 12:38; 16:1; 막 8:11-12; 요 2:18; 6:30; 고전 1:22). 오늘날의 해석가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하여 심리적 분석을 할 수 없다!

**1:19 “가브리엘”** 이 히브리 이름은 “하나님의 강한 자,”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은 나의 전사이시다”(BDB 150)를 뜻한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다(참조, 1:26; 단 8:16; 9:21).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천사는 모두 둘이다: (1)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 사가랴, 마리아에게 전달했다 (2) 미가엘(BDB 567)은 국가를 지키는 천사장이다(참조, 단 10:13,21; 12:1; 유 9 절; 계 12:7).

▣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천사론은 이스라엘이 조로아스터교(페르시아의 종교)와 접촉을 하면서 랍비들의 신학과 관심을 받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성경은 이 영적 영역에 있어서 침묵하며 회미하게 말한다. 성경에서는 종종 은유적 표현 혹은 상징으로서 이를 제시한다. 구약에서 볼 때 야웨의 보좌 주위에 2 종류의 천사가 있다—스랍(참조, 사 6 장)과 그룹(참조, 겔 1 장 및 10 장).

가브리엘의 권위는 그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 및 보좌 가까이 있음에 기초한다. 그가 전한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즉, 복음)을 위해 주신 중요한 메시지이다.

**특별주제: 그룹**

- 가. 이는 천사적 존재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다. 이 특별한 종류의 천사는 성소를 지켰다(참조, 출 25:18-22; 왕상 8:6-7).
- 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 1. 아카디아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또는 “조정자”를 뜻한다
  - 2.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전차”와 “그룹이란 이름의 천사들”(참조, 겔 1 장, 10 장)과 관련된 단어유희일 것이다
  - 3.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빛나는 형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 다. 육체적 모습—이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설명 및 동물 모양을 가진 인간에 대한 고대 근동의 다양한 기록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다음과 연결시킨다:
  - 1. 메소포타미아의 날개 달린 황소
  - 2.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을 한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날개 달린 독수리 사자
  - 3. 두로 왕 히람의 왕좌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
  - 4. 이집트의 스프링크스와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 왕의 상아 궁전에서 발굴된 이와 비슷한 형상
- 라. 육체적 설명
  - 1. 그룹의 모습은 사 6 장의 스랍과 연결된다.
  - 2. 다른 모습의 예들
    - ㄱ. 얼굴의 수
      - (1) 둘—겔 41:18
      - (2) 넷—겔 1:6,10; 10:14,16,21,22
      - (3) 하나—계 4:7
    - ㄴ. 날개의 수
      - (1) 둘—왕상 6:24
      - (2) 넷—겔 1:6,11; 2:23; 10:7,8-21
      - (3) 여섯(사 6:2의 스랍과 같이)—계 4:8

3. 다른 특징
  - ㄱ. 인간의 손—겔 1:8; 10:8,21
  - ㄴ. 다리
    - (1) 무릎이 없이 곧음—겔 1:7
    - (2) 송아지 발—겔 1:7
4.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참조, *유대 고대사*, VIII.3:3).
- 마. 성경에서 이들이 언급되는 곳과 목적
  1.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 창 3:24(아마도 겔 28:14,16 에서 사탄에 대해 은유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임)
  2. 성막을 지키는 자
    - ㄱ. 언약케 위에; 출 25:18-20; 민 7:89; 삼상 4:4
    - ㄴ. 성막을 덮는 막 휘장에 그룹의 모양을 수놓음; 출 26:1,31; 36:8,35
  3. 솔로몬 성전을 지키는 자
    - ㄱ. 지성소 안에 둔 조각한 두 큰 그룹; 왕상 6:23-28; 8:6-7; 대하 3:10-14; 5:7-9
    - ㄴ. 내 외소 사방 벽에; 왕상 6:29,35; 대하 3:7
    - ㄷ. 늦 받침 수레들이 연결된 판 위에; 왕상 7:27-39
  4. 에스겔의 성전을 지키는 자
    - ㄱ. 벽과 문에 새겨짐; 겔 41:18-20,25
  5.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연결됨
    - ㄱ. 아마도 바람에 대한 은유; 삼하 22:11; 시 18:10; 104:3-4; 사 19:1
    - 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 시 80:1; 99:1; 사 37:16
    - ㄷ. 하나님의 움직이는 수레 보좌를 지키는 자; 겔 1:4-28; 10:3-22; 대상 28:18
  6. 헤롯 성전
    - ㄱ. 벽의 그림(즉, 지키는 자, 참조, 탈무드 “요마” 54a)
  7. 계시록의 보좌 장면(즉, 지키는 자, 참조, 계 4-5 장)

1:20 이 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믿지 않음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된다. 인간이 영적 영역에 속하는 것(천사)을 두려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거부의 결과는 중대하다.



NASB, NKJV                    “바라보라”  
 NRSV, TEV                    “그러나”  
 NJB                                “보라”

이것은 *이두라*는 헬라어로서 *에이테인*(“보다”)의 명령형이다. 누가는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문학적 기교로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누가의 저작과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1:21-23**

<sup>20</sup>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sup>21</sup>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sup>22</sup>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sup>23</sup>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1:21 “성전” 이 단어는 나오스이다. 문자적으로 이 용어는 “머물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1:22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는 민 6:24-26 에 있는 아론의 축복기도로써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다.

개역개정 1:24-25

<sup>24</sup>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sup>25</sup>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1:25 이것은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참조, 창 30:23). 1:7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26-38

<sup>26</sup>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sup>27</sup>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sup>28</sup>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sup>29</sup>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sup>30</sup>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sup>31</sup>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sup>32</sup>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sup>33</sup>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sup>34</sup>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sup>35</sup>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sup>36</sup>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sup>37</sup>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sup>38</sup>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1:26 “여섯째 달에” 이것은 엘리사벳의 임신기간을 나타낸다(참조, 36 절).

▣ “가브리엘” 1:19의 설명을 보라.

▣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갈릴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알려졌다(왕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이 비록 작지만 새 공동체를 형성하여 나사렛에 살았음이 분명하다). 구약이나 탈무드 혹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나사렛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나사렛이란 이름은 “순”(נצר, 참조, 사 11:1; 마 2:23)이란 메시아의 호칭과 관련을 갖는다. 4:34의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를 보라.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알잡아 보았다. 이것은 사 9:1의 예언과 관련이 있다.

1:27 “처녀” 70 인역의 *파쎌*에서 온 이 단어는 사 7:4에 있는 히브리 단어인 *알막*(BDB 761 II)의 경우처럼 애매하지는 않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 인간인 아버지가 없었음을 주장한다(참조, 34 절). 따라서 예수는 사 7:14과 창 3:15의 궁극적 성취이시다! 그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이시다(즉, 임마누엘). 누가의 자료가 사 7:14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놀랍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출생 기록을 제외하고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신약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어떤 설교나 서신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헬라/로마의 다신적 문화에서 오해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신들이 올림푸스에서 인간인 여인들을 정규적으로 취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믿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독특한 성경 진리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사 7:14에 대해 주석을 한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를 보라).

“처녀” 이곳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알막*(BDB 761)이다. 이 용어는 결혼적령기의 젊은 여인을 가리킨다(참조, 창 43:24; 출 2:8; 잠 30:19). 이 용어는 성적으로 성숙한 여자를 나타낸다. 처녀를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는 *베틀라*(BDB 143)로서 이사야서에서는 23:4,12; 37:22; 47:1; 62:5에서 사용되었다. 70 인역은 이 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헬라어의 “처녀”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들은 의미상 서로 겹치며, 이스라엘의 관습은 모든 젊은 여자들을 처녀로 여겼다. 한편 나는 이것이 두 번의 동정녀 출생이 아니라 오직 한 번의 동정녀 출생을 말한다고 믿는다. 한 징조로서 아하스의 시대에 정상적인 잉태가 있었고 예수님의 때에 처녀(“바로 그,” 맛소라 본문)가 잉태하는 일이 이루어 졌다(참조, 마 1:18-23; 눅 1:26-38). 이것은 예언의 다중 성취이다!

신약이 이 사실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있는 점(이 사실이 두 출생 기록[즉, 마 1:23; 눅 1:31,34]에만 나타나지 사도행전의 설교나 사도들의 서신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헬라-로마의 종교적 배경에서 신과 인간이 함께 동거하여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매우 흔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죄가 남성의 정자를 통해 전달된다고 교리를 세우기 위해 동정녀 출생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이것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족장들의 부인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자녀를 갖게 된 것과 비슷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해서도 일을 주관하신다! 더 놀라운 진리는 메시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신약에서 드러난다(즉, 요 1:1; 5:18; 10:33; 14:9-11; 빌 2:6)! 따라서 동정녀 출생의 필요가 여기에 있다!

▣ “약혼한”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제 1 세기의 유대인 문화에서 이 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 이혼 혹은 배우자의 죽음만이 이 일을 파기할 수 있었다. 12 세(*발 미즈바*)에 이르른 소녀는 일년 간의 약혼기간(*크투블* 4.4-5)을 가진 후에 결혼할 수 있었다. 구약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신 22:23-27 을 보라.

▣ “다윗의 자손 요셉” 요셉(BDB 415, “야웨께서 더하여 주시기를”의 뜻)과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었는지 혹은 요셉만 다윗의 자손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참조, 2:5). 삼하 7:12-16; 시 89:19 이하에 있는 약속과 예언을 고려할 때 이 질문은 중요하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 사이에 나타나는 상이점은 아마도 계보가 다름으로 인해 생긴 차이로 보인다. 많은 주석가들은 마리아가 왕의 후손임(예수의 실제적 계보)을 누가가 기록한 반면, 마태는 요셉이 왕의 후손임(예수께서 가지신 유대인의 법적 계보)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이러한 설명은 추정에 불과하다.

▣ “이름은 마리아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라’(즉, “쓰다”[BDB 600], 룿 1:20)라는 이름이다. 70 인역에서 이것은 마리암(BDB 599)으로 번역되었다. 누가는(모든 공관복음과 더불어) ‘마리아’라고 표기한다(참조, 1:27).

1:28

NASB, REB, NIV, NET “인사”  
 NRSV, NJB “기뻐하라”  
 TEV “평화”

이것은 제 1 세기의 헬라-로마 세계에서 사용한 일반적 “인사”(카이레인, 참조, 행 15:23; 약 1:1)이다. 이 용어의 문법적 형태는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기쁨으로 가득차다” 혹은 “계속 기뻐하다”이다. 이 인사는 수 9:9 에 있는 메시아와 관련된 본문을 반영한다.

70 인역은 이 구를 다음의 문맥에서 사용하였다

1. “두려워 말라”가 사용된 곳에서
2.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시기에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곳에서
  - ㄱ. 애 4:21-22
  - ㄴ. 습 3:14-20
  - ㄷ. 율 2:21-27
  - ㄹ. 수 9:9

천사가 전한 최초의 말은 *카이레*와 *케카이토메네*(**완료 수동 분사**)의 소리 유희로서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를 뜻한다. 이 단어들은 서로 다른 어원적 배경을 가졌지만 비슷한 소리를 가진다.

▣ “은혜를 받은 자여” 발게이트역은 “행복하기를, 마리아, 충만한 은혜의”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마리아를 은혜의 수여자가 아니라(NJB,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신 당신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이해한다면 좋은 번역이다.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데 그는 예수이시다(참조, 딤후 2:5). 한편 이 인사는 젊은 시골 처녀에게 매우 크고 독특한 영예였다(참조, 48 절). 이러한 인사는 그녀로 하여금 몹시 놀라게 했다(참조, 29 절).

▣ “너” 여러 고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A, C, D 사본)에는 “여인 가운데 축복을 받은 너”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나타난다. 이 내용은 필사자들(즉, 서기관들)이 내용을 조화시키려는 경향을 계속하여 가졌음을 드러낸다(42 절을 보라). UBS<sup>4</sup>의 본문 비평 위원회는 28 절에서 그 내용이 없는 것(⌘, B, L, W)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1:30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천사가 인간에게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이다(13 절의 설명을 보라).

▣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활동하심으로 어떤 사람의 삶에 개입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창 6:8; 18:3; 19:19; 30:27; 출 33:12,17; 행 7:46).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1:31 “네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혼외 임신을 인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다(참조, 신 22:24-25).

동정녀를 통해 출생한 아이는 창 3:15 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다(참조, 갈 4:4).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점진적 계시인 사 7:14 이나 창 3:15 이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제 요 1:1-14; 롬 1:3; 8:3; 빌 2:6-11 이 온전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죄를 범한 그가 반드시 죽게 된다”)와 하나님의 은혜(“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만나 구속과 사랑과 희생의 절정을 이룬다(참조, 사 52:13-53:12; 막 10:45; 고후 5:21)!

▣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어의 “여호수아”(BDB 221)에 상응하는 아람어이다. 둘 다 “야웨”와 “구원”의 합성어이다. 마태복음의 평행구절(마 1:21)에서 이 이름의 의미를 천사가 설명한다!

1:32-33 이 두 절은 이 사내 아이가 누구이며 또 그가 무엇을 할지 설명한다.

1.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참조, 미 5:4)
2.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참조, 삼하 7:14; 시 2:7)
3.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참조, 삼하 7:12; 시 132:11; 미 5:2)
4. 그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참조, 미 5:3-4)
5.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참조, 단 2:44; 7:14,18,27)

이 구절은 다음의 이유를 인해 마리아에게 충격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1. 유대인들이 성육신이 아니라 능력을 덧입혀주시기를 기대했기에(사사들의 경우와 같이)
2. 그녀의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가 되실 것이기에(참조, 사 9:7)
3. 그의 왕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기에(참조, 삼하 7:13,16; 사 9:7; 단 2:44; 7:14,18,27; 미 5:4)

▣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구약에서 왕은 “아들”로 불린다(참조, 삼하 7:14; 시 2:7). 1:76 에서 “지극히 높으신”에 대한 설명을 보라.

###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사용한 주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을 뜻한다. “아들” 또는 “내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뜻한다. 이 칭호는 신약에서 124 회 이상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칭하신 용어인 “인자”는 단 7:13-14 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은 다음의 특별한 네 그룹을 지칭할 수 있었다.

1. 천사들(대개 복수형, 참조, 창 6:2; 욥 1:6; 2:1)
2.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하 7:14; 시 2:7; 89:26-27)
3. 이스라엘 나라 전체(참조, 출 4:22-23; 신 14:1; 호 11:1; 말 2:10)
4.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참조, 시, 82:6)

예수님과 관련된 용법은 바로 두 번째 경우이다. 이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삼하 7 장; 시 2 편, 89 편과 관련이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종말론적 왕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사해사본에서는 이 호칭이 일반적으로 메시아적 의미를 나타낸다(예수와 복음서 사전 770 쪽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한 유대인의 두 묵시적 저작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적 호칭을 나타낸다(참조, 에스드라스 상 7:28; 13:32,37,52; 14:9 과 에녹 1 서 105:2).

이 호칭이 예수께 대해 사용될 때 그것의 신약적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그의 선재하심(참조, 요 1:1-18)
2. 그의 독특한(동정녀) 출생(참조, 마 1:23; 눅 1:31-35)
3. 그의 침례[세례](참조, 마 3:17; 막 1:11; 눅 3:22. 하늘에서의 소리는 시 2 편의 왕의 지위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을 하나로 연결한다)
4.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참조, 마 4:1-11; 막 1:12,13; 눅 4:1-13.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들됨을 의심하도록 혹은 적어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유혹받았다)
5.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귀신들(참조, 막 1:23-25; 눅 4:31-37,41; 막 3:11-12; 5:7)
  - ㄴ. 불신자들(참조, 마 27:43; 막 14:61; 요 19:7)
6. 제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마 14:33; 16:16
  - ㄴ. 요 1:34,49; 6:69; 11:27
7. 예수님 자신의 확인
  - ㄱ. 마 11:25-27
  - ㄴ. 요 10:36
8.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적 은유의 사용
  - ㄱ.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심
    - 1) 막 14:36
    - 2) 롬 8:15
    - 3) 갈 4:6
  - ㄴ. 자신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파테르)를 종종 사용하심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구약과 구약의 약속 및 그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이 여자를 취하여 그 결과 “타이탄” 혹은 “거인”들을 낳게 되었다는 이교도적 배경을 인하여 이 칭호의 사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

▣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인 사실은 중요한 메시아적 의미를 가진다(참조, 삼하 7 장; 시 89:3-4; 132:11; 사 9:6-7; 11:1; 렘 23:5; 33:15-18; 미 5:2). 이것은 복음서에서(마태와 누가의 계보, 참조, 눅 1:32,69; 2:4; 3:31; 행 2:29-31; 13:23; 마 15:22; 20:3; 21:9,15; 요 7:42); 바울서신에서(참조, 롬 1:3; 딤후 2:8); 요한계시록에서(참조, 3:7; 22:16) 반복되는 주제이다.

1: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아니다(참조, 계 20:1-6, 사실상 예수께서는 제한적인 메시아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어떤 언급이나 암시도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것이다(참조, 시 45:7; 93:2; 사 9:6,7; 단 7:14,18; 이 내용이 미 5:2-5 상반절에 암시되어 나타난다). 4:21 의 특별주제: “왕국”을 보라.

**특별주제: 영원한(헬라이어 관용어)**  
 헬라이어에서 “영원히”(unto the ages)라는 관용적인 구(참조, 눅 1:33; 롬 1:25; 11:36; 16:27; 갈 1:5; 딤후 1:17)는 히브리어의 *올람*을 나타낸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 319-321 쪽 및 이 주석의 특별주제: 영원히(올람)를 보라. 이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구로는 “영원히”(unto the age, 참조, 마 21:19[막 11:14]; 눅 1:55; 요 6:48; 8:35; 12:34; 13:8; 14:16; 고후 9:9) 및 “영원토록”(of the age of the ages, 참조, 엡 1 3:21)이 있다. “영원히”를 뜻하는 이 헬라 관용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들”(ages)이라는 용어는 **복수형**으로서 랍비들이 “장엄한 복수형”으로 일컫는 문법적 구조에 따른 회화적 의미를 가지거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러 “세대”(ages)의 개념으로서 “악한 세대,” “오는 세대,” “의의 세대”등의 의미를 가진다.

1:34  
 NASB, NRSV, TEV “나는 처녀이니”  
 NKJV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NJB “나는 남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뜻하며(참조, 렘 1:5) 성적 결합도 뜻한다(참조, 창 4:1; 삼상 1:19). 이 구는 70 인역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샛 11:39; 21:12).

1:35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이나 마리아의 성적 경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성령은 인간의 신체를 가지지 않으신다. “성령이 네 위에 임하시리니”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사이에 평행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이 문맥에서의 강조는 성령의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참조, 창 1:2).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에페르코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했다(참조, 행 1:8).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본문들을 다룸에 있어서 헬라인의 다신적 개념으로 이를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27 의 설명을 보라.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 진리가 사도행전의 설교나 신약의 서신서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에 덮다”(에피스키아오)는 구약의 *셰키나* 구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구름은 광야유랑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참조, 70 인역의 출 40:35). 똑같은 헬라어 용어가 변화산 위에서 핵심그룹에 속하는 사도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마 17:5; 막 7:9; 눅 9:34). 이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었다.

▣  
 NASB, TEV “거룩한 아이”  
 NKJV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  
 NRSV “태어나실 그 아이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NJB “그 아이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영어성경의 번역을 통해 명확히 보게 되듯이 헬라어 본문에 문제가 나타난다. 문자적으로 이 구는 “또한 거룩하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인하여”이다. 어떤 고대 헬라어 사본은 “태어 나게 되는”(현재 수동)이라는 **분사**에 “너에게서 (혹은 “~로부터”)(즉, 마리아, 참조, C\* 사본)를 추가시킨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1. 앞의 두 절에 “네”(you)가 있다
2. 추가된 내용은 마태복음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마 1:20)
3. 이것은 기독교론에 대한 초기의 이단을 막기 위해 필사자들이 신학적 의도적으로 추가시킨 몇 가지 경우에 속한다(참조, 바르트 D. 에흐만, *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139 쪽)

이것은 “죄 없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행 3:14; 7:12; 22:14).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참조, 행 4:27).

거룩함은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평행을 이룬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거룩한**

**I. 구약의 용법**

- 가. 이 용어(*카도쉬*, BDB 872)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가나안어에서 왔을 것이다. 이 단어의 일부 어근(즉, *카드*)이 “나누다”를 뜻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함”(가나안 문화로부터, 참조, 신 7:6; 14:2,21; 26:19)을 뜻하는 보편적인 정의의 기원이다.
- 나. 이것은 제사를 위한 물건, 장소, 시간, 사람과 관련이 있다.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자주 사용되었다.
- 다. 예언서 이전 시기에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리 강조되지 않았던 사람과 관련된 용법이 예언서(특히 이사야서 호세아서)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참조, 사 6:3).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의 백성은 거룩하다(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언약을 순종한다면).
- 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언약, 정의, 본질적 성품과 같은 신학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하였고 반역적인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갈등이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글이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 112-113 쪽에 있다.

**II. 신약의 용법**

- 가.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인의 사상을 가졌지만(누가만 제외하고는) 코이네 헬라어(즉, 70 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어휘에 영향을 끼친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었지 전통적 헬라어 문학, 사상, 또는 종교가 아니었다.
- 나.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참조, 눅 1:35; 4:34; 행 3:14; 4:27,30). 그는 거룩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다(참조, 행 3:14; 22:14).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거룩하시다(참조, 요 8:46; 고후 5:21; 히 4:15; 7:26; 뱀전 1:19; 2:22; 요일 3:5).
-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레 11:44-45; 19:2; 20:7,26; 마 5:48; 뱀전 1:16). 예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롬 8:28-29; 고후 3:18; 갈 4:19; 엡 1:4; 살전 3:13; 4:3; 뱀전 1:15).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거룩함) 섬기도록 구원받았다.

▣ “하나님의 아들” 1:32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1: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내용은 36 절을 가리키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리킨다(26-35 절).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임신에 개입하심을 확인해 준다(참조, 70 인역의 창 18:14). 이 구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심을 나타낸다(참조, 욥 42:2; 렘 32:17; 슥 8:6). 이것은 특별히 이삭의 출생과 관련을 가지는 창 18:14 을 암시한다(이것도 초자연적 출생이지만 동정녀를 통한 출생은 아니다). 이 내용은 막 10:27 과 눅 18:27 에서 비슷한 사실을 확증한다.

1:38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서 “주”(키리오스는 아들을 반영한다)라는 용어는 분명히 야웨를 가리킨다. 그러나 1:43 에서 엘리사벳은 같은 용어를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43 절에 있는 자세한 설명과 1:6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회귀법으로서 기도 혹은 소원의 표현이다. 이 어린 소녀가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드러내었는가! 그녀가 가진 것은 죄 없음이 아니라 커다란 믿음이었다(참조, 45 절). 이절은 하나님의 주권 및 인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즉, “만일 ...그때에는”) 사이에 신학적 균형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협력했다!

**개역개정 1:39-45**

<sup>39</sup>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sup>40</sup>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sup>41</sup>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sup>42</sup>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sup>43</sup>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sup>44</sup>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sup>45</sup>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1:39 스가라와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인근에서 살았다.

1:41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일은 임신 6 개월 때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시점이 매우 놀랍다! 믿음의 눈으로라야 일상적인 일 가운데 나타난 커다란 의미를 보게 된다. 랍비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영적인 일에 응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참조, 창 25:22). 요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신이 된 자로서 예수의 임재하심 앞에 있었다(두 명 모두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사건이 오순절(사도행전에서 이 일이 자주 일어남) 이전에 일어났음을 주목하라. 또한 엘리사벳이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응답함은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초자연적인 일에 속한다.

1:42 “**복이 있으며 . . .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시 1:1(동사가 사용되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감탄적인 형태를 가진다(히브리어와 아람어). 둘 다 **완료 수동 분사**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인해 복을 받았다. 세계는 그녀의 아기를 인해 복을 받았다(참조, 창 3:15).

1:43 “**내 주**” 엘리사벳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인 “주”(참조, 출 3:14; 시 110:1)를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에게 사용하고 있다(참조, 2:14). 성령의 충만함이 그녀의 눈을 밝히 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눅 2:26 에서는 시므온에게, 눅 2:36-38 에서는 안나에게, 요 1:49 에서는 나다나엘에게, 마 16:16 에서는 베드로에게 행하셨다.

야웨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주”를 45 절과 46-47 절(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에서 엘리사벳이 사용하고 있다. 후기에 속하는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발음하기를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이름 대신에 아돈(남편, 주인, 주, 주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영어 성경과 같은 후기의 역본에 영향을 미쳐서 야웨 대신에 주(LORD)로 아돈 대신에 주(Lord)로 번역하게 되었다. 1:68 의 특별주제를 보라.

1:45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는 42 절(2 회)에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인 *유로케오*와는 다른 단어(*마카리아*)이다. 42 절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용되었고(한 번만 마리아에게 사용됨, 1:42), 45 절에 있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눅 6:20-23; 마 5:3-11).

▣ “**믿은 그 여자에게**” 이것은 사가랴가 의심을 가져 병어리가 된 일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것은 모든 복음서의 전도적 목적을 드러내는 기능을 갖는다(참조, 요 20:30-31). 누가는 자신의 이방인 독자/청중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게 되기를 원했다!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에서는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 및 사람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구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가. 개인과 공동체

나.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가. 아브라함과 그의 씨

나.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시험이 그들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헌신된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아멘*(BDB 52)

1. 동사

ㄱ. *칼* 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에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ㄴ. *니팔* 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1) 사람, 사 8:2; 53:1; 렘 40:14

(2) 물건, 사 22:23

(3) 하나님, 신 7:9,12; 사 49:7; 렘 42:5

ㄷ. *히필* 형 - 굳게 서다, 믿다, 신뢰하다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 창 15:6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다, 출 4:31; 14:31(신 1:32 에 반대의 내용이 나옴)

- (3)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 출 19:9; 시 106:12,24
  - (4)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 7:9
  - (5) 누구든지 그것/그를 믿는 자는, 사 28:16
  - (6)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믿다, 사 43:10-12
  - 2. **명사(남성형)** - 신실함(즉, 신 32:20; 사 25:1; 26:2)
  - 3. **부사** -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하여, 그렇게 되기를(참조, 출 27:15-26; 왕상 1:36; 대상 16:36; 사 65:16; 렘 11:5; 28:6). 이 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예식적 용법을 이룬다.
  - 나. **에펠(BDB 54) 여성형 명사**, 단단함, 신실함, 진리
    - 1. 사람, 사 10:20; 42:3; 48:1
    - 2. 하나님, 출 34:6; 시 117:2; 사 38:18,19; 61:8
    - 3. 진리, 신 32:4; 왕상 22:16; 시 33:4; 98:3; 100:5; 119:30; 렘 9:4; 슥 8:16
  - 다. **에두나(BDB 53)**, 굳음, 견실함, 충성됨
    - 1. 손, 출 17:12
    - 2. 시간, 사 33:6
    - 3. 인간, 렘 5:3; 7:28; 9:2
    - 4. 하나님, 시 40:11; 88:12; 89:2,3,6,9; 119:138
- III. 바울이 사용한 이 구약 개념
-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행 9 장; 22 장; 26 장).
  - 나. 그는 *아편*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가지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 1. 창 15:6 - 아브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창 12 장)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져 왔다(창 12-22 장). 바울은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 2. 사 28:16 - 믿는(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견고히 머릿돌로 세우신 이를)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결코 보지 않는다
      - ㄱ. 롬 9:33,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실망한다”
      - ㄴ. 롬 10:11, 위의 내용과 같음
    - 3. 함 2:4 -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 7:28). 바울은 이 본문을 롬 1:17 과 갈 3:11 에서 사용한다(또한 히 10:38 의 설명을 보라).
- IV.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의 개념
- 가. 베드로는 단어를 합성하고 있다
    - 1. 사 8:14 - 뱀전 2:8(걸려 넘어지는 돌)
    - 2. 사 28:16 - 뱀전 2:6(모퉁이돌)
    - 3. 시 111:22 - 뱀전 2:7(건축가들이 버린 돌)
  - 나. 그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독특한 표현인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다음에서 취하였다
    - 1. 신 10:15; 사 43:21
    - 2. 사 61:6; 66:21
    - 3. 출 19:6; 신 7:6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 V.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개념
- 가. 이 단어의 어원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피스투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초기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 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 2. **엔**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 3. **에피**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편전 1:16; 뱀전 2:6
-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성경적인 믿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개인적 관계(최초의 믿음)
2. 성경의 진리를 확인함(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3. 그 진리에 대한 적합한 순종(매일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천국행 표나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참조, 창 1:26-27)과 창조에 대한 목적이다. “친밀함”이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지위가 아니라 교제를 바라신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녀들이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즉, 거룩함, 참조, 레 19:2; 마 5:48; 뱀전 1:15-16). 타락(참조, 창 3 장)은 적합하게 응답해야 할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참조, 겔 36:27-38).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세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고(히브리어와 헬라어적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에 있어서 인간의 신실함은 그 결과이지(신약) 그 기초가 아니다(구약).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 믿지 않던 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특별주제: 믿음(피스티스[명사], 피스투오[동사], 피스토스[형용사])**

- 가.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참조, 히 11:1,6).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설교의 주제였다(참조, 막 1:15). 새언약의 두 가지 요구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다(참조, 1:15; 행 3:16,19; 20:21).
- 나. 이 단어의 어원
1.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충성, 충실성, 혹은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며, 우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2. 이것은 히브리어(*에문, 에무나*)로서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을 뜻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진리의 내용), 도덕적 삶(생활양식), 그분에 대한 우선적이고 개인적(그를 환영함)이며 의지적인 헌신(결단)을 말한다.
- 다. 구약에서의 용법
-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아들을 낳고 후손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창 12:2; 15:2-5; 17:4-8; 18:14).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에 응답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3 년이나 걸렸던 약속에 대해 그는 아직 의심과 어려움을 가졌다. 흠이 있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일하신다(참조, 마 17:20).
- 라. 신약에서의 용법
-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피스투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명사형**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믿음은 초기 단계에 나타내는 응답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 마.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2. *엔*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3. *에피*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후전 1:16; 뱀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 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완성” 혹은 “성취”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테레이오시스*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다.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신자가 될 자들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만 한다.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의 실제에 적합하였다(참조, 히 11 장).

**개역개정 1:46-55**

<sup>46</sup>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sup>47</sup>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sup>48</sup>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sup>49</sup>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sup>50</sup>궁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sup>51</sup>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고 <sup>52</sup>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sup>53</sup>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sup>54</sup>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sup>55</sup>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1:46-47 “영혼... 마음”** 이 두 용어(*프쉬케*와 *프뉴마*)는 평행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둘은 동의어적이다(“주”와 “나의 구주 하나님”도 동의어의 관계이다). 인간은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구성된 자이다(참조, 창 2:7). 이것이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애 내가 쓴 주석에서 살전 5:23 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www.freebiblecommentary.org):

“이것은 인간의 이분법적 존재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구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이중적 관계를 말한다. *네페쉬*라는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에서 인간과 동물에게 사용되었지만 *영(루아흐)*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삼분법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본문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로 구성된 존재임을 말한다(참조, 창 2:7). 인간의 존재가 각각 이분법적, 삼분법적, 혹은 단일적 존재임으로 말하는 이론들에 대한 좋은 요약이 다음의 자료에 나온다. 밀라드 J. 에릭슨의 *그리스도인의 신학*(제 2 판) 538-557 쪽; 프랑크 스택의 *인간 존재의 다극성에 대한 성경의 관점*(133 쪽) 및 W. T. 코너의 *계시와 하나님* 50-51 쪽을 보라”

▣ **“찬양하며... 기뻐하였음은”** 처음 단어는 **현재형**이고 두 번째 단어는 **부정과거**이다. 앞의 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를 가리키며, 뒤의 구는 야웨께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나타낸다.

**1:46 “마리아”** 원래 본문에서 (1) 마리아 (2) 엘리사벳 (3) 아무 이름도 없은 가운데 어떤 이름이 있었을가에 대하여 흥미로운 논의가 있다. 모든 헬라이어 사본은 “마리아”(두 가지 종류의 철자로 됨)라는 이름을 제시하지만 3 가지의 라틴역 및 오리겐의 설명에 대한 이레니우스와 제롬의 언급은 논란을 가져 왔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브루스 M. 메즈거의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 130-131 쪽에 있다.

**1:47 “하나님 내 구주”** 마리아는 구주가 자신에게 필요함을 인식했다!

주님(퀴리오스)이 야웨를 가리키는지 혹은 메시아를 가르키는지에 대한 애매성 때문에, 나는 신약 전반에서 이 “의도적”인 모호함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질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통일시킨다. 3:22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성부를 “구주”로 세 번 부른다(참조, 딤후 1:3; 2:10; 3:4). 또한 그는 모든 문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른다(참조, 딤후 1:4; 2:13; 3:6).

**1:48 “비천함을”** 하나님은 젊은 시골 처녀가 메시아의 모친이 되게 하셨다(참조, 창 3:15). 이 일이 하나님처럼 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구속을 가져오실 것이다!

▣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젊은 친척을 이미 두 번 축복했다(참조, 42,45 절). 그녀의 아들이 갖는 중요성을 인해 이 일이 역사를 통해 반복될 것이다.

**1:49 “능하신 이가”** 이것은 족장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인 *엘 샨다이*이다(참조, 출 6:3). 1:6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1:35 의 특별주제를 보라.

**1:50 “궁홀하심이...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것은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적 성실함이 바뀌지 않음을 나타내는 구약의 암시이다(참조, 신 5:10; 7:9; 시 103:17).

▣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계속하여 두려워함을 뜻한다(행 9:31 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롬 13:7 에서는 정부 관리에게; 뱀전 2:18 에서는 노예의 주인에 대하여).

1: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하나님은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시 98:1; 118:15-16; 사 51:9; 52:10). 성경은 종종 예수께서 성부의 우편에 계신 것으로 말한다(참조, 마 22:44; 26:64; 눅 20:42; 22:69; 행 2:33,34; 5:31; 7:55,56).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 가. 신체의 일부분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속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겔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겔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4,13-21; 14:19; 삿 2:1; 6:22-23; 13:3-22
  -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 다. 인간의 감정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삿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 라. 가족적 용어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램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젓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 II. 이러한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관계를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참조, 요 1:1-18).

▣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고” 이것은 구약(70 인역)에 기록된 야웨의 행하심을 가리킨다(참조, 민 10:35; 신 30:1,3; 렘 51:20-22).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매우 다르다(참조, 사 55:8-9).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약하고 힘 없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참조, 눅 10:21).

“교만한”(휘페르예파노스)이라는 헬라어는 이사야서에서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70 인역 1:25; 2:12; 13:11; 29:30). 아래의 특별주제: 마음을 보라.

**특별주제: 마음**

헬라어 *카르디아*는 70 인역과 신약에서 히브리어 *렘*(BDB 523)에 상응하는 단어이다. 이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참조, 바우어, 아른트, 강리치, 땡커의 *헬라어-영어 사전* 403-404 쪽):

1. 인간에 대한 은유로서 육체적 삶의 중심(참조, 행 14:17; 고후 3:2-3; 약 5:5)
2. 영적(도덕적) 삶의 중심
  - ㄱ.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참조, 눅 16:15; 롬 8:27; 고전 14:25; 살전 2:4; 계 2:23)
  - ㄴ. 인간의 영적 삶을 나타냄(참조, 마 15:18-19; 18:35; 롬 6:17; 딤후 2:22; 벰전 1:22)
3. 생각의 중심(즉, 지력, 참조 마 13:15; 24:48; 행 7:23; 16:14; 28:27; 롬 1:21; 10:6; 16:18; 고후 4:6; 엡 1:18; 4:18; 약 1:26; 벰후 1:19; 계 18:7; 마음은 고후 3:14-15 과 빌 4:7 에서 생각과 동의어임)
4. 의지의 중심(즉, 뜻, 참조, 행 5:4; 11:23; 고후 4:5; 7:37; 고후 9:7)
5. 감정의 중심(참조, 마 5:28; 행 2:26,37; 7:54; 21:13; 롬 1:24; 고후 2:4; 7:3; 엡 6:22; 빌 1:7)
6. 성령이 일하시는 독특한 영역(참조, 롬 5:5; 고후 1:22; 갈 4:6[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 엡 3:17])
7. 마음은 은유적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7, 신 6:5 의 인용). 생각, 동기, 행동을 말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구약의 몇가지 특이한 용법은 다음과 같다:
  - ㄱ. 창 6:6; 8:21, “하나님이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 (또한 호세아 11:8-9 를 보라)
  - ㄴ. 신 4:29; 6:5,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 ㄷ. 신 10:16,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롬 2:29
  - ㄹ. 겔 18:31-32, “새 마음”
  - ㅁ. 겔 36:26, “새 마음” 대 “들로 된 마음”

1:52 이것은 51 절 및 53 절과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거꾸로 된” 약속으로 알려졌다. 야웨께서는 교만하고 힘있는 자들을을 낮추실 것이지만 비천한 자는 높이실 것이다!

1:53 이것은 시 107:9 의 인용이다. 이같은 개념이 시 146:7-9 에 나온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참조, 사 55:8-11).

1:54 “그 중 이스라엘을” “중”이라는 용어는 원래 구약에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존칭이었다(예,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용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집합적 개념을 갖게 되었는데, 특히 이사야서에 있는 중의 노래에서 그러하다(참조, 41:8-9; 42:18-19; 43:10). 이러한 집합적 의미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인격화 되었다(즉, 사 42:1; 52:13-53:12 에 나오는 메시아).

▣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실하셨으며 또 성실하시다. 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참조, 말 3:6)인 공홀하심과 언약적 사랑 때문이다(히브리어의 *헤세드*).

1:55 이 절은 메시아가 나올 가족과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강조한다(참조, 창 12, 15, 17 장).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성취를 이루셨다(참조, 롬 2:28-20; 갈 3:15-19).

▣ “영원히” 1:23 의 특별주제: “영원히”를 뜻하는 헬라어의 관용적 표현을 보라.

**개역개정 1:56**

<sup>56</sup>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56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일은 그녀로 하여금 조롱에 직면하게 했음이 분명하다. 믿음에는 항상 비용이 따른다!

개역개정 1:57-58

<sup>57</sup>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sup>58</sup>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1:57 유대인들은 자녀의 출생 특히 아들을 낳게 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다.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개역개정 1:59-66

<sup>59</sup>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sup>60</sup>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sup>61</sup>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sup>62</sup>그의 아버지께 묻되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sup>63</sup>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sup>64</sup>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sup>65</sup>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sup>66</sup>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1:59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헬라의 아가해에서 온)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모든 민족이 이 일을 행했다. 많은 문화에서는 이 일을 남성이 되는 의식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언약백성이 되는 의식이었다. 이 일은 믿음으로써 형성된 야웨와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표였다(창 17:9-14). 모든 족장이 자기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다(즉,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제사장으로서). 로버트 거들스톤(*구약의 동의어* 214 쪽에서)은 할례의식은 할례시 피를 흘리는 일과 관련이 있는 예식이라고 말한다. 피는 언약의 형성(참조, 창 15:17), 언약을 파기함(참조, 창 2:17), 언약에 따른 구속(참조, 사 53 장)과 관련을 가진다.

팔 일은 유대인 남자의 음경 표피를 잘라내도록 정해놓은 때였다(참조, 레 12:3; 창 17:12). 그들은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제 팔 일이 안식일인 경우에도 이 예식을 거행했다.

1:60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이름을 짓는 일은 대개 아버지가 했지만 예수님(참조, 마 1:21)과 요한(참조, 1:13)의 경우에는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그들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1:63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썬우마조*라는 헬라어로서 누가가 자주 사용한 단어이다(참조, 1:21,63; 2:18,33; 4:22; 7:9; 8:25; 9:43; 11:13,38; 20:26; 24:12,41; 행 2:7; 3:12; 4:13; 7:31; 13:41). 누가의 어휘는 70 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이 단어는 여러 구약 본문에서도 사용되었다(참조, 창 19:21; 레 19:25; 26:32; 신 10:17; 28:50; 욥 41:4; 단 8:27). 이 단어의 **명사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었다(참조, 출 3:20; 신 34:12; 샅 6:13; 대상 16:9).

1:65 “두려워하고” 이 이웃들과 가족과 친구들이 이 아이의 임신과 출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신적 목적(참조, 66 절)을 인식했다. 이 두려움(더 나은 단어는 “경외감,” 참조, NJB)은 초자연적 일 앞에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반응이다.

1:66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는 이러한 개인적 설명을 여러 곳에서 한다(참조, 2:50; 3:15; 7:39; 16:14; 20:20; 23:12).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및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의 계획에 있어서 일원이 되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셈족의 관용어이다(참조, 대상 28:19; 겔 1:3). 유추적으로 이것은 모든 신자의 마음가짐과 세계관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1:51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67-79

<sup>67</sup>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sup>68</sup>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sup>69</sup>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sup>70</sup>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sup>71</sup>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sup>72</sup>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sup>73</sup>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sup>74</sup>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sup>75</sup>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sup>76</sup>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sup>77</sup>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sup>78</sup>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돌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sup>79</sup>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1:67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은 오순절 사건 이전에 있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낸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차이점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의 인격에 대한 신약의 관점에 기인하는 것이다(12:12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언하여 이르되”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

- I. 이것은 구약의 예언(BDB 611)을 야웨로부터 받은 영감된 계시로 보는 랍비들의 견해와 같은 것이 아니다(참조, 행 3:18,21; 롬 16:26). 선지자들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
  - 가. 모세는 선지자로 불렸다(참조, 신 18:15-21).
  - 나. 역사서(여호수아 - 열왕기서[룻기는 제외])는 “전기 예언서”로 불렸다(참조, 행 3:24).
  -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선지자들은 대체사장의 자리를 대신했다(참조, 이사야 - 말라기).
  - 라. 히브리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이다(참조, 마 5:17; 22:40; 눅 16:16; 24:25,27; 롬 3:21).
  
- II. 신약에서 이 개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 가. 구약의 선지자와 그들이 전한 영감받은 메시지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 5:12; 11:13; 13:14; 롬 1:2)
  - 나. 공동체에 대한 것보다 개인에게 준 메시지를 가리킨다(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11:9; 14:5; 21:26; 눅 1:76)과 예수를 가리킨다(참조, 마 13:57; 21:11,46; 눅 4:24; 7:16; 13:33; 24:19). 예수님을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으로 나타내었다(참조, 마 11:9; 12:41; 눅 7:26)
  - 라. 신약에서 언급한 다른 선지자들
    1.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초기 삶(즉, 마리아의 기억)
      - ㄱ. 엘리사벳(참조, 눅 1:41-42)
      - ㄴ. 사가랴(참조, 눅 1:67-79)
      - ㄷ. 시므온(참조, 눅 2:25-35)
      - ㄹ. 안나(참조, 눅 2:36)
    2. 아이러니한 예고(참조, 가야바, 요 11:51)
  - 마. 복음을 전한 사람을 가리킨다(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대한 목록은 고전 12:28-29; 엡 4:11에 나온다)
  - 바.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은사로서 언급된다(참조, 마 23:34; 행 13:1; 15:32; 롬 12:6; 고전 12:10,28-29; 13:2; 엡 4:11). 어떤 때는 이것이 여자에게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눅 2:36; 행 2:17; 21:9; 고전 11:4-5)
  - 사. 묵시적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리킨다(참조, 계 1:3; 22:7,10,18,19)
  
- III. 신약의 선지자
  - 가.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것(즉, 성경)과 같은 의미에서 영감받은 계시를 준 것이 아니었다. 행 6:7; 13:8; 14:22; 갈 1:23; 3:23; 6:10; 빌 1:27; 유다서 3 절과 20 절에서 사용된 “믿음”(즉, 완성된 복음이라는 의미)이라는 표현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가능하다.
 

이 개념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완전한 표현이 사용된 유다서 3 절에서 분명하게 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 교리, 개념, 세계관과 관련된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렇듯 “단번에”를 통해 나타난 강조는 신학적으로 영감을 신약 이후에 쓰여진 책이나 성경 이외의 책들에 대하여가 아니라, 신약의 기록으로 이를 제한시키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 애매하고, 확실치 않고, 불분명한 내용이 신약에 많이 있음에도, 믿음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신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 이 개념은 “계시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1.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계시)
    2.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택하사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3.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 기록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이는 완벽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과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정도이다(조명)

요점은 영감이 성경의 저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사실에 있다. 성경 이외에 권위를 갖는 기록, 비전, 계시가 없다. 정경은 마쳐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합하게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는 성경 저자들이 일치하고 있음에 반해 진실되고 경건한 신자들은 불일치하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어떤 저자나 강사도 성경의 저자들이 누렸던 정도의 신적 인도함을 갖지 못한다.

- 나.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하다.
  1. 미래 사건의 예언(참조, 바울, 행 27:22; 아가보, 행 11:27-28; 21:10-11;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 행 20:23)
  2. 심판을 선언함(참조, 바울, 행 13:11; 28:25-28)
  3. 상징적 행동으로 생동감있게 묘사된 사건(참조, 아가보, 행 21:11)
- 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어떤 때는 예언적 방법으로 전했다(참조, 행 11:27-28; 20:23; 21:10-11). 하지만 이 방법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기본적으로 복음전함을 뜻한다(참조, 14:24, 39).
- 라.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각각의 새 상황, 문화, 시대에 적합한 실제적 적용을 하도록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다(참조, 고전 14:3).
- 마. 예언은 바울이 세운 초기의 교회에서 활발하게 행해졌고(참조, 고전 11:4-5; 12:28,29; 13:29; 14:1,3, 4,5,6,22,24,29,31,32,37,39; 엡 2:20; 3:5; 4:11; 살전 5:20), *디다캐*(1세기 말이나 2세기 경에 쓰여진 책, 정확한 연대는 불확실함)와 제 2-3 세기에 북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몬타니즘에서 언급된다.

IV. 신약의 은사는 그쳐졌는가?

- 가. 이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은사의 목적을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확히 하게 된다. 은사는 초기에 행해진 복음 설교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교회가 잃어버려진 세상과 자신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함이었는가?
- 나. 이 대답을 위해서 교회사를 고찰할 것인가 아니면 신약성경 자체를 살펴볼 것인가? 신약에는 영적은사가 일시적이었다는 언급이 없다.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고전 13:8-13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오용하는 것이다.
- 다. 나는 교회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이 권위를 갖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은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편 나는 문화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어떤 구절은 명백히 다른 문화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예, 거룩한 입맞춤,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 등). 만일 문화가 본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왜 교회는 안되는가?
- 라. 이것은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어떤 신자들은 은사가 “그쳤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해석적 문제와 같이 이 영역에서도 신자의 생각이 열쇠가 된다. 신약의 내용이 애매하고 문화적 영향을 나타낸다. 어떤 본문이 문화/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어떤 본문이 영원한 내용인지는 결정해야 할 어려운 사항이다(참조, 피와 스투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4-19, 68-77 쪽). 이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롬 14:1-15:13과 고전 8-10장에 나오는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1. 각 신자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
  2. 다른 신자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의 이해에 따라 견도록 각 신자가 반드시 서로 허용해야만 한다. 성경의 영역에 반드시 관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
- 마.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자면,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하는 삶이지 완전한 신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확한 이해야 완전한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의 사귄다.

1:68-70 침례(세례)요한의 부친인 스가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린다. 이 문맥에서 그는 76-77 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아들(즉, 요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 단락을 이루는 71-75 절과 78-79 절은 야웨께서 자신의 메시아를 보내사 구원하심을 인해 야웨께 드리는 감사의 시이다.

1:68 “찬송하리로다” 1:45의 설명을 보라.

▣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구는 하나님께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한 두 이름으로 구성되었다.

1. “주”는 출 3:14의 야웨를 나타낸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속자,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심’을 뜻한다.
2.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 이름인 *엘로힘*을 나타낸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공급자 및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유지자’되심을 뜻한다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참조, 창 2:4)은 아브라함 및 그의 자손에 대한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다(참조, 창 12, 15, 17 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 (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 이다(라스 샴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낸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 ㅁ. 엘-베릿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삿 9:46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 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램 32:18
  - ㄱ. “값으심,” 램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 가 반복됨)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램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 (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벨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ἕψιστοστ*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 다. **엘로힘(복수형)** 및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BDB 43, KB 52)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 이름은 **엘**의 동의어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 ㄱ. 벨기세렉,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2
    -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8.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알지못,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 1:2에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말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행자였다(참조, 요 1:3,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을 오직 **엘 사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 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시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필** 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의 **구약 문맥 개설**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1) **야**(예, 할렐루-야, BDB 219, 참조, 출 15:2; 17:16; 시 89:9; 104:35)

- (2) *야후*(이름의 끝자인 “야,” 예, 이사야)  
 (3) *요*(이름의 첫 자인 “요,” 예, 여호수아 혹은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야돈* 혹은 *야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LORD)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ㅁ. *야웨-살롬*(야웨는 평화이다, BDB 217 & 1022), 사 6:24
    - ㅂ. *야웨-쓰바웃*(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ㅅ. *야웨-로이*(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ㅇ. *야웨-치드케누*(야웨는 우리의 의이다, BDB 217 & 841), 렘 23:6
    - ㅈ. *야웨-삼마*(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 “그 백성을 돌보사”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야웨께서 이러한 방문을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속량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 “속량”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I. 구약

-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두 가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이나 친척(참조, 룖 4:15; 사 29:22)에 대한 권리를 되돌리는 이 문화적 일이 신학적으로 사용되어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욥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렘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의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를 이룬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 나. 신학적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의 상태가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욥 19:25-27; 33:28)
  3. 반드시 어떤 사람이 중재자로서 또는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 역할을 한다(즉, *고엘*, BDB 145).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인 구속자/보수자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고 구속이 성취되었다!

II. 신약

가. 여러 단어가 이 신학적 개념을 나타낸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뱀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함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 참조, 엡 2:14-16; 골 2:14)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참조, 막 10:45; 고후 5:21)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이 지지 않은 죄의 빛을 갚으심으로(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신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시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강력한 단어이다.
  - ㄴ. *뤼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뱀전 1:18-19
  - ㄷ. *뤼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라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께서 단 번에 드리신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포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5. *안탈뤼트론*(참조, 딤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 놓임을 받게 됨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딤후 2:14 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제물이시다 (참조, 요 1:29; 3:16-17; 4:42; 딤후 2:4; 4:10; 딤후 2:11; 뱀후 3:9; 요일 2:2; 4:14).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게 인간이 속박을 받은은 구약의 모세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참조, 롬 6 장).
4. 함축적으로 말하면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시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및 완전한 섭리와 화목을 이룸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받았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구속은 우리 몸의 부활 및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을 포함한다. 우리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그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매우 특별한 차원에 속하는 면도 지니셨다. 고전 15:12-19 와 고전 15:35-38 에 나타난 역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육체에 속한 땅의 몸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 몸이 있다. 예수께서는 둘 다 가지셨다!

**1:69 “구원의 뿔을”** 구약에서 짐승의 뿔은 그 짐승의 힘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참조, 신 33:17; 시 92:10; 슥 1:18-21). 이것은 악한 자(참조, 시 75:10)나 의인(참조, 삼상 2:1; 시 75:10; 89:17; 148:14)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 문화적 관용어는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갖는 효과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관용어가 되었다(참조, 출 27:2; 30:10; 왕상 1:50; 2:28). 이 개념의 이러한 발전에 기초하여 뿔은 우리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었다(참조, 삼하 22:2; 시 18:2).

▣ **“그 중 다윗의 집에”** 이 구는 이와 관련이 있는 구약의 여러 의미에 대해 말한다.

1. 핵심을 이루는 단어는 “집”이며 이와 관련이 있는 핵심적 문맥은 삼하 7 장이다. 시 132:17 과 사 11:1 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에 기초한다. 메시아께서는 유다 지파(참조, 창 49 장)에 속한 이새의 가족(참조, 마 1:1; 눅 1:32; 요 7:42; 행 13:23; 롬 1:3; 계 22:16)에서 나오신다.
2. 구약에서 “중”은 영예로운 호칭이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사용되었다.

**1:70** 이 절에 나오는 “주”는 67 절에 있는 “성령”을 가리킨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영감과 계시로 인한 것임을 확인해주는 신약의 구절이다(참조, 롬 1:2; 3:21; 16:26). 이것은 또한 성령의 인격성을 확인해주는 구절이다. 밀라드 J. 에릭슨의 *그리스도인의 신학*, 제 2 판, 875-878 쪽을 보라. 12: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NASB, NRSV  
NKJV  
TEV  
NJB

“예로부터”  
“세계가 시작한 이래 계시는”  
“오래 전에”  
“옛적으로부터”

이 구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것에 “거룩한”과 “선지자들”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참조, 행 3:21). 이 구가 나타내는 신학적 진리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최근에 고안된 일이 아니라 예로부터 영감된 예언에 따른 것임을 말한다. 그는 이스라엘 및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신체적(구약)이며 영적(신약)인 구원을 가져 오실 것이다(참조, 마 28:18-20; 눅 24:47; 행 1:8).

**1:71 “구원”** 구약에서 “구원”은 원래 신체적 구출을 뜻하는 단어였다(참조, 74 절). 이것은 시 106:10 에 있는 인용구를 이끈다.

**1:72**

NASB  
NKJV  
NRSV  
TEV  
NJB

“우리 조상에 대한 공홀을 나타내시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공홀을 행하시며”  
“약속하신 공홀을 우리 선조에게 그가 나타내시사”  
“우리 선조에게 공홀을 나타내겠다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선조에게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시며”

72 절의 두 행은 평행을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참조, 창 12, 15, 17 장)을 73-75 절에서 특별히 언급한다. 이것은 73-74a 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조건적인 언약으로 제시되며, 74b-75 절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적합하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 **“거룩한 언약”** 다음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언약**

언약을 뜻하는 구약 용어인 *בְּרִית*(BDB 136)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응답을 요구한다

1.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장차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 했다
3. 노아는 믿음으로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야 했고 또 동물들을 모아 들여야 했다
4.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 및 저주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종교 및 사회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긴장 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 을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질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관련하여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창 3 장에서 상실한 교제의 회복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일.

렘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망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를 이루는 방법은 바뀌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언약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에 문제가 있었다(참조, 로마서 7 장;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의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에 있는 긴장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거저 주시지만,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최초의 또한 계속적인)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받아 주심에 대한 직설적 진술이며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받은 바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긴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1: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창 12 장과 15 장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특별한 맹세는 창 22:16-18 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이 맹세/약속을 로마서 4 장에서 여러 번 언급한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1) 하나님의 자비하심 및 언약의 시작과 (2) 인간이 믿음으로 하는 응답에 기초함을 말한다.

**1:74** NADB, NKJV, NJB 에서 이 절의 맨 앞에 나오는 부정사구는 UBS<sup>4</sup> 과 NRSV 에서는 73 절에 들어 있다.

인간의 속량을 위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6 장에서 지적하는 핵심내용이다!

죄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메시아께서는 죄에 대한 처벌을 제거하시고 범죄한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 (참조, 창 1:26-27)을 회복시키신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

**1:75 “성결”** 1:35 의 특별주제: 거룩함을 보라.

▣ “의” 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1: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술이다. 그 이유는 말라기 이후 400 년 이상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ἁγιοσιστός* )은 히브리어의 *엘론* 을 70 인역이 번역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 단어는 창 14:18, 19, 20, 22 에서 벨기세렉(참조, 히 7:1)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민 24:16 에서는 발람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모세는 이 용어를 신 32:8(참조, 행 17:26)에서 하나님께 사용한다. 이 용어는 시편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18:13; 78:35; 89:27).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참조, 1:32; 막 5:7; 또 이와 평행을 이루는 눅 8:28) 이 용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다. 이곳의 문맥에서는 침례(세례)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역어* 35 쪽을 보라.

▣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선구자가 올 것을 기대했고, 말 4:5 의 내용을 인하여 엘리야가 다시 몸을 입고 올 것을 기대했다. 침례(세례)요한은 엘리야와 매우 흡사하게 옷을 입었고 또 그렇게 살았다.

요한은 자신이 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참조, 요 1:21). 하지만 예수께서는 요한이 이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씀했다.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참조, 눅 3:2-6) 말 3:1(참조, 사 40:3-4)의 인용인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다.

“주”라는 단어는 야웨를 번역한 용어이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가리킨다(참조, 1:16-17; 말 3:1; 사 40:3-4). 요한은 야웨께서 자신의 메시아를 통하여 오심을 위해 준비한다.

**1:77** 요한이 행한 준비사역은 3 중적 목적을 가진다.

1. 영적 필요를 강조함(즉, 회개의 침례[세례])
2. 구원(즉 회개와 믿음)의 지식을 전함.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공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곧 오는 공급하심(참조, 눅 1:15)에 기초한다.
3. 예수를 증거함(참조, 요 1:29-34, 35-37)

요한이 죄 용서에 의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지만, 이 구원을 행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인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

**1: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휼로 인함이라”** 이것은 메시아를 보내신(참조, 요 3:16)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리킨다(참조, 이 내용이 사 9:2 또는 60:1 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 절은 말 3:6 을 가리킨다). 공휼은 “예정”의 핵심을 이룬다(참조, 롬 9:15, 16, 18; 11:30, 31, 32).

“부드러운”으로 번역된 헬라이어 단어는 스피라크눈으로서 희생제사의 “내장 부분”을 뜻한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부분을 먹었지만 유대인들은 회막에 있는 제단에서 야웨께 제물로 드렸다(참조, 출 29:13; 레 3:3-4, 10, 15; 4:8-9; 7:3-4; 8:16, 25; 9:10, 16).

고대인들은 감정이 간, 신장, 소장 등 “아래 쪽에 있는 기관”에 위치한다고 여겼다(참조, 사 63:15; 렘 4:19; 이와 관련된 은유적 표현이 신약에서 사용된 곳으로는 고후 6:12; 7:15; 빌 1:8; 2:1; 골 3:12; 몬 7, 12, 20 절이다).



NASB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NKJV	“이로써 낮의 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NRSV	“위로부터 새벽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TEV	“그가 구원의 밝은 새벽이 우리 위에 오르게 하실 것이다”
NJB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위로부터 오는 곳에”

사가랴가 드린 찬송에서 말라기서의 내용을 여러 곳에서 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4:2 상반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해”라는 단어가 헬라이어 본문에 나타나지 않고 “떠오르는”만 나온다(이점은 말 4:2 의 70 인역에서도 그러하다). “해”라는 용어의 기원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조로아스터교(즉,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의 페르시아 종교)에서 그들의 높고 선한 신(*아후라 마스다*)를 상징하는 것은 날개를 가진 해 모양의 둥근 판이었다.
2. 하나님의 호칭인 “지극히 높으신”(참조, 1:32, 76)은 하나님께서 빛/해를 선물로 주심을 나타낸다(참조, 시 19:1-6).

말라기 4 장은 빛/병고침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한 날이 오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헬라이어 사본에는 **동사의 시제(현재형/미래형)**와 관련하여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말라기서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침례(세례)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현재였다.

**1:79** 이것은 사 9:1-2 의 인용이다(즉, 78 절의 내용은 사 9:2 을 반영한다). 말라기서에서 취한 인용이 여러 곳에서 이사야서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즉, 주의 길을 예비하다). 이것은 다른 내용으로 여겨진다(즉, “해가 뜬”과 “비침”에 관한 랍비들의 언어유희).

원래 이사야의 예언은 주전 8 세기에 앗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 먼저 사로잡혀간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신 내용이었다. 이사야는 기쁜 소식을 그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된다고 단언한다. 예수께서 먼저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였다!

☐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다”** 이것은 “이끌다”라는 용어의 부정과거 능동 부정사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단지 세 번만 사용되었다; 이곳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서신(참조, 살전 3:11; 살후 3:5). 세 경우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한다. 70 인역에서 이 단어는 “~을 똑바로게 하다” (즉, 하나님의 길을)와 관련을 가진다.

구약에서는 믿음을 똑바로 닦인 길로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똑 바른 길을 따르고 그 길에 머물러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도”(the Way)로 불린 일은 우연이 아니다.

개역개정 1:80

<sup>80</sup>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1: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같은 내용이 예수께서 신체적 영적으로 성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2:40).

**특별주제: 강하여지다**

이 용어(*크라타이오*)는 신약에서 **수동태**로 여러 번 사용되었고 여러 의미를 가진다.

1.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라심, 눅 1:80; 2:40
2. 신자가 성령에 의해 강해짐, 엡 6:16
3. 신자의 믿음이 견고하고 확고하게되어 고린도 교회의 내적 분규를 감당할 수 있음, 고전 16:13

▣ “심령이” 자주 그러하듯이 해석상의 문제는 이것이 성령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인간 요한의 영을 가리키는가이다. 사 11:1-2 에 대한 암시에 기초하여 볼 때 아마도 둘 다를 뜻할 것이다.

**특별주제: 신약에서의 영(*프뉴마*)**

“영”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여러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일부 구분과 예를 다룬다.

- 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1. 성부의(참조, 요 4:24)
  2. 성자의(참조, 롬 8:9-10; 고후 3:17; 갈 4:6; 뱀전 1:11)
  3. 성령의(참조, 막 1:11; 마 3:16; 10:20; 요 3:5,6,8; 7:39; 14:17; 행 2:4; 5:9; 8:29,35; 롬 1:4; 8:11,16; 고전 2:4,10,11,13,14; 12:7)
- 나. 인간의 생명의 힘을 이루는
  1. 예수의(참조, 막 8:12; 요 11:33,38; 13:21)
  2. 인간의(참조, 22:43; 행 7:59; 17:16; 20:22; 롬 1:9; 8:16; 고전 2:11; 5:3-5; 7:34; 15:45; 16:18; 고후 2:13; 7:13; 빌 4:22; 골 2:5)
- 다. 영적 영역의
  1. 영적 존재들
    - ㄱ. 선한(즉, 천사, 참조, 행 23:8-9; 히 1:14)
    - ㄴ. 악한(즉, 악령의, 참조, 마 8:16; 10:1; 12:43,45; 행 5:16; 8:7; 16:16; 19:12-21; 엡 6:12)
    - ㄷ. 귀신(참조, 눅 24:37)
  2. 영적 분별(참조, 마 5:2; 26:41; 요 3:6; 4:23; 행 18:25; 19:21; 롬 2:29; 7:6; 8:4,10; 12:11; 고전 14:37)
  3. 영적인 것들(참조, 요 6:63; 롬 2:29; 8:2,5,9,15; 15:27; 고전 9:11; 14:12)
  4. 영적 은사(참조, 고전 12:1; 14:1)
  5. 성령의 영감(참조, 마 22:43; 눅 2:27; 엡 1:17)
  6. 영적인 몸(참조, 고전 15:44-45)
- 라. 다음의 일을 특징짓는다
  1. 세상의 태도(참조, 롬 8:15; 11:8; 고전 2:12)
  2. 인간의 사고 과정(참조, 행 6:10; 롬 8:6; 고전 4:2)
- 마. 물리적 영역의
  1. 바람(참조, 마 7:25,27; 요 3:8; 행 2:2)
  2. 호흡(참조, 행 17:25; 살후 2:8)

이 용어를 반드시 그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함이 분명하다. 이 용어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범주가 (1) 물리적 세계 (2)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3) 또한 사람의 육신적 및 영적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성령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초자연적으로 활동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성령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참인 모든 것이 그 분과 관련이 있다. 성령님의 임재와 은사와 사역은 복음의 진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왕국이 성공함에 있어서 절대적이다(참조, 요 14 장과 16 장). 성령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참조, 요 16:13-14).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납득시키시며 우리의 관심을 촉구하신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 성경의 개념인가?
2. 성령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3.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과 그녀가 인간적으로 평범했던 사실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4. 51-53 절에서 계시된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5.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27 절에 있는 경건한 왕의 족보가 왜 중요한가?
6. 스가랴가 오순절 사건 이전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는가?
7. 메시아의 다윗 계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8. 유대인들은 왜 엘리아가 다시 몸을 입고 올 것을 기대했는가?

## 누가복음 2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낳음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과 목자들의 방문
2:1-7	2:1-7	2:1-7	2:1-3  2:4-7	2:1-14
목자들과 천사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목자들과 천사들	
2:8-14a	2:8-13  2:14-20	2:8-14	2:8-12  2:13  2:14	
2:14b-20		2:15-20	2:15  2:16-20	2:15-20
	예수의 할례		예수의 이름을 짓다	예수의 할례
2:21	2:21	2:21	2:21	2:21
예수를 성전에서 봉헌함	성전에서 봉헌한 예수		예수를 성전에서 봉헌함	예수를 성전에서 봉헌함
2:22-24	2:22-24  시므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2:22-24	2:22-24	2:22-28
2:25-35	2:25-35	2:25-32	2:25-32	시므온의 노래  2:29-32  시므온의 예언
		2:33-35	2:33-35	2:33-35
	안나가 구속자에 대해 증거함			안나의 예언
2:36-38	2:36-38	2:36-38	2:36-38	2:36-38
나사렛으로 돌아감	가족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다		나사렛으로 돌아감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생활

2:39-40	2:39-40	2:39-40	2:39-40	2:39-40
성전에 있는 소년 예수	소년 예수가 학자들을 놀라게 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소년 예수	성전에 있는 소년 예수	율법 박사들 사이에 있는 예수
2:41-52	2:41-50	2:41-51	2:41-48	2:41-45
	예수께서 지혜와 은총 가운데 성장하심		2:49-50	2:46-50
	2:51-52	2:52	2:51-52	다시 가진 나사렛에서의 알려지지 않은 생활
				2:51-5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7**

<sup>1</sup>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sup>2</sup>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sup>3</sup>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sup>4</sup>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sup>5</sup>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sup>6</sup>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sup>7</sup>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2:1 “영을 내려”** 로마의 영을 따라 호적을 하는 일은 14 년을 주기로 행해졌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주전 30 년부터 주후 14 년까지 통치, 참조, 3:1; 마 22:17)가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집트의 파피루스 자료들을 통해 이러한 주기적 영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일은 마쳐지기까지 몇 년씩 걸렸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하여는 행 5:37 에서 언급하며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온다. 후자에 의하면 이 일은 주후 6 년에 있었기에 처음의 호적은 주전 8 년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참조, 행 5:37).

▣ **“호적”** 이 등록은 세금징수와 군대징집을 위함이었다. 한편 유대인은 군인으로의 징집을 면제받았다. 그 일은 아마도 가이사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요구했을 것이다.

▣ **“천하로”** 이것은 로마제국 혹은 당시 알려진 모든 문명세계를 뜻한다(참조, 4:5; 21:26; 행 11:28; 17:6,31; 19:27; 24:5; 마 24:14; 계 3:10). 이 본문이 전세계를 그 범위로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마 24:14; 행 17:31; 히 1:6; 2:5 도 그러하다).

2:1 “이 호적은 . . . 처음 한 것이라” 두 번째로 한 호적은 행 5:37 에 나온다. 이 로마의 인구조사는 마쳐지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었는데, 아마 14 년까지 걸렸을 것이다(즉, 이집트에서 온 증거).

▣ “구레뇨” 이 진술과 세속사 사이에 문제가 있다. 구레뇨는 주후 6 년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다. 그는 시리아의 군사 지도자였다. 유대는 주전 10-7 년 사이에 시리아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한편 구레뇨는 주후 6 년 이전에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징세를 위한 호적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려고 주후 6/7 년에 유대에 왔다(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8.1-2,25). NRSV 의 각주는 구레뇨가 아구스도의 특사로서 반역적인 지파의 문제(호모나텐세스, 참조, 타시투스, *연대기* 13.48)를 다루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시리아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독이었고 바라스는 일반 행정을 관리하는 총독이었다(옥스포드, 1991, 브루스 메즈거와 로랜드 머피 편저, NT 79-80 쪽).

*번역가의 누가복음 핸드북*(105 쪽)은 구레뇨가 주전 12 년부터 주후 16 년 사이에 황제의 특사로서 일했는데 그가 맡은 일은 인구조사와 관련된 행정부의 일도 포함했다고 주장한다. UBS 핸드북의 저자인 라일링과 스웬렌세겔은 *해석가의 성경사전*(제 3 권 975-977 쪽)을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2:3 “모든 사람이”는 남자로서 세금을 내야 할 재산(땅, 사업 등)을 가진 남자들을 뜻한다.

▣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것은 유대인의 문화와 관련하여 볼 때 독특한 면을 가진다. 나사렛에 유다 지파(이새의 가족) 출신의 한 무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는 여러 가족이 있었다.

2:4 “베들레헴” 이곳은 유대의 작은 마을로서 예루살렘에서 약 10 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따라서 이 마을은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110 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이곳은 구약시대에 에브랏으로 알려졌으며(참조, 창 35:19) 미가 5:2 에서서 베들레헴 에브랏으로 불렸다. 이러한 명칭은 이곳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이 성읍은 다윗 왕의 조상인 보아스와 룿이 살았던 성읍으로 알려졌다(참조, 룿 4:11). 다윗의 부친인 이새도 이곳에서 살았다(참조, 삼상 17:12). 조상 다윗이 살았던 장소였기에,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수가 나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참조, 미 5:2; 마 2:5,6; 요 7:42).

▣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예수의 족보에 관련된 이 구를 기록할 때에 누가 얼마나 삼하 7:12-17 의 예언을 염두에 두었는지(참조, 1:32)를 인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2:5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남자들만 고향에 돌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왜 임신 말기에 있는 마리아가 그와 함께 여행을 했는지 놀란다.

1. 요셉은 마리아를 나사렛에 남겨 두어 그녀가 말로써 경멸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2. 요셉 혹은 마리아는 미가 5 장에 있는 예언에 대해 알았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했다
3. 하나님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모르게 그 환경을 마련하셨다

▣ “약혼한” 마 1:24-25 은 그들이 결혼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결혼은 첫날 밤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가졌다. 가족들이 결혼을 추진하였고 약혼 기간은 대개 1 년이었다.

2:6 “거기 있을 그 때에” 이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약간 긴 기간을 머물렀음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나사렛에서 받게될 경멸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2:7 “첫아들” 이것은 구약에서 “상속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 단어는 마리아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음도 암시한다(참조, 마 13:55-56; 요 7:35).

#### 특별주제: 장자

“장자”(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1. 이것의 구약적 배경은 가족의 장자가 갖는 뛰어난 가리킨다(참조, 시 89:27; 눅 2:7; 롬 8:29; 히 11:28)
2. 골 1:15 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창조의 처음이 되심을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잠 8:22-31 에 대한 암시나 혹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말할 것이다(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5-16; 히 1:2)
3. 골 1:18; 고전 15:20(또한 이곳)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장자됨을 가리킨다
4.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었다(참조, 시 89:27; 히 1:6; 12:23). 이것은 예수의 중요성과 그의 중심되심과 관련된 여러 모습을 묶어 제시하는 칭호였다. 이 문맥에서 3 항과 4 항의 설명이 잘 맞는다.

▣ “강보로 싸서” 이 용어(BDB 367)는 천으로 부러진 팔을 감듯이 둘러 싸는 것을 뜻한다(참조, 겔 30:21). 이것은 겔 16:4 에서 갓난 아기를 싸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지혜서 7:4). 욥 38:9 에서는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갓난 아기를 보호하려고 분명히 신체 전부를 감쌌을 것이다(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경우와 유사함). 이 일은 모든 아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 “구유” 이것은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는 통이었다(참조, 70 인역의 사 1:3; 잠 14:4). 이것이 투박하고 비 위생적인 용기였지만 모든 고대의 농부들은 이것을 사용했다.

▣ “여관” *카타뤼마*라는 이 용어는 **관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아 다음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1. 손님 방(가축들이 종종 주인 가까이 살았다, 참조, 막 14:14; 눅 22:11; 켈넷 베일리, *농부의 눈을 통하여*, xv 쪽을 보라)
2. 순교자 저스틴(주후 110-162/168 년)은 예수께서 동물의 우리로 사용된 동굴(이 지역에서 흔히 사용함)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한다
3. 다른 이들은 이것이 여관에 있는 노천의 딸이었다고 말한다
4. 보다 더 전통적인 해석은 여관 주인의 가축과 함께 지내는 낮은 등급의 장소(즉, 여관이 아님)라는 설명이다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다. 나는 여관(일반적 단어, *판도케이온*, 참조, 10:34)을 필요로 할만큼 많은 여행객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유대인의 문화는 친척이 머물도록 호의를 베풀 것을 강조했다. 호적을 위해 이 마을에 많은 친척들이 왔기에 손님을 위한 방이 남지 않았다. 누가는 22:11 에서 사용한 “손님 방”과 똑 같은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한다(참조, 막 14:14).

70 인역에서 이 단어는 광의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것은 집 안에 있는 방으로서 대개 지붕에 위치한 장소를 뜻하였다(참조, 삼상 1:18; 삼하 7:6; 대상 17:5).

**개역개정 2:8-14**

<sup>8</sup>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sup>9</sup>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sup>10</sup>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sup>11</sup>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sup>12</sup>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sup>13</sup>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sup>14</sup>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8 “그 지역에” 이것은 베들레헴을 가리킨다.

▣ “목자들” 랍비들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의 증거는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다(즉, 후기의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이 양떼를 기르며 살았기에 랍비들이 부과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즉, 탈무드). 다윗이 이 지역에서 목자였던 점과 관련하여 약간의 상징성이 있다. 메시아의 출생이 댄 먼저 목자들에게 선포되었다! 이방인이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한 이 복음서가 이 내용을 기록한 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방인이었을 것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은 놀랍다.

▣ “자기 양 떼를” 예수의 탄생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서 사용할 양 떼가 연중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매일 제물로 드려지는 일년된 어린 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참조, 요 1:29)이 탄생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목자들은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예수의 탄생일로써 전통적으로 축하하는 날인 12 월 25 일은 수 백년 이후에 형성된 날로서(즉, 제 4 세기, *거룩한 사도들의 규정*, v.3.13) 별의 축제(동지점)와 관련된 이교도의 축제일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성탄절 가운데 어떤 요소는 “농신제”로 알려진 로마의 축제의 한 부분이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2 세기 말에 예수의 정확한 탄생일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말했다(*스트로마타* 1.21).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12 월 25 일이 아닌 1 월 6 일을 성탄절로 지킨다(즉, 동방 정교회, 미국 정교회).

2:9 “주의 사자가” 이 천사는 나중에 나타나 말을 하고 노래를 한 천사들의 무리와 구별이 된다. KJV 에는 **정관사**가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것이 있지 않다. 바로 이 헬라어 구는 성소에서 사가라에게 나타났던 천사에게 대해 사용되었다(1:11 의 설명을 보라).

▣ “주의 영광” 이 구는 70 인역에서 야웨의 영광스러우며 직접적인 현현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출 16:7,10; 24:16; 40:34-38; 민 16:19).

**특별주제: 영광(독사)**

“영광”이라는 성경의 개념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복음을 알고 영광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다(참조, 1:29-31; 램 9:23-24).

구약에서 “영광”(카보드, BDB 217)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원래 저울(“무겁다”)과 관련된 상업 용어였다.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밝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첨가되었다(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하시며 영예로우시다. 그는 매우 빛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야웨를 알 수 있다(참조, 요 14:8-11; 골 1:15; 히 1:3). “영광”이란 단어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룬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온전하심”을 가리킨다
3.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컬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다(참조, 창 3:1-22). 이 용어는 광야 방랑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출 16:7,10; 레 9:23; 민 14:10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 “결에 서고” 이와 똑같은 동사가 예수님의 승천시 있었던 두 천사에게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24:4).

▣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와 똑같은 단어가 행 26:13 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일을 나타내고 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두 경우이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이 용어를 바울이 간증에서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누가 이를 듣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NASB	“그들이 대단히 겁먹는지라”
NKJV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NRSV, NJB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TEV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는지라”

이 헬라이어 구는 문자적으로 “그들이 커다란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이다. 동사와 목적어가 같은 어근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동족 목적어”로 불린다. 타락한 인간이 영적 세계를 볼 때 항상 두려움을 가진다.

2:10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매우 흔하게 사용한 인사이다(참조, 1:13,30).

▣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의 “큰 두려움”은 이제 “큰 기쁨”으로 균형을 갖게 되었다.

“좋은 소식”(유양겔리조, 참조, 1:19)로 번역된 단어는 “좋은”과 “메시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이 표현은 70 인역에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때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삼상 31:9; 삼하 1:20; 4:10; 18:19-20,31; 왕상 1:42; 시 39:10).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나타내는 전문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참조, 3:18; 4:18,43; 7:22; 8:1; 9:6; 16:16; 20:1; 행 5:42; 8:4,12,25,35,40; 10:36; 11:20; 13:32; 14:2,15,21; 15:35; 16:10; 17:18).

▣ “은 백성에게 미칠” 이것은 창 3:15; 12:3; 출 19:5-6 과 8 세기의 선지자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다. 이것은 과거의 세대에는 숨겨진 신비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다(참조, 엡 2:11-3:13). 이 복음은 소외된 목자들에게까지 이르렀다(또한 이들은 누가의 이방인 독자들을 의미한다)! 이같은 전세계적 강조가 32 절에서 반복되며 정의되고 있다.

**특별주제: 밤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램 31:31-34; 겔 18 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19-20,21-31),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 (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시다(참조, 엡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러한 사전 이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갖고 있는 색채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2:11 “오늘” NET 성경은 누가가 사용한 “오늘”에 대해 좋은 설명을 한다(참조, 1796, 9 항). 누가는 종종 새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한다.

1. 눅 2:11—그리스도의 출생
2. 눅 4:21—사 61:1-2의 내용을 구약에서 인용함(18-19 절)
3. 눅 5:26—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심(새 시대의 표)
4. 눅 13:32-33—병고침(새 시대의 표)
5. 눅 19:9—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함
6. 눅 23:43—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음
7. 행 4:9—베드로가 병고친 일은 새 시대를 나타냄
8. 행 13:33—예수의 부활(새 시대의 표, 시 2:7의 인용)

메시아의 새 시대, 성령의 새 시대가 이제 시간 안에서 일어났다!

▣ “다윗의 동네에” 이것은 베들레헴을 가리킨다. 2:4의 설명을 보라.

▣ “구주” 이것은 구약에서 야웨께 사용된 호칭이다(참조, 1:47; 사 43:3,11; 45:15,21; 49:26; 60:16). 로마제국에서 이것은 가이사에게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구원자”(BDB 446)를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의 한 요소이다(즉, 호세아, BDB 448). 놀랍게도 이곳과 1:47은 이 단어가 공관복음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본문이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께서 구약에서 야웨께 대해 사용한 두 호칭(구주와 주)으로 불린 사실은 매우 놀랍다. 메시아(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더하여 사용함으로써 누가는 예수의 신성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공관복음서(특히 마가복음)는 예수의 신성을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숨기려는 경향을 가진다. 요한은 요 1:1-18에서 예수의 선재하심과 신성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누가는 이러한 호칭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누구셨는지/또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신학적 배경을 제시한다.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기름 부음(BDB 603)**

- 가. 미용을 위해 사용(참조, 신 28:40; 룻 3:3 삼하 12:20; 14:2; 대하 28:15; 단 10:3; 암 6:6; 미 6:15)
- 나. 손님을 위해 사용(참조, 시 23:5; 눅 7:38,46; 요 11:2)
- 다. 병고침을 위해 사용(참조, 사 6:1; 렘 51:8; 막 6:13; 눅 10:34; 약 5:14) [위생을 위해서는 겔 16:9]
- 라. 장례의 준비를 위해 사용(참조, 창 50:2; 대하 16:14; 막 16:1 요 12:3,7; 19:39-40)
- 마.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물건, 참조, 창 28:18; 31:13[기둥]; 출 29:36[제단]; 출 30:36; 40:9-16; 레 8:10-13; 민 7:1[회막])
- 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사용
  1. 제사장
    - ㄱ. 아론(참조, 출 28:41; 29:7; 30:30)
    - ㄴ. 아론의 아들들(참조, 출 40:15; 레 7:36)
    - ㄷ. 일반적 표현이나 칭호(참조, 민 3:3; 레 16:32)
  2. 왕
    - ㄱ. 하나님에 의해(참조, 삼상 2:10; 삼하 12:7; 왕하 9:3,6,12; 시 45:7; 89:20)
    - ㄴ. 선지자에 의해(참조, 삼상 9:16; 10:1; 15:1,17; 16:3,12-13; 왕상 1:45; 19:15-16)
    - ㄷ. 제사장에 의해(참조, 왕상 1:34,39; 왕하 11:12)
    - ㄹ. 장로에 의해(참조, 사 9:8,15; 삼하 2:7; 5:3; 왕하 23:30)
    - ㅁ. 메시아적 왕인 예수님의(참조, 삼 2:2; 눅 4:18[사 61:1]; 행 4:27; 10:38; 히 1:9 [시 45:7])
    - ㅂ.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참조, 고후 1:21; 요일 2:20,27 [크리스마])
  3. 아마도 선지자들의(참조, 사 61:1)
  4. 신적 구원을 위한 믿지 않는 자들
    - ㄱ. 고레스(참조, 사 45:1)
    - ㄴ. 두로 왕(참조, 겔 28:14, 여기서 그는 에덴동산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
  5. “메시아” 칭호나 용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뜻함(BDB 603)

**특별주제: 메시아**

이것은 다니엘 9:6에 대해 내가 쓴 주석에서 가져 온 내용이다. 이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갖는 어려움은 메시아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BDB 603)라는 용어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인함이다.

1. 유대인의 왕들에 대해 사용됨(예, 삼상 2:10; 12:3)
2. 유대인의 제사장들에 대해 사용됨(예, 레 4:3,5)
3. 고레스에 대해 사용됨(참조, 사 45:1)

4. 시 110 편과 속 4 장에서는 1 항과 2 항이 결합되어 나타남
5.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오는 다윗 계보의 왕이 의의 새 시대를 가지고 옴을 나타냄
  - ㄱ. 유다 지파에서(참조, 창 49:10)
  - ㄴ. 이새의 가정에서(참조, 삼하 7 장)
  - ㄷ.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참조, 시 2 편; 사 9:6; 11:1-5; 미 5:1-4 이하)

나는 개인적으로 “기쁨부음을 받은 자”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단 2 장에서 네 번째 제국인 영원한 왕국을 제시하기 때문이고
2. 단 7:13 에서 “인자”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심을 말하기 때문이고
3. 단 9:24 에 있는 구속에 대한 구절이 범죄한 세계 역사의 귀결점을 가리키기 때문이고
4.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4:15; 막 13:14)

▣ “주” “주”(κυριος)라는 헬라어 용어는 일반적 의미 및 잘 발전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씨,” “~님,” “거장,” “주인,” “남편” 혹은 “완전한 신-인간”(참조, 요 9:36,38)을 가리킬 수 있다. 이 단어의 구약적 용법(히브리어, *아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발음하는 것을 꺼려서 생겼다. 이 히브리 동사는 “있다”를 의미한다(참조, 출 3:14). 그들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참조, 출 20:7; 신 5:11)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했다. 만일 이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히브리 단어로써 헬라어의 *κυριος*(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아돈*으로 이 이름을 대치하여 사용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즉, 눅 2:11; 요 20:28; 행 10:36; 고전 2:8; 빌 2:11; 약 2:1; 계 19:16).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구는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고백과 침례(세례)식을 위한 고백이었다(참조, 롬 10:9-13; 고전 12:3; 빌 2:11). 행 2:36 은 그리스도와 주라는 호칭을 예수께 사용했다.

1:6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2:12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7 장에 대한 의도적인 암시인가를 묻게 된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즉각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이 믿어야 했지만, 이 목자들에게는 즉각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삶과 사역을 따랐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까를 질문하게 된다. 그들이 목격자로서 하는 간증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됨을 인해 나는 놀란다.

▣ “구유” 예수를 덮은 옷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지만, 메시아가 짐승을 먹이는 구유에 누우심은 이상하게 보인다!

2:13 “천군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늘의 군대”로서 군사적 의미를 지닌(참조, 수 5:14) “쓰바웃”이라는 히브리어를 반영한다. 1:6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인하여서 이다

1. 하나님의 존재(“지극히 높은”)
2. 하나님의 복음(“사람들 중에 평화”)
3. 그의 아들을 보내심
4.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복음

하나님은 영광(2:9 의 특별주제를 보라)과 찬송을 피조세계와 그가 속량하신 자녀들로부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 천사들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약간의 혼동이 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서 목자들 곁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큰 무리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하여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지극히 높은”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킨다.

▣

NASB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NKJV	“땅에서는 평화, 선이 사람들에게 향하리로다”
NRSV	“땅에서는 그가 호의를 베푸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TEV	“평화가 땅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 에게”
NJB	“땅에서는 그가 호의를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에 있어서 고대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소유격(참조, NASB, NRSV, TEV, NJB)은 κ\*, A, B\*, D 사본 및 예루살렘의 시릴과 제롬과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어 사본에서 나타난다. UBS<sup>4</sup>는 이 형태에 “A”등급 (확실함)을 주고 있다. 이 문법적 구문은 사해사본에서 발견되는 셈족어의 구문으로서 코이네 헬라어에서는 드문 용법이다.

누가복음의 앞 쪽에 있는 장들에는 이러한 섹족이 구문이 많이 나오는데(참조, 브루스 M. 메츠거의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 133 쪽을 보라), 이점은 아람어로 쓰여진 문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숙하게 사용되는 흐름역은 잘못된 신학적 해석을 준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본문(이에는 2:10; 요 3:16; 딤편전 2:4; 벰후 3:9 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본문이다. 복음은 예수님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따라서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서로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둘 다 성경적으로 진리이다. 우리는 신약 안에 있는 긴장의 한 부분만 주장하려고 해서 안된다—영접하려는 자가 누구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함! 10 절(그들이 이스라엘이든 혹은 인류든)과 14 절 사이에 긴장이 있다!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 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13) 사이의 긴장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긴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를 엡 1:4 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 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교리적 진리들의 변증법적(역설적) 쌍이 형성하는 긴장을 제거해서는 결코 안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5.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6.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7.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8.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
9.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10.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
11.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12.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으로서)을 의미하는 내용으로서 인간에게 요청되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 및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묶는다. 역설적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느라 다른 한 쪽을 약화시키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의 내용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개역개정 2:15-20**

<sup>15</sup>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sup>16</sup>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sup>17</sup>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sup>18</sup>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sup>19</sup>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sup>20</sup>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5**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가 가진 예언적 측면을 인식하여, 가서(둘 다 가정법 동사임) 인근 마을에서 일어난 이 커다란 계시의 일을 확인하기를 원했다.

내가 목자였다면 양들을 돌보기 위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쪽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절은 “말”이나 “진술”(참조, 17 절) 대신에 *레마*를 사용하여 “일”(17 절)을 나타내고 있다.

**2:16** 그들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마리아, 요셉, 아기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천사가 말한 바 그대로였다.

**2:17-18** “듣는자가 다”에서 “다”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들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과 그 마을에 방문 중인 사람들을 뜻할 것이다. 또한 이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어디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듣지 못함을 기억하라.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이 목자들에게 가졌던 편견으로 인해 그들이 전하는 내용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2: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일들에 대해 꼼꼼히 생각했다(참조, 2:51).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어린 시기에 대한 내용은 마리아에게서 왔을 것이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아마도 그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것이다.

**2:20** 이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약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들 중 몇 명의 목자가 생존해 있었을가에 대해 나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이것은 두 현재 분사이다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 2:20; 5:25,26; 7:16; 13:13; 17:15; 18:43; 23:47; 행 4:21; 11:18; 21:20; 23:47
2. 하나님을 찬송하기 - 2:13,20; 19:37; 행 2:47; 3:8,9

이와 평행을 이루는 다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 복을 받음 - 1:64,68; 2:28; 24:53
2. 하나님께 감사함 - 2:38
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 2:14; 17:18; 19:38; 12:23(부정함)

이 표현은 명백히 누가의 글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과 축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로마제국은 왜 호적을 하라고 했는가?
2. 누가의 연대와 관련하여 문제가 나타나는가?
3.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일은 왜 매우 중요한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4. 예수께서는 왜 마구간에서 나셨는가?
5.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린 일이 왜 중요한가?
6. 왜 “구주,” “메시아,” “주”라는 호칭이 매우 중요한가?

### 눅 2:21-52 에 대한 문맥적 통찰

이 본문에는 유대인의 여러 의식이 나온다.

가. 할례

1. 야웨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참조, 창 17:1-14)
  - ㄱ. 모든 남자
  - ㄴ. 생후 8 일에(참조, 레 12:3)
  - ㄷ. 모든 세대에
  - ㄹ. 집에서 부리는 종에게도(참조, 출 12:44)
  - ㅁ.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됨
2. 부싯돌을 사용함
  - ㄱ. 출 4:25
  - ㄴ. 수 5:2-3
3.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각 지역에서(회막에서가 아님) 아버지가 행함(참조, 창 17:23-27)
4. 족장들이 행했으나(참조, 창 34:13-24) 이집트에 거류할 때에는 소홀히 되었다가(참조, 출 4:24-26) 정복시기에 다시 시작됨(참조, 수 5:4-9)

나. 아이를 낳은 후 갖는 정결례

1. 부정간 기간

- ㄱ. 몸에서 흘러 나오는 어떤 액체도 의식상 그를 부정하게 했다
- ㄴ. 아들을 낳은 산모는 7 일 동안 부정하였다(참조, 레 12:2)
- ㄷ. 딸을 낳은 산모는 14 일 동안 부정하였다(참조, 레 12:5)
- ㄹ. 아들을 낳은 경우에 산모는 40 일 동안 부정했고(참조, 레 12:3-4) 딸을 낳은 경우에는 80 일 동안 부정했다(참조, 레 12:6)
- ㅁ. 이렇게 의식상 부정함은 생리 주기와 관련을 가진다

2. 정결례식

- ㄱ. 정결하게 되는 기간까지 기다린 산모는 다음의 제물을 가지고 회막에 갔다
  - (1) 일년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림(참조, 레 12:6)
  - (2)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림(참조, 레 12:6)
  - (3) 만일 가난한 자이면 두 마리의 집 비둘기나 산비둘기의 새끼를 드리는 일도 가능했다(참조, 레 12:8)
- ㄴ. 이 모든 절차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종결되었다

다. 장자의 속량을 위한 예식

- 1. 이집트인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기에, 제사장인 아닌 가족은 장자를 야웨께 드려 섬겨야 했다(참조, 출 13 장).
- 2.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야웨를 섬기는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가 되었다(참조, 민 3:12,45; 8:14).
- 3. 각 부모는 장자인 아들을 되사기 위하여 제사장(어떤 제사장에게라도)에게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참조, 출 34:20).
- 4. 이것은 눅 2:23 과 27 절 하반절에서 나타난다. 한편 산모의 정결예식은 2:22,24 에 있다.
- 5. 랍비들은 이 속량이 제 31 일 쯤 되는 날에 어떤 제사장에 의해서라도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이 내용은 마리아가 40 일 동안 부정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문맥에서 단지 두 가지 예식만을 발견한다.

라. 모든 남자(그 함축적 의미는 그들의 가족)가 적어도 일년에 세 번 축제에 참석하러 회막/성전에 올 것을 성경이 명했다(참조, 출 23:14,17; 레 23 장)

1. 세 가지의 주요 축제

- ㄱ. 유월절/무교절(참조, 출 23:14-15; 레 23:4-8; 민 28:16-25)
- ㄴ. 추수절/오순절(참조, 출 23:16; 34:22-34; 레 23:15-21; 민 28:26-31)
- ㄷ. 수장절/초막절(참조, 출 23:16; 레 23:34-36; 신 16:13-17)

2. 예수의 부모는 그가 12 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축제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참조, 눅 2:41-43). 그는 *바르 미즈바로* 불리는 13 살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3.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켰다(참조, 2:39)

마. 누가복음에서 구약의 인용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점은 충격적이다(2:23,24; 3:4-6). 이 점은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다(그는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했다). 누가복음의 처음 세 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일은 아마도 그가 마리아를 면담(혹은 문서)함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유대인을 위해 쓴 마태가 한 것 처럼(참조, 1:23; 2:15,18,23; 3:3; 4:15; 8:17; 12:18-21; 13:25; 21:5; 27:9) 구약의 예언을 제시할 필요를 가지지 않았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21

<sup>21</sup>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2:21 “팔 일” 이 날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때였다(참조, 창 17:12; 레 12:3). 이 일을 안식일에도 행할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지중해 지역에 사는 모든 민족이 할례를 행했다(블레셋만 제외하고). 로마인들은 이 예식을 9 일 쯤 되는 날에 행했고 헬라인들은 제 7 일 혹은 제 10 일에 행했으며 아랍 사람들은 생후 13 일에 행했다(참조, 창 17:23-26). 유대인들은 야웨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 예식으로써 상징했다. 예수께서는 언약 아래서 출생했다. 문맥적 통찰의 ‘가’함을 보라.

▣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대개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지만, 이 아기의 이름은 가브리엘을 통해 알려주신 이름이었다(참조, 1:31; 마 1:21).

예수(헬라이어)와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히브리어)는 모두 히브리어로 같은 이름이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와 “돕다” 혹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명사**의 합성어이다. 이 두 **명사**가 정확히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불확실하기에 **동사**를 집어 넣어야 한다. 여기에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1. “야웨께서 구원하신다”
2. “야웨의 구원”
3. “야웨께서 구해주신다”
4. “야웨는 구출자이시다”

**개역개정 2:22-24**

<sup>22</sup>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sup>23</sup>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sup>24</sup>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22 “정결예식의 날이”** 영어 성경에서 “그들의” 정결예식으로 나타난 **대명사**는 이 단어가 산모와 아기 양쪽을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 성경학도를 어렵게 한다.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서 출생하셨다(참조, 21-22,27; 갈 4:4-5)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참조, 마 3:15). 그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행한 관습에 온전히 따르셨다.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40 일의 정결기간이, 딸을 낳은 경우에는 80 일 간의 정결기간이 요구되었다(참조, 레 12:1-5). 문맥적 통찰의 나향을 보라.

▣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베들레헴이 지형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성경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란 표현을 사용한다. 22-24 절에서는 유대인의 예식을 두세 개 언급한다. 처음 예식은 각 지역에서 행하였지만(할례), 다른 것은 나중에 성전에서 행한 예식이었다. 마리아가 40 일 이후에 행한 정결예식과 장자인 남자 아기를 다시 사는 일은 랍비들의 후기 전통에 따르면 31 일째 되는 날에 행해졌다.

**2:23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이 유대 예식(참조, 출 13:2,12,13,15)은 유월절에 행해졌다(참조, 출 12 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로서 지파 전체가 장자의 자리를 대신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속량의 값이 5 세겔이었고 그 값은 어느 제사장에 가라도 주었다(참조, 민 18:16). 이 값은 희생으로 드리는 어린 양의 일반적 가격이였다. 문맥적 통찰의 나향을 보라.

**2:24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 이것은 사람이 정결 예식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싼 예물이었다. 새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다(참조, 레 12:6-8). 이 예식은 22 절에 있는 정결예식을 가리킨다. 몸에서 나오는 어떤 유출도 유대인을 예식상 부정하게 만들었기에, 새는 이 일과 관련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 여인은 니콜 문에서 이 예식을 지켜보았지만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1) 그들이 의식상 부정하게 여겨졌고 (2) 그들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도착하지 않았음을 이 부부가 드린 예물의 종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개역개정 2:25-32**

<sup>25</sup>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sup>26</sup>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sup>27</sup>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sup>28</sup>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sup>29</sup>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도 <sup>30</sup>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sup>31</sup>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sup>32</sup>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2:25 “시므온”** 이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다(BDB 1035, 의미는 창 29:33 에서 볼 때 “들음”임). 어떤 고대 자료는 그가 랍비 힐렐의 아들이었고 가말리엘의 부친이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이는 그가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추측은 시므온이 제사장이었을 것이고 또 그가 장자인 아기를 속량하는 예식을 행했을 것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것일 뿐,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가 나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본문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의롭고”** 1:6 에 있는 자세한 설명 및 특별주제를 보라.

▣ **“경건하여”**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 “잘 붙잡는”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에 주의하는 사람, 따라서 경건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70 인역의 레 15:31 과 미 7:2 에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누가가 쓴 책에서만 나온다(참조, 2:25; 행 2:5; 8:2; 22:12).

▣ “이스라엘의 위로” 이 용어는 누가의 글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지만(참조, 2:25; 6:24; 행 4:36; 9:31; 13:15; 15:31)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구는 38 절(참조, 24:21)의 “예루살렘의 구속”과 평행을 이루며 23:51(참조, 막 15:43)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도 평행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이 구는 종말론적 내용을 소개한다(참조, 사 40:1-2). 이것은 또한 바울이 즐겨 사용한 구였다. 고후 1 장의 한 문단에서 바울은 이 구를 6 번이나 사용했다.

**특별주제: 위로하다**

다음의 내용은 내가 쓴 고후 1:4-11의 주석에서 가져 온 내용이다.

“위로하다”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용어는 3-11 절에서 여러 형태로써 10 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이 단락 및 1-9 장의 핵심단어이다. 후자의 경우 이 단어가 25 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나란히 부르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종종 법정적 의미를 가져 법적인 도움, 위로, 안내를 주는 변호사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이 문맥에서 격려와 위안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이 있는 용어인 *파라클레토스*는 요 14:16,26; 15:26; 16:7 에서는 성령을, 요일 2:1 에서는 예수를 가리킨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성부를 가리킨다.

*파라클레오*라는 동사형은 여러 의미를 가진다.

가. 70 인역

1. 권고하다, 신 3:28
2. 위로하다, 창 24:67; 37:35; 시 119:50(사 40:1; 49:13; 51:3; 61:2 에서는 메시아의 의미로써)
3. 동정심을 갖다, 신 32:36; 삿 2:18; 시 135:14
4. 위안하다, 사 35:4
5. 부르다, 출 15:13

나. 바울이 고린도에 쓴 서신

1. 권고하다, 고전 1:10; 4:16; 14:30-31; 16:15-16; 고후 2:8; 5:20; 6:1; 8:4,6; 10:1
2. 위로하다, 유쾌하게 하다, 고후 1:4,6; 2:7; 7:6,7,13; 13:11
3. 동정심을 갖다, 위안하다, 고전 4:13
4. 한탄하다, 간청하다, 요청하다, 고전 16:12; 고후 9:5; 12:18”

▣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복음은 인간의 연구나 발견의 산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계시한 내용이다(참조, 26-27 절).

성령께서 계시의 원천이시다. 누가복음의 앞쪽에 있는 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시한다.

1. 엘리사벳, 1:41
2. 사가랴, 1:67
3. 시므온, 2:25,26

이 구의 **미완료 시제**를 주목하라. 성령께서 오셨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에 머무시고 계셨다.

**특별주제: 영감**

“단 한번”과 관련된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 교리, 개념, 세계관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참조, 벧후 2:21). ‘단번에’에 주어진 강조점은 신약의 책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제한된 영감을 적용하는 성경적 근거가 되며, 또한 이후에 속하는 기록이나 다른 모든 종류의 책을 계시로 여기지 않게 한다. 신약에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불분명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신자들은 믿음과 행함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신약에 분명하고 충분하리만큼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개념은 “계시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으로 명확해진다

1.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계시)
2.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 저자를 택하시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주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이러한 기록을 이해하여(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님) 구원을 받으며 또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조명)

이것의 핵심은 영감이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경 이외에는 어떠한 권위를 가진 기록이나 비전이나 계시가 없다. 정경은 마쳐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서로 일치하지만,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들은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이 진리가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어떤 저자나 설교가도 성경의 저자들이 가졌던 영적 지도력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2:26 “주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그가 하나님의 구속자, 구름부름 받은 자인 메시아(2:11의 특별주제를 보라)를 그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눅 19:25-27 에서와 비슷함).

“보기 전에는”이라는 용어는 **우회적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계시가 남아 있다. 이 동사는 70 인역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을 나타낸다(참조, 렘 32:30; 33:2; 36:23).

“주”라는 용어는 명백히 야웨와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가리킨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은 그가 공로로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탄생하셨다(양자설이 아님, 영지주의가 아님, 부록: 용어해설을 보라).

**2:27 “부모가”** 이것은 단지 설명을 하는 절이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참조, 1:34; 마 1:18-25).

▣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것은 장자의 속량에 대한 유대인의 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출 13 장). 문맥적 통찰의 다항을 보라.

**2:28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의 찬송은 야웨께서 약속하신 구속자를 보내주심을 인해 야웨께 드리는 내용이였다(모든 사람을 위해, 참조, 2:29-32).

2:29

NASB, NKJV, TEV “주재여”  
NRSV, NJB “주인이여”

*데스포테스*라는 용어는 70 인역에서 종종 야웨께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창 15:2,8; 수 5:14; 사 1:24; 3:1). 이 영어 단어(“despot,” 폭군)는 헬라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가장 높은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 단어는 행 4:24; 계 6:10 에서 야웨께 사용되었고 벰후 2:1 과 유 4 절에서는 예수께 사용되었다.

▣ **“놓아 주시는도다”** 이것은 행복한 긴 생애를 가진 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함을 가리키는 구약의 관용어이다(참조, 창 15:15; 레 34:5).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원수가 되지 못한다!

▣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문맥에서 이것은 26 절을 가리킨다. “계시하셨다”라는 헬라어 단어(**완료 수동 분사**)는 **수동태**로서 ‘입한 하나님의 계시’를 자주 가리킨다(참조, 마 2:12,22; 눅 2:26; 행 10:22; 히 8:5; 11:7).

**2:30** 하나님의 구원을 봄에 대한 강조는 구약의 예언에서 온 것이거나(참조, 사 52:10) 혹은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반영한다.

누가복음의 앞 쪽에 있는 장에서 “구원”은 두 가지 함축적 의미를 나타낸다:

1. 이 책이 인용한 구약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신체적으로 구출을 받음을 말한다.
2. 복음서의 관점에서 이 단어는 예수의 신성과 사역을 믿음으로 누리는 영적 구원을 말한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으로부터 구해내심을 받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2:31-32 “만민... 이방... 빛이요”** 이것은 우주적인 복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나는 이런 예언을 시므온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했을까를 의아해 한다), 누가의 이방인 독자들에게는 아주 신나는 일이었음에 틀림없다(참조, 사 2:2-4; 9:2; 42:6; 49:6; 51:4; 60:1-3). 이 구는 “이방인이 있는 곳에서”를 의미할 수 있다(참조, 시 98:1-3; 사 52:1-10). 그렇지만 이 의미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누가복음의 처음 두 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사야의 예언을 암시하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다. 이사야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 이 우주적 구원을 보았다(이것은 신약의 주제가 된다, 즉, 24:47; 요 1:12; 3:16; 4:10; 행 10:34-35,43; 딤후 2:4; 4:10; 딤후 2:11; 요일 2:1-2; 4:1-14; 벰후 3:9).

개역개정 2:33-35

<sup>33</sup>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sup>34</sup>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sup>35</sup> 또 같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2:33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우회적인 미완료형**이다. 그들은 놀라고 또 놀랐다. 이 내용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됨을 가리킬 것이다!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과 엘리사벳의 증거를 들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전한 말을 알았다.

2:34

NASB “세움을 받았고”  
NKJV, NRSV, NJB “운명이 정해졌고”  
TEV “선택받았고”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 “위에 놓다” 혹은 “위에 놓아두다”를 뜻하지만, 은유적 의미를 가져 “세워진 표”를 70 인역의 수 4:6 이 나타낸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이러한 의미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살전 3:3; 이것도 **현재 수동**[디포] 직설법이다).

▣ **“패하거나”**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계획(2:11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메시아의 고난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구속계획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믿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들이 하는 응답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참조, 요 1:12; 3:16-19; 9:39).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걸려 넘어짐을 “패하거나”가 의미할 수 있다(참조, 20:17-18; 고전 1:23; 벰전 2:6-8). 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시다(참조, 사 8:14; 28:16; 마 21:42,44; 롬 9:33; 고전 1:23; 벰전 2:8).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예수께 대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예수께 대해 중간 입장을 취할 여지가 없다(참조, 마 10:34-39). 그가 그리스도이시든지 거짓 메시아이시든지 둘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요 10:1-18; 14:6).

▣ **“홍하게 하며”** 이와 똑같은 헬라어가 다른 문맥에서는 “부활”로 번역되었다. 메시아이신 이 특별한 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를 신뢰하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짓는다. 악이 가지는 신비는 성령 및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실에 있다(참조, 8:11-12; 고후 4:4).

▣

NASB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서”
NKJV	“반대를 당할 표적으로서”
NRSV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도록”
TEV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인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NJB	“비방받는 표적이 되도록 정해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그가 받으신 거부이다. 이 일은 사 6:9-10과 같은 구약의 본문에서 암시되어 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을 나타낸다(즉, 의미를 감추기, 참조, 눅 8:10; 마 13:13; 막 4:12; 요 12:36b-43). 구약은 믿음을 가진 ‘남은 자’만이 구원(구출)을 받게 된다고 거듭 거듭 예언하였다.

2:35 **“칼”** 이 단어는 로마인들이 사용한 큰 칼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것임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마리아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참조, 요 19:26-27). 이 구는 특별히 마리아에게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 NASB에 나타나는 연결부호(-)를 주목하라.

▣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께 대하여 중간 지대는 없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모든 그룹과 모든 사람의 응답을 양극화 시키실 것이다(참조, 눅 8:17-18). 유대인이라는 점이 결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바르게 하지 못한다(교회의 회원이 됨 혹은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개역개정 2:36-38  
<sup>36</sup>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sup>37</sup>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sup>38</sup>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2:36 **“(여)선지자”** 말라기(혹은 역대기서의 기록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감을 주셔서 대언자로 사용하신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일은 구약에서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미리암, 한나, 드보라, 룻, 홀다, 에스더 등 그 예가 많이 있다(참조, 행 2:17; 21:9).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I. 구약

가. 문화적으로 여자는 재산으로 여겨졌다

1. 재산 목록에 포함됨(출 20:17)
2. 노예 여자에 대한 대우(출 21:7-11)
3. 여자가 한 맹세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남성에게 의해 취소될 수 있었다(민 30 장)
4. 전쟁의 전리품인 여자(신 20:10-14; 21:10-14)

나. 실제적으로 남녀 간에 친밀함이 있었다

1.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음(창 1:26-27)
2. 부모를 공경함(출 20:12[신 5:16])
3. 부모에 대한 존경(레 19:3; 20:9)
4. 남자와 여자가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민 6:1-2)
5. 딸들도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민 27:1-11)
6. 언약백성의 한 구성원이 됨(신 29:10-12)

7. 부모의 가르침을 지킴(잠 1:8; 6:20)
  8. 헤만(레위 족)의 아들 딸이 성전에서 음악을 지도함(대상 25:5-6)
  9. 새 시대에 아들 딸이 예언할 것임(을 2:28-29)
- 다. 여자가 지도력을 가짐
1.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불림(출 15:20-21)
  2. 회막을 건설하는 일을 위해 여자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음(출 35:25-26)
  3. 여선지자(참조, 샛 4:4) 드보라도 모든 지파를 이끌음(샛 4:4-5; 5:7)
  4. 요시아 왕이 불러 와 새로 발견한 “율법 책”을 읽고 해석하게 한 홀다가 여선지자였다(왕하 22:14; 대하 34:22-27)
  5. 경건한 여인 롯은 다윗의 조상이었다
  6. 경건한 여인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했다

## II. 신약

가. 유대교와 헬라-로마 세계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인권과 특권을 거의 가지지 않은 이등국민으로 여겨졌다(단, 마게도니아는 예외였음).

나. 여성 지도자

1. 경건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눅 1-2 장)
2. 경건한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긴 안나(눅 2:36)
3. 신자요 가정 교회의 지도자였던 루디아(행 16:14,40)
4. 여선지자였던 빌립의 네 딸(행 21:8-9)
5. 켈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비비(롬 16:1)
6.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가(브리스길라) (행 18:26; 롬 16:3)
7. 바울의 여성 동역자인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의 자매(롬 16:6-16)
8. 유니아(KJV)는 아마도 여사도였다(롬 16:7)
9.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

## III. 다양한 성경의 예를 오늘날의 신자가 어떻게 균형있게 취할 것인가?

가. 원래의 문맥에서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진리로부터 어떻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영원히 유효한 진리를 구별해 낼 수 있는가?

1. 우리는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우리는 명백히 역사적 환경 가운데 영감을 받은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ㄱ. 이스라엘의 예배(즉, 예식과 의식)
  - ㄴ. 제 1 세기의 유대교
  - ㄷ.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조건적인 바울의 진술
    - (1) 이교도인 로마의 법적 제도
    - (2) 노예로 남아 있는 것(7:20-24)
    - (3) 독신(7:1-35)
    - (4) 처녀(7:36-38)
    - (5) 우상에게 바친 음식(8 장; 10:23-33)
    - (6) 주의 만찬에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11 장)
3. 하나님은 자신을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시대에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우리는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역사적 환경에 맞추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다.

나.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적절한 해석의 기초요 중요한 면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야만 한다. 이제 여기에 여자 지도자의 문제가 제기된다(해석에 있어서 실제 문제는 그 용어의 정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목사외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여집사와 여선지자는 지도자로 여겨졌는가?) 고전 14:34-35 과 딤후전 2:9-15 에서 여자는 공공 예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바울 당시의 문화나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잠잠케 하기를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 바울 당시에는 그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너무 풀어져 있다. 바울의 말과 가르침은 제 1 세기의 지역교회 상황에만 들어맞는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상당히 불편하다. 내가 누구라고 내 생각이나 내가 속한 문화로 하여금 영감받은 저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한단 말인가!

한편 성경에 여성 지도자들의 실례가 나오는데(바울서신에서 조차, 참조, 로마서 16 장)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바울이 공공예배에 대해 고전 11-14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바울이 11:5 에서는 여자가 공공예배에서 머리를 가리고 설교나 기도를 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4:34-35 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집사들(참조, 롬 16:1)과 여선지자들(참조, 행 21:9)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나로 하여금 바울의 언급(여자에게 제한을 주는)을 1 세기의 고린도와 에베소에 국한시키게 한다. 두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새롭게 얻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참조, 브루스 윈터, *바울이 떠난 후의 고린도*). 즉 그 교회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였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여야 했다.

오늘날은 바울 시대의 상황과 정반대이다. 오늘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복음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공적 예배의 궁극적 목적인가? 바로 복음전도와 제자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들을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기뻐하시는가?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다!

나는 바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내가 가진 신학도 바울신학이 주된 내용이다. 나는 현대의 여성운동자들로부터 과도하게 영향을 받거나 그들에 의해 조종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편 교회는 노예제도, 인종차별, 편협주의, 성차별 등의 부적절한 관습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따름에 있어 느렸다고 나는 느낀다.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히 행동함에 있어서도 느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여성을 자유롭게 하셨다. 문화적으로 묶여져 있는 본문이 그들에게 다시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나는 담대히 주장한다

한 마디 더: 해석자인 나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어지러운 교회였음을 안다. 은사를 갖고 자랑하고 과시했다. 여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었을 것이다. 나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 거짓교사들은 여자들을 이용하여 에베소의 가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리하여 말하게 했다.

다. 추가적인 독서를 위한 제안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투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61-77 쪽)

고든 피의 *복음과 성령: 신약 해석학의 질문*

알터 C. 카이저, 피터 H. 데이빗, F. F. 브루스, 맨프렛 T. 브랜치의 *성경의 난해구절*(613-616; 665-667 쪽)

### 특별주제: 바울과 사역에 함께 한 여인들

로마서 16 장에 나오는 여인들이 모두 복음에 있어서 바울의 동역자였음을 주목하라(참조, 빌 4:3): 뵈뵈, 1 절; 브리스가, 3 절; 마리아, 6 절; 유니아(또는 유니아스—만일 이렇다면 남자임), 7 절;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12 절; 버시, 12 절; “그의 어머니,” 13 절; 율리아, 15 절; “그의 자매,” 15 절. 여성이 사역에 참여함에 있어서 교조주의적 자세를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신자가 은사를 받았고(참조, 고전 12:7,11), 모든 신자가 전임사역자이다(참조, 엡 4:12). 우리는 여집사 뵈뵈 및 아마도 여자 사도였을 유니아가 이 장의 목록에 들어있음을 본다(참조, 율 2:28; 행 2:16-21).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내용이 고전 11:4-5 과 14:34 을 서로 비교할 때 나타나듯이 역설적 진술로 보이기 때문이다.

▣ “아셀 지파” 이것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게 사로 잡혀간 북쪽의 10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음을 말한다. 어떤 북쪽의 지파 사람들은 돌아왔다.

2:37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여인은 남편이 일찌기 죽은 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주석가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구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현대 신자는 이것이 반드시 문자적인 것(즉, 그녀가 그곳에서 살았다)이든지 아니면 성경이 틀린 것이든지 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나로서는 이것을 명백한 과장법으로 본다. 그녀는 낮 시간 동안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녀의 삶을 이루었다. 이처럼 문자적 해석 대 은유적 해석이 관련된 또 다른 예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한쪽 편으로 누워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의 경우이다(참조, 겔 4:4-8).

2:38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녀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누가는 도대체 왜 그녀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일까? 이는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 두 증인으로부터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이었다(참조, 민 35:30;

신 17:6; 19:15). 어린 사람(태중에 있던 요한)과 나이 많은 사람(시므온과 안나) 및 남자와 여자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2:25 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설명을 보라. 1:68-74 에서 사가랴도 이에 대해 말했다. “속량”에 대하여는 1:68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2:39-40**

<sup>39</sup>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sup>40</sup>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2:39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와 그의 부모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정통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자신들과 자기들의 자식을 위해 그들이 행하도록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완벽히 행했다.

▣ “갈릴리로 돌아가” 이것은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행하신 지역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참조, 사 11:1). 이 지역은 시리아, 앗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해 빼앗겼던 지역이었다.

▣ “나사렛” 예수께서 자라신 마을은 나사렛으로 불렸다. 이 지명은 구약, 탈무드, 요세푸스의 글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주전 134-104 년에 다스렸던 요한 힐카누스(즉, 하스모니안)의 시대 이전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마을에 있는 사실은 이곳에 다윗 계보에 속하는 씨족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나사렛이라는 이름과 메시아의 칭호인 순(참조, 마 2:23, “나사레네로 불리는”) 사이에 어떤 어원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어에서 순은 *נֶשֶׁל*이다(참조, 사 11:1; 렘 23:5; 33:15; 숙 3:8; 6:12; 계 5:5; 22:16). 4:34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명칭은 사람을 알잡아보기 위해 사용한 용어였음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서 이방인의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이었다(참조, 요 1:46; 행 24:5, 비록 이곳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에도[참조, 사 9:1]). 이 점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였는지를 말한다.

2:40 “아기가 자라며” 예수께서는 인간의 아기로써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면에서(참조, 52 절, 1:80 의 특별주제를 보라) 정상적으로 자라나셨다(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참조, 1:80). 이 진술은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예수께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회당에서 연 학교에 출석하셨음도 분명하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영지주의**

- 가. 이 이단에 대해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지식은 2 세기에 쓰여진 영지주의 작품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의 초기적인 모습은 1 세기(사해사본) 및 사도 요한의 글에서 반영되고 있다.
- 나. 에베소(디모데 전서), 크레테(디도서), 골로새(골로새서)에는 초기 단계의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적 유대교의 혼합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 다. 2 세기의 발렌티안과 세린티안 영지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물질과 영은 함께 영적(존재론적 이원론)이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형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 없다
  - 2. 하나님과 물질사이에 유출(오프온 혹은 천사적 수준의)이 일어난다. 가장 마지막 혹은 가장 낮은 존재는 구약의 야웨인데, 그는 우주(코스모스)를 형성했다
  - 3. 예수는 야웨와 같은 유출의 결과이지만 좀 더 높은 계급, 즉 참 하나님과의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존재였다. 어떤 이는 그가 가장 높지만 아직 하나님에 비해 낮고, 성육신한 신은 확실히 아니었다(참조, 요 1:14)고 말한다.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었고 여전히 신적 존재였다. 그는 사람으로 보인 영적 환영으로서 오로지 영이었다(참조, 요일 1:1-3, 4:1-6).
  - 4. 구원은 예수를 믿는 일과 더불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데,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지식(암호)은 천상의 영역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주의 또한 요구되었다.
- 라. 영지주의의 거짓교사들은 두가지 상반되는 윤리적 가르침을 전했다.
  - 1. 어떤 이는 삶의 방법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영성은 천사적인 영역(오프온들)을 통과하여 비밀스런 지식(암호)으로 합쳐져 있었다.
  - 2. 다른 이는 삶의 방법이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그들은 금욕적 삶을 참된 영성의 증거로 강조했다(참조, 2:16-23).
- 마. 이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는 제임스 M. 로빈슨과 리처드 스미스의 *낙 함마디 도서권*이다

▣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 로우와 니다(*헬라어-영어 사전* 제 2 권 262 쪽)는 “친절함, 선물, 감사, 선한 바람”을 번역시 선택할 수 있는 목록으로 말한다. 이 절에 있는 이 단어는 공관복음서에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가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지만 “은혜”라는 의미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2:41-51**

<sup>41</sup>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sup>42</sup>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sup>43</sup>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sup>44</sup>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sup>45</sup>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sup>46</sup>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sup>47</sup>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sup>48</sup>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sup>49</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sup>50</sup>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sup>51</sup>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2:41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21 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해 마다 세 가지 주요 축제에 참석하도록 요구되었다(참조, 출 23:14-17; 34:23; 신 16:16). 1 세기에 이르러서는 팔레스타인 밖에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 하나의 축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줄였다. 이 일은 예수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에 헌신하였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마리아의 경우 축제에 참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녀는 함께 가기를 위해 동행하였다.

**2: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유대인 소년을 “율법의 아들”로 부르는 나이인 *바르 미쓰바*(13 세)에 아주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누가가 예수의 나이를 열두 살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이때에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때에는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백히 아셨다(참조, 49 절).

**2:43 “그 날들을 마치고”** 순례자들은 안전을 위해 무리를 지어 이동했는데, 그들은 대개 이틀이나 칠일을 머물렀다(참조, 출 12:15-16; 레 23:6-8; 신 16:3).

▣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 순례자의 무리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움직였는데 자녀들도 종종 함께 다녔다. 예수의 부모는 각각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상대방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2:44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순례자의 행렬은 예루살렘을 떠나 대개 브에롯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15 km 정도 떨어진 장소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30 km 이상이었다.

**2:46 “사흘 후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여행한 하루, 그곳으로 되돌아 간 하루의 여행, 예수를 찾기 위해 사용한 하루를 더한 날의 합이다.

▣ **“성전에서”** 안식일과 축제일에 랍비들이 여인들의 뜰로 불리는 현관에서 가르쳤다. 그곳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덮개가 있었다.

▣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선생님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름답다. 한편, 비록 우리가 신뢰하는 분들에게서 들은 내용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그 내용이 사색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생각이 되게 하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 성숙함은 듣는 일과 질문을 함을 필요로 한다. 다른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진리로 바뀌어야만 한다.

**2: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으로서 반복되는 경험을 나타낸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훌륭한 랍비들로부터 듣고 또 그들과 율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었던 기회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유일한 경우에 속한다. 그들은 성인이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지도자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 절은 예수께서 가지신 특별한 모습을 말하는 반면, 52 절은 예수님의 정상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둘 다 사실이다. 예수께서는 매우 일찌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아셨다! 그럼에도 그는 참으로 사람이셨다!

2: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것은 문자적으로 “막대기로 맞다”이다(참조, 2:48; 4:32; 9:43; 행 13:12).

▣ “네 아버지와 내가” 마리아가 사용한 대명사 “네 아버지”와 49 절에 있는 예수께서 사용한 대명사 “내 아버지” 사이의 대조를 주목하라. 50 절은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께서 하신 것만큼 분명하게 이 구분을 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말한다.

▣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것은 미완료형이다. 그들은 삼일 동안 예수를 찾아 다녔고(참조, 2:46) 예수께서 잘 있는지에 대해 극도로 근심했다.

2:49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것은 예수의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원래 속하신 곳과 목적을 이렇듯 어린 시기에 알고 계셨음을 나타낸다. 이 기록은 “양자설”이라는 이단을 거부하기 위해 누가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자설”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 및 초기의 서기관들이 기독교의 이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본문을 변형시켰는가에 대하여는 바르트 D. 에르만의 정통과가 행한 성경의 변형 47-118 쪽을 보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 책의 부록에 있는 용어설명에 나온다.

2:50 예수의 청중이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로 누가복음이 특별히 언급을 하는 내용이 세 곳에 있다.

1. 그의 부모 - 2:50
2. 무리 - 9:45
3. 열 두 제자 - 18:34(예수의 죽음에 대해)

열 두 제자는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는 특권을 가졌다(참조, 10:21-24).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는(참조, 24:45) 받아들일 수 없었다(참조, 막 9:31; 요 2:22; 12:16; 14:26).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간격은 중적 이원론의 한 부분을 이룬다(즉,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아래로부터 온 자들이다).

2: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이것은 요셉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다. 분명히 그가 일찍 죽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부부는 여러 자녀를 낳았다(참조, 마 12:46; 13:55; 막 6:3; 요 2:12; 7:3,5,10; 행 1:14; 고전 9:5; 갈 1:19).

▣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것은 완곡적인 미완료 수동태로서 “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순종하셨다”이다. 이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은 매우 엄격했다(참조, 신 21:18-21). 예수께서는 일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셨다. 그는 자녀에 대한 유대인의 일반적 규율에 순종했고 이를 따랐다.

▣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초기에 일어난 이 일들을 마음에 두었지만(참조, 2:19) 그 일들을 부활 사건 이후에야 이해할 수 있었다(참조, 50 절). 누가는 마리아를 면담했을 것이 분명하다. 또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아마도 바울이 2년간 해변가에 위치한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는 동안 이러한 면담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 개역개정 2:52

<sup>52</sup>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52 예수께서는 정상적인 소년기를 보내셨다. 그는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이 사실은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상반된다); 바로 이 사실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신지를 설명한다(참조, 히 2:18; 4:15)!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는 왜 자신과 마리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가?
2. 시므온이 한 말에서 무엇이 매우 특별한 내용을 이루는가?
3. 한나가 예수께 대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왜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는가?
4. 예수께서는 “정상적”인 소년기를 보내셨는가?
5. 21-41 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세 가지 예식을 말하라.
6. 누가 동방박사들의 방문 및 예수께서 이집트로 피하여 가신 일을 왜 언급하지 않는가?
7. 예수께 대한 정통적인 유대교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8. 40 절과 52 절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9. 40 절의 사건은 예수께서 *바르 미즈바*에 이르심을 말하는 내용인가?
10. 순례자의 행렬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라. 이러한 모습은 예수의 부모가 어떻게 그를 온 종일 잃어버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가?
11. 왜 예수의 부모는 놀랐는가? 왜 예수께서 그들의 반응을 인하여 놀라셨는가?

## 누가복음 3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어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침례(세례)요한의 설교	침례(세례)요한이 길을 예비하다	침례(세례)요한의 활동	침례(세례)요한의 설교	침례(세례)요한의 선포
3:1-6	3:1-6	3:1-6	3:1-6	3:1-6
	요한이 백성에게 설교하다			
3:7-14	3:7-20	3:7-9	3:7-9	3:7-9
		3:10-14	3:10	3:10-14
			3:11	
			3:12	
			3:13	
			3:14a	
			3:14b	
3:15-20		3:15-20	3:15-17	3:15-18
			3:18-20	간헐 침례(세례)요한
				3:19-20
예수의 침례(세례)	요한이 예수께 침례(세례)를 베풀다	예수의 침례(세례)	예수의 침례(세례)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받으시다
3:21-22	3:21-22	3:21-22	3:21-22	3:21-22
예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의 족보	예수의 조상들	예수의 조상
3:23-38	3:23-38	3:23-38	3:23-38	3:23-3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1-6

<sup>1</sup>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sup>2</sup>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sup>3</sup>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sup>4</sup>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sup>5</sup>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sup>6</sup>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3:1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이 시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후 27 년에서 29 년 사이일 것이다. 디베료는 아우구스투스(그는 주후 14-37 년에 다스림)가 죽기 전에 이 년 동안 지방에서 다스렸다.

1-2 절은 누가가 이 사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하다. 누가는 신약에서 다른 어떤 저자 보다는 복음서의 사건을 세속 역사와 관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기독교는 역사에 기초한 종교이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이에 걸려 넘어지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본디오 빌라도

I. 출신

- 가. 태어난 장소와 때는 알려지지 않음
- 나. 기병대 출신(로마 사회의 중상층)
- 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음
- 라. 이전의 행정관으로서의 지위(여러 직임을 그가 맡았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음

II. 그의 성격

- 가. 두 가지의 다른 관점
  1. 필로(레가티오와 가이움, 299-305)와 요세푸스(유대고대사 18.3.1 과 유대전쟁사 2.9.2-4)는 그를 잔인하고 동정심이 없는 독재자로 묘사했다.
  2. 신약(복음서들, 사도행전)은 그를 나약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로마 총독으로 표현했다
- 나. 바울 바네트(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발생, 143-148 쪽)는 이 두 관점에 관한 가능성이 있는 설명을 한다.
  1. 빌라도는 주후 26 년 친유대주의자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참조, 필로, 레가티오와 가이움, 160-161), 티베리우스의 반유대파 고문관인 세자누스에 의해 임명되었다
  2. 티베리우스는 집정관으로서 황제의 배후에 있었고 유대인을 미워했던 L. 아엘리우스 세자누스에 의해 정치적인 손해를 입었다(필로, 레가티오와 가이움, 159-160).
  3. 빌라도는 세자누스의 보호를 받았고 그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했다:
    - ㄱ. 다른 총독들이 하지 못했던 로마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옮겨 오(주후 26 년). 로마 신들의 상징은 유대인을 격노하게 했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3.1; 유대전쟁사 2.9.2-4).
    - ㄴ. 로마인들이 숭배한 형상들을 새긴 동전을 찍어냄(주후 29-31 년). 요세푸스는 그가 유대인의 법과 관습을 의도적으로 전복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4.1-2).
    - ㄷ. 예루살렘에 도수관을 건설하기 위해 성전의 보물을 취함(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8.3.2; 유대전쟁사 2.9.3).
    - ㄹ.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게함(참조, 눅 13:12).
    - ㅁ. 주후 31 년에 예루살렘 안으로 로마인의 방패를 가져옴. 헤롯대왕의 아들은 빌라도에게 그것을 치워달라고 간청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티베리우스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로 그것들을 옮기도록 명령하였다(필로, *레가티오와 가이움*, 299-305).

- ㄴ.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잃어버린 종교적인 신성한 물건들을 찾고 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라심 산에서 죽게함(주후 36/37년). 이 일은 빌라도의 상관(시리아의 장관 비텔리우스)으로 하여금 그를 쫓아내어 로마로 보내게 했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4.1-2).
4. 세자누스는 주후 31년에 처형되었고 티베리우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므로 ㄱ-ㄴ항까지는 빌라도가 세자누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행했을 것이다. ㄹ과 ㄴ항은 티베리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시도한 것이지만, 불리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5. 친유대적 황제가 복위하여 유대인에게 친절히 하라는 공식적인 서신이 티베리우스로부터 총독에게 보내어졌다(필로, *레가티오와 가이움*, 160-161). 예루살렘의 유대지도자들이 티베리우스와의 관계에서 빌라도가 가진 정치적 취약성을 이용하였고 또 그를 조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였음이 명백하다. 바네트의 이러한 견해는 빌라도에 대한 두 관점을 적절하게 제시한다.

### III. 그의 운명

- 가. 그는 소환되어 티베리우스가 죽은 직후 로마에 도착했다(주후 37년).
- 나. 그는 다시 임명되지 않았다.
- 다. 그 이후의 그의 생애는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추측이 있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어렵다.

▣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헤롯 안디바스(주전 4년-주후 39년)는 총독 혹은 분봉왕으로 불렸다. 그가 자신의 호칭을 “왕”으로 바꾸었음을 인해 갈리굴라가 폐위시켰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헤롯대왕의 가족

- 가. 헤롯대왕
  1. 유대의 왕(주전 37-4년), 이두매(에돔에서 온) 사람임, 그는 정치적 술수와 마크 안토니를 지원함을 통해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주전 40년에 팔레스타인의 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로 임명받음
  2. 그는 마 2:1-19 과 눅 1:5 에서 언급됨
  3. 그의 아들들
    - ㄱ. 헤롯 빌립(시몬 마리암느의 아들)
      - (1) 헤로디아의 남편(주전 4년 - 주후 34년)
      - (2) 마 14:3; 막 6:17 에서 언급됨
    - ㄴ. 헤롯 빌립 I 세(시몬 마리암느의 아들)
      - (1) 갈릴리 호수의 북쪽과 서쪽 지역의 분봉왕(주전 4년 - 주후 34년)
      - (2) 눅 3:1 에서 언급됨
    - ㄷ. 헤롯 안티파스
      - (1) 갈릴리와 베뢰아의 분봉왕(주전 4년 - 주후 39년)
      - (2) 마 14:1-12; 막 6:14,29; 눅 3:1,19; 9:7-9; 13:31; 23:6-12,15; 행 4:27; 13:1 에서 언급됨
    - ㄹ. 아켈라우스, 헤롯 에쓰낙
      - (1)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의 통치자(주전 4년 - 주후 6년)
      - (2) 마 2:22 에서 언급됨
    - ㅁ. 아리스토틀루스(마리암느의 아들)
      - (1) 헤롯 아그립바 I 세의 아버지로서 언급됨
        - (ㄱ) 유대의 왕(주후 37-44년)
        - (ㄴ) 행 12:1-24; 23:35 에서 언급됨
          - i 그의 아들은 헤롯 아그립바 II 세였음
            -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주후 50-70년)
          - ii 그의 딸은 베니게였음
            - 그녀의 형제의 배우자
            - 행 25:13-26:32 에서 언급됨

- iii 그의 딸은 드루실라였음
  - 벨릭스의 아내
  - 행 24:24 에서 언급됨

나. 헤롯에 대한 성경의 언급

1. 마 14:1 이하; 눅 3:1; 9:7; 13:31; 23:7 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대왕의 아들이었다. 헤롯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왕국은 그의 여러 아들들에게로 나누어졌다. “분봉왕”은 “넷으로 나누어진 부분의 지도자”를 뜻한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알려져 있으며 줄여서 안티파터로 불린다. 그는 갈릴리와 베뢰아를 다스렸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 이두매 출신의 두 번째 통치자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행해졌음을 뜻한다.
2.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아리스토틀루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빌립과 결혼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 인접한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로마에 살았던 또 다른 빌립이었다. 헤로디아는 빌립과의 사이에서 한 명의 딸을 낳았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헤로디아를 만났고 정치적 야망을 꿈꾸던 그녀에 의해 유혹을 받았다. 그 결과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티아의 공주였던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하여 둘이 결혼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한편 헤롯 아그립마 I 세(참조, 행 12 장)의 자매이기도 하였다.
3. 우리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책 *유대 고대사* 8:5:4 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2 살에서 17 살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의해 철저히 조정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녀는 후에 분봉왕 빌립과 결혼했지만 곧 과부가 되었다.
4. 침례(세례)요한의 목이 잘린 후 약 10 년이 되었을 때에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 가서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스도 그녀의 형제 아그립마 I 세 처럼 왕의 호칭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아그립마 I 세는 로마에 편지를 보내 안티파스가 비옥한 초생달(메소포타미아) 출신으로서 로마의 원수인 파르티안스와 공모했다고 알렸다. 황제는 아그립마 I 세의 말을 분명히 믿고 헤롯 안티파스를 그의 아내 헤로디아스와 함께 스페인으로 추방했다.
5. 신약에서 그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 명의 헤롯을 서로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헤롯대왕은 베들레헬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세례)요한을 죽였다; 헤롯 아그립마 I 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헤롯 아그립마 II 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을 들었다.

다. 헤롯대왕의 가족적 배경에 대하여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의 색인을 참조하라.

▣ “빌립이 ... 분봉 왕으로”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빌립(주전 4 년-주후 34 년)은 가장 훌륭한 통치자였다.

▣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이 사람은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언급된다. 요세푸스는 아빌라(아빌레네가 아님)를 포함하는 지역인 칼시스를 다스렸던 툴레미의 나이 든 아들의 통치가 주전 40 년에 시작되었음에 대해 언급한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5.4.1 및 14.13.3).

한편, 아빌레네에서 나온 비문은 루사니아로 불리는 분봉왕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 비문은 주후 11 년 혹은 주후 14-29 년에 속한다. 요세푸스도 루사니아를 아빌라와 관련시켜 말한다(참조, *유대 고대사* 19.5.1; 20.7; *유대 전쟁사* 2.11.5; 2.12.8). 누가복음의 역사성이 또 다시 입증되었다.

아빌레네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원래 헤롯대왕이 다스리던 영토의 한 부분이었다.

3:2 “안나스와 ... 대제사장으로” 그의 헬라 이름은 한나스이다; 요세푸스는 그를 한나노스로 부른다. 이 이름은 “자비한” 혹은 “은혜로운”을 뜻하는 히브리어(한나)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다. 한편 로마는 이 직위를 레위인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치적 직책으로 바꾸었다. 대제사장은 여인의 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였고 상권에 관여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은 이 가족으로 하여금 화나게 했다.

프라비우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나스는 주전 6-15 년에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구레네(시리아의 총독이었다가 후에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면직됨)의 임명을 받았다. 그의 친척(5 명의 아들과 1 명의 손자)이 그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다. 가야바(주후 18-36 년)는 그의 사위로서(참조, 요 18:13) 그의 뒤를 바로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다. 안나스는 이 직임의 배후에 있던 실세였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에게로 예수를 끌고 갔다고 요한은 설명한다(참조, 요 18:13,19-22).

▣ “가야바” 가야바는 돈을 내고 로마의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이 된 사람(주후 18-36)이다. 그는 주후 6-15 년에 대제사장으로 지낸 안나스의 사위였다. 이 힘있는 가문은 영적인 동기보다 정치적 물질적 동기에 의해 행동했다. 이들 때문에 모든 사두개인이나 산헤드린을 나쁘게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의 표현이다(즉, 렘 1:2). 여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가리킨다.

▣ “빈 들에서” 그는 에센 공동체의 회원이었거나 방문자였을 것이다(참조, 막 1:4; 마 3:1). 빈 들은 엘리야가 주로 거하던 장소였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보였고 그처럼 행동했으며 그처럼 살았다. 예수께서는 그가 말 3-4 장에 기록된 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그가 성취했다고 말씀하신다(참조, 마 11:14; 17:10-13).

3:3 “세례” 제 1 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행한 침례(세례)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에센 공동체(즉, 사해사본)
2. 유대인 개종자를 위한 개종의 침례(세례)
3. 유대교의 정결을 위한 상징(참조, 사 1:16)

▣ “회개”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회개**

회개(믿음과 더불어)는 옛 언약(나카, BDB 636 예, 13:12; 32:12,14; 슈브, BDB 996 예, 왕상 8:47; 겔 14:6; 18:30)과 새 언약의 언약적 요구이다.

1. 침례(세례)요한(마 3:2; 막 1:4; 눅 3:3,8)
2. 예수(마 4:17; 막 1:15; 눅 5:32; 13:3,5; 15:7; 17:3)
3. 베드로(행 2:38; 3:19; 8:22; 11:18; 뱀후 3:9)
4. 바울(행 13:24; 17:30; 20:21; 26:20; 롬 2:4; 고후 2:9-10)

그러나 무엇이 회개인가? 이것은 슬퍼함인가? 이것은 죄를 그치는 것인가? 신약에서 이 개념의 여러 함축적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7:8-11 인데, 이 본문은 다르면서도 서로 관계가 있는 3 가지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슬픔”( *λύπη*, 참조, 8 절[2 회], 9 절[3 회], 10 절[2 회], 11 절). 이것은 슬픔이나 번민을 뜻하며 신학적으로는 중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2. “회개”( *μετανοέω*, 참조, 9,10 절). 이것은 “후에”와 “마음”의 합성어로서 새 마음, 생각하는 면에서의 새로움, 삶과 하나님께 대한 새 자세를 뜻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다.
3. “후회”( *μεταμέλομαι*, 참조, 8 절[2 회], 10 절). 이것은 “후에”와 “돌봄”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마 27:3 에서 유다에 대해 사용되었고 히 12:16-17 에서 에서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슬퍼함을 뜻한다

회개와 믿음이 언약의 행위로서 요구된다(참조, 막 1:15; 행 2:38,41; 3:16,19; 20:21).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것을 암시하는 몇 본문이 있다(참조, 행 5:31; 11:18; 딤후 2:25). 그러나 대부분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언약적 응답에 필요한 것으로 이 의미를 나타낸다.

회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있어서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헬라어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구원받은 자는 새 마음과 심령을 받는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산다. “나를 위해 무엇이 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한다. 회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나 혹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록하신 분과의 새로운 교제로서 신자가 점차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한다.

▣ “죄 사함” 이것은 *ἀφεσις*라는 헬라어 단어의 한 형태로서 죄를 용서함을 주로 나타낸다(참조, 5:20,21,23,24; 7:47,48). 이것은 또한 병에서 놓임을 받게 함을 뜻하는 의학적 용어(*ἀφεσις*)이다(참조, 4:39). 누가는 아페시스를 자주 사용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 사용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바울서신에서는 오직 두 번 사용하였다.

요한의 과제는 이스라엘을 믿음 없이 행하는 의식과 죄로부터 불러 내어 개인의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들은 반복하여 야웨와의 언약을 배반하였고 또 야웨께서 언약에 따라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사랑을 오해하였다. 요한은 오직 예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영적 필요를 강조하여 제시했다!

**특별주제: 죄 사함을 나타내는 단어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반역을 용서하심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히브리 단어와 구를 여기에 제시한다.

1. “용서하다,” “사하다,” 살라흐 - BDB 699, KB 757, 즉, 출 34:9; 레 4:20,26,31,35; 5:10,13,16,18; 6:7; 19:22; 민 14:20; 15:25-28; 30:5,8,12; 왕상 8:30,34,36,39,50; 시 25:11; 103:3; 사 55:7; 단 9:19; 암 7:2(이 용어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사용됨)

2. “쓸어 버리다,” “지우다,” *나사*(여러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자주 쓰인 단어임) - BDB 669, KB 724, 즉, 출 23:21; 32:32; 34:7; 민 14:18; 수 24:19; 시 25:18; 32:1,5; 85:2; 99:8; 미 7:18
3. “덜다,” “속죄하다,” *카파르* - BDB 497, KB 493, 즉, 레위기에서 아주 많이 쓰임; 시 65:3; 78:38; 79:9; 사 6:7; 22:14; 램 18:23; 겔 16:63; 단 9:24
4. “지우다,” “쓸어 버리다,” *마하* - BDB 562, KB 567, 즉, 느 4:5; 시 51:1,9; 사 43:25; 44:22; 램 18:23
5. “병을 고치다,” *라파* - BDB 950, KB 1272, 즉, 대하 7:14; 시 41:4; 103:3; 사 6:10; 57:18; 램 3:22; 17:14; 30:17; 호 5:13; 14:4
6. “건너가다,” *아바르* - BDB 716, KB 778, 즉, 잠 19:11; 암 7:8; 8:2; 미 7:18
7. “씻다,” *카마스* - BDB 460, KB 459, 즉, 시 51:2,7; 램 2:22; 4:14
8. “깨끗게 하다,” *타하르* - BDB 372, KB 369, 즉, 레 16:30; 시 51:7; 잠 20:9; 겔 24:13; 36:25
9. “등 뒤로 던지다,” *살락* - BDB 1020, KB 1527, 즉, 사 38:17; 미 7:19
10. “제거하다,” *하타* - BDB 306, KB 305, 즉, 시 51:7(이 단어는 매우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나타낸 것으로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됨)
11.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다,” *사타르* - BDB 711, KB 711, 즉, 시 51:9
12. “기억하다”(부정), *자카르* - BDB 269, KB 269, 즉, 사 43:25
13. “뺏다”(문자적으로, “정복하다”), *카바쉬* - BDB 461, KB 460, 즉, 미 7:19

**3:4-6** 이것은 사 40:3-5의 인용이다. 누가복음만 4 절과 5 절 전체를 인용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3 절만을 인용한다. 이점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임을 강조하는 누가의 범세계적 관점을 계속적으로 나타낸다.

구약의 인용과 관련된 관점을 보라:

1. 요한은 “빈 들”에서 왔다.
2.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메시지와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했다.
3. 하나님께 대한 장애를 상징하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장벽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4.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3:4 “쓸 바”** 이것은 *그라포*의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구약의 인용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신약에서 헬라이어 단어인 *그라페*는 종종 성경을 나타낸다(참조, 4:21; 24:17,32).

▣ **“책에”** 이것은 헬라이어 단어인 *비블로스*(참조, 20:42)로서, 이 단어에서 “책” 및 “성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 여기서는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를 가리킨다(참조, 4:20; 계 5:1-5).

▣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긴급성을 나타낸다. 맛소라 히브리 본문에서 주(즉, *야훼*)로 읽는 본문이 실제로는 *야웨*이다. 이 구는 원래 왕의 방문을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참조, 사 57:14; 62:10).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오심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침례(세례)요한의 사역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예수는 “주”(즉, *퀴리오스*)로도 불리신다.

▣ **“주의”** 신약의 저자들은 *야웨*에 대해 사용된 구약의 기록을 계속적으로 예수께 대하여 사용한다.

▣ **“길을 곧게 하라”** 맛소라 본문과 70 인역에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라”로 되어 있다. 마가(혹은 베드로)는 이 본문을 변형시켜(혹은 알려지지 않은 본문에서 인용하여) 이 내용을 *야웨*가 아닌 예수께 특별히 관련시킨다(누가는 마가복음을 이곳에서 사용하였다).

**3:5** 이 절에 나타난 회화적 표현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역사적으로, 왕의 방문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일
2.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모든 종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

**3: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구원”은 70 인역에서 취한 단어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영광”으로 되어 있다(참조, 3:30-32). 이방인 독자를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우주적 구원(즉,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 대한)을 강조한다.

#### 개역개정 3:7-9

<sup>7</sup>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sup>8</sup>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sup>9</sup>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3:7 “이르되”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침례(세례)요한이 반복하여 메시지를 전하였음을 나타낸다.

▣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분사**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움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다.

▣ “**독사의 자식들이**”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곳에 있었다(참조, 마 12:34; 23:23). 이 표현은 마 3:7 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우러러 보았고 또 그들을 존경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한은 그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다(참조, 막 1:15).

▣ “**장차 올 진노를**” 종말론적 성취는 성령의 새 날 뿐 아니라 심판의 날도 요구한다(참조, 마 24-25 장).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참조, 12:48).

3:8 “**열매를 맺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요한은 마음의 참된 변화(회개)를 나타내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 영적 열매의 개념을 마 7:15-23; 12:33; 눅 6:39-45; 갈 5:22-23 에서 다루고 있다. 영생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면을 가진다.

▣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혈통적 계보를 신뢰했다(참조, 요 8:37-59; 갈 3:29).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참조, 창 12,15,17 장)이 무조건적 약속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약속이 믿음의 응답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임을 분명히 선언하였다(참조, 롬 9:4-5 대 10:1-4). 족장들의 공로나 구약의 언약 둘 다 회개, 개인의 믿음, 순종, 인내를 대신할 수 없다. 복음은 혈통이 아닌 믿음에 초점을 둔다(참조, 롬 2:17-29).

▣ “**이 돌들로도 . . . 자손이**” 이 두 단어는 아람어에서 매우 비슷한 소리를 가진다(아들들—*바나이야*, 돌들—*압나이야*). 예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코이네 헬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이 구는 의도적인 단어유희이다. 이 구는 사 56:1-2 에서 말씀하는 바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을 암시할 것이다.

3:9 이것은 마 7:19 에 나오는 은유적 표현과 같은 내용으로서 열매맺지 않는 나무가 찍힘을 당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분명히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다. 예수 안에서 천국이 도래했음에도 이것이 이미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천국이 완벽하게 성취될 때에는 심판을 위한 분리가 생긴다(참조, 마 25:31-46; 계 20:11-15). 영적인 원리가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다—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참조, 욥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렘 17:10;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벧전 1:17; 계 2:23; 20:12; 22:12).

구약의 예언에서 불은 심판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었다(8 세기의 용례), 사 5:24; 9:18-19; 10:16-17; 26:11; 33:11,12,14; 47:14; 64:2,11; 66:15-16,24; 7 세기의 용례, 렘 4:4; 5:14; 6:29; 11:16; 15:14; 17:4,27; 21:12,14; 22:7; 23:29; 43:12-13). 3:17 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10-14  
<sup>10</sup>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sup>11</sup>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떡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sup>12</sup>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sup>13</sup>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sup>14</sup>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3:10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행하는 규정, 의식, 예식은 명백히 충분하지 않았다. 진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일은 성경적인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즉, 마음의 할례, 참조, 신 10:16; 30:6; 렘 4:4; 9:25-26; 롬 2:28-29).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참조, 약 2:14-26). 우리가 영접하여야 할 분(예수)이 복음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분에 대한 진리(신약)가 복음이며, 그 분처럼 사는 삶(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복음이다.

3:11 “**옷**” 이 헬리어 단어(*χιτων*)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70 인역에서 이 단어는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

1. 여자의 속옷, 창 3:21
2. 남자의 속옷, 삿 14:19
3. 제사장의 속옷, 레 6:3

물론과 밀리간은 이집트에서 나온 코이네 헬리어로 쓰인 파피루스에 대한 연구인 *헬리어 성경의 어휘*(688 쪽)에서 이 단어가 원래 소아시아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이 단어는 연관이 있는 두 의미를 지닌다:

1. 남자나 여자의 살갓과 닿는 속옷(참조, 70 인역, 마 5:40; 10:10; 막 6:9)
2. 옷의 통칭(참조, 마 14:63)

이 문맥에서 말하는 요지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웃이 없고 음식이 없는)과 나누라는 말이다.

**3:12-14 “세리들도 . . . 군인들도”** 이곳에서는 요한이 설교한 윤리적 내용에 대해 명령한 두 가지 예가 나온다. 그의 설교가 그들(부정하고 사악한 직업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을 바꾸라는 내용이 아니라 공정할 것과 만족할 것에 대한 것임을 주목하라.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운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14 절 후반절에서 군인들에 대해 사용한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온다.

1. 아무도 위협하지 말고(**부정과거 능동 명령**)
2. 아무도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부정과거 능동 명령**)
3.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현재 수동 명령**)

이들은 유대인 출신의 군인이었는가? 유대인들은 종종 용병으로 일했다(엘리판틴 파비루스). 그러나 로마의 통치하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군인으로 일하려 하지 않았다. 이 **동사**들은 백성들이 몹시 억눌린 채 살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 같이 행하였을까?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군인으로 부역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었다. 이들은 헤롯을 섬기는 유대인 군인들로서 헤롯을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었을 것이다.

**개역개정 3:15-17**

<sup>15</sup>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기 심중에 생각하니 <sup>16</sup>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sup>17</sup>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3:1 “바라고 기다리므로”** 헬라어 단어인 *프로스도카오*가 누가의 책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누가복음, 6 회; 사도행전, 4 회). 이 단어는 주로 “기다림”을 나타내는데(70 인역에서도 그러함) 종말론적 기대를 나타내기도 한다(참조, 눅 3:15; 7:19-20; 12:46).

▣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기 심중에 생각하니”** 이것은 **현재 능동 회구법**이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요한의 사역을 인하여 점화되었다. 그의 부인은 두 가지 신학적 목적을 이루었다:

1. 예수를 높이고 칭송함
2. 침례(세례)요한과 관련을 가지는 초대 교회의 이단을 제어함(참조, 행 19:1-7 및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슷한 종류의 강조적 부인, 1:6-8,19-42).

**3:16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이 메세지는 세 공관복음에서 나타난다(참조, 마 3:11; 막 1:7-8).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참조, 사 40:3; 말 3:1; 4:5-6). 그는 전령이었다(참조, 사 40:4-5).

**특별주제: 오실 특별한 분에 대한 구약의 호칭**

- 가. 선지자 - 신 18:15,18
- 나. 왕
  1. 유다 지파에서, 창 49:10; 시 60:7; 108:8
  2. 다윗의 가계에서, 삼하 7 장(이새로 부터, 사 11:1)
  3. 이를 말하는 다른 본문, 삼상 2:10; 시 89:3-4; 사 9 장; 11 장; 렘 30:8-9; 겔 37:21-22; 슥 9:9-10
- 다. 왕/제사장
  1. 시 110 편(왕, 1-3 절; 제사장, 4 절)
  2. 슥 4:14(두 감람나무, 기름부음 받은 두 사람, 스룹바벨[다윗의 후손]과 여호수아[아론의 후손])
- 라. 기름부음 받은 자(메시아)
  1. 하나님의 왕, 시 2:2; 45:7
  2. 성령의 임재, 사 11:2; 61:1
  3. 오실 이, 단 9:26
  4. 구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으로 덧입히심의 상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다: 왕(참조, 삿 9:8,15; 삼상 2:10; 9:16; 24:10; 삼하 19:21; 23:1; 시 18:50), 제사장(참조, 출 28:41; 레 4:3; 6:22), 제사장(참조, 왕상 19:16)
- 마. 왕의 아들
  1. 시 2:7,12
  2.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의 상징이었다(참조, 삼상 8 장)

- 바. 사람의 아들(단 7:13)
  1. 사람, 시 8:4; 겔 2:1
  2. 하나님, 단 7:13

- 사. 구속과 관련된 특별한 호칭
  1. 고난받는 중, 사 52:13-53:12
  2. 고난받는 목자, 슥 12-14 장
  3. 모퉁이 돌, 시 118 편; 사 8:14-15; 28:16
  4. 특별한 아기, 사 7:14; 9:6-7; 미 5:2
  5. 순, 사 4:2; 11:5; 53:2; 램 23:5-6; 33:15; 슥 3:8; 6:12

신약은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관해 이렇듯 흠어져 있는 자료를 취하고 발전시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오실 그분이심을 드러낸다(예, 마 16:13-20; 요 11:25-27).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심은 이렇듯 광범위한 기능과 호칭을 하나로 묶기 위한 방법이었다.

복음서에서 권위를 갖는 인자 및 고난받는 중으로서의 인자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좋은 논의를 위해서는 조지 E. 래드의 **신약 신학** 149-158 쪽을 보라.

▣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종들이 주인을 위해 하는 모든 종류의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한 가지 예외는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다. 요한은 메시아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를 사용하였다.

▣ **“성령과 불로”** 이 구는 신약에서 요한이 물로 주는 침례(세례)와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세례)를 구분하는 문맥에서만 나온다(참조, 3:16; 마 3:11; 막 1:8; 요 1:33; 행 1:5; 11:16). 따라서 이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의 영적 효과를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받는 구원의 시작을 가리킨다. 불은 아마도 죄의 용서를 위해(참조, 3 절) 누리는 정결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었다(참조, 레 13:52,55,57). 요한은 준비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께서는 성취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램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슥 2:5)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슥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은유로써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슥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램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뱀후 3:7-10; 계 8:7; 13:13; 16:8)

라. 성경의 여러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낸다.

**3:17 “키를 들고”** 이것은 심판을 나타내는 구약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킴을 나타낸다(껍질은 불태워질 것임, 참조, 욥 21:17-18; 시 1:4; 35:5; 83:13; 사 17:13; 29:5; 41:15-16; 램 15:7; 호 13:3; 슥 2:2).

▣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것은 의인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모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함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표현이다. 단지 두 가지 결과만 있음에 주목하라—하나님의 창고 혹은 불!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가 이러한 농업적 내용과 관련을 가진다.

▣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것은 꺼짐 혹은 소멸함을 나타내는 헬라이어 단어와 이를 부정하는 **알과 접두사**의 결합이다. 이 주제는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나온다(참조, 마 3:12; 25:41; 막 9:43-48). 이것은 사 66:24 의 암시일 것이다.

이 내용이 제기하는 신학적 질문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에 따르는 영원한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속량을 받을 희망이 없는 고통과 번민(즉, 지옥)에 대한 것이다. 에드워드 푸지가 쓴 흥미로운 책인 *삼키는 불*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심판의 시기 이후에 받을 영속적인 멸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나는 불신앙에 따르는 영원한 벌을 약화시키거나 줄여서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사후의 삶(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에 대해 말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어느 정도나 은유적인 표현인지 혹은 그것이 어느 정도나 문자적인 것인지를 구분하여 말하기가 쉽지 않다. 지옥의 형벌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이시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게헨나*라는 은유적 표현의 대부분은 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 더미와 관련을 갖는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바로 남쪽에 위치했는데 거기서 불의 신인 몰렉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로부터 악을 격리시키고 영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소이다!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I. 구약

가. 모든 인간은 스올(어원이 불확실함, BDB 1066)에 간다. 지혜서와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대부분 죽음 또는 무덤을 가리킨다. 구약은 이곳이 그늘진 곳이고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기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곳으로 말한다(참조, 욥 10:21-22; 38:17; 시 107:10,14).

나. 스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불), 신 32:22
2. 심판의 날 이전에 있는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 시 18:4-5
3.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발돈*(멸망)과 관계가 있다, 욥 26:6; 시 139:8; 암 9:2
4. “구덩이”(무덤)와 관계가 있다, 시 16:10; 사 14:15; 겔 31:15-17
5. 악한 자는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간다, 민 16:30,33; 시 55:15
6. 종종 큰 입을 가진 동물로서 의인화 된다, 민 16:30; 사 5:14; 14:9; 함 2:5
7. *르파임*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는 곳, 사 14:9-11

II. 신약

가. 히브리어의 스올은 헬리아어로 *하데스*라고 번역된다(보이지 않는 세상)

나. *하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죽음을 가리킨다, 마 16:18
2. 죽음과 관련이 있다, 계 1:18; 6:8; 20:13-14
3. 종종 영원한 형벌의 장소(*게헨나*)로 표현된다, 마 11:23(구약의 인용); 눅 10:15; 16:23-24
4. 종종 무덤으로 표현된다, 눅 16:23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랍비들)

1.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부분(실제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고후 12:4; 계 2:7), 눅 23:43
2.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악한 부분, 벵후 2:4,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참조, 창 6 장; 예녹 I 서)

라. *게헨나*

1. 구약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예루살렘의 남쪽)를 나타낸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렉(BDB 574)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참조, 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장소이다. 이것은 레 18:21; 20:2-5 에서 금지되었다.
2.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방인의 예배장소에서 야웨의 심판 장소로 바꾸었다(참조, 렘 7:32; 19:6-7). 예녹 I 서 90:26-27 과 Sib. 1:103 에서 그곳은 영원한 불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3.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방 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의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왔다(불, 연기, 벌레, 악취. 참조, 막 9:44,46). 오직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
4. 예수께서 사용하신 용어인 *게헨나*
  - ㄱ. 불, 마 5:22; 18:9; 막 9:43
  - ㄴ. 영구적인, 막 9:48(마 25:46)
  - ㄷ. 멸망의 장소(영과 육 모두), 마 10:28

- 르. 스올과 평행된, 마 5:29-30; 18:9
- ロ. 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특징짓는, 마 23:15
- 바. 사법적 판결의 결과, 마 23:33; 눅 12:5
- 사. *케헨나*의 개념은 두 번째 죽음(참조, 계 2:11; 20:6,14) 또는 불의 못(참조, 마 13:42, 50; 계 19:20; 20:10,14-15; 21:8)과 평행을 이룬다. 불의 못을 인간(스올에서)과 악한 천사(*타타루스*에서, 벵후 2:4; 유 6 절 또는 지옥, 참조, 눅 8:31; 계 9:1-10; 20:1,3)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이것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다, 마 25:41
- 마. 스올, *하데스*, *케헨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1. 원래 모든 인간은 스올/*하데스*에 갔다
  2. 심판의 날 이후에 그곳에서 갖는 그들의 경험(좋고/나쁜)은 심화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장소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KJV 역이 *하데스*(무덤)를 *케헨나*(지옥)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심판 전에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한 신약 본문은 오직 눅 16:19-31의 비유이다 (나사로와 부자). 스올은 또한 현재의 형벌 장소로서 묘사된다(참조, 신 32:22; 시 18:1-5). 그러나 비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

III.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

- 가. 신약은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고대 관점 중의 하나인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1.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2.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전과 이후에 영원하다
  3. 종종 육체적 몸은 감옥으로, 죽음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으로 말해진다
- 나. 신약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암시한다.
  1.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나누어 말씀하신다, 마 10:28
  2. 아브라함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12:26-27; 눅 16:23
  3.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다, 마 17 장
  4.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새 몸을 먼저 갖게 된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살전 4:13-18
  5. 부활의 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진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전 15:23,52
  6. 믿는 자들은 *하데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후 5:6,8; 빌 1:23.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의로운 자를 하늘로 취하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벵전 3:18-22.

IV. 천국

- 가. 이 용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지구 위의 대기, 창 1:1,8; 사 42:5; 45:18
  2. 하늘의 별, 창 1:14; 신 10:14; 시 148:4; 히 4:14; 7:26
  3. 하나님 보좌의 자리, 신 10:14; 왕상 8:27; 시 148:4; 엡 4:10; 히 9:24(삼층천, 고후 12:2)
- 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마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방법도 능력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고전 2:9).
- 다. 천국은 장소일 뿐 아니라 주님과 그의 인격적 교제를 말한다(참조, 고후 5:6,8). 천국은 회복된 에덴동산일 수 있다(창 1-2 장; 계 21-22 장). 땅은 정결하여지고 회복될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21; 벵후 3:10).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에덴동산의 친밀한 교제는 다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이 아니라 은유적일 것이다(계 21:9-27의 크고 네모 반듯한 도시로서의 천국). 고전 15 장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름을 성장한 식물의 씨로서 묘사한다. 고전 2:9(사 64:6 과 65:17 에서의 인용)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나는 안다(참조, 요일 3:2).

V. 도움이 되는 자료

- 가. 윌리엄 헨드릭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말씀*
- 나. 모리스 롤링스, *죽음의 문 너머*

개역개정 3:18-20

<sup>18</sup>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sup>19</sup>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sup>20</sup>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3:18 “좋은 소식”** 침례(세례)요한이 신약의 복음 설교자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가 복음을 다 안 것은 아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기꺼이 심판하시는 일 및 회개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믿음을 통해 죄에 대해 완전한 처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의미한다(참조, 막 1:15).

**3:19 “헤로디아”** 이 본문은 헤로디아의 교사를 받아 헤롯이 요한을 죽였음을 말한다.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유에 대하여 요세푸스는 헤롯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참조, *유대 고대사*, 18.5.2). 그녀는 헤롯 안티바스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다(참조, 마 14:3). 그들은 로마에서 살았다. 그녀는 아리스토틀루스를 통해 안티바스의 질녀이기도 했다. 안티바스는 빌립의 아내인 그녀에게 구애하여 그녀와 결혼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참조, *유대 고대사*, 18.5.2) 헤로디아는 헤롯대왕의 아들인 헤롯(그의 어머니는 마리안네로서 대제사장의 딸이었음)과 결혼했다. 그는 또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후에 빌립과 결혼하였다고 말한다. 헤롯이 헤롯 빌립으로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3:20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세푸스는 이 일이 마케루스 성채에서 일어났다고 전한다(참조, *유대 고대사*, 18.5.2,4). 이곳은 헤롯대왕이 왕국 전역에 걸쳐 건축한 9 성채 가운데 하나로써, 자신의 원수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한 곳이었다. 9 개의 성채 가운데 세 곳은 궁전이기도 했다(마케루스, 맞사다, 헤로디움). 마케루스는 사해의 동편에 있는 산에 위치했다(참조, *유대 고대사*, 7.6.2).

**개역개정 3:21-22**

<sup>21</sup>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sup>22</sup>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3:21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이 내용은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1. 요한의 설교가 그의 청중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2. 큰 무리 가운데서 응답을 한 모든 자들이 남아 침례(세례)를 받았다

▣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받으신 일은 항상 믿는 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세례)는 회개의 침례(세례)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다(참조, 고후 5:21; 히 4:15; 7:26; 뵤전 2:22; 요일 3:5).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이 일은 신자들이 따를 본을 주기 위함이다
2. 이 일은 신자들의 필요를 예수께서 아심을 뜻한다
3. 이 일은 예수께서 사역을 위해 안수를 받으시고 준비되심을 뜻한다
4. 이 일은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구속적 사역의 상징이다
5. 이 일은 침례(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을 예수께서 확증하심을 뜻한다
6. 이 일은 예수의 죽으심, 장사지내심, 부활을 예언적으로 예시한다(참조, 롬 6:4; 골 2:12)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 일은 예수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때였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음을 뜻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초기에 나타난 이단인 양자주의의 이론이다(참조, 바르트 D. 에흐만의 *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47-118 쪽). 그럼에도 이 사건은 예수께 있어서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 일이었다.

▣ **“기도하실 때에”** 다른 복음서들처럼 누가복음도 예수의 기도생활을 강조한다(참조, 3:21; 5:16; 6:12; 9:18,28-29; 11:1; 22:41). 만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도 자주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한 필요를 가져야만 하겠는지!

**3:22 “성령 ... 그의 위에 ... 하늘로부터 소리”** 이 절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모두 언급된 신약의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 가. 복음서
  1.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2. 요한복음 14:26
- 나. 사도행전 - 행 2:32-33,38-39

다. 바울

1. 롬 1:4-5; 5:1,5; 8:1-4,8-10
2. 고전 2:8-10; 12:4-6
3. 고후 1:21; 13:14
4. 갈 4:4-6
5. 엡 1:3-14,17; 2:18; 3:14-17; 4:4-6
6. 살전 1:2-5
7. 살후 2:13
8. 딤후 3:4-6

라. 베드로 - 벵전 1:2

마. 유다 - 20-21 절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1.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를 가진다.
2.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1.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2. 출애굽기 3:2,4; 13:21; 14:19
3. 사사기 2:1; 6:22-23; 13:3-22
4. 스가랴 3:1-2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폰*)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 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 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비둘기”** 이것은 성령께 대하여 사용한 특별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메시아 위에 직접 임함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다. 어떤 이는 이 일을 다음의 일에 관련시킨다

1.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심, 창 1:2
2.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 보냄, 창 8:8-10
3. 랍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한 것(참조, 호 11:11)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은 깨끗하게 하는 불 및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로 이루어진 은유적 표현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신체적 모습”을 나타내는 유일한 복음서이다. 누가가 이로써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임하심을 강조하려고 함이 분명하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신 일은 예수께 대한 확증일 뿐 아니라 방금 침례(세례)를 받은 많은 청중에게 증거를 주기 위함이었다.

▣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것은 *팔 쿨로* 불린다. 이것은 친구약 중간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랍비들이 사용한 방법이었다(참조, 시 2:7; 사 42:1).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자신이 임재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유대인 청중에게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1)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시는 확증 및 (2) 무리에게 주시는 증거를 나타낸다. 이것은 시편 2 편의 암시로서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의 위를 이은 왕(즉, 아들, 참조, 2:7)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왕의 시이다. 이 호칭(아들)은 예수의 변화산 사건에서 반복되어 사용된다(참조, 9:35).

조지 E. 래드는 *신약신학* 164 쪽에서 “사랑하는”(아가페/토스)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그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인 *אַהֲבָה* “오직”(즉, 독자, 참조, 창 22:2; 렘 6:26)을 70 인역에서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 근거하여 그는 이 단어가 *모노게네스*(참조, 요 3:16)와 동의어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하며, 특별한 아들(즉, 메시아)이심을 이 인용이 나타낸다고 그는 주장한다.

▣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사 42:1(70 인역)에 대한 암시이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이다. 믿는 무리 앞에서 예수께 대해 주신 이 확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바 왕과 고난 받는 종의 개념을 결합시키신다(참조, 사 52:13-53:12). 이것은 막 1:11 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 절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본문의 변이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바르트 D. 에흐만의 *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62-67 쪽에 나온다. D 사본(이것은 시 2:7 을 인용하고 있다)의 본문이 원래의 것인데 이 본문이 “양자론”을 주장하는 이단에게 신학적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서기관들이 이 본문을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개역개정 3:23-38**

<sup>23</sup>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sup>24</sup> 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sup>25</sup> 그 위는 맛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개요 <sup>26</sup>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맛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sup>27</sup> 그 위는 요안انی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톱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sup>28</sup>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sup>29</sup>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sup>30</sup>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sup>31</sup>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맛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sup>32</sup>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sup>33</sup>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나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sup>34</sup>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sup>35</sup> 그 위는 스투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sup>36</sup>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썸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벳이요 <sup>37</sup> 그 위는 므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벳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sup>38</sup>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시니라

3:23 “삼십 세쯤 되시니라” 신약에 있는 사건의 정확한 연대를 모를지라도 신약의 다른 본문과 세속사 및 현대 고고학적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그 연대를 더욱 더 좁혀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정확하게 30 세이셨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십 대에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나타낸다.

▣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유대인의 법률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아는 대로는”이라는 용어는 누가가 동정녀 탄생을 알고 있었고 이를 확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1:34-35 도 마찬가지임).

▣ NASB “위는 엘리요”  
NKJV, NRSV,  
TEV, NJB “위는 헬리오”

이 차이는 단지 거친 삽화로 유무로 인한 차이일 뿐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요셉의 아버지인가에 대한 것이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엘리/헬리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야곱으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 나오는 조상 가운데 여러 곳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가장 좋은 추측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마리아의 계보를, 마태복음의 기록은 요셉의 계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주석가 가운데 한 명인 F. F. 브루스는 질문과 답(41 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의 차이에 대하여 또 다른 면을 제시한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즉, 유대의 왕위를 계승한 족보)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요셉의 실제 족보(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왕가는 아닌)의 기록으로 보는 견해이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이라고 말하며 예수의 아버지께 대해 누가가 언급한 점에 대해서 내가 추측하는 바는 삼하 7:12-16 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 마리아도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

3:32

NASB, NKJV, TEV “살몬”  
NRSV, NJB “살라”

이 이름과 관련하여 여러 변이가 나타난다.

1. 살라 - P<sup>4</sup>, K\* 사본(UBS<sup>4</sup>는 B 등급을 준다)
2. 살몬 - K<sup>2</sup>, A, D, L 사본(마 1:4,5 에서)
3. 살만 - 어떤 사본들(룻 4:20 에서)
4. 살마 - 헬라이어 사본이 아니라 대상 2:11 에서

3:33 이 절에는 여러 변이가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브루스 메츠거의 *본문에 대한 주석* 207-208 쪽을 보라.

3:38 “그 위는 아담이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 쓴 바 족보에서 아브라함까지 다룬다.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 이르기까지 다룬다. 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참조, 창 26-27) 인간의 특별한 창조까지도 암시한다(참조, 창 2:7).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누가는 왜 침례(세례)요한이 사역한 시기를 알려 주려고 노력했는가?
2. 당시에 요한은 왜 그렇게 과격한 메시지를 전했는가?
3. 왜 7-9 절이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는가?
4. 왜 헤롯이 요한을 죽였는가?
5. 왜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받으셨는가?
6. 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서로 다른가?

## 누가복음 4 장

현대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헬라이어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시험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다	예수의 시험	예수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
4:1-13	4:1-13	4:1-4	4:1-2 4:3 4:4	4:1-4
		4:5-8	4:5-7 4:8	4:5-8
		4:9-13	4:9-11 4:12	4:9-13
		갈릴리에서의 사건과 가르침 (4:14-9:50)	4:13	
갈릴리 사역의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예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다
4:14-15	4:14-15	4:14-15	4:14-15	4:14-15
나사렛에서 예수를 거부함	나사렛에서 거부받으신 예수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거부받으시다	나사렛에서의 예수
4:16-30	4:16-30	4:16-30	4:16-19 4:20-21 4:22	4:16-22a 4:22b-24 4:25-27
			4:23-27 4:28-30	4:28-30
더러운 영을 가진 남자	더러운 영을 예수께서 쫓아 내시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악한 영을 가진 남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다
4:31-37	4:31-37	4:31-37	4:31-34	4:31-32

				4:33-35
			4:35	
			4:36-37	4:36-37
많은 사람을 고치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병고침과 설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심	시몬의 장모를 고침
4:38-41	4:38-39	4:38-39	4:38-39	4:38-39
	안식일 해가 진후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다			많은 사람의 치료
	4:40-41	4:40-41	4:40-41a	4:40-41
			4:41b	
전도여행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저녁 때 가버나움에서 떠남과 유대를 지나는 여행
4:42-44	4:42-44	4:42-44	4:42-43	4:42-44
			4:44	

### 문맥적 통찰

- 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성자이심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직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사” 시험받게 하신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참조, 막 1:12). 시험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대해 가지신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범주를 넘어가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 유혹을 받는 욕망으로 시험을 정의할 수 있다. 시험은 죄가 아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그 도구는 사탄이었다(참조, 대하 22:13-23; 욥 1-2 장; 숙 3 장).
- 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를 범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두가지 본질과 관련이 있는 신비이다. 시험은 실재였다. 인간의 본질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실 수 있으셨다. 이것은 꼭두각시 쇼가 아니었다. 비록 예수께서 범죄한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니셨지만 그는 진정한 사람이셨다(참조, 빌 2:7-8; 히 4:15; 7:26). 이러한 면에서 예수는 아담과 비슷하다. 아담처럼 참 사람으로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속량의 방법을 위해 갯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간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참조, 26:36-46; 막 14:32-42). 이 경향은 마태복음 4 장에서 사탄이 시험한 세 가지 내용의 초점을 이룬다(참조, 제임스 S. 스투어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인류의 속량을 위해 예수께서 자신이 가진 메시아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시게 될 것인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속죄하심 이외의 모든 방법은 시험이었다!
- 다. 예수께서 혼자 광야에 계셨으므로 후에 이 경험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시험받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이 일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참조, 히 2:18; 4:15).
- 라. 누가복음 4 장의 내용은 공관복음인 막 1:12-13 및 마 4:1-11 에 나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는 한편 마가복음(1:12-13)은 이를 간략히 다루기에, 이 사건이 *켈레*(독일어로 “자료”를 뜻함)라고 불리는 예수의 어록(아마도 마태가 아람어로 기록한)에서 취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한다. 시험을 받으심에 대한 내용이 서로 비슷하기에(시험받으신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대화가 같다) 이것이 모두 같은 자료에서 왔음이 “분명하다.” “켈레”라는 자료의 일부분도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이 주장이 갖는 문제점이다. 이것은 논리와 교회의 전승에 기초하여 추측함에 지나지 않는다.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1-4

<sup>1</sup>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sup>2</sup>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sup>3</sup>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sup>4</sup>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4:1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은 3:22 에 있는 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세례)를 가리킨다. 성령에 대한 누가복음의 강조는 1 절에서 성령에 대해 두 번 언급할 뿐 아니라 14 절과 18 절에서 성령에 대해 언급함에서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때에 시험이 있었음을 주목하다. 성령께서 이끄시어(참조, 막 1:12) 시험(또한 영적 준비와 정신적 분별력)을 받으신 것이다.

누가복음은 종종 성령의 복음서로 불린다. 예수께서 권능으로 입으심에 있어서 성령께서 드러나신다.

1. 성령에 의해 잉태하심 - 1:35
2. 성령에 이끌리어 성전에 옴 - 2:27
3. 성령으로 침례(세례)받으심 - 3:16
4. 성령께서 그의 위에 내려 오심 - 3:22
5. 성령의 충만하심 - 4:1
6. 성령의 이끄심 - 4:1
7. 성령의 능력으로 - 4:14
8. 성령의 기름부음 - 4:18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채워짐”과 대조시켜 앞의 경우는 영속적인 것(이는 예수님께 있어서 사실이었다, 참조, 14 절; 4:18)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채우심”은 누가의 글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1. 누가복음
  - (1) 엘리사벳, 1:41
  - (2) 사가랴, 1:67
2. 사도행전
  - (1) 일곱 집사, 6:3
  - (2) 일곱 집사의 한 명인 스테반, 7:55
  - (3) 바나바, 11:24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 대해 “채워지다”라는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다:

1. 다락방에 있던 모든 이, 2:4
2. 베드로, 4:8

3. 공동체, 4:31
  4. 바울, 9:17; 13:9
- 예수님 조차도 3:22 에서 보듯이 오순절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셨다  
나는 성령과 관련이 있는 여러 특별주제를 다루었다
1. 1:80 에서는 신약에서의 성령(프뉴마)
  2. 3:22 에서는 삼위일체
  3. 12:12 에서는 성령의 인격성
  4. 성경에 나타난 성령(아래의 내용)

### 특별주제: 성경에 나타난 성령

- I. 헬라이어 용어
  - 가. *프네오*, 불다
  - 나. *프노에*, 바람, 호흡
  - 다. *프뉴마*, 영, 바람
  - 라. *프뉴마티코스*, 영에 관한
  - 마. *프뉴마티코-스*, 영적으로
  
- II. 헬라 철학적 배경(*프뉴마*)
  -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출생 때부터 시작하여 자기 훈련의 시기까지 가지는 생명력으로 사용했다
  - 나. 스토아학파는 이 용어를 오감 및 인간의 지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프쉬케*(혼) 또는 *누스*(마음)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 다. 헬라의 사상 - 이 용어는 신적 활동을 뜻하였다(즉, 신탁, 마술, 주술, 예언 등)
  
- III. 구약(*루아흐*)
  - 가. 유일신의 행동(즉, 성령, 구약에서 약 90 회 사용됨)
    1. 긍정적, 창 1:2
    2. 부정적, 삼상 16:14-16,23; 왕상 22:21-22; 사 29:10
  - 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생령력(즉, 하나님의 호흡, 참조, 창 2:7)
  - 다. 70 인역은 *루아흐*를 *프뉴마*로 번역한다(70 인역에서 100 회 정도 사용됨)
  - 라. 후기에 속하는 랍비들의 글, 묵시 문학, 사해사본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프뉴마*를 천사들과 악령에 대해 사용함
  
- IV. 신약(*프뉴마*)
  - 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능력, 힘주심
  - 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을 가지심
    1. 예언
    2. 기적행함
    3.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
    4. 지혜(즉, 복음)
    5. 기쁨
    6. 새 시대의 도래
    7. 회심(즉, 마음을 열게 하심과 거주하심)
    8. 그리스도를 닮음
    9.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사들
    10. 신자들을 위한 기도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도록 각성시킨다. 인간은 이 교제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 교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과 사역을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섬김과 신뢰로 이끈다.

  - 다. 이 영적 연속성의 한 쪽에 성령이 위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은 다른 한 편에 위치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라. 바울은 성령/영에 대한 신학을 발전시킨 신약의 저자이다
    1. 바울은 성령을 몸(즉, 죄의 본질)과 대조시킨다
    2. 바울은 영을 육체와 대조시킨다
    3. 바울은 성령/영을 인간의 사고, 지식, 존재와 대조시킨다

- 마. 고린도후서에서 예를 들면
1. 성령, 12:3
  2.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을 통해 나타남, 2:4-5
  3. 하나님의 행하심이 신자에게 나타남
    - ㄱ. 새로운 마음가짐, 2:12; 14:14,32
    - ㄴ. 새 성전, 3:16; 6:19-20
    - ㄷ. 새 생명(즉, 도덕성), 6:9-11
    - ㄹ. 침례(세례)로 상징되는 새 생명, 12:13
    - ㅁ. 하나님과 하나됨(즉, 회심), 6:17
    - ㅂ.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2:12-15; 14:14,32,37
    - ㅅ. 모든 신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받는 영적 은사, 12 장과 14 장
  4. 영이 육체와 대조를 이룸, 9:11; 10:3; 15:44
  5. 영적 영역이 육체의 영역과 대조를 이룸, 2:11; 5:5; 7:34; 15:45; 16:18
  6. 인간의 영적/내적 삶을 육신과 구별하여 말함, 7:34
- 바. 인간은 창조된 세계의 두 영역에서 산다(즉, 물리적 및 영적).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떨어져 나왔다(창 3 장).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으심, 부활하심, 약속하신 재림을 통하여 범죄한 인간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권고하신다. 성령은 이 “세대”에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와 성자의 옹호자로서 일하신다. 현재 새 시대가 도래했으나, 범죄하고 반역한 옛 시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계신다.

▣ “사십 일 동안” 마가(베드로)는 구약의 주제인 (1) 시내 산에 모세가 40 일 동안 있던 일(참조, 출 24:18; 34:28; 신 9:9; 10:10)과 (2)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 년 간 방랑한 일(참조, 민 14:26-35)을 다루고 있다. 마태는 예수를 새 율법의 수여자와 전달자로 본다.

“사십”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문자적(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및 회화적(홍수) 기능을 가진다. 히브리인들은 음력을 사용했다. “사십 일”은 음력의 한 달보다 긴 단위로서, 정확하게 24 시간으로 이루어진 40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어떤 긴 기간을 뜻한다.

▣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구는 공관복음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가. 마가복음(1:12)에서는 **현재 능동 직설법**의 *ὀψαλλο*(“뺏으로 내몰다”)로서 계속적인 경험을 뜻한다. 이것은 강력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귀신을 내어쫓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막 1:34,39; 3:15,22,23; 6:13; 7:26; 9:18,28,38).

나. 마태복음(4:1)에서는 *ἀναγκ*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위로”라는 *ἀνα*와 “가다” 혹은 “이끌다”라는 *αγκ*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는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으로서 마쳐진 한 번의 사건을 뜻한다. 이 용어는 제물을 드림을 나타낸다(참조, 행 7:41).

다. 누가복음(4:1)에서는 *αγκ*가 **미완료 수동 직설법**으로 사용되어 어떤 행동이 시작됨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는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에 앞서 사역을 준비하신 성령의 일(12:12의 특별주제를 보라)을 나타낸다.

▣ “광야에서” 이것은 사막이 아닌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목초지로서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을 가리킨다.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임재하셨고 능력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신 일은 바로 그들이 광야를 유랑하는 기간(즉, 출애굽)에 일어났다. 랍비들은 후에 이 40년(실제로 38년임)의 유랑기간을 야웨와 이스라엘의 신혼기였다고 일컫는다. 이 지역은 요한이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장소였다.

“광야”가 악령이 거주하는 장소를 상징할 수도 있다(*아사셀*, 참조, 레 16:8,10). 이 영들은 어떤 종류의 동물로서 상징되었다(참조, 사 13:21; 34:14-15). 이에 대한 암시가 마 12:43에 나온다.

**특별주제: 구약의 악령**

- 가. 타락한 천사들과 악령의 정확한 관계는 불확실하다. 예눅 1서는 창 6:1-8에 나오는 네피림이 악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랍비들은 창 3장이 아닌 창 6장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 예눅 1서는 반신반인인 준재가 홍수로 인해 죽었고(이 책은 홍수의 목적이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몸을 가지지 못한 영들이 거주할 몸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 나. 구약은 적대적인 영들이나 악령의 이름을 언급한다.
1. *사탈* 또는 “털이 많은 귀신” 아마도 염소 악령(BDB 972 III) - 레 17:7; 대하 11:15; 사 13:21; 34:14

2. *세담* (BDB 993) - 신 32:17; 시 106:37, 이것에게 제사를 드림(물탱과 비슷하게)
  3. *킬리쓰*(밤에 나타나는 여자 귀신(BDB 539) - 사 34:14(바빌론과 우가랏 신화에 나옴)
  4. *아사셀*(사막 귀신, 예녹 1 서에 나오는 주요 귀신, 참조, 8:1; 9:6; 10:4-8; 13:1-2; 54:5; 55:4; 69:2) - 레 16:8,10,26
  5. 시 91:5-6 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역병(참조, 10 절)을 의인화한 표현이다(참조, 아 3:8)
  6. 사 13:21 과 34:14 은 여러 사막 짐승을 언급함으로써 황폐된 장소의 황폐함을 나타낸다. 이 목록이 악령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황폐한 장소에 귀신이 나타남을 말한다고 본다(참조, 마 12:43; 눅 11:24; 계 18:2)
- 다. 구약의 유일신주의는 이교도 국가들의 전설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했고 또 이를 변형시켰다. 그러나 때로 그들의 미신에 따른 이름이나 호칭이 언급된다(주로 시로 된 본문에서). 악령의 실재는 점진적인 계시의 한 부분을 이루며 이것은 신약에서 사단의 존재/그의 천사라는 개념으로 발전된다.

**4:1 “사십”** 이것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의 광야 사건을 모세의 광야 시절(참조, 출 16:35; 민 14:33-34; 신 8:2)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있는 일(참조, 출 24:18; 34:28; 신 9:18; 10:10)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한 몇 가지 문학적 시도의 하나로 여겨진다. 모세와 연결시키는 모습이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는 더 선명하다(참조, 마 4 장).

**4:2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헬라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함축적 의미**

고의로 사람을 시험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 있다.

1. *도키마조, 도키마온, 도키마시아*

이것은 금속제련과 관련된 용어로서 어떤 물질(은유적으로는 사람)의 순수성을 불로써 알아보는 시험을 가리킨다. 불은 찌꺼기를 태워버림(정화)으로써 순수한 금속을 드러낸다. 이 물리적 과정은 하나님, 사탄, 혹은 사람이 시험함을 가리키는 강력한 속어가 되었다. 이 시험은 받아들여짐을 뜻하는 긍정적 관점만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시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 ㄱ. 소, 눅 14:19
- ㄴ. 우리 자신, 고전 11:28
- ㄷ. 우리의 믿음, 약 1:3
- ㄹ. 심지어 하나님, 히 3:9

이러한 시험은 긍정적 결과를 가정한다(참조, 롬 1:28; 14:22; 16:10; 고후 10:18; 13:3; 빌 2:27; 뱀전 1:7).

따라서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여 다음의 내용을 입증함을 뜻한다

- ㄱ. 가치있음
- ㄴ. 좋음
- ㄷ. 진실됨
- ㄹ. 값 있음
- ㅁ. 영예로움

2. *페이라조, 페이라스무스*

이 용어는 잘못을 찾아내거나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의 유혹과 관련되어 종종 사용된다.

- ㄱ. 이것은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도임을 나타낸다(참조, 마 4:1; 16:1; 19:3; 22:18,35; 막 1:13; 눅 4:38; 히 2:18)
- ㄴ. 이 용어(*페이라조*)는 마 4:3 과 살전 3:5 에서 사탄의 호칭으로 사용된다.
- ㄷ.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마 4:7; 눅 4:12) [그리스도를 시험함에 대하여는, 참조, 고전 10:9]. 이것은 또한 실패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뜻한다(참조, 행 9:20; 20:21; 히 11:29).
- ㄹ. 이것은 신자들이 받는 유혹이나 시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7:5; 10:9,13; 갈 6:1; 살전 3:5; 히 2:18; 약 1:2,13,14; 뱀전 4:12; 뱀후 2:9). 하나님께서는 3 종류의 적(즉, 세상, 육신, 악한 자)이 특별한 때와 장소에 인간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

▣ **“마귀”** 이것은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로서 구약의 사탄에 해당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사탄

이것은 여러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선의 옛 원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야웨의 종을 드러낸다. 이 종은 인간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또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비난한다. 구약에서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유일신 주의), 한 권세자, 한 분의 근원자—야웨만 나타낸다.
2. 하나님의 개인적인 옛 원수에 대한 개념은 신구약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책에서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그 결과 이러한 생각은 랍비들이 이끄는 유대교와 에세네파(즉, 사해사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를 간략하면서도 좁혀진 항목으로 놀랍게 발전시킨다.

만일 우리가 성서신학적 관점(각 책을 저자나 장르에 따라 연구하고 독립적인 개요를 제시하는)에서 약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약에 대한 여러 견해를 보게 된다. 한편 우리가 약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성경 이외의 자료나 성경 밖의 세계 종교나 동양 종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많은 내용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헬라-로마의 강신술을 그 배경으로 함을 알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 신약에 나타난 내용을 점진적 계시로 이해해야만 한다. 유대인의 민족적 전승이나 서양의 문학(단테, 밀턴)이 이러한 개념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분명히 신비함과 모호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약이 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약의 기원, 약의 발전, 약의 목적 등 약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사탄” 또는 “참소자”(BDB 966)는 세 종류의 그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 인간인 참소자(참조, 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20,29; 시 109:6)
2. 천사인 참소자(참조, 민 22:22-23; 욥 1-2 장; 숙 3:1)
3. 악마적 참소자(참조, 대상 21:1; 왕상 22:21; 숙 13:2)

후기인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세기 3 장의 뱀을 사탄으로 간주하였다(참조, *지혜서* 2:23-24; *예레미야* 27:31:3). 또한 이러한 개념은 좀 더 후기에 가서야 랍비들의 견해가 되었다(참조, *Sot* 9b 과 *Sanh.* 29a).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레미야 1 서 54:6 에서 천사들로 해석되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옳음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개념이 발전해 온 모습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의인화된 악, 즉 천사에게로 돌린다(참조, 고전 11:3; 계 12:9).

의의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는 일은 어렵고 혹은 불가능하다(당신의 견해에 따라 다름). 그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진 강한 유일신 사상 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전 7:14; 사 45:7; 암 3:6).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웨께 돌려져 야웨의 유일하심과 그의 우월하심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43:11; 44:6,8,24; 45:5-6,14,18,21,22).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욥 1-2 장, 이곳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로 나온다(즉, 천사) 혹은 (2) 이사야 14 장과 에스겔 28 장, 이곳에서는 고대 근동의 교만한 왕들(바벨론과 두로)이 사탄의 교만을 예시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딤편전 3:6). 나는 이 연구에서 혼합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에스겔은 두로의 왕을 사탄으로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참조, 겔 18:12-16) 이집트 왕에 대하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는, 에덴동산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겔 31 장). 한편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천사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말하는듯이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명백한 특징과 기원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본문을 그러한 것으로 보기에 매우 간접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저자와 책과 장르가 각각 다른 신구약 성경의 어떤 짧고 애매한 본문을 서로 조합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퍼즐의 작은 조각을 찾으려는 조직신학적 접근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나는 랍비적 유대교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사탄적 관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알프레드 에더샤임(*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대* 제 2 권, 부록 XIII[748-763 쪽]과 XVI[770-776 쪽])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 영역에 있어서 랍비들의 글은 진리에 대한 좋은 자료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영역에 있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셨다. 천사장이 야웨의 적이라는 개념이 이란의 이원론에서 말하는 두 높은 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랍비들은 *아키만*과 *올마저*를 야웨와 사탄에 대한 성경의 이원론으로 발전시켰다.

신약에는 의인화된 악에 대하여 점진적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것은 랍비들이 구성한 내용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상세한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진 것조차 묵시적 장르에 의해 베일에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7,12-13). 비록 사탄이 예수님께 패해 땅으로 쫓겨났지만 사탄은 여전히 야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편전 1:20).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조절해야만 한다. 유혹과 악은 힘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만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오며 또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 악은 패했고 또 제거될 것이다!

▣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영적 민감성을 위해 금식하는 일은 제 1 세기의 유대교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진 일이었다. 예수께서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이중 부정)는 표현은 그가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으셨음을 뜻하지 않는다. 물을 섭취하지 않고 육체의 생명이 3-4 일을 버틸 수 없다. 5:33의 특별주제: 금식을 보라.

▣ **“주리신지라”** 예수께서는 육체의 필요를 가지신 정상적 사람이셨다. 누가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인 영지주의와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해 학자들은 지금도 논쟁을 한다. 영지주의는 예수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다(2:40의 특별주제를 보라).

사탄/악마가 예수의 금식이 마쳐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금식을 인해 몸이 약해지고 배고파 하는 때에 시험을 하였는데 그 처음 시험은 떡에 대한 것이었다.

**4:3,9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여러 의미를 가진다: (1)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진술로서 저자가 자신의 관점을 만드는 경우 혹은 (2) 진술의 진술성을 저자가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문맥에서 나는 2 항이 맞다고 본다. 악마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의심하지 않았지만(즉, “하나님의 아들,” 3:22, 또한 1:32,35의 언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아의 과업을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다(참조, 제임스 S. 스투어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4:3 “들들... 떡”** 유대 광야에 있던 이 들들의 모양은 분명히 제 1 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구워낸 빵조각과 같았을 것이다. 사탄은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채우고 또 이를 사용하여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먹이시게 하도록 유혹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분으로 묘사된다(참조, 사 58:6-7,10).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예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어느 정도는 항상 있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일(마 14:13-21)과 사천 명을 먹이신 일(마 15:29-33)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시는 일을 인간이 얼마나 남용할 수 있으며 또 남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문제와 비슷하다(즉,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심). 마태는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나타난 공통점을 보았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행했던 여러 일들을 메시아가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참조, 요 6 장).

**4:4 “기록된 바”** 이것은 **현재 수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구약의 영감된 내용을 인용하기에 앞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참조, 4,7,10 절). 이 내용은 70 인역(LXX)의 신 8:3에서 가져왔다. 특별히 이 인용은 하나님께서 광야방랑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일과 관련이 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 반응하시에 있어서 항상 신명기의 내용을 인용하셨다(즉, 6:13,16; 8:3). 이 책은 예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책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1.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께서 반복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셨다, 마 4:1-16; 눅 4:1-13
2. 이 책은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인 마 5-7 장의 골격을 제공한다
3. 예수께서는 신 6:5의 내용을 가장 큰 계명으로서 인용하셨다, 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
4. 예수께서는 구약의 이 부분(창세기-신명기)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정경 가운데 가장 권위있는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고,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 두셨다(참조, 시 119:11).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심령에 담아 두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해야하겠는가?

▣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 8:3의 인용이다. 헬라어 사본에서는 이 인용과 관련하여 변이가 나타난다.

1. NASB, NRSV, TEV, NJB는 대문자체 헬라어 사본인 **ⲛ, B, L, W**을 따른다(UBS<sup>4</sup>는 이것에 “B”등급을 줌)
2. NKJV는 A 및 D 사본을 따르는데 이는 70 인역에서 신 8:3을 번역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마 4:4에 나타난다

**개역개정 4:5-8**

<sup>5</sup>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sup>6</sup>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sup>7</sup>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sup>8</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5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 용어는 *아나고*로서 마 4:1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아고*로 되어 있다. 전치사인 *아니*는 위를 뜻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의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고 또 “매우 높은 산”을 추가한다(참조, 마 4:8).

▣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구는 나로 하여금 이 시험들이 실제였지만 예수의 마음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게 한다(참조, 조지 E. 래드, *신약신학* 49 쪽). 천하 만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다.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점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지지한다. 욥 대 정신과 관련된 이 내용은 겔 8 장 및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환상에 나타난다.

▣ “이 모든 권위와” 20: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지배자(신)로 제시한다(참조, 요 12:31; 14:30; 16:11; 고후 4:4; 앎 2:2; 요일 5:19). 하지만 그는 주인이 아니다.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어떤 것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사실과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어떤 자가 준 사실을 나타낸다. 여기서 해석의 핵심은 “이 진술이 참인가” 또는 “이 내용이 큰 거짓말장이가 말하는 거짓말인가”에 있다.

이 진술이 참이라면 이는 창 3 장의 결과이다. 그것이 참이라면 현재 행해지는 죄와 반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시험하시기 위해 허용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다! 만일 이 진술이 거짓이라면 이것은 참소자요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이 말한 수 많은 거짓말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평행을 이룬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속일 능력이 그에게 없다(참조, 롬 5:12-21; 고후 15:45-49; 빌 2:6-11). 사탄은 여기서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이시다(참조, 마 28:18, 또한 마 11:27; 요 3:35; 13:3; 17:2).

▣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거짓말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신 것만을 줄 수 있다(참조, 왕상 22:19-23; 요 1-2 장; 숙 3 장)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NASB, NKJV	“내 앞에 절하면”
NRSV, TEV	“내게 절하면”
NJB	“내게 경의를 표하면”

신학자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1) 사 14 장과 겔 28 장 (2) 단 11:36-39 (3) 계 13 장에 주로 근거한다. 랍비들은 사탄이 타락한 천사로서 그에게 타락한 인간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반역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

구약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종의 하나로서 인류의 적으로 나타난다. 성경에서는 악에 대해 점진적으로 점점 더 자세히 말씀한다(A. B. 데비슨, *구약신학* 300-306 쪽을 보라).

4:8 이것은 신 6:13 의 인용이다. 예수께서는 악마의 시험에 대해 신명기에 있는 또 하나의 인용으로서 대답하신다. 이 책은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책이었다. 예수께서 이 책을 암송하셨음이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이 문맥에서 사탄에게 대해 세 번 이 책을 인용하셨다.

개역개정 4:9-12  
<sup>9</sup>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sup>10</sup>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라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sup>11</sup>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sup>12</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4:9 “성전 꼭대기” 이것은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다 보는 귀퉁이로서, 제사장이 아침제사와 저녁제사를 알린 곳이다. 이 시험은 기적적인 놀라운 장면을 통해 세상을 얻으라는 내용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참조, 말 3:1).

4:10 사탄은 시 91:11-12 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사탄이 이 내용을 살짝 오용하고 있지만 문맥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문과 관계없이 성경으로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의 잘못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사탄조차도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을 성경을 사용하여 말하려고 했다).

4:12 이것은 신 6:16 의 인용이다. 예수께서 이 문맥에 있어서 사탄에게 하신 모든 대답은 신명기에서 취하신 내용이다. 또한 모두 다 이스라엘의 광야생활과 관련을 갖는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도록 강요하기를 거절하셨다(참조, 단 3:16-18).

개역개정 4:13  
<sup>13</sup>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4: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태와 누가는 같은 시험을 다른 순서로 기록하였다. 이 구는 다른 내용이 더 있음을 가리킨다. 한편, 이것은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요약적 진술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시험에 대해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참조, 히 2:18; 4:15-16) 이는 그가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다!

▣ **“얼마 동안 떠나나라”** 이 구는 다음의 내용을 암시한다.

1. 시험은 단 한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님
2.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때를 노리고 있음(참조, 마 16:22-33)

**예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누가의 기록(4:14-9:50)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단락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한다. 요한복음에 있는 초기 유대사역(참조, 요 1:19-4:42)은 누가의 신학적 틀에 맞지 않는다. 누가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의 정점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구도를 사용했다. 누가가 예수께 대해 사용하는 주요 표현은 9:51 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길에”이다(즉,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참조, 13:22; 17:11; 18:31; 19:11,28).  
예루살렘에 대한 이 초점은 사탄의 시험을 제시험에 있어서 왜 누가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오도록 조정하였는가를 설명한다.
- 나. 누가는 예수의 삶 가운데 하루(나사렛에서와 가버나움에서 각각)를 택하여 예수의 삶과 사역 전체를 드러낸다. “기쁘게 환영하였다”와 “거부함, 심지어 죽음”이라는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독자들은 각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게 된다.
- 다. 예수께서 모형론적 기록론을 사용하셔서 구약으로부터 자신을 드러내셨음(참조, 24:13-35, 특히 25-27 절)도 기억하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파된지 오랜 후에 복음서를 기록한 자로서 누가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을 매우 이른 시기에 속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는 앞에 일어난 일부터 시작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누가복음은 신학적인 동시에 연대기적으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룬다. 참된 역사적 사건은 신학적 의미를 주기 위해 선택된 것이고 적합하게 되었으며 또 순서적인 조정을 받았다(피와 스투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7-148 쪽을 보라)!

**개역개정 4:14-15**  
<sup>14</sup>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sup>15</sup>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4:14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마태와 누가는 유대에서 있었던 시험 후에 갈릴리 사역으로 초점을 바로 옮긴다. 그 내용은 4:14 에서 9:50 까지 이어진다. 요 1:35-4:44 에서만 유대에서 행하신 사역을 삽입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원”(BDB 165 II)을 뜻하는 갈릴리를 랍비들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 지역은 유대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았다. 한편, 예수께서 이곳에서 행하신 사역은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는 사역이었다(참조, 사 9:1). 요세푸스는 이 지역에 대해 *유대 전쟁사* 3.3.1-2 에서 설명한다.

마가복음(1:14)과 마태복음(4:12)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때가 침례(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시기라고 밝힌다.

▣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받는 일은 성령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성부의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 위격이 행하시는 사역의 유동성은 신약 전체를 통해 확인된다(참조, 18-19 절). 3:22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은 누가가 사용한 전형적인 진술의 하나이다(참조, 4:37; 5:15; 7:17). 그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간략한 요약을 추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4:15 “회당”** 이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생긴 유대인의 기관으로서 각 곳에서 성전이 없어진 유대인들에서 기도, 예배, 성경연구, 사역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간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 기관은 존속했다.

▣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셨음을 기록한다. 복음서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반대가 거세졌음도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였는가를 누가가 종종 언급한다(참조, 4:22; 8:25; 9:43; 11:27; 13:17; 19:48).

개역개정 4:16-30

<sup>16</sup>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sup>17</sup>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sup>18</sup>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sup>19</sup>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sup>20</sup>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sup>21</sup>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sup>22</sup>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sup>23</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sup>24</sup>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sup>25</sup>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아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sup>26</sup>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sup>27</sup>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sup>28</sup>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sup>29</sup>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sup>30</sup>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4:16-30 세예루살렘성경(1966년)의 99 쪽에 있는 각주의 g 항은 나사렛에 3 번 방문하신 일을 누가가 하나로 엮고 있음에 대해 말한다.

1. 16-22 절, 예수께서 칭송을 받으심(참조, 마 4:13)
2. 23-24 절, 예수께서 동네사람들을 놀라게 하심(참조, 마 13:54-58)
3. 25-30 절, 예수께서 대적을 받으심, 이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NJB(제물성경주석, 131-132 쪽)는 이 기록이 예수께서 처음에는 환영을 받으시지만 나중에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심을 나타내는 신학적 요약이라고 말한다.

4:16 “나사렛” “나사렛”(나자렛)의 철자는 독특하며 이코과 마 4:13 에서만 나온다. 후자는 예수의 시험에 대해서도 말한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된 자료를 사용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예수의 고향이었다(참조, 2:39, 51, 4:34 의 특별주제를 보라). 막 6:1-6 과 마 13:53-58 에 대해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두 기록이 같은 사건을 뜻하는가 혹은 이 일은 나사렛에 가신 두 번째 사건인가이다. 나는 두 기록의 유사성이 너무 크기에 이것을 두 번째 방문으로 보지 않는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의 삶과 사역 전체에 대한 요약으로서 이 내용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경이 서구의 역사책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근동의 역사는 선택적이었지만 부정확하지 않았다. 복음서는 전기가 아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전도와 제자도의 목적으로 기록된 소책자이다. 복음서 저자들은 종종 자신의 신학적 문학적 목적을 위해 자료들을 선택하여 적합하게 하였으며 또 순서적인 조정을 하였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94-112, 113-134 쪽을 보라)! 이 점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사건이나 가르침을 위조하였음을 뜻하지 않는다. 복음서 간에 있는 차이는 영감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각 복음서가 목격자적 진술임을 확증하며 또한 각 복음서의 저자에게 그들이 목표로 하는 특정한 대상이 있었음을 말한다.

▣ “늘 하시던 대로” 예수께서는 대중예배에 참석하시며 성장하셨다. 나는 그가 회당의 학교(5 살 때에 시작함)에서 구약을 배우셨다고 생각한다. 습관이 중요한데 이는 우리의 종교생활에 건강을 가져온다.

▣ “안식일에” 이 단어는 “쉽” 혹은 “그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BDB 992).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의 창조를 마치고 일에서 쉬신 창조의 제 7 일과 관련이 있다(참조, 창 2:1-3).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시기에 쉬지 않으신다. 하지만 이 일은 다음을 나타낸다

1. 창조를 마치고 그것이 좋았다(참조, 창 1:31)
2. 인간에게 예배와 쉬의 정규적 틀을 주시기 위함

안식일은 창세기 1 장에 나오는 다른 날처럼 공식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진다. 이 날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출애굽기(특히 16, 20, 31, 35 장)와 레위기(특히 23-26 장)에 나온다.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들을 구전 전통에 근거하여 해석하였고 여기에 많은 규정을 포함시켰다(구전, 이는 후에 탈무드로 됨). 예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종종 그들이 꼼꼼히 지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 거부하시고 약화시키신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의에 기초한 율법주의 및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바 사랑이 없는 삶이었다.

**특별주제: 회당에서의 예배**

제롬성경 누가복음주석(131 쪽)은 제 1 세기에 팔레스타인 회당에서의 예배순서를 잘 요약하여 제시한다.

1. 시작 기도
  - ㄱ. 쉼마(참조, 신 6:4-9)
  - ㄴ. 18 축복
2. 성경 봉독(즉, 행 13:15)
  - ㄱ. 모세의 글에서
  - ㄴ. 예언서에서
3. 해석 또는 설교(즉, 행 13:15), 회당장/지도자가 초청한 사람이 행함(즉, 막 5:22,35,36,38)
4. 민 6:24-27 에 나오는 축복으로 끝맺음, 이것은 아람어 축복으로 알려짐(참조, 민 6:25)

▣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때” 회당에서 드린 예배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도
2. 오경을 읽음
3. 예언서를 읽음
4. 본문의 강해(이 순서를 초대교회에서 따랐다. 그들은 신약을 읽는 것을 추가함)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예수께서 일어나 성경을 읽으신 후 앉아서 가르치셨다(참조, 20 절). 알프레드 에텔샤임의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과 시대, 제 10 장, 430-450 쪽을 보라.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신명기를 여러 번 인용하셨다. 모든 내용은 70 인역으로 불리는 헬라어 번역본의 내용이었다. 나사렛에 있는 이 회당에서 예수께서 읽으신 본문도 70 인역의 것으로 여겨진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다. 그들은 아람어로 말했지만 코이네 헬라어를 외국어로서 사용하였다.

나는 F. F. 브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175 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히브리어를 읽고 말씀(모든 이가 큰 소리로 읽음)했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3 가지 언어를 사용하셨다. 문제의 핵심은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사용한 성경 본문이 무엇이었던가이다. 대부분의 유대 자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고 그것을 아람어로 번역했다고 주장한다.

**4:17 “선지자 이사야의 글”** 히브리 성경이 긴 양피지 두루마리에 쓰여졌기에 그것을 돌려서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배경에 대한 좋은 자료는 F. F. 브루스의 *책과 양피지*이다.

**4:18** 이것은 사 61:1-2 의 부분적 인용으로서 70 인역에서 61c 절과 62b 절을 생략한 형태이다. 또한 사 58:6d 를 삽입하였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구약의 본문을 합치고 편집하는 일은 흔히 행해졌다.

- 사 61:1-2 의 인용과 관련하여 헬라어 사본 사이에 변이가 나타난다.
1. 어떤 사본들은 “그가 나를 보내셨다”에서 멈춘다 -  $\kappa$ , B, D, L, W
  2. 다른 사본들은 사 61:1 전체를 추가한다 - A, 델타, 엘실론

UBS<sup>4</sup> 는 짧은 본문인 1 항에 A 등급(확실함)을 준다.

어떤 이는 나사렛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기로 작성하신 예수께서 사 61 장의 일부 행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셨다고 본다. 이점은 왜 예수께서 사 58:6 의 행을 추가하셨는지를 설명한다.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른 위격의 하나님에 주목하라. 3:22 의 특별주제:삼위일체를 보라. 의의 새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히브리 단어는 “메시아”와 같은 어근을 갖는다(2: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헬라어에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사 세우신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기름부음을 받았다. 2:11 의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기름부음을 보라.

▣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시점에 있어서 완전한 복음(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완전한 핵심을 이루었다.

▣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 예수께서 도우시기 위해 오신 사람들의 목록을 주목하라. 그가 이들을 돌보심은 예언의 여러 본문을 성취하심이 되었다.

**4: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원래 회년을 가리킨다(참조, 레 25:8-17). 하지만 이 문맥(사 61:2)에서는 예수의 사역을 통한 종말론적 성취를 나타낸다. 클레멘트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은 이것이 오직 일년동안

예수께서 사역하셨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구약 본문을 문자적으로 성취하는 것 이상의 성취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4:20** 요셉 A. 피츠마이어는 자신의 주석, 눅 1-9 장(앵커 바이블)에서 *아테니조*라는 **동사**에 대하여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 그는 이 용어를 누가(특히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한다고 말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단어는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굳게 바라봄을 나타낸다—여기서는 이점을 나타냄. 이것은 회중들이 처음에 가졌던 존경심 혹은 놀라며 좋아하는 마음을 가리킨다”(533 쪽).

**4:21**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웅하였느니라” 이것은 **완료 수동 직접법**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약속된 종말론적 성취임을 말한다. 예수 안에서 이제 이것이 임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술인가!

천국은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주제였다. 이것은 현재 인간의 마음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서 어느 날 하늘에서와 같이 온 땅 위에서 완성될 것이다(참조, 마 6:10). 이것은 지금 여기서 및 미래에 아직 둘 다를 포함한다!

###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

구약에서 야웨는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상 8:7; 시 10:16; 24:7-9; 29:10; 44:4; 89:18; 95:3 사 43:15; 44:4, 6)과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참조, 시 2:6; 사 9:6-7; 11:1-5)로 여겨졌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으로(주전 6-4 년), 하나님의 왕국은 새로운 권세와 구속으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다(새 언약, 참조, 렘 31:31-34; 겔 36:27-35). 침례(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다(참조, 마 3:2; 막 1:15). 예수님은 자신 안에 또 자신의 가르침 안에 왕국이 임재함을 분명히 가르치셨다(참조, 마 4:17,23; 9:35; 10:7; 11:11-12; 12:28; 16:19; 막 12:34; 눅 10:9,11; 11:20; 12:31-32; 16:16; 17:21). 그럼에도 왕국은 미래적이기도 하다(참조, 마 16:28; 24:14; 26:29; 막 9:1; 눅 21:31; 22:16,18).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구가 공관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평행을 이룸을 본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주된 주제로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로서 어느 날 온 땅 위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마 6:10 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구(하늘의 왕국)를 좋아하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구이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와 마지막 설교 및 대부분의 비유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현재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킨다! 요한이 이 구를 단지 두 번만(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는 것은 놀랍다. “영생”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은유적 표현이다.

예수님의 두 번 오심이 이 긴장을 야기한다. 구약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심에—군사적, 재판적, 영광스런 오심—초점을 둔 반면, 신약은 그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와 속 9:9 의 겸손한 왕으로서 처음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대인의 두 세대인 악한 세대와 의의 새 세대가 겹쳐진다. 예수는 지금 신자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실 것이다! 신자들은 “이미” 대 “아직”의 면을 갖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참조, 고든 D.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1-34 쪽).

**4:22**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예수의 인기가 초기에 있었지만(참조, 15 절), 이것은 나사렛에서는 곧 단명할 것이다!

▣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질문은 헬라어에서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한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가지신 정상적인 소년기를 나타낸다(즉, 2:40,52). 이 진술은 고향사람에 대한 긍지를 나타낸다.

**4:23** “속담” 이것은 문자적인 “비유”로서 “더불어 던지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일상적 삶에서 예를 들거나 영적 진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교수법이다.

▣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분명하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특별히 대하지 않고 계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을 고향에서도 행하시기를 원했다. 우리는 막 6:1-6 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을 인해 예수께서 큰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음을 안다(참조, 24 절).

▣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것은 누가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막 1:21 이하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눅 4:31-37 에 있는 가버나움에서의 병고침을 1 장에 둔다. 오늘날 서구의 독자 및 주석가들이 복음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연대적으로 상세하게 순서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른 현대적인 역사기술을 기대하고 있는데 복음서의 진술은 그렇지 않다. 복음서의 해석에 대한 좋은 내용은 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1-34 쪽에 나온다.

**4: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멘”이다. 중요한 진술을 하기 위한 문학적 기교로서 예수께서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 특별주제: 아멘

### I. 구약

- 가. “아멘”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1. “진리”(에메쓰, BDB 49)
  2. “진실성”(에문, 에무나, BDB 53)
  3. “믿음” 또는 “신실함”
  4. “신뢰”(아판, BDB 52)
- 나. 이것의 어원은 사람의 안정된 육체적 자세이다. 이것의 반대는 불안정한, 미끄러지는(참조, 신 28:64-67; 시 40:2; 73:18; 램 23:12) 또는 비틀거리는(참조, 시 73:2) 사람이다. 이 문자적 용법으로부터 신실한, 믿을만한, 충성된, 의지할만한의 뜻을 가지는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참조, 창 15:6; 합 2:4).
- 다. 특별용법
1. 기동, 왕하 18:16(딤펢전 3:15)
  2. 확신, 출 17:12
  3. 견실함, 출 17:12
  4. 안정성, 사 33:6; 34:5-7
  5. 참, 왕상 10:6; 17:24; 22:16; 잠 12:22
  6. 견고한, 대하 20:20; 사 7:9
  7. 믿을 수 있는(토라), 시 119:43,142,151,168
- 라.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다른 두 단어가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1. *바타*(BDB 105), 신뢰
  2. *야라* (BDB 431), 두려움, 존경, 예배(참조, 창 22:12)
- 마. 신뢰 또는 신뢰감이라는 의미가 신뢰나 신뢰감을 나타내는 예식적 용법으로 발전되었다(참조, 신 27:15-26; 느 8:6; 시 41:13; 70:19; 89:52; 106:48).
- 바. 이 단어의 신학적 열쇠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이다(참조, 출 34:6; 신 32:4; 시 108:4; 115:1; 117:2; 138:2).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야웨와 그의 약속의 언약적 성실하심에 있다. 야웨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합 2:4).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을 인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이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인간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 II. 신약

- 가. 어떤 진술의 신뢰감에 대한 결론적 의식적 확인인 “아멘”이란 단어의 사용은 신약에서 일반적이다(참조, 고전 14:16; 고후 1:20; 계 1:7; 5:14; 7:12).
- 나. 신약에서 기도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참조, 롬 1:25; 9:5; 11:36; 16:27; 갈 1:5; 6:18; 엡 3:21; 빌 4:20; 살후 3:18; 딤펢전 1:17; 6:16; 딤펢후 4:18).
- 다. 중요한 진술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분은(요한의 책에서는 종종 중복된다) 오직 예수 한 분 뿐이었다(참조, 눅 4:24; 12:37; 18:17,29; 21:32; 23:43).
- 라. 계시록 3:14 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칭호로서 사용되었다(사 65:16 에서 야웨의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마. 신실함 또는 믿음, 신뢰감 또는 신뢰의 개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로 표현된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신뢰하다, 믿음, 믿다로 번역되었다.

▣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진술은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라는 영어의 격언과 비슷하다. 예수의 가족과 이웃이 그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기는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참조, 막 6:4; 마 13:57).

4:25-27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드신다—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으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이다(행 7 장에서는 스테반은 이 예들을 사용한다). 이 예들은 누가복음의 강조점인 회개하고 믿는 자 모두를 위한 범세계적 복음의 성격에 잘 들어 맞는다. 한편,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두 선지자가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곳인 북쪽(즉, 주전 10 세기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음을 주목하라.

4:25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이 기간이 약 5:17 에서 언급된다. 하지만 왕상 18:1 에서는 3 년으로 언급한다. 분명히 이것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은 “박해를 위해 정해진” 묵시적 기간이었다(참조, 단 7:25; 12:7; 계 11:2; 12:6,14).

4:26 “엘리아... 사렘다의 한 과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인 가난한 한 이방인(또한 여인이었음)을 위해 사역하게 하셨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난했다. 누가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강조하여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

4:27 “엘리사...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엘리사)를 보내셔서 이방인 군대 지도자(그것도 원수인)를 고치게 하셨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병든 자가 많이 있었다(참조, 왕하 5 장).

4:28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 가지신 넓은 사랑은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격노하게 했다(이같은 일이 행 7 장에 있는 스테반의 설교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이제 예수께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참조, 22a 절과 29 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들이 가진 바 편협적이고 국수적인 전통을 인정받으려 했다(모든 세대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종교적 예배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께 대해 “격노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모순인가!

4:29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무리의 태도가 얼마나 빠르게 놀람과 경외에서 격노와 살기로 바뀌는지 놀랍기만 하다.

4:30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참조, 요 8:59; 10:39).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참조, 요 7:30). 예수께서 당시에 보통 사람처럼 보였음을 이 절이 시사한다.

**개역개정 4:31-37**

<sup>31</sup>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sup>32</sup>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sup>33</sup>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sup>34</sup>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sup>35</sup>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sup>36</sup>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sup>37</sup>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4:31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지였다. 그가 이곳에 가족을 이주시키셨을 것이다.

▣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초기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바울도 그랬다, 참조, 행 3:26; 롬 1:16). 이 일은 그가 시골의 노지에서 많은 대중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기가 빨리 오게 했을 것이다.

4:32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놀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막대기에 맞다” 혹은 “자신들 옆에 스스로 드러났다”를 뜻한다. 예수의 메시지는 달랐다(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이 하듯 쌍벽을 이루는 삼마이 학파(보수적 학파)와 힐렐(진보적 학파)의 랍비들이 한 말을 인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참조, 마 7:28-29; 요 7:46).

▣ “권위” 20:2의 특별주제: 누가의 *엘수시아* 용법을 보라.

4:33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귀신(더러운 영)**

- 가. 고대인들은 정령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연의 힘, 동물, 자연물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생명은 사람과 이런 영적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되었다.
- 나. 이와 같은 의인화는 다신교(많은 신들)로 나타났다. 보통 귀신(켈날)은 개별적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좀 더 낮은 신 또는 반신반인(중거나 악한)이었다.
  - 1. 메소포타미아, 혼돈과 투쟁
  - 2. 이집트, 질서와 기능
  - 3. 가나안, W. F. 알브라이트의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다섯 번째 개정판), 67-92 쪽을 보라.
- 다. 구약은 강한 유일신 사상으로 인해 낮은 신, 천사, 또는 귀신의 주제를 다루거나 이를 발전시키지 않는다(참조, 출 8:10; 9:14; 15:11; 신 4:35,39; 6:4; 33:26; 시 35:10; 71:19; 86:6; 사 46:9; 렘 10:6-7; 미 7:18). 구약은 이방 민족의 거짓 신을 언급하고 그것들의 몇몇 이름을 말한다.
  - 1. *세임*(색마[바커스를 섬기는 반인반수의 숲의 신] 또는 털 많은 귀신, 참조, 레 17:7; 대하 11:15)
  - 2. *칼리쓰*(여성, 부추기는 귀신, 참조, 사 34:14)

3. *마웨트*(지하의 가나안 신에게 사용한 죽음이라는 히브리 용어, *모트*, 참조, 사 28:15,18; 렘 9:21; 그리고 아마도 신 28:22)
4. *레세프*(재앙, 참조, 신 33:29; 시 78:48; 합 3:9)
5. *테베르*(전염병, 참조, 시 91:5-6; 합 3:5)
6. *아사셀*(불확실한 이름이지만 아마도 사막 귀신이거나 장소 이름, 참조, 레 16:8,10,26)(이 예들은 *유다이카 백과사전* 제 5 권의 1523 쪽에서 취한 것이다.)  
어쨌든 구약에는 이원론주의 개념도 없고 야웨께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천사는 없다. 사탄은 야웨의 종(참조, 욥 1-3 장; 숙 3 장)이지 적이 아니다(참조, A. B. 데이빗슨, *구약신학* 300-306 쪽).

라.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기간(주전 586-538) 동안 발전되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인격화된 이원주의(*마즈다* 또는 *올마즈드*라고 불린 좋고 높은 신과 *아리만*이라고 불린 악한 적수의 신)을 신봉하던 페르시아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가 야웨와 그의 천사 및 사탄과 그의 악마로 인격화시킨 이원주의를 수용하게 했다.

인격화시킨 악에 대한 유대교의 신학은 알프레드 에더쉴림의 *메시아 예수의 일생과 시간*(제 2 권, 부록 XIII[749-863 쪽]과 XVI[770-776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잘 제시하고 있다. 유대교는 악을 세 가지로 인격화시킨다.

1. 사탄이나 삼마엘
2.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의도(*에트저 하라*)
3. 죽음의 천사

에더샤임은 이것을 (1) 고소자 (2) 유혹자 (3) 처벌자라고 특징짓는다(제 2 권 756 쪽).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와 신약에서의 악에 대한 제시와 설명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마. 신약(특별히 복음서)은 사람에게와 야웨께 대한 악한 영적 존재의 실제와 방해를 주장한다(유대교에서 사탄은 인간의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왕국을 반대한다.

예수님은 이런 악마적 존재와 마주 대하시고 내쫓으셨으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1) 더러운 영(참조, 눅 4:36; 6:18) 또는 (2) 악한 영(참조, 눅 7:21; 8:2)을 불러 내셨다. 예수님은 병든 것(육체적 그리고 정신적)과 귀신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인식하시고 내쫓으시는 것을 통해 그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셨다. 악한 영은 종종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을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는 표이다.

신약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는 놀라우리만큼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적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은사 목록에 전혀 없고, 또한 사역자나 믿는 자들의 장래 세대를 위해 주어진 축사의 방법이나 절차도 없다.

바. 악은 실재한다; 악은 인격체이다; 악은 현존한다. 이것의 기원이나 목적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성경은 악의 실재를 단언하고 그것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실제로 궁극적인 이원론은 없다. 하나님께서 천체를 주장하신다; 악은 패배하였고 심판받았으며 피조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사.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대적해야만 한다(참조, 약 4:7). 악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치할 수는 없지만(참조, 요일 5:18) 그들은 악에게 유혹받을 수 있고 그들의 증거나 영향력은 악에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참조, 엠 6:10-18). 악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드러난 한 부분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재 정의할 권리가 없다(루돌프 발트만의 비신화화); 악을 비인격화(폴 틸리히의 사회적 구조)하거나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말라(시그먼트 프로이트). 이것의 영향력이 퍼져 있지만 이것은 실패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 “크게 소리 질러” 이것은 그가 아주 큰 소리를 내었음을 뜻한다.

4:34

NASB, NRSV

“우리를 내버려 두어”

NKJV

“우리를 내버려 두어”

TEV

“아”

NJB

“하”

*에*이라는 헬라이어 **불변화사**는 70 인역의 욥기 19:5 에서는 “아아”로 15:16 에서는 “내버려두다”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헬라의 시에서 불쾌함이나 놀람을 나타낸다.



NASB “우리가 서로 무슨 일을 가지고 있나이까”  
 NKJV “우리가 당신과 무엇을 가지고 있나이까”  
 NRSV “당신이 우리와 무엇을 가지고 있나이까”  
 TEV, NJB “당신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 표현은 70 인역에서 호의적인 의미를 가진다(참조, 삿 11:12; 삼하 16:10; 19:22; 왕상 17:18 대하 35:21).

▣ “나사렛 예수여”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용어가 여러 개 있다.

1. 신약의 용어
  - ㄱ. 나사렛 - 갈릴리의 도시이다(참조, 눅 1:26; 2:4,39,51; 4:16; 행 10:38). 이 도시는 당시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후기의 비문에서는 나온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은 찬사가 아니었다(참조, 요 1:46).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던 죄패에 기록된 이 지명은 유대인들의 경멸을 나타낸다.
  - ㄴ. *나자레노스* - 지형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4:34; 24:19)
  - ㄷ. *나조라이오스* - 도시를 가리키지만, 또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가지”와 관련된 언어 유희일 것이다(*벳제르*, BDB 666 [또한 이와 관련된 용어], 참조, 사 4:2; 11:1; 53:2; 렘 23:5 [BDB 855]; 33:15; 숙 3:8; 6:12; 신약에서는 계 22:16). 누가는 18:37 과 행 2:22; 3:6; 4:10; 6:14; 22:8; 24:5; 26:9 에서 이 단어를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 ㄹ. ㄷ항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나지르*는 “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2. 신약 이외의 곳에서의 역사적 용법.
  1. 이것은 유대인(기독교 시대 이전)의 이단 단체를 가리켰다(아람어인 *나소라이야*).
  2. 유대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행 24:5,14; 28:22, *노스라*).
  3. 시리아(아람어를 쓰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 교회에서 신자들을 뜻하는 용어였다.
  4.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재조직되었고 회당과 교회의 공식적인 분리를 선포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선언한 예는 *베라쿿* 28b-29a 의 “18 개의 축복”에 있는데, 여기서 신자를 “나사렛 사람들”로 부른다.  
 “나사렛인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순교자 저스틴이 *Dial.* 126.1 에서 이사야서의 *벳셀*인 예수를 말했다.
3. 저자의 견해
 

비록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용어의 철자가 매우 다양하게 있음에 나는 놀란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인해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는 모른다:

  1. 메시아적 용어인 “가지(*벳제르*)”와의 관계 혹은 이와 비슷한 용어인 *나지르*(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 때문에
  2. 부정적인 의미도 가진 갈릴리 때문에
  3. 당시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 도시와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기에
  4.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즉,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이 단어들에 대해 충실한 참고문헌으로서 코린 브라운(편저)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제 2 권 346 쪽 혹은 레이몬드 E. 브라운의 *출생* 209-213, 223-225 쪽을 보라.

▣ “우리” 복수형임을 주목하라. 신약에서 귀신들림은 종종 귀신들의 수로 나타난다(참조, 8:2,27,30).

▣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증거하여 하는 말은 예수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비난하는 것을 거들기 위함이었다(참조, 41 절; 11:15; 마 9:34; 12:24; 막 3:22).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는 구약에서 사용한 메시아의 호칭이다. 이것은 눅 1:35 및 행 3:14 에서 암시된다. 이것을 귀신이 예수께 대해 사용한 경우가 막 1:24 및 눅 4:34 에 나온다.

**특별주제: 기록하신 자**

“기록하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 1. 성부(참조,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자”로 표현됨)
- 2. 성자(참조, 막 1:24; 눅 4:34; 요 6:69; 행 3:14)
- 3. 성령(그의 호칭은 “기록한 영”임, 참조, 요 1:33; 14:26; 20:22).

행 10:38 은 하나님의 세 위격이 기름부음과 관련하여 모두 언급되는 절이다.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셨고(참조, 눅 4:18; 행 4:17; 10:38). 여기서 이 개념은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참조, 요일 2:18). 기름부음으로 상징되는 구약의 행위(참조, 출 29:7; 30:25; 37:29)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심과 관련을 가진다(즉,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이다.

**4:35 “잠잠하고”**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명령 단수로서 “재갈을 물리라”는 뜻이다. “우리”(34 절)가 여기서 단수로 바뀌었음을 주목하라. 아마도 한 귀신이 전체를 위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나오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축사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졌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예수께서 행하신 축사는 새 시대를 상징하였다. 랍비들은 주문을 사용했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였다. 오늘날 축사 및 귀신에 관하여 아주 커다란 혼란과 잘못된 정보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약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목회자로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갖기를 희망한다. 내가 믿고 소개할 수 있는 책으로는:

- 1. 그리스도인의 상담과 이단, 쿠르트 E. 코
- 2. 오늘날의 세계에 있는 귀신들, 메릴 F. 영거
- 3. 성경적 귀신론, 메릴 F. 영거
- 4. 정사와 권세, 헨드릭 벌코프
- 5. 영적 전쟁에 관한 3 가지 중요한 질문, 클린톤 안토니

축사가 영적 은사로서 다루어 지지 않으며 이 주제를 사도들의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음은 내게 충격이 된다.

나는 영적 영역(즉, 선과 악) 및 현재 물질적 영역을 포함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다(즉, 욥 1-2 장; 단 10 장; 엡 2:2; 4:14; 6:10-18). 한편,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내용을 계시하지 않으시기로 정하셨다. 신자로서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어떤 주제는 계시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

▣ **더러운 영이 사람을 떠나는 구체적 현상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참조, 막 1:26; 9:26; 눅 9:39).** 이것은 영이 실제로 떠났음을 확인해주는 방법일 것이다.

처음 능력을 행하신 일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들을 주관하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존재와 권능을 알아 보며 예수께 대해 그들이 사용한 구약의 호칭(참조, 시 16:10)은 나사렛 예수께서 가지신 영적 권위를 명확히 나타낸다(참조, 27c 절).

**4:36 “놀라”** 이것은 32 절에 있는 헬라어와 다른 단어이지만 동의어를 이룬다(참조, 로우와 니다, 헬라어-영어 사전 제 1 권 311-312 쪽). 누가는 이 단어를 눅 4:36; 5:9 및 행 3:10 에서 사용한다.

▣ **“권위”** 20: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자신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는 근본적이고 또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다. 예수께서는 행하심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셨다!

**4:37 “퍼지니라”** 영어의 “echo”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예수께서 더러운 영에 대해 행하신 권위의 메시지는 그가 육체의 병을 고치신 일과 더불어 커다란 기대를 일으켰고 또 많은 무리로 하여금 그에게 모여들게 했다.

**개역개정 4:38-39**

<sup>38</sup>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sup>39</sup>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4:38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했다(참조, 마 8:14; 막 1:29-34; 고전 9:5). 독신이 은사이지만 목회자에게 강요된 형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결혼은 성경에서 정한 규범이다(참조, 창 1:28; 2:18; 9:1,7).

▣ **“앓고 있는지라”** 이것은 우회적 미완료 수동태이다. 이 열은 이전에도 있었고 또 반복되어 일어나는 문제였다.

▣ **“중한 열병을”** 이것은 갈렌이 “열의 종류”를 다룸에 있어서 의학용어이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과 아픈 자를 고치는 일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

▣ **“열병을 꾸짖으신대”**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다음의 대상을 꾸짖으셨다

1. 귀신(4:35,41; 9:42)
2. 열(4:39)
3. 바람과 물결(8:24)
4. 제자들(9:21,55)

이 일은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참 사람이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 균형을 갖기가 쉽지 않다. 누가복음은 양면을 강조한다!

예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심에 대해 한 마디를 더하고자 한다. 육체적 문제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의인화한 것은 이 일을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이해하게 하지 않는다. 귀신이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육체의 문제가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극단적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 귀신이 모든 일을 일으킴)! 축사에 대해 4:35 에서 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4:40-41**

<sup>40</sup>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sup>41</sup>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4:40 **“해 질 무렵에”** 이 표현은 이 시간이 안식일의 끝부분이었음을 나타낸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 황혼 때부터 그 다음 날 황혼 때까지로 계산했다(참조, 창 1:5).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고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의 능력을 보았고(31-37 절) 예수께서 하신 예언과 공훈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는 이제 행동으로써 야웨의 능력과 공훈히 여기심을 나타내신다!

▣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병자에게 손을 얹으셨음을 주목하라. 귀신 들린 자에게는 결코 손을 얹지 않으셨다(참조, 41 절).

**특별주제: 성경에서 손을 얹음**

손을 얹음으로써 개인적 관련이 생기는 이 행위가 성경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1. 맹세를 함(즉, 손을 허벅지 아래 넣음[창 24:2,9; 47:29])
2. 가족의 지도력을 전달함(참조, 창 48:14,17,18)
3. 자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동물과 일치시킴
  - ㄱ. 제사장(참조, 출 29:10,15,19; 레 16:21; 민 8:12)
  - ㄴ. 일반 신도(참조, 레 1:4; 3:2,8; 4:4,15,24; 대하 29:23)
4. 특별한 임무나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떤 사람을 구별함(참조, 민 8:10; 27:18,23; 신 34:9; 행 6:6; 13:3; 딤후 4:14; 5:22; 딤후 1:6)
5.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법적 일에 참여함(참조, 레 24:14)
6. 슬픔이나 목인을 뜻하기 위해 손을 자신의 입에 댄(참조, 삿 18:19; 욥 21:5; 29:9; 40:4; 미 7:16)
7. 손을 자신의 머리에 얹음은 슬픔/비탄을 뜻함(삼하 13:19)
8. 건강, 행복, 경건함의 축복을 받음(참조, 마 19:13,15; 막 10:16)
9. 육체적 회복과 관련(참조, 마 9:18; 막 5:23; 6:5; 7:32; 8:23; 16:18; 눅 4:40; 13:13; 행 9:17; 28:8)
10. 성령을 받음(참조, 행 8:17-19; 9:17; 19:6)

역사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즉, 안수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온 본문들에 놀랍게도 안수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1. 행 6:6 에서 지역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 7 명에게 안수한 사람은 바로 사도들이었다.
2. 행 13:3 에서 선교사역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한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3. 딤후 4:14 에서 디모데의 최초의 부르심과 안수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역교회의 장로들이었다.
4. 딤후 1:6 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한 이는 바로 바울이었다.

이러한 다양성과 애매성은 1 세기의 교회에 조직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초대교회는 훨씬 더 역동적이었고 신자들의 영적 은사를 정기적으로 활용했다(참조, 고전 14 장). 단순히 교회 정치나 안수절차에 관한 어떤 본을 홍보하거나 배제시키기 위해 신약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 “고치시니” 예수께서 나아온 모든 사람을 고치셨음을 주목하라! 또한 40 절에 있는 의학적 문제를 가진 경우와 41 절에 있는 귀신들림의 구분을 주목하라. 이러한 행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친절한 마음 및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가지신 긍휼하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4:41 “여러 사람에게서” 영어 본문에서 볼 때 이 구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신 반면 귀신들린 자들의 경우는 일부만 고치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답변이 있다:

1. 구출해 주심/축사에 있어서 의지적인 면이 포함된다
2. 성경은 “모든”과 “많은”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참조, 사 53:6, “모든” 대 53:11,12, “많은” 혹은 롬 5:18, “모든”과 롬 5:19, “많은”의 평행)

▣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1:3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이 증거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또 다른 이유이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그릇 이해하였다(국수주의). 이 귀신들은 예수를 지원하기 위한 증거로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왔다고 말하게 하려고 증거하려 한 것이다.

▣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얹이려라” 귀신들은 신학적 지식을 가졌다(참조, 약 2:19). 하지만 그들은 성부나 성자를 믿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 내용은 믿음 없는 지식이 헛된 것임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참조, 마 7:21-23). 2:11 의 특별주제: 메시아를 보라.

**개역개정 4:42-43**

<sup>42</sup>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sup>43</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2 이 절은 누가가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1.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쉬셔야 했다
2. 무리가 예수를 찾은 것은 그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병을 고쳐주시고 축사하심을 인함이었다. 그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이 일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였다.

4:43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핵심을 이룬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통치하심으로서 어느날 온 땅 위에서 완성될 것이다. 왕국은 13:28 에서는 과거로 17:21 에서는 현재로 마 6:10-11 에서는 미래로 나온다. 4: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께서는 12 살 때에 자신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과 그 목적에 대해 아셨다(참조, 2:49). 막 10:45 은 예수께서 장성하여 자신을 이해하신 내용을 드러낸다. 예수는 성부의 특별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그가 기름부으신 자이다(참조, 요 17:3). 여기 나오는 동사인 *αποστείλω*(참조, 18 절)는 예수께서 위임하여 보내신 특별한 제자들을 일컫는다(사도요한, 17:18; 20:21). 이 용어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만 공관복음에서는 보냄을 뜻하는 여러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개역개정 4:44**

<sup>44</sup>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44 “갈릴리” 이 지역은 14,31,37 절을 인해 매우 특이하게 여겨진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계신 것 같다(참조, 마 4:23).

“유대”(P<sup>75</sup>, K, B, C, L 사본)로 인한 혼동을 인해 초기의 여러 헬라어 사본(참조, A, D, 벌게이트역, 페쉬타)에는 막 1:39 과 마 4:23 을 따라 “갈릴리”로 나온다.

UBS<sup>4</sup> 의 본문 비평 위원회는 “유대”에 B 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의 유다이거나(즉, 예언서) (2) 복음서가 서구의 역사가가 아닌 동양의 소책자 복음임을 가리킨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실 수 있으셨는가?
2. 시험을 받는 것은 죄인가?
3.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가?
4. 예수의 메시아적 과업은 이 시험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5. 왜 시험이 서로 다른 순서로 나오는가(참조, 마 4:1-11; 눅 4:1-12)?
6. 왜 복음서들은 예수의 사역에서 이렇듯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는가?
7. 예수께서는 왜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셨는가?
8. 왜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격노했는가?
9. 예수의 메시지가 당시의 랍비들이 가르친 것과 왜 그렇게 많이 달랐는지를 설명하라.
10. 사람들은 왜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
11. 귀신들은 누구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12.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는 사실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13. 예수께서 자신에게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14.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 당신 자신의 말로 이것을 정의하라.
15. 44 절에 나오는 “유대”라는 단어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 누가복음 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첫 제자들을 부르심  5:1-11	네 어부를 제자로 부르심  5:1-11	예상치 못하게 물고기를 잡음  5:1-11	예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다  5:1-3  5:4  5:5-8  5:11	처음 네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다  5:1-3  5:4-7  5:8-11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심  5:12-16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심  5:12-16	고침을 받은 한 문둥병자  5:12-16	예수께서 한 남자를 고치시다  5:12  5:13-14  5:15-16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남자를 고치심  5:12-14  5:15-16
중풍병자를 고치심  5:17-26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고 고치심  5:17-26	죄의 용서  5:17-26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5:17-20  5:21  5:22-24  5:25-26	중풍병자를 고치심  5:17-25  5:26
레위를 부르심  5:27-32	세리 마태  5:27-32	레위를 부르심  5:27-28  5:29-32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다  5:27-28  5:29-30  5:31-32	레위를 부르심  5:27-28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5:29-32
금식에 대한 질문  5:33-39	금식에 대해 예수께서 질문을 받으시다  5:33-39	금식에 대하여  5:33-39	금식에 대한 질문  5:33  5:34-35  5:36-39	금식에 대한 토론  5:33-35  5:36  5:37-3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예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독특한 기록이 있다.

1. 막 1:16-20 과 마 4:18-22
2. 요 1:40-42
3. 눅 5:1-11

나. 이 기록들이 평행을 이루는 목격자적 진술인지 혹은 서로 다른 부르심을 다루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5 장은 다음 항목에 대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낸다.

1. 자연에 대하여(참조, 1-11 절)
2. 병에 대하여(참조, 12-26 절)
3. 죄에 대하여(참조, 27-32 절)

라. 요 21:1-14 은 예수께서 세 명의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도우신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 사건이 이곳의 사건과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나는 그 기록들이 두 개의 구별된 사건을 말한다고 믿는다(아마도 성전청결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과 같이)—하나는 예수의 사역 초기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부활 이후에 있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1-11

<sup>1</sup>우리가 물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sup>2</sup>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sup>3</sup>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sup>4</sup>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sup>5</sup>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sup>6</sup>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sup>7</sup>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sup>8</sup>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sup>9</sup>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sup>10</sup>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sup>11</sup>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5:1 “우리가 물러와서” 예수의 설교/가르침/병고침의 사역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 오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지고자 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것은 누가가 자주 사용한 말이다(참조, 5:1; 8:11,21; 11:28; 행 4:31; 6:2,7; 8:14; 11:1; 12:24; 13:5,7,44,46,48; 16:32; 17:13).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씩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70 인역에 나오는 관용적 표현의 하나이다.

때로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구는 훨씬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성경은 그 중의 하나이다. 시 19:7-11 과 시 119 편은 유대인들이 이 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신약에서의 이해는 눅 1:2; 8:11-15,21; 11:28; 24:44 에서 제시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내용을 인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호기심을 제어해야 한다.

▣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호수는 여러 가지로 불렸다.

1. “긴네롯”
2. 갈릴리 바다
3. 디베랴 바다
4. 때로 “바다”로 불림(참조, 마 13:1; 막 4:1; 70 인역의 민 34:11; 수 12:3)

이 호수는 대략 19 km x 15 km 의 크기이며 해발보다 330 m 낮은 곳에 위치하며, 주위에 있는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게네사렛의 어원적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호수 서편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을 일컫는 이름이기에, 어떤 이들은 이 이름이 “웅장한 정원”을 뜻한다고 추측한다.

5:2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 헬라어 단어는 크기에 상관없이 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배에서 여러 사람이 일하였음을 2,4,5 절이 언급하기에, 이 두 척 가운데 한 척은 크기가 큰 고기잡이 배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물을 씻는지라”** 갈릴리 바다에서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행해졌다. 이 사람들이 밤새 일한 후에 다음 날 밤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물을 씻고 수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5: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무리가 상당히 밀면서 가까이 오려 했기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시고(참조, 막 3:9; 4:1) 또 큰 무리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고 배에 오르셨다.

▣ **“시몬의”** 그는 사도들의 리더가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게바)로 마 16:16-18 에서 바꾸어 주셨다. 그는 누가복음에서는 6:14 에서 처음 베드로라고 불린다.

▣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것은 랍비들이 가르칠 때 사용한 일반적 모습이다(참조, 4:20; 마 26:55). 배 안에서는 앉는 일이 더 안전했을 것이다.

5:4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것은 둘 다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물고기를 잡기에 적합지 않은 시간이었고 적합지 않은 장소였으며 적합지 않은 깊이였음에도, 베드로는 순종했다(짧게 논쟁을 한 후, 참조, 5 절!)

5:5 **“선생님”** *επιστάτης*라는 헬라어는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감독자를 뜻한다. 이 용어는 눅 8:24,45 에서도 사용되었다.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기에 랍비라는 용어를 절대로 쓰지 않고 있다(참조, 5:5; 8:24,45; 9:33,49; 17:13).

▣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 가운데서 누가가 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 그 한 가지 이유는 이 장에는 (1) 자연 (2) 병 (3) 죄에 대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련의 사건이 있음에서 나타난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 및 도래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확증해준다.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행하셨다(참조, 4:32,36).

이 일은 인간의 수고, 애씀, 노력, 지식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이 내용을 요한이 아니라 누가가 전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전문가인 어부들이 최선을 다하였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커다란 수확을 가져왔다.

5:6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예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로서 물고기의 습관을 잘 아셨으며 그들을 다루실 수 있었다(참조, 마 17:27). 이 일은 예수께서 위대한 어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행하신 분이로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신 메시아로서 나타난다!

5: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 절은 문자적으로 “예수의 무릎 위에 쓰러지다”이다. 그는 물고기들의 한 가운데로 쓰러졌다! 물고기를 잡는 일을 알았던 베드로는 이 사건이 가진 기적적인 면과 이 일을 행하신 이의 능력을 깨달았다!

▣ **“주여”** 우리가 복음서를 해석할 때 복음서가 그 사건들이 일어난 후 시간이 지나서 기록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건 전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의 삶과 사역을 다룸에 있어서 복음의 전체 진리 가운데 얼마만큼 거슬러 올라가 다루는지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주”라는 용어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용어가 부활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참조, 행 2:36; 롬 10:9-13; 빌 2:9-11). 이 단어는 또한 문화적으로 “~님” 혹은 “~씨”와 같이 예외바른 칭호도 되었을 것이다(참조, 마 18:26; 눅 7:6; 9:57; 요 4:11). 누가 이러한 애매성을 일부러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참조, 빈센트 테일러, 예수의 이름들, 42 쪽, 그 예들은 눅 7:13,19; 10:1,39,41 이다). 여기에 있는 기록은 좋은 실례가 된다. 베드로가 예수께 무릎을 꿇으며 주여라고 부른 일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은 칭송의 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말은 성육신하신 성자요 메시아이신 예수께 예배하는 행위인가(참조, 눅 9:20)?

▣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더 잘 깨닫게 된다(참조, 욥 42:5-6; 사 6:5).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상투성인이인 인간(예, 모세, 다윗, 사도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들을 위해 일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

5: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기적은 듣는 자들도 놀라게 했다.

5: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핵심그룹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모두 중산층에 속하는 갈릴리 출신의 사업가였다.

▣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여, 이미 진행 중인 어떤 일을 그치라는 말이다. 이것은 누가가 즐겨 사용한 표현이다(참조, 1:13,30; 5:10; 8:50; 12:32; 행 18:9; 27:24).

▣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헬라이어 문장은 “그들을 사로잡기”이다. 이것은 야웨께서 어부들과 사냥꾼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 회복시키심에 대한 내용인 렘 16:16 의 암시이다. 이것은 기독교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상징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1. 각 행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 어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2. 물고기를 잡음, 복음전도적 의미를 가진 은유적 표현

5:11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이렇듯 엄청난 양의 물고기(상당한 금액에 해당되는)를 잡은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 두고 떠났다.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그 물고기들이 썩게 내버려 두었던 말인가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베대에게 다른 일꾼들이 있었으며 그 물고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이 구가 참된 믿음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음을 인해 놀라게 된다(참조, 28 절; 14:33).

▣ **“예수를 따르니라”** 이 때에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고 보았고 함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안드레가 이미 그들을 예수께 소개했음을 안다(참조, 요 1:29-42). 그들은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이미 들었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랍비적인 표현이었다(참조, 5:27-28; 9:23,49,57,61; 18:22,28).

### 12-32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막 1:40-45; 마 8:1-4; 마 42:14-17; 마 9:9-13 이다.
- 나. 이 사건들은 문둥병자와 세리에 대해 예수께서 취하신 혁신적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당시에 랍비들이 취한 자세와는 완전히 달랐다.
- 다. 누가는 다음에 대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제시한다
  1. 자연에 대한(1-11 절)
  2. 병에 대한(12-26 절)
  3. 선입관과 인간의 죄에 대한(27-32 절)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12-16

<sup>12</sup>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sup>13</sup>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sup>14</sup>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sup>15</sup>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sup>16</sup>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5:12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시실 때에” 레 13:46 과 민 5:2-4 은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의 일반 사회에 들어감을 금한다.

▣ “은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의사 누가는 이 본문에서 여러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

1. 12 절에서는 병의 중합을 나타내는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2. 18 절에서는 “증풍”을 뜻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한다—이 점에 있어서 통속적인 용어를 사용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차이점을 갖는다
3. 31 절에서는 “건강함”을 뜻하는 의학용어를 사용한다

▣ “나병” 이 용어가 뜻하는 병의 범위가 넓다. 이 용어가 오늘날의 나병을 뜻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대교에서는 나병(혹은 이것이 피부병을 가리킬 경우에도)을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받아들였다(아마도 윗시아의 경우 때문에, 참조, 대하 26:16-23).

▣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의 능력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기꺼이 고쳐 주심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5: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행위는 특별히 예수께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예수의 삶은 유대인의 규정이나 예식을 위한 정결 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큰 우선순위를 가지셨음을 나타낸다.

5:14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속량의 대 사건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감추신다. 8:56 에 대한 주석에서 이러한 본문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병고치는 자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복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복음전도를 병고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하시고 계셨다. 우리는 막 1:45 에서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이것은 레 14:1-32 에 있는 규정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원하셨다

1. 제사장에게 증거하기
2.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준수하심을 나타내기

누가복음은 17:14 에서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들은 또 한 명의 문둥병자에 대해 말한다.

5:15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범죄하였고 병들고 외로운 인간은 어디로든지 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기대할 것이다.

5:16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신자의 기도생활의 본을 보이셨다(참조, 3:21; 5:16; 6:12; 9:18,28). 만일 예수께서 물러가 기도하면서 사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는가!

개역개정 5:17-26

<sup>17</sup>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sup>18</sup>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sup>19</sup>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sup>20</sup>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sup>21</sup>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sup>22</sup>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sup>23</sup>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쉬겠느냐 <sup>24</sup>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sup>25</sup>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sup>26</sup>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5:17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 . .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막 2:3-12 과 마 9:1 의 내용을 보라.

▣ “바리새인”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바리새인**

- I. 이 단어는 다음중 하나의 기원을 가졌다:
  - 가. “분리한.” 이 그룹은 마카비안 기간 동안 발전되었다. (이 생각이 가장 넓게 받아들여진다).
  - 나. “나누다.” 이것은 같은 히브리어 어원의 또 다른 의미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해석가를 의미한다고 말한다(참조, 딤후 2:15).
  - 다. “페르시아의.” 이것은 같은 아람어 어원의 또 다른 의미이다. 바리새파의 어떤 교리는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매우 공통적이다.
- II. 그들은 마카비안 기간 동안 “*하시딤*”(경건한 사람들)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에세네파와 같은 그룹들은 안티오쿠스 IV 에피파네스에 반대한 반헬라주의에서 나왔다. 바리새인들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8.5.1-3에서 처음 언급된다.
- III. 그들의 중요한 교리들.
  - 가. 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 이것은 예녹 I서와 같은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 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사두개인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 바리새인의 교리의 많은 부분은 사두개인들의 것과 신학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 다. 지상에서의 삶에 기초한 신체를 가진 후세의 삶, 이것에는 상과 벌이 연관된다(참조, 단 12:2).
  - 라. 구약과 구전 전통(탈무드)에 둔 권위. 그들은 랍비(보수적인 삼마이 학파, 자유적인 힐렐 학파)들이 해석하고 적용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랍비들의 해석은 보수적이고 자유적인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랍비들 사이의 대화에 기초를 둔다. 성경의 의미에 대한 구두로 된 토론은 결국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와 팔레스타인 탈무드. 그들은 모세가 이와 같은 구전 해석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믿었다. 이러한 토론의 역사적 시작은 에스라와 “대 회당”(후에 산헤드린이라 불려짐)의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다.
  - 마. 잘 발전된 천사론. 이것은 선하고 악한 영적 존재를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문학에서 발전되었다.

▣ “**율법교사들**” 이들은 21 절의 “서기관들”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5:21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다. 그들은 구전과 기록된 율법을 일상생활의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은 각 지역에 있던 레위인들의 역할을 대신했다. 이 “율법교사들”은 오늘날 유대교의 랍비들이다.

▣ “**예루살렘에서 온**” 우리는 랍비들의 문학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유대와 구별되는 행정구역이었음을 안다. 이들은 “본부”에서 온 유대인의 대표단이었다! 이 성경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께 대해 조사하려고 왔다.

▣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4:14에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함을 주목하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과 사역에 있어서 친밀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3:22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이 본문에서 “주”가 야웨를 가리킴을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창조, 구속, 심판에 있어서 야웨의 대리자이셨다.

**특별주제: 예수와 성령**

성령과 예수의 사역 사이에는 유동성이 있다. G. 캠프벨 물간은 성령의 가장 적합한 이름을 “다른 예수”라고 했다(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구분이 되는 영원한 위격이시다). 다음은 성자와 성령의 사역과 호칭을 비교한 개요이다.

- 1. 성령은 “예수의 영” 또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불렸다(참조, 롬 8:9; 고후 3:17; 갈 4:6; 뱀전 1:11)
- 2. 두 위격이 같은 단어로 불리셨다
  - ㄱ. “진리”
    - 1) 예수(요 14:6)
    - 2) 성령(요 14:17; 16:13)
  - ㄴ. “변호자”
    - 1) 예수(요일 2:1)
    - 2) 성령(요 14:16,26; 15:26; 16:7)
  - ㄷ. “거룩”
    - 1) 예수(눅 1:35; 14:26)
    - 2) 성령(눅 1:35)
- 3. 두 위격이 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 ㄱ. 예수(마 28:20; 요 14:20,23; 15:4-5; 롬 8:10; 고후 13:5; 갈 2:20; 엡 3:17; 골 1:27)
  - ㄴ. 성령(요 14:16-17; 롬 8:9-11; 고전 3:16; 6:19; 딤후 1:14)
  - ㄷ. 아버지(요 14:23; 고후 6:16)

▣ 17 절에서 헬라이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기관들이 문장을 명확히 하게 하려고 시도한 내용들이다.

1.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의 각 마을에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B, L, W 사본, 벌게이트, 시리아 역). 따라서 서기관들이 이 문장이 고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키도록 바꾸었다(참조, Ⓝ\* 및 일부 콤팩트역과 아르메니아역)  
이 점은 오늘날의 서구인처럼 후기의 서기관들이 동양의 글(과장법)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2. “그를”이 단수형으로서 예수를 가리킨다(참조, Ⓝ, B, L, W 사본), 하지만 어떤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병고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복수형으로 바꾸었다(참조, A, C, D 벌게이트, 페쉬타, 아르메니아역). UBS<sup>4</sup>는 “그를”에 “A”등급(확실했)을 주고 있다.

5:18 “한 증풍병자”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 전문적인 의학용어(히포크라테스, 갈렌)를 사용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통속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5:19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대부분의 집은 지붕 위로 갈 수 있는 계단이 바깥 쪽에 있었다. 지붕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더운 계절에는 잠을 잘 수도 있는 장소였다. 집 안에 잔뜩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붕에서 무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느낌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5:20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는 증풍병자는 물론 그의 친구들을 가리킨다.

“믿음”은 신약에서 중요한 용어이다(참조, 눅 5:20; 7:9,50; 8:15,48; 17:5,6,19; 18:8,42; 22:32). 헬라이어에서 이 단어의 명사형은 *피스티스*이고 동사형은 *피스티오*이다. 이 용어는 믿음, 믿다, 신뢰하다로 번역되었다(1:45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개념은 구원(참조, 요 1:12; 3:16)과 그리스도인의 삶(참조, 히 11:1,3,6)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용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에뻬타*이다. 원래 이 단어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지만, 의지할 수 있고 충성되며 신뢰할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발전되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을 뜻한다(참조, 엡 2:8-9). 믿음은 행위를 가리키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함을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우리는 의지할 만 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으며 신뢰할 만 하지 않고 신실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 하심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범죄한 인류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곧 반역하는 피조물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대표자이신 예수께서 자기 친구에게 은혜를 따라서 행하실 것을 믿었으나 친구를 예수께로 데리고 갈 방법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알았다(참조, 7:9,50; 8:48; 17:19; 18:42). 오, 오늘날 친구들이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의 문법적 형태는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다. 이 문장은 그 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방법이였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는 죄와 병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참조, 요 5:14 및 약 5:13-15,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 요 9:3). 인간의 죄는 육체적으로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5:21 “서기관”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서기관**

이 칭호는 히브리어에서 “말로 한 메시지” “글로 쓴 문서/칙령”을 뜻하는 명사(BDB 706)에서 왔다. 헬라이어로 번역된 “그람마투스”는 문서로 된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이 단어는 다음의 내용을 뜻할 수 있다

1. 교육가(눅 8 장)
2. 정부의 관리(왕하 22:3-13)
3. 기록자/비서(대상 24:6; 대하 34:13; 렘 36:22)
4. 군대의 장교(참조, 삿 5:14)
5. 종교 지도자(에스라 7:6; 느 12:12-13)

신약에서 그들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관련이 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구약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즉, 탈무드)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왔다(참조, 지혜서 39:6). 그러나 그들의 의(즉,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예식에 근거한)는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참조, 마 5:20; 롬 3:19-20; 9:1-5,30-32; 10:1-6; 골 2:20-22).

비록 그들의 일부는 예수께 응답했다(참조, 마 8:19). 하지만 그들은 종종 예수께 적대적인 사람들로 공관복음서에서 묘사된다(요한은 그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8:3은 원래의 본문이 아니다).

1.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 일에 대한 갈등, 막 2:16; 마 9:9-13
2.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권위의 출처에 대한 갈등, 막 3:22
3.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갈등, 마 9:31; 눅 5:21

4. 보이는 표적을 구함, 마 12:38
  5. 손을 씻음(즉, 예식에 따른 씻음)에 대한 갈등, 마 15:1-2; 막 7:1-5
  6.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때에 군중들이 인정한 일에 대한 갈등, 마 21:15
  7. 예수께서 그들의 동기를 비난하심(즉, 명예와 뛰어남을 구함), 막 12:38-40
  8. 예수께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소경을 인도한다고 비난하심, 마 23:1-36
- 그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들 보다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참조, 사 29:13; 6:9-10)은 그들을 소경되게 하였다! 빛이 어둡게 되었을 때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구한 표적을 모호하지 않게 분명히 주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계신 것이다.

5:22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오”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뜻한다

1.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엿들으셨다
2. 예수께서 그들의 신학을 아셨다
3.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다

22 절의 끝 부분은 3 항을 나타낸다.

5:23-24 이 남자가 고침을 받은 일은 메시아의 오신 목적과 능력 및 메시아의 임재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이었다(참조, 4:18-19). 그들은 찬송과 칭송(그들이 처음에 돌렸던, 참조, 25-26 절) 대신에 자기들의 사욕을 도모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참조, 22:2; 마 12:14; 26:1; 막 14:1; 요 5:18; 7:1,19; 8:37,40; 11:53).

병고침은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1.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목하도록
2.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가 행하시는 능력과 공혹히 여기심을 나타내기 위해
3.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편 죄의 용서는 개인의 믿음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

**특별주제: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 병고침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2. 이 일이 의도한 바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해 전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다.
3. 이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4.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말 3:6), 병을 고쳐주심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신다.
5.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 있다.
  - ㄱ. 바울, 고후 12:7-10
  - ㄴ. 드로비모, 딤후 4:20
6. 랍비들의 견해와 야고보서에서 ‘죄와 질병’이 서로 결부되어 나온다(참조, 요 9:2; 약 5:13-18).
7. 병고침은 새 언약의 보증이 아니다. 이것은 사 53 장과 시 103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속죄와 관련이 없다.
8. 왜 어떤 이는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에 있어서 커다란 신비함이 있다.
9. 병고침을 받는 일이 모든 세대에 있었지만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많이 있을 것이다.

5:24 “인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일컬기 위해 사용하신 용어이다. 에스겔서(예, 2:1; 시 8:4)에서 이 용어는 단순히 “인간”을 의미하지만 단 7:13-14 에서는 이 용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요일 4:1-3).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는 군사적, 국수적, 배타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자세한 설명은 6:5 에 있다.

이 구절은 마 9:8 에 있는 “이러한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와 평행을 이룬다. 그 설명은 “인자”의 인간적 모습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예수의 인성을 나타내는 삶과 가르침을 누가가 택한 점에서 반영하듯이 누가가 살던 시대에 있던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영지주의를 인해서 우리는 놀라게 된다.

**특별주제: 인자(단 7:13 의 나의 주석에서 따온 내용임)**

아랍어 구(“벤 예노쉬,” BDB 1085 와 1081)인 “인자”는 시편과 에스겔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히브리어 구(“벤 야담”)와 다르다. 욥 25:6; 시 8:4; 90:3; 144:3; 사 13:12 에서 두 개의 구 모두가 평행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인성과 연결된다(참조, 8:17; 욥 25:6; 시 8:4; 겔 2:1).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구름은 신성을 의미(참조, 마 24:30; 26:64; 막 13:26; 14:62; 계 1:7; 14:14)하며 아람어와 히브리어 구인 “인자”는 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구를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다. 이것은 랍비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 구는 배타성 혹은 민족적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구는 메시아를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독특하게 나타낸다(참조, 요일 4:1-3). 이러한 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책이 다니엘서이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로 이 용어를 자신에게 대해 사용하셨다.

1.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예, 막 8:31; 10:45; 14:21; 눅 9:22,44)
2.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오심(예, 마 16:27; 25:31; 요 5:27)
3.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그가 영광 중에 오심(예, 마 16:28; 19:28; 막 13:26-27; 14:62)

유대인 연구 성경 1657 쪽(또한 조지 E. 라드의 *신약신학* 136-139 쪽을 보라)에는 이 본문에 대한 후기에 속하는 유대적 전통의 목록이 있다.

1. 이 문맥은 메시아를 나타낸다(참조, 예녹 I 서 46:1; 48:10; 에스라 4 서[에스드라서 2 서] 13 장; b. Sanh. 98a)
2. 이 문맥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참조, b. Sanh. 97a)
3. 이 문맥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창세기 Rab. 98:2)
4.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참조, 이븐 에스라와 라쉬)

▣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의문을 가진 핵심적 내용이었다.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는가(10:2의 특별주제: 권세를 보라)?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능력을 인해 그의 가르치심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그의 권세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으로 돌리려 했다.

5:26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출생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셨다(참조, 1:15).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의 출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었다(참조, 1:41,67). 하지만 유대인(즉, 나사렛 사람들)들은 분노로 충만했고(참조, 4:25) 그들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참조, 5:26)과 격노(참조, 6:11)로 충만했다.

누가는 이 주제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낸다.

1.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참조, 2:4; 4:8,31; 9:17; 13:9).
2. 유대 지도자들(사두개인들)은 시기로 충만했다(참조, 5:17).
3.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무리는 시기로 충만했다(참조, 13:45).

사람이 복음에 대해 취하는 반응은 그가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결정짓는다.

#### 개역개정 5:27

<sup>27</sup>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5:27 “레위라 하는 세리” 우리는 막 9:9에서 그의 이름이 “마태”(하나님의 선물)로도 불렸음을 안다. 우리는 막 2:13에서 그가 “알패오의 아들”이었음도 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는 유대 이름과 갈릴리 이름을 각각 가졌다.

#### 특별주제: 사도들의 이름 도표

	마태복음 10:2-4	마가복음 3:16-19	누가복음 6:14-16	사도행전 1:12-18
제 일 그룹	시몬(베드로) 안드레(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세베대의 아들) 요한(야고보의 형제)	시몬(베드로) 야고보(세베대의 아들) 요한(야고보의 형제) 안드레(베드로의 형제)	시몬(베드로) 안드레(베드로의 형제) 야고보 요한	시몬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제 이 그룹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세리)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제 삼 그룹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다대오 시몬(가나안인) 유다(가롯)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다대오 시몬(가나안인) 유다(가롯)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시몬(열심당) 유다(야고보의 아들) 유다(가롯)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시몬(열심당) 유다(야고보의 아들)

▣ **“세관”** 이 직업은 로마인과 헤롯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자리로서 남용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일이었다. 레위는 *비아 파리스*로 알려진 주요 도로에서 헤롯과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거두었음이 분명하다. 그의 직업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종교 행사 및 사회 행사에 있어서 지역의 유대인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를 받았다. 누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따돌림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참조, 3:12-13; 5:27-28,29-32; 7:34; 15:1-2; 18:9-14; 19:1-10). 이것은 누가가 이방인 독자들로 하여금 야웨와 그의 그리스도께서 믿음에 의해 그들도 품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 **“나를 따르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예수께서 세리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오라고 부르신 일은 가버나움에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까지 심히 놀라게 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분명히 상징한다.

5:28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이전에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똑 같은 방법으로 응답했다(참조, 11 절).

**개역개정 5:29-32**

<sup>29</sup>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sup>30</sup>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sup>31</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sup>32</sup>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5: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누가는 예수께서 참석하신 많은 식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임은 항상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목적이었다(참조, 7:36; 9:12; 10:38; 11:37; 14:1; 19:7; 22:14; 24:30; 24:41). 가버나움이 주요 도로 상에 위치 했기에 그곳에는 많은 세리들이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이 그룹의 사람 및 소외받는 그들의 친구들과 만나시고 함께 잡수심을 인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복음에 대한 다른 통찰을 위해서, 참조, 7:34; 15:1-2).

예수께서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심을 통하여 그들과 종교적인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는데 이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탐비들 및 서기관들과 상당히 다르게 행동하셨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은 친분과 용납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행위였다. 그들은 왼쪽 팔꿈치에 기댄 채 발은 뒤쪽으로 한 상태에서 말굽 모양의 낮은 상에 둘러 앉았다(J. 에레미아스는 자신의 책 *예수의 성례적 말씀* 20-21 쪽에서 이 견해에 반대한다. 유대인들은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중해 연안의 관습을 정기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한다). 근동에서 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이들은 연회장으로 들어와 벽이나 문 혹은 창문 곁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문맥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종말론적 상징이 들어 있는지 참으로 놀랍다. 이 만찬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만찬으로서 소외된 자를 포함하는 만찬을 예시하는 것인가(참조, 마 8:11; 눅 13:29, 또는 사 59:15b-21 을 반영하는 내용임)? 만일 그렇다면 이 당시에 행해진 예수님과 그의 사귀는 종말에 임할 왕국에서의 사귀를 보여주는 면에서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죄인들이 이제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모든 죄인이 환영을 받는다(한편 모든 이가 죄인이다. 구약의 언약백성들도 죄인이다, 참조, 롬 3:9-18).

5:30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잔치자리에 있었지만 손님으로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들에게는 이상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안에 들어와 벽 앞에서 서 있거나 혹은 창을 통하여 들여다 보며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을 칭하는 또 다른 호칭이었다. 후자에 대하여는 이 문맥에서 먼저 언급되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구전(탈무드)을 특별히 지키는 일에 헌신한 무리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함을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잘 알려진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우정과 교제를 나타내고 계셨다. 침례(세례)요한은 금욕주의자로 먼저 왔으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했다; 이제 그들은 요한과 달리 사교적인 인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참조, 11:19; 눅 7:34). 그들은 “탐식가” 혹은 “과음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를 “술고래”라고 정죄한다. 종교적 보수주의는 아주 빈번히 추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쪽으로 기운다.

바리새인의 기원과 신학에 대하여는 5:17 의 특별주제: 바리새인 및 5:21 의 특별주제: 서기관들을 보라.

▣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동사는 둘 다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정기적인 행위를 암시한다. 나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지를 나타낸다.

5:31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이 절과 평행을 이루는 막 2:15-17 이 도움이 된다. 나는 마가복음 2 장에 대해 내가 쓴 주석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한다([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를 보라).

2:17 **“병든 자”**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필요를 느꼈다(참조, 마 5:3-4). 또한 예수께서는 그들의 치료자요 친구였다(참조, 눅 7:34; 19:10).

▣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은 막 7:19의 경우와 같이 모순적이면서 풍자적인 진술이다. 이 선언은 종교 지도자들이 의롭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참조, 마 5:20). 예수의 메시지(참조, 막 1:14-15)는 자신의 영적 필요를 느끼고 있던 자들에게서 더 큰 호응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종종 자신의 가르침에 잠언적인 진술을 사용하신다(참조, 막 2:17,21,22,27; 3:27; 4:21,22,25; 7:15; 8:35,36,37; 9:10,50; 10:25,27,31,43-44).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다 더 소경인 사람은 없다!

로버트 H. 슈타인은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방법과 메시지*에서 이 점에 대하여 좋은 설명을 한다: “비록 “전체주의(totalitarian)”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알키발드 M. 훈터가 사용한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요구하신 전적 헌신을 정확하게 잘 설명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주장을 한다면 이는 극도로 병적인 자기 중심주의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온 세상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거부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사람의 운명은 예수님 자신에게 놓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를 거부하는 일은 영원한 심판을 뜻하며, 그를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뜻한다.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와 구원의 중심점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를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며 또한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은 어리석고 멸망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건축을 위한 유일하면서도 참된 터이기 때문이다(마 7:24-27)” (118 쪽).”

▣ “건강한” 이것은 “강건함”을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이다.

5:32 “회개” “회개”를 뜻하는 헬라이어 단어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회개”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에는 두 가지가 함께 요구된다. 이것은 ~로부터 돌아섬(회개)이며 ~으로 돌아섬(믿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막 1:15의 “회개하고 믿으라”에서 본다(참조, 행 3:16,19; 20:21). 이것은 믿음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회개라는 부정적 측면을 포함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자주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가 같이 멸망하리라”(참조, 눅 13:3). 3:3의 특별주제: 회개를 보라.

**개역개정 5:33-39**

<sup>33</sup>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sup>34</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sup>35</sup>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sup>36</sup>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sup>37</sup>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sup>38</sup>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sup>39</sup>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5:33 평행을 이루는(아마도 원래의 본문인) 막 2:18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참조, **㉠**<sup>2</sup>, A, C, D 사본, 별게이트, 시라아역)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진술로 되어 있다(참조, P<sup>4</sup>, **㉠**<sup>1</sup>, B, L, W, 여러 콕터역). UBS<sup>4</sup>의 본문 비평 위원회는 누가의 진술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어, 이를 원래의 본문으로 평가한다. 후기에 서기관들이 마가의 기록과 일치시키려고 이 내용을 바꾸었다.

▣ “금식”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두 번(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행했다(참조, 눅 18:12). 모세의 율법은 일 년에 한 번, 즉 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말한다(참조, 레 16 장). 일 주일에 두 번 행하는 금식은 전통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참조, 스펀 7-8 장). 금식이 의무적인 일로 바뀜으로써 이 일은 영적인 가치를 잃고 또 그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마 6:16-18).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금식**

비록 신약에서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이를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참조, 마 6:16,17; 9:15; 막 2:19; 눅 5:35). 합당한 금식에 대한 내용은 사 58 장에 나와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전례를 세우셨다(참조, 마 4:2). 초대 교회도 금식했다(참조, 행 13:2-3; 14:23; 고후 6:5; 11:27). 금식의 동기와 자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금식의 때와 길이와 빈도는 선택적이다. 구약의 금식은 신약의 신자들에게 요구해야 할 성격은 아니다(참조, 행 15:19-29). 금식은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금육에 대해 초대 교회가 가진 경향은 서기관들로 하여금 “금식”을 여러 본문에 삽입하게 했다(즉, 마 17:21; 막 9:29; 행 10:30; 고전 7:5). 이 논란이 되는 본문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세계성서공회가 출판한 브루스 메츠거의 *헬라이어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을 참조하라.

**5:34-35 “신랑”** 34 절에 있는 질문은 “아니오”라는 답을 기대한다. 구약에는 “신랑”과 관련을 가진 수 많은 은유적 표현이 나온다. 구약에서는 야웨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요 남편이시다. 한편, 이 단어는 결코 메시아의 호칭이 아니었다. 이 문맥에서 예수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다(참조, 엡 5:23-32). 35 절에서 “신랑을 빼앗기리니”라는 표현은 분리가 일어나는 때를 가리킨다.

이제 해석자인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제시된다. 첫째로, 우리는 이 내용을 결혼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때를 나타내는 문화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결혼식 때에 아무도 금식하지 않는다! 둘째로, 우리는 이것이 예수의 지상사역과 임박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비유로서 이해할 수 있다. 마가(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로마에서 기록했으며 그것을 최초의 복음서로 제시하고 있다)는 은유적인 의미를 갖는 이 용어들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유대교에서 신랑은 메시아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오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즉, 귀신을 내어쫓음, 병고침, 죄의 용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금식할 것이다.

**5:36** 마가복음(2:21)과 마태복음(9:16)에 나오는 평행구절은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줄어들지 않은 천(그것은 줄어들게 될 것임)에서 가져 온 조각임을 알려 준다. 새 조각(예수와 복음)은 헌 옷(유대교)을 찢을 것이다.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융통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융통성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주위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것은 랍비들의 유대교가 구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에 대한 정죄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보다 우리가 가진 전통과 율법주의에 더 많이 헌신한다(참조, 사 29:13). 이 비유는 막 2:19-20 및 마 9:16-17 과 평행을 이룬다.

**5:37 “가죽 부대”** 이것은 염소 가죽을 가리킨다. 이 가죽은 액체를 담는 자루로 사용되었다(즉, 물, 창 21:15; 우유, 삿 4:19; 포도주, 수 9:4,13). 새로 무두질한 가죽은 탄성을 가졌다. 이 가죽부대가 낡은 경우에는 새 포도주가 발효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터질 수 있었다. 유대교는 예수의 통찰력과 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또 무효한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겔 36:22-38)은 예수님 안에서 도래했다! 어떤 것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

**5:39** 서기 5 세기에 속하는 서방 사본 D(베자)에서는 39 절을 생략하고 있다. 그 이유는

1. 막 2:22 과 마 9:17 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아마도 구약에 우선권을 두고 있음에 기인한다(메즈거의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 139 쪽)

누가가 어디서 이 부분을 취하였을까?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Q”(헬, 아마도 마태가 기록하였을 예수의 어록)에 들어 있지 않다. 누가가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음이 명백하다. 이것은 구전적인 전승이었음이 분명하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님의 능력과 뛰어난임을 나타냄에 있어서 왜 5 장이 중요한 장을 이루는가?
2. 예수께서는 왜 문둥병자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는가?
3. 예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것을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는가?
4. 예수께서는 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5. 예수께서 세리를 부르사 제자로 삼으신 일은 왜 그렇게 혁신적인 일이었는가?

# 누가복음 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안식일에 이삭을 자름 6:1-5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6:1-5	예수와 안식일 법 6:1-5	안식일에 대한 질문 6:1-2 6:3-4 6:5	안식일에 이삭을 자름 6:1-5
한편 손 마른 남자 6:6-11	안식일에 병고치심 6:6-11	6:6-11	중풍걸린 손을 가진 남자 6:6-10 6:11	마른 손을 가진 남자를 고치심 6:6-11
열둘을 택하심 6:12-16	열 두 사도 6:12-16	열둘을 택하심 6:12-16	예수께서 열 두 사도를 택하시다 6:12-16	열둘을 택하심 6:12-16
큰 무리를 위해 사역하심 6:17-19	예수께서 큰 무리를 고치시다 6:17-19	평지에서서의 설교 (6:17-49) 6:17-19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다 6:17-19	무리가 예수를 따르다 6:17-19
복과 저주 6:20-26	축복 6:20 6:20b-23 예수께서 화를 말씀하심 6:24-26	6:20-21 6:22-25 6:26	행복과 슬픔 6:20-21 6:22-25 6:26	첫 설교: 축복 6:20-21 저주 6:24-25 6:26
원수를 사랑함 6:27-36	네 원수를 사랑하라 6:27-36	6:27-31 6:32-36	원수를 사랑함 6:27-31 6:32-36	원수를 사랑함 6:27-36
다른 이를 판단함 6:37-42	판단하지 말라 6:37-42	6:37-38 6:39-42	다른 이를 판단함 6:37-38 6:39-40 6:41-42	동정과 관대함 6:37-38 성실함 6:39-42
열매로 나무를 앎 6:43-45	열매로 나무를 앎 6:43-45	6:43-45	나무와 열매 6:43-45	6:43-45
두 기초 6:46-49	6:46-49	6:46-49	두 건축자 6:46-49	참 제자 6:46 6:47-4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은 여러 개의 사건으로 구분된다:

1.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은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항의하였다(참조, 1-6 절)
2.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 예수께 항의하였다(참조, 6-11 절)
3.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택하셨다(참조, 12-19 절)
4.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 마 5:7 에 있는 “산상설교”와 비슷하다(20-29 절에 기록됨)

나. 마태복음에 있는 “산 위에서 행한 설교”와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에서의 설교”(참조, 17 절)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누가는 사회적 환경 및 물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루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일부 학자들은 누가가 연기된 *파루시이*를 다룬다고 말한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종말론적 배경). 왜 누가가 “화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화로다”; 이 “화”는 축복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한편 마태는 이 부분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이 점은 신약에 기록된 설교가 설교 내용을 글자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약과 축약임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산상수훈은 우리가 따라야 할 특별한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누가와 마태가 비슷한 주제와 예를 사용한 두 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지(참조, 글리슨 아처, 성경의 난해구절 백과, 312 쪽과 366 쪽) 혹은 같은 설교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지(참조, D. A. 칼슨, 엑스포지터스 성경주석의 “마태복음”) 결정짓기 어렵다. 각 복음서 저자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청중을 염두에 두고 예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각색하고 위치를 재조정하였음을 기억하라. 마태가 자신의 유대인 청중을 위해 기록한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유대적 요소를 누가는 배제시키고 있다.

다.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의 설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사용한다. 누가복음에 있는 지복의 설교는 종말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참조, 6:20). 천국이 여기에 있다! 신자들이 외적으로 겪는 물질적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을 누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6:1

<sup>1</sup>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sup>2</sup>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sup>3</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sup>4</sup>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sup>5</sup>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6:1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것은 마을이나 도시 주위에 있는 밭을 통과하는 길을 가리킨다. 이 “밀밭”은 곡식이 자라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즉, 보리, 밀).

탈무드는 안식일에 2,000 보 이상의 여행을 일로 여겨 이를 금했다. 안식일에 무리가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범함으로 인해 죄책을 느끼고 있었다.

이 사건은 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 구전(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나타낸다. 그들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신실한 마음에서 왔다! 그들은 신실했으며 또한 매우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전을 받았다고 믿었으며 그 내용을 구두로 자손들에게 전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5:33-39 에 있는 세 가지 비유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안식일에**” 이 표현은 P<sup>4</sup>, K, B, L, W 사본에 나온다. UBS<sup>4</sup> 은 이것에 “C” 등급을 주는데, 그 이유는 더욱 더 특이한(특별한) 구인 “두 번째 첫 안식일에”가 A, C, D, K, X, 델타 사본에 있기 때문이다.

이 독특한 구에 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이것은 무교절 이후의 안식일을 가리키는 썸어적인 표현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한 달력에 따라 유월절 이후 두 번째 안식일임을 나타낸다. 유월절로부터 50 일이 되는 날인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했다(참조, 레 23:15, 아치의 성경 주석 제 28 권 607 쪽을 보라).
2. 안식일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세 가지 언급의 혼동으로 인한 서기관의 실수이다(참조, 4:16,31; 6:1, 브루스 메츠거의 본문 주석 139 쪽을 보라)

**특별주제: 안식일**

이 용어는 “휴식” 혹은 “활동을 중단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 이날은 창조의 제 7 일과 관련이 있다. 그 날 하나님은 초기의 창조를 마치신 후 일을 멈추셨다(참조, 창 2:1-3).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1) 창조를 마치셨으며 이 일이 좋았기 때문이며(참조, 창 1:31) 또한 (2) 사람들에게 예배와 쉼을 위한 정규적인 질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창 1 장에 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녁에 시작된다. 따라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공식적인 안식일 기간이다. 이 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특히 16, 20, 31, 35 장)와 레위기(특히 23-26 장)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지킨 규정들의 내용을 그들의 구전적 전통이 다루어 제시하는 것 및 이 규정들을 해석하여 여러 세부 규정을 추가시킨 내용을 지켰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까다로운 규정을 아시면서도 종종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와 사랑이 없음에 대해 그리하신 것이다.

▣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따르고 있었고 전통적인 안식일 규례를 범하였음이 분명하다(참조, 마 12:1).

▣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가 다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추수
2. 탈곡
3.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함

이러한 행동은 출 34:21 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일이었다. 랍비들의 전통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사밧 7:2 에 잘 나타난다. 구약의 추수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참조, 신 23:25) 이 일을 그들이 안식일에 행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참조, 창 2:1-3; 출 20:8-11; 23:12; 31:15; 신 5:12-15)! 이 사건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함으로써 다음의 내용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1. 그들이 한 일로 인한 논쟁
2. 예수께서 이러한 종류의 일을 매일 행하셨으며 안식일에도 그렇게 행하셨음

6:2 “**어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출 34:21 의 규정을 범하고 있다고 여겼다. 이것은 무리가 항상 예수를 따르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 무리는 제자들, 병자들, 호기심 가진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대표단으로 이루어 졌다. 후자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예수를 잡고자 했다.

이 무리가 가진 (1) 동기의 복잡성 (2)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해 예수님의 가르침(특별한 문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알 수 없기에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6:3 “**다윗이 . . .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인간의 필요가 율법적 의식이나 전통에 우선함을 강조하기 위한 일로 보인다(참조, 삼상 21:1-6). 사무엘상에 기록된 간략한 내용을 통해 볼 때 놈의 제사장에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혐의가 가지 않게 하려고 다윗이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행히도 다윗을 도와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사울이 그를 처형했다.

6:4 “**하나님의 전**” 이것은 성막을 가리킨다(참조, 출 25-31 장).

▣ “진설병” 이것은 떡 열 두 덩어리로서(하나님께서 열 두 지파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상징함) 성소 안에 있는 상 위에 놓았고 매 7 일 마다 세 것으로 바꾸었다.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참조, 출 25:30; 레 24:5-9). 그 무게는 대략 3 kg 이었다.

▣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는 모든 공판복음서에서 나온다(참조, 마 12:3; 막 2:25). 이것은 삼상 21 장을 암시하지만, 실제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한 자들이 있다고 거짓말로 말한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의도는 사울이 이 일을 인해 놉의 제사장에게 보복함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다윗의 동료 및 사울에게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온 일은 삼상 22:1 이후에 일어났다.

6:5 “인자” 이것은 구약의 구에서 취한 **형용사형**이다. 이 단어는 겔 2:1 및 시 8:4 에서 사용되었는데 어원적인 참 의미는 “인간”을 뜻한다. 한편 이 단어는 단 7:13 의 문맥에서 새로운 종말론적 왕의 칭호로서 사용되어 그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독특한 용법을 가진다(참조, 막 8:38; 9:9; 13:26; 14:26). 이 호칭이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사용되지 않았기에 이 단어에는 국수적, 배타적, 군사적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예수께서는 완전히 사람이시며 완전히 하나님이신 자신의 이중적 본질을 감추는 동시에 이를 드러내기 위한 완벽한 용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참조, 요일 4:1-6).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즐겨 사용하신 호칭이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23 회 사용되었다(참조, 5:24; 6:5; 9:22,26,44,58; 11:30; 12:8,10,40; 17:22,24,26,30; 18:8,31; 20:13; 21:27,36; 22:22,48,69; 24:7).

▣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은 매우 충격적으로 메시아를 암시한다(참조, 마 12:6). 안식일(6:1 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이었다(참조, 창 2:1-3; 출 28:11). 따라서 예수께서는 여기서 자신이 이 날의 주인이요 지배자임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다.

안식일 규정에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 이러한 전통이 종교 생활의 **핵심**을 이루었다. 규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대한 우선순위를 대신했다. 행위에 따른 공로가 사랑을 대신했다. 종교적 전통(즉, 구두로 전해진 율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대신했다(참조, 사 29:13; 골 2:16-23).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구약에서의 적절한 대답은 희생제사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와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게 하려고 이것을 의도하셨다. 그러나 이 일이 예식적인 행사의 절차로 바뀌고 말았다. 또한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이 객체가 아니라 종으로 바뀌어 버렸다(즉, 율법을 위하여 존재함).

#### 개역개정 6:6-11

<sup>6</sup>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sup>7</sup>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sup>8</sup>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sup>9</sup>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며 <sup>10</sup>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sup>11</sup>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6: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이 사건은 마 12:9-14 및 막 3:1-6 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다. 이곳은 주로 교육, 기도, 예배, 교제를 위한 장소였다. 성전이 국가의 구심점이 되었듯이 회당은 각 지역에서 유대교의 구심점을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정규적으로 회당에 참석하셨다. 그는 성경 및 전통을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배우셨다. 그는 제 1 세기에 행해지던 유대인의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셨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셨음이 흥미롭다. 예수께서는 구두로 전해진 장로들의 전통(즉, 탈무드)을 위반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지역의 지도자 및 국가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신학적 논쟁/토론을 시작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셨다. 산상수훈은 예수의 신학이 전통적인 규범과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참조, 마 5-7 장, 특히 5:17-48).

▣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의사인 누가만 이것이 오른손이었음을 밝힌다. 아마도 그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업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6:7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 . . 엿보니” 이것은 **미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으로서 반복적인 행위, 행동의 시작, 혹은 과거에 시작된 일을 나타낸다. 예수의 주위에는 예수를 울무에 걸리게 하거나 혹은 그가 기록된 율법이나 구전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잡으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이 항상 있었다(참조, 14:1; 20:20; 막 3:2).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며 막 3:2 와 같은 내용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전통을 위반하는 무언가를 하신다고 생각했다.

▣ “예수를 고발할” 이것은 70 인역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이다(참조, 신 6:5; 마카비 1 서 17:6,25; 마카비 2 서 4:47; 10:13,21).

6:8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오” 5:22의 설명을 보라. 이같은 표현이 9:47에서 제자들에 대해 사용되었고 5:22과 6:8에서는 예수의 적에 대해 사용되었다.

▣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둘 다 명령형인데 앞의 것은 현재 능동이고 뒤의 것은 부정과거 능동이다. 이 사람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실 교훈을 위해 그를 사용하신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전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자들을 가르치시려는 목적에서 행한 경우가 많이 있다.

6:9 이 절은 논란이 되는 내용이다!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는가(참조, 마 12:11; 막 3:4)?

▣ “생명” 이것은 헬라어 단어인 *프쉬케*가 “영혼”이 아니라 사람 혹은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좋은 예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이다(참조, 창 2:7).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사람(humanity)의 여러 면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땅 위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동의어들이다.

6:10 “무리를 둘러보시오” 마가(베드로)는 “분노로”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참조, 막 3:5).

▣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부 고대 헬라어 사본은 “분노로”를 추가하고 있다(NKJV). 같은 표현이 막 3:5에 나오는데 이 구는 손마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것이다. UBS<sup>4</sup>는 짧은 본문(P<sup>4</sup>, ~~8~~, A, B, C, W 사본)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 “네 손을 내밀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탈무드는 안식일에 병고침을 금하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적 도움을 허용하고 있다.

▣ “그가 그리하매”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작용을 했다.

6:11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모의를 나타낸다(참조, 막 3:6). “노기,” “까닭없는 격분”은 “마음”(누스)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와 그 앞에 붙여 사용하는 알파로 구성된다. 이 용어는 복음서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딤후 3:9에서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70 인역의 지혜문학에서는 자주 사용된 단어이다(참조, 욥 33:23; 시 22:3; 잠 14:8; 22:15; 전 11:10).

▣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막 3:6에서 우리는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이 공모를 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오랜 원수지간이었다(정치적으로와 종교적으로).

이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야웨를 지키는 자라고 생각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대하여는 의식과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살인으로 인해서는 아무런 갈등도 갖지 않음이 신기하다(참조, 마 26:4; 요 11:53).

**개역개정 6:12-16**

<sup>12</sup>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sup>13</sup>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sup>14</sup>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sup>15</sup>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sup>16</sup>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6:12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구약의 시편에서 산은 안전, 힘, 영원함을 나타내는 장소이다. 산들은 야웨의 임재하심(참조, 시 121:1) 혹은 성전(즉, 모리아 산, 참조, 시 87:1)과 관련이 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야웨를 만났다(즉, 시내 산, 참조, 출 19:16-25).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과 모세를 서로 연결시킨다.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설교(참조, 마 5-7장)는 산에서 행하신 말씀이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마가복음(베드로의 목격자적 증거) 3:13에서 왔을 것이다. 한편 누가는 “평지에서”행하신 설교로 이것을 제시한다.

이 장소가 어느 산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갈릴리에는 예수께서 부활후에 제자들과 만나신 산으로 자주 언급되는 산이 있다(참조, 마 26:32; 28:7,10). 이 장소가 어디였든지 이 산은 예수께서 따로 멀리 가신 곳이고 또 그곳에서 성부와 가까이 계셨던 장소였다(참조, 9:28).

▣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예수님의 기도생활(참조, 3:21; 6:12; 9:18,28; 11:1-4)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참조, 11:4-8; 18:1-8,9-14)을 더 강조한다.

예수께서는 후에 자신을 대표하게 될 특별한 12 제자를 택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온 밤을 보내셨다(우회적인 미완료 능동). 여기에 예정(성부)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수) 사이에 긴장이 나타난다. 성육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여전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다. 배신자 유다의 선택은 기도하시면서 정하신 일이었다!

**6:13 “그 제자들을 부르사”**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따랐다(참조, 행 1:21-22). 예수께서는 열둘을 택하시 자신의 특별한 대리인이요 지도자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제자훈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다(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계획*을 보라).

▣ “열둘”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와 관련을 가진다.

**특별주제: 열둘**

열둘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조직을 나타내었다

- 가. 성경 이외에서
  - 1. 황도의 십이궁도
  - 2. 일 년의 열두 달
- 나. 구약에서(BDB 1040 과 797)
  - 1. 야곱의 아들들(유대인의 지파)
  - 2. 그 반영
    - ㄱ. 제단의 열두 기둥, 출 24:4
    - ㄴ.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열두 보석(각각 지파를 나타냄), 출 28:21
    - ㄷ. 회막에 있는 성소에 둔 떡 열두 덩이, 레 24:5
    - ㄹ. 가나안에 보낸 열두 명의 스파이(한 지파에서 한 명씩), 민 13 장
    - ㅁ. 고라의 반역 때 있던 열두 지팡이(각각 지파를 대표함), 민 17:2
    - ㅂ. 여호수아의 열두 돌, 수 4:3,9,20
    - ㅅ. 솔로몬의 열두 행정 구역, 왕상 4:7
    - ㅇ. 엘리야가 야웨께 쌓은 열두 돌, 왕상 18:31
- 다. 신약에서
  - 1. 선택된 열두 사도
  - 2. 열두 바구니의 떡(각각 사도를 나타냄), 마 14:20
  - 3. 신약의 제자들이 앉을 열두 보좌(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가리킴), 마 19:28
  - 4. 예수를 구출할 천사의 열두 부대, 마 26:53
  - 5.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한 상징
    - ㄱ.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 4:4
    - ㄴ. 144,000(12 x 12), 7:4; 14:1,3
    - ㄷ. 여자의 면류관에 있는 열두 별, 12:1
    - ㄹ. 열두 문, 열두 천사는 열두 지파를 나타냄, 21:12
    - ㅁ.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 그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됨, 21:14
    - ㅂ. 12,000 스타디온(새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크기), 21:16
    - ㅅ. 벽이 144 규빗임, 21:7
    - ㅇ. 열두 진주 문, 21:21
    - 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과실을 맺는 나무(매달 한 종류 씩), 22:2

▣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 언급은 독특하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왔으며 권위를 주어 파견함을 뜻하는 랍비들의 용법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대사”와 같은 의미로서 고전 헬라어에서 사용되었다. 9:48의 특별주제: 보내다(*아포스텔로*)와 5:27에 있는 사도들의 이름 도표를 보라.

**6:14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이 외에도 열두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 목록이 3가지가 더 있다.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오고 가룟 유다가 가장 나중에 나온다. 4 명씩 세 그룹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같지만 각 그룹 안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는 종종 뒤바뀌어 나타난다(참조, 마 10:2-4; 막 3:16-19; 행 1:13).

## 특별주제: 베드로라는 인물

### I. 그의 가정

- 가. 베드로의 가정은 이방인의 갈릴리인 베세다에서 살았다.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혹은 디베랴 바다, 참조, 요 1:44)의 북쪽 해안에 위치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의 가족은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였음이 분명하다(참조, 막 1:21,29).
- 나.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참조, 마 16:17) 혹은 요한이었다(참조, 요 1:42; 21:15-17).
- 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참조, 막 1:16,29,30,36)으로서 제 1 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흔한 이름이었다. 이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에서 왔다(참조, 행 15:14; 벘후 1:1).  
예수께서는 그를 베드로(*페트로스*, 이 뜻은 “반석”으로서 그가 가진 궁극적인 힘과 안정성을 묘사함)라는 새이름을 주셨다, 마 16:18; 막 3:16; 눅 6:14; 요 1:42. 아랍어로는 *케프스*이다(참조, 요 1:42; 고전 1:12; 3:22; 9:5; 15:5; 갈 1:18; 2:9,11,14). 신약에서는 종종 이 두 이름이 함께 나온다(참조, 마 16:16; 눅 5:8; 요 1:40; 6:8,68; 13:6,9,24,36; 18:10,15,25; 20:2,6; 21:2-3,7,11,15).
- 라.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이다(참조, 막 1:16). 그는 침례(세례)요한의 제자였고(참조, 요 1:35,40) 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참조, 요 1:36-37).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참조, 요 1:41). 여러 달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서 전적으로 따르는 공식적인 제자가 되라고 그를 부르셨다(참조, 마 4:18-20; 막 1:16-18; 눅 5:1-11).
- 마. 그가 결혼했지만(참조, 막 1:30; 고전 9:5) 자녀들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다.

### II. 그의 직업

- 가. 베드로의 가족은 고기잡이 배를 여러 척 소유했으며 사람들도 고용하여 일했다.
- 나. 베드로의 가족은 야고보, 요한 및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의 동역자였을 것이다(참조, 눅 5:10).
- 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잠시 고기잡는 일로 되돌아 갔었다(참조, 요 21 장).

### III. 그의 개성

- 가. 베드로의 장점
  1. 그는 헌신적인 추종자였지만, 충동적이었다(참조, 막 9:5; 요 13:4-11).
  2. 그는 믿음있는 행동을 시도했지만, 종종 실패했다(예, 물 위를 걸음, 참조, 마 14:28-31).
  3. 그는 용감했고 기꺼이 죽으려 했다(참조, 마 26:51-52; 막 14:47; 눅 22:49-51; 요 18:10-11).
  4.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요 21 장에서 열두 명의 지도자로서 존경심을 잃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 지도자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셨다.
- 나. 베드로의 단점
  1. 초기에 그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이끌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 ㄱ. 이방인들과 먹은 일(갈 2:11-21)
    - ㄴ. 부정한 음식 규정(행 10:9-16)
  2.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과 같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예수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 ㄱ. 막 9:5-6
    - ㄴ. 요 13:6-11; 18:10-11
  3. 예수께서는 그를 개인적으로 심하게 책망하셨다(막 8:33; 마 16:23)
  4. 예수께서 중요한 시기에 계신 때에(겟세마네에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잤다(막 14:32-42; 막 26:36-46; 눅 22:40-60)
  5. 그는 반복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막 14:66-72; 마 26:69-75; 눅 22:56-62; 요 18:16-18,25-27)

### IV. 그가 사도의 그룹에서 가진 지도력

- 가. 사도들의 이름이 4 곳에서 나온다(참조, 마 10:2-4; 막 3:16-19; 눅 6:14-16; 행 1:13).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온다. 열두 명의 이름이 4 명씩 3 그룹으로 나온다. 나는 이러한 구성이 그들이 가족의 안부를 알기 위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집에 다녀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 베드로는 종종 사도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참조, 마 16:13-20; 막 8:27-30; 눅 9:18-21). 이 본문들은 그룹 내에서 베드로가 가진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참조, 마 16:18). 한편, 바로 이 본문에서 그가 사탄의 도구라고 예수께 책망을 받고 있다(참조, 마 16:23; 막 8:33).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격론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참조, 마 20:20-28, 특히 24 절; 막 9:33-37; 10:35-45).
- 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 역할은 예수의 의붓형제인 야고보가 감당했다(참조, 행 12:17; 15:13; 21:18; 고전 15:7; 갈 1:19; 2:9,12).

### V. 예수의 부활 후에 그가 한 사역

- 가. 베드로의 지도력은 사도행전의 앞쪽에 있는 장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 그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을 이끌었다(참조, 행 1:15-26).
  2. 그는 오순절에 첫 번째 설교를 행했다(참조, 행 2 장).

3. 그는 얇은뱅이를 고쳤고 두 번째로 기록된 설교를 행했다(참조, 행 2:1-10; 3:11-26).
  4. 그는 사도행전 4 장에서 산헤드린에게 담대히 말했다.
  5. 그는 사도행전 5 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교회의 징계를 이끌었다.
  6. 그는 사도행전 15:7-11 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했다.
  7.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행한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일에 대해 말한다.
- 나. 한편 베드로는 복음의 함축적 의미를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1. 그는 구약적인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참조, 갈 2:11-14).
  2. 그는 고넬료(참조, 행 10 장)와 다른 이방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만 했다.
- VI. 침묵의 기간
- 가. 사도행전 15 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아주 조금밖에 없다.
- 나. 초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1.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음을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주후 95 년에 쓴 편지에서 언급한다.
  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주후 200 년)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3. 오리겐(주후 252 년)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머리를 밑으로 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고 말한다.

▣ **“안드레”** 이 이름은 “남자다운”을 뜻하는 헬라어 용어이다. 요 1:29-42 에서 우리는 안드레가 침례(세례)요한의 제자였고 또 그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왔음을 본다.

▣ **“야고보”** 이 이름은 “야곱”(BDB 784)이라는 히브리 이름으로서 “대체자”를 뜻한다(참조, 창 25:26).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있다. 한 명은 요한의 형제로서(참조, 막 3:17) 핵심그룹의 일원이었다(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였다.

▣ **“요한”** 이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로서 제자의 핵심그룹에 속하였다. 그는 신약의 5 권을 기록했으며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

▣ **“빌립”** 이 헬라어 이름은 “말들(horses)을 좋아함”이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요 1:43-51 에 기록되어 있다.

▣ **“바돌로매”** 이 이름은 “틀레미의 아들”을 뜻한다. 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타나엘이었을 것이다(참조, 요 1:45-49; 21:20).

▣ **“마태”** 이 히브리 이름( *מתתיהו* )에서 음, 참조, 대상 9:31; 15:18,21; 16:5; 25:3,21; 느 8:4)은 “야웨의 선물”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레위였다(참조, 막 2:13-17).

▣ **“도마”** 이 히브리 이름은 “쌍둥이” 혹은 디두모를 뜻한다(참조, 요 11:16; 20:24; 21:2).

▣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이름은 “야곱”이라는 히브리 이름이다. 열두 사도의 명단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있다. 한 명은 요한의 형제(참조, 17 절)로서 핵심그룹의 일원이었다(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로 알려졌다(참조, 막 3:17).

▣ **“셀롯이라는 시몬”** 마가복음의 헬라어 본문에는 “가나안 사람”이 들어 있다(또한 마 10:4 도). 로마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의 소지가 있는 열심당(셀롯)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용어는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벌인 게릴라 운동을 뜻한다. 누가는 그에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행 1:13). 가나안인이라는 용어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1. 갈릴리 지방에서 가나라고 불리는 지역
2. 구약에서 상인을 뜻하는 단어로써 불리는 가나안 사람
3. 가나안의 원주민을 일컫는 일반적 용어

만일 누가가 사용한 명칭이 맞다면, 셀롯은 “열심당”을 뜻하는 아람어에서 온 말일 것이다(참조, 행 1:17).

예수께서는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열두 명의 제자를 택하셨다. 시몬은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그룹에 속한 국수주의적인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시몬과 레위(즉, 세리인 마태)는 함께 지낼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는 “렘베오”(참조, 마 10:3) 혹은 “유다”(참조, 요 14:22)로도 불렸다. 다대오와 렘베오는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 **“가룟 유다”** 두 명의 시몬과 두 명의 야고보와 두 명의 유다가 제자로 있었다. 가룟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두 가지 배경에서 왔을 것이다.

1. 유다의 가룟 성읍에서 온 사람(참조, 수 15:23, 만일 그가 유대 출신이라면 그는 남쪽 사람으로서 사도가 된 유일한 경우이다)
2. 그의 아버지의 이름(참조, 요 6:71 13:2,26)
3. “칼 잡이” 혹은 암살자로서 이는 그가 시몬처럼 열심당임을 뜻할 수 있다

27:3의 특별주제: 가룟을 보라.

▣ **“예수를 파는 자 뿔”** 유다라는 인물과 그의 동기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다. 요한복음에서 종종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한다(참조, 6:71; 12:4; 13:2,26,39; 18:2,3,5). “수퍼스타 예수”라는 현대극에서는 그가 신실하지만 실망한 추종자로 그린다. 즉 그가 예수로 하여금 로마를 뒤엎고 악한 자를 벌하며 예루살렘을 세계의 수도로 삼는 유대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성취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한편 요한은 그의 동기가 탐욕스러우며 악의가 있다고 말한다.

커다란 문제는 신학적인 내용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뒤에서 조종하셨는가? 만일 사탄이 유다를 마음대로 주장한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로 하여금 예수를 배반하게 하신 경우라면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들이 한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그는 인간을 뒤에서 조종하지 않으신다.

유다를 변호하려는 입장에서 쓰여진 최근 도서는—윌리엄 클라센이 저술한 유다: *예수의 배반자인가 아니면 친구인가?*로서 포트리스 출판사 간행(1996년)이다. 이 책이 요한복음의 증거를 간과하기에 나는 이 책의 저자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은 매우 흥미로우며 사고를 자극한다.

**개역개정 6:17-19**

<sup>17</sup>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sup>18</sup>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리라 <sup>19</sup>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6:17 이 절은 마 4:24-25 및 막 3:7-8 과 평행을 이룬다. 이 절은 마 5-7 장의 “산 위에서 하신 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에서 하신 설교”로 불리는 내용을 소개하는 절이다.

6:18 “**병 고침을 받으려고 . . .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리라**” 복음서에서는 육체의 질병과 귀신들림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 4:33의 특별주제: 귀신(더러운 영들)과 4:35에 있는 축사에 대한 설명을 보라. 비록 귀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 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 치료 방법은 육신의 질병에 대한 것과 달라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 온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우리는 다른 곳에 기록들을 통해서 병고침이 때로 다음의 사실에 기초함을 본다

1. 개인의 믿음
2. 병든 자의 친구들의 믿음
3. 때로는 그다지 믿음이 없어도 치료가 일어난다(참조, 요 5:1-9a)

육체의 병이 고침을 받은 일은 즉각적인 영적 구원을 항상 의미하지도 혹은 그것을 암시하지도 않는다(참조, 요 9 장).

6:19

NASB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오고 있어서”  
 NKJV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NRSV “이는 능력이 그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TEV “이는 능력이 그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어서”  
 NJB “왜냐하면 능력이 그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이것은 **미완료 수동 (디포) 직설법**이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내재했으며 필요를 따라 다른 이에게로 흘러갔다(참조, 5:17; 8:46; 막 5:30). 예수께서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그로부터 어떤 것이 나왔다.

**개역개정 6:20-26**

<sup>20</sup>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sup>21</sup>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sup>22</sup>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sup>23</sup>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sup>24</sup>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sup>25</sup>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sup>26</sup>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6: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큰 무리에게 하신 설교로 제시한다.

▣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는 일련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참조, 마 5:1-11)을 영적 삶에 관련시키는 반면, 누가는 보다 축소된 형태를 사회적 상황에 관련시킨다(즉,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미움을 받는 일, 참조, 20-22 절).

이 용어 “*마카리오스*”는 “행복한” 혹은 “영예로운”을 뜻한다(참조, 20-22 절). 영어의 “행복한”(happy)이라는 단어는 고어인 “우연”(happenstance)에서 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신자가 누리는 일은 물질적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 기쁨에 의존한다. 이 진술에 있어서 **동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표현은 아람어나 히브리어에 있는 **바와 같이 감탄문**이다(참조, 시 1:1).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과 삶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세는 물론 종말적인 소망을 나타낸다.

▣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는 복음서에 100 번 이상 나온다. 마태는 출 20:7 을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는 것에 예민했던 유대 독자들에게 쓰고 있기에 대개는 “하늘 나라”로 말한다. 한편 그는 마 6:33; 12:28; 19:24; 21:31,43 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가복음(참조, 10:14)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두 구는 동의어를 이룬다(프랭크 스택, *신약신학* 151-152 쪽).

M. R. 빈센트는 *신약의 단어 연구*에서 왕국이 현재와 미래를 각기 나타낸다고 그가 생각하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현재 - 마 11:12; 12:28; 16:19; 눅 11:20; 16:16; 17:2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라지 비유, 누룩 비유, 그물로 고기잡는 비유
2. 미래 - 단 7:27; 마 13:43; 19:38; 25:34; 26:29; 막 9:47; 고전 6:9; 벧후 1:11; 계 20 장 (161 쪽에서).

6: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누가는 언제 이 필요가 채워지며 상황이 언제 이렇게 바뀔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인가(“누가는 21 절에서 “지금”을 두 번 사용하고 25 절에서도 두 번 사용하고 있음) 아니면 종말에 일어날 일인가(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 미래적인 종말적 사건을 나타내며 같이, 참조, 마 5:1-11)? 이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며 물질적으로도 보상을 받는 일이다(이와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영적 미래에 초점을 둔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에서 대부분의 신자는 가난했다(바로 이점은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모으게 하기 원했던 이유 가운데 한 이유였다). 누가는 복음이 믿는 이의 육체, 재정, 문화적 환경을 즉시 바뀌게 함을 약속하지 않고, 오직 믿는 이의 자세와 소망을 즉각적으로 바꾸어 놓음을 확증하여 말한다.

6:22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를 따름에 있어 뒤따르는 영향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참조, 마 5:10-11). 이 축복에 조건이 함께 있음으로서 다른 항복과 구별이 된다—핍박받음(참조, 행 14:22; 롬 5:3-4; 8:17; 빌 1:29; 살전 3:3; 딤후 3:12; 약 1:2-4; 벧전 3:14; 4:12-19; 계 11:7; 13:7).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이 축복들은 현재적인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다(천국에서, 참조, 23 절).

▣ “인자” 6:6 의 설명을 보라.

6:23 “기뻐하고 뛰놀라” 이 둘은 다 부정과거 명령이다. 박해와 반대와 고문에 임하는 신자의 자세와 행동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강력히 드러낼 뿐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있을 심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종교적 이유에서 받는 핍박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참조, 요 16:2). 유대인들은 이러한 종류의 박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참조, 히 11:36-40).

한편 이 절은 예수의 제자들을 새 선지자들로서 나타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예고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대언자들이 거부를 받았는데, 이제 같은 일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6:24 “화 있을진저” 이 용어는 *우아이*이다. 이것은 70 인역에서 장례식 만가의 형태로서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의 한 가지 정형을 이룬다. 이 용어는 축복의 선언과 짝을 이룬다(정확히 반대의 의미를 갖는 평행법). 누가복음은 저주를 선언하는 본문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이다(참조, 24-26 절). 특별히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내용은 상당히 놀랍다. 왜냐하면 이 형태는 신명기 27-28 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저주와 축복의 본문).

▣ “부요한 자여” 부자들이 자기 만족의 환영에 빠져 있기에 그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는 “복이 있나니”와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참조, 사 55:8-9). 번영으로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저주일 수 있다!



NASB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있도다”  
 NKJV, NRSV “너희는 너희의 위안을 받았도다”  
 TEV “너희는 너희의 편한 생활을 하도다”  
 NJB “너희는 너희의 위안을 이제 받고 있도다”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지금의 삶”에 대한 언급(참조, 마 6:2,5,16)이 이 구(또한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의 화)에서 나타남을 주목하라.

6: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이것은 지상에서의 안락함으로 누리는 알팍한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화 있음은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대조를 이룬다(참조, 23 절).

6: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 절은 23 절과 대조를 이룬다. 이 선언과 신학적 균형을 이루는 말씀이 딤펀 3:7 에 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축적하지 않도록 부단히 애써야 하며, 복음전도와 사역의 진척에 있어서 비난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개역개정 6:27-36**

<sup>27</sup>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sup>28</sup>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sup>29</sup>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sup>30</sup>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sup>31</sup>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sup>32</sup>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sup>33</sup>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sup>35</sup>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sup>36</sup>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6:27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와 평행을 이룬다(8:8; 14:35; 막 4:9,23; 계 2:7,11,17,29; 3:6,13,22; 13:9).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진 자와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이러한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세상의 것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이 구를 사용함으로써 누가는 이 가르침(참조, 27-28 절)의 대상(제자들)이 24-26 절(“화 있을진저 너희”)의 대상과 다름을 나타낸다.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일련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이 단락 전체가 희생적이고, 자신을 주는 사랑의 자세를 다룬다(참조, 6:35; 마 5:44). 신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여야 하는가?

1.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27 절)
2.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28 절)
3.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28 절)
4. 저 뺨도 돌려대며(29 절)
5.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29 절)
6.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30 절)

이것은 상대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상황에서도 행해야 할 내용이다. 우리가 사람들로 부터 잘 대우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 우리의 ‘희생적이고 자신을 주는 사랑의 삶’은 우리가 상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즉, 예수께서 거부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에서는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된다.

사회생활과 관련이 있는 문제나 영역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설교를 누가가 이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가는 교회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참조, 눅 24:47; 마 28:18-20; 행 1:8).

6:28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일 신자가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앙갚음을 하려한다면 신자는 축복과 기쁨과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화를 냄과 미워함 등 육체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일은 신자에게서 화평과 만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 일은 또한 신자로 하여금 영적 문을 열어놓아 사탄으로 공격을 받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아픔을 참아야만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은 종종 전도를 위한 기회를 만들고 영적 저항을 제거시킨다(참조, 롬 12:14-21).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는 죄책감을 준다!

6:29 “겹옷... 속옷” 앞 단어는 겹옷으로서 잠잘 때 덮는 옷을 가리킨다. 이 옷은 구약에서 빌린 돈을 그 날 갚도록 하게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자에게서 저당잡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참조, 출 22:25-26; 신 24:10-17).

뒷 단어는 속옷으로서 살갓에 직접 닿는 옷을 말한다. 그 길이는 다양했다. 이 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런닝이나 팬티에 해당한다.

6:31 이 절은 구약의 레 19:18 에 있는 권고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는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원리이다.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마 7:12 에서 마태는 이러한 자세와 행동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이룬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담고 있다.

6:32-34 이것은 일련의 조건절(처음 것은 제 1 유형이고 다음의 두 문장은 제 3 유형임)로서 우리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비교한다. 오늘날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예가 더 적절할 것이다:

1.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용서하고 사랑함
2. 세금을 낮추는 일에 도움을 주려고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일
3. 다른 교단에 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4. 바람을 타고 우리 집 정원에 넘어 온 이웃집의 쓰레기를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치우는 일

6:35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신자에게 계속적으로 행할 것을 명한다(참조, 32-34 절).

■	
NASB	“아무 것도 되돌아 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NKJV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바라고”
NRSV(각주)	“누구에게서라도 단념하고”
TEV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NJB	“돌려 받을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없이”

에드거 J. 굿스피드는 신약: 미국역에서 “완전히 단념하고”로 표현하였다. 이같은 의미가 알프레드 마살이 저술한 RSV 행간 헬라이어-영어 신약성경 251 쪽에 나온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영어번역본은 34 절에 있는 바 “만일 네가 돌려받기를 기대하는(소망하다- 엘피조) 사람에게 빌려준다면”이라는 평행법적 문장이 동의어를 필요로한다고 주장한다(참조, 로우와 니다의 헬라이어-영어 사전 제 1 권 357 쪽).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고대의 용법에는 없는 사항이다.

한편 70 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단념하다” 혹은 “단념하게 되다”를 뜻한다(참조, 사 29:10; 마카비 2 서 9:18). 이러한 의미는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나타난다(참조, 물톤과 밀리간, 헬라이어 성경의 어휘 56 쪽). 이 단어는 심각한 질병에 대해 사용한 의학 용어로서 “단념”할 것을 유도한다.

또 다른 면은 이 구가 언약의 동료에게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을 갖는 본문인 레 25:35-36 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가족적인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내가 먼저”를 부르짖는 (1) 타락한 인간 혹은 (2) 악한 자의 성품과 구별된다(참조, 36 절; 마 5:45).

■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얼마나 독특한 선언인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분이심을 인해 감사드리자. 죄인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다(참조, 36 절; 말 3:6).

6:36 이 절은 명령(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32-35 절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또 행하는 바를 세상에 드러내며 산다. 삶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자비한” 혹은 “동정하는”이라는 형용사가 신약에서는 단 2 회만 사용되었다(참조, 약 5:11,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대해 사용됨, 참조, 롬 12:11; 고후 1:3). 한편 이 단어의 명사형은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신자가 행할 일을 나타낸다(참조, 빌 2:1; 골 3:12).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6:36 에 기록된)은 레 22:28 의 슈도-조나탄 탈굼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와 평행을 이루며 마 5:48 에 있는 내용은 레 22:27 의 탈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M 블랙,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아람어적 접근[제 3 판] 181 쪽, 이 내용을 F. F. 브루스가 책과 양피지 128 쪽에서 언급한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이 설교를 아람어로 하셨을 것이다. 초대 교회의 전승은 “Q”(마태와 누가가 사용한 예수의 어록)를 마태가 아람어로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개역개정 6:37-38  
<sup>37</sup>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sup>38</sup>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37-39 이 단락은 마 7 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다른 이, 즉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총괄하여 남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자세를 다룬다.

**6:37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두 개의 **현재 능동 명령**이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비판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 절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결코 판단해서는 안됨에 대한 잠언적인 경구로서 종종 인용된다. 하지만 마 7:5,6,15; 고전 5:1-12; 요일 4:1-6 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서로 평가할 것을 예수께서 뜻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우리의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참조, 갈 6:1; 롬 2:1-11; 14:1-23; 약 4:11-12).

“비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 단어의 “비평”과 어원적으로 같은 배경을 갖는다. 이 단어는 다른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정도를 넘어 엄격히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죄를 다른 종류의 죄보다 더 강조함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관대하지만 다른 이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으려 함을 뜻한다(참조, 삼하 12:1-9).

**특별주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판단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두 가지로 다루어야 한다.

1. 신자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도록 권고받는다(참조, 마 7:1-5; 눅 6:37,42; 롬 2:1-11; 약 4:11-12).
2. 신자들은 지도자들을 평가하도록 권고받는다(참조, 마 7:6,15-16; 고전 14:29; 살전 5:21; 딤후전 3:1-13; 요일 4:1-6).

적절한 평가를 위한 기준이 유용할 것이다

1. 평가는 긍정적 인정을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참조, 요일 4:1 - “시험하다”는 인정을 하기 위한 관점을 갖는다)
2. 평가는 겸손함과 온유로써 행해져야 한다(참조, 갈 6:1)
3. 평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참조, 롬 14:1-23; 고전 8:1-13; 10:23-33)
4. 평가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지도자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다(참조, 딤후전 3 장).

▣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두 구가 다 강한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다.

▣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은 또 하나의 **현재 능동 명령**이다. 처음 두 문장은 부정적 의미를 이것과 다음 것은 긍정적 내용을 나타낸다.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않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서와 더불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것은 욥기 42 장에서 욥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행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하다.

이 절은 신약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참조, 마 5:7; 6:14-15; 18:35; 막 4:24-25; 11:25; 약 2:13; 5:9).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행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대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은 거저로 아주 용서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적합한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영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진다!

**6:38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절은 장사하는 시장에서 취한 은유적 표현이다. 공정하고 친절을 베푸는 삶은 공정과 친절을 가져 온다.

▣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 당시 장사꾼들은 종종 건물(곡식, 밀가루, 콩)을 자기 옷에 싼 후 허리띠로 몸에 둘러 매어 주머니처럼 사용했다.

▣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여러 가지 격언이 마태복음에서 평행으로 나타나는 점은 놀랍다(참조, 5:7; 6:14-15; 18:35).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친숙한 잠언이었다.

**수동태 동사**가 37-38 절에 걸쳐서 사용되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낸다.

1. 판단하기
2. 정죄하기
3. 용서하기
4. 주기
5. 헤아리기

우리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한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대로 거둔다(참조, 갈 6:7).

개역개정 6:39-45

<sup>39</sup>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sup>40</sup>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sup>41</sup>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sup>42</sup>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sup>43</sup>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sup>44</sup>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쟈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sup>45</sup>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6:39 “구덩이” 이 헬라어는 70 인역에서 다음을 나타낸다:

- 1. 무덤, 삼하 18:17
- 2. 짐승을 잡는 덫, 사 24:17-18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3 번만 사용되었다.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마태복음의 본문(참조, 12:11; 15:14)은 배수로나 우물을 가리킨다. 거짓교사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제앙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이 내용이 나타낸다.

6:39-40 이 가르침이 이 문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다. 39 절은 마 15:14 과 40 절은 마 10:24 과 각각 평행을 이룬다. 예수께서는 종종 똑같은 예화를 각기 다른 문맥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다. 문법적으로 볼 때 39 절의 처음 질문은 “아니오”라는 답을 예상하며, 두 번째 질문은 “예”라는 답을 예상한다.

6:40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시는대로 사셨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도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같은 종류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신자인 우리들이 (1) 우리의 문화를 모방하거나 (2) 그 문화에 완전히 순응하며 사는 일은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구현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신약의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이기적인 세상은 자신을 헌신하는 일과 자신을 주며 사랑함을 불편해 한다!

▣

NASB  
NKJV  
NRSV  
TEV  
NJB

“충분히 훈련받은”  
“완벽하게 훈련된 자는”  
“충분하게 자격을 갖춘자는”  
“그들의 훈련을 마친”  
“충분히 훈련받은 제자는”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1. 시장에서 튀김용으로 사용할 만큼 자란 병아리
- 2. 부러졌던 뼈가 붙어 팔과 다리의 구실을 다시 하게 된 일
- 3. 찢어졌던 그물이 수선되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태로 된 일
- 4. 배를 다 건조한 후 돛과 항해 장비를 갖추어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상태

이 용어는 감당할 사역을 위해 충분히 준비됨(참조, 열 4:12)이나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회복됨(참조, 갈 6:1)을 가리킨다.

6:41-42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비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유머와 동양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셨다. 문자적 의미에 집착하는 서양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여 예수의 말씀을 매우 경직되게 해석한다.

6:41 “티” “티”는 고전 헬라어 저술가들이 새의 등지를 이루는 재료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따라서 우리는 조그만 풀조각이나 혹은 이같이 보잘것 없고 작은 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건축용 기둥이나 서까래 등 커다란 목재를 가리킨다. 영적진리를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종종 이러한 과장법을 사용하셨다(참조, 마 5:29-30; 19:34; 23:24).

6:42 “형제”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 1. 다른 유대인들(참조, 14:12; 행 2:29[참조, 22 절],37; 3:17; 7:2)
- 2. 신자들(참조, 17:3; 22:32; 행 1:15; 6:3)

▣ “외식하는 자” 이 합성어는 연극의 세계에서 온 단어로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함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판단하다”(κρίνω)와 “밑에서”(ὑπο)라는 두 헬라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사람이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삶은 저렇게 함을 가리킨다(눅 18:9). 이러한 종류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가장 잘 볼 수 있다(참조, 삼하 12:1-9). 예수께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마 5:20; 6:2,5,16; 15:1,7; 23:13).

이 절은 신자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적합하게 돌아보되 그를 알잡아보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세로 행하지 말아야함을 가르친다(참조, 롬 14:1).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지도자와 구성원을 점검하며 권고해야만 한다.

**특별주제: 의식하는 자**

이 함성어는 문자적으로 “~을 가지고 판단하다”를 가리킨다. 그 의미는 (1)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말하다 또는 (2) “지나치게 해석하다”를 뜻할 것이다. 문맥에서 이 단어는 종교적으로 연극함을 나타낸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종교적 예식이나 의식을 행했다(나는 이 점이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1.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구제, 마 6:2
2.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함, 마 6:5
3. 그들은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에 감명받도록 하기 위해 옷차림을 단정치 않게 했다, 마 6:16
4. 그들은 부식재료의 십일조는 드렸으나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놓쳤다, 마 23:23
5. 그들은 그릇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 쪽을 깨끗이 했다, 마 23:25(참조, 막 7:1-8)
6.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다, 마 23:29-30
7. 그들은 다른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마 23:13-15
8. 그들은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교묘한 질문으로써 예수를 함정에 빠트리려 했다, 마 22:15-22
9. 그들은 지옥에서 따로 구별된 자리를 차지한다, 마 24:51
10. 그들은 완전히 부정한 무덤을 회반죽칠을 하였다, 마 23:27(참조, 성경의 상징 사전 415 쪽)

**6:43-45**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마 7:16,20 에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 우리의 행동은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를 드러낸다(하나님 혹은 사탄). 우리의 행동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

**6:45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것은 신약의 강력한 진리이다(참조, 마 12:34-35; 15:18).

**특별주제: 인간의 말**

I. 잠언에 나타난 서론적 사상

- 가. 언어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즉, 창조는 하신 말씀이 실재(실존)로 된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중요한 특성이다.
- 나. 인간의 말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드러낸다(잠 18:2; 4:23[20-27]). 언어는 사람을 알아 보는 진정한 척도이다(잠 23:7).
- 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지지받는 것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인 사람들에 의해 이 필요를 충족받는다. 말은 긍정적으로(잠 17:10) 또 부정적으로(잠 12:18)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 라. 인간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잠 18:20-21)—축복하고 고치는 힘(잠 10:11,21)과 저주하고 파괴하는 힘(잠 11:9).
- 마.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은 거둔다(잠 12:14).

II. 잠언에 나타난 원리들

- 가. 인간의 말이 갖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
  1. 악한 자들의 말(1:11-19; 10:6; 11:9,11; 12:2-6)
  2. 음녀의 말(5:2-5; 6:24-35; 7:5 이하; 9:13-18; 22:14)
  3. 거짓말장이의 말(6:12-15,19; 10:18; 12:17-19,22; 14:5,25; 17:4; 19:5,9,28; 21:28; 24:28; 25:18; 26:23-28)
  4. 어리석은 자의 말(10:10,14; 14:3; 15:14; 18:6-8)
  5. 거짓 증인의 말(6:19; 12:17; 19:5,9,28; 21:28; 24:28; 25:18)
  6. 험담하는 자의 말(6:14,19; 11:13; 16:27-28; 20:19; 25:23; 26:20)
  7. 급히 하는 말(6:1-5; 12:18; 20:25; 29:20)
  8. 아침하는 말(29:5)
  9. 너무 많은 말(10:14,19,23; 11:13; 13:3,16; 14:23; 15:2; 17:27-28; 18:2; 21:23; 29:20)
  10. 비뚤어진 말(17:20; 19:1)

- 나. 인간의 말이 갖는 고치며 교화하는 긍정적 힘
  - 1. 의인의 말(10:11,20-21,31-32; 12:14; 13:2; 15:23; 16:13; 18:20)
  - 2. 분별하는 말(10:13; 11:12)
  - 3. 지식의 말(15:1,4,7,8; 20:15)
  - 4. 고치는 말(15:4)
  - 5. 유순한 대답의 말(15:1,4,18,23; 16:1; 25:15)
  - 6. 기쁘게 하는 대답(12:25; 15:26,30; 16:24)
  - 7. 진리의 말(22:17-21)

III. 구약에서의 형태가 신약에서 계속됨

- 가. 인간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마 12:33-37; 15:1-20; 막 7:2-23).
- 나.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지지받는 것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인 사람들에게 의해 이 필요를 충족받는다. 말은 긍정적으로(딤후 3:15-17) 또 부정적으로(약 3:2-12)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 다. 인간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잠 18:20-21)—축복하는 힘(엡 4:29)과 저주하는 힘(약 3:9).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마 12:36-37; 약 3:2-12).
- 라. 우리는 우리가 한 말(마 12:33-37; 눅 6:39-45)과 우리가 한 행위(마 25:31-46)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가 거둔다(갈 6:7).

개역개정 6:46-49

<sup>46</sup>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sup>47</sup>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sup>48</sup>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sup>49</sup>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6:46-47 입으로만 믿는 일은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니다(참조, 사 29:13; 마 7:21,22). 각 사람이 헌신함으로써 행하는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림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 “주여 주여” 랍비들은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이 애정을 나타낸다고 말했다(참조, 창 22:11).

헬라어 단어인 *κυριος*는 서기 1 세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다. 이것은 단순히 (1) “~님” (2) “달인” (3) “주인” (4) “남편”을 뜻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 문맥에서는 보통 *아론*(주인, 달인, 남편, 주님)이라는 히브리어로 대신 번역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YHWH(야웨, 참조, 출 3:14)를 가리킨다. 1:68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문맥에서 볼 때 이들은 예수께 대한 신학적 진술을 하지만 주님과 개인의 개인적이고 인격적 관계는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다(참조, 마 7:21-25). 예수의 초기 사역에서 이 용어에 포함된 무게있는 신학적 진리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베드로 또한 초기에 이 신학적 호칭을 예수께 사용했다(참조, 눅 5:8). 이 절에서 보듯이 예수께서는 사람이 말로써 하는 고백과 순종을 연결시키신다.

특별주제: 배교(*아피스테미*)

헬라어 용어인 *아피스테미*는 어원적으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영어 단어인 “배교”는 이 용어로부터 파생되었고 그 단어의 사용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늘 그렇듯이 문맥이 열쇠이지, 정해놓은 정의가 열쇠는 아니다.

이것은 “~로부터” 또는 “~을 떠나서”의 의미인 전치사 *아포와* “않다,” “서있다,” 또는 “고치다”의 의미인 *히스테미*의 합성어이다. 다음의 사용법을 주목하라(비신학적 용법):

1. 물리적으로 옮기다
  - ㄱ. 성전으로부터, 눅 2:37
  - ㄴ. 집으로부터, 막 13:34
  - ㄷ. 사람으로부터, 막 12:12; 14:50; 행 5:38
  - ㄹ. 모든 것으로부터, 막 19:27,29
2. 정치적으로 옮기다, 행 5:37
3. 이성적으로 옮기다, 행 5:38; 15:38; 19:9; 22:29

4. 법적으로 옳기다(이혼), 신 24:1,3(70 인역)과 신약, 마 5:31; 19:7; 막 10:4; 고전 7:11
5. 빛을 옳기다, 마 18:24
6. 떠남으로 무관심을 보이다, 마 4:20; 22:27; 요 4:28; 16:32
7. 떠나지 않음으로 관심을 보이다, 요 8:29; 14:18
8. 허락하거나 승인하다, 마 13:30; 19:14; 막 14:6; 눅 13:8

신학적 의미에서 동사는 또한 여러 가지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

1. 죄의 잘못을 무효로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출 32:32(70 인역); 민 14:19; 욥 42:10 과 신약, 마 6:12, 14-15; 막 11:25-26
2. 죄에서 떠나다, 딤후 2:19
3. 떠남으로 버리다
  - ㄱ. 율법, 마 23:23; 행 21:21
  - ㄴ. 믿음, 겔 20:8(70 인역); 눅 8:13 살후 2:3; 딤펢전 4:1; 히 2:13

오늘날 믿는 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한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믿음과 신실함을 나누는 현대의 경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이 있다.

#### I. 구약

- 가. 열 두(열) 정탐군들의 보고를 들었던 자들, 민 14 장(참조, 히 3:16-19)
- 나. 고라, 민 16 장
- 다. 엘리의 아들들, 삼상 2, 4 장
- 라. 사울, 삼상 11-31 장
- 마. 거짓 선지자들(예들)
  1. 신 13:1-5; 18:19-22(거짓 선지자임을 아는 방법)
  2. 렘 28 장
  3. 겔 13:1-7
- 바. 거짓 여 선지자들
  1. 겔 13:17
  2. 느 6:14
- 사.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예들)
  1. 렘 5:30-31; 8:1-2; 23:1-4
  2. 겔 22:23-31
  3. 미 3:5-12

#### II. 신약

- 가. 이 헬라이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포스타시즈*이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재림 전에 악과 거짓된 가르침이 횡횡할 것을 말한다(참조, 24:24; 막 13:22; 행 20:29,30; 살후 2:9-12; 딤펢후 4:4). 이 헬라이어 단어는 눅 8:13 에 있는 밭의 비유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참조, 행 20:29-30; 요일 2:19); 진실되지만 미성숙한 신자들을 그들이 유혹하고 사로잡을 수 있다(참조, 히 3:12).

신학적 질문은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이었을까라는 점이다. 지역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참조, 요일 2:18-19). 종종 우리의 신학적, 교파적(자기의 편견을 입증할 목적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어떤 절을 인용하는 방법 외에는) 전통은 명확한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준다.

- 나. 외관상의 믿음
  1. 유다, 요 17:12
  2. 마술사 시몬, 행 8 장
  3. 마 7:21-23 에서 말하는 사람들
  4. 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5. 요 8:31-59 의 유대인들
  6. 알렉산더와 후메나오, 딤펢전, 1:19-20
  7. 딤펢전 6:21 에 나오는 사람들
  8. 후메나오와 빌레도, 딤펢후 2:16-18
  9. 데마, 딤펢후 4:10

- 10. 거짓 선생들, 벵후 2:19-20; 유 12-19
- 11. 적그리스도들, 요일 2:18-19
- 다. 열매없는 믿음
  - 1. 고전 3:10-15
  - 2. 벵후 1:8-11

우리의 조직신학(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등)이 정해진 답을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문들에 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주제를 꺼냈다고 나에게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관심은 바른 성경해석학적 과정에 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야지, 미리 설정된 신학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자주 고통과 놀라움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신학의 많은 부분이 성경적이 아니고 교파적, 문화적, 관계적(부모, 친구, 목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예, 롬 9:6).

▣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7:24-27)과 누가복음(6:47-49)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다. 이 본문은 *שׁמְרָא*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신 6:1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 단어는 “행하기 위하여 들어라”를 의미한다. 기독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지식
- 2. 개인의 응답
- 3. 섬기는 삶

두 건축자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경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르게 응답한 종교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여겨진다.

6:48-49 이 끝부분은 마태복음에 있는 바 산 위에서의 설교의 결론 부분과 매우 비슷하다(참조, 마 7:26-27).

6:48 “**잘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음”을 뜻한다. 이 구는 고대 헬라어 사본인 P<sup>75</sup>,  $\alpha$ , B, L, W 사본에 나온다(UBS<sup>4</sup>는 이것에 A 등급을 주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의 평행본문에서 가져온 다른 구(참조, 7:25)가 매우 일찍이 누가의 표현으로 대신 사용되었다(참조, A, C, D 및 벌게이트역). 이렇게 여러 부분을 서기관들이 추가시킨 일은 이 본문을 필사함에 있어서 매우 일찍이 일어났다. 이 본문이 이에 대한 좋은 실례이다. P<sup>75</sup> 사본은 제 3 세기에 속하며 A 사본(알렉산드리아)은 제 5 세기에 속한다.

나는 신약성경의 고대 헬라어 사본(5,000 사본이 넘음) 가운데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사본은 단 하나도 없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이점은 주요 교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신약성경은 고대세계로부터 전해진 본문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본문이다. 이책이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신실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헬라어 사본 가운데 원래의 본문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단지 어떤 본문이 원래에 속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을 뿐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 1. 안식일에 대한 구전 전통의 주제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셨는가?
- 2. 왜 제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목록이 다양한가?
- 3.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가 왜 평지에서 하신 설교와 다른가?
- 4.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평지에서 하신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 누가복음 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7:1-10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7:1-10	백부장의 종 7:1-10	예수께서 로마 장교의 종을 고치시다 7:1-5 7:6-8 7:9 7:10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7:1-10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7:11-17	예수께서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7:11-17	나인에 있는 과부의 아들 7:11-17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7:11-15 7:16 7:17	나인 과부의 아들이 살리심을 받다 7:11-17
침례(세례)요한에게서 온 사자 7:18-30	침례(세례)요한이 사자를 예수께 보내다 7:18-35	예수님과 요한 7:18-23 7:24-30	침례(세례)요한에게서 온 사자 7:18-19 7:20 7:21-23 7:24-28 7:29-30	침례자의 질문-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심 7:18-23 7:24-27 7:28-30 예수께서 함께 있는 자들을 꾸짖으시다
용서받은 여자 죄인 7:36-50	용서받은 여자 죄인 7:36-50	죄인인 여자 7:36-50	예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 7:36-39 7:40 7:41-42 7:43a 7:43b-47	죄인인 여자 7:36-38 7:39-43 7:44-50
			7:48 7:49 7:5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7:1-10

<sup>1</sup>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sup>2</sup>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sup>3</sup>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sup>4</sup>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sup>5</sup>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sup>6</sup>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벧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sup>7</sup>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sup>8</sup>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sup>9</sup>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sup>10</sup>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7:1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내용은 6:20-49 에 기록된 설교를 가리킨다.

▣ “가버나움” 이곳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도시였다. 4:23 의 설명을 보라.

7:2 “백부장” 백부장은 로마 사람(혹은 징집된 이방인)이었고 군대에서의 직책을 감당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행 10 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비슷한 인물이었다. 신약에서는 백부장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언급한다. 임판되지 않은 이 군인들은 로마 군대의 핵을 이루었다.

▣ “중” 이와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의 본문(마 8:5-13)에서는 “소년”으로 되어 있다.

▣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 용어는 70 인역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사용되었다

1. 하나님의 이름, 참조, 신 28:58
2. 메시아, 참조, 사 28:16; 신약의 벰전 2:4,6
3. 존귀한 자, 참조, 미 22:15; 신약의 빌 2:29

신약의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삼 26:21; 사 13:12 로서 어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나타낸다.

7:3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 본문과 평행이 되는 기록이 마 8:5-13 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다. 왜 유대 장로들(지역에 있는 회당 지도자들)이 중재자로 기꺼이 나섰는가를 5 절에서 알 수 있다.

▣ “구해 주시기를” 소조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에서 영적 구원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자주 사용되었다(예, 약 1:21; 2:14; 4:12). 그러나 여기서는 육체의 회복을 뜻하는 구약적 의미를 가진다(예, 약 5:20; 마 9:22; 막 6:56).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온전하게 함”(육체적/영적)을 뜻한다.

7:6 “주여” 이 단어는 퀴리오스의 호격으로서 다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인 “~님”
2. 더 높음을 나타내는 호칭인 “주인님”
3.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참조, 13 절)

이 문맥에서는(요 4 장에서와 같이) 1 항의 의미를 가진다. 이 호칭이 19 절에서는 모호함을 가짐을 주목하라.

▣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이다(처빅과 그로스펠들, *헬라이어 신약의 문법적 분해* 199 쪽과 A. T. 로벗슨의 *워드피체스* 99 쪽). 한편 바바라, 팀 프리백, *분석적 헬라이어 신약* 199 쪽과 하롤드 K. 물튼의 *분석적 헬라이어 사전 개정판* 370 쪽은 이 단어를 **현재 수동 명령**으로 말한다.

▣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로마 장교는 이방인의 집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다. 5 절의 내용(장로들이 전한 말)과 이 사람이 자신의 무자격함을 느끼는 일(참조, 7 절) 사이에 명백한 대조가 나타난다.

7:7 “말씀만 하사” 예수께서 직접 가시기를 요청드리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권위를 주어 사람을 보내는 일에 익숙해 있었다(참조, 8 절). 이 자세는 이방인인 그가 예수의 능력에 대해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 예수께서 직접 그곳에 계심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말씀을 신뢰함이 앞서고 있었음을 나타낸다(여기서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지만 이방인 독자들에게는 영적인 면도 동시에 말하는 것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누가는 이 사건을 선택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 이 절과 관련하여 고대 헬라이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누가복음에는 **부정과거 수동 명령**인 *이아세토*로 되어 있다(참조, P<sup>75</sup>, B, L 및 여러 콤팩트; UBS<sup>4</sup>는 이것에 B 등급을 줌). 한편 다른 고대 본문에서는 마 8:8 에 나오는 *이아세스타이(미래 수동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참조, K, A, C, D, W 및 벌게이트, 아르메니아역들). 이 사실은 본문의 의미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 한편 이것은 얼마나 쉽게 서기관에 의한 교정이나 변경이 일어났는가를 나타낸다(주후 200-400 년).

7:9 “그를 놀랍게 여겨” 1:63 의 설명을 보라.

▣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문맥에서는 예수께서 이방인 군대 장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과부의 자녀를 고치시며(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참조, 4:25-26), 죄인인 여자를 기꺼이 도우시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기까지 하심을 드러낸다(참조, 50 절). 예수께서 가져 오신 새 시대에 있어서 개인의 출생 국가 혹은 그가 특권층에 속하는 여부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역개정 7:11-17**

<sup>11</sup>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sup>12</sup>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sup>13</sup>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sup>14</sup>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sup>15</sup>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sup>16</sup>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sup>17</sup>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7:11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이 사건은 어떤 특별한 것이라기 보다 예수께서 다니시며 행하신 전형적인 사역을 나타낸다. 나인은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약 1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며 다볼 산 가까이 있다. 이 일은 엘리야가 4:25-26 에서 행한 일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왕상 17:17-24).

▣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큰 무리의 병자, 호기심 가진 자,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를 따라 다녔다. 누가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여행과 관련지어 종종 제시한다. 이 여행과 관련된 기록에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로 알려진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들어 있다. 누가복음에서 볼 때 예수께서는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시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심에는 여러 목적이 있다:

1. 어려운 사람을 도우심(13 절에 나오는 여인)
2. 다음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심
  - ㄱ. 제자들(성숙함을 위해)
  - ㄴ. 무리들(구원얻을 믿음을 위해)
  - ㄷ. 마을 사람들(참조, 12 절)
  - ㄹ. 종교지도자들, 그들은 항상 따라 다녔음
3.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심

7:12 “한 어머니의 독자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아셨을까? 아마도

1. 무리 가운데서 한 명이 이 사실을 예수께 말함
2. 예수의 초자연적 지식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예
3. 복음서의 저자가 기술한 내용임

죽은 자가 독자라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 도울 이가 전혀 없었음을 뜻한다!

▣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유대인의 장례식은 동네 사람 전체가 참여하였고, 소란한 분위기 및 감성적인 면을 특별히 가졌다.

7:13 “주께서”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께 대하여 이 호칭을 사용한 첫 본문이다. 1:68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온 말이다. 고대인들은 내장 혹은 주요 장기(심장, 간, 폐)가 감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참조, 70 인역의 잠 12:10; 26:22; 램 28:13,51; 마카비 2서 9:5-6; 마카비 4서 10:8; 바룩 2:17). 바울은 이 은유적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참조, 고후 6:12; 7:15; 빌 1:8; 2:1; 골 3:12; 몬 7,12,20 절). 누가도 바울을 따라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참조, 눅 1:78; 7:13; 10:33; 15:20; 행 1:18).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감성을 가지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 사실이 나에게서는 의미있게 다가온다(참조, 막 1:41; 6:34; 8:2).

▣ “~ 하시고” 그녀는 장례행렬을 이끌고 있었을 것이다(알프레드 에텔샤임, *유대인의 사회생활*).

▣ “울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7:14 “관” 이 단어는 뚜껑이 없는 관을 나타낸다(참조, NRSV). 예수께서는 의식상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을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유대 사회에서는 40 세 된 사람도 젊은이로 여겼기에 이 청년의 나이는 알 수 없다. 이 동사는 부정과거 수동 명령이다. 예수께서는 사망과 하데스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다(참조, 계 1:18). 그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참조, 22 절)!

7: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앉다”라는 동사는 드물게 사용된 용어로서 헬라어 문학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나온다. 신약은 죽었다가 살아나 한 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하여 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

7: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예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 지역에서 행했던 일과 매우 비슷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가장 높은 칭호를 예수께 사용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유대인들은 야웨께서 찾아 오심을 여러 번 경험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하심 사이에 있어서 커다란 긴장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동시에 아버지이시다!

7:17 모든 공관복음에 이 요약적 진술이 나온다(참조, 막 1:28; 마 4:24; 9:31; 14:1).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진술이 가장 많이 나온다(참조, 4:14,37; 5:15; 7:17). 예수께서는 비밀리에 기적(병고침, 귀신을 내어쫓음, 죽은 자를 살리심)을 행하지 않으셨고 사람들 앞에서 이를 행하셨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급격히 퍼져 나갔다.

#### 개역개정 7:18-23

<sup>18</sup>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sup>19</sup>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sup>20</sup>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쭙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sup>21</sup>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sup>22</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슴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sup>23</sup>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내용은 마 11:2-19 에 나온다.

7:19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 대해 요한의 혼동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다.

1. 그가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를 믿도록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존 칼빈, 참조, 요 1:29-42)
2. 야외에서 살던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신경질적으로 되었다
3.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4. 예수께서는 기대하는 바 종말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계셨다(참조, 마 3:12; 눅 3:13)

**7:21** 이 처음 절은 무리에 대한 예수의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이다. 만일 그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인식하기만 했다면 그의 행하심을 통해 그가 누구이신지를 명백히 알 수 있었다.

▣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병고침으로서 자주 기록되었다(참조, 사 35:5-6; 61:1). 이 일은 유대교에 의해 영적으로 소경됨을 가리키는 확실한 증거였다(참조, 요 9 장).

**7:22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가서”는 부정과거 수동(디포) 분사가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고 “알리되”는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 본문은 반드시 문맥과 관련하여 문법적인 사항을 이해해야 함을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이 내용은 명령은 아니지만 요한의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바로 이 일—“요한에게 알리라”—을 위해서 왔다. 단어들은 문맥에서만 의미를 가지는데 문법적 구문도 그러하다.

▣ 22 절의 뒷 부분은 여러 구약의 인용문을 결합시킨 내용으로써 21 절에 기록된 예수의 행하심과 관련을 가진다. 처음 두 부분의 인용은 사 61:1(혹은 29:18-19; 32:3-4; 35:5-6; 42:7,16)에서 왔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새 시대에 대해 말하는 단락에 속한다(56-66 장).

▣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유대인들은 나병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함으로 여겼다.

▣ **“죽은 자가 살아나며”** 다시 살아난 경우가 신약에 단 3 번 나오지만,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다루심을 나타내는 세 용어가 있다:

1. 옮기심. 예복(참조, 창 5 장), 또한 엘리야(참조, 왕하). 이들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2. 소생. 죽었던 자가 육체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지만, 다시 죽는다.
3. 부활. 예수께서는 새 시대에 속하는 육체를 처음으로 입으셨다. 이 일은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된 새 ‘몸’에 대한 약속이다(참조, 고전 15 장).

▣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예수의 사역이 갖는 성격을 나타내는 요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아주실 것을 암시한다.

**7:2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 가진 기존 생각에 대해 경고를 주시고 계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다. 유대교는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해 기존에 가진 개념(상)을 인하여 자신의 메시아를 놓치고 말았다.

**개역개정 7:24-30**

<sup>24</sup>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sup>25</sup>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sup>26</sup>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sup>27</sup>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sup>28</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sup>29</sup>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sup>30</sup>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7:24-27** 이 단락은 “아니오”라는 답을 예상하는 질문의 연속이다. 이 내용은 요한의 성품적 특징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7:27 “기록된 바”** 이 표현(참조, 말 3:1; 4:5; 사 40:3-4)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아셨음을 나타낸다.

**7: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선구자에 대하여 메시아께서 하시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참조, 마 11:11)! 28 절에 있는 예수의 결론적 말씀은 요한이 신약의 첫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음을 뜻하는 말씀이다.

신약은 예수의 설교와 메시지가 지닌 독특한 능력을 주장한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지자이었다. 한편 신약은 요한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예수의 존재와 사역’에 예배와 높임이 집중되게 한다. 초기의 몇 세기에는 요한을 높이는 몇 이단적 그룹이 있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28 절의 앞부분이 매우 과격하였는데 뒷부분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시대인 하나님의 왕국이 가지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잘 표현한다. 문맥에서는 극히 작은 자에 속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람을 나타낸다:

1. 로마 백부장과 그의 종(2-10 절)
2. 나인성의 과부와 그녀의 아들(11-17 절)
3. 사 61:1 에서 말하는 사람들(21-22 절)
4. 세리들(29 절)

7:29-30 이 두 절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말한다

1. 요한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2. 예수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누가 하는 언급이다(NET 성경)

7:29 이 절과 30 절은 계속적으로 예수를 따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소외 계층과 종교 지도자들. 나는 그들이 서로 다른 그룹에 속했다고 확신한다! 이 두 절은 누가 편집자로서 설명하는 내용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속한 자들은 회개와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지만(참조, 막 1:15),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했다.



NASB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다”
NKJV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NRSV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다”
TEV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순종한 자들”
NJB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받아들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다”(부정 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영적 수용성을 가진 자들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인식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침례(세례)는 영적인 필요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심을 믿는 표였다.

복음서에서 “의롭게 하다”가 조금밖에 사용되지 않은 반면에(참조, 마 11:19; 12:37; 눅 7:29,35; 10:29; 16:15; 18:14), 바울서신에서는 상당히 자주 사용되고 있음이 놀랍다(즉, 로마서 13 회, 갈라디아서 8 회). 바울은 종종 칭의(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가)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반면에, 바울은 언약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주로 말하는 것이다. 두 쪽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관계의 필요성 및 그 교제가 어떻게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가를 말씀한다(즉, 말, 행동, 동기).

▣ “요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비슷했지만 요한의 침례(세례)와 그리스도의 침례(세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요한은 구약적 기초에 초점을 두었지만 예수께서는 신약의 기초인 자신에게 초점을 두셨다.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따른 자들이 침례(세례)를 다시 받았는지를 궁금해 한다. 의식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이지 은혜를 만드는 기적이 아니다! 개인의 믿음이 결여된 종교적 행위와 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아니라 장애일 뿐이다. 참된 믿음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믿음의 외적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개역개정 7:31-35**

<sup>31</sup>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sup>32</sup>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sup>33</sup>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sup>34</sup>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sup>35</sup>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7:31-34 이 단락은 마 11:16-19 에 나온다.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스타일로 사역을 했다(요한은 금욕적이었고 예수께서는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셨다).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둘 다 거부했다. 30 절은 유대 지도자들의 닫힌 마음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7:31 “이 세대” 이 용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들었지만 적절하게 응답하기를 거부한 당시의 청중에게 대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7:31; 9:41; 11:29,50; 17:25). 이것은 신 32:5; 시 78:8; 램 2:31; 7:29 의 암시이다. 진리를 들었지만 거부한 사람들의 죄가 진리를 듣거나 보지 못하여 이를 거부한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7:33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침례(세례)요한은 나실인이었다(참조, 민 6 장). 또 그는 광야에서 살아 그가 설교하는 청중들과 자유로운 사회적 교분을 갖지 않았다(엘리아처럼).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나실인의 서약**

- 가. 이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남녀(참조, 민 6:1) 누구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즉, “하나님께 성결케 함”)을 위해 헌신하는 방법이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BDB 634)를 뜻하며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 어근에서 왔다.
- 나. 구약에서 이것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서약이었다
  - 1. 삼손(삿 13:7)
  - 2. 사무엘(삼상 1:21)
  - 3. 침례(세례)요한
- 다. 유대교에서는 짧은 기간의 나실인 서약을 만들었다(아마도 민 6:5 에 있는 단어에서 나온 것임). 가장 짧은 기간은 30 일 이었다. 이 짧은 기간의 서약은 머리의 털을 밀고 그 털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함께 태우는 일로 정점에 달했다.
- 라. 특별한 준수사항들(참조, 민 6:1-8)
  - 1. 술과 독주를 금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어떤 것도 먹지 않음(참조, 민 6:3-4).
  - 2. 머리를 깎지 않음
  - 3.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음. 이 조항은 서약자로 하여금 유대인의 어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 4. 사고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의 조항이 민 6:9 에 나옴. 행 21:23-25 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는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 정결을 위한 기간과 제사 규정이 제시됨(참조, 미 6:9-12).

▣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기도 했다(참조, 11:14-26).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분을 강력하게 사용하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 능력을 악한 자에게서 오는 초능력으로 돌렸다.

▣ 이 비난은 다음의 내용을 드러낸다

- 1.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적대감
- 2. 예수께서 가지신 동정심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그들은 가난하였다. 이것은 평민들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동일시 하심을 나타낸다.

7:35 이 절은 6:44 의 경우(“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처럼 문화적인 격언이다. 요한에게 침례(세례)받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참조, 29 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세와 명확히 구분되었다(참조, 30 절). 유대인들은 종종 구약의 관용적 표현인 “~의 아들”을 어떤 사람에 대한 **형용사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개역개정 7:36-50**

<sup>36</sup>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sup>37</sup>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sup>38</sup>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sup>39</sup> 예수를 칭찬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sup>40</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sup>41</sup>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켜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켜는데 <sup>42</sup> 값은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sup>43</sup>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sup>44</sup>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sup>45</sup>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sup>46</sup>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sup>47</sup> 이르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sup>48</sup>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sup>49</sup>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sup>50</sup>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7:36-50** 이 기록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한 일과 비슷하다. 그 일은 막 13:3-9; 마 26:6-13; 요 12:2-8 에 나온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비록 누가복음의 기록이 여러 복음서에서 언급하는 마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기름부은 일과 비슷한 점이 있음에도 서로 구별되는 사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누가는 종종 바리새인들이 제공한 식사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소개한다(참조, 7:36; 11:37; 14:1).

**7: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셨다. 5:17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사람들은 이 청함의 동기를 궁금히 여긴다:

1. 호기심
2. 영적 배고픔
3. 예수를 만나기
4. 예수를 공격하려고 어떤 꾀투리를 찾으려 함(참조, 44-45 절)

이러한 식사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행사였다. 비록 소수의 손님만 식사를 나누었지만 누구라도 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 **“앉으셨을 때에”** 누가는 *카타클리노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저자이다(참조, 7:36; 9:14,15; 14:8; 24:30).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아나케이마이*를 사용했다.

제 1 세기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및 일부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한 상과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다(참조, 에 1:6; 7:8). 독특하게도 그들은 말굽 모양으로 된 상 주위에 두루 퍼 놓은 베게 위에 왼쪽 팔꿈치를 한 채 기대어 누웠다. 보통 한 편에 3 명씩 자리를 했다.

**7:37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녀가 그 동네의 창녀였음을 시사하지만, 이 구는 그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유대 지도자들은 탈무드의 모든 규정과 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인으로 보았다(예, 목자, 무두장이). 이 동네는 북쪽 지방에 있었는데 아마도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기름부은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기름부은 유사한 일을 기록한다(참조, 마 26:6; 막 14:3; 요 12:2).

▣ **“향유 담은 옥합”** 알라바스터(설화석고)는 흰색을 띠는 노란색 돌로서 이것이 나온 이집트의 도시 이름(알라바스트론)을 딴 이름이다. 이 향유는 매우 비쌌다. 종종 여인들은 결혼지참금으로 받은 이 옥합을 줄에 매달아 목에 걸고 다녔다.

**7: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 사회적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네에서 온 다른 이들도 와 벽을 따라 앉아서 창이나 문으로 들여다 보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예수께서 왼쪽 팔꿈치에 몸을 기대고 발을 뒤쪽으로 하여 누워 계셨음을 기억하라.

▣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유대인 여자가 대중 앞에서 자기 머리털을 내리는 일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여겨졌다.

▣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은 매우 특별한 행위로서 이 여인이 자기와 같은 사람의 죄를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배려해 주심에 대한 기쁨과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이다(참조, 35 절).

**7:39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이다. 이 문장의 형태는 예수께서 선지자이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독특한 헬라이어 구문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종류의 인물인가를 알아보았을텐데(그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가 누구시며 그의 동기, 목적, 행동이 어떤 것이지를 완전히 오해했다.

매우 이른 시기에 속하며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어 바티칸 사본으로 불리는 B 사본에는 “선지자”가 **정관사**와 함께 쓰였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 18:15 에 있는 바 모세의 예언에 나오는 “그 선지자”와 연결시키려는 신학적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지는 않고 오히려 그가 전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신학적 변이에 대해 다루는 책은 바르트 D. 에흐만의 **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신약의 본문에 대한 초기의 기독교론적 논쟁**(옥스포드, 1993)이다.

**7:40 “시몬”** 이 이름은 흔하게 사용되었다. 신약에는 시몬으로 불리는 여러 사람이 나온다:

1. 시몬 베드로, 마 4:18
2. 가나안 사람 시몬, 마 10:4; 행 1:13
3. 예수의 형제 시몬, 마 13:55
4. 문둥이 시몬, 마 26:6; 막 14:3

5. 구레네 시몬, 마 27:32
6. 바리새인 시몬, 눅 7:40
7. 가롯 유다의 아버지, 요 6:71
8. 마술사 시몬, 행 8:9
9. 무두장이 시몬, 행 9:43

**7:41**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즉, 장례를 위해 예수께 기름을 부어 곧 있을 그의 죽음을 준비함).

▣ **“오백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당시 자주 사용된 동전이였다. 이것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참조, 마 20:2). 15:8의 특별주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을 보라.

**7:42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기록은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것이다:

1. 자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거의 혹은 전혀 없다고 여기는 자기 의로 가득찬 사람들
2.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함을 아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죄인의 비유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참조, 눅 18:9-14).

**7:44-47** 유대 문화에 따라 잔치에 초대된 주인으로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께 행했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

1. 그는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다, 44 절
2. 그는 예수께 환영하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 45 절
3. 그는 예수께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다, 46 절

**7:47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 단락(복음 이야기)은 혁신적으로 새 언약을 분명히 드러낸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지 개인의 성취나 공로나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참조, 엡 2:8-9).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심을 새 언약적으로 뜻한다!

신학자들은 “사랑”을 강조하여 이것을 용서와 받아주시심의 새로운 요구조건으로 삼는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갖는 인격적 관계의 부산물이지만 그것이 받아주시심(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받아주시심은 성자께서 성취하셨고 완성하신 사역에 기초한다. 인간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한편 이렇게 거저 주시는 구원에 무엇을 더하거나 혹은 이를 빼버려서는 안된다.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으로 변화했고 또 계속하여 그렇게 변화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된다. 신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지(참조, 엡 2:10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참조, 롬 3:21-30)!

**7:48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현재 수동 직설법이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아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음이 틀림없다(참조, 눅 5:21-24).

**7:50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 여인이 한 사랑의 표현은 용서받음의 결과이지 이를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 예수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참조, 5:20; 7:9; 8:48; 17:19; 18:42).

▣ **“평안히 가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다(참조, 8:48).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누가복음 7 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8 장과 많이 다른가?
2. 예수께서는 왜 이 사람의 믿음에 크게 감명을 받으셨는가?
3. 예수께서는 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 주셨는가?
4. 침례(세례)요한은 왜 예수의 메시아되심을 의심했는가?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가?
5. 침례(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신약의 설교자인가?
6. 왜 48 절에 기록된 예수의 진술을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혐오하였는가?

# 누가복음 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어떤 여인들이 예수와 동행함	예수를 섬긴 여러 여인	여행에서	예수와 동행한 여인들	예수와 동행하는 여인들
8:1-3	8:1-3	8:1-3	8:1-3	8:1-3
씨뿌리는 자의 비유	씨뿌리는 자의 비유	씨뿌리는 자의 비유	씨뿌리는 자의 비유	씨뿌리는 자의 비유
8:4-8	8:4-8	8:4-8	8:4 8:5-8a 8:8b	8:4 8:5-8
비유의 목적	비유의 목적		비유의 목적	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8:9-10	8:9-10	8:9-10	8:9-10	8:9-10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심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심		예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심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심
8:11-15	8:11-15	8:11-15	8:11-15	8:11-15
평상 아래 있는 등불	드러난 빛의 비유	순종하는 들음	그릇 아래 있는 등불	등불의 비유
8:16-18	8:16-18	8:16-18	8:16 8:17 8:18	8:16-18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께 오다	예수의 참 가족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	예수의 참 가족
8:19-21	8:19-21	8:19-21	8:19-20 8:21	8:19-21
폭풍을 잠잠케 하심	바람과 물결이 예수께 순종하다	잠잠케 된 바람과 바다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다	폭풍을 잠잠케 하심
8:22-25	8:22-25	8:22-25	8:22-24a 8:24b-25a 8:25b	8:22-25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심	고침받은 귀신들린 자	거라사의 광인	예수께서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다	거라사의 광인
8:26-31	8:26-39	8:26-31	8:26-29 8:30a 8:30b-31	8:26-27 8:28-31
8:32-39		8:32-33 8:34-39	8:32-33 8:34-38a 8:38b-39a	8:32-33 8:34-37 8:38-39

			8:39b	
아이로의 딸과 예수의 겉옷을 만진 여인	생명을 회복한 소녀와 여인이 고침받은 여인	다시 살아난 아이로의 딸	아이로의 딸과 예수의 겉옷을 만진 여인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다시 살아난 아이로의 딸
8:40-42a	8:40-56	8:40-42a	8:40-42a	8:40-42
8:42b-48		8:42b-48	8:42b-45a	
				8:43-48
			8:45b	
			8:46-48	
8:49-56		8:49-56	8:49	8:49-56
			8:50	
			8:51-52	
			8:53-5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은 여러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흠의 비유, 1-18 절
2. 예수께서 자신의 가족을 대하심, 19-21 절
3.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 22-25 절
4. 예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심, 26-39 절
5. 예수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심, 40-55 절

나. 비유의 해석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신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 복음서 저자들은(성령의 도움을 받은) 구전 문화에 익숙했다. 랍비들은 구전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구전적 방법을 따와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께서는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기록하지 않으셨다. 그는 기억을 돕기 위해 반복적인 교수법과 요약, 예화를 사용하셨다.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억에 이러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비유의 사용은 이러한 교수법에 속한다. 비유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이야기로서 비유를 정의할 수 있다: 이야기로서의 비유는 실제에 대한 거울로서 실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돕는다”(예수와 복음서 사전[594 쪽]에서).

“비유는 화자가 일상생활에서 취한 경우를 가지고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 혹은 이야기이다”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590 쪽]에서).

예수님 당시에 “비유”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였는가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1. 어떤 이는 이것이 수수께끼(막 3:23), 지혜로운 말(잠언, 눅 4:23), 짧은 이야기(막 7:15), 신비스러운 격언(“난해한 말”) 같은 종류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인 *마살*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2. 다른 이는 보다 더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비유가 짧은 이야기를 뜻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삼분의 일 이상이 비유적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한 주된 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비유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임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두 번째 정의를 취한다면 우리는 여러 종류의 짧은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다
  1. 단순한 이야기(눅 13:6-9)
  2. 복잡한 이야기(눅 15:11-32)
  3.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눅 16:1-8; 18:1-8)
  4. 모형적/우화적 이야기(마 13:24-30,47-50; 눅 8:4-8,11-15; 10:25-37; 14:16-24; 20:9-19; 요 10 장; 15:1-8)

이렇게 다양한 비유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 단계를 따라서 해야 한다.

해석의 **처음 단계**는 성경의 모든 장르에 적용되는 해석학의 일반적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침은:

1. 책 전체 혹은 적어도 문학적 대단위의 목적을 파악하기
2. 원래의 청중을 확인하기. 종종 같은 비유가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 ㄱ. 눅 15 장에 나오는 잃은 양은 죄인들을 가리킨다
  - ㄴ. 마 18 장에 나오는 잃은 양은 제자들을 가리킨다
3. 비유가 들어 있는 직접적 문맥을 확인하기.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은 종종 비유의 마지막 부분(혹은 비유를 마친 후 바로)에서 핵심을 말한다.
4. 비유가 중심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비유에는 종종 두 명 혹은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다. 대개는 각 사람이 각각 의도하는 진리, 목적, 핵심(개요)을 나타낸다.
5. 다른 복음서에서 평행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신약과 구약에서 평행되는 내용을 확인한다.

해석의 **두 번째 단계**는 특별히 비유로 쓰여진 부분과 관련된 원리를 다룬다

1. 비유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라(만일 가능하면 반복해서 들으라). 비유는 구두 전달을 위한 것이지 분석을 위한 기록이 아니다.
2. 대부분의 비유는 오직 하나의 중심 진리만 갖는다. 이 진리는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과 관련이 있다.
3. 세세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종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의 배경을 나타낼 뿐이다.
4. 비유가 실재는 아님을 기억하라. 비유는 삶의 경험과 유사하지만 종종 과장적 표현으로써 사실(진리)을 나타낸다.
5. 1 세기의 유대인 청중이 이해했을 핵심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는 변형이나 놀람을 파악하라. 이 내용은 대개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참조, A. 버클리 미켈슨, *성경의 해석*, 221-224 쪽).
6. 모든 비유는 반응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반응은 대개 “하나님의 왕국” 개념과 관련이 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새 왕국을 시작하신 분이시다(마 21:31; 눅 17:21).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지금 반드시 그분께 응답해야 한다!  
왕국은 또한 미래적이다(마 25 장).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예수께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왕국의 비유는 예수 안에서 도래한 새 왕국을 나타낸다. 비유는 제자도에 요구되고 있는 윤리적 근본적 요구에 대해 말한다. 이전의 어떤 것도 쓸 수 없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우며 또한 예수께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7. 비유는 종종 요점이나 중심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해석자는 원래의 문화에서 명백히 전해졌을 중심 진리를 밝히는 문맥적 열쇠를 찾아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종종 논란이 되는 내용으로서 비유적 진리가 감추어진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예수께서는 종종 비유가 감추인 것임을 말씀했다(참조, 마 13:9-15; 막 4:9-13; 눅 8:8-10; 요 10:6; 16:25). 이 사실은 사 6:9-10 에 있는 예언과 관련이 있다. 청중의 마음이 이해의 정도를 결정짓는다(참조, 마 11:15; 13:9,15,16,43; 막 4:9,23,33-34; 7:16; 8:18; 눅 8:8; 9:44; 14:35).

한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중(막 15:10; 막 7:14), 바리새인들(마 21:45; 막 12:12; 눅 20:19)이 종종 정확히 이해했지만 믿음과 회개로써 적합하게 응답하기를 거부했음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어떤 면에서 이점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진리이다(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 비유는 진리를 숨기거나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마 13:16-17; 16:12; 17:13; 눅 8:10; 10:23-24).

그란트 오스본은 *해석학적 나선* (239 쪽)에서 “비유는 청중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기작’이며 기능이다. . . 비유로 인해 각 그룹의 사람들(지도자들, 대중, 제자들)은 다르게 말씀에 대면했다”고 말한다. 제자들도 종종 예수의 비유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참조, 마 15:16; 막 6:52; 8:17-28,21; 9:32; 눅 9:45; 18:34; 요 12:16).

**네 번째 단계**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이 단계는 비유의 중심 진리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비유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그게 옳다). 우화적인 해석은 세세한 내용을 진리의 체계 속에 집어 넣는다. 이 해석 방법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배경 혹은 저자의 의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생각을 제시한다.

한편 예수께서 비유를 해석하신 방법은 우화적 혹은 모험론적 해석에 상당히 근접함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사용하셨다(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 악한 농부의 비유, 마 21 장; 막 12 장; 눅 20 장).

어떤 비유는 여러 개의 주요 진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당자의 비유이다(눅 15:11-32). 이것은 성부의 사랑과 둘째 아들의 고집스러움 뿐 아니라 형의 태도까지 포함하여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전달한다.

피터 코터렐과 맥스 터너의 *언어학과 성경 해석*에서 인용한 유용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신약 학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가르침에 있어서 비유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바로 아돌프 줄리히이다. 그는 극단적인 우화적 방법으로 비유를 이해하지 않고 그 참된 의미를 꿰뚫는 요소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제레미아가 분명히 밝혔듯이 ‘그가 비유의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환상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해석을 지양하게 한 노력은 또 다른 중요한 잘못을 가져왔다.’ 그 잘못은 비유가 한 가지 내용만 전달한다는 점을 고집한 점 뿐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한 일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있다”(308 쪽).

그란트 오스본의 책 *해석학의 나선*에 또 하나의 유용한 내용이 있다:

“나는 비유가 비록 저자의 의도에 의해 조정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우화임을 여러 사실을 통해 확인한다.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은 사실상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나타내며 실제로 비유는 우화에 속한다고 블룸버그(1990)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는 과장된 것이지만 비유가 ‘한 가지 진리’만을 나타낸다는 주장보다는 진실에 더 가깝다(240 쪽).

비유로써 교리적 진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교리적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가?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화적 방법을 남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의 원래 의도 및 복음서 저자의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었다. 의미는 반드시 저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수와 복음서 저자들은 영감을 받았지만 해석가들은 그렇지 않다.

한편 비유는 여전히 교리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으로 심하게 남용되어 왔다 버나드 램은 이 점을 지적하여 말한다!

“비유가 교리에 대해 가르치므로 교리적 가르침을 위해 비유를 전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적절치 않다. . .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결론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다른 곳에 나타난 분명하고 명확한 가르침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주의 깊게 다루어진 비유는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예시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성경해석학* (285 쪽).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내용에 대하여 3 가지의 인용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책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비유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잘못 해석되는 고통을 받았다”(135 쪽)
2. J. 로벗슨 맥퀼런의 책 *성경의 이해와 적용*에서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함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원천이 되어 왔다. 동시에 비유는 교회에서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혼동의 통로가 되어 왔다”(164 쪽)
3. 그란트 오스본의 책 *해석학의 나선*에서  
“비유는 성경에서 이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부분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해석학적으로 가장 남용된 부분의 하나로서. .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이다. 비유가 일상생활의 경험에 기초한 비교 혹은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비유를 통한 의사소통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이야기 자체가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에 현대의 독자는 고대의 청중이 경험했듯이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다”(235 쪽).

다.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점검할 내용

1. 해석학의 일반적 원리
  - 가. 중심 목적은 무엇인가:
    - (1) 복음서 전체의

- (2) 문학적 단위의
  - (3) 직접적인 문맥의
  - ㄴ. 만일 가능하면 원래의 청중을 규명하라(제자들, 무리, 종교 지도자들)
  - ㄷ.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라
    - (1) 예수님의
    - (2) 복음서 저자의
  - ㄹ. 이야기의 중심 진리(들)는 무엇인가
    - (1) 그것을 하나의 서술문으로 표현하라
    - (2) 비유에 나오는 주요 인물의 목록을 만들고(보통 2-3인) 각 등장 인물이 비유의 목적, 진리, 줄거리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말하라
  - ㅁ. 다른 복음서에서 비유적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라.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2. 특수 해석학
- ㄱ.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라(더 좋은 방법은 듣는 것임)
  - ㄴ. 이야기의 문화적 배경을 확인하라. 원래의 청중이 무엇에 놀랐을가를 찾아보라. 놀라게 하는 이러한 반전은 주로 끝부분에 나타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나 혹은 청중이나 이야기의 등장인물 혹은 복음서 저자가 하는 말일 수 있다
  - ㄷ. 예수께서 이야기를 통해 의도하신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8:1-3

<sup>1</sup>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sup>2</sup>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sup>3</sup>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 8:1

NASB

“한 성과 한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NKJV

“각 성과 마을”

NRSV

“성들과 마을들”

TEV, NJB

“도시들과 마을들”

예수께서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려 하셨다. 갈릴리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여행은 유대에서 지도자들이 그를 거부함으로써 촉발되었다.

▣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이 두 헬라이어 단어(*케뤼토스*와 *유앙겔리조*)는 동의어를 이룬다. 이 용어들은(항상은 아니지만 대개, 참조 눅 1:19) 공개적으로 복음 전파함을 나타낸다. 둘 다 **현재 분사**이다.

▣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장차 온 땅 위에 임하게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사람의 마음에 임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적 메시지이다(참조, 마 6:10). 4:21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열두 제자” 6:13의 특별주제를 보라.

8:2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것은 우회적인 완료 수동이다. 예수께서는 이 그룹에 속한 여인들을 위해 병을 고치셨고 혹은 귀신을 내쫓아주셨다. 이 여인들은 예수를 따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웠을 것이다(돈은 물론 요리, 의복의 세탁 등). 이들은 예수님과 열두 사도와 함께 여행했다. 4:33의 특별주제: 귀신들림을 보라.

▣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구는 이 여인이 처음으로 소개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녀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 기름을 부은 여인이 아니다.

이 구는 그녀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준다.

1. 그녀의 이름 - 마리아
2. 그녀가 태어난 곳/자라난 곳 - 막달라(참조, 마 15:39)
3. 그녀가 놓임을 받기 전의 상태 - 귀신 들림(일곱 귀신은 그녀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귀신들렸었음을 나타낸다)

8:3 “요안나” 그녀의 이름은 이곳과 24:10에서만 나온다. 그녀는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과 결혼을 했다(3:1의 특별주제를 보라). 따라서 그녀는 부유했다. 그녀가 예수님 및 사도들의 그룹과 얼마동안 또 얼마나 자주 여행을 함께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녀는 8장에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여행했고 고난받으신 주간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장례를 위한 향품 준비를 도왔다(참조, 23:55-56). 그 후에는 무덤으로 되돌아 갔다(참조, 24:10).

▣ “수산나” 신약에서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없다.

**특별주제: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

- 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무리를 도우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눅 8:13에 있다.
  - 1. 막달라로 불렸던 마리아(2절)
    - ㄱ. 마 27:56,61; 28:1
    - ㄴ. 막 15:40,47; 16:1,9
    - ㄷ. 눅 8:2; 24:10
    - ㄹ. 요 19:25; 20:1,11,16,18
  - 2. 구사(헤롯의 청지기, 3절)의 아내 요안나는 눅 24:10에도 기록되어 있다
  - 3. 수산나(3절)
  - 4.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3절)
- 나. 여자의 무리가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언급된다.
  - 1. 마태복음의 목록
    - ㄱ. 막달라 마리아(27:56)
    - 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27:56)
    - ㄷ.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27:56)
  - 2. 마가복음의 목록
    - ㄱ. 막달라 마리아(25:40)
    - ㄴ.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15:40)
    - ㄷ. 살로메(15:40)
  - 3. 누가복음은 오직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말한다(23:49)
  - 4. 요한복음의 목록
    - ㄱ.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19:25)
    - ㄴ. 이모(19:25)
    - ㄷ. 글로바의 마리아[KJ 클레오파스, 이것은 글로바의 아내나 글로바의 딸을 의미한다](19:25)
    - ㄹ. 막달라 마리아(19:25)
- 다. 여자의 무리가 예수께서 묻히신 장소를 지켜보았다고 말한다.
  - 1. 마태복음의 목록
    - ㄱ. 막달라 마리아(27:61)
    - ㄴ. 다른 마리아(27:61)
  - 2. 마가복음의 목록
    - ㄱ. 막달라 마리아(15:47)
    - ㄴ.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15:47)
    - ㄷ. 살로메(15:40)
  - 3. 누가복음은 오직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말한다(23:55)
  - 4. 요한복음은 무덤을 보러 온 여자들의 기록이 없다
- 라. 여자의 무리가 주일 새벽에 무덤에 왔다
  - 1. 마태복음의 목록
    - ㄱ. 막달라 마리아(28:1)
    - ㄴ. 다른 마리아(28:1)
  - 2. 마가복음의 목록
    - ㄱ. 막달라 마리아(16:1)
    - 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16:1)
    - ㄷ. 살로메(16:1)
  - 3. 누가복음의 목록
    - ㄱ.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24:1-5,24)
      - 1) 막달라 마리아(24:10)
      - 2) 요안나(24:10)
      - 3)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24:10)
  - 4. 요한복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다(20:1, 11)

- 마. 여자들이 다락방에 있었던 것으로서 언급된다(행 1:14)
  - 1. “여자들”(1:14)
  - 2.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1:14)
- 바. 이와 같이 각각의 목록에서 다르게 기록된 여인들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함께 했던 “여인들”에 대한 좋은 글이 IVP 에서 출판한 *예수와 복음서의 사전*, 880-886 쪽에 있다.

▣

NASB “그들을 지원하여”  
 NKJV “그를 위해 공급한 ”  
 NRSV, NJB “그들을 위해 공급한”  
 TEV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도운”

헬라어 사본적 증거는 **단수형**(N, A, L 사본 및 마 27:55; 막 15:41)과 **복수형**(참조, B, D, W 사본)으로 나뉜다. 어느 쪽이 원래의 형태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UBS<sup>4</sup>는 **복수형**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줌). 하지만 대부분의 변이에서 보듯이 이러한 차이는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는다.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르며 섬겼다.

개역개정 8:4-8

<sup>4</sup>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sup>5</sup>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sup>6</sup>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썩어 닳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sup>7</sup>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sup>8</sup>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8:4 “비유” 이 장의 서론에 있는 해석을 위한 지침을 참고하라.

8: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누구라도 알 수 있었던 농사의 한 과정이었다. 아마도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씨뿌리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 비유는 모든 공관복음서에 나온다. 여러 면에서 이 비유(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더불어)는 다른 모든 비유의 전형형을 이룬다.

구원이 인간의 발견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주목하라. 또한 이 본문은 예정설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영원한 결과가 따름을 가르치는 것임을 주목하라! 이 비유는 참으로 다른 종류의 흙(즉, 인간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다.

▣ “길 가” 농부가 자기 밭 전체에 씨를 뿌렸다. 그는 심지어 밭을 가로지르는 두렁도 갈아엎었다. 단단하게 된 길 위에 떨어진 씨는 흙덩어리를 뚫지 못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곧 밟혔다.

8:6 “바위 위” 농부가 튀어나온 바위나 땅 속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을 구분할 수 없었고, 씨들은 뿌리를 내릴만큼 충분한 토양을 가지지 못했다.

8:7 이것은 갈아엎은 땅 아래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세력이 강력한 가시 풀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곧 그것이 새로 심긴 씨를 뒤덮고 번성함을 가리킨다.

8:8 “백 배의 결실” 마태복음은 30 배, 60 배, 100 배의 결실에 대해 말한다(참조, 마 13:8).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마음을 열어야 함을 나타낸다(참조, 막 4:9; 마 13:9). 어떤 면에서 이 비유들은 영적 수수께끼에 속한다. 듣는 이의 마음(성령에 의해 준비된, 참조, 요 6:44,65)이 매우 중요하다.

네 종류의 땅 가운데 세 곳에서 씨가 싹을 틔울 수 있었지만 오직 한 곳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따른다. 영생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최초의 응답을 구원의 유일한 증거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실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복음에 최초로 응답하고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다. 이 비유는 “안이하게 믿음”에 대하여 경고를 준다(요 15 장도 마찬가지다)!

개역개정 8:9-10

<sup>9</sup>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sup>10</sup>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핵심그룹에 속한 사도들도 비유의 영적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이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로가 된다.

8:10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적 진리에 대하여 책임 있는 청지기들이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는 많이 찾으실 것이다”(참조, 눅 12:48).

이러한 사적인 가르침이 정규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실은 공관복음(즉, 대중에 대한 가르침)과 요한복음(사적인 가르침)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다르게 말씀하신다. 공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비유적 가르침은 대중 앞에서 하신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전혀 다른 형태(즉, “나는...이니”라는 가르침)로 나오는 내용은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것이다.

열 두 사도에게 주신 이러한 내용 전체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직 그들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해석을 알고 있었다. 모든 계시가 택함을 받고 영감을 받은 이 제자들(신약의 저자들)을 통하여 온다.

▣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은 *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막 4:11 에서와 이 본문에서는 지도자들과 무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계시된 진리를 가리킨다(참조, 사 6:9-10).

**특별주제: 신약에 나오는 비밀**

가.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들어 있는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기 위해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 막 4:11  
2. 마 13:11  
3. 눅 8:10

나. 바울은 이것을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  
1. 이방인들을 포함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일부분이 완악하게 된 일.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 온 일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것이다(참조, 롬 11:25-32).  
2. 열방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짐을 말하는 복음이 열방에 전파된다(참조, 롬 16:25-27; 골 2:2).  
3. 신자들이 재림의 때에 가지는 새 몸(참조, 고전 15:5-57; 살전 4:13-18).  
4.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심(참조, 엡 1:8-11).  
5.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후사가 됨(참조, 엡 2:11-3:13).  
6.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관계가 결혼이라는 용어로 설명됨(참조, 엡 5:22-23).  
7. 이방인들이 언약백성에 포함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주하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을 가져 오, 즉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6:5,11-13; 8:21)을 회복시키심(참조, 창 1:26-27; 5:1; 6:5,11-13; 8:21; 9:6; 골 1:26-28).  
8.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참조, 살후 2:1-11).  
9. 신비에 대한 초대 교회의 요약은 딤후 3:16 에 나온다.

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신비함을 찬송한 내용이 딤후 3:16 에 나온다.

라. 요한 계시록에서 이 용어는 요한이 사용하는 묵시적 상징을 나타낸다.

마. 이것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뜻한다. 이러한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참조, 창 3:15).

▣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언어적인 기능이 있다

1. 진리를 드러내기
2. 진리를 감추기

▣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 6:9의 인용이다. 이 예언적 본문(사 6:9-10)은 불신앙을 나타내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마 13:14-15; 막 4:12; 요 12:40; 행 28:26,27; 롬 11:8).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심령과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및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필요성에 대한 신비를 나타낸다. 어쨌든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인간이 응답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는가 아니면 일부 사람의 심령만 만져주시는가이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음을 인간의 응답함(회개, 믿음, 순종, 인내함)으로 알 수 있다.

개역개정 8:11-15

<sup>11</sup>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sup>12</sup>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sup>13</sup>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sup>14</sup>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sup>15</sup>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8:11 “하나님의 말씀” 5:1의 설명을 보라.

8:12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신약은 하나님의 복음을 훼방하는 악한 세력이 실제함에 대해 가르친다(참조, 고후 4:4). 4:2의 특별주제: 사탄을 보라.

NEB 성경(각주 23번, 1822쪽)은 하나님의 적수를 각 공관복음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부르고 있음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한다.

1. 누가복음—“마귀”
2. 마태복음—“악한 자”
3. 마가복음—“사탄”

이 사실은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써 일어난 사건과 가르침을 자유로이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의 진행과정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회심). 이는 신약이 여러 다양한 각도로 이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1. 회개와 믿음
2. 믿음과 일
3. 믿음과 침례(세례)
4. 믿음과 방언

한편,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다. 나는 이 믿음이 세 가지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그 분을 받아들임/영접함(예수)
2. 그 분에 대한 진리를 믿음(신약)
3. 그 분을 닮아 가는 삶(그리스도를 닮는 삶)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초기에 또 어떤 것은 시간을 두고 발전된다. 신약의 믿음은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이것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만을 말하는 것 이상의 내용으로서, 거기서 시작하여 우리를 위해 거기서 마쳐진다. 이 일은 사실상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쳐진다.

▣ “그 마음에서” 이것은 “마음”이라는 용어로서 사람을 가리키는 구약적 용법이다(참조, 15절). 오늘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셔들임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마음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1:51의 특별주제를 보라.

8:13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이것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을 나타내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받으나”라는 단어(참조, 요 1:12)는 “믿는 자”와 동의어를 이룬다(참조, 요 3:16). 요 8:31에서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영접하다/믿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참조, 8:59).

###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있는 성경의 교리들은 그것이 전형적인 동양의 변증법적 쌍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쌍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성경적이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쪽을 선택하고 그 반대 쪽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1.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최초의 결심인가 아니면 제자도에 대한 전 생애의 헌신인가?
2.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인간이 믿고 회개하는 응답인가?
3.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노력이 이에 필요한가?

인내의 주제에 대하여 교회 역사를 통해 의견이 분분했다. 분명하게 상충되는 신약의 본문을 인해 문제가 생겼다:

1. 확신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요 6:37; 10:28-29)
  - ㄴ. 바울의 진술(롬 8:35-39; 엡 1:13; 2:5, 8-9; 빌 1:6; 2:13; 살전 3:3; 딤후 1:12; 4:18)
  - ㄷ. 베드로의 진술(벧전 1:4-5)
2. 인내의 필요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마 10:22; 13:1-9,24-30; 24:13; 막 13:13; 요 8:31; 15:4-10; 계 2:7,17,20; 3:5,12,21)
  - ㄴ. 바울의 진술(롬 11:22; 고전 15:2; 고후 13:5; 갈 1:6; 3:4; 5:4; 6:9; 빌 2:12; 3:18-20; 골 1:23)
  - ㄷ. 히브리서 저자의 진술 (2:1; 3:6,14; 4:14; 6:11)
  - ㄹ. 요한의 진술(요일 2:6; 요이 9 절)
  - ㅁ. 성부의 진술(계 21:7)

성경적 구원은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시작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참조, 요 6:44,65).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인간이 믿음과 회개로써 처음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일하신다. 이것은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락한 피조물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주셨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읽기 원한다면 다음을 보라

1. 대일 무디, *진리의 말씀*, 어드만스, 1981 (348-365 쪽)
2. 하워드 마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됨*, 베다니 펠로우쉽, 1969
3. 로버트 쉥크,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웨스트코트, 1961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 곧 (1) 열매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한 면허증을 갖게 하는 확신 (2) 사역과 개인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 하는 일에 대해 말한다. 잘못된 그룹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못 취하여 일부 국한된 성경본문 위에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이 문제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확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경고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8:14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초기의 중요한 응답을 한 후에 타락한 세상적 삶에서 오는 즐거움에 빠진 자들이다(참조, 딤후 4:10 에 나오는 데마; 눅 16:13 에 나오는 하나님과 맘몬). 이와 관련된 신학적 질문은 항상 다음과 같다: “이 사람들은 잃어버려진 자들로서 미성숙한 자들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나 잃어버려진 자들인가?”

6:46 의 특별주제: 배교를 보라.

▣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 싹을 틔움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음에 대한 주제이다(참조, 마 7 장).

**8:15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둘은 다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여기에 해석을 위한 열쇠가 있다—추수는 하나님께 대해 감성적으로 간혹 헌신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삶 전체의 결실을 뜻한다(참조, 갈 6:9). *성경의 은유 사전* 38-40 쪽에 “배교”에 관한 좋은 글이 실려 있다.

개역개정 8:16-18

<sup>16</sup>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sup>17</sup>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sup>18</sup>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8: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앞에 나오는 비유와 관련이 있다. 이 비유는 참 신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또 이를 전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섬기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았다.

▣ “등경” 이것은 집 안에서 그 위에 등불을 놓아 빛을 가장 많이 비출 수 있는 여러 곳을 나타낸다:

1. 벽의 돌출부
2. 벽걸이
3. 여러 종류의 받침대

8:17-18 이 두 절은 앞에 나오는 “분명히 드러나는” 신자에 대한 말씀과 분명히 관련을 가진다. 마음 속의 의도가 어느 날 모두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신다. 우리가 가진 참 동기는 (1) 이 세상에서의 삶 혹은 (2) 심판 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개역개정 8:19-21

<sup>19</sup>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sup>20</sup>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sup>21</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8:21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이 충격적인 진술은 예수께서 이해하신 바 성경적인 믿음에 새 생명, 새 가족이라는 용어로서만 설명되는 혁신적인 모습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 생활이 매우 중요했기에(참조, J. 던칸, M. 데렛, *예수의 창중*, 38-45 쪽) 함께 믿는 자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하신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신자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과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시며, 예수께서는 독생 성자요 구원자이시며, 신자들은 비록 가장 보잘것 없는 자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것은 히브리 단어인 *שמע*(참조, 신 5:1; 6:4)를 가리키는 말로서 듣고 행하는 삶을 나타낸다(참조, 11:28). 이것은 야고보서의 강조점이다. 영생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면이 따른다!

개역개정 8:22-25

<sup>16</sup>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sup>23</sup>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sup>24</sup>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sup>25</sup>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8:23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수 백 미터 낮고, 높고 둥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에서부터 강하게 불어 내려오는 바람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호수에 폭풍을 일으켰다.

우리는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과 같은 일과 관련이 됨을 본다

1. 물을 제어하심(참조, 시 65:7; 89:9; 107:23-32)
2. 혼란에 대한 승리하심(참조, 욥 9:13; 시 89:10-11; 사 27:1; 51:10)

물은 창세기 1 장에서 이것이 있을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구약의 여러 암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유대인 어부들은 격동하는 물처럼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다.

8:24 “주여 주여” 5: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다. 이 말을 하는 자들이 경험많은 어부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이 광풍은 특별하게 무서운 광풍이었음이 분명하다.

8:25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참조, 8:26)과 마가복음(참조, 4:40)에서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이 더불어 나타난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은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다.

▣ “그가 누구이기에” 이 절은 사도들이 신학적으로 미성숙하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예수께서는 여러 종류의 불신앙에 직면하셨다: (1) 그의 가족이 가진 불신앙 (2) 군중의 불신앙 (3) 제자들의 불신앙. 1 항과 3 항의 경우에 그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었다. 두 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불신앙은 무지함에 기인하지만, 2 항의 경우는 의지적인 불신앙을 나타낸다.

복음을 듣는 자는 각자가 예수께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개역개정 8:26-31**

<sup>26</sup>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sup>27</sup>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sup>28</sup>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sup>29</sup>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돌려 쫓아로 나갔더라) <sup>30</sup>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sup>31</sup>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8:26 “거라사인의 땅” 이 지역은 복음서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1. 가다라 지방(마 8:28; A, W 사본)
2. 거라사 지방(막 5:1; P<sup>75</sup>, B, D 사본)
3. 거라사 지방(눅 8:26,37; X, L 사본)

이 지명은 때때로 가다라 지방으로 불렸다. 이 호수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우리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이 마을에 속하는 땅이 호숫가에 있었음을 안다.

8:27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마 8:28에서는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면을 이룬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종종 “두 명”으로 말하는 반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예리고의 소경(들)이다(참조, 마 20:29; 막 10:46; 눅 18:35). 어떤 이들은 두 명으로 언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수가 법정에서 증인의 수로서 필요한 수였기에 때문이라고 추정한다(참조, 민 35:30; 신 17:6; 마 18:16). 이에 대한 좋은 글이 성경의 어려운 말 371-377 쪽에 있다.

▣ “귀신 들린 자” 4:33의 특별주제: 귀신들림과 4:35의 설명을 보라.

▣ “무덤 사이에”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이곳이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만들거나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이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이 지역이 그가 귀신 들린 일과 관련을 갖는지는 불확실하다. 성경에서 귀신이나 천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많은 종류의 질문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인격체의 힘과 그를 섬기는 자들인 귀신들로 편만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인류를 멸망시키기를 꾀하며 하나님 최종적인 창조를 망가뜨리려 한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초점을 훼방하려 꾀한다.

**8:28**

NASB	“우리가 서로 무슨 일을 가지고 있나이까”
NKJV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NRSV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TEV, NJB	“당신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엇이 나와 당신께”이다. 마가복음의 번역가 핸드북에서 브렛처와 니다는 “고전적인 헬라어에서 이 구는 ‘우리가 무엇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나이까?’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여기서 이 표현은 히브리적 개념인 “왜 당신이 나에게 간섭하시나이까?”(49 쪽)를 뜻한다. 이 관용적 표현은 삿 11:12; 삼하 16:10; 19:22; 왕상 17:18; 대하 35:21에서 사용되었다.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들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지만(참조, 약 2:19; 막 1:23)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에 대해 증거하기를 막으셨는데, 이는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여 예수께서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비난하게 됨을 아셨기 때문이었다(참조, 11:14-26). 1:32 및 1:78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대화에서 어떤 때는 귀신에 대해 복수형이 사용되었고 어떤 때는 단수형(귀신의 우두머리)이 사용된 점이 흥미롭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볼 때 금지의 기능을 가진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 사용된 경우로서 “결코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말라”이다(참조, 바바라의 티모티 프리벽의 *분석적 헬라이어 신약*, 120 쪽). 귀신들은 심판이 오고 있는 것과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대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다(참조, 막 1:23-24; 마 25:41; 계 12:9; 20:10). 이와 평행을 이루는 마 8:29 및 막 5:7 에서도 종말적인 심판을 암시하고 있다. 이 귀신들은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시는 것에 대해 몰랐음이 분명하다. 이 문맥은 “영들”조차도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8:29 이 절은 이 사람의 이전 생활을 묘사한다(참조, 마 5:3-5; 마 8:28).

▣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러한 지역들은 구약에서 종종 귀신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참조, 눅 4:1-2).

8:30 “군대” 로마 군대에서는 6,000 명의 군인이 한 군단을 이루었다(실제로는 종종 이 이상적인 수보다 적은 규모였다). 이 표현은 그들이 이 남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한편, 그 귀신들이 많은 수의 돼지로 죽게하였음을 말하는 32 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수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합계를 말하는 수였을 것이다.

8:31 “무저갱” 이것은 롬 10:7 에 나오는 하데스를 가리키는 단어로 여겨진다. 이 단어는 계 9:1; 11:7; 17:8; 20:1,3 에서도 언급된다. 나는 계 9:1 에 대해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인용하려고 한다([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를 보라):

“▣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1:18 과 20:1 에서 열쇠를 언급한다. 이것은 권세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무리에게 심판을 행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무저갱은 “깊음”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이어 앞에 **알파** 접두사를 첨가하여 그 뜻을 반대로 만든 단어이다. 이 단어는 70 인역(구약의 헬라이어 역본)의 창 1:2 과 7:11 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악한 천사들이 갇힌 감옥을 뜻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용어인 “*타타루스*”(참조, 베후 2:4; 에녹 1 서 21:7)와 동의어를 이룬다(참조, 눅 8:31; 유 6 절; 계 11:7; 17:8; 20:1-3; 에녹 1 서 10:4; 86:1; 88:1; 주빌리 5:6-11). 바울은 롬 10:7 에서 죽은 자들의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참조, 사 24:21-22). 후기에 랍비들은 이 용어가 *스올/하데스*에서 의롭지 않은 자가 거하는 곳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 개역개정 8:32-33

<sup>32</sup> 마침 그 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sup>33</sup>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8:32 “돼지” 이 곳은 이방인이 거주하던 지역임이 분명하다(참조, 레 11:7; 신 14:8).

8:33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함을 주목하라. 이 본문은 왜 예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 가도록 허락하셨는지 또 그들이 왜 그 일을 원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귀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서 돼지 떼에게로 간 일은 아마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침을 뱉고(참조, 막 8:23) 진흙을 이겨 소경된 눈에 바르시고(참조, 요 9:6) 그의 손가락을 귀먹은 자의 귀에 넣으신 일(참조, 막 7:33)에서 보듯이 이 일은 시정각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요청한 일은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1. 그들은 무저갱보다 돼지를 더 좋아했다
2. 이 행위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청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예수께 도움이 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 개역개정 8:34-39

<sup>34</sup>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sup>35</sup>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를 <sup>36</sup>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sup>37</sup>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sup>38</sup>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sup>39</sup>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8:34-37 이 얼마나 탐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슬픈 이야기인지(참조, 막 5:15)! 그 사람이 다시 온전케 됨을 인한 기쁨은 없었고 단지 두려움만 있었다(참조, 37 절). 그들은 돼지 떼를 잃은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을 인헤 크게 염려한 나머지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 떠나가셨다! 이 사건은 기적(들) 자체가 항상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8:38-39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이방인 남자가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 그의 경우는 “자기 민족에 대한 최초의 선교”에 속한다(그가 이방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증거하였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려진 양에 대한 예수님의 선교에 지장을 미쳤을 것이다.

**개역개정 8:40-42**

<sup>40</sup>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sup>41</sup>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sup>42</sup>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8:41 “아이로” 이 이름은 “빛을 주시는 이”(BDB 22, 참조, 샛 10:3) 혹은 “야웨께서 깨우치신다”를 뜻하는 히브리 이름이다.

▣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 그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와 회당 건물의 관리를 맡았다. 그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였다.

8: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이 소녀는 그의 외동딸이었다. 이 소녀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연령, 곧 율법을 지키며 살 책임을 갖기 시작하는 나이(*בַּת מִצְרָא*)에 들어선 여자였다. 예수께서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개역개정 8:43-48**

<sup>43</sup>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sup>44</sup>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sup>45</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sup>46</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앞서로다 하신대 <sup>47</sup>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sup>48</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8:43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누가 (1)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사실 (2) 그녀가 병을 고치기 위해 전 재산을 허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나에게 흥미롭게 여겨진다 (누가복음에서 의사들에 관한 언급을 하는 점에 있어서 고대 헬라이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이러한 언급은 P<sup>75</sup> 및 B 사본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본문을 막 5:26 과 동화시킨 내용으로 보인다). 이 질병은 그녀로 하여금 의식상 부정하게 했다(참조, 레 15:25-27). 그녀는 회당에 참석하거나 종교적 축제에 갈 수 없었다. 랍비들이 이러한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매우 이상하다:

- 1. 타조 알의 재를 여름에는 마포대에 담아 옮기고 겨울에는 면포대에 담아 옮기게 함
- 2. 흰색의 암 당나귀의 똥에서 건진 보리 낱알을 옮기게 함(참조, *Shabb.* 110 A & B)

8:44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이 단어는 예수님의 *탈랏*을 가리킨다. 이 옷은 랍비인 선생들이 기도할 때 두른 쇼울로서 민 15:38-40 및 신 22:12 에 따라 사용하였다. 이것에는 네 개의 술(참조, 마 9:20)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기 위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 중의 하나를 만진 것이다.

“옷 가”와 관련하여 고대 헬라이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이 단어는 P<sup>75</sup>, A, B, C, L, W 에 있지만 일부 고대 라틴어 사본에는 없다. 아마도 막 5:27 에 이 단어가 없는 점에 의해 서기관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UBS<sup>4</sup> 는 이 내용이 있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8: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께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모르셨기 때문이든지 혹은 그녀로 하여금 대중 앞에 자기의 믿음과 병고침 받은 사실을 말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

NASB  
NKJV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르되”

더 짧은 본문은 고대 사본인 P<sup>75</sup> 및 B 에 나온다. 하지만 많은 수의 고대 사본은 더 긴 본문을 지지한다(참조, *x*, A, C\*, D, L, P, W; 막 5:31 은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즉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UBS<sup>4</sup> 의 본문 비평 위원회는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8:46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앞서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실 때에 그로부터 어떤 것이 밖으로 나갔다는 점이다(참조, 5:17; 6:19; 막 5:30).

8:47 그녀의 병은 그녀로 하여금 의식상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종교적 지도자인 선생을 결코 만지지 말아야 했다. 이제 그녀는 예수의 옷을 만지자 즉시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음을 간증하고 있다(참조, 44 절).

8:48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녀가 예수의 걸음을 만진 일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를 믿은 믿음이 열쇠였다.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무엇)를 믿는가가 중요하다(즉, 예수님). 여기에 어떤 마술적 요소도 혹은 적극적인 사고에 의해 능력을 발휘하는 일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오직 예수의 능력만 드러나고 있다. 이 문장에는 소조라는 헬라이어의 구약적 개념 및 신약적 개념의 용법이 나타난다.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그녀가 육체의 질병과 영적 문제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며 또 그 고침을 받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평안히 가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그녀는 육체의 질병 뿐 아니라 영적 치유도 받았다.

**개역개정 8:49-56**

<sup>49</sup>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sup>50</sup>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 <sup>51</sup>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sup>52</sup>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sup>53</sup>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sup>54</sup>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sup>55</sup>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sup>56</sup>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8:49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그 딸이 죽어 이미 죽음에 이르렀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인지 혹은 혼수상태에 빠진 것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참조, 행 20:7-12). 가족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판단하여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하던 관례대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 왔다.

▣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 단어는 백부장이 종의 병고침을 위해 예수께 요청하였을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다(참조, 7:6).

▣ “**선생님을**” 누가는 예수를 “랍비”로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호칭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짓는 표현이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고 그 후에는 자신의 신분, 사역, 임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설교와 가르침은 복음서에서 호환적으로 언급된다.

8:50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혈루병 가졌던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인내력있게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 버렸다. 이러한 지연은 이 남자가 예수께 가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일일 것이다(참조, 요 11 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시험하셨음).

▣ “**믿기만 하라**” 이것은 **부정 과거 능동 명령**이다. 믿음은 두려움(의심)의 정반대이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인가? 예수께서 그녀의 딸을 고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예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심을 믿으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8:51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들은 핵심그룹을 이루는 제자들로서 모든 특별한 사건과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

8:52 “**모든 사람이**” 이들은 이 집에 모인 곡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임이 분명하다(참조, 53 절).

▣ “**울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또 하나의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잔다**” 잠을 자는 일은 구약에서 죽음을 둘러서 나타내는 단어이다(참조, 요 11:11). 이 사건이 병고침(참조, 52 절)에 속하는지 혹은 소행함(참조, 49,53,55 절)을 뜻하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일련의 기적은 예수께서 자연과 귀신들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 가지신 능력을 나타낸다.

8:54 “일어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자주 사용된 동사로서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 종종 소생함(참조, 7:14,22; 8:54; 9:2; 20:37)을 나타내지만 죽음에서의 부활(참조, 9:22; 24:6,34)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셨다(참조, 요 10:17-18).

8:56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공관복음서들에서는 중요한 진리인 갈보리 사건과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귀신들에게 허락지 않으셨다
  - ㄱ. 막 1:34; 3:12
  - ㄴ. 눅 4:34-35,41
2.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자들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을 허락지 않으셨다
  - ㄱ. 마 8:4; 9:30; 12:16
  - ㄴ. 막 1:43-44; 5:43; 7:36
  - ㄷ. 눅 5:14; 8:56
3.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제자들에게 허락지 않으셨다
  - ㄱ. 마 16:20; 17:9
  - ㄴ. 막 8:30; 9:9
  - ㄷ. 눅 9:21,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호의였으며, 회심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병고치는 자로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호의였으며, 회심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발의 비유에서 무엇이 중요 진리인가?
2.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잃어버려지는 일이 가능한가?
3. 예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렇게 자주 언급하셨는가?
4. 예수의 형제들과 마리아가 왜 예수를 만나러 왔는가?
5. 오늘날에도 귀신들림이 가능한 일인가? 이 일이 신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6. 왜 예수께서 아이로의 부모에게 그들의 딸이 살리심을 받은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는가?

# 누가복음 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열 두 사도의 선교	열 두 사도를 보내심	열 두 사도에게 일을 맡기시고 지침을 주심	예수께서 열 두 사도를 보내시다	열 두 사도의 선교
9:1-6	9:1-6	9:1-6	9:1-5 9:6	9:1-6
헤롯의 근심	목베임을 당한 침례 (세례)요한	헤롯이 예수께 대하여 묻다	헤롯의 혼동	헤롯과 예수
9:7-9	9:7-9	9:7-9	9:7-9	9:7-9
오천 명을 먹이심	오천 명을 먹이심	오천 명을 먹이신 일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의 귀환-떡의 기적
9:10-17	9:10-17	9:10-11 9:12-17	9:10-11 9:12 9:13a 9:13b-14a 9:14b 9:15-17	9:10-11 9:12-17
베드로가 예수께 대해 한 고백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께 대해 한 고백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
9:18-20	9:18-20	9:18-20	9:18 9:19 9:20a 9:20b	9:18-21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다	고난에 대한 첫 예언
9:21-27	9:21-22 9:23-27	9:21-22 9:23-27	9:21-22 9:23-27	9:22 예수를 따름의 조건 9:23-26 천국이 속히 올 것임 9:27
예수께서 변화하심	예수께서 산에서 변화하심	변화하심	변화하심	변화하심
9:28-36	9:28-36	9:28-36	9:28-33 9:34-35 9:36	9:28-36
더러운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심	더러운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심	더러운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심	더러운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심	더러운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심

9:37-43a	9:37-42	9:37-43a	9:37-40	9:37-43a
			9:41	
			9:42-43a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또 다시 예언하시다	예수께서 또 다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다	또 다시 말씀하신 고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또 말씀하시다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언
9:43b-45	9:43b-45	9:43b-45	9:43b-45	9:43b-45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참으로 큰 자됨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큰가?
9:46-48	9:46-48	9:46-48	9:46-48	9:46-48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예수께서 분리주의를 금하시다	알려지지 않은 귀신쫓는 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에 대하여
9:49-50	9:49-50	9:49-50	9:49	9:49-50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생긴 일 (9:51-18:14)	9:50	
한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 영접하기를 거부하다	한 사마리아 마을이 구주를 거부하다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	한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 영접하기를 거부하다	한 사마리아 마을이 적대적으로 나오다
9:51-56	9:51-56	9:51-56	9:51-54	9:51-56
			9:55-56	
예수를 따를 자들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제자가 치러야 할 것	예수를 따를 자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 후에 따르는 어려움
9:57-62	9:57-62	9:57-62	9:57	9:57-58
			9:58	
			9:59a	9:59-60
			9:59b	
			9:60	
			9:61	9:61-62
			9:6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9:1-6

<sup>1</sup>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sup>2</sup>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sup>3</sup>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sup>4</sup>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sup>5</sup>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sup>6</sup>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9: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아마도 열 두 제자가 항상 예수님과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아야 했다(참조, 딤후 5:8). 사도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3 명씩 4 그룹을 이루어) 일시적으로 집에 다녀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누가는 제자들을 “열두 명”(도데카, P<sup>75</sup>, A, B, D, W 사본)으로 부르는 막 6:7 의 본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헬라어 사본은 그들을 다음과 같이 일컫는다

1. 그의 제자들 - 여러
2. 그의 열두 제자들(참조, 막 10:1) - C<sup>3</sup>, E, F, H 사본
3. 열두 사도들 - N, C, L 사본

UBS<sup>4</sup>는 “열두 명”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δυναμεις*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εξουσια*는 법적 권리 혹은 권세를 뜻한다. 이 두 용어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에 대한 본문인 4:36 에서 앞서 나왔다. 20:2 의 특별주제: 누가의 *εξουσια* 용법을 보라.

▣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귀신들림과 육체의 질병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육체에 미치는 현상이 종종 귀신에 의해 발생하지만, 신약에 나오는 축사에 있어서 귀신의 활동과 육체의 질병을 분명히 구별지어 다루고 있다. 4:33 의 특별주제: 귀신들을 보라.

9:2 “내보내시며” “보내다”(αποστέλλω)라는 용어는 “사도”(αποστολος)라는 용어와 관련을 가진다. 랍비들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다”라는 표현이 가지는 주된 의미는 그가 권위를 가진 공식적인 대표자라는 뜻이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낼 예수 안에서 도래했음을 전해야 했으며 그 후에는 표적으로서 자기들이 전한 메시지를 확증해 나타내야 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임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공유하셨던 강력한 능력은 다시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러났다. 오늘날 우리는 그 능력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능력과 기적은 복음 메시지를 확증하며 복음 전파자들에게 대한 신뢰도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실이다. 한편, 복음의 메시지가 뿌리를 내린 문화에서는 신자들이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여야만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기적의 수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참조, 요 4:48). 기적들은 믿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서구 교회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공에 대한 것’보다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적과 능력이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귀신과 천사의 활동과 더불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영적 활동은 모든 세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하지만 이 일은 예수께서 처음 오신 때에 강하게 있었고 또 그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다시금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즉, 은사가 여전히 활동적임)이 나타남을 인해 기뻐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의 유무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자체를 신뢰한다. 기적과 능력은 위조될 수 있다(참조, 마 24:24; 살후 2:9; 계 13:13; 16:14; 19:20).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써 진리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된다! 어린아이가 가진 믿음이 초능력적 기적이거나 놀라운 일들을 행함보다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여기서 열두 사도의 선교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마태복음의 기록(참조, 10:5)과 비교하여 봄이 좋을 것이다.

후자에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려진 양들”에게 갈 것을 예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 내용은 누가가 예수의 말씀을 편집하였거나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확장시킨 것을 뜻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이다. 각 전도자(복음서의 저자)가 특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마태-유대인, 누가-이방인). 그들은 자신들이 대상으로 정한 청중에게 적합하도록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서를 조정하며 각색하였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토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7-148 쪽). 열두 사도를 보내심에 대한 기록은 이러한 차이점을 잘 설명해 준다! 이것은 영감을 침해하지 않으며, 영감의 한 부분을 이룬다!

▣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을 이룬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마음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느날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완성됨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마 6:10).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새 날(성령의 새 시대)은 예수의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이 복음의 세세한 내용을 다 안 것은 아니었으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다. 그들이 전파한 분은 바로 예수였다. 4: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특별주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한편 그들은 이 미래를 새 날로 보았다(참조, 사 65:17; 66:22).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야웨를 거부함(심지어 포로기 이후에도)을 인해 신구약 중간시기에 쓰여진 묵시문학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즉, 에녹 1 서, 에스라 4 서, 바룩 2 서). 이 책들에는 두 세대가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과 오실 메시아(종종 강력한 전사로서)가 주장하시는 다가올 의의 세대와 사탄이 주장하는 현재의 악한 세대이다.

이러한 신학적 영역(종말론)에 사상의 발전이 분명히 나타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점진적 계시”로 말한다. 신약은 두 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새 우주적 실재를 제시한다(즉, 시간적 이중성):

<u>예수</u>	<u>바울</u>	<u>히브리서</u>
마태복음 12:32	로마서 12:2	1:2
마가복음 10:30	고전 1:20; 2:6,8; 3:18	6:5
누가복음 16:8	고후 4:4	11:3
누가복음 18:30	갈라디아서 1:4	
누가복음 20:34-35	엡 1:21; 2:1,7; 6:12	
	디모데전서 6:17	
	디모데후서 4:10	
	디도서 2:12	

신약의 신학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두 세대가 겹쳐지는데, 이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또 간과된 예언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성육신은 새 세대가 도래함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단 2:44-45). 그러나 구약은 예수께서 심판자와 정복자로 오심을 말하면서도 또한 그가 처음에 겸손하고 온유한(참조, 수 9:9) 고난받는 종(참조, 사 53 장; 수 12:10)으로서 오실 것을 말한다. 구약이 예언하듯이 그는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계 19 장). 이렇듯 두 단계에 걸친 성취는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 임했고(시작됨)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완전히 완성되지 않은)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9:3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 . . 가지지 말며”** 이 절의 내용과 막 6: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이는 이것이 두 아람어 단어를 번역함에 따르는 혼동이라고 설명한다. 또 어떤 이는 “지팡이”에 대한 언급은 이 물건이 돈을 운반함에 있어 드러나지 않게 사용되는 도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상이점에 대해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라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 내용이 모든 세대에 확립적으로 적용될 원리가 아님도 분명하다(참조, 눅 22:35-36).

이러한 상이점은 복음서가 영감으로 된 것임을 단순히 받아들이려는 우리에게 혼동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서 도망칠 수 없다. 이곳에 나타난 상이점 및 복음서 기록 간에 있는 “상이점”이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422-424 쪽에서 잘 다루고 있다.

**9: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더 나은 음식과 편의를 누리기 위해 이집 저집으로 옮기지 말고 처음에 초대받은 집에 머물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점은 그 공동체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9:5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문화적으로 거부함을 나타내는 표였다. 랍비들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다녀올 수 밖에 없었던 경우에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사도행전(즉, 행 13:51)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방법으로써 유대인 불신자들에게 미묘하게 행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9:6** 예수께서 각 동네를 두루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듯이 이제 사도들의 그룹도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흉내내고 있다.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계획*을 보라.

**개역개정 9:7-9**

<sup>7</sup>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sup>8</sup>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sup>9</sup>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9:7 “분봉 왕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이다. 그는 침례(세례)요한의 목을 벤 사람으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통치자였다. 그는 아버지 헤롯대왕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다(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3:1의 특별주제:헤롯대왕의 가계를 보라.

누가는 이 헤롯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1. 그가 당혹해 한 일 및 그가 예수 만나기를 바람, 9:7-9

2. 그가 예수를 죽이려 함, 13:31-33
3. 빌라도의 요청으로 그가 예수를 심문함, 23:8-12

▣ “심히 당황하니”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나타낸다. 누가는 이 단어(*디아포레오*)를 여러 번 사용하였다(9:7; 행 2:12; 5:24; 10:17).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아무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마태(참조, 14:2)와 마가(참조, 6:14)는 헤롯이 예수를 침례(세례)요한으로 여겨 두려워했다고 말한다.

9:8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이 문맥에서 모든 추측이 소생함과 관련을 가진다. 그 점은 19 절에서 거듭 반복된다. 엘리야와 침례(세례)요한은 비슷한 생활양식과 옷차림을 가진 선지자였다.

9:9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막 6:14-29 에 있다.

**개역개정 9:10-11**

<sup>10</sup>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니 데리고 따로 뱃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sup>11</sup>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9: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니” 예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을 듣고 또 그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려고 하셨지만 11 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언제나 일반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신 것은 참으로 놀랍다(그들을 환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고치심).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열 두 사도와 따로 계실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계획*을 보라.

▣ “고을” 이 점에 있어서 여러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1. “도시” - P<sup>75</sup>, K\*, B, L, X 사본(UBS<sup>4</sup>는 이것에 B 등급을 주고 있다)
2. “마을” - D 사본
3. “도시의 한적한 곳” - A, C, W 사본
4. “한적한 곳” - K<sup>\*.2</sup> 사본(마 14:13 및 막 6:32 과 비슷함)

여기서도 이러한 차이는 본문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뱃새다” 이 곳은 디베라 바닷가의 북쪽에 위치한다(참조, 요 6:1; 갈릴리 바다). 이 이름은 “사냥의 집”을 의미한다. 이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다(참조, 요 1:44; 12:21). 분봉왕 빌립이 이 마을을 도시의 규모로 확장시키고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딸의 이름인 줄리어스로 재명명했다(참조, 요세푸스의 *고대사*, 18.2.1).

**개역개정 9:12-17**

<sup>12</sup>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sup>13</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sup>14</sup>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sup>15</sup>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sup>16</sup>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sup>17</sup>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9:12 예수께서 유명하게 되심을 인해 교외에 가서 설교를 하셔야 되었다. 어떤 건물도 그들을 수용할 만큼 크지 않았으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따로 떨어진 빈들에서 갖는 어려움은 무리의 필요를 충족할 설비가 없었다는 점이다(음식, 피난처, 화장실 등). 사도들은 이러한 면들에 대하여 현실적인 우려를 나타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다!

9:13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천 명을 먹이신 일은 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다(참조, 마 14:13-31; 막 6:32-44; 요 6:1-4). 모세처럼 메시아가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랍비들이 해석한 구약의 약속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기적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일은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였다(참조, 신 18:15,18; 시 132:15; 사 49:10). 이 사건은 왕하 4:42-44 에 대한 암시로서 예수님의 선지자적 역할을 나타내는 표적이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심과도 관련이 있다(참조, 4:3-4). 우리가 예수의 동기를 종종 오해하여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참조, 요 6:14,15).

▣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우리는 요 6:9 을 통하여 이것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음을 안다. 예수님의 명령(부정과거 능동 명령)은 그들로 하여금 가진 바 양식에 대한 분석을 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

▣ “아니하고서는” 이것은 보통은 예언과 함께 쓰이는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인데 여기서는 예의와 함께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14:5 및 빌 3:12). 이 문장은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말한다.

9:14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됴이러라” 이 무리가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수의 무리였을 것이다.

▣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예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 앉게 하셨다.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50 명씩 그룹을 지어 앉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의 그룹이 만들어졌을지를 상상해보라. 섬기는 12 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은 아주 벅찼다!

9:16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셨고 이를 잘 인식하셨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취하는 전형적 자세는 다음과 같았다:

1. 서 있음
2. 하나님께 손을 들
3. 눈을 떠서 위를 바라봄
4.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림

▣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기도함과 떡 썬을 나타내는 앞의 두 동사는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지만 세 번째 단어는 미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계속해서 쬼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떡을 때시고 그것을 전달해 주셨을 때 기적이 계속 일어났다! 이 무리의 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제자들은 또 크게 놀랐다.

9:17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바구니”는 사천 명을 먹이신 때(막 8:8)에도 언급되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손으로 드는 커다란 크기의 것(스퀴리스)이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작은 크기의 배낭(코피노스)을 뜻한다. 제자들은 나중에 먹으려고 빵을 거두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울 목적으로 예수께서 정교적으로 많은 양의 양식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누가는 마가의 연대기를 따르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가복음에 있는 큰 단락(즉, 6:45-8:26)이 17 절과 18 절 사이에서 생략되어 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을 누가가 다루려 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한다.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다(6:14-8:30).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누가가 이러한 강조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마가가 포함시킨 바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생략하는 것이다.

#### 개역개정 9:18-22

<sup>18</sup>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sup>19</sup>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sup>20</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sup>21</sup>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sup>22</sup>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9:18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마 16:13 이하를 보라. 누가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주요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음을 다른 복음서 보다는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제자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특별한 핵심 그룹에 속하는 제자들(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8 절과 9 절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은 세 가지 추측의 내용이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다. 엘리야가 메시아의 왕국과 관련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점이다(참조, 말 4:5). “옛 선지자 중의 한 명”은 신 18:15,18 에서 모세가 진술한 바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9:20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복수형)가 강조되었다.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 “하나님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의 대변인인 베드로는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여 말하고 있다(2: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다. 한편, 그들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진 것은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랍비들의 유대교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참조, 행 1:6).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사사들과 같이 권능을 힘입은 유대 지도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외국의 지배로부터 군사적으로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에게 힘있는 독립국가로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재판자적 모습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하실 바로

그 일이다. 한편, 그들은 메시아께서 창 3:15; 시 22 편; 사 53 장; 겔 9-14 장; 속 9 장에 기록된 바 겸손하시고 고난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다.

**9:21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절은 명령을 나타내는 두 개의 강력한 용어로서 위협도 내포한다. 이 문장이 매우 특이하기에 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복음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이 가진 거짓된 메시아적 개념 이외에는 사람들에게 이를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음이 분명하다(참조, 8:56 에 있는 모든 본문의 목록을 보라). 우리는 이 복음서들이 이 사건보다 몇 십년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사건 전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요한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독자에게 이것이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9:22 “인자”** 이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택하신 호칭이었다. 이 단어에는 랍비들이 가진 의미가 없었다. 이 구는 “인간”을 뜻한다(참조, 시 8:4; 겔 2:1). 한편, 단 7:13-14 에서 이것은 신성을 나타낸다. 5:2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반드시)” 테이**라는 이 헬라어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고난받으셔야만 했다(참조, 44 절; 12:50; 13:33; 17:25; 18:31-33; 22:37; 24:7,26,46). 인간의 죄를 반영하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가(참조, 막 10:45; 고후 5:21)! 어떤 면에서 이 용어는 이것에 뒤따르는 모든 구와 더불어 번역되어야 한다.

▣ **“많은 고난을”**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된 것은 그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었다(참조, 고전 1:23). 구약은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시는 한 메시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약은 창 3:15; 시 22 편; 사 53 장; 겔 9-14 장; 속 9 장과 같은 본문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드러낸다—이 메시아를 유대민족(또한 사도들도 오랫동안)이 잘못 이해했다.

▣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이것은 시 118:22 의 암시이다(참조, 20:17). “버린 바”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을 검사한 후 거부함을 뜻하는 법률적 용어이다. 이 일련의 **명사**는 산헤드린이 숙고함을 반영한다. 이것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었고 70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로마제국의 지배 하에서 제한된 권력을 행사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과 그 비용에 대해 충분히 아셨다(참조, 막 10:45).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산헤드린**

I. 자료

- 가. 신약 자체에서
- 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 다. 탈무드의 미쉬나 단락(즉, “산헤드린”에 대한 평론)  
불행하게도 신약과 요세푸스는 랍비들의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후자는 예루살렘에 두 개의 산헤드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하나는 제사장들로 구성되어(즉,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주관하였으며 공공의 일과 사법적 판결을 다루었으며,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것으로서 종교와 전통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랍비들의 저작은 주후 200 년에 속하는 것으로서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일어난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압니아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재건했는데 이것은 후에(즉, 주후 118 년) 갈릴리로 옮겨 갔다.

II. 용어

- 이 사법기관을 규명함에 있어서 따르는 문제는 이것이 여러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에 기인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공동체에서 이 사법기관을 일컫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 가. *케루시아* - “상원” 혹은 “회의.”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사용되던 가장 오래된 용어이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2.3.3 과 마카비 2 서 11:27). 누가는 행 5:21 에서 이 용어를 “산헤드린”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였다(참조, 마카비 1 서 12:35).
  - 나. *쉬네프리온* - “산헤드린.” 이것은 *쉬*(함께)과 *헤드라*(자리)의 합성어이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헬라어 단어를 반영한다. 마카비 시대 말엽에 이 단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받아들여졌다(참조, 마 26:59; 막 15:1; 눅 22:66; 요 11:47; 행 5:27).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예루살렘 이외에 있던 지역의 사법기관을 가리킬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참조, 마 5:22; 10:17).
  - 다. *프레스바이테리온* - “장로들의 회의”(참조, 눅 22:66). 이것은 구약에서 지파의 지도자들을 뜻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 법정을 가리키게 되었다(참조, 행 22:5).
  - 라. *볼레* - “회의”라는 이 용어를 요세푸스가 여러 종류의 사법기관을 일컫기 위해 사용했다(즉, *유대전쟁사* 2.16.2; 5.4.2. 그러나 신약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 (1) 로마의 원로원 (2) 로마의 지방 법원 (3)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 (4) 유대인의 지방 법정.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가 산헤드린의 구성원임을 말한다(즉, *볼류테스*, “자문관”을 뜻함, 참조, 막 15:43; 눅 23:50).

### III. 역사적 발전

원래 에스라가 대회당을 포로기 이후에 시작한 것으로 말해진다(참조, 아 6:1 에 대한 탈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산헤드린인 것으로 보인다.

- 가. 미쉬나(즉, 탈무드)는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 두 개의 주요 법정이었다고 기록한다(참조, Sanh. 7:1).
  - 1. 하나는 70 인(혹은 71 인)으로 구성되었다(*Sand.* 1:6 은 모세가 처음 산헤드린을 민 11 장에서 세웠다고까지 주장한다[참조, 민 11:16-25]).
  - 2. 다른 하나는 23 인으로 구성되었다(그러나 이것은 지역에 있던 회당에서 열린 법정을 의미할 것이다).
  - 3. 어떤 유대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23 인으로 구성된 세 산헤드린이 있었다고 믿는다. 세 기관이 함께 모일 때 두 지도자를 포함해서 71 명으로 구성된 “대 산헤드린”을 이루었다(즉, *나시와 압 뽀 단*).
    - ㄱ. 하나는 제사장들(즉, 사두개인들)
    - ㄴ. 하나는 법률가들(즉, 바리새인들)
    - ㄷ. 하나는 귀족들(즉, 장로들)
- 나. 포로기 이후에 있어서 돌아온 다윗 계열의 자손은 스룹바벨이었고 아론 계열의 자손은 여호수아였다. 스룹바벨이 죽고 난 후에는 다윗의 씨가 이어지지 않았기에 사법적 권한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참조, 마카비 1 서 12:6)과 지역의 장로들(참조, 느 2:16; 5:7)에게로 이어졌다.
- 다. 제사장들이 사법 결정에 대해 가진 이러한 역할은 헬라시대에 기록된 디오도루스 40:3:4-5 에 나타난다.
- 라. 제사장들이 정부에 대해 가진 이러한 역할은 셀루시드 시기까지 이어졌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12.138-142 에서 안티오쿠스를 “대왕” 3 세(주전 223-187 년)로 일컫는다.
- 마.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3.10.5-6; 13.15.5 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가진 권력은 마카비 시대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바. 로마 시대에 시리아의 총독(즉, 주전 57-55 년에 다스린 가브니우스)이 다섯 개의 지역 “산헤드린”을 세웠는데(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4.5.4; *유대 전쟁사* 1.8.5) 이것을 로마가 후에 무효화 시켰다(즉 주전 47 년에).
- 사. 산헤드린은 헤롯에게 정치적 대립을 했는데(즉, *유대 고대사* 14.9.3-5), 헤롯은 주전 37 년에 이들에게 보복을 가해 대법정의 구성원 대부분을 죽였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4.9.4; 15.1.2).
- 아. 요세푸스(참조, *유대 고대사* 20.200.251)는 로마의 행정 장관들(즉, 주후 6-66 년) 치하에서 산헤드린이 다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참조, 막 14:55). 신약에는 산헤드린이 대제사장 가족의 지도 아래서 법정 판결을 행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 1. 예수의 재판(참조, 막 14:53-15:1; 요 18:12-23,28-32)
  - 2. 베드로와 요한(참조, 행 4:3-6)
  - 3. 바울(참조, 행 22:25-30)
- 자. 유대인들이 주후 66 년에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 로마는 주후 70 년에 유대인 사회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산헤드린은 영구적으로 해산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유대인의 종교 생활(행정적 면이나 정치적 면이 아님)을 위한 최고 법정 기구(즉, *뽀 단*)가 재건되도록 했다.

### IV. 구성원

- 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최고 법정 기구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는 내용은 대하 19:8-11 에 있다. 이것은 (1) 레위인들 (2) 제사장들 (3) 가족의 지도자(즉, 장로들, 참조, 마카비 1 서 14:20; 마카비 2 서 4:44) 들로 구성되었다.
- 나. 마카비 시대에 이것은 (1) 사두개파인 제사장 가족 (2) 지역의 귀족들(참조, 마카비 1 서 7:33; 11:23; 14:28)이 주류를 이루었다. 마카비 시대의 후기에는 “서기관들”(모세의 법의 법률가들, 대개는 바리새인들)이 추가되었는데 알렉산더 안네우스의 아내 살로메(주전 76-67 년)에 의해서 된 일이다. 그녀는 바리새인들이 주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라고까지 말해진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1.5.2).
- 다. 예수님 당시에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았다.
  - 1. 대제사장의 가족들
  - 2. 부유한 지역민들
  - 3. 서기관들(참조, 11:27; 눅 19:47)

### V. 참고 자료

- 가. *예수와 복음서 사전*, IVP, 728-732 쪽
- 나. *존더만 성경 그림 백과*, 제 5 권 268-273 쪽
- 다. *새 샤프-헤르족 종교 지식 백과*, 제 10 권 203-204 쪽
- 라. *해석가의 성경 사전*, 제 4 권 214-218 쪽
- 마. *유대 백과*, 제 14 권 836-839 쪽

▣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께서는 약 30 시간 동안 무덤에서 어딘가에 계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삼일로 계산한다(참조, 고전 15:3-4). 황혼 때부터 다음 날 황혼 때까지로 이루어진 하루의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만 하루로 계산하였다.

1. 3시에 돌아가셨지만 금요일 저녁 6 이전에 무덤에 장사지냈다(첫째 날)
2. 유월절 주간의 매우 거룩한 안식일 전부를 무덤에 계심(둘째 날)
3. 아주 거룩한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의 이른 새벽 어느 때에 부활하셨다(셋째 날)

이 구는 호 6:1-2 을 가리킬 것이다. 이 내용은 이 절에 대한 아람어 탈굼에서 비슷하게 해석되었다. 한편, 예수께서 요나서 1:17 에 대한 암시를 하시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마 12:39; 16:4). 이러한 종류의 예언적 표적은 12 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이었다(참조, 마 16:4). 이러한 종류의 예언은 신 13:2-5; 18:18-22 에 비추어 그가 참 예언자인지를 규명하는 기초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에 표적을 계속 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는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삼일”이라는 구를 종종 사용하였다(참조, 9:22; 13:32; 18:33; 24:7,21,46; 행 10:40).

**특별주제: 부활**

가. 부활의 증거

1. 50 일 후에 있는 오순절에 행한 설교에서 베드로는 부활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다(참조, 행 2 장). 부활이 일어난 이 지역에 살던 수 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2. 제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낙담(그들은 부활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에서 순교를 받는 정도로까지 담대하게 되었다.

나. 부활의 중요성

1. 예수께서 그가 주장하셨던 바와 같은 분이심을 드러낸다(참조, 마 12:38-40 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함)
2. 예수의 삶, 가르침, 대속적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증한다! (참조, 롬 4:25)
3.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나타낸다(즉, 몸의 부활, 참조, 고전 15 장)

다. 예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에 있다

1. 마 12:38-40; 16:21; 17:8,22,23; 20:18-19; 26:32; 27:63
2. 막 8:31; 9:1-10,31; 14:28,58
3. 눅 9:22-27
4. 요 2:19-22; 12:34; 14-16 장

라. 참고 자료

1. 조쉬 맥도웰의 *평결을 요구하는 증거*
2. 프랭크 모리슨의 *누가 돌을 옮겼는가?*
3. *존더반 그림 성경백과*, “부활,” 예수의 부활”
4. 벌코프의 *조직신학*, 346 쪽과 720 쪽

**개역개정 9:23-27**

<sup>23</sup>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sup>24</sup>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sup>25</sup>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sup>26</sup>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sup>27</sup>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9:2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 “**아무든지**” 여기에 선택하심과 자유의지의 신비가 또 나온다.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었다(모든 사람이 그가 하시는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며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었음). 그러나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하여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응답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참조, 요 6:44,65). 양식 자체는 낮은 급의 동기이다(참조, 요 6:15).

▣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문장에 세 가지 명령형이 나온다. 처음 것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자기 자신을 부인하다”)로서 그 뒤를 부정과거 능동(“날마다 지고”)가 따르지만 마지막 것은 현재 능동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이다. 여기에 문과 길이 있다(참조, 마 7:13-14). 초기의 응답과 지속적인 응답이 있다. 둘이 다 필요하다! 이 문장은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에 대하여는 단번의 최종적 죽음을 선언하며 예수님과 그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행할 것에 대해 말씀한다(참조, 마 10:38; 갈 2:20; 6:14).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단번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다. 정죄받은 죄수는 자기의 십자가(가로 지르는 나무)를 지고 사형장까지 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매일 살기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참조, 롬 6 장; 8:36; 고전 15:31; 고후 5:14-15; 갈 2:20; 요일 3:16).

범죄(창 3 장)는 인간으로 하여금 독립성과 자기 중심적 생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신자들은 이기적이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이것은 세계관과 생애(즉, 매일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이룬다. 이것은 일회적 결심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참조, 14:33).

**9:24 “목숨 . . . 목숨”** 이것은 구약 용어인 네페스를 뜻하는 프쉬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언어유희이다. 두 용어는 인간의 인성 혹은 생명력을 나타낸다(참조, 눅 17:33; 막 10:38-39; 요 12:25). 나는 이 두 용어가 유대인이 말하는 두 세대와 관련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육신의 생명은 이 반역하고 타락한 세대에 묶여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오는 세대의 한 부분을 이룬다. 9:2의 특별주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보라.

언어유희가 “목숨” 뿐 아니라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 단어의 구약적 의미는 육체적 구출을 의미하였지만 이 단어의 신약적 의미는 영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뜻한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를 신뢰하며 따르기로 하는 결정은 즉각적인 결과 뿐 아니라 시간적 한계를 초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보답해야만 한다(참조, 고후 5:14-15; 갈 2:20; 요일 3:16)!

**9:25** 이것은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다. 이것은 12:16-20 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매우 비슷하다. 이 세상(세대)에 집착하는 자는 다음 세상의 것을 잃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기거나/사랑할 수 없다(참조, 16:13; 마 6:24).

**9:26 “누구든지”** 초대와 같이 경고도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참조, 23,24 절).

▣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것은 각 사람이 복음에 대면하는 때를 가리킨다. 이같은 진리가 약간 다른 표현으로 마 10:32-33; 눅 12:8-9 에 나온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오늘 결정한 결정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예수는 복음이시다!

▣ **“(인자도) . . . 올 때에”** 구약은 메시아께서 한 번 오심에 대해 명백히 말한다. 한편 예수께서는 창 3:14; 시 22 편; 사 53 장 또한 메시아의 고난받으심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다. 메시아께서 코스모스의 주와 재판장이신 메시아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심에 대한 기대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초림으로 기대했던 바로 그 내용이였다. 마음이 닫혀지고 신학적 교조주의에 빠짐으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재림은 신약에서 가르치는 중요하면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진리이다(참조, 마 10:23; 16:27-28; 24:3,27,30,37; 26:64; 막 8:38-39; 13:26; 눅 21:27; 요 21:22; 행 1:11; 고전 1:7; 15:23; 빌 3:20; 살전 1:10; 2:19; 3:13; 4:16; 살후 1:7,10; 2:1,8; 약 5:7-8; 벧후 1:16; 3:4,12; 요일 2:28; 계 1:7).

#### 특별주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신약의 용어

바울의 서신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써 인간이 예수(구주와 재판장이신)를 만나게 될 특별한 날에 대한 종말론적 강조를 하고 있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참조, 고전 1:8)
2. “주의 날” (참조, 고전 5:5; 살전 5:2; 살후 2:2)
3. “주 예수의 날” (참조, 고전 5:5; 고후 1:14)
4. “예수 그리스도의 날” (참조, 빌 1:6)
5. “그리스도의 날” (참조, 빌 1:10; 2:16)
6. “그(인자)의 날” (참조, 눅 17:24)
7. “인자가 드러나시는 날” (참조, 눅 17:30)
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참조, 고전 1:7)
9.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참조, 살후 1:7)
10. “주 예수께서 그의 오실 때에 나타나심 안에서” (참조, 살전 2:19)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적어도 4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었다.

1. *에피파니아*, 이것은 눈부시게 빛남을 뜻하며 신학적으로(어원적이 아님) “영광”과 관련을 가진다. 딤후 1:10; 딤후 2:11; 3:4 에서 이 단어는 예수의 초림(즉, 성육신)과 그의 재림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살후 4:8 에서 사용되었는데, 재림을 나타내는 세 가지 주요 용어가 이 본문에 모두 있다: 딤후 6:14; 딤후 4:1,8; 딤후 2:13.
2. *파루시아*, 이것은 임재를 뜻하며 원래는 왕의 방문을 가리킨다. 이것은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이다(참조, 마 24:3,27,37,39; 고전 15:23; 살전 2:19; 3:13; 4:15; 5:23; 살후 2:1,8; 약 5:7,8; 벧후 1:6; 3:4,12; 요일 2:28).

3.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계시의 목적으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심을 뜻한다. 이 단어는 신약의 마지막 책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눅 17:30; 고전 1:7; 살후 1:7; 뱀전 1:7; 4:13).
4. *파네로오*, 이것은 빛을 비추임 혹은 명확히 드러내거나 계시하심을 뜻한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여러 면을 나타내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에피파네이아*의 경우와 같이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초림(참조, 뱀전 1:20; 요일 1:2; 3:5,8; 4:9)과 재림(참조, 마 24:30; 골 3:4; 뱀전 5:4; 요일 2:28; 3:2)을 가리킬 수 있다.
5. “오다”를 뜻하는 가장 일반적 단어인 *에르코마이*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종 나타낸다(참조, 마 16:27-28; 23:39; 24:30; 25:31; 행 1:10-11; 고전 11:26; 계 1:7,8).
6. 이 단어는 “주의 날”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참조, 살전 5:2). 구약에서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축복(부활)과 심판을 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신약 전체는 구약의 세계관을 기초로 쓰였으며 다음을 주장한다

1. 현재의 악하고 반역적인 시대
2. 오고있는 의의 새 시대
3. 이것은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일을 통한 성령의 작용으로 초래되었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약간 수정했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에 따른 신학적 가정이 요구된다.

군사적이고 국가적(이스라엘)인 메시아가 오는 것 대신에 두 번의 오심이 있다. 첫 번째 오심은 나사렛 예수의 수태와 태어 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이었다. 그는 군인이나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사 53 장에 있는 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또한 슄 9:9의 나귀 새끼(전쟁의 말이나 왕의 노새가 아닌)를 탄 겸손한 분이셨다. 그의 첫 번째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최소한 분명치 않은 두 시대에 대해 유대인들이 말한다.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심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것은 유대인이 말하는 두 시대와 겹쳐진다. 사실상 메시아가 두 번 오심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야웨의 헌신을 강조하여 드러낸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선지자들의 설교, 특히 이사야서와 요나서).

대부분의 예언이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참조,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가*, 165-166 쪽).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바라던 의의 새시대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일 곧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일이다(참조, 마 6:10). 구약의 예언은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야웨의 능력과 권위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것은 신약 전체의 세계관과 골격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바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의 교제는 회복될 것이다. 악이 심판을 받고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으며 실패할 수도 없다!

### 특별주제: 재림

이것은 문자적으로 “*파루시아*까지”로서 “임재”를 뜻하며 왕의 방문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재림을 뜻하는 신약의 다른 용어들은 (1) *에피파네이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나타남” (2) *아포칼립시스* “베일을 벗김” (3) “주님의 날”과 이와 비슷한 구이다.

신약 전체는 구약의 세계관으로 쓰였으며 다음을 주장한다

1. 현재의 악하고 반역적인 시대
2. 오고있는 의의 새 시대
3. 이것은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일을 통한 성령의 작용으로 초래되었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약간 수정했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에 따른 신학적 가정이 요구된다.

군사적이고 국가적(이스라엘)인 메시아가 오는 것 대신에 두 번의 오심이 있다. 첫 번째 오심은 나사렛 예수의 수태와 태어 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이었다. 그는 군인이나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사 53 장에 있는 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또한 슄 9:9의 나귀 새끼(전쟁의 말이나 왕의 노새가 아닌)를 탄 겸손한 분이셨다. 그의 첫 번째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최소한 분명치 않은 두 시대에 대해 유대인들이 말한다.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심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것은 유대인이 말하는 두 시대와 겹쳐진다. 사실상 메시아가 두 번 오심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야웨의 헌신을 강조하여 드러낸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선지자들의 설교, 특히 이사야서와 요나서).

대부분의 예언이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참조,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가*, 165-166 쪽).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바라던 의의 새시대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일 곧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일이다(참조, 마

6:10). 구약의 예언은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야웨의 능력과 권위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것은 신약 전체의 세계관과 골격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바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의 교제는 회복될 것이다. 악이 심판을 받고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으며 실패할 수도 없다!

■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이것은 단 7:10의 예언이다(참조, 마 16:27; 막 13:20; 눅 9:26; 살후 1:7).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내용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모으는 자로서 또한 사람들을 구분짓는 자로서 천사들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참조, 13:39-41,49; 24:31).

구약에서 “영광”(카보드)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 단어는 원래 상업적 용어(짜을 이루는 두 개의 저울 추)로서 “무거움”을 뜻하였다. 무거운 것은 값이 있음 혹은 내재적인 가치가 있음을 뜻하였다. 종종 밝다는 개념이 여기에 추가되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었다(참조, 출 15:16; 24:17; 사 60:1-2). 그는 홀로 존귀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광채를 인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다(참조, 램 1:14; 마 17:2; 히 1:3; 약 2:1). 2:9의 특별주제를 보라.

9:27 예수님의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의 말씀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1. 예수님의 승천
2. 예수 안에서 이미 제시된 왕국
3.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
4.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
5. 예수께서 일찍 돌아오심에 대한 기대
6. 기독교가 신속히 전파됨
7. 변화산 사건

이 이론들은 본문에서 각기 다른 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ㄱ.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 ㄴ. “하나님의 나라”
- ㄷ. “영광으로”(막 9:1과 평행을 이룸)

인근의 문맥을 통하여 볼 때 가장 좋은 설명은 7항의 내용이다(참조, 막 9장; 마 17장; 또한 뱀후 1:16-18). 한편 다른 어떤 설명도 마가복음(막 8:38)에 있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 “참으로” 누가는 막 9:1에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알레소스로 바꾸었는데, 이는 자신의 독자들인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4:24의 특별주제: 아멘을 보라.

■ “전에” 이것은 강력한 이중 부정이다.

■ “죽기” 이와 같은 표현이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공관복음서의 본문에서 사용되었다(마 16:28; 막 9:1. 이 표현은 또한 요 8:51,52; 히 2:9에서도 사용되었다).

#### 개역개정 9:28-36

<sup>28</sup>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sup>29</sup>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sup>30</sup>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sup>31</sup>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sup>32</sup>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sup>33</sup>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sup>34</sup>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sup>35</sup>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sup>36</sup>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9: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이와 평행을 이루는 막 9:2에는 “육 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왜 네 복음서가 시간, 순서, 세부 사항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도록 허용하셨는가 하나의 신비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성경에 대해 “무오함”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네 복음서 가운데 어느 복음서가 역사적으로 정확한가? 네 복음서가 다 맞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서구의 문자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동양의 고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마가복음의 “육 일”과 관련이 있는 한 가지 이론은 이 사건이 출 24:12-18의 사건과 관련을 가진다는 점이다.

▣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산은 문맥상 헤르몬 산을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참조, 마 16 장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정경이 아닌 히브리인들에 따른 복음서라는 전통은 다불 산을 이 산으로 말한다. 4 세기의 전통은 다불 산을 예수께서 변화하신 산과 유혹을 받으신 장소로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하시러”를 말한다. 예수님의 기도생활은 누가복음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9:29 다른 두 공관복음서(참조, 마 17:1-11; 막 9:2-8)에서는 변화하신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외적 모습이 변화함을 뜻하는 *μεταμορφω*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 바울은 롬 12:2; 고후 3:18 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외적으로 변화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누가는 예수께서 두 명의 구약 지도자들과 만나실 때 영광의 광채로 빛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참조, 막 9:3).

9:30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은 명백히 (1)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인물(참조, 신 18 장과 말 3-4 장) 혹은 (2) 특별하게 죽어서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 유대교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히브리 정경의 오경과 예언서를 대표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힘을 복돋고 또한 곧(우회적 현재 능동 부정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의논하려고 나타난 것이다(참조, 31 절).

9:32 “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것은 문자적으로 “잠을 지고 있었다”로서 우회적 완료 수동이다. 이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참조, 마 26:43).

▣ “예수의 영광과 ...을 보더니” 이것은 이 사건의 목적을 나타낸다. 조금씩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셨다!

9:33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이어서 종종 주제넘게 경솔히 말하였다. “초막”은 초막절동안 잠시 지내려고 앞으로 만든 만들었던 움막이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계속 지속하고 싶었다. 누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겠는가? 한편 그들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것은 예수께서 특별하신 분이심을 베드로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모세 밋 엘리야와 같은 수준의 인물이 아니셨으며 또 그러한 수준이실 수 없으신 분이셨다. 예수께서는 한 선지자가 아니셨고, 오히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참조, 35 절).

9:34 “구름” 나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영광의 *쉐키나*라고 생각한다(참조, 출 13:21,22; 14:19,20,24; 16:10; 19:9,16; 24:15,16,18; 40:34-38; 민 9:15-23). 이 구름은 야웨의 임재하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신약에서 여러 번 나타났다.

1. 예수께서 침례(세례)받으실 때에
2. 변화산에서
3. 승천하실 때
4.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참조, 살전 4:13 이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수단이었다(참조, 단 7:13; 마 24:30; 26:64; 행 1:9-11; 계 1:7).

▣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것은 성령께서 덮으사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였음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바로 그 단어였다(참조, 1:35). 이것은 놀라운 영적 경험이었다!

9: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독특한 일이 아니었다. 랍비들은 이러한 일을 *발콜로* 불렀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한 전통이었다.

▣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되었다.

1. 마가복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막 9:7)
2. 마태복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마 17:5)
3. 누가복음,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P<sup>45</sup>, P<sup>75</sup>,  $\aleph$ , B, L 사본; UBS<sup>4</sup>는 이것에 “B”등급을 준다)

누가복음에 있는 진술은 왕인 메시아와 관련된 시편인 시편 2 편(내 아들)과 사 42:1 에 있는 종의 노래(내가 택한 자, 참조, 눅 23:35)의 합성으로 여겨진다. 이 조합에서 두 기능(구주와 재판장) 혹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구주와 재판장/왕—이 하나로 합성되었다.

세 기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이다(현재 능동 명령 - 복수형). 이것은 신 18:15 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본문을 암시한다.

9:36 이 경험이 매우 두려운 일이었기에 그들은

1. 예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2. 부활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조차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개역개정 9:37-43a**

<sup>37</sup>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sup>38</sup>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sup>39</sup>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sup>40</sup>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sup>41</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sup>42</sup>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sup>43</sup>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9:37-62 이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이다.

1. 귀신들린 소년, 37-43
2.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43-45 절
3.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다툼, 46-48 절
4.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이에 대한 시기, 49-50 절
5. 사도들의 분노, 51-56 절
6. 혼합된 충성도, 57-62 절

9:37-43a 막 9:14-20 은 이 병고침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다.

9:39 이것은 대발작으로 불리는 증세를 나타낸다. 귀신들림은 종종 질병의 증세를 나타낸다. 한편 신약은 질병과 귀신들림을 분명히 구분하여 제시한다.

9:40 예수께서는 9:1-6 에서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한편 이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

9:4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신 32:5,20 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암시한다. 이 말씀은 제자들 뿐 아니라(참조, 마 17:19-21) 무리(이스라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개역개정 9:43b-45**

<sup>43b</sup>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sup>44</sup>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sup>45</sup>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9:44

NASB, NRSV

“이 말들을 너희 귀에 잠기게 하라”

NKJV

“이 말들을 너희 귀에 잠기게 하라”

TEV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잊지마라”

NJB

“너희로서는 이 말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

이것은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출 17:14). *티세미*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두다” “놓다” 혹은 “놓아 두다”를 뜻한다. 여기에 명령법이 사용되어 주의를 환기시키며 기억을 돕는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한 “진실로 진실로”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모든 공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과 경고를 주고 계시다. 이것은 70 인역의 사 53 장에 대한 암시(특히 12 절, 즉, “구출”)이다. 마가는 9:30-32 에서 더 자세히 언급한다. 예수께서는 여러 이유에서 이 일을 예언하신다:

1.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수께서 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2.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3. 그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9:45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의 눈(참조, 18:34)은 가리워 있었다(우회적 완료 수동 분사).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인가 혹은 사탄이 행한 일인가? 만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제자들은 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때가 되면 그들이 알게 된다. 만일 사탄이 한 일이라면 그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더 큰 두려움과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인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내용이 숨겨진 사실은 나로 놀라게 한다. 왜 누가는 이 내용을 말하는가? 무엇이 그의 목적이었는가?

제자들이 가진 혼동과 두려움은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참조, 36 절). 이 단락 전체가 사도들의 미성숙함에 대해 말한다.

**개역개정 9:46-48**

<sup>46</sup>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sup>47</sup>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sup>48</sup>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9:46-48 이 변론은 서로 약간 다르지만 모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참조, 막 9:33-37; 마 18:1-5). 37-56 절은 제자들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했다(그들이 베드로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참된 위대함은 지배함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신다!

**특별주제: 섬기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엡 4:11), 그들은 상전이 아니라 여전히 섬기는 자들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섬기는 자/사역자라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 여러 용어를 사용한다.

- 가. 가정에서의 도움(원래 “먼지를 일으키는 자”)
  - ㄱ. 디아코노스, 고전 3:5; 고후 3:6; 6:4; 11:15(2 회), 23
  - ㄴ. 디아코니아, 고전 16:15; 고후 3:7,8,9(2 회); 4:1; 5:18; 6:3; 8:4; 9:1,13; 11:8
  - ㄷ. 디아코네오, 고후 3:3
- 나. 종 혹은 조수, 휘페레테스(신약에서 이 용어는 여러 종류의 조수를 가리킨다), 고전 4:1
- 다. 노예(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명령을 받는 자)
  - ㄱ. 둘로스, 고전 7:21,22(2 회), 23; 고후 4:5
  - ㄴ. 둘로오, 고전 9:19
- 라. 협력자, 함께 돕는 자(쉬+ 일군), 쉐에르고스, 고후 1:24
- 마. 공급자(원래 합창단을 지원하는 자)
  - ㄱ. 코레게오, 고후 9:10
  - ㄴ. 에피코레게오, 고후 9:10
- 바. 사역자(70 인역에서 요셉이 보디발을 위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사무엘이 엘리에게, 아비삭이 다윗을 위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 레이투르기아, 즉, 70 인역에서 섬김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 고후 9:12)

이 용어들은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나타낸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을 섬기셨듯이(참조, 막 10:45), 신자들은 다른 이를 섬겨야 한다(참조, 요일 3:16).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들이다(참조, 마 20:20-28; 막 10:32-45; 눅 22:24-27). 거만과 자랑을 내세우는 파벌주의는 복음을 철저히 오해함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9:47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5:22 및 6:8 에 있는 설명을 보라.

이 구와 관련하여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어떤 본문에는 “아시고”(참조, K, B, F 사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보시고”로 되어 있다(참조, A, C, D, L, W, 별게이트역). 이 문맥상 둘 다 가능하다. UBS<sup>4</sup>는 이 본문의 “아시고”에 C 등급을 주고 있다.

9:48 “내 이름으로”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주의 이름**

이것은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과 강한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신약의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된 구이다. 이것은 마술적인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함을 나타낸다.

이 구는 종종 예수를 주님으로서 드러낸다(참조, 빌 2:11)

1. 사람이 침례(세례)시 예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참조, 롬 10:9-13; 행 2:38; 8:12,16; 10:48; 19:5; 22:16; 고전 1:13,15; 약 2:7)
2. 귀신을 내어 쫓을 때(참조, 마 7:22; 막 9:38; 눅 9:49; 10:17; 행 19:13)
3. 병을 고칠 때(참조, 행 3:6,16; 4:10; 9:34; 약 5:14)
4. 사역의 행동에서(참조, 마 10:42; 18:5; 눅 9:48)
5. 교회에서 징계를 행할 때(참조, 마 18:15-20)
6.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참조, 눅 24:47; 행 9:15; 15:17; 롬 1:5)
7. 기도할 때(참조, 요 14:13-14; 15:2,16; 16:23; 고전 1:2)
8. 기독교를 언급하는 방법으로서(참조, 행 26:9; 고전 1:10; 딤후 2:19; 약 2:7; 벧전 4:14)

우리가 설교자, 사역자, 조력자, 병고치는 자, 귀신 쫓는 자 등 그 어떤 일로 행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행해야 한다—주님의 이름으로!

▣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구는 요한복음의 신학적 강조점을 반영한다(참조, 요 17:3,8,18,21,23,25).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부께 의존함을 인정하셨다(참조, 눅 10:16). 예수께서는 또한 섬기셨다!

▣ 이같은 종류의 가르침이 22:26 과 마 10:40-42 에서도 나온다. 예수께서는 이 개념을 종종 다른 환경에서 가르치셨다. 중요한 진리는 위대함이 섬김에 있으며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자라는 점이다. 또한 예수의 이름이 삶을 바꾸는 권능을 가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말함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본받고 따라야 함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섬김, 즉 위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모본이시다(참조, 막 9:35b).

**특별주제: 보내다 (아포스텔로)**

이 단어는 “보내다”(즉, *아포스텔로*)를 뜻하는 헬라어로서 자주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몇 가지 신학적 용법을 가진다:

1. 랍비들은 부름을 받고 공적 대표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 단어는 “대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참조, 고후 5:20)
2. 복음서는 예수께서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을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메시아를 나타낸다(참조, 마 10:40; 15:24; 막 9:37; 눅 9:48; 특히 요 4:34; 5:24,30,36,37,38; 6:29,38,39,40,57; 7:29; 8:42; 10:36; 11:42; 17:3,8,18,21,23,25; 20:21). 이 단어는 예수께서 신자를 보내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요 17:18; 20:21)
3. 신약은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였다
  - ㄱ. 제자들의 소그룹인 최초의 12 제자(참조, 눅 6:13; 행 1:21-22)
  - ㄴ. 사도들을 도운 이들과 동역자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그룹
    - (1) 바나바(참조, 행 14:4,14)
    - (2)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스(KJV, 유니아, 참조, 롬 16:7)
    - (3) 아볼로(참조, 고전 4:6-9)
    - (4) 주님의 형제 야고보(참조, 갈 1:19)
    - (5) 실바와 디모데(참조, 살전 2:6)
    - (6) 아마도 디도(참조, 고후 8:23)
    - (7)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참조, 빌 2:25)
  - ㄷ.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난 은사(참조, 고전 12:28-29; 엡 4:11)
4. 바울은 그가 쓴 많은 편지에서 이 호칭을 자신에 대해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삼으신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참조, 롬 1:1; 고전 1:1; 고후 1:1; 갈 1:1; 엡 1:1; 골 1:1; 딤후 1:1; 딤후 1:1; 딤후 1:1).

**개역개정 9:49-50**

<sup>49</sup>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sup>50</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9:49-50 이것은 막 9:38-40 에서도 발견된다.

9:49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마술적 주문으로 사용하여 귀신쫓는 자임을 뜻하는지 혹은 그가 제자이지만 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가 핵심이다.

9:50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다른 교단에 대해 가질 중요한 원리이다(“내 이름으로”). 하지만 이 말씀은 맹목적인 용납을 뜻하지는 않는다(참조, 11:23).

▣ “금하지 말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서 진행중인 행동을 멈추라는 뜻을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제자들이 주의 사역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을 시기했다.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인가!

▣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11:23a 및 마 12:30a 와 이 본문을 비교해 본다면 역설적 내용으로 보이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의 가르치심은 많은 경우 이러한 종류의 긴장이 가득한 진술로 되어 있다. 이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동양적 방법이다. 모든 진리를 극단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은유, 유추, 예화 등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다 이상한 것으로 바뀐다. 이 내용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구두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성경의 어려운 표현(466-467 쪽)을 보라.

성경의 어떤 부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지 말라! 내가 좋아 하는 어떤 부분이나 구절 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 약간의 지식이 종종 적절치 않은 교조주의나 판단주의를 일으킨다!

이 짧은 내용이 후기의 교회 상황을 반영한다(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 복음서의 저자는 둘이다: (1) 예수님 (2) 복음서 기록자. 각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자신의 복음서가 목표로 하는 후기 청중에게 맞도록 글을 썼다. 심지어 비유에 있어서도 후기의 논쟁점과 연관을 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가르침의 일부를 택하였을 것이다.

**특별주제: 동양의 문학**

큰 그림 - 성경의 역설

1. 이 통찰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 나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서로 다른 본문이 조직적으로 정리된 진리가 아니라 취사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성경을 진지하게 다루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영감받은 본문은 영감받은 다른 본문을 취소하거나 그 뜻을 약화시킬 수 없다! 진리는 성경 전체를 알 때 얻게 되는 것이지(단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받은 것이다, 참조, 딤후 3:16-17), 어떤 본문을 인용함으로써(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대부분의 성경적 진리(동양의 문학)는 변증법적으로 혹은 역설적인 쌍으로 제시된다(누가를 제외한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졌고 대중적인 헬라어로 기록했다. 지혜문학과 시문학은 평행을 이루는 행으로 진리를 표현한다. 반의적 평행법은 역설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동의어적 평행법은 평행을 이루는 구절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어쨌든 양자가 똑같이 참이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단순한 전통적 방법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된다!
  - ㄱ.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 ㄴ.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 ㄷ. 원죄 대 의지적 죄
  - ㄹ.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 ㅁ.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 ㅂ.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 인간이 저자인 성경
  - ㅅ. 죄없음(완전함, 참조, 로마서 6 장) 대 죄를 적게 지음
  - ㅇ.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 ㅈ. 믿음으로 의롭게 됨(로마서 4 장) 대 행함으로 확인되는 의롭게 됨(참조, 약 2:14-26)
  - ㅊ. 그리스도인의 자유(참조, 롬 14:1-23; 고전 8:1-13; 10:23-33)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참조, 갈 5:16-21; 엡 4:1)
  - ㅋ.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 ㅌ.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 ㅍ. 구원에 대해 사용한 바울의 여러 은유
    - (1) 양자됨
    - (2) 성화
    - (3) 칭의
    - (4) 구속
    - (5) 영화
    - (6) 예정
    - (7) 화목케 됨
  - ㅎ.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 ㉓.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참조, 막 1:15; 행 20:21)
- ㉔. 영원히 있는 구약 대 내버려져 무효로되고 쓸모없이 된 구약(참조, 마 3:17-19 대 5:21-48; 로마서 7 장 대 갈라디아서 3 장)
- ㉕. 종/노예인 신자 대 자녀/상속자인 신자

**개역개정 9:51-56**

<sup>51</sup>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sup>52</sup>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sup>53</sup>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sup>54</sup>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sup>55</sup>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sup>56</sup>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9:51-62** 누가복음에서 이 새 단락은 예수께서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심을 말한다(참조, 9:51-19:44). 누가는 예수의 여행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구성하고 있다(참조, 51 절; 13:22; 17:11; 18:38; 19:11,28). 우리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중요한 이 단락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인해 감사한다.

9:51

NASB

“그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NKJV

“그 때가 된 때에”

NRSV

“그 날들이 가까운 때에”

TEV, NJB

“그 때가 가까이 오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가득 찬”(현재 수동 부정사)이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예수의 삶과 죽음을 위해 예정된 계획이 있었다(참조, 행 2:23; 3:18; 4:28; 13:29).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참조, 22,31 절). 이제 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시기가 가까이 다가 오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승천하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받을 재판, 죽음, 부활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참조, 9:22; 마 16:21; 막 8:31). 이제 누가는 “승천하실” 곧 부활 후 40 일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일을 소개한다(참조, 24:51; 행 1:2,9,11,22; 딤후전 3:16). 이 사건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여기서도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단지 지나가는 말로써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일은 엘리야의 승천(왕하 2:9-11)과 예수의 승천(행 1:2,11)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내용일 것이다.

**특별주제: 승천**

예수께서 승천하사 하늘로 가신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 있다:

1. 행 1:2,11,22, *아나람바노*, 위로 취하여 가다(참조, 딤후전 3:16). 이것은 70 인역의 왕하 2:9,11 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옮김을 말하기 위해서, 또 마카비 1 서 2:58 에서 사용되었다.
2. 행 1:9, *에파이로*, 오르다, 올라가다
3. 눅 9:51, *아나렙시스* (1 항의 형태임)
4. 눅 24:51, *디이스테미*, 떠나다
5. 요 6:62, *아나바이노*, 승천하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다. 마가복음은 16:8 에서 끝맺는다. 한편 후기에 속하는 서기관이 추가시킨 세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사건을 16:19 에서 다룬다(즉, *아나람바노*).

▣

NASB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NKJV

“그가 자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하시고”

NRSV

“그가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향하시고”

TEV

“그가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의 길을 정하시고”

NJB

“그가 단호하게 자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이것은 또 하나의 셈어적 표현이다. NRSV가 가장 문자적 번역이다. 예수께서는 은유적으로 똑바로 앞을 보셨다. 그는 어떤 것도 자신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이었다(참조, 막 10:32). 이 일은 사 50:7 혹은 렘 42:15,17(참조, 단 9:3)의 암시일 것이다.

**9:52**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미리 보내신 일에 대해 유일하게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들이 누구였고 또 왜 그들이 거부받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누가복음이 항상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왜 공관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이 부정적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지는 의아하다(참조, 10:25-27; 17:11-19; 행 1:8; 8:1-13,14,25; 9:31; 15:3). 누가는 소의를 받는 이 그룹의 사람들을 종종 언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즉, 자신의 이방인 청중)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돌보심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9: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이것은 유대인/사마리아인의 선입관과 관련을 가진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 미워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의 축제에 참석하시기 위해 여행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았고 또한 참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 근처에 있는 그리심 산에 있다고 그들이 여겼기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요세푸스는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 여행객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언급한다(참조, *고대사*, 20.6.1).

이 절은 54 절에 있는 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및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일(55 절)의 배경을 이룬다.

**9:54 “야고보와 요한이”** 막 3:17 을 보라. 거기서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아들들”로 불린다. 바로 이 사건을 인해 그들이 그러한 별명을 얻었다.

▣ KJV(NRSV와 TEV의 각주)는 한 구를 삽입한다(“엘리야가 하였듯이,” 이것은 A, C, D, W 사본에 있음). 하지만 이 구는 P<sup>45,75</sup>, ~~8~~, B, L 사본에는 없다. UBS<sup>4</sup> 위원회는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9:55-56** KJV는 한 구를 삽입한다(“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상태의 영인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대문자체 사본인 K와 후기의 사본에서만 발견된다. 이 구는 P<sup>45,75</sup>, ~~8~~, A, B, C, L, W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UBS<sup>4</sup> 위원회는 짧은 본문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 개역개정 9:57-62

<sup>57</sup>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sup>58</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sup>59</sup>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sup>60</sup>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sup>61</sup>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sup>62</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9:57-62** 제자가 치러야 할 값은 모든 문화적, 가족적 유대를 뛰어 넘는 근본적인 헌신이다. 세 사람이 각각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다(참조, 57,59,61 절). 중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케넬 E. 베일리, 농부의 눈을 통하여, 22-32 쪽), 예수께서 따르라고 부르심은 근본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편안한 삶이 아닌 고난과 거부받음에로의 부르심이었다. 이 부르심은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의 대상인—“가족”—에게서 떠나 새 가족의 일원이 됨을 뜻하였다(참조, 8:19-21; 마 12:46-50; 막 3:31-35).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치러야 할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신다(참조, 14:25-35). 예수께서 초립하신 것은 고난과 거부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이 일이 그를 따르는 자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 1 세기의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중(참조, 사 53 장)이 아니라 힘있고 영광스럽게 정복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다니엘서).

**9:57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와 평행을 이루는 마 8:19-22 에서는 “한 서기관이 말했다”라고 기록한다.

▣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열심을 가진 제자는 좋은 의도를 가지긴 했지만 교제를 인해 치러야 할 값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참조, 마 26:33,35). 말로는 쉽지만,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렵다.

**9:58** 예수께서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말씀하셨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왕국에서 받을 호의와 특전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참조, 마 20:20-28; 막 10:35-45; 행 1:6). 이러한 성향은 “나를 위한 그 무엇이 있는” 기독교와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기독교는 ‘나에게 좀 더 많이’를 부르짖는 것으로 복음의 내용을 바꿔 버린다!

9:59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용어였다. 우리는 예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열두 제자에게 하셨음을 알고 있다(참조, 5:27; 9:23,59; 18:22; 마 4:19; 8:22; 9:9; 16:24; 19:21; 막 2:14; 8:34; 10:31; 요 1:43; 10:27; 12:26; 21:19-22).

▣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왕상 19:19-20 에서 한 말과 매우 비슷하다. 고대 세계에서 자녀들(특히 장자)은 자신의 부모를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61 절). 한편 예수께서 교제를 위해 부르신 부르심은 지상의 모든 의무를 뛰어 넘는다(참조, 마 10:37-39; 눅 14:26-35). 이 진술은 랍비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품은 어떤 단어를 사용한 경우에 속한다(9:24 에서 사용한 “생명”[프쉬케]의 경우와 같다). 여기서 “죽은”은 영적으로 죽은 것(참조, 엡 2:1)과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가리킨다. 죽은 자들이란 예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가리킨다.

9:60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구 명령은 대위임에서 명한 사역을 나타낸다(참조, 24:47; 마 28:18-20; 행 1:8).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삶(참조, 창 3 장)이 왕국을 중심으로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참조, 8:1; 9:6). 그는 열두 사도(9 장)와 70 인(10 장)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

9:62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 왕국은 궁극적인 실재이다! 개인과 문화의 모든 영역보다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는 유일하게 값진 목적이다. 꾀대에 계속해서 집중하라!

고대에는 가축을 사용하여 밭을 갈 때 앞에 있는 지면을 집중해서 살피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종류의 위험이 따랐다:

1. 돌이나 나무뿌리에 부딪혀 쟁기가 상할 수 있었다
2. 고랑을 똑바로 만들지 못해 작물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도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우선순위는 모든 경우의 가축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평계로서 사용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가축과 함께 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딤후 5:8).

요한에게 예수의 어머니를 돌볼 것을 부탁하셨는데(참조, 요 19:26), 요한은 그녀가 팔레스타인에서 임종하기까지 그 일을 수행했다. 그후에 그는 소아시아로 갔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해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다른 진리와 어긋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누가가 이렇듯 사건들을 집약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2. 귀신들림은 육체의 질병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3. 우리가 9:3 을 마 6:8 의 내용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4. 23 절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표현하라.
5.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나타났는가?

# 누가복음 1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72 제자의 선교	70 인을 보내심	70 인의 선교	예수께서 72 인을 보내시다	72 제자의 선교
10:1-12	10:1-12	10:1-12	10:1-12	10:1-12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화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화		믿지않는 도시들	
10:13-16	10:13-16	10:13-16	10:13-15 10:16	10:13-15 10:16
72 인이 돌아옴	70 인이 기쁨으로 돌아옴	70 인이 돌아옴	72 인이 돌아옴	사도들이 기뻐해야 할 참 이유
10:17-20	10:17-20	10:17-20	10:17 10:18 -20	10:17-20
예수께서 기뻐하심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드러내신 복음—성부와 성자
10:21-24	10:21-24	10:21-24 10:23-24	10:21 10:22 10:23-24	10:21-22 제자들의 특권 10:23-24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율법사의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큰 계명
10:25-37	10:25-37	10:25-28 선한사마리아인 10:29-37	10:25 10:26 10:27 10:28 10:29-37 10:30-35 10:36 10:37a 10:37b	10:25-28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29-37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심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배와 섬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심	마르다와 마리아
10:38-42	10:38-42	10:38-42	10:38-40 10:41-42	10:38-4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의 많은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다
1. 70 인의 선교, 1-20 절
  2.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하심, 38-42 절
- 나. 누가와 마태는 예수께서 성부께 찬양드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눅 10:21-24; 마 11:25-27
- 다. 공관복음서와 비교하여 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율법사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다, 눅 10:25-37; 막 12:28-31; 마 22:34-40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0:1-12

<sup>1</sup>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sup>2</sup>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sup>3</sup>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sup>4</sup>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sup>5</sup>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sup>6</sup>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sup>7</sup>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sup>8</sup>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sup>9</sup>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sup>10</sup>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sup>11</sup>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sup>12</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0:1 “세우사” 누가는 이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1. 들어 올려 알리다(즉, 햇불을 들어 볼 수 있게 하다 혹은 손을 들어 지명하다), 눅 1:80; 행 1:24
2. 어떤 임무를 부여하다, 눅 10:1

이 용법은 둘 다 70 인역의 용례를 따른다(1 항, 합 3:2; 2 항, 단 1:11).

▣ “**따로 칠십 인을**” 여러 사본에는 “칠십 이인”으로 나온다. 어떤 수가 더 적합한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큰 수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이 수는 모세가 70 인의 장로를 임명한 내용인 민 11:16-26 에서 왔다
2. 이 수는 창 10-11 장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에 기초한다. 거기서는 70 인(맛소라 본문) 혹은 72 인(70 인역)이 세계의 민족들과 언어를 대표한다. 제 2 항이 누가복음의 전체적 목적에 들어 맞는다(참조, 24:47).

헬라이어 사본의 전통은 어느 수가 원래의 것인가를 놓고 대등하게 양분된 모습을 보인다(“70 인,” **N**, A, C, L, W 사본; “72 인,” P<sup>75</sup>, B, D 사본). 만일 우리가 가장 특이한 본문이 보다 원래의 본문이라는 입장으로 이러한 변이를 접근한다면, “칠십 이”인이 원래의 본문에 속한다. 70 이라는 수는 구약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된 어림 수였다(참조, 출 1:5 장).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 가. 어떤 숫자는 수와 상징 양쪽을 다 나타낸다:
1. 하나 - 하나님(예, 신 6:4; 엡 4:4-6)
  2. 넷 - 지구 전체(즉, 네 모퉁이, 네 바람)
  3. 여섯 - 인간의 불완전성(7에서 하나 적음, 예, 계 13:18)
  4. 일곱 - 하나님의 완전성(7 일 간의 창조). 계시록에서의 상징적 용법을 주목하라.
    - ㄱ. 일곱 촛대, 1:13,20; 2:1
    - ㄴ. 일곱 별, 1:16,20; 2:1
    - ㄷ. 일곱 교회, 1:20
    - ㄹ. 하나님의 일곱 영, 3:1; 4:5; 5:6
    - ㅁ. 일곱 등잔, 4:5
    - ㅂ. 일곱 인, 5:1,5
    - ㅅ. 일곱 뿔과 일곱 눈, 5:6
    - ㅇ. 일곱 천사, 8:2,6; 15:1,6,7,8; 16:1; 17:1
    - ㅈ. 일곱 나팔, 8:2,6
    - ㅊ. 일곱 우뢰, 10:3,4
    - ㅋ. 칠천, 11:13
    - ㅌ. 일곱 머리, 13:1; 17:3,7,9
    - ㅍ. 일곱 재앙, 15:1,6,8; 21:9
    - ㅎ. 일곱 접시, 15:7
    - ㄱ. 일곱 왕, 17:10
    - ㄴ. 일곱 병, 21:9
  5. 십 - 완전성
    - ㄱ. 복음서에서의 용법:
      - (1) 마 20:24; 25:1,28
      - (2) 막 10:41
      - (3) 눅 14:31; 15:8; 17:12,17; 19:13,16,17,24,25
    - ㄴ.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2:10, 십일 간의 환란
      - (2) 12:3; 17:3,7,12,16, 열 뿔
      - (3) 13:1, 열 면류관
    - ㄷ. 계시록에서의 10의 배수:
      - (1) 144,000 = 12x12x10, 참조, 7:4; 14:1,3
      - (2) 1,000 = 10x10x10, 참조, 20:2,3,6
  6. 열둘 - 인간의 조직
    - ㄱ. 야곱의 열 두 아들(즉,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창 35:22; 49:28)
    - ㄴ. 열 두 기둥, 출 24:4
    - ㄷ. 대체사장의 예복에 있는 열 두 보석, 출 28:21; 39:14
    - ㄹ. 빵 열 두 덩이, 성소 안에 있는 상에 놓임(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 두 지파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나타냄), 레 24:5; 출 25:30
    - ㅁ. 열 두 정탐군, 신 1:23; 수 3:22; 4:2,3,4,8,9,20
    - ㅂ. 열 두 사도, 마 10:1
    - ㅅ.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인침을 받은 만 이천명, 7:5-8
      - (2) 열 두 별, 12:1
      - (3) 열 두 문, 열 두 천사, 열 두 지파, 21:12
      - (4) 열 두 사도의 이름을 딴 열 두 기초석, 21:14
      - (5) 새 예루살렘은 사방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다, 21:16
      - (6) 열 두 진주로 만든 열 두 문, 21:12
      - (7) 열 두 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 22:2

- 7. 사십 -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숫자
  - ㄱ.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출애굽과 광야 방랑시기, 예, 출 16:35); 신 2:7; 8:2
  - ㄴ.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로써
    - (1) 홍수, 창 7:4,17; 8:6
    - (2) 시내산에서의 모세, 출 24:18; 34:28; 신 9:9,11,18,25
    - (3) 모세의 삶의 구분
      - (ㄱ) 이집트에서의 40 년
      - (ㄴ) 광야에서의 40 년
      - (ㄷ) 이스라엘을 인도한 40 년
    - (4) 예수께서 40 일을 금식하심, 마 4:2; 막 1:13; 눅 4:2
  - ㄷ. 성경에서(성구사전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이 수는 시간의 명칭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 7. 칠십 -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한 어림 수:
  - ㄱ. 이스라엘, 출 1:5
  - ㄴ. 칠십 장로, 출 24:1,9
  - ㄷ. 종말론적 의미, 단 9:2,24
  - ㄹ. 선교 팀, 눅 10:1,17
  - ㅁ. 용서함(70x7), 마 18:22
- 나. 좋은 참고 자료
  - 1. 존 J. 데이비스, *성경의 수*
  - 2.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용 갈고리*

▣ “들씩” 이것은 열둘(참조, 9:1-6; 막 6:7)을 보내실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같은 동사임, *아포스텔로*).

▣ “앞서” 이것은 여기서 새롭게 나타난 요소이다. 예수께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곳에 열 두 사도를 보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설교하게 하셨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예수께서 대표단을 보내신 일을 우리는 9:52 에서 처음 듣는다.

10:2 “추수할 것은 많되” 예수께서 같은 표현과 같은 가르침을 장소와 환경이 다른 여러 곳에서 하셨음이 분명하다(참조, 마 9:37-38 및 요 4:35). 단순히 우리 자신이 가는 일이 아니라,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필요가 부르심을 대신하지 않는다! 한편 복음에 둔 우선순위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할 사항이다!

▣  
 NASB “간청하다”  
 NKJV, TEV “기도하라”  
 NRSV, NJB “청하라”

*데오마이*라는 용어는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사용되었다(누가복음에서 8 번, 사도행전에서 7 번, 마태복음에서 1 번 사용되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 복음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이 단어는 **부정과거 수동(디포) 명령**이다. 이 단어는 기도에 대한 저자의 강조에 뒤이어 나타난다. 신자들은 복음전도적 가능성을 보며 영적 필요를 인식해야 하고 또한 도우실 수 있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이것은 그분의 발이며 또 그분의 추수이다(참조, 마 9:35-38)!. 대위임(참조, 마 28:18-20; 눅 24:47; 행 1:8)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이다!

▣ “보내 주소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밀치다”( *엘발로*)라는 뜻이다. 긴급함과 의무를 나타낸다.

10:3  
 NASB, TEV “갈지어다”  
 NKJV “너희 길을 갈지어다”  
 NRSV “너희 길을 내쳐 갈지어다”  
 NJB “지금 떠날지어다”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마 28:19 과 평행을 이룬다(“가라”[부정과거 분사가 명령의 의미로서 사용됨]). 문맥에서 이것은 특별한 과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내용은 “너희의 삶 전체를 지나 가면서” 또는 “너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말한다.

이 문단은 누가복음 9 장에 있는 열 두 사도를 보내심과 흡사하다.

▣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마 10:16의 본문은 보다 자세히 진술한다. 누가는 이 대표단이 반대와 거부가 있을 것임을 알기 원하고 있다(참조, 11 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받으실 대우를 미리 보여준다.

10:4 이 절은 그들이 자기들의 재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말하는 면에서 중요하다(참조, 9:3-5).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참조, 23:35-36).

▣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들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며 의식을 중시하는 동양의 인사방법으로 인해 지체되어서는 안되었다(참조, 왕하 4:29).

10:6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여기서 “만일”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제물 성경 주석*(제 2 권 143 쪽)은 누가복음에서 이 표현은 ‘구원이 영접하는 이 집에 도래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참조, 1:79; 2:14,29; 7:50; 8:48; 12:51; 19:38). 그 집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자 및 예수님의 메시지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10:7 “그 집에 유하며”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여행하는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따를 지침이었다(참조, 9:4).

▣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것은 둘 다 **현재 능동 분사**이다. 선교사들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음식을 찾아 나서서는 안되었다. 호의를 베푸는 일은 동양의 문화에서 중요시 되었다. 그들은 손님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동양의 농경적 잠언이나 격언이었다(참조, 마 10:10; 고전 9:14; 딤후전 5:18).

▣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아마도 그들이 가능한 한 편리함을 아주 많이 취하려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겼음이 분명하다.

10:8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차려진 음식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행했을 것이다. 대 위임(참조, 마 28:18-20)의 수행이 음식 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참조, 막 7:1-23). 신자들에게 있어서 레 11 장에 있는 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음식 규정은 무효이다(즉, 행 10:9-16,34; 15:6-11; 고전 10:27).

10: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것은 또 하나의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 구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 어느 누구의 병이라도 고치는 것이었거나 혹은 (2)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다(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머무는 자들로 한정하는 듯함).

예수께서는 각각 다른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셨다(참조, 마 4:23; 8:16; 9:35; 14:14; 15:30; 19:2; 21:14. 한편 마가는 “많은 사람의”라고 말한다, 막 1:34; 3:10).

▣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동사는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께서 오심을 인해 시작되었다(참조, 11 절; 11:20; 21:31; 마 3:2; 4:17; 6:10; 10:7; 막 1:15).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때가 도래했다. 이제 응답을 해야 할 때이다(참조, 19:9; 고후 6:2).

이것은 왕국이 오직 미래적인 신학적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날 논란이 되는 본문이다. 나는 막 1:15에 대해 내가 주석한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키려 한다([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1:15 “때가 왔고” 이것은 *호티*가 이끄는 구이다. 이 단어는 인용문을 암시하며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메시야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나타낸다(참조, 엠 1:10; 갈 4:4; 딤후전 2:6; 딤후 1:3).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반영한다.

▣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이것은 현재의 실제적인 통치 및 미래에 완성될 통치 양자를 다 나타낸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천국”으로 언급되었다. 이 구들은 서로 동의어적이다(마 13:11을 막 4:11 및 눅 8:10과 비교하라). 왕국이 예수께서 나신 때에 도래했다. 이것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으로 설명되었고 구현되었다. 이것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설교와 비유적 가르침의 주제였다. 이것은 그가 선포하신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었다.

■ NASB, NKJV “가까이 있으니”  
 NRSV “가까이 왔으니”  
 TEV “가까우니”  
 NJB “손 닿는 곳에 있으니”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왕국이 과거의 실재였으며(참조, 1-3 절) 현재의 실재임을 말한다(참조, 마 12:28; 눅 11:20; 17:21). “때가 찼고”라는 구는 이 구와 평행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의 실재가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의의 새 시대”가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고난 주간의 사건이 되기 이전에는 다 알려지지 않았고 또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비록 왕국이 정말 도래했지만 신약의 본문은 또한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 질 것임을 암시한다(참조, 9:1; 14:25; 마 26:29; 눅 22:18; 행 1:11; 살전 4:13-18).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하는 일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결정짓는다(참조, 8:38).”

**10:10-11** 예수께서는 이 같은 종류의 대우를 사마리아에서 받으셨다(참조, 9:51-56). 한편 “70 인”을 거부함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며 그것을 종말에 있을 심판에서 다루신다. 우리가 어떤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복음전도와 초대 교회의 필요를 위해 그들이 기록한 책의 내용을 선별했다. 현대인은 우리가 가진 바 예수의 삶에 대한 즉석촬영적 증거를 모든 문화와 모든 환경에 들어 맞는 어떤 교리적 규정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이에 만족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각 사건, 문맥, 문단의 주요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지 이것의 세세한 사항을 가지고 기독교의 탈무드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10:11** 이것은 문화적으로 거부와 심판을 나타내는 몸짓이다(참조, 마 10:14; 눅 9:5).

**10: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나는 성경의 상과 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했고 이를 얼마나 받아들였으며 또 그에 따라 얼마나 행하였는가에 의해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고 믿는다.

**특별주제: 상과 벌의 정도**

- 가.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반응과 부적절한 반응은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는 더욱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 그 반대 또한 사실이다.
-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기본적 방법이 있다
  - 1. 창조세계(참조, 시편 19 편; 로마서 1-2 장)
  - 2. 성경(참조, 시편 19 편, 119 편; 복음서)
- 다. 구약의 증거
  - 1. 상
    - ㄱ. 창 15:1(대개 땅에서의 상급인 땅과 아들)
    - ㄴ. 신 27-28 장(언약을 순종함은 축복을 가져온다)
    - ㄷ. 단 12:3
  - 2. 벌
    - ㄱ. 신 27-28 장(언약을 불순종함은 저주를 가져온다)
- 라. 신약의 증거
  - 1. 상(구원 이후의)
  - 2. 벌
    - ㄱ. 막 12:38-40
    - ㄴ. 눅 10:12; 12:47-48; 19:20-24; 20:47
    - ㄷ. 마 5:22,29,30; 7:19; 10:15,28; 11:22-24; 13:49-50; 18:6; 25:14-30
    - ㄹ. 약 3:1
- 마. 나에게 이에 대한 유일한 유추는 오페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내가 오페라 공연장에 가지 않기에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오페라 대본의 구상, 음악, 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복잡한 가를 더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그 공연을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늘이 우리의 컵을 채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땅에서 하는 섬김이 그 컵의 크기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반응은 상과 벌을 가져온다(참조, 마 16:7; 고전 3:8,14; 9:17,18; 갈 6:7; 딤후 4:14). 영적 진리는 이렇다—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둔다! 어떤 이는 더 많이 심어 더 많이 거둔다(참조, 마 13:8,23).

바.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우리의 것이지만(참조, 딤후 4:8), “생명의 면류관”이 시련을 통과한 인내와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약 1:12; 계 2:10; 3:10-11).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은 그들의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다(참조, 뱀전 5:1-4). 바울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 면류관을 가졌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극도로 자신을 제어했다(참조, 고전 9:24-27).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는 이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복음을 완전히 거저로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주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야 하고 또 이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거저로 주시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비용을 들여야 함을 말하는 이 역설은 상과 씨뿌림/거둠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모습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이다(참조, 엡 2:8-10).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다(참조, 마 7 장).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멸망으로 이끌지만 구원의 결과 나타나는 경건한 삶은 상을 가져온다.

▣ “소돔” 이 도시가 불로 멸망당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마 10:15).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참조, 마 5:21-30; 7:13-27; 10:15; 11:20-24; 12:36,41-42; 25:1-46; 눅 11:31-32).

#### 개역개정 10:13-15

<sup>13</sup>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sup>14</sup>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sup>15</sup>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0:13

NASB, NKJV, NRSV “화 있을진저”  
TEV “얼마나 두려운지”  
NJB “아아”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사용한 문학적 표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장례식 만가를 상징한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 보다 더 많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을 제시한다(참조, 6:24,25,26; 10:13; 11:42,43,44,46,47,52; 17:1; 21:23; 22:22). 우리가 살면서 하는 선택에는 영적 결과가 따른다.

▣ “고라신” 이 도시는 갈릴리에 있었고 가버나움에서 3 km 북쪽에 위치했다. 이곳은 마태복음 11:21 과 이곳에서만 언급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도시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기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요점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행하신 이 도시들(베세다와 가버나움)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구약의 여러 도시가 만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들었었다면 응답하였을 것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참조, 마 11:23), 거짓된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거짓된 진술이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 “두로와 시돈”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페니키아에 이 두 주요 항구 도시가 있었다(참조, 마 11:22,24). 이 두 도시는 구약에서 교만과 거만함을 상징하는 심볼로서 자주 언급된다(참조, 사 23 장; 겔 26-28 장).

▣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것은 구약에서 회개 혹은 슬퍼함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여러 가지 행위가 이에 속한다:

1. 땅바닥에 앉음
2. 베옷을 입음
3. 재 혹은 먼지를 머리에 놓음
4. 수염이나 털을 뽑음(머리를 깎음)
5. 자신의 옷을 찢음
6. 크게 소리내어 울음
7. 벗은 발로 있음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자신의 회개와 관련하여 혹은 공동체의 범죄를 인한 슬픔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

1. 겹옷을 찢음, 창 37:29,34; 44:13; 사 11:35; 삼하 1:11; 3:31; 왕상 21:27; 욥 1:20
2. 베로 동입, 창 37:34; 삼하 3:31; 왕상 21:27; 렘 48:37
3. 신발을 벗음, 삼하 15:30; 사 20:3
4. 손을 머리에 얹음; 삼하 13:9; 렘 2:37
5. 재를 머리에 뿌림, 수 7:6; 삼상 4:12; 느 9:1
6. 땅에 앉음, 애 2:10; 겔 26:16(땅에 누움, 삼하 12:16); 사 47:1
7. 가슴을 침, 삼상 25:1; 삼하 11:26; 나 2:7
8. 몸을 뺨, 신 14:1; 렘 16:6; 48:37
9. 금식함, 삼하 1:16,22; 왕상 21:27
10. 애가를 부름, 삼하 1:17; 3:31; 대하 35:25
11. 머리를 밟(머리카락을 잡아 뽑거나 면도함), 렘 48:37
12. 수염을 짧게 깎음, 렘 48:37
13. 머리나 얼굴을 가림, 삼하 15:30; 19:4

10:14 빛과 이해는 영적 책임을 낳는다(참조, 12:47-48). 10:12의 특별주제: 상과 벌의 정도를 보라.

10:15 “가버나움” 이 도시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 중심지로 삼으신 곳이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15 절의 질문은 “아니오”라는 답을 기대한다.



NASB, NRSV	“네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NKJV	“네가 강제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TEV	“네가 던져져 낮아질 것이다”
NJB	“네가 매어짐을 당해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민 16:30; 겔 31:18, 혹은 70 인역의 32:18(*카타바이노*를 사용함)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와 평행을 이루는 마 11:23의 본문은 *하테스나* 구멍이로 낮아짐을 말한다(참조, 사 14:13,15; 겔 26:20; 31:14; 32:24). 이 헬라이어 단어는 고대의 여러 사본에서 발견된다(참조, P<sup>75</sup>, B, D).

한편 보다 적게 사용되었고 또 더 큰 강조점을 나타내는 *카타비바조*(던져져 낮아지다)가 고대 헬라이어 사본(P<sup>45</sup>, K, A, C, L, W) 및 벌게이트와 페슈타역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본문의 뜻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떤 용어가 원래의 것인가는 결정하기 어렵다.

▣ “음부” 이것은 사 14:15 혹은 겔 26:20; 28:8; 31:14; 32:18,24의 암시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스올로서 죽은 자의 세계를 가리킨다(참조, 눅 16:23). 랍비들에 의하면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곳이 있었고 탈타루스로 불리는 악한 곳이 있었다.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처형당한 한 강도에게 눅 23:43에서 말씀한 내용은 아마도 하데스의 의로운 곳을 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천국에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 시에 그는 *하테스*(스올)의 의로운 곳에 있던 자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따라서 바울도 고후 5:6,8에서 말하기를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16:23의 특별주제: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개역개정 10:16**

<sup>16</sup>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0:16 복음을 거부하는 일은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 된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성부를 거부하는 것이다(참조, 요일 5:10-12). 우리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위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9:48; 마 10:40; 막 9:37; 요 13:20). 복음은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개역개정 10:17-20**

<sup>17</sup>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sup>18</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sup>19</sup>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sup>20</sup>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10:17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은 **현재 수동 직설법**이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예상치 않았기에 70 인에게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위탁되었으며 또한 사탄의 왕국이 효과적으로 패하였음을 나타내는 징표였다.

“이름”에 대하여는 9:4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미완료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와 더불어 사용된 경우이다. 이 문장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온다. 이것이 다음의 사항 가운데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짐 혹은 (2) 사탄이 지상의 권세에서 쫓겨남. 4:2 의 특별주제: 사탄을 보라. 나는 2 항의 설명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는 이 문맥이 70 인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일과 전적으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참조:, 고후 4:4; 엡 2:2; 벧전 5:8; 요일 5:19)

1. 창 1:1 이전에 (천사의 범죄가 창조보다 선행한다)
2. 창 1:1 과 1:2 사이에 (간격 이론)
3. 욥 1-2 장 이후에 (하늘에 있는 사탄)
4. 숙 3:1-2 이후에 (하늘에 있는 사탄)
5. 사 14:12-16; 겔 28:12-16 에 있는 은유적 표현 (아마도 교만함을 인해 하늘에서 차여 떨어짐을 가리킴)
6. 예수의 지상사역시 (참조, 마 12:29; 요 12:31; 16:11); 특별히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을 때에, 참조, 눅 4:1-13
7. 70 인의 선교시 (이 곳)
8. 갈보리/부활 이후에 (골 2:14; 고전 15:24)
9. 미래에 (계 12:9)
10.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마다

F. F. 브루스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예수의 지상사역의 즉각적 결과로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났다고 말한다(228 쪽). 이같은 생각이 *성경의 어려운 말* 465-466 쪽에 나온다.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과거에 행한 일이 지속적인 결과를 가짐). 이것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뱀과 전갈은 악한 자의 능력을 상징한다
2. 이것은 시 91:13-14; 롬 16:20 을 가리킨다
3. 이것은 막 16:17-18 과 관련을 가진다. 이 본문은 영감받지 않은 내용으로서 마가복음에 추가되었다.

1 항의 설명이 이 문맥에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한다. 이것은 신자들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섬기는 삶에 놀라운 진리가 된다. 20:2 의 특별주제: 누가의 *옐수시아* 용법을 보라.

▣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이중 부정**이다. 이것은 반드시 신약의 다른 본문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 한편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확인해 주고 있다(참조, 요일 5:19).

10: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인해 기뻐해야 한다(**현재 능동 명령**).

▣ “~말고 ... 기뻐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기뻐해야 할 적합한 장소가 있다!

▣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지속되는 결과를 가짐). 단 7:10 과 계 20:12 은 하나님의 기억과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두 책에 대해 말한다. 그 책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책(하나님을 아는 자들, 참조, 출 32:32; 시 69:28; 사 4:3; 단 12:1; 눅 10:20; 빌 4:3; 히 12:23; 계 3:5; 13:8; 17:8; 20:15; 21:27)
2. 행위의 책(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행위, 참조, 시 56:8; 139:16; 사 65:6; 말 3:16)

개역개정 10:21-22

<sup>21</sup>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sup>22</sup>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10:21-22 이것은 마 11:25-27 과 평행을 이룬다. 단어들 이 상당히 비슷하기에 이것은 초기의 예배에서 사용한 찬송일 것이다.

10:21

NASB

“그가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NKJV

“예수께서 성령(the Spirit) 안에서 기뻐하시며”

NRSV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TEV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NJB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문장에 있어서 헬라어 사본에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 아마도 “그가 성령 안에서(에 의해) 기뻐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본문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점은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0 인이 귀신에 대하여 영적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크게 격려를 받으시고 성부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셨다.

▣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다. 이 단어는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감사드리다” 혹은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다. 코이네 헬라어의 중간태에서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시인함을 뜻한다(참조, 롬 14:11; 15:9; 빌 2:11; 계 3:5).

▣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예수께서 약웨의 내재하심(아버지여, 22:42 의 특별주제를 보라)과 초월하심(천지의 주재)을 얼마나 잘 조합하시는지를 주목하라. 1:68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친밀하심을 인간이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뜻한다. 그의 능력과 두려움은 자연을 통해 드러난다.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

▣ “어린 아이들에게는” 마 18 장에서 이것은 새 신자를 가리킨다. 요한 일서에서 “나의 어린 자녀”라는 표현을 요한이 신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함을 또한 주목하라. 여기서 이 단어는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아직 여러 면에서 미성숙했다.

▣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부께서 진리를 신자들에게 드러내사 ‘복음이 인간들이 탐구하여 발견할 내용이 아니며 또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나타내신다(참조, 엡 2:9).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조금이라도 기초하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근거한다.

10:22 21 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부께 말씀하였지만 22 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급격한 전환을 인해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설명적인 구를 추가하고 있다.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신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마 11:27; 28:18; 요 3:35; 13:3; 엡 1:20-22; 골 1:16-19; 2:10; 뱀전 3:22). 예수께서는 다음의 일에 있어서 성부의 대리인이시다: (1) 창조 (2) 구속 (3) 심판.

▣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 . .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충분히 또 완전하게 성부를 드러내심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다(참조, 요 1:14; 14:6,9-10; 17:25-26; 골 1:15; 히 1:3). 오직 인격적인 계시로써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할 수 있다.

▣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것은 성령과 성자가 더불어 성부를 계시하심을 나타낸다. 인간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일깨움을 받지 않는 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참조, 요 6:44,65; 17:2).

예수께서 22 절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참조, 성경의 어려운 말 379-380 쪽). 이것은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진실되게 기록하였음을 입증한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의 차이점은 요한은 사적인 대화를 기록한 반면(참조, 23 절) 공관복음서는 공적인 가르침(비유들)을 기록하고 있음에 기인할 것이다.

개역개정 10:23-24

<sup>23</sup>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sup>24</sup>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10:23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 구는 “무리” 혹은 적어도 70 인이 함께 있음을 나타낸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는다.

▣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마 5:1-12 에 있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결코 가지지 못했을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심을 인하여 그들이 누리게 되는 기회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 보았으며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약속의 결실을 보며 살았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참조, 히 1:1; 뱀전 1:10-12).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들(제자들)은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한다(참조, 행 2:23; 3:18; 4:28; 13:29; 골 1:26-27; 히 1:2-3).

10:24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들과 의인들”로 되어 있다(참조, 마 13:16-17). 누가복음에 나오는 “왕들”은 유다 왕국의 경건한 왕들로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등을 포함할 것이다.

신약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의 그 누구 보다(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사야 등)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충격을 받고 또 겸손하게 한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이 따라 온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빛이 있는 곳에 책임이 더 따른다(참조, 12:47-48).

개역개정 10:25-37

<sup>25</sup>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sup>26</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이라 기록되었으되 네가 어떻게 읽느냐 <sup>27</sup>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sup>28</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sup>29</sup>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sup>30</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sup>31</sup>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sup>32</sup>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sup>33</sup>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sup>34</sup>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sup>35</sup>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sup>36</sup>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sup>37</sup>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10:25-27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대화이다. 여기에 나타난 동양적 관점은 케넷 베일리의 *농부의 눈을 통하여* 33-56 쪽에서 논의하고 있다. 원 저자가 가진 문화를 통해 본문을 조명함이 유용하다.

10:25 “율법교사” 이것은 서기관(참조, 막 12:28)과 마 22:34 의 바리새인을 가리킨다. 서기관들은 포로기에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기록된 구약과 구두로 전해진(탈무드) 내용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다수가 바리새인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랍비에 해당한다. 5:21 의 특별주제: 서기관을 보라.

▣ “일어나” 이것은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가르치시는 때에 그들이 있었음을 뜻한다.

▣ “시험하여” 이 용어는 서기관이 자신의 악한 동기(29 절)를 감추려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보인다. 이 용어는 신약에서 “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시험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4: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인간이 행하는 어떤 커다란 일 혹은 연속적인 일을 뜻한다. 이 사람은 1 세기에 살았던 대부분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참조, 18:18)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모세의 율법을 지킴, 참조, 레 18:5; 신 27:26; 갈 3:1-14). 이방인에게 복음서를 쓰는 누가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구원에 대해 묻는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있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롬 5:6-11; 6:23; 엡 2:8-9).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심을 주목하라 (참조, 마 25:31-46). 유대인들은 혈통(즉,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 모세의 율법 및 구전으로 내려오는 해석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다고 여겼다. 예수께서는 예상치 못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사랑”을 강조하심으로써 이 사람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신다.

▣ “영생” 요한은 종종 새 시대에서의 삶,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 “영생”을 특징적으로 사용한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였기에 이 용어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음을 뜻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가진 배경인 영생이 현재의 질서가 계속되는 상태라는 이해에 근거하여 이 용어를 해석하고 있다.

10:26

NASB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읽어지느냐”

NKJV, NJB

“네가 이것을 무엇으로 읽느냐”

NRSV

“네가 거기서 무엇을 읽느냐”

TEV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은 훈련을 받은 성경 해석가였다. 따라서 그가 자기 자신이 하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예수께서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해석을 긍정적으로 확인해 주셨다.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이 대두된다.

1. 모든 신자는 전통, 문화, 교단적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는 바를 논리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성경을 알았다!
2. 비록 신학적 진리에 있어서 옳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었다—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

10:26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모세의 율법(창세기 - 신명기)을 가리킨다. 1 세기의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회당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이 사람은 구약에 관한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 그는 구약 특히 모세오경을 상당히 잘 알았다. 그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의 지식을 시험하고 계셨다.

#### 특별주제: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내가 저술한 마태복음 주석 및 마가복음 주석의 내용을 인용하려고 한다([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를 보라).

**마 22:37-38** 가장 큰 계명은 신 6:5 에 진술되었다.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과 예수님의 인용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본질은 같다. 이 절은 사람의 본질을 둘로 나누거나(참조, 히 4:12) 셋으로 나누어서(참조, 살전 5:23)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됨으로 사람을 다루는 점에 있다(참조, 창 2:7; 고전 15:45):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며 육체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땅의 동물(포유류)이기 때문에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음식, 물, 공기, 모든 것을 이 행성에 의존하듯이 인간 또한 그렇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또한 하나님 그리고 영의 영역과 관계를 갖는 영적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본질의 다른 등급에서 신학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절의 핵심은 세번 반복된 “모든” 것에 있는 것이지 “마음,” “목숨,” “뜻”을 따로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다.

**막 12:29** “들으라” 예수께서는 신 6:4-5 의 내용을 인용하셨지만 맛소라 본문이나 70 인역에서 하신 내용이 아니다(마 22:37 에 있는 평행구절이 맛소라 본문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에 더 가깝다). 예수께서 하신 인용문은 맛소라 히브리 본문과 70 인역의 헬라어 본문에 각각 한 구를 추가시킨 형태이다. 이 인용이 정확히 구약의 어느 본문에서 취한 내용인지 알 수 없다. 70 인역은 히브리어의 “심장”을 “마음” 혹은 “이해”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 인용문은 “네 모든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맛소라 본문과 70 인역의 본문에 있는 삼중적 구(즉, 심장, 혼, 힘)에 추가시키고 있다. NJB 역은 이 구를 다르게 인쇄하여(즉, 이탤릭체가 아닌 형태) 이것이 구약의 인용이 아님을 나타낸다.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으로서 5 세기에 속하는 D(즉, 베자)는 “그리고 네 모든 마음으로”를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 생략된 본문이 33 절에 있는 바 서기관의 대답과 일치하기에 원래의 본문에 속할 것이다.

마태복음의 평행구절(즉 22:32)에서 마태는 “네 모든 심장과 네 모든 혼과 네 모든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네 모든 힘으로”라는 히브리어 구가 빠져 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맛소라 본문 및 70 인역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음은 매우 놀랍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인용문이 신약에서 느슨한 형태로 인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심지어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으로 돌리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정밀한 인용이 불가능함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들 모두(즉, 70 인역,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세의 글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약 본문(즉, 신 6:4-5)은 *שמע*로 불리며,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다. 이것은 행하기 위해 들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일신론에 대한 유대인의 확증적 선언이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매일 또 매 안식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 예언서의 여러 본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글(즉, 창세기 - 신명기)에서는 유일하게 표현한 곳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킨다(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 **“대답하여 이르되 . .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 6:4-5의 인용으로서, *שמר*로 불린다(행하기 위해 들으라).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내용이 담긴 성구함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 자세에 우리의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함을 말한다.

▣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70 인역 레 19:18의 인용이다. 예수께서는 신학적 진리를 실제적이고 윤리적 상황에 연결시키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미워함이 불가능하다(참조, 요일 2:9-11; 3:14; 4:20).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즉, 언약적 형제나 자매)을 나 자신 같이 사랑함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에 둔 우선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비로소 우리가 자신을 적절히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의 피조물이다(참조, 창 1:26,27). 우리가 누리는 바 은혜를 인해 기뻐하며, 우리가 누리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참조, 시 139 편). 우리 자신을 폄하하는 일은 우리를 지으신 이를 폄하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된 모습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꿀 수 있으시다(즉, 그리스도를 닮음).

기독교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헌신을 하도록 이끈다. 이 일은 각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위한 결단을 하게 이끈다. 한편, 이 일은 가족적인 경험으로 이끈다(이 개념은 동양의 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도록 은사를 받았다(참조, 고전 12:7).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됨은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합한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즉, 특히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10:28 **“이를 행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예수께서 한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라.

▣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알고 있는만큼 그대로 살아야 함을 가리키는 말씀이다(참조, 겔 20:11). 구원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갈 3:6-4 및 롬 3:20-21에서 보라. 롬 31:31-34에 있는 새 언약은 행위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라 공휼하심에 기초한 내적 언약이다. 인간은 옳은 것을 택할 수 없으며 악을 피할 수 없다(참조, 롬 3:9-18,23).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행위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시키면서도 거룩함을 동시에 요구한다(참조, 마 5:48). 복음의 첫 진리는 인간이 무능하며 또한 영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참조, 롬 3:9-18). 사람이 이러한 필요를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구원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10:29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것은 유대교에서 논란이 되는 질문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유대인 혹은 일부 유대인만 자신의 이웃이 된다고 여겼다.

10:30 **“어떤 사람이”** 이것은 동료 유대인을 암시한다. 비유를 해석함에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는 8장의 문맥적 통찰 나항을 보라.

▣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후에 제롬은 이 도로를 “피흘림의 길”로 일컬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자주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 길은 거리가 27 km 되는 길로서, 예루살렘보다 약 900 m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10:31-32 **“제사장 . . . 레위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1) 도적 (2) 더럽혀짐(참조, 레 21 장 혹은 민 19:11) (3) 일에 연루됨 (4) 시간적 소요가 야기됨을 두려워했다.

▣ **“사마리아인”**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영웅으로서 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유대인들을 참으로 놀라게 하셨다. 사마리아인들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다. 이 일은 앗시리아에 의해 주전 722년(즉, 사마리아의 멸망)에 북쪽의 10 지파가 사로잡혀가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그들은 필적하는 성전(그리심 산)을 세웠고 필적하는 본문(사마리아 오경)을 가졌다.

10:34 **“기름과 포도주”** 이 것은 당시에 사용한 의약품이었다. 기름은 살갓을 부드럽게 하였고 포도주는 자연적 상태의 알코올로서 상처의 소독을 도왔다.

▣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날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중간에 대상이 머물던 두 장소가 있었다.

10:35 **“데나리온 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었다. 이 금액은 대략 2주간 머물며 숙식할 수 있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사람은 정규적으로 이곳에 머무는 손님이었음이 분명하다. 그의 돌봄과 관심은 계속 지속되었다.

10:36 이 절은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며 29 절에서 그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

10:37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서기관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현재 중간대(디포) 명령과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 절은 문맥적으로 28 절과 관련된다.

구약의 “언약적 동료”(즉, 다른 유대인)라는 개념을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인에게로 확대시킨 일은 율법사요 서기관인 이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확장은 예수의 가르침(및 누가의 강조점)을 특징짓는 내용이 되었다. 구약의 국수적 인종적 강조점이 전세계라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새 틀은 유대인 대 이방인이 아니라 신자 대 불신자의 틀이었다(참조, 롬 3:22; 10:12; 고전 12:13; 갈 3:28; 골 3:11). 신약의 어떤 저자도 구약의 국가적, 인종적, 지역과 관련된 약속을 지지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도시가 아니라 새로 창조되는 지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게 되었다(참조, 계 21:2). 새 시대는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대한 것이다!

개역개정 10:38-42  
<sup>38</sup>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sup>39</sup>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sup>40</sup>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sup>41</sup>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sup>42</sup>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38 “그들이 길 갈 때에” 이것은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술함에 있어서 사용한 방법이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적 과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다(참조, 9:51,56,57; 10:38; 13:22; 17:11; 18:31,35; 19:1,11).

▣ “한 마을” 요 11:1 에서 우리는 이 마을이 베다니임을 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여리고로 향한 길을 따라서 3 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

▣ “마르다” 이 이름은 아람어로 “여주인”으로서 “주인”의 여성형이다.

▣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가정의 역할을 수행했다. 나사로가 집에 없었음이 분명하다. 예루살렘 인근 마을의 사람들이 축제 기간에 오는 순례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일은 흔히 있었다. 일년 중 어느 기간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보통 때에 비하여 2~3 배가 되었다. 다른 편의시설이 없었다.

10:39 “마리아” 이것은 “쓰다”를 뜻하는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이다(참조, 룻 1:20).

▣ “주의 발치에 앉아” 무리가 예수를 따라 베다니에 왔을 것이다. 랍비가 여인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이것은 누가복음의 포괄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예입). 마리아는 말씀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발치에 앉아”는 가르치는 상태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었다(참조, 행 22:3).

10:40 “마음이 분주한지라” 두 여인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음이 분명하다. 마리아는 남아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혼자서 여주인의 역할을 인하여 염려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 “주여 . . . 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자기 동생을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 질문은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한다.

▣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마르다는 사소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10:41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은 마르다가 염려하는 일이 부적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한 없이 염려하고 근심함이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녀는 일상생활의 일을 인해 일생에 단 한 번 뿐인 순간을 놓쳤다.

10:42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수고로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사용하셨다.



NASB “그러나 단 한 가지 만 필요하니라”  
 NKJV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NRSV “단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TEV “그러나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NJB “그럼에도 적은 것, 실로 단 한 가지만 필요하니라”

우리가 갖는 질문은 여기서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차린 식사 대 많은 공을 들인 식사를 뜻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은 예수의 방문과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 절 이후의 내용은 두 번째 설명을 암시한다.

이 진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변이가 본문에 나타난다. NJB는 “몇 가지 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추가시킨다 (참조, P<sup>3</sup>, ~~N~~, B, L).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비유는 왜 중요한가?
2.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가?
3. 사랑이 구원과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가?

# 누가복음 1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기도에 대한 가르침	모범적 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주의 기도
11:1-4	11:1-4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오다	11:1-4	11:1-4	11:1-4 근질하게 간청하는 친구
11:5-13	11:5-8 계속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 11:9-13	11:5-8 11:9-13	11:5-13	11:5-8 효과적인 기도 11:9-13
예수님과 바알세불	나누인 집은 설 수 없다	예수의 능력의 근원	예수님과 바알세불	예수님과 바알세불
11:14-23	11:14-23	11:14-23	11:14-15 11:16-20 11:21-22 11:23	11:14-22 타협이 없음 11:23
더러운 영이 돌아옴	더러운 영이 돌아오다		악한 영이 돌아옴	더러운 영이 돌아옴
11:24-26	11:24-26	11:24-26	11:24-26	11:24-26
참된 축복	말씀을 지킴		참 행복	참으로 복된 자
11:27-28	11:27-28	11:27-28	11:27 11:28	11:27-28
표적에 대한 요구	표적을 구함	표적을 요청함	기적에 대한 요구	요나의 표적
11:29-32	11:29-32	11:29-32	11:29-32	11:29-32
몸의 빛	몸의 등잔	빛에 대하여	몸의 빛	등잔의 비유를 반복하심
11:33-36	11:33-36	11:33-36	11:33-36	11:33-36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비난하심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화를 선언하심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비난하사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정죄하시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공격받음
11:37-44	11:37-54	11:37-41 11:42-44	11:37-41 11:42 11:43-44	11:37-44
11:45-54		11:45-52 11:53-54	11:45 11:46-51 11:52 11:53-54	11:45-46 11:47-48 11:49-51 11:52 11:53-5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11:1-4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눅 11:1-4 에서는 여러 종류의 변이가 본문에 나타난다(이것은 장 전체에 영향을 미침). 이것은 이곳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마 6:9-13 에 있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매우 일찌기 교회에서 예배시 사용되었다.
- 나. 공관복음서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서로 다르게 기록한 사실은 오늘날의 독자와 해석가들로 하여금 여전히 놀라게 한다. 목격자들의 이 기록(즉,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누가는 목격자들을 면담하거나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하여서)은 그 상이점으로 인해 진실성이 입증된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어구 자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 다. 영감의 교리는 사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을 지지한다. 복음서가 오늘날 서구의 자서전이나 역사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소책자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상이한 기록이 지닌 진실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 라. 5:33 에서 볼 때 침례(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쳤다. 여기서 예수께서도 한 형태의 기도문을 세우시고 계시다(**현재 중간대(디포) 가정법**). 이 기도문에 나타난 여러 요소는 정규적인 기도에서 글자 그대로 따라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할 강조점을 나타낸다.
1.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심
  2.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됨
  3.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함
  4.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이 확실함
  5.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효과적으로 드러남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1:1-4

<sup>1</sup>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sup>2</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sup>3</sup>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sup>4</sup>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11:1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누가는 예수께서 중요한 일이나 가르침을 앞두고 기도하셨음을 종종 알려준다. 기도에 대한 강조점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나타난다(비록 기도에 대해 마가가 두 번 언급하지만, 참조, 1:35; 6:46). 마태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만큼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신 일을 자주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마치시때”** 예수께서 정규적으로 기도를 하신 삶은 사도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들로 이것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부와 교제하시며 친밀함을 누리시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 권세, 말씀은 이 친밀감에서 왔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들이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예수께서 성부와 가지신 교제를 필요로 했다.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 제자들은 긴급성을 느끼고 이러한 요청을 드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지신 평화와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다.

▣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부가 이전에 침례(세례)요한의 제자였음을 요 1:29-41 을 통해서 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앞으로 어떤 시점에 이르러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진리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바로 선생이 감당할 역할이었다(참조, 5:33). 기도는 평생동안 성부를 의지할 수 있게 돕는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일이었다(참조, 10:21-24).

**11: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편, 이 특별한 구의 사용은 이 기도문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참조, 마 6:9). 누가의 본문은 마태의 본문보다 더 짧다(참조, 마 6:9-13).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여러 번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이다.

▣ **“아버지여”** 구약은 하나님께 대하여 친밀한 가족적 표현인 아버지를 사용한다.

1.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일컫는 유추가 사용되었다(1:31; 32:6)
2. 이 유추는 시 103:13 에서 언급되었으며 시 68:5 에서 발전되었다(고아의 아버지)
3. 이스라엘 국가가 종종 야웨의 “아들”로 불린다(참조, 호 11:1; 말 3:17)
4. 이 호칭은 예언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참조, 사 1:2; 63:8; 이스라엘은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63:16; 64:8; 렘 3:4,19; 31:9)

예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따라서 헬라어에서 “아버지”로 언급된 단어는 많은 경우 아람어의 *אַב*를 반영할 것이다(참조, 14:36). “아빠”라는 가족적 용어는 예수께서 성부와 더불어 가지신 친밀함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알리시 우리 자신이 성부와 더불어 친밀함을 누리도록 격려하신다. “아버지”라는 용어를 구약에서는 드물게 야웨께 대해 사용하지만(람비문학에서도 자주 사용하지 않음), 예수께서는 이 단어를 자주 또 충분히 사용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새로운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하늘에서 가족적 유대가 있다.

여러 고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P<sup>75</sup>, **א**, B, L 사본)은 “아버지”를 마 6:9 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A, C, D, W 사본)로 대치하고 있다. UBS<sup>4</sup>는 짧은 본문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매우 간략하다.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명령**이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거룩하다”라는 어근에서 왔으며(1:35 의 특별주제: 거룩을 보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참조, 왕하 19:22; 시 71:22; 78:41; 89:18; 사 1:4; 29:23[이사야에서 28 회 사용됨]). 하나님은 악에서 구별되신다. 이 용어는 종종 70 인역에서 사용되었다

1. 물건에 대해, 창 2:3; 암 2:12
2. 사람에 대해
  - ㄱ. 장자, 출 13:2,12
  - ㄴ. 이스라엘, 출 19:14
  - ㄷ. 제사장, 출 19:22; 29:21; 대하 26:18
  - ㄹ. 레위인, 느 12:47

▣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정과거 능동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 일은 어느 날 온 땅 위에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은 종말적인 강조점을 나타낸다(4: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관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과거(눅 13:28)
2. 현재(눅 17:21; 마 4:17; 12:28)
3. 미래(눅 11:2; 마 6:10)

**11:3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또 하나의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에서는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 되어 있다. 3 절은 삶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늦추어진 재림을 바라보는 조정된 종말론을 누가가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본문이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마태는 **부정과거**를 사용하여 단번에 주심을 의미하지만(즉, 종말론적 성취) 누가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때에 따라 계속적으로(매일) 주심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누가의 친구요 선교동역자였던 바울도 연기된 재림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한다(이것은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의 하나임).

▣ **“날마다”** 누가는 *칼 헤메란*이란 구를 종종 사용한다(참조, 9:23; 11:3; 16:19; 19:47; 22:53; 행 2:46,47; 3:2; 16:11; 17:11).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 **“일용할”**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επιουσιως*)는 신약에서 이곳과 마 6:11 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주인이 노예가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인이 양식을 주는 일(이집트에서 발견된 코이네 파피루스, 참조, TEV)을 말한다. 여기서 강조점은 다음에 있다

1. 신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함
2.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심(헬라어 관용법)  
이 단어는 “미래 혹은 새 시대의 양식”이라는 종말론적 강조점을 가진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신자들 안에 임하였음을 나타낸다(유추적으로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에 나타난 “이미이면서 아직인 미래”를 가리킨다.

▣ **“양식”** 이 문맥에서 어떻게 이 “양식”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다.

1. 글자 그대로인 의미의 양식
2. 주님의 만찬에서의 떡(참조, 행 2:46)
3. 떡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킴(참조, 마 4:4; 눅 4:4)
4. 예수님 자신(참조, 요 6:41,48,51,55)
5. 메시아의 잔치(참조, 눅 14:15)

여기서 처음 항이 문맥에 들어 맞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일상적 필요를 채우심을 나타낸다.

**11:4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사역(최초의 칭의와 성화) 및 계속적인 죄 용서의 필요(점진적인 성화, 참조, 요일 1:9)가 신자들의 삶에 있음을 나타낸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표적을 빗나가다”를 뜻한다. 마태복음의 평행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아람어인 “빋”이 나오는데, 이 용어는 누가복음의 대상인 이방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유대적 관용어였다.

**특별주제: 성화**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즉시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된다고 신약은 단언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위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다(참조, 롬 4 장).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다(하나님의 법적 행위).

신약은 또한 신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초한 신학적 지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 구원이 은사이자 값진 삶의 양식이듯이 성화도 그러하다.

**최초의 응답**

- 행 20:32; 26:18
- 롬 15:16
- 고전 1:2-3; 6:11
- 살후 2:13
- 히 2:11; 10:10,14; 13:12
- 벧전 1:2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 롬 6:19
- 고후 7:1
- 엡 1:4; 2:10
- 살전 3:13; 4:3-4,7; 5:23
- 딤했 2:15
- 딤후 2:21
- 히 12:14
- 벧전 1:15-16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이다(참조, 마 5:7; 6:14-15; 7:1-2; 10:8; 18:35; 눅 6:36; 골 3:13; 약 2:13; 5:9).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토대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 새 심장과 새 마음의 결과요 증거이다(즉, 새 언약, 참조, 렘 31:31-34; 겔 36:22-35). 이 구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을 갖는 유일한 항목이다.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부정된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결코 ~하지 마옵시고”). “시험”(*πειρασ*)이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멸망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험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10:2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수께서는 눅 22:40,46 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약 1:13 은 다른 단어(*δοκιμαζο*)를 사용하여 시험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인증하기 위한 의도적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시험하신다(참조, 창 22:1; 출 16:4; 20:20; 신 8:2,16; 13:3; 사 2:22; 대하 32:31; 마 4:1; 살전 2:4; 벧전 1:7; 4:12-16).

고대의 여러 헬라이어 대문자체 사본은 마 6:13 에 있는 구를 추가시킨다(A, C, D, W 사본). 누가복음에 있는 짧은 본문은 P<sup>75</sup>, **א**, C, L 사본에 있다. UBS<sup>4</sup> 는 짧은 본문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개역개정 11:5-13**

<sup>5</sup>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sup>6</sup>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sup>7</sup>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sup>8</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sup>9</sup>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sup>10</sup>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sup>11</sup>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sup>12</sup>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sup>13</sup>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1:5-13**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려 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려 하심을 나타내는 본문이다. 이것은 대조를 이루는 비유로 불린다. 이것은 사람이 내켜하지 않는 모습 및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려 하심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11:5**

NASB, NRSV, TEV, NJB “너희 중에 한 명을 가정해 보라”

NKJV “너희 중에 무엇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너희 중에 누가”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기 위해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참조, 11:5,11; 12:25; 14:5,28; 15:4; 17:7). 이 문학적 서언은 구약의 사 42:23 과 50:10 에 나온다.

이 절은 문화적으로 “아니오”라는 답을 기대한다(켄넬 베일리, *시인파 농부* 119-141 쪽).

**11:6 “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객들이 열기를 피해 밤에 여행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밤에 여행하는 일이 위험하여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았다.

▣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당시의 문화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손님을 맞은 이가 해야 할 일이었다.

**11:7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 집 주인은 그가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한다.

**11:8** 이것은 비유의 핵심을 설명하는 절이다. 기도에 있어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참조, 9-10 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키지 않아하심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참조, 18:1-6).

하나님께서서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 때와 경우에도 모든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서는 고대의 어떤 주인장보다도 우리를 도와주신다(참조, 시 23:5-6).

**11:9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삶의 양식과 습관에 대한 명령이다(참조, 신 4:29; 랍 29:13). 인간의 끈덕짐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성품에 균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시도록’ 강요할 수 없다. 동시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하늘 아버지께 어떤 필요든지 가지고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다. 예수께서는 겹세마네에서 같은 기도를 세 번 드리셨다(참조, 막 15:36,39,41; 마 26:39,42,44). 바울도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인해 세 번 기도드렸다(참조, 고후 12:8).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간구한 내용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는 일이나 아니라 우리가 성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다!

끈질김(문자적으로는 “부끄러움이 없음”)이 중요하다(참조, 눅 18:2-8). 한편 이것은 내키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와 염려를 기도으로써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말로 기도하거나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일은 성부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신자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삶이다.

**11:11-12** 두 질문이 “아니오”라는 답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기도의 신비를 제시하셨다. 마태는 두 가지 예를 들고 누가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다(참조, 눅 11:12, 비록 사본적 전통에 약간의 혼동이 있지만). 각 예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정의한다(참조, 눅 11:13). 사실 우리의 성부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우리의 적절치 않고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예는 모두 비슷해 보이는 사물이다: 돌을 빵으로, 뱀을 생선으로, 몸을 들고 있는 흐릿한 색의 전갈을 달걀에 비교하고 있다.

**11:11 “생선 대신에”** 이것의 셈어적 형태는 “그리고 ~대신에”이지만(참조, P<sup>45,75</sup>, B), 일반적인 헬라이어 관용어는 “~이 아니라 ~대신에”이다(참조, N, A, D, L, W). 이것은 후기의 헬라이어 서기관이 신약 저자(누가의 경우에도)에게 미친 아람어적 영향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드문 형태의 셈어적 표현을 자신의 일반적인 코이네 헬라이어적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예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복음서는 녹화테잎이 아니라 성경께서 영감을 주신 기억이다. 복음서들의 차이는 복음서의 영감성과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13**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다른 면에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완곡하게 확인하는 표현이다(참조, 롬 3:9,23). 약한 인간과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 대조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족관계에 대한 유사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 7:11 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는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말한다. P<sup>45</sup>, N, D 사본은 눅 11:13 에서 “좋은 선물”로 말한다(암브로스가 사용한 헬라이어 본문도 마찬가지임). 이 점은 이 내용이 성령님 자신이 아니라(관사가 사용되지 않음) 영적 선물을 가리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F. F. 브루스, *절문에 대한 답* 53 쪽).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성부께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본문을 나는 성경에서 단 한 곳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신다. 한편, “성령”으로 말하는 사본이 주류를 이룬다(참조, P<sup>75</sup>, N, A, B, C, W 사본).

이 본문에 또 다른 사본적 변이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 (1) “하늘 아버지” (참조, P<sup>45</sup>, N, L) 혹은 (2)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실 것이다” (참조, P<sup>75</sup> 및 마 7:11 의 평행구절)가 사용되었다. 다른 대다수의 변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본문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역개정 11:14-23**

<sup>14</sup>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sup>15</sup>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sup>16</sup>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sup>17</sup>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sup>18</sup>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sup>19</sup>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sup>20</sup>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sup>21</sup>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sup>22</sup>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sup>23</sup>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11:14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마 12:22 은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눈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고 말한다. 마 12:22-32 및 막 3:2-30 은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배경과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을 못했다”라는 이 헬라이어 구에 있어서 사본적 변이가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본에서 “그리고 이것은 ~였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었다(참조, P<sup>45,75</sup>, N, A\*, B, L).

브루스 M. 메츠거(*헬라이어 신약에 대한 본문 주석*, 158 쪽)는 긴 형태의 본문은 누가가 사용한 셈어적 표현이지만 더 짧은 본문이 대다수의 헬라이어 사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UBS<sup>4</sup>의 번역 위원회는 이 구를 괄호에 넣고 이것에 “D”등급(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움)을 준다. 한편 UBS<sup>4</sup>는 이것에 “C”등급(결정하기에 어려움)을 준다.

다른 대다수의 변이와 마찬가지로 이 변이는 이 절의 의도 혹은 전체 문단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15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마 12:24 에서는 “바리새인”으로 말하고 막 3:22 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로 말한다.

▣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구약에서 에그론(참조, 왕하 1:2,3,6,16)에서 섬긴 풍요의 신이었다(*비알*, BDB 127). 신약의 사본에서는 베엘세불 혹은 베엘세불이라는 철자로 되어 있다(참조, 막 3:22 및 마 10:25). 이것은 우상의 이름을 살짝 바꾸어 불러 놀리려는 유대인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불*은 “똥의 주”를 가리킨다. *세불*은 “높임을 받다”로서 후기의 유대교에서는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했다. *세불*은 라틴 벌게이트역과 페슈타타역에서 사용되었다.

“귀신의 왕”이라는 구는 “바알세불”을 사탄과 동일시한다(참조, 18 절). 구약이 사탄과 귀신(4:1 의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귀신을 보라)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신구약 중간시대의 문학작품(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음)에서는 사탄을 귀신의 두목으로 제시한다.

구약의 타락한 천사와 귀신의 관계도 확실하지 않다(참조, 계 12:9). 에녹 1 서는 창 6 장의 네피림이 홍수로 죽었는데 이들이 육체를 찾아 다니는 귀신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11:16 “예수를 시험하여”** 이 용어(페이라조, 11:4 의 설명 및 10:25 의 특별주제를 보라)는 신약에서 “멸망시키려고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문단은 두 가지의 주제를 혼합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1.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
2.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의한 시험

귀신을 쫓아내신 일 자체가 예수의 신분, 권위,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표적이었다.

▣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이 일을 받아들이려하지 않았다(참조, 고전 1:22). 표적을 구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참조, 29-30 절; 마 12:38; 요 2:18; 6:30).

그들이 이렇게 표적을 고집하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생각나게 한다(참조, 마 4 장; 눅 4 장). 그때에 사탄은 성전의 첨탑에서 뛰어 내려 명절에 몰려 든 유대인들의 무리를 놀라게 하라고 예수를 시험했다(참조, 4:9).

**11:17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5:22; 6:8; 9:47; 24:38 의 설명을 보라.

**11:17-18** 예수께서는 자신의 적대자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셨다. 사탄이 왜 자신의 종들로 하여금 패하게 한단 말인가(참조, 18 절)?

**11:18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참조, 18,19,20 절)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논리적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19 절에 있는 내용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 사실상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구문은 저자로 하여금 강한 논리적 제시를 하게 돕는다. 사실상 이 진술은 진리가 아니다!

▣ **“그의 나라”** 사탄은 왕국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유지하고 또 확장시키기를 원한다. 따라서 영적 갈등이 일어난다(참조, 요 12:31; 14:30; 16:11; 고후 4:4; 엡 2:2; 4:14,27; 6:11-12,16; 약 4:7; 뱀전 5:8-9).

**11:19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다(참조, 행 19:13-16; 요세푸스의 *고대사* 8.2.5 을 보라). 만일 그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부인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귀신쫓는 일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특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 참조, 9:49-50; 막 9:38-40)?

▣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최소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이 유대인 축사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알아 보았다. 이 무리(마태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름)는 빛을 어둠으로 부름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고 들었지만 이 일을 악한 것으로 여겼다!

**특별주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해석하기 위한 석의적 과정**

- 가. 복음서가 유대적 배경을 가짐을 기억하라
  1. 두 종류의 죄(참조, 례 4:2,22,27; 5:15,17-19; 민 15:27-31; 신 1:43; 17:12-13)
    - ㄱ. 고의적이지 않은 죄
    - ㄴ. 고의적인 죄
  2. 오순절 이전의 유대적 배경(즉, 복음의 완성과 성령의 임하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음)
- 나. 막 3:22-30 의 문학적 문맥을 주목하라
  1. 예수님 자신의 가족이 믿지 않음(참조, 3:31-32)
  2.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음(참조, 2:24; 3:1,6,22)
- 다. “인자”라는 호칭이 “사람들의 아들들”로 바뀌는 본문으로서 평행을 이루는 내용을 비교하라
  1. 마 12:22-37(즉, 12:32, “인자를 공격하는 말”)
  2. 눅 11:14-26; 12:8-12(즉, 12:10, “인자를 공격하는 말”)
  3. 막 3:28(즉, 12:32,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11:20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구는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1. 창조자 하나님, 시 8:3
2.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출 31:18; 신 9:10
3. 구속자이신 하나님,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심, 출 8:19

이것은 신인동형적 구이다(1:51의 특별주제를 보라). 인간은 영적인 인물, 사건, 물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지상의 어휘를 사용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유추적이며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용어(신체, 정서, 관계)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으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으신다(예, 창 3:8; 18:33; 레 26:12; 신 23:14).

▣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논리가 너무나 강력하다.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그는 메시아이다.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능력과 권위를 거부한 일은 야웨를 거부함이 된다(참조, 요일 5:10-12).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사탄과 그의 왕국이 패하였음을 나타낸다. 종말론적 사건(참조, 사 24:21-23; 계 20:1-3)이 예수의 사역을 인하여 도래했다. 왕국이 현재 임하였지만(참조, 마 12:28) 아직은 미래적인 일이다! 이것은 신약에 나타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사탄은 패하였고 또 패하고 있는 중이다!

**11:21-22** 예수께서 사탄의 왕국과 그를 따르는 자들 위에 권세를 가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셨음을 나타낸다. 예수님 및 예수께서 보내신 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은 하나님의 권세가 악한 자를 제압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심지어 “강하게 완전무장한 자를” - **완료 수동 분사**). 사탄은 예수 앞에서 무력하게 되었다(참조, 22 절; 10:18).

**11:22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것은 사 53:12b의 암시일 것이다(“그가 강한 자로 더불어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이것(스킬론)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어 전리품을 나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70 인역의 출 15:9; 민 31:11,12,26,27; 삼상 23:3).

**11:23** 이것은 9:50의 내용과 상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9:50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관용에 대해 말씀하신다.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 및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인식하였으며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는 자들로서(참조, 16 절) 예수께서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터 받은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이 두 곳에서 문맥 및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

**개역개정 11:24-26**

<sup>24</sup>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sup>25</sup>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sup>26</sup>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11:24-26** 이 본문의 세 가지 가능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신앙이 없이 귀신 쫓는 일을 행했기에 귀신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2.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를 제하지 않고 야웨께 대한 믿음의 관계를 갖는 일에 대한 암시이다.
3. 이것은 침례(세례)요한의 설교를 가리킨다.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은 인정하였지만 예수를 거부했다.

나중의 상황이 현재적인 문제보다 더 악하였다.

**11:24 “더러운 귀신”** 4:33의 특별주제 및 귀신을 쫓아냄에 대한 4:35의 설명을 보라.

▣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구약에 의하면 귀신들은 사람이 살지않는 곳에서 살았다(참조, 레 16:10; 사 13:21; 34:11).

“쉬다”(아나파우시스)라는 용어는 70 인역의 사 34:14에서 사용되었다(요셉 A. 피츠마이어, 누가복음 제 2 권 925 쪽). 이 본문은 리리스(밤의 여자 귀신)이 쉬는 장소에 대해 말한다. 4:1의 특별주제: 구약에 나오는 귀신을 보라.

**11:26 “악한 귀신 일곱”** 이것은 더 심하게 귀신들림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만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호하게 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라고 더 심하게 된다. 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기에 악은 더 심하게 될 수 있고 또 강화될 것이다.

**개역개정 11:27-28**

<sup>27</sup>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쪼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sup>28</sup>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11:27 마 12:46-50 에 나오는 평행구절은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를 만나려는 내용으로 제시된다. 누가는 이 사건을 일찌기 8:19-21 에서 기록했다.

이 본문은 복음서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복음서에 역사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오늘날 서구의 원인과 결과를 중시하는 역사적 순서에 따른 기록이나 전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복음서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전도적 소책자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가장 큰 주제이다.

11:28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여인이 한 말을 인정하셨지만, 단순히 가족적 유대(즉, 피로 이룬 혈족)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더 큰 축복)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자(참조, 눅 6:46-49)가 누릴 수 있음을 확증하여 말씀하셨다.

▣

NASB	“오히려”
NKJV	“더욱”
NRSV, TEV	“도리어”
NJB	“더”

이 헬라어 합성어(πεν + 운)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에 추가시킨다. 이 내용은 (1) 그 내용을 확증하거나 (2) 그 내용을 부정하거나 (3) 그 이상을 말한다(참조, 롬 9:20; 10:18; 빌 3:8). 문맥상 3 항이 가장 적합하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8:21 과 평행을 이룬다. 둘 다 현재 능동 분사이다. 두 단어는 신 6:4-6 에 나오는 שמע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나타낸다. 예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이를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 줄 자들을 원하신다.

예수님은 말씀(로고스)을 주시는 분이시며 말씀이시다(참조, 요 1:1). 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이를 행함으로써 축복을 누린다!

개역개정 11:29-32

<sup>29</sup>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sup>30</sup>요나가 니스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sup>31</sup>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sup>32</sup>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1:29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마태복음의 평행본문(참조, 12:38-42)에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른다. 누가의 이방인 독자들은 이것이 지닌 구약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즉, 믿음이 없고 우상숭배 하는; 예, 출 34:15-16; 신 31:16; 삿 2:17; 8:27; 겔 6:9; 23:30; 호 3:1; 4:12; 9:1). 이 절은 16 절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 “표적을 구하되” 막 8:11-12 에서 예수는 표적을 행하기를 거부하신다! 마태와 누가는 둘 다 예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암시하심을 기록한다.

1. 마태는 그가 큰 물고기 안에서 삼일 있었음을(즉, 예수의 부활)
2. 누가는 그가 니스웨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선포하였음을(즉,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이미 들었으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시는 일을 이미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도록 확신을 줄 어떤 커다란 표적을 구하였다. 이것은 마 4:5-7 에 나오는 시험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실제로는 예수께서 표적에 표적을 계속 주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볼 수도 없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구절(마 12:38-42)에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삼일을 있음같이 예수께서 삼일 동안 무덤(하테스)에 계심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것이 유대인의 개념에 따른 삼일이지 24 시간으로 이루어진 삼일을 뜻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루어진 하루의 어느 한 부분도 하루로 계산했다. 예수께서 요나에 대한 암시를 하시는 내용은 선지자 요나의 역사성을 확증한다(왕하 14:25 도 마찬가지임). 여기서 유추를 위해 사용한 내용은 큰 물고기 안에서 가졌던 바로 그 경험이었다. 또한 요나의 설교가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결론을 이룬다(누가가 대상으로 하는 청중은 이방인이었다).

누가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스웨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강조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무리로 하여금 자신의 가르침과 그들이 구하는 구약의 표적이 되는 기적들을 인하여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참조, 32 절).

11:30 고대의 니스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요나의 설교였다. 그 도시는 악하고 잔인한 앗시리아의 수도였다(이스라엘의 적임).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구절에서는 삼일간 큰 물고기 안에 있었던 요나에 대해 말함으로써 예수께서 삼일간 땅에 계심을 표적으로서 말한다.

11:31 “**남방 여왕**” 이것은 스바의 여왕(이방인)이 왕상 10 장과 대하 9 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온 일을 가리킨다.

▣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나사렛 목수가 자신에 대해 언급한 자기 이해가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그는 자신이 솔로몬보다(참조, 49,52 절) 더 큰 지혜를 가졌다고 보았다.

예수께서는 여러 그룹의 사람과 한 대화에서 자신이 다음의 내용보다 “더 크심”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1. 성전보다, 마 12:6,8
2. 요나보다, 마 12:41; 눅 11:31
3. 솔로몬보다, 마 12:42; 눅 11:32
4. 야곱보다, 요 4:12
5. 침례(세례)요한보다, 요 5:36
6. 아브라함보다, 요 8:53

이 내용은 어떤 미친 사람의 두서없는 말이든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증거이든지 둘 가운데 어느 하나이다! 듣는/읽는 각 사람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11:32 “**니스웨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들”이라는 말로써 민족을 나타내는 용법임이 분명하다.

▣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떤”이라는 의미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라. 예수의 지혜와 메시지는 구약의 어떤 지혜나 메시지보다도 더 큰 내용이었다. 요나의 메시지는 이교도 국가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나의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음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여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받는 정죄는 더 심각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뛰어난 메시지를 듣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11:33-36**

<sup>33</sup>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sup>34</sup>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sup>35</sup>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sup>36</sup>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11:33-36 이같은 은유적 표현이 마 5:15; 막 4:21; 눅 8:16 에서 사용되었지만 서로 다른 적용점을 갖는다. 예수께서 같은 예화를 서로 다른 경우에 사용하셨음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갖는 자세와 마음을 여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불린다(11:29 의 특별주제를 보라). 내가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 3:29 및 마 12:31-32 에서 주석한 내용인 아래의 설명을 보라.

“**막 3:29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 이전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거부를 받는 의미를 가리킨다. 이 절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불린다. 이 내용은 반드시 다음의 시금석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1. 구약에서의 “고의적” 죄와 “고의적이지 않은 죄”의 구분(참조, 민 15:27-31)
2. 이 문맥에서 예수님 자신의 가족이 믿지 않은 일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3. 28 절에 있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
4. 복음서에 나오는 평행구절의 차이점, 특히 “인자”(참조, 마 12:32; 눅 12:10)가 “사람들의 아들들”(참조, 마 12:31; 막 3:28)로 바뀐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커다란 빛과 이해를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를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이 범하는 죄를 가리킨다. 그들은 복음의 빛을 사탄의 어두움으로 바꾸어 놓는다(참조, 30 절). 그들은 성령께서 이끄심과 확신을 주심을 거부한다(참조, 요 6:44,65).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한 가지 행위나 말로 인해 하나님께 거부받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지않음으로써 계속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나타낸다.

이 죄는 복음을 접한 자들만이 범할 수 있는 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들은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에 대해 가장 커다란 책임을 가진다. 이 죄는 오늘날 복음에 지속적으로 접하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문화적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즉, 미국, 서양의 문화).

▣ “**사람을 결코 받지 못하고**” 이 진술은 28 절의 내용과 균형을 이룬다.

▣ “영원한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은 큰 빛을 접하였음에도 의지적으로 복음(즉,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거부함을 뜻한다!

“영원한 죄”라는 구와 관련하여 여러 번이 나타난다. 어떤 고대 헬라이어 사본들은 (1) 이것을 **소유격** 구로 바꾸거나(즉, *하마르티아스*) - C\*, D, W) 혹은 (2) “심판”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거나(즉, *크리세오스*) - A, C2 (참조, KJV) (3) “고통”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즉, *코라세오스*) - 1234 소문자체 사본.

초기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죄”라는 개념은 충격이 되었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은 *구약의 동의회*에서 “영원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는 신약에서 40 회 이상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재적인 선물을 뜻하며 또한 부분적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롬 16:26 에서는 하나님께서 끝 없이 존재하심을 나타내고, 히 9:12; 13:20 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끝 없이 효력을 미침을 나타내며, 롬 16:25; 딤후 1:9; 딤펠 1:2 에서는 이전 세대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마 18:8; 25:41; 유 7 절에서는 영원한 불을; 마 25:46 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막 3:29; 히 6:2 에서는 영원한 심판 혹은 정죄를; 살후 1:19 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나타낸다. 이 절에서는 최종적인 일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이 실행될 때에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어떤 변화나 보호나 기회가 완전히 또 영원토록 지나가 버림을 분명히 암시한다. 영원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인간의 생애와 그 이후의 생명의 관계에 대하여, 불신앙의 도덕적인 책임에 대하여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잘못이다. 또한 우리가 거기서 어떤 내용을 제하는 것도 잘못이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영원한 심판의 교리에 의해 휘청거리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붙들며 그 내용에 만족해야만 한다”(318-319 쪽).

**마 12:31-32** 이것은 성령에 대한 신성모독을 나타내는 내용으로서 종종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불린다. 평행구절인 막 3:28 에서 볼 때 이 문맥에서 사용된 “인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혹은 “인류”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러한 해석은 31 절과 32 절에 있는 평행법의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무지의 죄가 아니라 커다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죄를 뜻한다. 자신이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알기 소원하는 자들과 이러한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다! 이 죄는 큰 빛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죄로서 영적으로 못이 박힌 상태에 달함을 뜻한다. 이것은 히 6:4-6 과 10:26-31 에 언급된 죄와 비슷하다.”

11:34  
NASB, NJB “맑으면”  
NKJV, NIV “선하면”  
NRSV “건강하면”  
TEV, REB “건전하면”

마 6:22-23 에 대한 설명을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보라.

**특별주제: 관대한/신실한(하플로테스)**

이 용어(*하플로테스*)는 두 의미 즉 “관대한”과 “신실한”을 나타낸다. 이것은 시력과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이다. 구약에서 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동기를 뜻한다.

- 1. 악한 눈(인색, 참조, 신 15:9; 잠 23:6; 28:22)
- 2. 선한 눈(관대한, 참조, 잠 22:9)

예수께서는 이 용법을 따르셨다(참조, 마 6:22-23; 20:15). 바울도 이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

- 1. “단순함, 신실함, 깨끗함”(참조, 고후 1:12; 11:3; 엡 6:5; 골 3:22)
- 2. “후함”(참조, 롬 12:8; 고후 8:2; 9:11,13)

11:36  
NASB, NRSV, NJB “비취다”  
NKJV “빛나는 비취”  
TEV “그것의 밝음”  
REB, NIV “빛을 낸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비취”를 뜻하나(참조, 눅 17:24; 24:4) 여기서는 “빛나는 비취”를 뜻한다(해롤드 물튼, *개정된 분석적 헬라이어 사전*, 57 쪽).

개역개정 11:37-41

<sup>37</sup>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sup>38</sup>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sup>39</sup>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sup>40</sup> 어리석은 자들아 길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sup>41</sup>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11:37 “한 바리새인이 . . . 청하므로” 이것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거부함을 다루는 문맥임을 기억하라. 이 기록(참조, 37-41 절)은 그들이 주요 진리에 대해 영적 소경이었으며 탈무드의 규정에 근거하여 트집잡는 율법주의자(인간의 전통, 참조, 사 29:13)였음을 나타낸다. 5:17의 특별주제: 바리새인들을 보라.

▣ “점심” 식사와 관련된 용어인 *아리스톤*과 *테이프논*은 각각 점심(앞선 식사, 참조, 마 22:4; 요 21:12,15) 및 오후 4시경의 큰 식사(참조, 14:12)를 가리킨다. 앞의 용어가 여기서 사용되었는데 오전 시간대에 먹는 이른 식사를 뜻한다.

11:38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시려고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말한 바 지키기로 예상되는 의식적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셨음이 분명하다(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과 이 내용이 평행을 이룬다).

씻다라는 단어는 *밧티조*로서 의식에 따라 씻어 정결케 함을 뜻한다. 현대의 해석가들은 이 단어의 어원론적 의미를 사용하여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물에 잠김으로써 죽음을 말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문맥에서는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의 물(달걀 두 개)을 팔꿈치에 이르기까지 부어 손가락 끝에 이르게 한 후에는 다시 물이 손가락에서 흘러 팔꿈치에서 떨어지게 하는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나타낸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은 *구약의 동의어*(152-157 쪽)에서 *타발*이라는 히브리어와 *밧티조*라는 헬라어에 관하여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11:39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예수께서는 소소한 사항들(탈무드)을 지키면서 이를 영적인 사람의 표식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갖기 원하셨다. 마음이 모든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열쇠를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신다(참조, 40 절; 삼상 2:7; 16:7; 왕상 8:39; 대상 28:9; 대하 6:30; 시 7:9; 44:21; 잠 15:11; 21:2; 렘 11:20; 17:9-10; 20:12; 눅 16:15; 행 1:24; 15:8; 롬 8:27).

11:40 이 질문은 “그렇다”라는 답을 예상한다.

▣ “어리석은 자들아”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어리석음에 대한 언급의 선례가 나온다.

1. *캐실* - 지혜문학에서 자기 확신을 뜻함(예, 잠언 17 장, 26 장; 전도서 7 장)
2. *에월* - 주로 지혜문학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정신적 능력을 뜻함(예, 사 29:11; 35:8; 호 9:7)
3. *나발* - 머리가 빈 사람을 뜻함(예, 신 32:6,21; 삼하 3:33; 13:13; 시 14:1; 53:1; 렘 12:11)
4. *사갈* - 멍청한 사람을 뜻함(예, 삼상 26:21; 전 2:19; 10:3,14)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는 3 단어를 사용했다.

1. *아프론*, 눅 11:40; 12:20
2. *아노에토스*, 눅 24:25
3. *모로스*, 마 5:22; 23:17,19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사용하신 가장 강력한 표현은 마 5:22에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 사용한 *모로스*는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뜻하는 아람어 단어인 *라카*를 반영한다.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은 구약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1. *아프론*, 고전 15:36; 고후 11:16,19; 12:6,11
2. *모로스*, 고전 3:18; 4:10; 또한 롬 1:22에서는 이와 관련있는 형태의 단어가 사용됨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생각하는 면이나 행동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로 종종 말해진다! 바울의 풍자적인 언급은 고린도 전후서에 자주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너무나 자신있게 자기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그들은 참된 지식을 보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

11:41

NASB

NKJV, NRSV, NJB

TEV

“자선”

“구제”

-

이 절은 잔의 안이 사랑과 순종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와 우월주의가 아니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사랑으로 밖에 드러나 보이게 됨을 뜻하는 말씀이다(참조, 42 절; 미 6:8).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구제**

**I. 용어 자체**

- 가. 이 용어는 유대교에서 발전했다(즉, 칠십인역이 번역된 시기).
- 나. 이것은 가난한 자 또는 궁핍한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 다. 영어 단어의 “자선”은 헬라어인 *엘레에모쉬네*에서 유래한다.

**II. 구제의 개념**

- 가. 가난한 자를 돕는 개념은 이른 시기인 오경에 나타난다
  - 1. 전형적 문맥, 신 15:7-11
  - 2. 가난한 자를 위해 추수 때 일부분을 남겨 두는 “이삭 줍기,” 레 19:9; 23:22; 신 24:20
  - 3. “안식년,” 휴경기인 제 7년의 소산물을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함, 출 23:10-11; 레 25:2-7.
- 나. 이 개념은 지혜문학에서 더 발전되었다(선택한 몇 가지 예)
  - 1. 욥기 5:8-16; 29:12-17(24:1-12에서는 사악한 자가 언급됨)
  - 2. 시편 11:7
  - 3. 잠언 11:4; 14:21,31; 16:6; 21:3,13

**III. 유대교에서의 발전**

- 가. 미쉬나의 첫 부분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지역의 레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룬다.
- 나. 선택된 인용문
  - 1. 집회서[또한 벤 시라의 지혜서로 알려짐] 3:30, “마치 물이 타오르는 불을 끄듯이 구제는 죄를 속죄한다”(NRSV)
  - 2. 집회서 29:12, “구제를 너의 보물창고에 쌓아 놓으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할 것이다”(NRSV)
  - 3. 토비트 4:6-11, “<sup>6</sup>네가 진리를 따르지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sup>7</sup>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외면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sup>8</sup>네 재산 정도에 맞게 힘 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sup>9</sup>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곤경을 당하게 되는 날을 대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된다. <sup>10</sup>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sup>11</sup>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공동번역)
  - 4. 토비트 12:8-9, “<sup>8</sup>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sup>9</sup>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 다. 마지막 인용인 토비트 12:8-9은 문제가 커짐을 보여준다. 인간의 행동/인간의 공덕은 죄의 용서와 풍성한 삶 양쪽 모두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개념은 칠십인역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구제를 가리키는 헬라어 용어(*엘레에모쉬네*)는 후에 *의(디카이오쉬네)*와 동의어가 되었다.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의 *의(BDB 842,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충성, 참조, 신 6:25; 24:13; 사 1:27; 28:17; 59:16; 단 4:27)*를 번역함에 있어서 대치하였다.
- 라. 인간이 동정심을 갖는 행동은 그들이 현재 사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 죽어서는 구원을 얻는 목표를 갖게 했다. 행동의 배경에 있는 동기 대신에 행동 자체가 신학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 보신 후에 손으로 행한 일을 심판하신다. 이점을 랍비들이 가르쳤지만 각자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다소 놓치게 되었다(참조, 미 6:8).

**IV. 신약에서의 반작용**

- 가. 이 용어가 사용되는 곳
  - 1. 마 6:1-4

2. 눅 11:41; 12:33
  3. 행 3:2-3,10; 10:2,4,31; 24:17
- 나. 예수께서는 전통적으로 의(참조, 클레멘트 후서 16:4)를 이루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설교한다:
1. 구제
  2. 금식
  3. 기도
- 다. 예수의 산상수훈에서(참조, 마 5-7 장).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어야지, 자신의 이득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되지 않아야 했다! 겸손 및 드러내지 않음은 적합한 행동이 되게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된다. 새 마음은 하나님을 본 받는다!

▣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것은 유대인의 음식규정을 지키며 자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내용이었다(참조, 레 11 장). 한편 예수께서는 구약의 요구조건을 완화하여 말씀하셨다(참조, 막 7:1-23). 즉 자신을 성경의 주로서 드러내신다(즉, 성경의 참된 유일한 해석자, 참조, 마 5:17-48). 이 진리는 행 10:9-16 에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되었다. 바울은 예식적 부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내용을 따르고 있다(참조, 롬 14:14,20; 고전 10:25-26; 딤후 4:4; 딤후 1:15).

**개역개정 11:42-44**

<sup>42</sup>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sup>43</sup>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sup>44</sup>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11:42 “화 있을진저 너희...” 이것은 장례식 만가의 형식을 사용한 구약 예언서에 있는 저주의 선언이다(참조, 42,43,44,46,52 절; 마 23:13-36).

▣ “십일조는 드리되”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십일조**

이것은 신약에 유일하게 있는 십일조의 언급이다.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이 자랄한 일까지 흠을 잡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약이 십일조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일반적인 드림(어떤 것이든지)에 대한 신약의 지침은 십일조를 훨씬 능가하는 내용으로서 고린도후서 8 장과 9 장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일 단지 구약의 지식만 가진 유대인이 10-30 퍼센트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다면(구약에는 십일조에 대하여 둘 혹은 세 가지의 명령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들여 십일조에 대하여 논할 필요조차도 없다!

신약의 신자들은 기독교가 새로운 율법의 준행을 요구하는 것(기독교 탈무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신약에서 재확인하지 않은(참조, 행 15 장) 옛 언약의 규칙을 이끌어 내어 특별히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번영을 약속한다(참조, 말 3 장)고 주장(현대 설교자들에 의해)하는 내용으로 교리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하다!

다음은 프랭크 스태그가 이것에 대해 한 말이다, *신약 신학* 292-293 쪽.

“신약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드림의 은혜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신약에서 십일조를 오직 세 번 언급한다: (1) 심지어 정원의 소출에 대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면서 정의와 공평과 믿음은 무시한다는 비평에서(마 23:23; 눅 11:42) (2) 자기는 매주 2 번씩 금식했고 자신의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렸다고 ‘자신에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교만을 폭로하는 본문에서(눅 18:12) (3) 벨기세택의 높음을, 그러므로 레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높음을 주장하는 본문에서(히 7:6-9)이다.

“예수께서 성전 체계의 일부분으로 십일조 하는 것을 인정하셨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또한 원리와 행함을 위한 성전과 회당의 일반적인 관습을 지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성전 예식의 어떤 부분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지적은 없다. 십일조는 대부분 농산물이었다. 십일조를 드린 사람이 먼저 성전에서 먹었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었다. 구약에서 진술된 십일조는 동물 희생의 체계 위에 세워진 종교적 제도에서만 실행될 수 있었다.

▣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우리가 의식이나 의식상의 행위를 인해 눈이 멀어 다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1. 하나님께 대한 사랑(참조, 신 6:4-6; 눅 10:27)
2.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의(참조, 레 19:18; 눅 10:27)

▣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켰다(참조, 마 23:24). 부역에서 사용하는 향신료의 십일조를 드리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살며 사랑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적인 일인가?

초대 교회의 이단인 말시온(2세기 초에 로마에 있었음)은 구약을 거부하는 한편 개정한 형태의 누가복음 및 바울서신만이 영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구약을 거부하였기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는 이 내용은 베자 사본(D)에 빠져 있다. 이 문장은 대부분의 초기 헬라이어 사본 및 역본에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D 사본의 경우는 말시온의 영향을 받아 이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43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을 기뻐하는도다”** 이 자리는 뛰어남의 자리이다. 가장 높은 자리는 토라를 둔 장소를 반원형으로 둘러싸며 회중을 바라보는 곳에 있었다(참조, A. T. 로벗슨, *신약의 위드픽처*, 제 2권 167 쪽). 마 23:1-12의 특별주제를 보라.

▣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 앞에서 서로를 일컫는 표준적인 표현이나 호칭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구는 그들이 회당과 시장에서 누리는 지위에 대한 교만함을 꾸짖으시는 내용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칭찬해줄기를 좋아했다!

11:44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덤에 닿는 일은 일주일 동안(랍비들의 해석) 사람을 의식상 부정하게 만들었다(참조, 레 21:1-4; 민 19:11-22). 한편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심코 이러한 종류의 일로 의식상 부정케 됨을 피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흰색 반죽을 무덤에 칠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마 23:27). 자기 의로 가득찬 율법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더럽게 함을 예수께서 비난하셨다!

**개역개정 11:45-52**

<sup>45</sup>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sup>46</sup>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대지 않는도다 <sup>47</sup>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느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sup>48</sup>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sup>49</sup>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렸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sup>50</sup>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sup>51</sup>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sup>52</sup>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11:45 **“한 율법교사가”** 이 단어는 서기관을 가리킨다(5:21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은 구전(탈무드)의 율법과 기록된(구전)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주된 일로 삼았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율법의 교사요 해석가로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일상 생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종교적 전문가였다(매고 푸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었다.

▣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휘브리조*라는 이 헬라이어 용어는 “강력한 박대”를 의미한다(참조, 마 22:6; 눅 18:32; 행 14:5; 살전 2:2).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자주 사용되었다(“모욕하다,” 참조, 삼하 19:44; 마카비하 14:42; “거만하다,” 램 31:29).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찔렸다(참조, 마 23 장).

11:46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이것은 이 절에 나타난 언어유희이다(같은 어근을 사용한 목적격). “짐”이라는 뜻을 가진 동사와 명사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랍비들이 토라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해석하여 구전적 전통(후에 탈무드로 경전화됨)을 발전시켰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종교적 규정과 절차는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일반 노동자들이 지킬 수 없었다(참조, 마 23:4; 행 15:10).

▣

- NASB “너희 자신은 너희의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대려고 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 NKJV “너희 자신은 너희의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대지 않는도다”
- NRSV “너희 자신은 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한 손가락도 들어 올리지 않는도다”
- TEV “너희 자신은 그들이 이러한 짐을 지는 일을 도우려 한 손가락도 뻗치지 않을 것이다”
- NJB “너희 자신은 너희의 손가락도 대지 않는 짐들을”

그들은 랍비들의 해석을 세세하게 지켰지만,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을 도울 시간도 가지려 하지 않았다.

“대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70 인역과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는 사용됨). M. R. 빈센트(*단어연구* 제 1 권 187 쪽)는 이것이 종양을 가볍게 만짐을 뜻하는 의학용어라고 말한다. 만일 이러한 뜻이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였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그 땅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세운 상세한 규정을 따르려 함에서 갖는 곤경에 대해 전혀 동정심을 갖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1:47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마 23:29-33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즉,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그들을 영예롭게 기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 큰 무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대변자들에 대한 기념비적인 건물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에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구약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것이다(참조, 마 23:34).

**11: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 인용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칭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참조, 고전 1:24,30; 골 2:3). 이것은 잠 8:22-31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 구약 본문은 요 1:1-14의 배경을 이룬다.

▣ **“선지자와 사도들을”**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과 신약의 대언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죽음과 펄박).

**11:50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것은 충격적인 절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신학과 역사와 소망의 절정을 이루신다. 예수를 놓치는 일은 모든 것을 놓치는 일이다! 궁극적 진리가 오셨는데(선지자들보다도 더 크신 자, 참조, 11 절) 이제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었다(참조, 14-26,29-36 절)! 11:31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 일은 주후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일을 가리킬 것이다.

**11:51 “아벨의 피로부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창 4:8) 최초의 고의적 살인이었다.

▣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것은 대하 24:20-22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가진 문제를 드러내시려고 예수께서 히브리 정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한 예(즉, 아벨)를 택하시고 히브리 정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상에서 한 예(사가랴)를 취하셨을 것이다(참조, 신 9:6,7,13,24,27; 31:27).

제단은 성전 입구에 있어 제사를 드린 장소를 가리킨 반면에 “하나님의 집”이란 명칭은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 성전의 바깥 쪽은 “성소”로 안 쪽은 “지성소”로 불렸다.

아벨의 죽음은 타락의 증거였고(참조, 창 3 장), 사가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곳(성전)을 의지적으로 무시함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참조, 53-54 절).

**11:52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예수님을 알아 보아야 했을(“지식의 열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다른 이들을 의지적으로 소경되게 만들었다(참조, 마 23:13).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비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참조, 마 16:19). 신자가 경건치 않거나 교만한 삶을 살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이다(참조, 마 23:13-15).

예수께서는 인간의 지식이 아닌 지혜의 열쇠이시다(참조, 고전 1:18-31). 예수께서는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셨다(참조, 계 1:18). 예수께서는 다윗의 참 자손이시며 그에게 주신 약속을 참으로 이루는 분이시다(참조, 삼하 7 장과 계 3:7).

개역개정 11:53-54

<sup>53</sup>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sup>54</sup>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11:53

NASB, NRSV

“매우 적대적으로 되어”

NKJV

“거칠게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TEV

“심하게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여”

NJB

“거세게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처음 단어인 *테이노스*는 “끔찍한,” “거침,” 혹은 “두렵게”라는 의미를 가진다(참조, 마 8:6). 이같은 의미로 70 인역의 욥 10:16 및 19:11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두 번째 단어인 *에네코*는 원한으로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막 6:19).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분노와 미움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마지막 주간에 매우 분명히 드러났다(참조, 막 6:19; 눅 11:53).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과 자기 의, 교만함을 비난하신 일이 이러한 고착된 반대를 가져왔다.

▣

NASB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직접 묻고”  
 NKJV, NRSV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그에게 꼬치꼬치 심문하고”  
 TEV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그에게 질문을 하고”  
 NJB “셀 수 없는 여러 질문에 대해 그가 답변을 하게 압력을 가하고”

*아포스토타티조*는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70 인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고전적 헬라이어 작품 및 후기에 속하는 헬라이어 문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을 기억에 의해 되풀이 하거나 반복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예수께 답변을 생각할 틈을 주지않고 연속적으로 질문을 퍼부음을 나타낸다. 그들의 전체적 의도는 예수께서 자신들을 강력히 비난하셨듯이 예수께서 잘못 답변하는 내용으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함이었다(참조, 54 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비난할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참조, 20:26).

11:54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다”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제거해야만 했다(참조, 20:20).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왜 서로 다른가?
2. 우리가 4 절과 약 1:13의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3.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 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거듭 거듭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4.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부른 일이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이 되는가?
5. 예수께서 제 1 세기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 누가복음 12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위선에 대한 경고	위선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대한 격려	위선에 대한 경고	공개적이고 두려움이 없는 연설
12:1-3	12:1-3	12:1-3	12:1-3	12:1-3
두려워 해야 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함을 예수께서 가르치시다		두려워 해야 할 분	
12:4-7	12:4-7	12:4-7	12:4-5 12:6-7	12:4-7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		그리스도를 시인함과 거부함	
12:8-12	12:8-12	12:8-12	12:8-9 12:10 12:11-12	12:8-9 12:10 12:11-12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재산을 쌓기에 대하여
12:13-21	12:13-21	12:13-21	12:13 12:14-15 12:16-20 12:21	12:13-15 12:16-21
돌보심과 염려함	염려하지 말라	걱정함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신뢰함
12:22-34	12:22-34	12:22-34 12:32-34	12:22-28 12:29-31 하늘에 있는 부 12:32-34	12:22-31 12:32 구제에 대하여 12:33-34
깨어있는 종	신실한 종과 악한 종	깨어있음에 대하여	깨어있는 종들	주인이 돌아옴을 준비하고 있음에 대하여
12:35-40	12:35-48	12:35-38 12:39-40	12:35-40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12:35-40
12:41-48		12:41-48	12:41 12:42-46 12:47-48	12:41-46 12:47-48
예수께서 나누임의 원인이 되심	예수께서 나누임을 초래하신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나누임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	예수와 그의 고난

				12:51-53
	때를 분변함		때를 이해함	때의 징조를 읽음에 대하여
12:54-56	12:54-56	12:54-56	12:54-56	12:54-56
비난하는 자와 화해하기	적과 평화하라		너의 대적과 화해하라	
12:57-59	12:57-59	12:57-59	12:57-59	12:57-5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상에 대한 간략한 개요

- |         |               |
|---------|---------------|
| 1-12 절  | 제자들           |
| 13-21 절 | 무리 속에 있는 자    |
| 22-53 절 | 제자들           |
| 54-56 절 | 무리(또한 13:1-9) |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2:1-3

<sup>1</sup>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sup>2</sup>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sup>3</sup>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12:1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 천명”이라는 용어는 “무수히 많음”을 나타내는 구약의 용어를 가리킨다(참조, 70 인역의 창 24:60; 레 26:8; 민 10:36; 신 32:30). 이 수는 일반적으로 “만”을 뜻한다. 여기서 이 단어는 매우 많은 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무리”에 강조점을 두는 공관복음의 용법이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1. 일반 백성
2. 병든 자
3. 호기심을 가진 자
4. 제자
5. 종교 지도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날의 해석자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움에 기인한다. 열린 귀와 받아들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즉, 밭의 비유, 참조, 8:4-15).

▣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경계하라,” NJB) 70 인역(예, 창 24:6; 출 10:28; 34:12; 신 4:9)과 신약의 누가복음(참조, 17:3; 20:46; 21:34; 행 5:35; 20:28)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봄이 아니라(참조, 11:41; 12:33; 18:22) “사소한 것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적 태도(참조, 11:37-52)를 가리킨다.

“누룩”(酵)이라는 용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썩음의 의미로서 악을 상징함
  - ㄱ. 출 12:15; 13:3,7; 23:18; 34:25; 레 2:11; 6:17; 신 16:3
  - ㄴ. 마 16:6,11; 막 8:15; 눅 12:1; 갈 5:9; 고전 5:6-8
2. 충만함의 의미로서 영향력을 나타냄(악의 상징이 아님)
  - ㄱ. 레 7:13; 23:17; 암 4:5
  - ㄴ. 마 13:33; 눅 13:20-21

오직 문맥에 의해서만 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지을 수 있다(이 점은 다른 모든 단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외식” 이것은 “판단하다”와 “~아래서”라는 두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참조, 6:41; 12:56; 13:15). 이것은 연극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말하다”를 뜻한다(참조, 70 인역의 마카비 2 서 5:25; 6:21; 마카비 4 서 6:15,17). 계속되는 문맥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느 날 흰히 드러나게 됨을 가리킨다(참조, 2-3 절).

마태복음의 평행구절(참조, 16:12)에서는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나타낸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곳에서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관련을 가진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복음서의 각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기적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며 또 자신의 독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편집자로서의 권리를 가졌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신학적 목적(연대적 순서가 아님)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편집자의 권리도 가졌다. 그들은 어떤 제한된 범주 내에서지만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개정하거나 이를 적합하게 각색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졌다. 이러한 점은 네 복음서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설명해 준다. 나는 그들이 말씀과 행하심과 대화와 사건들을 완전히 꾸며내어 제시할 편집자적 권리를 가졌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각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복음서들은 서구의 역사책이나 전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책자이다.

12:2 “감추인 것이” 이것은 **우회적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범죄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악한 태도를 완전히 숨기려 시도하지만 그것을 감출 수 없다.

2 절에 있는 **미래 수동 직설법**(“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은 종말적인 심판을 가리킨다(참조, 40,45-47 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참된 동기와 의도를 아셨으며, 장차 모든 이가 이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 속 생각과 의도를 모두 드러낼 것이다.

12:3 이것은 문맥에서 바리새인들(참조, 11:53-54)과 사두개인들(참조, 마 16:6)이 예수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밈을 가리킨다(아마도 헤롯당도 관련이 있다, 참조, 막 8:15).

▣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팔레스타인의 집은 평평한 지붕이 있어서 더운 계절에 그곳에서 먹고 잠자고 사회적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묘사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짐을 가리킨다.

#### 개역개정 12:4-7

<sup>4</sup>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sup>5</sup>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sup>6</sup>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sup>7</sup>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12:4 “내 친구” 이곳은 공관복음에서 이 구가 유일하게 사용된 절이다. 예수께서는 종종 “어떤 친구”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만 “내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신다. 한편 이 용어는 요 15:14-15 에서 3 번 사용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으로서만 아니라 친구되심을 확인해 주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하지 말라”는 **부정과거 수동(디포) 가정법**이다. “두려워 하라”(5 절)는 또 다른 **부정과거 수동(디포) 가정법**이다. 5 절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오는 “두려워 하라”는 **부정과거 수동(디포) 명령**이다.

이 두 절에 의도적 언어 유희가 명확히 나타난다. 이 표현에 있어서 차이점은 단지 액센트 표시 밖에 없다. **가정법**은 우발성을 나타낸다.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명령법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명하심을 나타낸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존경함이 신자를 특징짓는다. 또한 이 특성은 지혜롭고 적절한 것임을 항상 나타낸다. 환경과 악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며 몸(신체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과 영혼(영적이고 영원히 있는)에 영향을 미친다.

▣ **“몸을 죽이고”** 땅에 있는 원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참조, 마 10:28)!

**12:5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구약에서 유일신 주의는 모든 것의 원인을 야웨께 돌림으로써 입증되었다(참조, 신 32:39; 삼상 2:6; 욥 5:18; 사 30:26; 호 6:1). 점진적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악이 존재하게 하심을 주장한다(참조, A. B. 데이빗슨 *구약신학* 300-306 쪽).

또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신비를 나타낸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가가 신비이다!

2:14의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을 보라.

**특별주제: 유일신 주의**

“유일신 주의”라는 개념(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신교의 “높은 신” 혹은 이란의 이원론(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선한 신과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아브라함, 주전 2000년). 이집트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이 개념이 나타났다(아멘호텝 4세, 아케나텐으로로 알려짐, 주전 1367-1350 혹은 1386-1361년).

이 개념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1. “우리 *하나님* 야웨와 같은 이가 없다,” 출 8:10; 9:14; 신 33:26; 왕상 8:23
2.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신 4:35,39; 32:39; 삼상 2:2; 삼하 22:32; 사 45:21; 44:6,8; 45:6,21
3. “야웨는 한 분이시다,” 신 6:4; 롬 3:30; 고전 8:4,6; 딤후 2:5; 약 2:19
4. “당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삼하 7:22; 렘 10:6
5. “당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시 86:10; 사 37:16
6.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 43:10
7.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사 45:5,6,22
8.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사 45:14,18
9.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사 45:21
10.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 46:9

이 중요한 교리가 점진적으로 드러난 것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이른 시기의 진술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한 신을 믿는 것” 혹은 실행적인 유일신 주의(여러 신이 있지만 우리를 위한 신은 오직 한 분 이시다, 참조, 출 15:11; 20:2-5; 신 3:28; 5:7; 6:4,14; 10:17; 32:12; 왕상 8:23; 시 83:18; 86:8; 136:1-2)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철학적 유일신론)을 나타내는 처음 본문은 이른 시기에 속한다(참조, 출 8:10; 9:14; 신 4:35,39; 33:26). 이에 대한 완전하고 긴 형태의 주장은 이사야서 43-46장에서 발견된다(참조, 43:11; 44:6,8; 45:7,14,18,22; 46:5,9).

신약은 롬 3:30; 고전 8:4,6; 엡 4:6; 딤후 2:5; 약 2:19에서 신 6:4의 내용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마 22:36-37; 막 12:29-30; 눅 10:27에서 이것을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다. 신약은 물론 구약도 다른 영적 존재(귀신, 천사)의 실재성을 인정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만을 주장한다(야웨, 창 1:1).

성경적 유일신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유일하시다(존재적 의미를 가정하지만 이를 특정적으로 말하지 않음)
2.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참조, 창 1:26-27; 3:8)
3.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다(참조, 출 34:6; 느 9:17; 시 103:8-10)
4.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창 1:26-27) 교제를 위해(즉, 2항)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는 시기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출 20:2-3)

신약에서 볼 때

1.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세 분으로 나타내셨다(8:11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2.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드러내셨다(참조, 요 1:1-14; 골 1:15-19; 히 1:2-3)
3. 범죄한 인간의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시는 일이다(사 53장; 막 10:45; 고후 5:21; 빌 2:6-11; 히브리서)

▣ **“지옥” 케헨**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준말이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렉**(이것은 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변형이다(**멜렉**, BDB 572)). 이러한 예배는 구약 전체에 걸쳐 언급되었다(참조, 레 18:12; 왕상 11:7; 왕하 23:10; 대하 28:3; 33:6; 렘 32:35; 겔 16:20). 이 장소는 **도벳**(불탑)으로 불렸고 왕하 16:3; 21:6; 23:10; 렘 7:32; 19:4-6; 32:34-35 에 나온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었다(곡물, 짐승 배, 백성이 많아지게 하려고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드림). 16:23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디포) 명령**이다(참조, 5b 절에서 강조를 위해 반복됨). 이것은 높고 거룩하신 창조자/구속자/심판자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는 제물로 사용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다(참조, 물톤과 밀리간, 헬라이어 성경의 어휘 594 쪽).

“두 앓사리온”이라는 헬라어는 라틴어의 *아스*에서 유래했다. 이것은 작은 구리 동전으로서 한 데나리온의 1/10의 가치에 해당되었다. 이 새들은 매우 싼 가격에 팔렸다. 마 10:24-33의 평행구절을 보라.

15:8의 특별주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을 보라.

▣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우회적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대개 참새 4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렸고 한 마리는 거저로 주었다. 거저로 얻어 준 참새라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참조, 마 10:29-30).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었기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참조, 창 1:26-27).

▣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며 또한 모든 생명의 공급자요 유지자이시다(참조, 느 9:6; 마 5:45; 골 1:17). 그는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가게 하신다.

“섭리”에 대한 좋은 논의가 밀라드 J. 에릭슨의 *그리스도인의 신학*, 제 2 판 412-435 쪽에 나온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곧, 성부)을 신뢰하는 자들을 특별한 돌보심으로 대하신다. 신자들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다(참조, 뱀전 5:7).

**12:7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우리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털의 자취를 지키신다는 뜻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가 겪는 모든 문제, 모든 필요, 모든 일,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참조, 구약의 관용법, 삼상 14:45; 삼하 14:11; 왕상 1:52; 아처의 *성경 주석* 제 28A 권 960 쪽을 보라).

▣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완료 중간태(디포)명령**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려워함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특징적으로 있는 모습이다. 신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어떤 나쁜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일반적 약속으로 이 문단을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니며, 제 1 세기에도 그러했다. 이것은 종말적인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음 문단은 종말적 심판 및 현재의 심판에 대해 말한다. 이 두 문단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점과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요한 윌리엄 웬함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다; 세상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거부할 것이고 박해하며 죽일 것이다(참조, 마 10:21-22; 요 16:2).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곧게 해 놓으실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책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책은 한나 헛홀 스미스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비밀*이다. 이것은 축복이 되었다.

#### 개역개정 12:8-12

<sup>8</sup>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sup>9</sup>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sup>10</sup>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sup>11</sup>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sup>12</sup>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2:8 “누구든지”** 나는 복음의 초청에 사용된 포괄적인 **대명사**를 좋아한다. 그 예는 요 3:15-16(“누구든지”); 1:12(“모든 자”); 롬 10:9-13(“누구든지”)이다. 이 절에서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나타낸다(참조, 딤후 2:4; 딤후 2:11; 뱀후 3:9).

한편 “누구든지”가 복음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로 국한된다. 마 7:21-23 과 같은 구절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 언급한다(참조, 사 29:13).

▣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다”라는 용어(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은 호모레게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표현이다. 이 단어는 요일 1:9 에서 신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나타낸다. 한편 같은 용어가 마 10:32 및 막 8:38 에서는 신자가 예수께 대한 믿음을 대중 앞에서 말함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 절을 사용하여 예식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고 앎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그대로 사는 모든 자가 이 절의 내용을 성취한다. 막 8:38 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종말론적 문맥에서 다룬다.

**특별주제: 시인**

- 가. 헬라어에서는 시인함과 공언함을 표현하기 위해 같은 어근에서 온 두 단어를 사용한다(호모레게오와 엑소모로게). 야고보서에서는 호모(같음), 레고(말하다), 엑스(~로 부터)로 이루어진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뜻은 같은 내용을 말하다 또는 동의하다이다. 첨가된 엑스는 그것이 공공적으로 선언된 것임을 나타낸다.
- 나.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 1. 찬송하다
  - 2. 동의하다
  - 3. 선언하다(참조, 마 7:23)
  - 4. 인정하다
  - 5. 고백하다(참조, 히 4:14; 10:23)
- 다. 위의 단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1. 찬송하기(하나님)
  - 2. 죄를 인정하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있음을 인간이 자각함에서 이 두 가지가 발전했을 것이다. 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두 쪽을 다 깨닫는 것이 된다.
- 라. 신약은 다음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 1. 약속하기(참조, 마 14:7; 행 7:17)
  - 2. 동의를 나타내기(참조, 요 1:20; 눅 22:6; 행 24:14; 히 11:13)
  - 3. 찬송하기(참조, 마 11:25; 눅 10:21; 롬 14:11; 15:9)
  - 4. 시인하기
    - ㄱ. 사람을(참조, 마 10:32; 눅 12:8; 요 9:22; 12:42; 롬 10:9; 빌 2:11; 요일 2:23; 계 3:5)
    - ㄴ. 진실을(참조, 행 23:8; 요일 4:2)
  - 5. 공적 선언을 하기(법적 의미가 종교적 확인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됨, 참조, 행 24:14; 딤펴전 6:13)
    - ㄱ.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참조, 딤펴전 6:12; 히 10:23)
    - ㄴ. 죄를 인정하는 경우(참조, 마 3:6; 행 19:18; 히 4:14; 약 5:16; 요일 1:9)

▣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나는 10 절에 있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해석에 따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두 가지 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생기는 일이라고 본다. “8 절에 있는 “인자(나)”는 예수를 뜻하지만 10 절에 있는 “인자”는 이와 평행을 이루는 마 12:31-32(인자) 및 막 3:28-29(사람들의 아들들)을 고려할 때 일반적 의미에서 사람들을 뜻한다(참조, 9 절; 마 12:31a).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큰 빛을 받았지만 예수를 거부함을 말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알세불 논쟁에 뒤이은 다른 두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다(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1:33-36 의 자세한 설명과 11: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을 나타낸다(참조, 15:7,10). 이것은 예수께서 신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능력을 확인해 주는 절이다(참조, 롬 8:34; 히 7:25; 9:24; 요일 2:1).

12:9 “부인하는 자는” 이 용어(부정과거 중간태[디포] 분사)는 “부인하다,” “모른다고 말하다,” “인연을 끊다,” “부정하다,”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이같은 의미로 70 인역에서 사용되었다(참조, 창 18:15; 마카비 4 서 8:7; 10:15; 지혜서 12:27; 16:16). 이것은 예수를 거부함을 말하는 바로 그 단어이다. 이것은 불신앙과 거부함의 절정을 이룬다! 복음을 거부함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

12:10 “누구든지” 이 포괄적인 용어는 8 절과 10 절에서 사용되었다. 복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심판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일이다!

12:11 11 절의 동사들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가능성). 즉 이러한 특별한 박해가 모든 신자에게는 아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 “권세 있는 자” 1:2 의 특별주제: 알케를 보라.

▣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으로서 ‘염려하기를 결코 시작하지 말라’의 의미이다.

▣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이것은 설교자가 주일 설교나 성경공부를 준비할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박해에 처하고 공공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12: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박해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증거의 기회를 위해 특별한 도우심을 주실 것이다(참조, 21:15; 마 10:16-20).

**특별주제: 인격이신 성령**

이것은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성령”의 인격이다(이 호칭이 사용된 첫 경우가 아니다, 참조, 5:5; 9:1; 14:17; 15:13, 16).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즉, *루아흐*)은 야웨의 목적을 성취하는 힘이었지만 이것이 인격적이심을 말하는 암시가 없다(즉, 구약의 일신주의).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의 인격과 위격은 밝히 나타난다.

1. 성령에 대하여 신성모독을 범할 수 있다(참조, 마 12:31; 막 3:29)
2. 성령께서 가르치신다(참조, 눅 12:12; 요 14:26)
3. 성령께서 증거하신다(참조, 요 15:26)
4. 성령께서 유죄를 선고하시고, 인도하신다(참조, 요 16:7-15)
5. 성령께서 “그분” (즉, *호스*)으로 불리신다(참조, 엡 1:14)
6.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 있다(참조, 엡 4:30)
7. 성령께서 소멸되실 수 있다(참조, 살전 5:19)

삼위일체를 말하는 본문도 세 인격에 대해 증거한다

1. 마 28:19
2. 고후 13:14
3. 뱀전 1:2

성령은 인간의 활동과 관계하신다.

1. 행 15:28
2. 롬 8:26
3. 고전 12:11
4. 엡 4:30
5. 살전 5:15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사건이 아니라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예수께서는 항상 성령을 갖고 계셨다. 그의 침례(세례)는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누가는 교회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새 장을 준비한다. 예수는 여전히 초점에 있으시다. 성령도 여전히 효과적인 방편이시며, 성부의 사랑과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사람을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개역개정 12:13-21**

<sup>13</sup>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sup>14</sup>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sup>15</sup>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sup>16</sup>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sup>17</sup>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sup>18</sup>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sup>19</sup>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sup>20</sup>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sup>21</sup>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2: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가족 간의 유산과 관련된 사소한 내용을 요청하기 위해 중간에 나서서 말함이 분명하다. 이같은 질문이 랍비들에게 문의한 일반적인 질문이었기에 그는 이것을 하나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질문은 신 21:15-17 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12:14 “이르시되 이 사람이” 이것은 점잖은 책망이다(참조, 22:58,60; 롬 2:3; 9:20).

▣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께서는 자신을 단지 한 명의 랍비나 지역사회의 레위인으로 보는 일을 거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함을 선포하는 일을 삶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다.

“물건 나누는 자”란 용어가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70 인역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헬라 문학에서는 흔히 사용된 용어이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나누다”)는 예수께 질문하는 자가 13 절에서 사용했던 단어이다. 이 용어가 드물게 사용되었고 다른 여러 용어가 헬라어 사본에 나타나기에 UBS<sup>4</sup>는 이 본문(P<sup>75</sup>, **Ⓝ**, B, L, W)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12:15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 큰 강조를 나타내는 헬라어 구문이다(**현재 능동 명령과 현재 중간태 명령**이 둘 다 **복수형**임). 탐심(혹은 탐욕)은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댓가를 치르러서라도 더 많이”라는 생활양식과 자세를 뜻한다(참조, 롬 1:29; 엡 4:19; 5:3; 골 3:5)! 이것은 선악을 아는 결과이다! 탐심은 죽음을 가져온다(딤펴전 6:9-10).

**12: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다음 문맥은 지상에서의 소유에 대한 바른 태도 및 그릇된 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 비유는 돈과 소유가 공급하는 거짓된 안전을 강조하여 말한다. 로마의 속담에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더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과 돈에 둔 우선순위와 돈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자기 만족감이다(참조, 막 8:36-37).

**12: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것은 **미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생각하기 시작함(NASB)
2. 부자가 마음 속에서 몇 번이고 생각함

**12:19 “영혼아”** 이것은 *프쉬캐라*는 헬라어로서 *네페쉬라*는 히브리 용어를 반영하는 용어이다. 이 단어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참조, 행 2:41; 3:23; 롬 13:1) 혹은 이 지구에서 육체적 영역으로 존재함과 관련된 생명력을 가리킨다.

▣ **“평안히 쉬고”** 여기서 신학적 강조점은 인간이 가진 계획의 연약성과 주제넘음에 있다(참조, 잠 27:1; 약 4:13-15). 참 생명은 물질적 번영 이상으로 중요하다!

**12:20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볼 때 무신론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상 무신론적 인생을 살았다.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참조, 시 14:1; 53:1). 신약의 야고보서는 부의 우선권에 관하여 설명한 좋은 주석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아프론, 참조, 11:40; 12:20; 고전 15:36)라는 용어로서 마 5:22 에 나오는 단어인 아람어의 ‘라카’를 반영하는 “바보”(모로스)와 다르다. 예수님 자신이 모로스를 마 23:17,19 에서 사용하셨다. 11:4 의 특별주제: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용어를 보라.

▣ **“도로 찾으리니”** 이것은 놀랍게도 **복수형**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이다.

1. 누가는 종종 “그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않고 이 형태를 사용하였다(참조, 6:38; 12:11,20; 16:9; 23:31).
2. A. T. 로벳슨(*신약의 워드픽처* 제 2 권 176 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랍비들이 돌려서 한 말로 이것을 이해한다. 즉, 구약의 “장엄한 복수형”이다.
3. 미카엘 마길(*신약의 이해*, 239 쪽)은 이것을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다(참조, 16:22).

▣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물질주의자들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다(참조, 시 39:6; 49:10; 전 2:18-23).

**12:21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범위한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타락한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참조, 12:33; 마 6:19-34).

놀랍게도 D 사본(5 세기)과 고대 라틴 역본의 일부(4 세기와 5 세기에 속하는 a, b, d)는 21 절을 생략하고 있다.

UBS<sup>4</sup>는 이 절이 포함된 것에 A 등급(확실함)을 주는데 그 이유는 이 내용이 P<sup>45,75</sup>, **Ⓝ**, B, L, W 사본 및 많은 고대 라틴역에 있기 때문이다.

**특별주제: 부**

- I. 구약 전체의 관점
  - 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1. 창 1-2 장
    2. 대상 29:11
    3. 시 24:1; 50:12; 89:11
    4. 사 66:2
  - 나.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산의 청지기이다

1. 신 8:11-20
  2. 레 19:9-18
  3. 욥 31:16-33
  4. 사 58:6-10
- 다. 재산은 예배의 일부이다
1. 두 가지 십일조
    - ㄱ. 신 18:21-29; 신 12:6-7; 14:22-27
    - ㄴ. 신 14:28-29; 26:12-15
  2. 잠 3:9
- 라. 부는 언약에 충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말해진다
1. 신 27-28 장
  2. 잠 3:10; 8:20-21; 10:22; 15:6
- 마.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은 재물에 대한 경고
1. 잠 21:6
  2. 렘 5:26-29
  3. 호 12:6-8
  4. 미 6:9-12
- 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물은 죄악된 것이 아니다
1. 시 52:7; 62:10; 73:3-9
  2. 잠 11:28; 23:4-5; 27:24; 28:20-22
  3. 욥 31:24-28
- II. 잠언의 독특한 관점
- 가. 부는 개인의 수고의 영역에 따른다
1.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비난 - 잠 6:6-11; 10:4-5,26; 12:24,27; 13:4; 15:19; 18:9; 19:15,24; 20:4,13; 21:25; 22:13; 24:30-34; 26:13-16
  2. 열심히 일할 것을 격려함 - 잠 12:11,14; 13:11
- 나. 의로움 대 악함을 말하기 위해 가난함 대 부요함을 언급함 - 잠 10:1 이하; 11:27-28; 13:7; 15:16-17; 28:6,19-20
- 다. 지혜(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식을 따라 삶)가 부모보다 더 낫다 - 잠 3:13-15; 8:9-11, 18-21; 13:18
- 라. 경고와 충고
1. 경고
    - ㄱ. 이웃이 돈을 빌리는 것의 보증서기를 주의하라(보증인) - 잠 6:1-5; 11:15; 17:18; 20:16; 22:26-27; 27:13
    - ㄴ. 악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일을 주의하라 - 잠 1:19; 10:2,15; 11:1; 13:11; 16:11; 20:10,23; 21:6; 22:16,22; 28:8
    - ㄷ. 빌리는 일을 주의하라 - 잠 22:7
    - ㄹ. 재물의 신속히 사라짐을 주의하라 - 잠 23:4-5
    - ㅁ. 심판의 날에 재물이 도움이 되지 않음 - 잠 11:4
    - ㅂ. 재물은 많은 “친구”를 갖게 함 - 잠 14:20; 19:4
  2. 충고
    - ㄱ. 관대할 것을 권고함 - 잠 11:24-26; 14:31; 17:5; 19:17; 22:9,22-23; 23:10-11; 28:27
    - ㄴ. 의가 부요함보다 더 낫다 - 잠 16:8; 28:6,8,20-22
    - ㄷ.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위한 기도 - 잠 30:7-9
    - ㄹ.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 잠 14:31
- III. 신약의 관점
- 가. 예수
1. 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부를 신뢰하게 하는 독특한 유혹을 가져 온다.
    - ㄱ. 마 6:24; 13:22; 19:23
    - ㄴ. 막 10:23-31
    - ㄷ. 눅 12:15-21,33-34
    - ㄹ. 계 3:17-19
  2.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공급하신다
    - ㄱ. 마 6:19-34
    - ㄴ. 눅 12:29-32

3. 씨뿌리는 것은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영적 및 물질적으로)
    - ㄱ. 막 4:24
    - ㄴ. 눅 6:36-38
    - ㄷ. 마 6:14; 18:35
  4. 회개가 부에 영향을 미친다
    - ㄱ. 눅 19:2-10
    - ㄴ. 레 5:16
  5. 경제적 착취를 정죄함
    - ㄱ. 마 23:25
    - ㄴ. 막 12:38-40
  6.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 마 25:31-46
- 나. 바울
1. 잠언과 같은 실제적인 관점(수고함)
    - ㄱ. 엡 4:28
    - ㄴ. 살전 4:11-12
    - ㄷ. 살후 3:8,11-12
    - ㄹ. 딤후 5:8
  2. 예수님과 같은 영적 관점(물건들은 덧없이 사라짐, 만족하며 살라)
    - ㄱ. 딤후 6:6-10(만족함)
    - ㄴ. 빌 4:11-12(만족함)
    - ㄷ. 히 13:5(만족함)
    - ㄹ. 딤후 6:17-19(관대할 것, 부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
    - ㅁ. 고전 7:30-31(물건들이 바뀔 것임)

#### IV. 결론

- 가. 부에 관한 조직적인 성서신학은 없다.
- 나.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완벽한 본문은 없다. 따라서 여러 본문으로부터 자료를 모아야 한다. 당신의 견해를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 본문을 읽으려 하지 말라.
- 다. 지혜자들(현인)이 기록한 잠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장르보다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잠언은 실제적이며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본문에 의해 균형이 취해질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여 균형을 취해야 한다(참조, 램 18:18).
- 라.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부에 대한 견해와 실제 행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우리의 유일한 지침이 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잘못된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였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다.
- 마. 부의 축제는 반드시 참된 예배와 책임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참조, 고후 8-9 장).

#### 개역개정 12:22-32

<sup>22</sup>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sup>23</sup>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sup>24</sup>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sup>25</sup>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sup>26</sup>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sup>27</sup>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sup>28</sup>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sup>29</sup>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sup>30</sup>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sup>31</sup>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up>32</sup>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12: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이 큰 무리 안에 있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음이 분명하다(병자, 호기심을 가진 자, 종교 지도자, 제자). 이 문단은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마 5-7 장)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마 6:25-33 과 평행구절이 된다.

“그의” 제자들에서 **대명사**(그의)가 매우 이른 사본(P<sup>45,75</sup>, B) 및 두 고대 라틴어역인 c 와 e 에서 빠져있다. 한편, 이것이 들어 있는 것은 누가의 저술 스타일과 일치하며 **κ, Α, D, L, W** 사본에 나온다. UBS<sup>4</sup> 는 이것이 포함된 본문과 생략된 본문 사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이 단어를 대괄호(“ [ ] ”) 안에 놓았다.

▣ “너희 목숨을 위하여 . . .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제자들은 육신의 필요(참조, 마 6:25,27,28,31,34)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참조, 11,22,25,26 절).

목숨을 말하는 *프쉬켄*이라는 용어는 19 절과 23 절에서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12:23 이것은 신학적 요약이다. 신자들은 만물(참조, 31-32 절)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이다(참조, 롬 8:17).

12:24 “까마귀를 생각하라” 부정한 새일지라도(참조, 레 11:15)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참조, 시 147:9)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참조, 창 8:7; 왕상 17:4,6). 이 절은 욥 38:41의 내용을 반영한다.

▣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것은 예수께서 이 진술을 두 번째로 하신 절이다(참조, 7 절; 마 10:31).

12:25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페퀴스*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규빗”을 말한다. 이것은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장 긴 손가락까지의 거리이다. 이것은 대략 45cm 에 해당한다. 헬라어에서 이것은 두 가지 의지로 사용되었다.

1. 크기를 나타냄(참조, 요 21:8; 계 21:17)

2. 시간을 나타냄(참조, 마 6:27; 눅 12:25)

이 같은 이중적 의미가 *헬리키아*라는 헬라어에서 발견된다(NKJV, “그의 신장에 한 규빗을 더하다”). 이것은 크기(참조, 눅 19:3; 엡 4:13)나 시간(참조, 요 9:21,23; 히 11:11)을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는 두 용어가 다 시간을 가리킨다.

**특별주제: 규빗**

성경에 두 가지 규빗이 나온다(BDB 52, KB 61). 일반 규빗은 보통사람의 가장 긴 손가락에서부터 그의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대략 45cm 이다(예, 창 6:15; 출 25:10, 17, 23; 26:2, 8, 13, 16; 27:1, 9, 12, 13, 14, 16, 18; 민 35:4, 5; 신 3:11). 또한 긴 규빗(왕의 규빗)이 건축에 사용되었는데(즉,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이집트(즉, 21 손가락 두께), 팔레스타인(즉, 24 손가락 두께), 때로 바벨론(즉, 30 손가락 두께)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이 길이는 대략 53cm 였다 (참조, 겔 40:5; 43:13).

고대인들은 측량을 위해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1.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규빗)
2.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벌린 넓이(뺨, 참조, 출 28:16; 39:9; 삼상 17:4)
3. 주먹을 쥐었을 때 네 손가락의 넓이(손바닥 넓이, 참조, 출 25:25; 37:12; 왕상 7:26; 대하 4:5)
4. 손가락 가운데 마디의 길이(손가락 넓이, 렘 52:21)

규빗(BDB 52, KB 61)은 완벽하게 표준화되지 않았고 두 가지 종류의 길이가 있었다.

- ㄱ.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약 45cm, 참조, 신 3:11)
- ㄴ. 왕의 규빗은 좀 더 길었다(대략 50cm, 참조, 대하 3:3; 겔 40:5; 43:13)

12:26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12:27 “생각하여 보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 용어는 전치사 *카타*와 ‘이해하다’ 혹은 ‘파악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결합된 형태로서(참조, 마 7:3) 매우 신중한 고려를 나타낸다. 누가는 그의 저작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참조, 6:41; 12:24,27; 20:23; 행 7:31,32; 11:6; 27:39).

▣ “백합화”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아나모네, 크로커스 혹은 붓꽃을 가리킨다. 애 5:13 에서 이 꽃은 여인의 입술에 색을 칠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

NASB, NKJV, NET, NIV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들은 고생도 실도 만들지 아니하느니라”

NJB, NRSV(각주 f), REB “실도 만들지 않고 찌지도 아니하느니라”

NASB 는 P<sup>45,75</sup>, N, A, B, L, W 사본을 따르고, NJB 는 D 사본을 따른다. UBS<sup>4</sup> 는 앞의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이것은 마 6:28 에 있는 단어와도 일치한다.

▣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연은 창조자의 아름다움과 계획을 나타낸다.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을 이룬다(참조, 시 19:1-6). 자연에 나타난 미, 복잡성, 능력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참조, 롬 1:19; 2:14; 윌리엄 A. 템스키가 편집한 *이론상의 창조 및 델 랫쓰의 시작에 대한 논란*을 보라).

12:28 “만일” 이것은 또 다른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다(참조, 26 절).

▣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것은 하나님과 비교하여 볼 때 덧없는 풀의 속성(인간의 생명)을 나타내는 구약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사 40:6-8; 욥 8:12; 14:1-2; 시 37:2,20; 90:5-6; 102:11-12; 103:15-17; 약 1:10-11; 벰전 1:24-25).

▣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이것은 24b 절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인간은 풀보다 더욱 중요하다.

▣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이것은 “작은”과 “믿음”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특히 마태복음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참조, 6:30; 8:26; 14:31; 16:80)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 단어는 70 인역이나 코이네 이집트 파피루스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비록 흠있고 연약하며 염려하는 신자일지라도 하나님께 중요한 자들이다.

12: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 “무엇을 먹을까”와 “무엇을 마실까”라는 내용(둘 다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과 연결되어 사용된 경우이다. 하나님께서 신자/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헬라이어 문장에서 “너희”라는 대명사가 맨 앞에 위치한다.

▣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참조, 11 절; 마 6:31).

메태오리조라는 이 헬라이어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헬라이어 문학에서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를 뜻한다(참조, 물톤과 밀리간, 헬라이어 성경의 어휘 405 쪽).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이같은 의미로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학자들(루터)은 이것을 “거만하지 말라”로 해석했다. 한편, 우리는 어원이나 사전이 아니라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언어학적 원리를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심하다”가 이 문맥에 가장 잘 들어 맞는다.

12: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신다(참조, 마 6:3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공급하신다. 이것은 종종 ‘섭리의 교리’로 불린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육체적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다(참조, 마 5:45). 골 1:17 과 히 1:3 은 예수께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라고 말한다. 이 개념에 대한 좋은 논의가 밀라드 J. 에릭슨의 그리스도인 신학, 제 2 판 412-435 쪽에 있다.

▣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거슬러 간다(참조, 11:2,13; 또한 6:36 의 설명을 보라).

12:31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 육신의 생명조차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차게 된다!

이른 시기에 속하는 여러 헬라이어 사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가 들어 있다(참조, P<sup>45</sup>, A, D<sup>1</sup>, W 및 대부분의 옛 라틴어, 벌게이트, 시리아어, 참조, NKJV).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역(NASB, NRSV, TEV, NJB, NIV)에는 “그의 나라”로 되어 있다(참조,  $\aleph$ , B, D\*, L 및 콕터역). 문맥상 대명사는 선행사를 분명히 가리킨다. UBS<sup>4</sup>의 편집자들은 대명사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파피루스 사본인 P<sup>75</sup>는 양자를 다 생략하고 있다.

12:32 “무서워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종종하셨다(참조, 마 17:7; 28:10; 막 6:50; 눅 5:10; 12:32; 요 6:21; 계 1:17).

▣ “적은 무리여” 이곳은 이 용어가 신약에서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참조, 눅 13:18-21). 이 용어는 사 40:11(70 인역에서는 40:14 절에서도)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참조, 시 23 편). 숙 13 장에서 메시아(“내 목자,” “내 조력자”)를 매맞은 하나님의 목자로 표현한다. 예수께서는 “요 10:11-18 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다.

▣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공관복음서에서는 유도케오라는 용어를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기뻐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참조, 마 3:17; 12:18; 17:5; 막 1:11; 눅 3:22; 벰후 1:17).

이 문맥에서의 강조점은 성부께서 우리로 그의 가족이 되게 하시며 그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으심에 있다(참조, 엡 1:5,9). 물톤과 밀리간(헬라이어 성경의 어휘 405 쪽)은 이 동사를 “특징적인 유대적 헬라이어 동사”로 부른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누가는 70 인역을 잘 알고 있었다.

#### 개역개정 12:33-34

<sup>33</sup>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sup>34</sup>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12:33 “너희 소유를 팔아”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획일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일과 관련을 갖는다(참조, 14:33; 18:22; 마 19:21; 고전 13:3). 만일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면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참조, 마 5:29-30). 이 반복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갖는 근본적인 면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께 반드시 최고의 자리를 드려야 한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모든 것이 우상숭배이다. 한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부유했다—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유대의 왕들, 삭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에 둔 우선순위가 문제이다!

▣ “구제하여” 이것은 아마도 11:41 을 가리킨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점과 세계관을 바꾸어 주신 증거이다. 누가복음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강조한다. 11:41 의 특별주제: 구제를 보라.

▣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것은 또 다른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발란티온*이라는 용어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었다(참조, 10:4; 12:33; 22:35,36).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뜻한다(참조, 욥 14:17; 잠 1:14).

요한은 *글로스코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자들의 돈 껍을 나타냈다(참조, 12:6; 13:29). 이 용어는 원래 악기의 리드 혹은 입에 대고 부는 부분을 보관하는 상자를 말한다.

마태와 마가는 *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을 말한다

1. 띠(참조, 마 3:4; 막 1:6; 행 21:11; 계 1:13; 15:6 및 70 인역에서 제사장의 예복 - 출 28:4,39,40; 신 23:14) 혹은
2. 전대(참조, 마 10:9; 막 6:8)

▣ 이 절의 나머지 부분은 관대한 신자들이 사용하는 돈 가방의 여러 특성을 나열한다(참조, 마 6:19-20).

1.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2. 실패하거나 소진되지 않으며
3.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4.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고대 세계에서 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평가되었다

1. 귀금속
2.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한 값비싼 옷
3. 쌓아 둔 양식

안전을 피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었다. 도둑이 훔칠 수 있었고 줌이 먹고, 벌레나 쥐가 먹어 치울 수 있었다. 이 목록은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으로 받는 안전한 재산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참조, 뱀전 1:4-5). 이것은 땅 위에 있는 동안 관대하게 삶으로써 입증되는 내용이다.

12: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다. 우리가 땅의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인다. 오늘날 서구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우선적인 헌신을 그들의 수표책과 달력의 일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부의 극히 일부를 드리고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을 예배 참석을 위해 사용하면서 우리가 신약의 제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개역개정 12:35-38**

<sup>35</sup>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sup>36</sup>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sup>37</sup>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sup>38</sup>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12:35

NASB

“옷을 입고 준비하며 네 등불을 켜 채로 있으라”

NKJV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네 등불을 태우고 있으라”

NRSV

“행동을 취하기 위해 옷을 입고 네 등불을 켜라”

TEV

“무엇이 올지 준비하며 행동을 취하기 위해 옷을 입고 네 등불을 켜라”

NJB

“네 띠를 띠고 네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을 보라”

이 절은 하나의 본 동사와 두 개의 연관된 분사(우회적)로 구성되어 있다.

1. *에이미*라는 현재 명령(“~하고 있으라”)
2. 완료 수동 분사, “네 허리에 띠를 하고서” (행동을 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
3. 완료 수동 분사, “불 태우면서” (중간태로서 사용되어, 등불을 가리킴)

이 모든 관용어는 언제라도 강인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36 절; 마 25:1-13). 이 표현들은 신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심을 기다리듯이 종이 주인이 돌아옴을 기다리는 행위를 나타낸다(참조, 37-38,43 절).

12:3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24 의 특별주제: 아멘을 보라.

▣ “주인이 띠를 띠고” 충격적으로 뒤바뀐 이 역할은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일을 생각나게 한다(참조, 요 13:4). 일반적인 종들의 역할은 17:7-10 에서 언급된다.

12:38 “이경에나” 로마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누었다(6-9 시, 9-12 시, 12-3 시, 3-6 시, 참조, 마 14:25; 막 13:35). 그러나 유대인들은 밤을 셋으로 나누었다(6-10 시, 10-2 시, 2-6 시, 참조, 삿 7:19).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카이+ 예안, 두 번)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개역개정 12:39-40

<sup>39</sup>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sup>40</sup>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12:39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예이+ 안+ 가정법) 거짓된 결론을 강조하기 위한 거짓된 진술이다. 이것은 종종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로 불린다. 예를 들자면,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그는 그것을 몰랐다)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그 집이 뚫렸다).” 누가복음에서 이 구문이 사용된 또 다른 예는 4:26; 7:39; 17:6; 19:23 에 있다.

▣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신약에서 이 은유적 표현은 언제라도 주께서 다시 오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살전 5:2; 뱀후 3:10; 계 3:3; 16:15). 신약에는 주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심”과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남” 사이에 긴장이 나타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오직 성부만 재림의 시간을 아신다(참조, 마 24:36; 막 13:32; 행 1:7)!

특별주제: 언제라도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아직은 아닌 재림 (신약의 역설)

- 가. 신약의 종말론적 본문은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구약의 예언적 통찰을 반영한다.
- 나.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은 여러 질문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매우 어렵다.
  - 1.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 2.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징조는 무엇인가?
  - 3. 세상의 끝은 언제인가(참조, 마 24:3)?
- 다. 신약의 종말론적 본문에 대한 문학 형태는 묵시 문학과 예언적 언어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상징적이다.
- 라. 신약의 여러 본문(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17, 21 장, 테살로니가 전후서, 계시록)은 재림에 대해 다룬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 1. 사건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2. 우리는 일반적인 때를 알 수 있지만 사건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 3. 그 사건은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것이다
  - 4. 우리는 기도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만 한다
- 마. 두 가지 일 사이에 신학적으로 역설적인 긴장이 있다. 곧
  - 1. 언제라도 일어날 재림(참조, 24:27,44)과
  - 2.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실
- 바. 신약은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술한다:
  - 1.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참조, 24:14; 막 13:10)
  - 2. 큰 배교(참조, 24:10-13,21; 딤후전 4:1; 딤후 3:1 이하; 살후 2:3)
  - 3.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참조, 단 7:23-26; 9:24-27; 살후 2:3)
  - 4. 막는 것/막는 자의 옮겨짐(참조, 살후 2:6-7)
  - 5. 유대인의 회복(슌 12:10; 롬 11 장)
- 사. 눅 17:26-37 은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다. 마 24:37-44 에 있는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의 내용과 부분적 평행을 이룬다.

▣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 24:43 에 있는 평행구절에서 가져온 여러 추가적인 단어가 **Ν<sup>1,2</sup>**, A, B, L, W 사본에 나온다. 짧은 형태의 본문은 P<sup>75</sup>, **Ν\***, D 사본에 나타난다. UBS<sup>4</sup>는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 “**뚫지**” 이것은 문자적으로 “파서 뚫다”이다. 도적들은 “진흙을 뚫는 자”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집이나 가게의 짚을 넣은 진흙벽을 뚫었기 때문이었다.

12: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현재 중간대(디포)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나타낸다(참조, 21:36; 막 13:33)!

**특별주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신약의 용어**

인간이 예수(구주와 재판장 되심)를 만나는 특별한 날에 대한 종말적인 강조점은 바울서신에서 여러 표현으로 나타난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참조, 고전 1:8)
2. “주의 날” (참조, 고전 5:5; 살전 5:2; 살후 2:2)
3. “주 예수의 날” (참조, 고전 5:5; 고후 1:14)
4. “예수 그리스도의 날” (참조, 빌 1:6)
5. “그리스도의 날” (참조, 빌 1:10; 2:16)
6. “그(인자)의 날” (참조, 눅 17:24)
7. “인자가 드러나시는 날” (참조, 눅 17:30)
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참조, 고전 1:7)
9. “주 예수께서 하늘로서 나타나시는 때” (참조, 살후 1:7)
10. “주 예수가 오셔서 보이시는” (참조, 살전 2:19)

신약의 저자들은 적어도 네 가지 방법으로 예수의 재림을 표현한다.

1. *에피파네이아*, 이것은 상당히 빛남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신학적으로(어원적으로는 아님) “영광”과 관련을 갖는다. 딤후 1:10; 딤텔 2:11; 3:4 에서 이 단어는 예수의 초림(즉, 성육신)과 재림을 가리킨다. 재림을 가리키는 세 주요 용어가 있는 딤후 4:8 에서 이 단어가 나타난다: 딤텔 6:14; 딤후 4:1,8; 딤텔 2:13.
2. *파루시아*, 이것은 원래 왕의 방문 혹은 임재를 나타낸다. 이것은 아주 자주 사용된 용어이다(참조, 마 24:3,27,37,39; 고전 15:23; 살전 2:19; 3:13; 4:15; 5:23; 살후 2:1,8; 약 5:7,8; 벧후 1:6; 3:4,12; 요일 2:28).
3. *아포칼립스*(혹은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의도적으로 드러냄을 뜻한다. 이것은 신약의 마지막 책의 이름이다(참조, 눅 17:30; 고전 1:7; 살후 1:7; 벧전 1:7; 4:13).
4. *파네로오*, 이것은 빛으로 가져오다 또는 분명히 드러내거나 밝히다라는 뜻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진 여러 면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종종 사용되었다. 이것은 *에피파네이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초림(참조, 벧전 1:20; 요일 1:2; 3:5,8; 4:9)과 재림(참조, 마 24:30; 골 3:4; 벧전 5:4; 요일 2:28; 3:2)을 뜻한다.
5. 이것은 “오다”라는 뜻을 주로 나타내는 *에르코마이*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때때로 나타낸다(참조, 마 16:27-28; 23:39; 24:30; 25:31; 행 1:10-11; 고전 11:26; 계 1:7,8).
6. 이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부활)과 심판을 위해 임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인 “주의 날”(참조, 살전 5:2)로도 표현된다.

신약 전체는 구약의 세계관으로 쓰였으며 다음을 주장한다

1. 반역의 시대인 현재의 악
2. 오고있는 의의 새 시대
3. 이것은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일을 통한 성령의 작용으로 초래되었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약간 수정했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의 신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군사적, 국가적(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심 대신에 두 번의 오심이 있다. 첫 번째 오심은 나사렛 예수의 수태와 태어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다. 그는 군인이거나 재판관이 아니라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또한 슥 9:9 의 나귀 새끼(전쟁의 말이나 왕의 노새가 아닌)를 탄 겸손한 분이셨다. 첫 번째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 일은 멀리 있다. 구약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최소한 분명치 않은 유대인의 두 시대가 메시아의 두 번 오심과 겹쳐짐으로 인해 긴장이 생긴다. 사실상 두 번의 오심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야웨의 약속을 강조한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선지자들의 설교, 특별히 이사야와 요나).

대부분의 예언들이 첫 번째 오심을 의미했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참조,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가*, 165-166 쪽).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위에, 바라던 의의 새시대가 역사적으로 성취하는 것으로서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가 영광스럽게 오심이다(참조, 마 6:10). 구약의

계시는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야웨의 능력과 권위로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오심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라 그 개념이 전체 신약의 세계관이며 골격을 형성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바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의 교제는 회복될 것이다. 악은 심판되어지고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도 실패할 수도 없다!

#### 개역개정 12:41-48

<sup>41</sup>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sup>42</sup>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sup>43</sup>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 <sup>44</sup>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sup>45</sup>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sup>46</sup>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sup>47</sup>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sup>48</sup>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12:41** 이것은 오늘날의 해석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하는 바로 그 질문이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을 따른 무리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해석에 앞서서 할 질문은 “어느 그룹의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이다.

**12:42-48** 이것은 마 24:45-51 에서 나타나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본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모든 어록과 가르침을 현대 성경학자들은 “자료”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인 “켈레”로 가정하여 부른다. 이러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이것은 공관복음의 상호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이론(두 자료설, 누가복음의 서론을 보라)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12:42** 청지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주목하라:

1. 진실하고
2. 지혜 있고
3. 그 집 종들을 맡음

청지기는 아마도 열 두 제자 혹은 후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매일 매일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깨어 있고 부지런한 신자들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씀이다!

**12:43** 이것은 35-38 절에서 반복된 내용으로서 강조점을 갖는다.

▣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사용된 용어이다(*마카리오스*, 참조, 눅 6:20-22; 마 5:3-11). 예수께서는 자주 이 용어를 사용하셔서 복된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다(참조, 1:45; 6:20-22; 7:23; 10:23; 11:27,28; 12:37,38,43; 14:14,15; 23:29).

▣ **“참으로”** 이것은 *알레소스*로서 히브리어의 “아멘”에 해당한다. 4:24 의 특별주제: 아멘을 보라. 누가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12:45**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12:46** “엄히 때리고” 이것은 사형을 말하는 구약적 표현이다(참조, 70 인역의 삼하 12:31; 대상 20:3). 이것은 70 인역 출 29:17; 겔 24:4 에서 문자적의미를 갖는다. 이 단어는 여기서 예수를 안다고 말하며 섬겼던 자들에게 조차도 종말적인 심판이 있음을 회화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낸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곳과 마 24:57 에서만 나온다. 물톤과 밀리간 (*헬라이어 성경의 어휘* 165 쪽)은 이 용어를 회화적으로 사용한 비문을 제시한다.

**12:47-48** 이 부분은 벌의 정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7 절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빛의 정도에 따라서 벌 받음을 암시한다(참조, 약 4:17). 48 절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빛을 가졌으며 또 그것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참조, 롬 1:19-20; 2:14). 벌의 다른 정도에 언급하는 본문으로서는 눅 10:12-15; 11:31-32; 마 18:6,7 이 있다. 10:12 의 특별주제: 상과 벌의 정도를 보라.

개역개정 12:49-53

<sup>49</sup>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sup>50</sup>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한가 <sup>51</sup>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sup>52</sup>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sup>53</sup>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12: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이어 문장의 처음 단어로 나타나 강조를 나타낸다(3:17의 특별주제를 보라). 요 3:17-21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신 것이라고 말한다.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계신 후에, 예수께서 종말적인 심판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한다(참조, 49b 절). 복음서의 청중들은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단지 두 그룹으로만 구분될 뿐이다(참조, 24:44-49).

▣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사람들은 이것이 다음을 뜻한다고 말한다

1.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참조, 바스-디브루너-펑크, *신약의 헬라이어 문법*, 359-360 쪽)
2. 쉐어적 관용법(참조, 블랙,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아람어적 접근*, 123 쪽)
3. A. T. 로벗슨(*신약의 워드픽처* 제 2 권 182 쪽)은 *티*를 “어떻게”로 *에이*를 “~것”(호*티*)로 취하면서도 “이 문맥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4. 조지 M. 람사는 고대 시리아(아람어) 사본을 “만일 그것이 이미 붙었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일을 원한다”로 해석한다

비록 예수님 자신과 다른 이들(믿지 않는 이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며 신자들이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음)이 커다란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 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참조, 마 6:10).

12: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헬라이어로는 “~로서 침례(세례) 받아야 할 침례(세례)”이다. 마 10:38 에서 불 때 이것은 예수께서 물로 침례(세례)받으심을 나타내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

1. 그의 설교에 뒤따르는 박해와 반대
2. 그가 겐세마네에서 시험받으심
3. 그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심

예수께서는 자신이 창 3:15(약속된 씨)과 시 53 장(고난받는 종)의 내용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아셨다. 그는 시 22 편이 자기 자신이 당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다.

▣ “침례(세례)”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나타낸다(참조, 빌 1:23). 예수님의 고민은 겐세마네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참조, 막 14:32-42; 막 26:36-46; 눅 22:40-46).

구원을 거저 받지만 이것은 싸구려가 아니었다!

이 절에 대한 좋은 논의가 *성경의 어려운 말* 472-475 쪽에 나온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어려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이다. 나는 이 책을 당신에게 추천한다!

12: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 절은 마 10:34-39 과 평행을 이룬다.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분열이 있게 된다.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우선적인 헌신이 요구된다! 신자들은 새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다(참조, 8:21; 11:27-28)!

12:53 이것은 시 혹은 만가이다. 이것과 평행을 이루며 미 7:6 을 인용한 마태복음의 내용(참조, 10:35,36)을 고려할 때, 이 본문은 미 7:6 의 암시에 속한다.

개역개정 12:54-56

<sup>54</sup>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sup>55</sup>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sup>56</sup>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12:54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어느 그룹인지를 명확히 언급하고 계심을 주목하라(41 절의 설명을 보라).

▣ “이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종종 날씨의 예보를 나타내는 일련의 전조에 대해 말씀하신다(54-55 절). 이 팔레스타인 청중들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날씨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 보지 못했다(참조, 56 절)!

12:56 “의식하는 자여” 6:42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2:57-59**

<sup>57</sup>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sup>58</sup>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sup>59</sup>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2:57-59 이 부분은 마 5:25-26 과 평행을 이룬다. 이 짧은 가르침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전반적 주제에 들어 맞지만 이 문맥에는 잘 들어 맞지 않는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의 여러 자료에서 선택하고 순서를 조정하고 각색하였다

1. 마가복음
2. 켈
3. 자신의 독특한 자료(참조, 1:1-4)
4. 바울

복음서는 역대기적 순서를 따르거나 원인과 결과에 의해 기술한 전기가 아니다. 각 복음서는 목표로 하는 청중을 대상으로한 전도용 소책자이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7-148 쪽).

12:59 “한 푼이라도” 이것은 ‘렘돈’이라는 용어이다. 이것은 가장 작은 액수의 유대 동전으로서 구리로 만들어 졌다(참조, 막 12:42). 이것은 한 데나리온의 1/64 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졌다. 15:8 의 특별주제: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가?
2. 신약에서 사용된 “하데스”와 “게헨나”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3.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4. 33 절의 내용을 설명하라.
5. 35-41 절의 중심진리는 무엇인가?
6. 천국과 지옥에 차등이 있는가?

# 누가복음 1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회개 혹은 멸망	회개 혹은 멸망	회개에 대하여	너의 죄에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를 촉구하는 예들
13:1-5	13:1-5	13:1-5	13:1-5	13:1-5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13:6-9	13:6-9	13:6-9	13:6-9	13:6-9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심	병약한 영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고침을 받음	예수께서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다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심
13:10-17	13:10-17	13:10-17	13:10-13 13:14 13:15-17	13:10-13 13:14-17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이스트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13:18-19	13:18-19 누룩의 비유	13:18-19	13:18-19 이스트의 비유	13:18-19 이스트의 비유
13:20-21	13:20-21	13:20-21	13:20-21	13:20-21
좁은 문	좁은 길	세상의 끝	좁은 문	좁은 문: 유대인을 거부함, 이방인을 부르심
13:22-30	13:22-33	13:22-30	13:22-23a 13:23b-30	13:22-24 13:25-27 13:28-29 13:30
예루살렘에 대한 한탄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의 사랑	여우인 헤롯
13:31-35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한탄하시다	13:31-33 예루살렘에 대한 한탄	13:31-31 13:32-33	13:31-33 예루살렘에 대해 권고하심
	13:34-35	13:34-35	13:34-35	13:34-3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3:1-5**  
<sup>1</sup>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sup>2</sup>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sup>3</sup>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sup>4</sup>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sup>5</sup>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3:1 “두어 사람이 와서”** 이 구(미완료 직설법)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그들이 항상 무리 가운데 있었음
2. 그들이 방금 도착하였음

▣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우리는 다른 역사적 자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가진 대중을 선동하는 경향성과 빌라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일은 사실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이 기록의 역사성을 세우려는 언급이다.

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왔으나 일이 아주 잘못되어, 성전 경비원(즉, 특정한 레위인들)이 아닌 로마의 관리가 개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들이 “열심당”의 운동(어떤 일이 있더라도 팔레스타인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과 관련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3: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구약적 신학은 인생의 문제를 그 사람의 죄와 관련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참조, 신 27-28 장). 한편 욥기, 시 73 편 및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또한 요 9 장도)은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박해의 이유를 신학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1. 이것은 개인의 죄와 반역에 대한 처벌일 수 있다.
2. 이것은 악한 인격체의 활동일 수 있다.
3.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결과일 수 있다(통계에 근거한 약).
4. 이것은 영적 성장을 가져 오는 기회일 수 있다.

유대인 청중들은 예수께 이 일이 1 항과 관련을 갖는가를 물었다. 1 항은 랍비들이 가진 전통적 신학을 대변한다(참조, 욥의 세 친구). 문제, 박해,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 한편, 아주 중요한 문제는 죄에서 돌이킴이 없는 일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다!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 두 권의 책은 한나 헛홀 스미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과 존 웬함의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한 가지를 부연하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유대인의 큰 소망)이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13:3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다.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을 미래 중간태 직설법이 뒤따르는 구조이다. 이것은 개인이 회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참조, 13:3,5; 15:7,10; 17:3,4; 막 1:15; 행 3:19; 20:21). 회개는 죄와 자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헬라어에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 다 요구된다. 둘 다 한번 시작된 후 지속되어야 하는 일임을 주목하라(5 절의 설명을 보라). 3:3의 특별주제: 회개를 보라.

**13:4**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잘 아는 역사적 사건이 또 하나 언급된다. 예수께서는 당시에 사람이 행한(고의적, 1-2 절) 사건과 자연적(고의적이지 않은, 4 절) 사건을 예로 들어 자신의 진리를 강화하셨다.



NASB “범인들”  
 NKJV “죄인들”  
 NRSV “범법자들”  
 TEV, NJB -생략됨-

이것은 문자적으로 마 6:2에서 있는 바와 같이 “빛”이라는 용어로서 죄나 죄인을 가리키는 유대적 관용법이다. 누가는 자신의 이방인 독자들이 이 관용어의 의미를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록한 주기도문에서(참조, 눅 11:2-4)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13:5 이 절은 3절과 평행을 이룬다. 3절은 **현재 가정법**이지만 5절은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3절에서는 회개(또 믿음)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일로 제시하였지만 여기서는 이를 단회적인 행위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둘 다 필요하다.

▣ “망하리라” 이것은 *아폴뤼따*라는 용어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이다. 19:10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3:6-8  
<sup>6</sup>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sup>7</sup>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sup>8</sup>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13:6 “한 사람이” NASB 1970년판은 “어떤 사람”(티스)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할 때 사용한 문학적 표시이다(참조, 10:30; 12:16; 13:6; 14:16; 15:4; 16:1,19; 19:12).

▣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했다(참조, 호 9:10; 율 1:7). 한편, 마 21:19 이하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만을 상징한다. 구약의 이사야서 5장에 있는 암시에서는 나쁜 열매가 하나님의 특별한 포도원에서 왔다. 이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영적 삶과 그들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됨을 나타낸다.

13:7 “삼 년을 와서” 유실수가 과일을 맺기 시작하게 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삼 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다.

13:8-9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상징한다. 한편, 9절은 심판의 실제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의로운 백성을 원하신다. 이 본문은 요 15:2-6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열매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참조, 눅 6:46). 이것은 행위로 의롭게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경건한 삶으로 입증됨을 뜻한다(참조, 엡 2:8-10). 구원은 천국에 가기 위한 표나, 화제보험에 가입함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됨을 뜻한다! 영생은 눈에 드러나는 특징을 포함한다(참조, 마 7장).

13:9 “이 후에 만일” 이것은 *카이 에안*이라는 헬라어구로서 부분적인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다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 이것이 불완전한 모습을 갖는 이유는 추정되는 결론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이다.

▣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에이 데 메제*), 특별히 이 나무를 더 돌보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임을 제시한다(참조, 3:9).

개역개정 13:10-17  
<sup>10</sup>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sup>11</sup>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않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sup>12</sup>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sup>13</sup>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sup>14</sup>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sup>15</sup>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sup>16</sup>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sup>17</sup>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3:10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은 많은 경우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해졌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별개의 이유가 있다:

1. 예수께서는 유대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내용을 행하셨다. 안식일 예배는 이 일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다(참조, 창 2:2-3; 출 20:8-11)
2.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규정과 전통을 요구한 종교지도자들과의 대화를 갖기 위하여 안식일에 행하셨다.

13:11 “한 여자가” 예수께서 여인들에 대해 하신 사역을 누가만 기록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다! 2:36의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라.

▣ “귀신 들려 있으며” 이것은 귀신들린 경우임이 분명하다. 비록 귀신이 질병을 종종 일으킴에도, 신약은 귀신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구별하여 말한다. 4:33의 특별주제를 보라.

▣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것은 “굽은 등뼈”를 뜻하는 헬라어의 의학용어이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참조, 골 4:14)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13:12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는 (1)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또 (2) 종교 지도자들과의 신학적 대화를 갖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그녀는 예수께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았다.

▣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안수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다. 그의 말씀을 인해 귀신이 도망갔음이 분명하지만, 그녀의 믿음을 복돋아 주고 그녀가 똑바로 서도록 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손을 그녀에게 얹으셨다(참조, 13 절).

13:13 “안수하시니” 4:40의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손을 얹음을 보라.

13: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일할 날이 셋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출 20:9과 신 5:13의 해석으로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랍비들의 전승에 따라). 하지만 이 여인은 18년 동안 이 불쌍한 모습으로 회당에서의 예배에 매주 참석하였음에도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치료자들(서기관들) 혹은 회당에서의 예배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6:1의 특별주제를 보라.

13:15-16 예수께서는 이 사람과 또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외식하는 자들(복수형)이라고 밝히셨다. 랍비들은 안식일에 사람과 짐승에 대한 규정으로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에 대단한 열정을 가졌다(참조, 14:5). 하지만 그 규정은 사람에 대한 항목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율법주의적 제도가 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적용되는 약점을 드러내셨다. 우리는 우리의 규정을 다름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율법규정이 종종 사람보다 더 중요한 대상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시려고 그들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가진 규정은 종종 하나님의 관점보다 우리 자신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3:15 “외식하는 자들아” 6:42의 특별주제를 보라.

13:16 이 절은 귀신과 사탄을 명백히 연결시켜 말한다(4:2 특별주제를 보라). 사탄은 귀신의 두목이다(참조, 11:15,18). 이 여인은 어떤 소보다도 더 나쁘게 매어 있었다(참조, 15 절). 16 절은 “예”라는 답을 예상한다.

13:17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것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회당장”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한 것이다.

“부끄러워하고”라는 단어는(미완료 수동 직설법)는 복음서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9번 사용되었다(즉, 로마서, 고전, 고후). 누가는 이것을 바울의 설교에서 자주 들었을 것이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종종 사용되었다(특히, 사 45:16). 누가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이 역본을 잘 알았다. 그는 70 인역의 어휘와 관용어에 영향을 받았다.

▣ “은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얼마나 커다란 대조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해하지만 은 무리(땅의 백성)는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인해 기뻐하고 있다(참조, 9:43; 13:17; 18:43; 19:37)! 다시금 듣는 이의 마음이 그 반응을 결정짓는다(예, 땅의 비유, 참조, 8:4-15).

개역개정 13:18-21

<sup>18</sup>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sup>19</sup>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sup>20</sup>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sup>21</sup>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13:18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가 작고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어느날 웅만하게 능력으로 드러날 것을 시사하는 두 비유가 여기에 나온다.

13:19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는 3m 높이까지 자란다. 이 구약 인용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웅만함 및 보호함과 공급함을 상징한다(참조, 겔 17:23; 31:6; 단 4:12,21).

▣ “누룩” 이것은 이 문맥에서 악의 상징이 아니라 침투함의 표이다. 12:1의 특별주제: 누룩을 보라.

개역개정 13:22-30

<sup>22</sup>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sup>23</sup>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sup>24</sup>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sup>25</sup>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sup>26</sup>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대 하나 <sup>27</sup>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sup>28</sup>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sup>29</sup>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sup>30</sup>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13:22 누가는 여기서 다시금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심을 강조한다(참조, 9:51; 13:22; 17:11; 18:31; 19:11,28; 행 2:23; 3:18; 4:28; 13:29).

13:23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이것은 랍비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주제이다(참조, 마 7:13-14). 그들은 심판의 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의 어떤 분파의 사람들(자기들의 분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했다. 이 질문은 “남은 자”라는 구약의 개념과도 관련을 갖는다(참조, 사 10:20-23; 16:14; 미 2:17; 4:6-8; 5:7-9; 7:18-20). 고대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들이 야웨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믿음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심판, 회복, 그리고 다시 심판이 점철되는 역사였다. 선지자들은 신실한 남은 자(שארת)들만 앗시리아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을 보았다.

특별주제: 남은 자의 세 의미

“신실한 남은 자”라는 구약의 개념은 예언서(주로 8 세기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포로 생활에서 생존한 사람들(예, 사 10:20-23; 17:4-6; 37:31-32; 렘 42:15,19; 44:12,14,28; 암 1:8)
2. 야웨께 계속 신실한 자들(예, 사 4:1-5; 11:11,16; 28:5; 율 2:32; 암 5:14-15; 미 2:12-13; 4:6-7; 5:7-9; 7:18-20)
3. 종말에 있을 새롭게 됨과 새 창조에 참여할 자들(예, 암 9:11-15)

포로로 잡혀가는 문맥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포로로 잡혀가 생존한 자들) 가운데 오직 일부(신실한 열심을 가진 자들)만 유다로 돌아오게 선택하신다. 우리가 이 장의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6 절).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줄이셔서 자신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드러내신다(예, 기드온, 사 6-7 장).

13: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복수형이다. “힘쓰라”라는 용어는 “운동 경기를 하라”이다. 우리는 “agony”(고민)이라는 영어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왔음을 안다(참조, 22:44). 이것은 의로운 일을 함이 아니라 비용을 치르며 예수를 따름을 강조한다.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의 문이 되신다(참조, 25-26; 요 10:1-3,7; 갈라디아서). 마 7:13에서는 좁은 대문이 길로 인도하지만 여기서는 좁은 문이 집으로 이끈다.

**13:25** 이것은 마 15:1-13 에 나오는 준비함과 인내에 대한 종말론적 비유와 매우 비슷하다.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마다 구원의 기회를 갖는다. 오늘 해야 할 영적 결정을 사람들이 미루어서는 안된다. 이 비유에서 집 주인이 음식 나오는 시간이 된 것을 보고 문을 닫아 더 이상 손님이 들어 올 수 없게 한다.

사람들이 영적 결정을 시작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만 응답할 수 있을 뿐이다(참조, 요 6:44,65).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이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면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문은 그들에게 닫히게 된다.

**13:26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유대인들은 종종 자기의 조상들(참조, 3:8; 요 8:31-59) 혹은 종교적 행위(참조, 마 7:21-23)를 신뢰했다. 육체를 따라 예수를 아는 일 혹은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의식상 혹은 경박하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믿음의 관계를 갖는 일에 비교되지 않는다(참조, 요 1:12; 3:16; 롬 10:9-13).

**13:27**

NASB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NKJV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NRSV, NJB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TEV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노라”

25 절과 27 절은 평행을 이룬다. 그런데 27 절에서는 대명사 “너희”(너희)가 고대 헬라어 사본인 P<sup>75</sup>(3 세기 초), B(4 세기), L(8 세기), 070 사본(6 세기)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이것은 원래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많은 수의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것이 나타난다(참조,  $\aleph$ , A, W 및 대부분의 초기 사본). 예수께서 이 청중에게 하신 말씀은 마 7:21-23 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 인격적 믿음이 빠진 종교적 규정이나 이에 따른 행위, 종교적 예식은 이스라엘 민족 및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바 무서운 비극이다!

M. R. 빈센트는 단어연구 192 쪽에서 이 구(“너희가 어디로서인지”)가 화자의 출생지 혹은 그의 가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유대인이 집착하여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말함에 대한 것이다(참조, 마 3:9; 요 8:33,37,39). 유대인이 가진 두 가지 소망은 (1) 그들의 인종적 조상에 대한 내용과 (2)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그들의 성전(종교)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가는 길로서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시고 대신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이것은 시 6:8 의 인용으로 보인다(참조, 마 7:23).

**13:28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종말적인 거부를 나타낸다(참조, 마 8:12; 13:42,50; 22:13; 24:15; 25:30; 계 18:19). 이 유대인들이 슬피하는데(10: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 이유는

1.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2.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3. 온 땅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NASB

“그러나 너희 자신은 밖에 던져진 것을”

NKJV

“그리고 너희 자신은 밖에 쫓겨난 것을”

NRSV

“그리고 너희 자신이 밖에 던져짐을”

TEV

“너희가 밖에 던져진 동안에”

NJB

“그리고 너희 자신은 밖에 던져진 것을”

들어가는 문이 잠긴 그림(참조, 24-25 절)이 바뀌고 쫓겨남이 강조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던져질 것이다. 집 주인에 대한 그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13:29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대한 그림으로서(참조, 사 25:6-8; 55:1-2; 65:13-14) 계시록에서는 종종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언급된다(참조, 계 3:20; 19:9).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시작되는 일을 가리킨다(참조, 14:15; 22:16,30).

**13:30** 25-27 절은 예수의 청중을 가리킨다. 어떤 이는 예수께 응답하고 어떤 이는 자기들이 예수께 응답한 것으로 여겼지만 많은 이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거부했다. 예수를 거부함에 대해 종말에 있을 결과는 심각하다.

30 절은 왕국 안에서 신자들이 평가됨을 나타낸다. 이곳에서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참조, 마 19:30; 20:16; 막 10:31).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과 다르다(참조, 사 55:8-11). 동기와 자세가 어느 날 드러나며 또 이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 13:31-35**

<sup>31</sup>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sup>32</sup>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sup>33</sup>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sup>34</sup>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sup>35</sup>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31 이것이 예수께 친절을 베풀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도사에서 예수를 쫓아내어 그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못하게 하며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짐을 막기 위한 말인가?

▣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을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 뒤따르는 형태이다.

▣ “헤롯” 9:7 의 설명을 보라.

▣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사실상 바리새인들(5:17 의 특별주제를 보라)과 사두개인들(20:27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예수를 죽이려 했기에 이것은 의아한 말이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예수를 죽여 자신들을 어려움과 책망받음에서 구해줄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13:32 “가서 ... 이르되”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디포) 분사가 부정과거 능동 명령과 더불어 명령으로서 사용된 경우이다. 한편 이것은 명령법이 문학적 기교(문자적의미가 아님)를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예수께서는 헤롯에게 보내는 사자가 되기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었다.

▣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것은 9:7 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헤롯은 예수를 알았고 또 그에게 질문하기를 원했다.

▣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구는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일(참조, 33 절; 요 5:36; 17:23; 19:28)이었고 누구(헤롯)라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누가복음은 9:51 이래 예수께서 결심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구가 3:5 의 묵시적 관용어로서 박해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다(참조, 단 7:25; 8:14; 12:12; 아마도 눅 4:25).

13: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중복되는 표현은 셈어에서 강조를 나타낸다(참조, 창 22:11; 70 인역의 창 22:1). 한편 신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점잖은 책망을 나타낸다.

▣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거듭 시도하심을 나타낸다(참조, 호 11:2). 유대 민족은 “보내심을 받은” 이 사자들을 신성모독에 대한 모세의 율법규정이 명한 바 돌로 쳐서 죽였다(그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했다). 이 도시가 이제는 “아들”을 죽일 것이다(참조, 20:9-18).

▣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사소통과 교제를 위해 거듭 시도하심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자신을 야웨로 나타내심을 주목하라.

▣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 여성형 은유이다.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시다(참조, 창 1:2; 출 19:4; 신 32:11; 시 17:8; 36:7; 사 49:15; 16:9-13); 호 11:1-4).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편재하신 영이시다. 그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신 안에서 통합을 이루게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그 분”으로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성 및 유대 족장들의 문화에서 유래한 고대의 전통을 인함이다.

**특별주제: 보호와 돌봄을 나타내는 은유인 그들**

“그들”이라는 관용적 표현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성경의 예를 보라.

1. 보호에 대한 관용구, 사 16:3; 30:2-3; 애 4:20
2. “손의 그들”에 대한 관용구, 시 121:5; 사 49:2; 51:16
3. “지붕의 그들”에 대한 관용구, 창 19:8

4. “하나님의 특별한 구름의 그늘”에 대한 관용구, 참조, 출 13:21-22; 14:19,20,24; 사 4:6; 25:4-5; 32:1-2
5. “날개의 그늘”에 대한 관용구, 시 17:8; 36:7; 57:1; 61:4; 63:7; 91:1,4(비슷한 은유들, 신 32:10-11; 룻 2:12; 사 31:5; 마 23:37; 눅 13:34)
6. “나무의 그늘”에 대한 관용구, 삿 9:15; 겔 17:23; 31:6,17; 단 4:12; 호 14:7

**13:35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눅 11:21-26 을 상기시킨다. 이 절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인 예루살렘 거민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사랑을 나타내셨음에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제 이 일에 뒤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방금 비난을 받은 바로 이 도시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그들의 죄에 따른 형벌과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위해 값을 지불하셨음을 꼭 기억하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일지라도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열려진 하나님의 문이시다(참조, 요 1:12; 3:16).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또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만 그 문이 열려져 있다!

▣ **“황폐하여”** 이 용어는 고대 헬라이어 사본인 P<sup>45,75</sup>, **ⲛ**, A, B, L, W 혹은 에파파누스와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이어 본문에 없다. 본문과 관련하여 이같은 문체가 마 23:38 에서 발견된다. UBS<sup>4</sup> 는 마 23:38 에서 “황폐한”이 추가된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지만 여기서는 이 단어가 없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이 용어는 후기에 헬라이어 구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되었거나(D 사본) 램 22:5 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이것은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에 대한 예언으로서(참조, 눅 21 장) 재림이 있기 전에 파괴가 있을 것임을 예시하는 내용이다. 이 청중들의 생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강력히 입증하였다.

▣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70 인역 시 118:26 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두 가지: (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일(참조, 19:38)과 (2) 재림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선지자이셨던 점은 그가 야웨의 대표자임을 나타낸다. 심판에 대한 이 선언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내용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다(참조, 호 11:8-9; 롬 9-11 장; 스후 12:10).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인생을 살면서 겪는 질병이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표인가?
2. 온 땅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요한 통로인가?
3. 예수께서는 구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관해 바리새인들과 왜 그렇게 논쟁을 가지셨는가?
4.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5. 하나님은 남성이신가 혹은 여성이신가?

# 누가복음 1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심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수종병 걸린 사람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심	예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다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심
14:1-6	14:1-6	14:1-6	14:1-3 14:4-5 14:6	14:1-6
손님과 주인에 대한 가르침	낮은 자리를 택하라	겸손에 대하여	겸손과 호의	식탁에서 자리를 택함에 대하여
14:7-14	14:7-14	14:7-11	14:7-11	14:7-11  초대할 손님을 정하기
큰 잔치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큰 잔치	큰 연회의 비유	14:12-14  청함에 응하지 않은 손님들
14:15-24	14:15-24	14:15-24	14:15 14:16-24	14:15-20  14:21-24
제자도의 비용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	제자도의 조건	제자됨의 비용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버림
14:25-33	14:25-33	14:25-33	14:25-33	14:25-27  소유를 버림 14:28-33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무가치하다		무가치한 소금	제자가 열정을 잃음에 대하여
14:34-35	14:34-35	14:34-35	14:34-35	14:34-3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비유를 해석함의 원리(8 장의 서론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문맥의 전후 단락을 보라
  - 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 2. 비유의 목적
- 나. 중심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결정하라(주제들은 주로 주요 인물들과 관련을 갖는다).
- 다. 세세한 내용으로써 신학적으로 세부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라(비유는 실제적 이야기가 아니다).
- 라. 본문이 우화화나 영적해석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석하기를 피하라.
- 마. 어떤 교리를 비유에만 근거하여 세우지 않도록 하라. 비유는 예로서 든 것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4:1-6

<sup>1</sup>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sup>2</sup>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sup>3</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나 <sup>4</sup>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sup>5</sup>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sup>6</sup>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14:1

NASB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한 사람”

NKJV

“바리새인들 관원들의 한 사람”

NRSV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TEV, NJB

“한 지도적 바리새인의”

NASB는 약간 해석적인 번역으로 보인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지역사회의 종교 지도자였다.

▣ “안식일에” 이것은 구전 율법으로 알려지고 후에는 탈무드로 경전화된 랍비들의 해석과 기록된 모세의 율법 사이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세세한 규정으로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억압하는 일을 계속해서 직면하셨다(참조, 4:31 이하; 6:6 이하; 13:10 이하). 이 문단은 예수님 편에서든 혹은 바리새인 편에서든 의도적으로 대결을 하는 구도로 보인다. 6: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떡 잡수시러” 예수께서 계속하여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심을 주목하라. 그는 그들과 함께 잡수셨다(참조, 7:36; 11:37). 그는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셨다. 그는 그들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셨다.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랍비적 유대교인 바리새주의의 연장선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를 실행하는 삶의 양식을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시했다.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다음과 같았다

- 1. 각자가 예수를 믿음
- 2. 구원이(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
- 3.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일

누가는 예수께서 식사 혹은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신 대화라는 문학적 구조로서 진리를 제시하시는 것으로 제시한다(참조, 5:29; 7:36; 9:13; 10:39; 11:37; 14:1; 22:14; 24:30, 요한도 이 목적을 위해 대화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식사는 1 세기의 지중해 세계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공동체에 있어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다.

▣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것은 주변적 미완료 중간태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에서 무엇을 잡아내어 유대 백성과 로마인들에게 알리고 정죄하려고 계속하여 예수를 지켜보았다.

14:2 “수종병 든” 예수께서 이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여 고치시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으로서 고치심을 주목하라(13:10-17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예수께서는 이 일로써 그들과 논의를 시작하려 하신다(참조, 3 절). 수종병은 수분이 모여 부어오르는 증세이다(이 용어는 “물”이라는 어근에서 옴).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신체적 질병에 의하여 일어난다. 신약에서는 여기서만 이것이 언급된다. 헬라 문학에서는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다루는 병으로 나오지만 이 병은 의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이다(참조, 골 4:14). 랍비들은 이 질병이 심각한 죄로 인해 순간적으로

생긴다고 말하였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게 하여 예수께서 안식일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금하는 일을 하시도록 유도하였다고 설명한다.

**14:3-4**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조예가 깊은 이들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하시고 계신다. 이들이 냉철 인간은 아니었지만 랍비들(삼마이 힐렐)이 구약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서 제시한 제도를 통해 야웨를 예배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었다. 오랫동안 행해진 이 종교적 논의를 거치면서 사람에 둔 우선순위가 상실되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중심적 자리에 놓으려 시도하신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참조, 마 12:8; 막 2:28; 눅 6:5)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참조, 막 2:27). 율법주의 및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경향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종종 매우 신실하고 헌신된 종교인들에게서 뚜렷이 드러난다.

**14:3 “율법교사들”** 5: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14: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기에 사본적 문제가 나타난다:

1. “아들”(ἄγος)이라는 용어가 고대 헬라어 사본인 P<sup>45,75</sup> (א, A, B, L, W 에서 발견된다)
2. “나귀”(오노스)라는 용어는 א, L 사본에서 발견된다

두 단어가 매우 비슷한 어미로 끝난다. 사본적 증거는 “아들”(UBS<sup>4</sup> 는 이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을, 문맥은 “나귀”를 지지한다. 만일 우리가 가장 이상한 것이 가장 오래된 본문이라는 원리를 따른다면 “아들”이 적합하지만, 예수님의 진술의 주요 내용을 고려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보다 짐승에 더 큰 동정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참조, 13:15).

**14:16** 예수님의 질문(4 절)과 예로 드신 내용(6 절)은 매우 충격적이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규정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개역개정 14:7-11**

<sup>7</sup>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8</sup>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sup>9</sup>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sup>10</sup>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sup>11</sup>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7**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 독특한 사건이다. 예수께서는 이 식사에 초대받은 유일한 손님이 아니셨다. 1 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식과 식사초대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었다. 일부가 식사에 초대를 받았지만(참조, 12-14 절),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주위에 둘러서 그들이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듣거나 그 대화에 참여하였다.

▣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모든 사회적 행사에 있어서 자리 문제로 곤란스러워하는 동양에서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해져야만 한다. 식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높은 지위의 사람들(즉,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했다. 7-14 절은 한 가지 교훈을 다룬다. 즉 교양있는 자세나 절차가 아닌 겸손함에 대한 말씀이다(참조, 11 절; 18:14; 마 23:12; 약 4:6; 벰전 5:5; 욥 22:29; 잠 29:23). 겸손의 반대되는 일이 눅 11:43; 20:46; 마 23:1-12; 막 12:38-40 에서 다루어 진다.

**14:9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낮은 자리로 가게 될 경우에 이제 남아있는 자리는 상의 끝자리였다. 바뀐 모습(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자주 나타남)이 13:30 에서도 강조된다.

**14:11** NASB 연구성경(1491 쪽)은 이것에 대해 좋은 설명을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기본 원리이다(11:43; 18:14; 20:46; 대하 7:14-15; 잠 3:34; 25:6-7; 마 18:4; 23:12; 약 4:10; 벰전 5:6 를 보라).”

**개역개정 14:12-14**

<sup>12</sup>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값음이 될까 하노라 <sup>13</sup>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sup>14</sup>그리하면 그들이 값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값을 받았음이라 하시더라

**14:12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종종 일상적 문화적으로 볼 때 기대되는 것과 정반대 내용의 진리를 말씀하셨다(참조, 사 55:8-9).

▣ 예수께서는 바로 자신의 사역이 메시아가 행하실 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 (참조, 신 14:28-29; 16:11-14; 26:11-13; 사 29:18-19; 35:5-6; 42:7,16; 렘 31:8). 왕국의 백성은 불쌍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사역함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성격의 사역이 예수의 삶을 특징짓는데, 왕국의 모든 백성의 삶도 이러한 특징을 가져야만 한다.

14:14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청중을 “축복하시며”(마카리오스, 참조, 6:20-22; 7:23; 10:23; 11:27-28; 12:37-38; 14:14; 23:29) 경고를 주신다(즉, “화 있을진저,” 참조, 6:24-26; 10:13; 11:42-52; 17:1; 21:23; 22:22).

이 축복은 종말적 심판을 위해 보존되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자세인 현재의 비이기적인 행동에 기초한다(참조, 마 25:31-46). 예수께서는 마 6:1 에서 말씀하신 바 “의로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다. 이것은 구제함(11: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기도, 금식(5:35 의 특별주제를 보라)으로 나타난다.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보았다. 종교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

NASB 연구성경(1491 쪽)은 모든 이의 부활 대 어떤 이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성경본문에 대한 유익한 요약물 제시한다. “모든 이가 부활할 것이다(단 12:2; 요 5:28-29; 행 24:15). 어떤 이는 의인의 부활(고전 15:23; 살전 4:16; 계 20:4-6)이 ‘일반적인’ 부활(고전 15:12,21; 히 6:2; 계 20:11-15)과 구분이 된다고 믿는다.”

**개역개정 14:15-24**

<sup>15</sup>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sup>16</sup>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sup>17</sup>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sup>18</sup>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sup>19</sup>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sup>20</sup>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sup>21</sup>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sup>22</sup>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sup>23</sup>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sup>24</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4:15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발설한 말이 분명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축복을 받기 기대하는 그 유대인의 태도를 그의 말에서 인식하셨다. 이 문맥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대인의 기대와 관련을 가진다(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음, 참조, 요 8:31-59).

▣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음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했기 때문이다(5: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누리게 될 기쁜 교제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된 모습이다(참조, 13:29; 시 23:5; 사 25:6-9; 마 8:11-12; 26:29; 계 19:9). 지중해 연안의 세계에서는 사회적 유대와 친밀한 교제가 함께 먹는 일과 관련을 가졌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14:16-24 이 부분은 비록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마 22:2-14 과 평행을 이룬다(마태복음에서는 결혼식 잔치로 나타난다).

14:17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잔치에 사람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관습일 것이다. 즉, 사람을 미리 보낸 후에 잔칫날 저녁(또는 연회)에 종들을 다시 보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식탁의 준비, 음식의 요리)을 손님들에게 알리어, 이제 오도록 하는 일이다.

14: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들이 사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밭을 샀다
2. 소를 샀다
3. 방금 결혼했다

비록 이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일들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우선순위와 헌신의 부족 및 주인을 개인적으로 거부함 혹은 우습게 여김을 드러낸다.

14:21 이러한 사회적 행사에서는 값비싼 음식이 제공되었다. 오기로 예정된 손님 수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들을 호의로 초대한 주인에 대한 무시가 이절에서도 나타난다.

▣ 주인은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생각해 냈다(참조, 21 절). 이 목록은 구약의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낸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자 여행하는 자들이나 길가는 이방인들까지 초대하였다(참조, 23 절). 여기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것이다(케넷 베일리, 농부의 눈으로, 100-103 쪽).

14:23 아마도 이것은 13:23 에 있는 질문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일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가득 찰 것이다(즉, 이방인과 외국인들이 초대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께로 몰려 올 것이다).

14:24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결론적 말씀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킴이 분명하다(참조, 15 절; 롬 9-11 장). 이방인들이 포함되었다; 이스라엘은 창 12:3 에서 그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였다(참조, 출 19:5-6; 엡 2:11-13). 이제 주인(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계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그들은 줄곧 야웨께 반역을 행했다(참조, 행 7 장);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공휟하심의 결과였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타락한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참조, 겔 36:22). 이스라엘로 혼동하게 한 것은 바로 개인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행위였다(이것은 여전히 율법주의자들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 의로움은 결과가 아니다. 즉, 의로움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갖는 관계의 증거일 뿐이며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

아, 율법주의와 자기 의를 추구함이 단기적으로 또 영원토록 비극이 됨이여!

**개역개정 14:25-33**

<sup>25</sup>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sup>26</sup>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sup>27</sup>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sup>28</sup>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sup>29</sup>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sup>30</sup>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sup>31</sup>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sup>32</sup>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sup>33</sup>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4:25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것은 **미완료 시제**이다. 이 수 많은 무리는 누가복음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9:51 이후의 내용을 특징짓는 표현이다.

14:26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 “무릇” 이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가! 성경에 나오는 초청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 “얼마든지,” “누구일지라도”를 그 대상으로 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한편 요구되는 내용이 더불어 나타난다. 문맥상 이 내용이 21 절 이후에 있음을 주목하라! 누구라도 환영받는다!

▣ “내게 오는 자가”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내용이다(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를 믿음(1:45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사귄(참조, 창 3:8)을 위해 창조 받았다(참조, 창 1:26-27).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헛것이며 속이 빈 삶이다(즉, 막 8:36).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른 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 “자기 부모...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비교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창 29:31,33; 신 21:15; 말 1:2-3[롬 9:13]; 요 12:25). 예수께서 마 15:4 에서 십계명을 반영하는 내용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취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단락은 자신(참조, 갈 2:20) 및 세상에 둔 우선순위의 죽음을 나타낸다. 근동에서는 가족에 대한 헌신이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한 헌신에 우선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참조, 12:49-53; 마 10:34-39).

▣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예수께서는 사역의 형태를 세우셨다(참조, 9:23; 17:33; 요일 3:16).

▣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27 절과 33 절에서 강조되었다. 큰 잔치에 대한 비유(15-24 절)에서 분명히 나타난 바 하나님의 은혜와 25-33 절에서 자아를 완전히 희생할 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을 서로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진리이다. 은혜는 시작점이 있게 하고 계속 그 관계를 누리게 하지만 은혜를 받는 자는 삶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조정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교제(25 절)는 제자도와 다르다. 밭의 비유에서와 같이 ‘밭아’가 ‘열매를 맺음’과 같은 것은 아니다!

14: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신자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어야 할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참조, 눅 9:23-26; 마 10:34-39; 16:24; 갈 2:20). 1 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정죄받은 자가 십자가형이 행해지는 장소까지 십자가의 횡단목을 짊어지고 가야 했다.

**14:28-32** 이것은 교제를 위해 치루어야 할 비용을 고려해야함을 말한다! 급한 결정은 금물이다! 복음은 완전히 거저이지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한다(참조, 마 13:44-46). 이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는 “그 안에 나를 위한 무엇”을 추구하는 연약한 문화적 종교 형태에 속한다!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는 성경적인 신앙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하루 24 시간 한 주간 전체를 드리는 대신에 일 주일에 한 번 겨우 몇 시간만 자기 차를 주차해 놓는 일(장소)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의 시간을 자신의 바쁜 일과나 계획에 쓰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심이 아닌 건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매우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잘 짜여진 조직과 순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아무런 영적 능력이나 어떤 변화된 삶이나 혹은 이 일에 어떤 댓가가 따르더라도 감당하겠다는 자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문화적 모양새를 따라 건성으로 쉽게 믿으려 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함에 대한 강조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세대와 관련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너무 늙어 다음의 내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1. 성경을 아는 일
2. 그들이 성경을 범하고 있음을 아는 일
3. 복음을 아는 일
4. “제자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만일 “결심”이 너무 이르게 이루어졌다면 그 결심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영속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만든다!

**14:31** “먼저 앉아 . . .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자원을 계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면밀히 침착하게 헤아려 보며 결정함을 가리킨다.

**14:33** 우리가 이 절을 과장법으로 제껴버리기 전에 이 문맥과 평행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한다(참조, 9:23-26, 61-62; 12:33; 15:22). 성경적인 믿음은 우선순위를 드리는 진지한 헌신이다. 하나님 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결코, 결코, 결코 없다(가족도, 국가도, 삶도, 자기 자신의 목숨도). 만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자! 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답*, 54 쪽을 보라.

**개역개정 14:34-35**

<sup>34</sup>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sup>35</sup>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4: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고대 세계에서 이것이 가진 다음과 같은 특별한 가치를 인하여

1. 병을 고치고 소독함
2. 음식을 보존함
3. 음식에 맛을 더함
4. 매우 건조한 기후에서 인간이 수분을 유지하게 함

소금은 값진 자산이 되었다. 소금은 종종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지불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잃어버려진 세상에 침투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할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소금이다. 유일한 선택은 어떤 종류의 소금이 될 것인가이다. 소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가치가 없어진다.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지켜 보고 있다.

**14:35**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성령께서 신자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영적진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참조, 마 13:9,43; 막 4:9,23; 눅 8:8; 계 2:7,11,17,29; 3:6,13,22; 13:9). 한편 이것은 각 개인이 듣고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암시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따르는 구전 전통에 관해 그들과 계속하여 말씀하셨는가?
2.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목적과 이 잔치가 갖는 은유적 표현에 대해 설명하라.
3.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가난해지고 가족적 유대를 끊는 것을 예수께서 원하시는가?
4.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금”인가?

왜 그들이 “소금”인가?  
이 잃어버려진 세상에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 누가복음 1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잃어버려진 자에 대한 비유(15:1-32)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비유(15:1-32)
잃어버린 양의 비유 15:1-7	잃어버린 양의 비유 15:1-7	잃어버린 양 15:1-2 15:3-7	잃어버린 양 15:1-3 15:4-7	잃어버린 양 15:1-3 15:4-7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15:8-10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15:8-10	잃어버린 동전 15:8-10	잃어버린 동전 15:8-10	잃어버린 드라크마 15:8-10
탕자의 비유 15:11-24	탕자의 비유 15:11-32	탕자 15:11-24	탕자 15:11-20a 15:20b-24	탕자(잃어버려진)와 충실한 아들 15:11-13 15:14-20a 15:20b-24
15:25-32		15:25-32	15:25-32	15:25-30 15:31-3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14:25-35 은 제자가 치루어야 할 비용에 대해 들은 무리의 많은 수가 예수 따르기를 그만두었음을 말한다. 15 장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계속하여 나아옴을 보여준다.

- 나. 이 세 가지 비유에 나타난 4 개의 초점은:
  1. 사람이 잃어버려진 바 됨
  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심(참조, 딤후 2:4; 벧후 3:9)
  3. 구세주께서 찾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심(참조, 막 10:45)
  4.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반응을 함(참조, 2 절, 형이 25-32 절에서 나타내는 그룹)
- 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잡아 보던 사람들로 나옴을 주목하라: 목자, 여인, 반항적 자녀
- 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세 비유(마 18:12-14 에는 “잃어버려진 양”이 나오지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나옴)는 찾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나타낸다(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로 완전히 회복됨, 참조, 요 4:23; 눅 19:10).
- 마. 15 장과 16 장에는 다섯 비유가 연속하여 나온다. 각 장의 구분이 영감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 바. 누가복음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된 유일한 책은 케넷 E. 베일리, *시인파 농부 및 농부의 눈으로*(어드만, 1983 년)이다. 그가 근동 사회와 관습에 대해 가진 지식은 그가 제시하는 교차대조법 이상으로 동양의 장르를 이해함에 있어 유용하다.

### 비유의 해석을 위한 원리

(자세한 내용이 8 장의 서론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 가. 비유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전후 문맥을 보라
- 나. 중심 주제를 파악하라(주로 주제들).
- 다. 세세한 내용으로써 신학적으로 세부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라.
- 라. 본문이 우화화나 영적해석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석하기를 피하라.
- 마. 어떤 교리를 비유에만 근거하여 세우지 않도록 하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5:1-2

<sup>1</sup>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sup>2</sup>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5:1 “모든” 누가는 종종 과장법을 사용하여(즉, “모든”을 3:16; 4:15; 9:1 에서 사용함)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미치신 영향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소외된 자와 죄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께 나아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자들이 나아왔음이 분명하다(참조, 1:65,66; 2:1,38,47; 3:15,20; 4:5,15; 6:26; 7:16,17,29 등).

▣ “세리” 이들은 로마사람(혹은 헤롯)을 위해 일했던 유대인들로서 그들의 봉급은 대개 동족으로부터 과다하게 거둬들인 세금에서 왔다. 그들은 미움을 받았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레위를 부르사 사도로 삼으셨다(참조, 마 9:9-10).

▣ “죄인들” 이것은 다음의 어떤 항목에 해당한다

1. 공공연하게 비도덕적인 사람
2. 그들의 직업을 인해 소외된 사람
3.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통을 철저히 따를 수 없던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랍비들의 규정을 충실히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위의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받았다(참조, 5:30; 막 2:16). 유대교의 분파(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센파)들은 서로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주장했다. 종교가 행함에 기초한 신분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다른 이를 배제시키는 과당을 형성하였다.

▣ “가까이 나아오니” 이것은 **우회적 미완료**로서 이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그들을 맞아 주셨는데 그러한 일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헬라이어 동사가 히 7:19 및 약 4:8 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나타냄이 흥미롭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다(참조, 대하 15:2).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통에 매달려 있었고(참조, 사 29:13)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참조, 마 23:16,24; 롬 2:19).

▣ “말씀을 들으러” 이것은 현재 부정사이다. 소외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다.

15: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5:30 에서와 같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개는 그 순서가 5:17,21 에서와 같이 그 반대로 되어 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정탐하기 위하여 관리들이 보낸 자들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고소할 어떤 것을 발견하기 원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서기관들(모세의 율법사)은 바리새인들이었다. 5:17 의 특별주제: 바리새인 및 5:21 의특별주제: 서기관을 보라.

▣ “수군거려 이르되”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과거에 이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음을 뜻한다(참조, 5:30).

이 단어는 이곳과 19:7 에서만 사용된 합성어(디아 + 고키조)이다. 두 경우 다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림에 대해 말한다. 70 인역에서 이 단어는 광야 방랑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및 야웨께 대해 불평함을 나타낸다(참조, 출 15:24; 16:2,7,8; 민 14:2).

▣ “이 사람이” 이것은 복음서에서 종종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경멸적으로 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다(참조, 막 14:71).

▣ “죄인을 영접하고”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직설법으로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결정을 계속하여 하셨음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이 식사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초청하신 일일 것이다. 이같은 비판이 5:27-32(참조, 7:34)에서 나타난다.

예수께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하며 병든 자들을 영접하신 일은 메시아가 행하실 일로서 구약에 언급된 일의 하나로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보았어야 했던 표식이었다(14:13 의 설명을 보라). 이 세 가지 비유가 갖는 놀라운 측면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구성(목자, 여인, 반역적 자녀) 뿐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을 받아 주시며 또 용서하심을 나타내는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독특한 일(영역)이다(참조, 막 2:1-12)!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즉, 성육신하신 하나님)를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이다.

▣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종종 지역에 있는 회당에 구제헌금을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다(11: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렇지만 그들과는 절대로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다. 이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그를 완전히 받아 주며 또 교제를 나눔을 뜻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 나가셨으며 또 찾아 나가신다. 이러한 일은 그들이 죄인됨에서 손님과 친구가 되게 한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미리 드러낸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곳에 참여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이 15 장에 나오는 세 비유의 신학적 배경을 이룬다. 마 18:12-13 에 있는 평행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

#### 개역개정 15:3-7

<sup>3</sup>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sup>4</sup>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sup>5</sup>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sup>6</sup>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sup>7</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목자이시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직업상 구두로 전해오는 전통에 따른 규정과 규례를 다 지킬 수 없었기에 바리새인들이 소외시켜 버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거부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셨다. 사실 목자들은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소식을 듣는 자들이었다(참조, 눅 2 장).

▣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이 수는 매우 특별한 수이다. 목자들이 밤에 지낼 곳에 양들을 이끌어 들이면서 그 수를 세었을 것이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 소중한 것이다. 양 백 마리의 규모는 중간 크기의 떼에 속했다. 아흔아홉 마리가 들에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다른 목자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 하나님을 목자로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나타난다(참조, 시 23 편; 80:1; 사 40:10,11). 이 용어는 거짓 지도자들에 대하여도 사용되었다(참조, 겔 34:1 이하; 사 56:9-12). 스가랴 13 장에서는 메시아를 상처를 입은 목자로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요 10 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부르신다.

▣ “**들**에” 이 용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을 뜻한다.

▣ “**그 잃은 것을**” 이것은 사 53:6 에 대한 암시이다. 유대인으로서 죄인인 사람을 잃어버려진 양으로 언급한다(참조, 렘 50:6; 마 9:36; 10:6).

15:5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의 하나는 목자되신 예수께서 양을 자신의 어깨 위에 메고 계신 그림이다. 이것은 목자의 사랑어린 돌봄을 나타낸다.

15:6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9 절에서 반복되며 23 절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문자적으로 “즐거워 하자,”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 이 명령은 자신의 아들이신 메시아께 회개하는 믿음으로써 돌아온 자를 인해 기뻐하시고 또 그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낸다.

15:7 “**회개하면**”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낸다. *메타노에*라는 헬라어는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이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둘 다 회개와 관련을 가진다. 마가나 요한 보다 마태와 누가 “회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한다. 마가와 요한은 이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3:3 의 특별주제를 보라.

복음은 (1) 회개 및 (2) 믿다/믿음/신뢰로 요약된다(즉, 막 1:15; 행 20:21). 누가는 회개의 필요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참조, 5:32; 10:13; 11:32; 13:3,5; 15:7,10; 16:30; 또한 행 2:38; 3:19; 8:22; 17:30; 20:21; 24:47; 26:20).

▣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 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 장에 나오는 세 비유의 목적이 분명히 말해진다(사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 참조, 창 1:26-27, 또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 참조, 창 3:8).

▣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것은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아이러니한 표현으로서 눅 5:31-32; 마 9:12-13; 막 2:17 도 이같은 표현을 담고 있다. 자신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아는 자들은 예수께 기꺼이 나아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믿음과 회개함으로 자신에게 나아온(또한 나아오는) 자들과 함께 잡수시며,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며,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

**개역개정 15:8-10**

<sup>8</sup>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sup>9</sup>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sup>10</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5:8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열 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테나리온*의 가치와 비슷하다). 이것은 이 여인의 지위를 나타내었는데 아마도 그녀가 받은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근동의 문화는 이것이 머리에 쓰는 장식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특별주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

- I. 동전
  - 가. *케르마* - 작은 금액(참조, 요 2:15)
  - 나. *칼코스* - 작은 금액(참조, 마 10:9; 막 12:41)
  - 다. *앗사리온*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테나리온*의 1/16 의 가치(참조, 마 10:29)
  - 라. *코드란테스*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테나리온*의 1/64 의 가치(참조, 마 5:26)
  - 마. *렘톤*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테나리온*의 1/128 의 가치(참조, 막 12:42; 눅 21:2)
  - 바. *콰드란스/화팅* - 로마의 동전으로서 작은 금액
- II. 은화
  - 가. *알구로스*(“은화”) - 구리나 청동으로 만든 주화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참조, 마 10:9; 26:15)
  - 나. *테나리온* - 로마의 은화로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참조, 마 18:28; 막 6:37)
  - 다. *드라크마* - 헬라의 은화로서 한 *테나리온*의 가치(참조, 눅 15:9)
  - 라. *디 드라크마* - 두 *드라크마*는 유대인의 돈인 1/2 세겔에 해당되었다(참조, 마 17:24)
  - 마. *스타테르* - 4 *테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은화(참조, 마 17:27)
- III. 금화 - *크루소스*(“금화”) - 가장 값진 주화(참조, 마 10:9)
- IV. 금속의 무게에 대한 일반적 용어
  - 가. *므나* - 라틴어의 *미나*, 100 *테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속의 무게(참조, 눅 19:13)

- 나. *달란트* - 헬라의 무게 단위(참조, 마 18:24; 25:15,16,20,24,25,28)
1. 은으로는 6,000 *테나리온*의 가치
  2. 금으로는 180,000 *테나리온*의 가치
- 다. 세겔 - 구약에서 유대인이 은의 무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함(참조, 창 23:15; 37:28; 출 21:32)
1. *핀* - 2/3 세겔
  2. *베카* - 1/2 세겔
  3. *게라* - 1/20 세겔
- 큰 단위
1. *마네* - 50 세겔
  2. *킵칼* - 3,000 세겔

▣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만인구원론(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설)을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비유의 세부적 사항에 근거하여 어떤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롬 5:1-8 을 반드시 롬 1-8 장의 문맥에 기초하여 해석해야만 되듯이, 어떤 짧은 구에 근거하여 그 구가 속한 문맥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진리를 가르쳐서는 안된다(참조, 7 절과 10 절에 나오는 “회개하는 죄인”). 만일 모든 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악의 신비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즉, 바리새인들). 11:19 의 특별주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보라.

나는 예수의 죽으심이 모든 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처음 뿐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 “등불을 켜고”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창문이 없어서 햇빛이 들어올 수 없었다.

15:9 이것은 6-7 절에 나타난 바 신학적 강조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15:10 “하나님의 사자들”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서 랍비들이 사용한 표현이었다(7 절의 “하늘에서 기뻐함”도 이러한 표현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온다(우회적 표현).

개역개정 15:11-24

<sup>11</sup>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sup>12</sup>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sup>13</sup>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sup>14</sup>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sup>15</sup>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sup>16</sup>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sup>17</sup>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sup>18</sup>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sup>19</sup>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sup>20</sup>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sup>21</sup>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sup>22</sup>아버지는 중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sup>23</sup>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sup>24</sup>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15:11 “두 아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을 나타낸다: (1) 일반 백성 및 (2)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려진 일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은 서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한 그룹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인해 기뻐하지만, 다른 그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심을 인해 상처를 받는다.

15:12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분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의 것이 될 수 없는 몫이었다. 이것은 재산의 2/3 를 장자에게 주고 난 나머지 부분인 1/3 이었을 것이다(참조, 신 21:17). 그의 말은 그가 반역적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생각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요구는 동양의 문화에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는 말이다(참조, 케넷 E. 베일리, *시인파 농부*, 142-206 쪽).

▣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산을 미리 분배하는 일이 문화적 법적으로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가능했지만, 이 일이 아들의 요구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없었다! 적절치 못하며 문화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준 일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자격한 자에게 넘치는 사랑과 용서로 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목적으로서 이 행위를 제시한다.

동생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때에 또한 아버지가 그 요청대로 재산을 분배하여 줄 때에 큰 아들이 침묵한 일은 동양의 문화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에 속한다. 큰 아들은 이에 맞서 격렬히 항의했어야 되었다. 그는 비유의 말미에서 화를 내고 있다. 사실상 그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한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듯 죄인들을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형제를 거부할 것인가?)

15:13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농장을 팔아 돈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1) 농장을 망가뜨렸고 또 앞으로의 생존 자체를 위협에 빠트렸으며 (2) 재산을 헐값에 넘겼다는 뜻이다.

만일 땅이 관련을 가진다면 구매자는 이 아버지가 죽기까지 그것을 소유로 취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땅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사용했을 것이다.

▣ “**먼 나라에 가**” 이것은 작은 아들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려함을 나타낸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

NASB	“거기서 그가 되는데로 살아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더니”
NKJV	“거기서 그가 방탕하게 살아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더니”
NRSV	“거기서 방종하게 살아 자신의 소유를 허비하더니”
TEV	“그가 신중하게 살지 못해 그의 돈을 낭비한 곳”
NJB	“그가 방탕한 삶으로 그의 돈을 허비한 곳”
페쉬타(시리아어)	“거기서 그가 사치한 삶으로써 그의 부를 낭비하더니”

이것은 소조(구하다)라는 동사와 *알파 점두사*를 사용한 단어이다(구원할 수 없는 사람). 모든 영어역본은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 이곳에서 사용된 *아소토스*라는 부사를 비도덕적이고 경건치 않으며 방종한 삶으로 번역하였다(참조, 3 절 및 70 인역의 잠 7:11; 28:7). 한편 5 세기의 시리아어(아람어)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재산을 부주의하거나 생각없이 다루는 사람을 나타낸다(독일 성서 공회의 70 인역의 헬라이어-영어 사전은 “낭비하는”을 *아소티아*의 의미로 제시한다, 69 쪽). 하지만 이 단어가 부도덕함을 항상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참조, *킷텔*, 제 1 권 507 쪽 및 *로우와 니다*, 제 1 권 753 쪽).

15: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해석상 중요한 단어는 “붙여 사니”(콜라오)이다. 이 단어를 주로 누가와 바울이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더붙여 사귀다”(참조, 행 5:13; 9:26; 10:28), “달라 붙다”(참조, 마 19:5; 눅 10:11), 혹은 “연합하다”(참조, 행 8:29; 17:74)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 단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풀로 붙이다”이다. 이 어리석은 젊은 유대인이 샴을 바라고 자기 스스로 묶인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유대인이 아닌 그 지역의 농부에게 필사적으로 빌붙어 있는 것인가? 이 일은 절망감에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가 얼마나 불쌍한 신세에 처하였는가?

“그 나라 백성”은 아마도 이 유대인 젊은이로 하여금 돼지떼를 치라고 함으로써 그를 내쫓아 버리려 한 것이었다! 그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였으며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었기에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이다.

15:16

NASB, NKJV	“그가 기빠하여 쥐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되”
NRSV	“그가 기빠하여 쥐엄 열매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되”
TEV	“그가 콩꼬투리로 자신을 채우고자 원하되”
NJB	“그가 기꺼이 걸껍질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되”

앞 쪽에 있는 두 영역본은 고대 헬라이어 사본인 P<sup>75</sup>, **Σ**, B, D, L 사본 및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이어 사본에 있듯이 *케미조*라는 동사와 “위”(stomach)를 뜻하는 단어를 반영한다. 한편,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영역본은 고대 헬라이어 사본인 A 및 고대 라틴어인 벨게이트역과 시리아어에 있는 바 *코르타조*라는 동사와 “위”라는 단어를 반영한다. **Σ**와 B 사본이 일치하고 A 사본과 다를 경우 오늘날의 본문비평가들은 대개 앞의 두 사본을 취한다. 하지만 UBS<sup>4</sup>는 두 번째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여기서 NASB(1995)역이 KJV 역을 따르는 점이 놀랍다.

항상 그러하듯이 사본적 변이는 본문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쥐엄 열매로**” 이 열매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참조, 베일리, *농부의 눈으로*, 171-172 쪽). 한 종류는 시리아에 있는 것으로서 맛이 달고 많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사용한다. 또 다른 종류는 들쥐엄 열매로서 키가 작은 나무에 검고 신 열매가 맺힌다.

이 들열매에는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양분이 들어 있지 않다. 젊은이가 먹고자 했던 것은 바로 들쥐엄 열매로서, 이것으로 배고픔을 면하려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음을 그가 알았다.

▣ “주는 자가 없는지라” 문맥에서 볼 때 다른 종들이 그가 돼지의 사료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냉혹한 현실이 여기서 문제로 다가온다. 이것은 이 젊은이가 계획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절급한 상태에 그가 처했다(참조, 17 절).

15:17

NASB, TEV, NJB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

NKJV, NRSV, 페쉬타 “그가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1) 책임을 짐 및 회개함 혹은 (2) 사람이 마음 속으로 사고하는 과정이나 진실이 드러남을 뜻하는 히브리어적 관용어이다(참조, 18:4; 바로 이러한 헬라이어 구가 있음). 18-19 절은 1 항의 의미를 나타낸다.

▣ “품꾼” 근동의 시골에는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었다(참조, 베일리, *농부의 눈으로*, 176 쪽):

1. *둘로스*,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서 주인과 함께 삶
2. *파이테스*, 친한 일을 감당한 노예로서 밭에서 삶
3. *미스토스*, 일시적으로 고용된 일꾼으로서 밭에서 살지 않았음

문맥상 2 항이 이 아들이 소원한 내용이었다.

15:18 “하늘 ...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또 하나의 경우이다. 15:10의 설명을 보라.

15:20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점과 그가 취한 특별한 행동은 아버지가 가진 사랑의 강도를 나타낸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 행동인 “목을 안고”와 “입을 맞추니”는 재결합을 뜻하는 말로서 70 인역의 창 33:4; 45:14-15을 반영한다. “입을 맞추었다”라는 마지막 행위는 삼하 14:33에서 볼 때 용서함의 표였다. 이 합성어(*카타+ 필레오*)는 뜨거운 사랑을 암시한다(참조, 7:38; 행 20:37).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중심진리(이것은 대개 충격적이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로 제시됨)를 찾아야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우화화)하려 해서는 안된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대로 하여 가족 모두의 삶에 위협을 초래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도덕적 및 문화적으로 적합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해서는 안된다. 우리를 파괴시킬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파괴시킬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한편, 이렇게 무가치한 자에게 무조건적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는 단연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비유의 큰 문맥이 용서하지 않으며 받아주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자세에 대한 것임을 상기하라(즉, 형, 25-32 절, 특히 28 절).

15:21 헬라이어 사본에 있어서 변이가 이 절에 나타난다. 어떤 고대 본문은 이 문장의 말미에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 다른 여러 사본에서는 19 절에 있는 내용(“나를 당신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을 추가하고 있다. 서기관들은 구에서 빠진 내용을 채워넣는 경향을 가졌다. 따라서 UBS<sup>4</sup>는 짧은 본문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15:22 세 개의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강조를 나타낸다. 즉시 이 일을 행하도록 종들이 명을 받았다!

▣ “제일 좋은 옷” 이것은 가족 안에서의 지위를 상징한다.

▣ “가락지” 이것은 가족 안에서의 회복된 지위와 권위를 상징한다.

▣ “신” 이것은 고용된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임을 상징한다.

15:23 “살진 송아지를” 유대인들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붉은 색 고기를 먹었다. 이것은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기였다.

케넷 E. 베일리(*시인과 농부/농부의 눈으로*)는 살진 송아지를 잡는 일이 공동체 전체의 축제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고기의 양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의 설명이 맞다면 아버지는 이 잔치를 통해 작은 아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을 나타낸다(참조, 181-187 쪽).

탕자를 위해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리는 일이 이 비유에서 예상치 못한 요소임을 또한 기억하라. 식탁에서의 교체는 천국(종말에 있을 잔치)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은유적 표현이다. 잔치를 작은 아들(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함)을 위해 벌인 반면에 큰 아들(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함)은 여기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님을 강조한다.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바 역할의 반전이다.

15:24 이것은 6-7 절 및 9-10 절과 평행을 이룬다. 천국에서는 죄인이 돌아옴을 인해 기뻐한다!

개역개정 15:25-32

<sup>25</sup> 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sup>26</sup>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sup>27</sup>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sup>28</sup>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sup>29</sup>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sup>30</sup>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sup>31</sup>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sup>32</sup>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5:25 “**만아들**” 탕자가 잃어버린 바 되고 범죄한 인류를 가리킨다면, 만아들은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낸다.

이 비유에 나타난 바 두 가지의 주요 진리는”

1.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인해 기뻐하시며
2.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일원이 죄를 범한 다른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이다

여러 면에서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죄와 용서치 않음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 있다! 두 종류의 소원함이 있다:

1. 공개적인 반역
2. 감추어진 우월감과 시기심

이 아들들은 각자 서로 반대되는 이유를 인하여 아버지와의 교체에서 떠나 있었다.

15:28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신다!

15:29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것은 이 아들의 울분어린 분노와 불평이 시기와 질투에 기인한 것임을 나타낸다. 만아들은 자신이 계속적으로 순종함을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즉,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 참조, 마 20:1-16 에 있는 비유).

▣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 . .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은 살진 송아지보다 더 썩 종류의 짐승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받았다고 여겼다.

15:30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표현은 만아들이 가진 깊은 분노 및 그가 자기 형제를 계속하여 거부함을 나타낸다.

▣ “**창녀들과 함께**” 이것은 만아들 쪽에서 하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15:31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남은 재산은 전적으로 이 아들에게 속하였다. 작은 아들의 생명과 삶은 사실상 형의 손에 달려 있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형의 자비함에 온전히 의존해야 되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요 진리는 무엇인가?
2. 어느 아들이 당신을 나타내는가?
3. 왜 마지막 비유에서 아무런 결론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가?

# 누가복음 1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정직한 관리인	지혜로운 관리인	교활한 청지기
16:1-13	16:1-13	16:1-13	16:1-8	16:1-4 16:5-7 16:8 돈을 바르게 사용함 16:9-12 16:13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율법,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	율법에 대한 가르침	예수께서 하신 말씀	바리새인 및 그들이 돈을 사랑함에 대한 말씀
16:14-18	16:14-18	16:14-15 16:16-17	16:14-15 16:16-17	16:14-15 침노 당하는 왕국 16:16-17 율법이 남아있다 16:17 쪼개질 수 없는 결혼 16:18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16:19-31	16:19-31	16:19-31	16:19-31	16:19-22 16:23-26 16:27-3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16 장은 문맥상 15 장과 관련을 가진다:
1. 둘 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15:2-3; 16:14
  2. 추가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제자들이었다, 14:33; 16:1
  3. 이 두 장에 기록된 비유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꾸짖으시기 위함이었으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찾으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4. 15 장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는 잃어버려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16 장 전체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함(16:14-15)에 대한 것이다(16 장은 “맘몬” 혹은 돈과 관련하여 랍비들이 사용한 언어유희로 통일된다).
- 나. 이 비유(16:1-13)에서 거짓을 좋게 말하는처럼 보임으로 인하여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이 본문은 비유라는 장르(즉,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로서 부정적인 예(인물)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진리를 묘사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참조, 18:1-8).
1. 비유의 적절한 해석을 위한 열쇠는
    - ㄱ. 8a 절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가? 예수인가 아니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인가?
    - ㄴ. 8b-13 절에서
      - (1) 돈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 (2) 초대교회의 가르침(복음서의 저자)
      - (3) 구분되는 문학적 장르는?
  2. 비유의 세세한 내용을 너무 자세히 알려 하지 말라. 중심진리(들)에 집중하라.
  3. 탕자의 비유와 부정직한 청지기 사이에 유사성이 나타난다:
    - ㄷ. 자비로운 아버지/주인
    - ㄹ. 한 곳에서는 한 아들이 신실하지 않은 자이고, 다른 한 곳에서는 후한 사례를 받는 청지기가 신실하지 않은 자임
    - ㅁ. 두 경우 다 그가 한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버지나 빚진 자들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 장에는 명백히 드러나는 통일적 주제가 없다. 문학적 단위를 구분하는 일이 종종 어렵다. 13 절은 독립절인가? 16-17 절과 18 절의 내용이 어떻게 큰 문맥과 관련을 가지는가?  
누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을 엮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가 이렇게 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자아와 부와 이 세상의 질서에 둔 우선순위의 부적합성이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는 주제이다.
- 라. 19-31 절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는 일련의 시리즈(참조, 15-16 장)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비유이다. 이것은 8b-13 절 및 14 절에 나오는 진리를 예시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돈을 바르지 않게 사랑함이 16 장의 주제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바리새인들은 부자의 형제들과 비슷한 자였다(29 절). 율법과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육체를 가지고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들이 믿고 있었지만 이러한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이 열쇠라는 사실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놀라운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 마. 케넷 E. 베일리, *시인과 농부 및 농부의 눈으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독자의 사고를 자극하며 이 책의 구조와 문화적 면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6:1-9

<sup>1</sup>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sup>2</sup>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됴이나 내가 보던 일을 쟁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sup>3</sup>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sup>4</sup>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sup>5</sup>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sup>6</sup>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sup>7</sup>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sup>8</sup>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sup>9</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6:1 “제자들” *마세테스*라는 이 용어는 “배우는 자들”을 의미한다. 신약은 결심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제자가 됨에 둔다(참조, 마 28:19). 기독교는 믿음과 회개로 시작하는 최초의 결단(참조, 막 1:15; 행 3:16,19; 20:21)에 이어 믿음과 회개의 삶이 뒤따라야함을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행동(즉, “바리새인들의 누룩,” 참조, 12:1)에 대해 경계를 주신다.

- ▣ NASB, NRSV, NJB “~가 있었는데”
- NKJV “어떤 ~가 있었는데”
- TEV “전에 ~가 있었는데”

*티스* 혹은 *티라*는 헬라어는 누가복음에서 종종 비유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단어로 나온다(참조, 7:41; 10:30; 14:16; 15:11; 16:1,19; 19:12; 20:9[사본 A]). 15-16 장에 있는 다섯 비유에서 *티스*가 세 번 앞에 나옴을 주목하라.

- ▣ NASB, NRSV, NJB “관리인”
- NKJV “청지기”
- TEV “관리하는 중”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는 다음의 사람을 가리킨다

1. 재산을 관리하는 일로 고용된 사람(참조, 눅 12:42; 17:1,3,8)
2. 관리자 혹은 청지기(참조, 고전 4:1-2; 딤후 1:7; 벰전 4:10)
3. 도시의 재정관(참조, 롬 16:23)

이들은 교육을 받은 중 혹은 고용된 자유인이었을 것이다.

- ▣ NASB “보고된지라”
- NKJV “고소”
- NRSV “비난”
- TEV “들린지라”
- NJB “비난받은지라”

이 용어는 “악마”[*디아볼로스*, *디아*와 *볼로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 용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던져 ~을 지나게 하다” 혹은 “비난하다”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 “낭비한다” 이것은 탕자(참조, 15:13)에 대해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디아콜피조*)이다.

▣ “소유” 이것은 14:33 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다.

16:2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문맥에서 볼 때 청지기는 아마도 돈이나 재산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리대금, 참조, 출 22:25; 레 25:36; 신 23:19). 탈무드는 바바 바트라 10.4 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액수를 규정하였다. 이 청지기는 그 액수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아마도 그가 나중에 증서에서 깎아준 액수만큼 취하였을 것이다.

▣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나 체찍질형을 받지 않고 해고되었음을 주목하라! 이러한 점은 원래의 청중에게 매우 놀랄만한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을 특별히 드러내는 내용으로 보인다.

16:3-4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재고하여 보았다.

- ▣ NASB, TEV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를 내가 알도다”
- NKJV “해야 할 일을 내가 정하였도다”
- NRSV “해야 할 일을 내가 결정하였도다”
- NJB “아,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알았도다”

이 구는 갑작스럽게 가진 통찰력을 나타낸다! 그는 탕자의 경우처럼(참조 15:17) 정신을 차리고 최종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정했다.

▣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4 절). 그들이 주인에게 진 빚의 차용증에 있는 금액을 그가 감하여 주었다.

16:6

NASB, NKJV, NJB

NRSV

TEV

“기름 백 말”

“감람유 백 향아리”

“감람유 기름 천 배럴”

이것은 문자적으로 “100 *셀*”으로서 히브리인들이 액체에 대해 사용한 도량형이었다. 이 양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 *셀*은 대략적으로 31 리터에서 35 리터의 양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서로 다른 표준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예수께서 종종 강조나 충격을 주시기 위하여 매우 큰 양/숫자(과장법)를 말씀하셨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무게와 부피(도량형)**

상업적으로 사용한 무게와 양은 고대 농업경제에 있어서 중요했다. 성경은 유대인이 서로 공정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참조, 레 19:35-36; 신 25:13-16; 잠 11:1; 16:11; 20:1). 실제적인 문제는 정직성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표준화 되지 않은 용어와 체계였다. 두 개의 저울 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양에 대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성경 해석자의 사전* 제 4 권 831 쪽을 보라). 또한 이집트의 10 진법(10 을 기초로 하는)은 메소포타미아의 60 진법(6 을 기초로 하는)과 결합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된 “크기”와 “양”은 어느 것도 규격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동물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 혹은 농부의 용기를 기초로 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오직 어렵짐작이었고 임시적이었다. 무게와 양을 나타내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방법은 상호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이다.

I. 자주 사용된 부피와 관련된 용어

가. 마른 것의 양

1. 호멜(BDB 330, 아마도 “한 마리의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양,” BDB 331), 예, 레 27:16; 호 3:2
2. 레택(또는 레택, BDB 547, 아마도 호 3:2 에서 암시됨)
3. 에바(BDB 35), 예, 출 16:36; 레 19:36; 겔 45:10-11,13,24
4. 스아(BDB 684), 예, 창 18:6; 삼상 25:18; 왕상 18:32; 왕하 7:1,16,18
5. 오멜(BDB 771 II, 아마도 “곡물 한 단” [벤 곡식 한 단], BDB 771 I), 예, 출 16:16,22,36; 레 23:10-15
6. 잇사론(BDB 798, 에바의 “십분의 일”), 예, 출 29:40; 레 14:21; 민 15:4; 28:5,13
7. 카브(또는 갑, BDB 866), 참조, 왕하 6:25

나. 액체의 양

1. 고르(BDB 499), 예, 겔 45:14(이는 또한 마른 것의 부피를 재는 것이었다, 참조, 대하 2:10; 27:5)
2. 바트(BDB 144 II), 예, 왕상 7:26; 대하 2:10; 4:5; 사 5:10; 겔 45:10-11,14
3. 힌(BDB 228), 예, 출 29:40; 레 19:36; 겔 45:24
4. 록(BDB 528), 참조, 레 14:10,12,15,21,24

다. 도표(로렌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201 쪽과 *유대 백과사전*, 제 16 권, 379 쪽에서)

호멜(마른 것) = 고르(액체)	1						
에바(마른 것) = 바트(액체)	10	1					
스아(마른 것)	30	3	1				
힌(액체)	60	6	2	1			
오멜/잇사론(마른 것)	100	10	-	-	1		
카브/갑(마른 것)	180	18	6	3	-	1	
록(액체)	720	72	24	12	-	4	1

II. 자주 사용된 무게의 용어

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가지 무게 단위는 달란트, 세겔, 게라였다.

1. 구약에서 가장 큰 무게의 단위는 달란트이다. 출 38:25-26 에서 1 달란트는 3,000 세겔에 해당한다(즉, “대략적인 무게,” BDB 503).
2. 세겔(BDB 1053, “무게”)은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 본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것이 진술되지 않았다. 구약은 세겔의 여러 가치를 언급한다.
  - ㄱ. “상업적 표준”(NASB 참조, 창 23:16)
  - ㄴ. “성소의 세겔”(NASB 참조, 출 30:13)
  - ㄷ. “왕의 저울에 의해”(NASB 참조, 삼하 14:26), 또한 엘리판틴 파피루스에서도 “왕의 저울”이라고 불림.

3. 게라(BDB 176 II)는 1/20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참조, 출 30:13). 이 비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율을 따랐다(우가릿).
4. 미나(BDB 584)는 50 혹은 60 세겔의 가치이다. 이 용어는 주로 후기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본문에 나타난다(예, 겔 45:12; 스 2:69; 느 7:70-71). 가나안에서는 50:1의 비율을 사용한 반면 에스겔서는 60:1의 비율을 사용했다.
5. 베카(BDB 132, “반 세겔,” 참조, 창 24:22)는 구약에서 오직 두 번 사용되었고(참조, 창 24:22; 출 38:26) 1/2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 이것의 이름은 “나누다”란 의미이다.

나. 도표

1. 출애굽기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000	50	1		
베카	6,000	100	2	1	
게라	6,000	1,000	20	10	1
2. 에스겔서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600	60	1		
베카	7,200	120	2	1	
게라	72,000	1,200	20	10	1

16:7

NASB, NKJV, NJB

“밀 백 석”

NRSV

“밀 백 통”

TEV

“밀 천 부셀”

이것은 문자적으로 “100 코르”로서 히브리인들이 마른 물건의 계량을 위해 사용한 단위였다. 일 코르의 양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350 리터에서 420 리터의 분량에 해당되었다.

16:8

NASB, NRSV

“그의 주인”

NKJV, TEV, NJB

“주인”

헬라이어 본문에서는 “그의”가 아니라 “그”(the)로 되어 있다. 이 호칭이 앞에 있음으로 인해 주석가 사이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것은 (1)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타내거나 (2)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주인”으로서 나타낸다. 문맥에서 이 단어는 주인을 뜻한다(참조, 3,5 절). 어디서 비유가 마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구는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다. 그가 평소 행하는 일의 자세를 통하여가 아니라 압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취한 행동을 인해 극찬받고 있다.

2 절에서 그 청지기를 해고한 그 주인이 8 절에서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비유에 나타나는 꼬임(핵심적 사항)이다. 짐작컨대 그 마을의 소작인 농부들은 주인의 관대함을 인해 주인을 칭찬했을 것이며 주인은 이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가 압박한 재난 및 잘못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속히 (1) 채무자들(참조, 4-5 절) 혹은 (2) 주인의 자비에 모든 것을 거는 행동을 취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죄와 압박한 심판을 인식하는 죄인들이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용서함과 자비하심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가리킨다(참조, 16 절).

▣ “이 세대의 아들들이 . . . 빛의 아들들” 이것은 히브리 관용어이다. 고대어인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의 아들”과 같은 **형용사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유대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참조, 갈 1:4; 고후 4:4; 엡 2:2)와 오는 세상(참조, 마 28:20; 히 1:3; 요일 2:5-17)으로 이루어지는 두 세대(참조, 마 12:32; 막 10:30; 눅 20:34-35)로 이해했다. 9:2의 특별주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보라. 신자들은 이 두 세대가 겹침을 인해 긴장으로 가득한 시간에서 살고 있다(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시는 일).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에 잘 맞추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NASB  
NKJV  
NRSV  
TEV  
NJB  
페쉬타

“그들 자신의 종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더 재빠름이니라”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더 재빠름이니라”  
 “그들 자신의 세대를 다름에 있어서는 더 재빠름이니라”  
 “그들의 일을 다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재빠름이니라”  
 “그들 자신의 종류를 다름에 있어서 더 영약함이니라”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절은 위기 상황에서 불신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신자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를 대조하여 나타낸다(참조, 16:1). 한편 해석상 중요한 과제는 이것을 9 절과 어떻게 관련시키는가에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인가? 9 절에 대한 설명을 보라.

16:8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참조, 마 10:16), 하지만 그들은 종종 어리석기 짝이없다!

16:9 이절은 모순적인 풍자법에 속한다.

1.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2.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별개이트역과 NKJV 역에서는 “너희가 실패할 때에”로 되어 있다)
  3. 그들이(참조, 4 절)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 ㄱ. 일시적인 환경 - 이 세상을 “자기들의 집”으로 삼은 자들(참조, 4 절)
    - ㄴ. 종말적인 환경 - (1) 하나님의 백성 (2) 천사들 혹은 (3)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처소가 되심”
-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행하라”이다!



NASB  
NKJV  
NRSV  
TEV  
NJB

“너희 자신을 위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 자신을 위해 불의한 맘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 자신을 위해 정직하지 않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 자신을 위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만들기 위해 더러운 돈을 사용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긴급성을 나타낸다. “맘몬”은 “부”를 나타내는 아람어였는데 바벨론 탈무드와 시리아에서 의인화된 신으로 나타난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모든 일의 요약이다.

이것은 13 절의 내용을 볼 때 풍자일 것이다. 육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악한 청지기와 영적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왕국백성 사이에 대조가 나타난다.

▣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유대인들(바리새인들)은 사후에 육체를 갖고 참여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었다(참조, 욥 14:14-15; 19:25-27; 시 11:7; 16:11; 17:15; 140:13; 사 25:8; 26:19; 단 12:2).

**개역개정 16:10-13**

<sup>10</sup>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sup>11</sup>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sup>12</sup>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sup>13</sup>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6:10 “지극히 작은 것에” 이것은 지상에서의 부 혹은 청지기 직을 뜻한다. 인간은 그들이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 “큰 것에도” 이것은 이 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부를 가리킨다(참조, 마 6:19-34).

16:11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신자들은 (1)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일과 (2) 신자들을 돕는 일에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 “맡기겠느냐” “충성된”(πιστοτος, 10,11,12 절)과 “맡기다”(πιστευω, 미래 능동 직설법) 사이에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신자들은 청지기이다(참조, 고전 4:1-5; 딤후 1:7; 벰전 4:10). 어떤 종류의 청지기인가가 중요하다(참조, 마 5:13-15).

11 절에 있는 수사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답(12 절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예상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있어서조차 충성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대조가 이 비유의 핵심을 이룬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뇌물을 써서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처를 하지만(참조, 4 절), 다음 생애(“영원한 처소”)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16:12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다. 이 수사적 질문은 반대의 내용을 말한다. 불신자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충성스럽지 않다.

▣ “남의 것에” 많은 해석가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뜻한다고 이해한다. 신자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다. 이 점은 복음과 세상적 부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 “너희의 것을” 대명사에 있어서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UBS<sup>4</sup>는 “너희”(ἡμετέρον)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분명하게, 참조, P<sup>75</sup>, K, A, D, W, 별게이트, 시리아, 콕, 아르메니아 역).

그러나 오늘날의 ‘네슬 제 21 판’과 같은 절충적 헬라어 본문에는 “우리의”(ἡμετέρον, 즉, 성부와 성자의, 참조, B, L 사본)로 되어 있다. 이 차이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이 점은 신약이 어떻게 필사되었고 왜 이러한 변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 종종 한 사람이 헬라어 본문을 읽는 동안 여러 사람이 그가 읽는 내용을 받아 적었다. 따라서 비슷한 발음을 갖는 단어들은 종종 혼동을 일으켰다. 이 두 대명사의 발음이 서로 매우 비슷하여 변이를 일으켰다! 부록 2를 보라.

16: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사람이 두 개의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다(즉, 자아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물건 이든지 영적 보화이든지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한다(참조, 마 6:19-34; 10:34-39; 요일 2:15-17).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 “미워하고 . . . 사랑하거나” 이것은 비교를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창 29:31; 신 21:15; 말 1:2-3; 눅 14:26; 16:13; 요 12:25; 롬 9:13).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개역개정 16:14-15  
<sup>14</sup>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들고 비웃거늘 <sup>15</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14-18 이것은 예수께서 다른 때에 가르치신 것을 누가가 여러 내용이 있는 이곳에 삽입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13 절 및 19-31 절에 있는 비유와 관련이 있다. 중요한 핵심은 세상적 부와 자아에 둔 우선순위이다. 12:21의 특별주제: 부를 보라.

16: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16 장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이다. 이것은 비록 16:1에서 제자들에게 대한 언급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이 진리(참보, 15:2) 및 다음 비유(19-31 절)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  
NASB “그리고 그를 비웃고 있었다”  
NKJV “그리고 그들이 그를 조롱했다”  
NRSV “그리고 그들이 그를 조소했다”  
TEV “그들이 예수를 놀리고 있었다”  
NJB “그리고 그를 조롱했다”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1) 반복적인 행위나 (2) 과거에 어떤 행위가 시작됨을 뜻한다. 이것은 “거들떠 보지 않다”라는 의미의 합성적 관용어이다(참조, 23:35). 이 용어는 70 인역에서 시 2:4; 21:8; 34:16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19-31 절에 있는 비유의 배경을 이룬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돈에 대하여 주시는 가르침을 듣고 이해했지만,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는 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이를 거부했다(참조, 신 28 장).

16:15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대중 앞에서 매우 행하는 구제나 성전에서 과시하며 현금함을 뜻할 것이다(참조, 막 12:41-44). 누가는 이러한 종류의 자기 의에 대해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종종 기록하고 있다(참조, 10:29; 16:15; 18:9,14).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였다!

▣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 동기를 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참조, 삼상 2:7; 16:7; 왕상 8:39; 대상 28:9; 대하 6:30; 시 7:9; 44:21; 139:1-4; 잠 15:11; 21:2; 렘 11:20; 17:9-10; 20:12; 눅 16:15; 행 1:24; 15:8; 롬 8:27). 마음의 동기는 각 행위가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를 결정한다.

▣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에 일이 놀랍게 역전됨에 대한 주제가 다시 나타난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좋은 자들 가운데 최상급으로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참조, 마 5:20,48).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시며 모든 것이 그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참조, 롬 3:23). 구원이 은혜에서 비롯된 선물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공로로 인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메시아를 통해 한 가지 길을 준비하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환영받지만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NASB “싫어하는”  
 NKJV, NRSV “가증스러운”  
 TEV “가치없는”  
 NJB “싫은”

70 인역에서는 이 용어(여러 형태로서)를 다음과 관련을 시킨다

1. 우상숭배(우상 및 우상을 예배함)
2. 종말적 사건 혹은 인물(다니엘서)

여기서 이 용어는 타락한 인류를 야웨로부터 떠나게 잡아당기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세속적임 대 영적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순간적인 일에 둔 우선순위 대 영원한 것에 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적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이다.

**개역개정 16:16-17**

<sup>16</sup>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sup>17</sup>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16:16-18 주석가인 나는 이 절들의 의미를 잘 모른다. 이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며 적합한 곳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내용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왜 누가가 이 내용을 이 문맥에 두었는지를 잘 모른다. 이 본문은 분명히 아는 본문을 사용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에 해석가들이 접근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이 본문의 절에 있는 것(혹은 그러한 면에서 16 장에 있는 내용)을 어떤 교리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한 유일한 성경적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5-16 장의 전체적 의미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형성해서는 안된다.

16:16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둘은 히브리 정경의 세 부분 가운데 두 부분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사실상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29 절; 24:44; 마 5:17; 7:12; 22:40; 행 13:15; 28:23).

**특별주제: 히브리 정경**

- I. 모세오경(토라)
  - 가. 창세기
  - 나. 출애굽기
  - 다. 레위기
  - 라. 민수기
  - 마. 신명기
- II. 예언서(네비임)
  - 가. 전기 예언서
    - 1. 여호수아
    - 2. 사사기
    - 3. 사무엘상하
    - 4. 열왕기상하
  - 나. 후기 예언서
    - 1. 이사야
    - 2. 예레미야
    - 3. 에스겔
    - 4. 12 소선지서
 

ㄱ. 호세아	ㄴ. 요엘	ㄷ. 아모스	ㄹ. 오바다	ㅁ. 요나	ㅂ. 미가	ㅅ. 나훔	ㅇ. 하박국	ㅈ. 스바냐	ㅊ. 학개	ㅋ. 스가랴	ㅋ. 말라기
--------	-------	--------	--------	-------	-------	-------	--------	--------	-------	--------	--------
- III. 성문서(케투빔)
  - 가. 축제의 책(메길랏)
    - 1. 룻기(오순절 때 읽음)
    - 2. 애가(유월절 때 읽음)

- 3. 전도서(초막절 때 읽음)
  - 4. 예레미야 애가(주전 586 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며 읽음)
  - 5. 에스터(부림절 때 읽음)
  - 나. 지혜서
    - 1. 욥기
    - 2. 시편
    - 3. 잠언
  - 다. 역사서
    - 1. 에스라
    - 2. 느헤미야
    - 3. 역대상하
    - 4. 다니엘
- IV. 성문서의 구분은 1 세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즉, 얌니아) 사이에 어떤 책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계속 논란이 있었다.

▣ “요한의 때까지요” 침례(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새시대의 첫 설교자였다(참조, 마 11:13). 그는 모세 안에 있는 옛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사이의 신학적 시대적 분수령을 이루는 인물이었다.

▣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NASB, NRSV, TEV 역이 “복음”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용어는 헬라어 본문에는 없는 단어이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전파하다”(유양켈리조)라는 동사에서 유추한 단어이다(참조, 4:18; 9:6).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4: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 NASB, NJB “각 사람마다 강제로 밀고 들어가고 있느니라”
- NKJV “각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있느니라”
- NRSV “각 사람마다 힘으로 그곳에 들어가려 하느니라”
- TEV “각 사람마다 모두 강제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각 사람”은 과장법으로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소외받은 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나타내는 열정(즉, 현재 중간대[디포] 직설법인 동사)을 가리킨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냉담하였고 또 거부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마 11:12 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의 동사가 중간대가 아니고 수동태로서 전파된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이끌림을 받음(성령의)을 의미할 수 있다(NET 성경, 1856 쪽).

70 인역에서는 이 동사를 창 33:11 과 삿 19:7 에서 수동의 의미로서 사용한다. 이것은 마 11:12 에서 수동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16:17 비록 예수께서 자신의 복음 전파와 더불어 새 날이 도래하였음을 주장하셨지만 구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다(참조, 마 5:17-20).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구전적 전통과 그 해석을 거부하셨고(참조, 마 5:21-48) 구약의 어떤 규정을 바꾸기까지 하셨다(참조, 막 7:19. 음식 규정; 마 19:7-8, 이혼과 재혼). 따라서 자신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심을 나타내셨다.

- ▣ NASB, NRSV “날자의 한 획”
- NKJV “작은 점”
- TEV “가장 작은 차이”
- NJB “작은 한 획”

케파이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뿔”을 의미하는데 이 문맥에서는 한 히브리 자음과 다른 히브리 자음을 구별짓는 조그만 점 혹은 선을 뜻한다(참조, 마 5:18). 따라서 TEV 가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다. 한편, 예수께서 자주 과장법을 사용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점은 구약이 하나님의 계시이며 또 여전히 그러함을 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영원한 반영이다.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소소한 의식 및 예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뜻한다. 16 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이 열리고 또 모든 이가 이를 누리게 됨을 주장한다. 행 15 장은 이방인들(누가의 청중)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갈라디아서 3 장에서 바울이 구약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바를 보라([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개역개정 16:18

<sup>18</sup>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6:18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이 부분은 반드시 문맥에 기초하여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탈무드와 랍비들의 전통(힐렐은 매우 자유주의적이었고 샴마이는 매우 보수적이었음)에 따른 해석을 취하여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분명한 목적(참조, 16-17 벌 및 신 24:1-4 의 본문)을 피하려는 문맥이다.

▣ “간음함이니라” 재혼하는 일이 간음함을 뜻하는가? 예수께서 신 24:1-4 에 있는 모세의 진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가? 모세는 당시 사회에서 쉽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버림받은 여인들을 보호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하였다. 혼인을 파하는 유일한 합법적 이유는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다(삼마이, 참조, 마 5:32). 만일 어떤 여인이 버림을 받았다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녀가 성적 부정을 행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았다(그녀에게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 해석은 마 5:32 및 19:9 에서 **수동태 동사**(“그녀가 간음을 행하게 하다”)에 의해 입증된다.

이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논란이 있고 어려운 본문들”을 찾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청취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라.

개역개정 16:19-31

<sup>19</sup>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sup>20</sup>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sup>21</sup>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sup>22</sup>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sup>23</sup>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sup>24</sup>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sup>25</sup>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sup>26</sup>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sup>27</sup>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sup>28</sup>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sup>29</sup>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sup>30</sup>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sup>31</sup>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6:19-31 “한 부자가 있어” 이것은 15 장과 16 장에 나오는 일련의 비유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서 매우 특이한 비유이다

1. 서론이 없음
2. 분명한 적용이 없음
3. 한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나옴

한편 문맥은 이 내용을 8b-13 에 비추어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비유이다. 우리가 이 비유의 세부적 내용에 근거하여 죽은 자가 몸을 갖지 않는 중간 상태로 있는 곳 혹은 지옥에 대해 설명하는 신학적 답을 주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왜냐하면 본문이 *케헨나*가 아니라 *하데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는 종종 *티스*(“어떤 \_\_\_\_\_,” 참조, 15:11; 16:1,19)로 비유를 시작한다. 16:1 의 설명을 보라.

▣ “부자” 라틴어의 전통은 그를 *디베스*로 부르는데 이는 “부자”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이 부자의 이름이 여러 지명과 시대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헬라이 신약에 대한 본문 주석*, 브루스 메츠거, 165-166 쪽).

▣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보라색은 조개에서 추출한 염료로서 매우 비쌌다. 이것은 엄청난 부자인 이 사람이 멋진 겂옷과 부드러운 속옷을 입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옷을 종종 입었다(**미완료 중간태 직설법**).

16:20 “나사로” 이것은 “*엘레아살*”(BDB 46)이라는 히브리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를 뜻한다. 이것은 이름과 관련있는 의도적 언어유희이다. 하나님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문학적 구도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이다.

▣ “버려진 채” 이것은 **과거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일상적인 구걸을 의미한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이 항상 부유한 이웃에게 혹은 공공장소에서 구걸했다(참조, 행 3:2).

▣ **“헌데 투성이로”** 이것은 헬코스의 **완료 수동 분사**이다(참조, 70 인역 출 9:9,10,11; 레 13:18).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세부적인 면들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이다.

16:21 **“배불리려 하매”** 이것은 15:16 에서 탕자가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 일을 말할 때 사용한 바로 그 단어이다. 이 두 비유 사이에 유사점이 나타난다(참조, 문맥적 통찰, 나. 3).

▣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 문화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먹었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흰색 빵을 사용하여 손을 닦은 후 그것을 바닥에 던져 버렸다(참조, 마 15:27).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본문에는 없지만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이와 평행을 이루는 마 15:27 에 나오며 또  $\kappa^2$ , A, D, W 사본에 나온다. 한편 P<sup>75</sup>,  $\kappa^*$ , B, L 사본에서는 빠져 있다. UBS<sup>4</sup>는 그 내용이 없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것은 나사르가 자신을 핥는 이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음을 나타낸다. 이 문화권에서 개들은 당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거리를 배회하는 똥개였다.

16:22 이 절에 여러가지 대조가 있음을 주목하라:

1. 장례가 치루어 지지 않은 사람(함축하는 의미에서 볼 때), 장례가 성대하게 치루어진 사람
2. 천사에 들려 간 사람, 어떤 방법으로 그가 옮겨졌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사람
3.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

다음의 공통점을 주목하라

1. 둘 다 죽었다
2. 둘 다 의식을 가진다

가난한 자가 왜 영접받고 부자가 왜 거부를 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지만 더 큰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재물(혹은 그것이 없음)을 사용했는가와 관련을 가진다. 사람들의 영적 삶은 육신적 환경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참조, 신명기 28 장 대 읍기 및 시 73 편).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은 점은 그의 이기적이고 세상에 둔 우선순위를 표시한다.

우리는 오늘날 서구 사람들이 가진 우선순위를 그들의 수표책과 달력에 있는 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

NASB, NKJV  
NRSV  
TEV  
NJB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  
**“하늘에서의 잔치에서 아브라함의 곁에 앉음”**  
**“아브라함의 품 속으로”**

이것은 비유일 뿐이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며 또 천국이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하여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스올(BDB 982) 혹은 *하테스*라는 구약의 개념을 사용하여 말한다.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죽은 자가 있는 장소는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구역과 *탈타루스*라는 악한 구역으로 구분된다).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의 옆자리에서 먹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하테스*의 의로운 구역으로 환영함’을 나타낼 것이다(낙원, 참조, 23:43).

16:23 **“음부에서”** *하테스*는 구약에서 죽은 자의 영역을 가리키는 스올과 같은 개념이다.

이곳은 *케헨나*와 구분된다. 후자는 예수께서 “영원한 형벌”을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용어이다. 는 “*케*-굴짜기”와 *헨나*”-“*힌놈의 아들들*”이라는 두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참조, 왕하 23:10; 대하 28:3; 33:6; 렘 7:31).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굴짜기로서 아이들을 제물로 드려 페니키아인의 불의 신(*몰락*, BDB 574)을 섬긴 장소였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하테스*와 구별되는 곳이다. 이 용어(*케헨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외의 곳에서는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참조, 약 3:6).

3:17 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 **“그가 . . . 눈을 들어”** 구약에서는 오감을 사용한 설명으로써 실재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며 죽은 자는 땅 속에 있음(그들이 묻힌 곳)에 기초한다. 이것은 비과학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이 생기기 이전의 표현이다. 에녹 1 서 22-23 장 및 에스라 4 서 7:75-78 는 심판의 날 이전에는 구분된 스올이 있다고 유대인이 믿은 내용이 기록된 신구약 중간시기의 저작이다.

▣ **“고통중에”** 많은 이가 이 본문을 사용하여 심판의 날 이전에라도(참조, 마 25:31-46; 계 20:4-15) 지금 세상에서 사악한 자들에게 고통이 있다(참조, 25,28 절)고 주장한다. 구약의 어떤 본문에서는 불과 스올이 연결되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비유임을 기억하라. 세세한 내용이 항상 어떤 교리적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모험론적 바탕에서 비유를 해석하지 않는 한(참조, 발의 비유나 악한 조각인들의 비유) 비유의 중심주제를 찾는 것이 좋다. 신약의 어떤 본문도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16:24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인해 호의를 기대하는 내용이다. 랍비들의 신학은 종종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일’의 공로를 주장한다. 그는 어떤 유대인도 그곳에 오지 않게 형벌의 영역을 지켜달라고 말해야만 했다.

▣ “나사로를 보내어”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가 자신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중으로 여겼다.

16:25 또 다시 예상치 못했던 역할의 반전이 일어났다! 부자의 재산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의 표식으로 여겨졌었다(참조, 신 28 장).

16:26 이 절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음을 알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고통과 놀람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죽음의 때에 이루어 지는 구분이 영속적인 것임을 나타낸다(“정해진,” **완료 수동**[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 **직설법**). 제 2의 기회는 없다. 자신의 종교적 입장에 근거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확신하며 또 그렇게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NASB, NRSV “큰 틈”  
NKJV, NJB “큰 만”  
TEV “깊은 구덩이”

구렁텅이라는 이 용어는 70 인역에서 깊은 구덩이나 구멍을 뜻한다(참조, 삼하 18:17, 압살롬이 묻힌 곳).

16:27-29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형제들이 그들이 가진 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제시된 성경의 진리(계시)와 주장을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 비난받고 있음을 주목하라(즉,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부정과거 능동 명령**). 인간은 자신이 자연계시(참조, 시 19 편; 롬 1-2 장) 및 특별계시(참조, 시 19:7-13; 119 편; 마 5:17-18; 눅 12:48; 딤후 3:15-17)를 통해 가진 빛에 대하여 영적 책임을 가진다.

16:28

NASB, NRSV, TEV, NJB “경고하여”  
NKJV “증언하게 하여”

이것은 *디아와 마르뒤로마이*의 합성어로서 진지한 경고 혹은 엄중한 증거를 뜻한다(참조, 70 인역의 출 19:10; 신 4:26; 속 3:7). 이것은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된 용어이지만 누가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말하기 위해 사도행전에서 종종 사용한다(참조, 2:40; 8:25; 10:42; 18:5; 20:21,23,24; 23:11; 28:23).

▣ “이 고통 받는 곳에” 문맥에서 이 장소는 *케헨나*가 아니라 *하테스*를 뜻한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이지 미래의 고통이 아니다. 이 절은 심판의 날 이전에도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 고통이 있음을 말하는 신약의 유일한 본문이다. 종종 비유의 세세한 내용은 단지 이야기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가 비유에만 근거하여 어떤 성경의 교리를 만들 수 없다.

“고통”이라는 단어는 야금술에서 온 은유적 표현이다. 해롤드 K. 물톤(*개정된 분석적 헬라어 사전*)은 이 은유적 표현의 자료에 대하여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라피스 리디우스*라는 명사는 리디아에서 나는 돌의 한 종류를 가리킨다. 이 돌은 어떤 합금이 어떤 금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금속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특히 고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시험함*을 나타낸다; 신약에서는 *고문*, *고통*, *심한 통증*의 의미로 마 4:24; 눅 16:23,28 에서 사용되었다.

“*라피스 리디우스* 혹은 *시금석을 적용하다*”라는 동사; 은유적으로, 말이나 고문으로써 *시험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시도하다*; 신약에서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수동태, 질병에 의해 *괴롭힘을 받다*, *고통을 받다*, *아픔을 받다*, 마 8:6,29, 기타; 물결에 의해 *시달리다*, *흔들리다*, 마 14:24” (66-67 쪽).

16:29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16:30 “회개하리이다”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헬라어는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회개는 변화하고자 하는 원함이다. 이것은 죄를 완전히 그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려는 사모함을 말한다. 타락한 인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위한 새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요구조건이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예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모두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눅 13:3,5). 회개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겔 18:23,30,32; 벧후 3:9). 3:3의 특별주제: 회개를 보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신비는 구원을 위한 요구조건인 회개에 의해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참조, 행 5:31; 11:18; 딤후 2:25).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 및 인간이 해야 할 응답을 성경이 제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장이 나타난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일—그렇다면”의 구조를 갖는다.

회개의 개념과 관련을 가지는 여러 용어가 신약에서 사용되었다. 전형적인 본문은 고후 7:8-11 이다. 그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1. “슬퍼하다,” [ *κλιπέ*] 9,10,11 절,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2. “후회하다,” [ *μεταμερομαι*] 8,10 절, 이것은 “과거의 행동에 대해 슬퍼함”을 나타낸다. 이 단어가 유다(참조, 마 27:3)와 예서(참조, 히 12:16-18)에 대해 사용되었다
3. “회개,” [ *μετανοεω*] 9,10,11 절, 이것은 마음의 변화, 새 인격, 삶의 새로운 방향을 나타낸다.

회개를 특징짓는 것은 슬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뀌어지기를 원함이다.

**16:31** 이 절에 두 조건절이 있다.

1. 처음 것은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다음 것은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됨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부정직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지적하는 바이다. 이 형제들은 즉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이 비유에서 초점이 참으로 그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나사르가 죽은 후에 올리위 간 비유의 가르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 일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기로 피하게 만들었을 뿐이다(참조, 요 11:46; 12:9-11). 기적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영적 필요에 답을 주지는 않는다(참조, 마 7:21-23; 24:24; 막 13:22; 살후 2:9-12; 계 13:13-14).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에서 각 문단이 어떻게 돈을 사용함의 주제와 관련을 가지는가? (1-8a, 8b-13, 14-18, 19-31 절)
2. 왜 부가 위험한가?
3. 두 비유(1-8a 절 및 19-31 절)의 중심진리는 무엇인가?
4. 8a 절과 8b 절은 누가 말하는 것이며 또 그들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5. 19-31 절은 비유인가 아니면 역사적 기록인가? 왜 그러한가?
6. 우리가 이 비유(19-31 절)의 세부적 내용에 기초하여 죽은 자의 중간 상태에 대한 신학을 형성할 수 있는가?

# 누가복음 1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께서 하신 어떤 말씀	예수께서 범죄에 대해 경고하심		죄	다른 이를 실족케함에 대하여
17:1-4	17:1-4	17:1-4	17:1-3a	17:1-3a
			17:3b-4	형제를 고침
	믿음과 의무		믿음	믿음의 능력
17:5-6	17:5-10	17:5-6	17:5	17:5-6
			17:6	
			종의 의무	겸손한 섬김
17:7-10		17:7-10	17:7-10	17:7-10
열 문둥병자가 고침받음	고침받은 열 문둥병자	고침받은 열 문둥병자	예수께서 열 사람을 고치시다	피부병 걸린 열 명
17:11-19	17:11-19	17:11-19	17:11-13	17:11-19
			17:14a	
			17:14b-19	
왕국이 임함	왕국이 임함	왕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왕국이 임함	하나님의 왕국이 임함
17:20-37	17:20-37	17:20-21	17:20-21	17:20-21
		세상의 끝		인자의 날
		17:22-37	17:22-30	17:22-25
				17:26-30
			17:31-36	17:31-37
			17:37a	
			17:37b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7:1-4

<sup>1</sup>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sup>2</sup>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sup>3</sup>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sup>4</sup>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17: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전히 같은 문맥이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지만(참조, 15:2; 16:14)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참조, 16:1; 17:5).

▣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범죄하고 반역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정신차려라!

▣

NASB	“실족하게 하는 것들”
NKJV	“공격들”
NRSV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
TEV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
NJB	“타락하게 하는 것들”

스칸달론이라는 용어는 70 인역에서 “뒤틀”이라는 히브리 용어(BDB 430)를 번역하여 놓은 것으로서(참조, 수 23:13; 삿 2:3; 8:27), 막대에 띠끼를 달아 놓은 뒤틀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걸림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참조, 레 19:14; 삼상 25:31; 시 119:165). 앵커 바이블 주석(제 28A 권 1138 쪽)은 이 단어가 어떤 이로 하여금 “배교” 혹은 (하나님 혹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함”을 뜻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것은 마 18 장과 평행을 이룬다.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참조, 마 18:4-6,8-10).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및 죄짓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된 자들에게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참조, 롬 14:1-15:13; 고전 8-10 장; 갈 6:1-4).

바울은 고전 11:19 에서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드러내어 참 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하라고 주장한다.

17:2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인데, 이 문맥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피할 수 없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 “연자맷돌” 구약 시대에는 곡식을 손으로 돌리는 맷돌로 갈았는데, 대개 한쪽은 평평한 돌이었고(참조, 욥 41:24) 다른 쪽은 곡식을 가는 돌로서 손잡이가 있었다(참조, 삿 9:53).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두 개의 둥근 돌(45~50cm)을 사용하여 곡식을 갈았다. 나무 말뚝으로 고정시켜 놓아 윗쪽에 있는 맷돌이 돌 수 있게 하였다. 갈린 곡식은 바깥 쪽으로 나왔다.

예수께서 남자 두명이 돌리는 연자맷돌의 두 짝(참조, 마 24:41) 혹은 짐승이 끄는 더 큰 크기의 연자맷돌(참조, 삿 16:21)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유대인들은 반유목민으로서 많은 물이 있는 곳을 항상 두려워했다. 솔로몬의 함대를 유대인들이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들이 운영하였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이 경고의 내용이 놀랄만큼 심각하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의 사항을 나타낸다.

1. 이 새 신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방법임
2. 배교 혹은 이 새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은 새 신앙을 버리게 함을 나타내는 방법임(6:46 의 특별주제를 보라)
3.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주 나타나는 바 동양적인 과장법의 하나임

▣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이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새 신자를 가리킨다(참조, 마 18 장과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클레멘트 1 서 46 장).



NASB, NRSV  
NKJV  
TEV  
NJB

“발이 걸리다”  
“범죄를 저지르다”  
“죄짓다”  
“몰락”

이것은 *스칸달리조*라는 용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동물을 잡으려고 미끼를 놓은 덫을 잡아 당기는 장치를 뜻한다(1 절에서 **명사**가 사용됨). 이 단어는 어떤 이가 유혹을 받아 영적 혹은 도덕적 성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혹은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이 단어는 종종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하여 성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참조, 마 11:6; 13:57; 고전 1:23; 갈 5:11), 이 문맥의 내용이 신자들에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용법은 여기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러한 의미는 그 대상에 적합하다.

만일 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면, 이 내용은 경건한 삶과 용서하는 삶에 대한 것이다(참조, 3-4 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열고 경건함과 용서함과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상처입은 신자들이 그 때나 지금이나 큰 문제가 된다(참조, 고전 8:12)!

17:3

NASB, NRSV  
NKJV  
TEV  
NJB

“경계하라”  
“너희 자신에 주의하라”  
“따라서 너희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  
“너희 자신의 상태를 살펴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지속적인 명령이다. 신자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행하는 선택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참조, 히 2:1; 벧전 1:19). 우리는 우리의 형제(잃어버려진 자 및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누가는 자신의 저작에서 “너희 자신에 주의하라”(프로세케테 헤아우토이스)라는 이 용어를 종종 문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참조; 12:1; 17:3; 21:34; 행 5:35; 20:28, 또한 눅 20:46 에서는 **동사**로서).

▣ “만일 . . . 하거든 . . . 하거든”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들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성경에서 용서함이 용서를 받은 증거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나는 놀란다(참조, 마 6:12,14-15; 18:21-35; 눅 6:38).

▣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긴급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마 18:15-18 과 평행을 이루며 갈 6:1-5 에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할 책임을 가진다.

▣ “회개하거든” 이것은 **예언**과 함께 쓰인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으로서 **조건절의 제 3 유형**을 나타낸다. 3:3 의 특별주제: 회개를 보라.

▣ “용서하라” 이것은 또 하나의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긴급성을 나타낸다. 신자가 서로 원한을 갖거나 쓴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용서함은 항상 두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17:4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다.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 18:21-22 에서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였다.

▣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것은 회개에 대한 구약의 용어(שׁוּב, “돌아서다”)와 헬라어 단어인 “회개하다”(μετανοεω)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교제와 회복은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7 x 70, 마 18:21-22)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메시아의 희생적 섬김에 의해 모델로 제시된 바 받아주는 자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배워 실천해야 한다(참조, 요일 3:16).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회개**

이 개념은 중요하지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취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히브리(또한 헬라어) 단어가 신학적으로 “고정된” 어떤 정의를 특별히 뜻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단어가 그렇게 “고정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약의 저자들(누가를 제외하고는)은 코이네 헬라어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히브리 단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개념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nhm*(*나함*; BDB 636, KB 688)

2 *swb*(*שב*; BDB 996, KB 1427)

처음 단어인 *나함*은 원래 숨을 깊이 쉬는 것을 뜻하며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ㄱ. “휴식” 또는 “위로” (예, 창 5:29; 24:67; 27:42; 37:35; 38:12; 50:12; 종종 이름으로 사용됨, 참조, 왕하 15:14; 대상 4:19; 느 1:1; 7:7; 나훔 1:1)

- ㄴ. “슬피하다” (예, 창 6:6,7)
- ㄷ. “마음을 바꾸다” (예, 출 13:17; 32:12,14; 민 23:19)
- ㄹ. “동정” (예, 신 32:36)

이 단어들 이 모두 마음 속 깊이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임을 주목하라! 여기에 열쇠가 있다: 마음 속 깊이 있는 느낌이 행동을 낳는다. 이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행동의 변화이다. 여기에 주의를 요하는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다”(참조, 창 6:6,7; 출 32:14; 삿 2:18; 삼상 15:11,35; 시 106:45)라는 말은 죄나 잘못에 대한 슬픔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을 가지시고 돌보심을 문자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민 23:19; 삼상 15:29; 시 110:4; 렘 4:27-28; 겔 24:14). 만일 죄인이 진실되게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죄와 반역으로 인한 형벌을 용서받는다.

이 용어는 어원적으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지움에 있어서 문맥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용어인 **שוב** “돌아가다”(~에서 돌아 오다, 돌아 가다, ~로 돌아 가다)를 뜻한다. 만일 언약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이 “회개”와 “믿음”(예, 마 3:2; 4:17; 막 1:4,15; 2:17; 눅 3:3,8; 5:32; 13:3,5; 15:7; 17:3) 이라면, **שוב**은 자신의 죄를 강도있게 느끼는 것과 죄로부터 돌이킴을 뜻하고 **שוב**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이 두가지 영적 행동이 나오는 경우는 아모스서에서 찾을 수 있다: 4:6-11,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5 회]와 암 5:4,6,14, “나를 찾으라 . . . 야웨를 찾으라 . . .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예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하여 범죄하였을 때이다(참조, 삼하 12 장; 시 32 편; 51 편). 다윗 자신과 그의 가정 및 이스라엘에 계속적인 영향이 미쳤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교제는 회복되었다! 악했던 므낫세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참조, 대하 33:12-13).

이 두 용어는 시 90:13 에서 병행하여 나타난다. 죄를 인식하고 죄로부터 의식적이고 개인적으로 돌아서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참조, 사 1:16-20). 회개는 인식적인 면,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함과 이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이 세 영역이 모두 요구된다. 후회함의 깊은 감정이 하나님께 향한 또한 하나님을 위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바뀐다!

▣ “너는 용서하라” 이것은 3 절에 있는 부정과거 능동 명령의 의미를 갖는 미래 능동 직설법이다.

#### 개역개정 17:5-6

<sup>5</sup>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sup>6</sup>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17:5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은 또 하나의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긴급성을 나타낸다. 1-4 절에 있는 예수님의 진술을 고려할 때 열 두 사도는 새 언약과 복음과 새 시대의 이상과 요구사항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사람들—불완전하고, 참을성이 없으며 종종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신자들과 불신자들—과 일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믿음과 신실함을 가리킨다!

17:6 “너희에게 . . .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조건절의 앞에 있는 구는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진실인 것을 말하나 두 번째 구는 “한 알”로 시작하여 제 2 유형의 문장에 속한다. 따라서 이 절이 암시하는 의미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께서 아셨지만 그들이 믿음을 적절하게(즉,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용할 것인가를 물으심을 뜻한다.

▣ “겨자씨 한 알만한” 성경에 나오는 동식물에 대한 빠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는 세계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을 위한 도구: 성경의 동식물이다.

“겨자씨”(시나피)에 대한 글이 145-146 쪽에 나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씨는 검정색 겨자 식물이 흔히 맺는다. 이 씨가 실제로는 가장 작은 종류(난초)는 아니었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잠언에서는 이것을 가장 작은 것으로 언급한다.

▣ “뿔나무” 예수께서 정확히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 없다. 신약에서는 누가만 관련을 가지고 또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이 나무들에 대해 말한다:

1. 뿔나무(쉬카미노스)-페르시아에서 유래함.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언급됨(A. T. 로벗슨, 워드 픽처스 제 2 권 226 쪽은 이것을 “검은 뿔나무”로 부름)
2. 플라타너스(쉬코모레아)-큰 나무(참조, 눅 19:4; A. T. 로벗슨은 이것을 “흰 뿔나무”로 부름)

문맥에서는 큰 나무를 매우 작은 씨와 대조시키고 있다. 적은 믿음이 크거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음의 의미한다(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17:20]에서는 나무 대신에 산을 말한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가진 믿음의 양이나 열정 혹은 헌신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인간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열쇠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유용한 결과를 주시는 원천이시다!

▣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것은 분명히 과장법적 표현이다. 나무는 바다에 심기울 수 없다. 이것은 18:25 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을 나타낸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둘 다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은 사람의 상황과 자세에 눈에 띄는 차이를 가져 온다. 이 문맥에서 이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매우 힘들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한다.

**개역개정 17:7-10**

<sup>7</sup>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sup>8</sup>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sup>9</sup>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sup>10</sup>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7:7-10 이것은 완전히 새 문학적 단락에 속한다. 이 본문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 진리를 우리들 특히 교회의 사역자들이 종종 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 행하신다. 신자들은 어린아이로 바뀐 종들이다. 우리는 반드시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아야 한다.

17:7 여기에 일련의 수사적인 질문이 나온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누가복음에서 다음의 구절을 주목하라: 2:49; 5:21-23,34; 6:32-34,46; 7:24-26; 9:25; 11:5-7; 13:2-4; 14:28,31,34; 16:11-12; 17:7-9,17-18; 18:7-8; 22:27,48,52.

7 절은 문맥상 “아니오”라는 답을 예상한다. D 사본은 껌이라는 불변화사를 추가하고 있다.

17:8 이 질문은 “예”라는 답을 예상한다(우 용법).

17:9 이 질문은 “아니오”라는 답을 예상한다(뻬 용법).

17:10 이 본문이 다음 내용을 말하는가?

1. 종이 밭에서 온종일 일한 후에는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먹어야 함을 말한다(TEV, NJB)
2. 그가 주인과 함께 앉아 먹어야 함을 말한다(NASB, NKJV, NRSV, NIV)
3. 그가 주인의 섬김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참조, 12:37, 이것은 누가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바 또 하나의 극적으로 반전된 역할을 말할 것이다)

여기에 참으로 애매성이 있지만 문단의 의도는 명확하다.

이와 정반대의 내용이 12:37 에 나온다. 동양의 문학에서는 종종 반대되는 사항을 제시하여 진리를 제시한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은 종종 동양과 서양문학의 형태에 있는 커다란 차이를 간과한다. 9:50 의 특별주제: 동양문학을 보라.

**개역개정 17:11-19**

<sup>11</sup>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sup>12</sup>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sup>13</sup>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sup>14</sup>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sup>15</sup>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 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sup>16</sup>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sup>17</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sup>18</sup>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sup>19</sup>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7:11-19 이것은 새 주제에 속한다.

17: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독특한 문학적 대단위에 접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대단위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심을 다룬다(참조, 9:51-19:28).



NASB  
NKJV  
NRSV  
TEV  
NJB

“그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셨다”  
 “그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를 거쳐 가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지역을 통하여 가고 계셨다”  
 “그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를 따라 가셨다”  
 “그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에 있는 땅을 여행하고 계셨다”

“사이로” 혹은 “통하여”(즉, 목적격과 함께 사용된 *δια*)가 N, B, L 사본에 나타난다.

1. 예수께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계셨기에 갈릴리가 먼저 언급되어야 했다
2. 이 때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보다 더 남쪽에 계셨을 것이다
3.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통적인 남쪽 길을 가시기 위해 경계를 따라 동쪽으로 가셨다

이 절은 누가 시간적 순서가 아닌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주로 복음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나의 견해를 재입증해준다.

17:12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병자들(나병환자)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소외된 환경에서 살아야만 되었다(참조, 민 5:1-3). 이 문맥에서 볼 때 나환자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랍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병이라고 주장했다(참조, 왕하 5:25-27; 15:5; 대하 26:16-23).

17:13 “선생님이여” 이것은 *에페스타테스*라는 헬라어이다. 5:5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이었다. 이 용어가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가는 알기 어렵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도우실 수 있으며 또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들이 예수께 대해 들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17:14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비록 그들의 살갓이 여전히 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들이 깨끗게 되었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부정과거 수동[디포] 분사와 부정과거 능동 명령)에 따라 나환자들이 행해야만 했다(참조, 레 13:14 및 왕하 5:8-14).

이 일은 아마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이전에라도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일은 또한 예수께서 이러한 레위기의 규정을 주의깊게 따름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셨음을 나타낸다.

17:15 고침을 받은 나병환자 가운데 오직 한 명만 돌아와 ‘나아만’이 왕하 5:15 에서 한 것처럼 감사드렸다.

17:16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부분은 누가 혹은 누가 사용한 자료에 따른 편집자적 설명으로 여겨진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는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게 북쪽의 열 지파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로 시작되었다. 그곳에 이주를 당해 온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남아 있던 유대 민족과 혼인을 하였는데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종교적인 잡종으로 여겨 그들과 어떤 사회적 종교적 관계를 갖기도 거부했다. 예수께서는 두 비유에서 심각하게 왜곡된 이 관계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참조, 10:25-37). 이 문맥은 또한 신자가 다른 이를 사랑하며 용서해야함을 말한다((참조, 17:1-6).

17:19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절은 14 절과 평행을 이루는 구조이다(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부정과거 능동 분사 및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명령).

■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을 주목하라. 이 사람의 믿음이 그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사용하사 그를 고치셨다(참조, 7:9,50; 8:48; 17:19; 18:42; 막 5:34; 10:52; 마 9:22,29; 15:28).

이 동사의 형태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 병고침의 결과가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소조라는 동사는 신약에서 구원을 뜻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한편 이 단어는 여기서 육체적 구출을 뜻하는 구약적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약 5:15). 이 남자는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다(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표현됨). 육체의 병을 고침받았음에도 영적 사망으로 마쳐진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이 사람의 요청과 감사는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건강하게 된 다른 9 명은 어떠한가?

개역개정 17:20-21

<sup>20</sup>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sup>21</sup>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17:20 “바리새인들이... 묻거늘”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공적으로 가르치시는 때와 기적을 행하실 때 그곳에 항상 있었다.

■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5:17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사후의 삶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사후의 삶을 부정한 사두개인들(20:27의 특별주제를 보라)과 대조되는 점이다. 이 질문은 막 13:4에서 여러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비슷하다. 누가복음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개의 본문(17:20-37과 21장)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점에서 독특하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종말에 있을 일을 다룬 이 본문이 한 장에 있다(참조, 마 24 장 및 막 13 장). 예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여러 곳에서 여러 시기에 반복하여 말씀하셨을 것이다.

4:2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병의 상태와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함을 나타내는 의학용어이다. 여기서는 주의깊게 관찰함을 나타낸다. 누가는 서기관들(5:21의 특별주제를 보라)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죄할 내용을 찾으려고 그를 주목하여 봄을 이 단어를 사용하여 종종 말한다(참조, 6:7; 14:1; 20:20).

17: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 내용이 23 절의 앞 부분에 있다(참조, 마 24:23,26).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모든 이가 볼 수 있으며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24 절; 마 24:27).

▣

NASB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한 가운데에 있느니라”

NKJV, TEV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NRSV, NJB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1) 너희 각 사람 안에 혹은 (2) 너희(복수) 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제롬 성경 주석, 신약편* 150 쪽은 초기의 교회가 취한 세 가지 석의적 선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너희 안에 - 도마의 복음서  
히폴리투스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제롬  
베데
2. 너희 한 가운데에 - 에브라임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테오필랏
3. 너희 닿는 곳에 - 터툴리안  
키프리안

이것은 예수께 대한 그들 각자의 믿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2항과 3항이 이 문맥에 가장 적합하다. 1항은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는 형태의 신학적 진술로 보인다. 예수께서 친히 임재하심이 왕국의 도래를 가져왔고 예수께서 친히 다시 오시는 일은 이를 완성시킬 것이다. 현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장차 어느 날 온 땅 위에 완성될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신 것이다. 4:2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개역개정 17:22-37

<sup>22</sup>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sup>23</sup>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sup>24</sup>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sup>25</sup>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sup>26</sup>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sup>27</sup>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sup>28</sup>또 룩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sup>29</sup>룩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sup>30</sup>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sup>31</sup>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sup>32</sup>룩의 처를 기억하라 <sup>33</sup>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sup>34</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sup>35</sup>두 여자가 함께 멧들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sup>36</sup>(없음) <sup>37</sup>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17:22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날이 오기를”이라는 구는 시험과 박해와 아픔 등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후천년자들(*천년의 의미, 네 가지 견해*, 로버스 글루스 편지)이 주장하기를 상황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되다가 주께서 다시오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점점 더 악하고 나쁜 쪽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단 12:1; 롬 8:18-23).

▣ “인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신 용어로서 겔 2:1 과 단 7:13 에서 취한 것이다. 이 용어는 인간적 특성과 신적 특성을 나타낸다. 6:5의 자세한 설명 및 5:24의 특별주제를 보라.

▣ “보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17:22-27 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 내용은 다음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1.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이 죽임과 고통스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2. *파루시아*의 지연이 있을 것이다(참조, 살후 2 장)
3. 이 일은 어떤 징조나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시는 시간과 때에 대해 자신이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참조, 마 24:36), 이 구는 지연을 의미할 뿐이다.

17: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 절은 24 절과 관련이 있다.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임하시기에 예수님의 어떤 제자라도 이 일을 알 수 있다고 24 절이 신자들에게 확인해 준다.

▣

NASB “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 가지도 말라”  
 NKJV “그들을 쫓아가지 말거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NRSV “가지도 말고 쫓기 위해 출발하지도 말라”  
 TEV “그러나 그것을 찾아서 가지 말라”  
 NJB “전혀 움직이지 말고 쫓기 위해 출발하지도 말라”

이것은 둘 다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부정과거 가정법은 “시도도 하지 말라”를 뜻한다. 신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육체적으로 나타나심에 대한 추측을 인해 광분이나 광신적 기대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된다.

17:24 이 절은 마 24:27 과 평행을 이루지만 막 13 장에서는 빠져 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분명히 오시는 일이지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 마 24:40-41(눅 17:27)은 문맥상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지(“노아의 때와 같이”) 선택된 이방인 신자의 일부나 가시적인 교회의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어떤 고대 헬라어 본문에는 “그의 날에”로 되어 있다(참조, *א, L, W* 및 벌게이트, 시리아역본들). 한편 다른 여러 고대 사본에는 이 표현이 없다(참조, P<sup>75</sup> 및 일부 콕탁역본). 본문에 비추어서 이 사본들 가운데 어떤 본문을 원래의 것으로 정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구가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오며 이 점이 서기관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이지 않은 본문이 원래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부록 II 를 보라. 한편, 이러한 사본적 변이에 있어서 거의 다 그렇듯이 어떤 것을 택하든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드러내셨다(참조, 마 16:21; 17:9,12,22-23; 20:18-19; 막 8:31; 9:12; 눅 9:22,44; 12:50; 13:32-33). 고난받는 메시야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상치 않은 바이지만(참조, 고전 1:23), 신약은 물론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1. 창 3:15
2. 시 22 편; 118:22
3. 사 8:14; 52:13-53:12
4. 슥 12:10
5. 눅 2:34
6. 마 21:42-46
7. 행 2:23

▣ “이 세대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고 있는 당시의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를 사용하셨다(참조, 7:31; 9:41; 11:29,30,31,32,51; 16:3; 17:25; 21:32; 행 2:40).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 1:11). 이 구는 사람들이 예수께 응답하는 자세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구로서 사용되었다. 예수의 성육신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17: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삶은 창 6-9 장에서 설명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홍수 이전에 일상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참조, 27-30 절; 마 24:36-39). 오직 여덟 명만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심판에 대해 준비하였다(참조, 창 7:7,13).

17:28-29 “룻” 룻의 소돔에서의 삶은 창 12:5,13-14,19 에서 설명하고 있다.

17: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문맥은 재림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확인하여 말씀한다:

1. 이 일은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일어난다(참조, 23,24 절)
2. 일상적 사회 생활이 있을 것이다(참조, 27 절)
3.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다

4. 이 일은 기대하지 못한 때에 일어난다  
이같은 계시가 마 16:27; 24:29-44; 고전 1:7; 살전 4:12-18; 살후 1:7; 벨전 1:7; 계 11:15-19; 19:1-21 에 기록되어 있다.

**17:31-32** 이 문맥에는 신자들이 하여금 세상물건의 소유에 지나친 연루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세 가지 예가 나온다. 이 예들은 다른 문맥에서는 다른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같은 가르침을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셨음을 나로하여금 믿게 한다. 언급된 세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붕 위에 있는 사람(참조, 마 24:17)
2. 밭에 있는 사람
3. 뒤로 돌이켜 간 부정적인 예, 롯의 아내(참조, 창 19:26)

마 24 장은 재림 때에 일어날 문제들과 로마의 장군(후에는 황제가 됨)인 티투스에 의해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31-32 절(참조, 마 24:17-18)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어떤 이는 예수님의 경고를 따라 도망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맥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주후 70 년에 일어난 사건 혹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이것은 준비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운명을 나타내는 문맥이다!

**17:33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보전하다”라는 용어는 **중간대**에서 획득하다, 얻다, 벌다를 뜻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은 자신을 버리라는 부르심이었다(참조, 갈 2:20; 요일 3:16). 이것은 자아를 부인함을 뜻하는 근본적 결단을 말한다(참조, 9:24; 마 10:30; 16:25; 막 8:35; 요 12:25).

“목숨”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프쉬케*로서 이 단어는 종종 “혼”으로 번역되었으나 사실은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12:19 의 설명을 보라.

같은 내용의 가르침이 눅 9:24; 마 10:34-39; 16:25; 막 8:35; 요 12:25 에 나온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 한 분에만 최상의 헌신을 해야함을 다루는 내용이다.

**17:34 “그 밤에”** 이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밤을 가리킨다(참조, 30 절).

▣ **“들이 한 자리에”** 이 표현은 남자와 그의 아내를 일컫는 헬라어 관용법이다.

**17:34-35** 이 두 가지 예는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들림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인용구절로 종종 사용되었다(세대주의자들과 전천년설 주의자들에 의해).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재림의 때에 천사에 의해 버림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 사이에 있을 분리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씀이다(참조, 마 24:31; 막 13:27). 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믿지 않으며 또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있을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이다(“노아의 날과 같이,” 참조, 마 24:40-41). 나는 비밀스러운 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살전 4:13-18 에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이다.

**17:36** 36 절의 내용은 이른 시기의 헬라어 사본인 P<sup>75</sup>, **8**, A, B, L, W 에는 없다. 이 내용은 마 24:40 에서 온 것으로서 후기의 서기관들이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가져와 추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UBS<sup>4</sup> 위원회는 이것이 생략된 것에 “확실함”이라는 평가를 부여한다.

**17:37** 이 진술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아마도 다음의 내용을 뜻할 것이다

1.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을 가짐, 31-32 절도 마찬가지임
2. 이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한 잠언이었다(참조, 마 24:48)
3.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이음을 뜻함

“독수리”(아에토스)라는 용어는 마 24:28 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구약적 배경에서는 전쟁과 살륙이 맹금류(독수리)로 하여금 모여 들게 한다(참조, 욥 39:26-30; 겔 39:17; 함 1:8).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장면을 나타낸다.

만일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마 24 장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참조, 31-35 절), “독수리”는 군기 위에 독수리 모양을 얹어 놓은 로마의 군대를 의미하는 표현일 것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은 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인가?
2.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3. 재림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하는가 아니면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하는가? 볼 수 있게 임하는가 아니면 비밀스럽게 임하는가?
4. 신약은 “들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 개념을 당신 자신의 말로 정의하라.

# 누가복음 1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끈질긴 과부의 비유	부정직한 재판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부도덕한 재판관과 간청하는 과부
18:1-8	18:1-8	18:1-8	18:1-5 18:6-8	18:1-5 18:6-8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18:9-14	18:9-14	18:9-14	18:9-14	18:9-14
축복받은 어린 아이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18:15-19:27)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심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다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
18:15-17	18:15-17	18:15-17	18:15-17	18:15-17
부자 관리	예수께서 젊은 부자 관리에게 충고하시다	부자 관리	부자인 남자	부자 관료
18:18-23	18:18-23	18:18-23	18:18 18:19-20 18:21	18:18-23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18:22-23	부자됨의 위험
18:24-30	18:24-30	18:26 18:28-30	18:24-25 18:26 18:27 18:28 18:29-30	18:24-27 가진 것을 버림의 상급 18:28-30
예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움과 부활을 예고하시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움과 부활을 예고하시다	다시 예고하신 고난	예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다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언
18:31-34	18:31-34	18:31-34	18:31-33 18:34	18:31-34
여리고 근처에서 소경인 거지를 고치심	소경이 시력을 회복하다	고침을 받은 소경	예수께서 소경인 거지를 고치시다	여리고에 들어가심: 소경
18:35-43	18:35-43	18:35-43	18:35-43 18:37 18:38 18:39 18:40-41a 18:41b 18:43	18:35-4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공관복음(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비유로서 나타난다.

나. 비유(구약의 *마살*, BDB 605 II)는 여러 형태를 가진다.

1. 잠언(눅 4:23)
2. 이야기(눅 15 장과 16 장)
3. 우화(눅 8:4-15)
4. 직유(눅 13:19,21; 17:6)
5. 대조(눅 11:5-13; 18:1-8)

다. 비유의 해석을 위한 지침에 대하여는 8 장의 서론을 보라.

라. 이 장은 구원을 받는 믿음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한다.

1. 첫 번째 비유(18:1-8)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믿음(지속적이며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를 묻는다.
2. 두 번째 비유(18:9-14)는 잘못된 종류의 믿음(자기의 의를 내세움) 대 회개하는 믿음(죄인, 세리)을 제시함.
3. 비유적 예(18:15-17)에서 예수님을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함.
4. 비유적 예(18:18-30)에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다름(젊고 부유하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관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5. 예수께서 희생제물로서 죽으심(18:31-34)은 믿음으로 누리는 영생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6. 소경이 시력을 회복한(육체의 시력과 영적 시력) 일은 선지자적 예이며, “고난받는” 메시아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음으로써 이를 누리게 되었다(참조, 42 절)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8:1-8

<sup>1</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sup>2</sup>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sup>3</sup>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sup>4</sup>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sup>5</sup>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sup>6</sup>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sup>7</sup>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sup>8</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8:1 “예수께서 그들에게 . . . 비유로 말씀하여” 이것은 눅 11:5-13 과 비슷하게 상반되거나 대조를 이루는 내용의 비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 성품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들”이라는 **대명사**는 제자들을 가리킨다(참조, 16:1; 17:5,22,37; 17:37).

▣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헬라이어 용어를 주목하라.

1. *테이*, 이것은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낸다.
2. *파스*, 여기서는 **부사적** 형태로서(*판토텔*) “항상”을 뜻한다.

이 구는 계속하여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을 지시한다(참조, 엡 6:18). 바울서신에 나오는 여러 평행 본문에서는 불굴의 기도를 감사드림과 연관시킨다(참조, 빌 4:6; 골 1:3; 4:2; 살전 5:17-18).

기도는 세계관에 대한 것이고, 감사드림은 자세에 대한 것이다. 이 둘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하여 신자가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한다.

▣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악카케오*라는 헬라이어로서(참조, 고후 4:1,16; 갈 6:9; 엡 3:13; 살후 3:13) 아마도 *악카케오*와 같은 용어일 것이다. 후자는 문자적으로 “악한 것에 굴복하다”를 뜻하지만 은유적으로는 약하여 지다, 물러나다, 게을러지다를 의미한다.

18:2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는 하나님의 견해나 인간의 견해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재판은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나 자신이 누구를 좋아하는가에 기초하였다.

18:3 “**한 과부**” 누가는 또 다시 예수께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셨고 돌보셨음을 말한다. 과부는 종종 유대 사회에서 배려할 대상으로 여겨졌다(참조, 출 22:21-24; 신 10:18; 24:17).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여인들을 상대해 주시고 또 그들을 돌아보셨음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이것은 나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소서 혹은 나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소서라는 뜻이다(참조, 7 절과 8 절).

18: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재판관이 과부를 위해 어떤 행동 취하기를 계속하여 거절하였음을 나타낸다.

▣ “**무시하나**”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참조, 로버트 난나, *헬라이어 신약에 대한 문법적 도움*, 제 1 권 123 쪽), 2 절에 있는 진실의 실재성을 입증한다.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은 15:17 과 비슷하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결정의 결과를 깨닫기 시작했다.

18:5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눈을 검게 하다”(참조, 고전 9:27).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물을 뜻한다.

18:7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이중 부정**으로서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이 아니다”를 뜻하는 강한 표현이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불의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이에게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재판관과는 정반대이다.
2.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짐은 혜택을 두루 주시기 위함이다(즉, 택함을 받은 자의 충만한 수, 참조, 롬 11:25; 요 10:16).

▣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이 구는 택함을 받은 자가 끈기있게 기도함을 나타낸다(참조, 11:9-13; 마 7:7-12). 인내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지 않으심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내는 신뢰와 확신을 표시한다.

▣ “**택하신 자들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구약적 표현이다(참조, 사 42-43 장; 44:28-45:7).

####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 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13) 사이의 긴장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긴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는 었 1:4 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 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교리적 진리들의 변증법적(역설적) 쌍이 형성하는 긴장을 제거해서는 결코 안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5.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6.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7.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8.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
9.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10.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
11.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12.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으로서)을 인간에게 요청되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 및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과 하나로 묶는다. 역설적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느라 다른 한 쪽을 약화시키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의 내용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것은 지속적인 행위(즉, 항상)를 뜻하는 표현이다. “낮과 밤”이라는 순서는 이방인이 사용하는 관용적 용법이지만 2:37 에 있는 “밤과 낮”은 히브리적 관용법이다. 누가는 연구하는 자였다. 그는 자신의 자료에 나타난 관용법을 사용하는 한편 편집자요 편찬자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한 요소를 이루게 하였다(참조, 행 9:24; 20:31; 26:7).

▣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은 7 절에 있는 두 수사적 질문의 두 번째 질문으로서 하나님과 악한 재판관의 태도를 대조시킨다. 첫 질문은 “그렇다”라는 답을 예상하지만 이 두 번째 질문은 “아니다”라는 답을 기대한다. “오래 참다”(마크로쿠메오, 진노를 멀리 두다)라는 헬라어는 모호한 표현으로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1. 택함을 받은 불굴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도움
2. 악한 자들이 회개하도록 시간을 더 줌(참조, 롬 2:4; 벴후 3:9)
3. NASB(1970)역은 난외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위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는 번역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심을 나타낸다

18:8 이것은 이 비유의 충격적인 결론이다. 이 말씀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하시는 기적이 될 것이다(참조, 계 6:9-11).

그렇다면 *엔 타케*이라는 **전치사** 구는 무엇을 뜻하는가: (1) 갑자기 혹은 (2) 신속히? 이것은 대조를 이루는 비유인가 아니면 지연된 심판에 있어서 달라진 동기를 다루는 비유인가?

많은 주석가들은 누가복음이 지연된 재림을 제시하며, 이방인 독자들을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준비시키려 한다고 말한다(예, 12:35-48; 17:22-30).

▣ “인자가 올 때에” 이것은 메시아께서 마지막 때에 재판장으로서 오심을 강조한다. “인자”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겔 2:1 및 단 7:13 에서 취한 단어로서 인성과 신성을 결합시켜 제시한다. 17: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몸을 입고 오심을 강조한다. 한편 성경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및 그가 오심을 순간 순간 준비하며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한다. 이 구는 이 두 가지의 조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믿음”에 **정관사**가 있다. 이것은 다음을 뜻한다

1.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신뢰(참조, 7 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일이다.

2. M. R. 빈센트는 *단어 연구*(204 쪽)에서 *카이*를 “아직”으로 이해한다(참조, 요 9:30; 16:32). 이 경우는 악한 재판관과의 직접적 대조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심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믿음이 자람).
3. 케넷 E. 베일리(*농부의 눈으로*, 127-141 쪽)는 이것이 31-34 절에서 언급하는 바 곧 임할 고난 주간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제자들이 인내하여 기도하며 믿음이 급격히 자랄 필요를 곧 바로 갖게 될 것이다.
4.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 혹은 기독교 신앙을 나타낸다.

강조점이 신자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에 있다. 그들이 반복하여 자신의 일을 위해 간구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여야 할 것인가? 만일 신자가 개인적 일을 위해 기도한다면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들은 불의한 재판관과 매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된다.

**개역개정 18:9-14**

<sup>9</sup>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sup>10</sup>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sup>11</sup>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sup>12</sup>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sup>13</sup>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sup>14</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8:9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은 인내하며 기도할 것에 대한 두 번째 비유이다.

▣ “~자들에게” 15-17 장에 나오는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자들”(즉, 무리, 15:3; 19:11 의 내용도 보라)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임을 문맥을 통하여 알 수 있다(참조, 16:14-15). 비유를 항상 대중 앞에서 말씀하셨다. 비유는 듣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

▣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믿고”는 “설득하다” “신뢰하다” “확신을 갖다”로 신약에서 번역된 *페이소*라는 단어의 **완료 능동 분사**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조상, 자신의 태도, 자신의 행동에 근거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또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1) 기도(참조, 마 6:4-5) (2) 구제(참조, 마 6:2-4) (3) 금식(참조, 마 6:16-18)이 개인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행위로 여겼다(참조, 마 6:1).

앞에 나오는 비유는 하나님을 믿거나 존경하지 않는 재판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비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선함과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빛을 지고 계시다라고 느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구제, 금식, 기도 및 구제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규정들 준수함)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김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죄일 것이다(참조, 10:29; 16:15; 18:9,14).

18:9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엑수세네오라는 헬라어는 누가(참조, 18:9; 23:11; 행 4:11[70 인역])와 바울만 사용한 용어이다(참조, 롬 14:3,10; 고전 1:28; 6:4; 16:11; 고후 10:10; 갈 4:14; 살전 5:20). 이렇듯 판단하는 자세는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문제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그 반대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종종 고난을 받으신다!

NASB에서는 “다른 사람”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그 나머지”로 제시한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판단하는 자세를 묘사한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오직 그들만(분파) 의롭다! 이 독특한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모든 예배자들로부터 떨어져 서 있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을 다른 바리새인 보다 더 의로운 자로 여겼을 것이다.

18:10 “기도하러 성전에” 제 1 세기의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9 시와 오후 3 시는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향상 드림) 시간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낮 12 시를 매일 드리는 기도시간으로 추가시켰다. 이 비유에 나오는 시간은 오전 9 시나 오후 3 시일 것이다.

▣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을 돌이켜 보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다(참조, 12 절).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놀라움”을 일으키는 내용, 예상치 못했던 반전, 역할이 뒤바뀔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자리를 잡고 기도하였다”라는 아람어적 관용어임이 매우 확실하다(참조, C. C. 토레이, 번역된 *우리의 복음서들*, 79 쪽 및 M. 블랙, *아람어적 접근*, 제 3 판 103 쪽, 이는 브루스 M. 메즈거의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 168 쪽 각주 1 항에서 인용한 내용임).

따라서 해석가가 해야 할 질문은 “이 구가 (1) 그의 생각을 나타내는가(NASB, TEV) 아니면 (2) 세리와 구별을 짓는 표현인가(NRSV)이다.

□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행함을 신뢰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워 구원을 얻으려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냇마조각으로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사 64:6). 이 비유와 이 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뉘우치는 마음(회개)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가 성취하신 사역을 믿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에 대해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죽으심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다!

18: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옴을 기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했다(5:33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은 구약에서 요구하는 바 일 년에 한번(참조, 레 16 장)있는 속죄일에 대한 규정 이상으로 금식을 행했다(참조, 슄 8 장). 신구약 중간기에 랍비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네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당한 것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날을 추가하여 매년 지켰다(참조, 렘 52 장, 애 1-5 장).

□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그가 드리는 십일조가 부적합한 것임을 뜻하지 않는다. 이 일이 헌신의 행위라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바꾼 것은 바로 십일조(“모든 것의”)를 드리는 자세를 인함이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의지했다. 그는 율법의 요구 이상을 행했지만(참조, 신 14:22) 하나님을 놓쳤다! 이것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의 비극적 모습이다!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반면 “사랑”은 거의 하지 않는다(참조, 신 6:5; 레 19:18).

그리스도인에 대한 십일조 생활에 관하여 한 두 가지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놀랍게도 신약은 정규적인 헌금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주지 않고 있다. 신약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를 위해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에 한 번 드린 사랑의 헌금의 적절한 동기에 대해 다룬 뿐이다(참조, 고후 8-9 장). 십일조는 성전과 지역의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대인의 행습이었다. 한편 행 15 장은 이방인 신자들이 ‘성전 및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이 십일조를 드리는 일’에 묶이거나 이를 따를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내가 들은 바 십일조에 대한 많은 설교는 구약의 본문(특히 말라기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무서워하게 만들거나 축복하심의 약속(탐욕)을 강조함으로써 십일조를 강요하는 내용이었다. 프랭크 스택의 *신약신학*(290-293 쪽)에 십일조에 대한 좋은 글이 나온다. 신자의 삶 전체가 받은 바 거저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인해 감사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 11:42의 특별주제: 십일조를 보라.

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 세가지 구가 하나님께 대해 가진 거리낌을 나타냄을 주목하라.

1. 멀리 서서(완료 능동 분사)
2.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이중 부정과 함께 쓰인 미완료 능동 직설법)
3. 가슴을 치며(미완료 능동 직설법)

3항의 구는 자신의 가슴(사람의 중심, 참조, 요세푸스, *고대사* 7.10.5)을 치며 회개함이나 불안해 함의 표일 것이다(참조, 48 절).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행동과 반대의 행동이다(특별히 “서서”라는 표현을 주목하여 보라: 바리새인은 예베드리는 무리에게서 떨어져 서 있었는데 아마도 제단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세리는 무리와 제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양손을 높이 들고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다보는 자세를 취하였다. 기도의 핵심은 몸의 자세나 위치가 아니라 마음 자세에 있다!

□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명령이다. “불쌍히”( *힐라스코마이*, 이것은 누가의 저작에서는 여기서만 사용되었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참조, 히 9:5)에서 “은혜의 보좌” 혹은 “속죄의 장소”(70 인역, *힐라스테이온*)로 불리는 용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는 단어에서 왔다. 70 인역에서 이 헬라어 동사는 *살라흐*(BDB 699)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다. 후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심을 나타내는 독특한 용법을 가진다(참조, 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135 쪽). 케넷 E. 베일리(*농부의 눈으로* 154 쪽)는 시리아어에서는 이 단어가 “나를 위해 속죄를 행하다”라고 설명한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희생제물(하루에 두 번)로 드리는 공공적 예배에 그들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 죄인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부터 “그 피가 저를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외친다.

□ “죄인” 이 비유는 두 유대인에 대해 설명한다: 한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인해 하나님과 자신이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아는 세리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의 두목”이라고 느꼈다(정관사 용법). 후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후에 돌아 갔지만 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돌아감은 역설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참조, 롬 10:2-4). 문화적으로 볼 때 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뒤바뀐 역할인가!

18:14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절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신자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과 같다(참조, 갈 3; 롬 3:21-31; 4:5). 바리새인은 도덕적 사람이었으나 그는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자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휼하심과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이사야가 사 6:9-10 및 29:13 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종교적 유대인이다.

“의롭게 됨”에 대하여는 1:6 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것은 사 57:15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참조, 사 66:2; 시 34:18; 51:17). 이 내용은 눅 14:11(참조, 마 23:12)에서 처음 소개된 내용이다. 신 27-29 장에 있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뒤바뀐 모습인가! 새 언약에서 인간의 행함은 가치가 적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다”( *ἕλοσσο* )라는 단어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16:15 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이 단어는 겸손함과 관련되어 1:52; 14:11 에서 사용되었다(참조, 마 23:12). 이 단어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짐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개역개정 18:15-17**

<sup>15</sup>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sup>16</sup>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sup>17</sup>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15 이하 이것은 9:51-18:14 로 이루어진 긴 문학적 단위에 속하는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것과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없다. 15 절에서 누가는 마가의 연대기를 다시 취하고 있다.

▣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랍비들이 기도함으로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한 부분을 이룸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문맥은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랍비의 축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다.

이 문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

1. 예수께서는 어린 아기들을 참으로 돌보셨다
2.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본문일 뿐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다루는 주요한 본문이다(참조, 마 18:8)
3. 예수께서는 어린이, 여인들, 과부들, 악명높은 죄인들과 같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항상 나타내셨다

이 본문은 새 신자들을 예수를 믿는 어린 아이들로 보는 마 18 장의 본문과 비슷하다(참조, 마 18:6).

▣ “어린 아기” *βρέφος*라는 헬라어는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태어나지 않은 아기(참조, 눅 1:41,44)
2. 갓 태어난 아기(참조, 눅 2:12,16; 행 7:19)
3. 나이 든 어린이(참조, 눅 18:15; 딤후 3:15)

마태복음(참조, 19:13-15)과 마가복음(참조, 10:13-16)은 “어린이”( *παιδία* )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면에서 평행을 이룬다. 이 단어는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되었다(참조, 해롤드 K. 물론, *개정된 헬라어 분석 사전* 298 쪽).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유추의 전체적 목적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을만큼 나이가 들어야 함을 뜻한다(즉, 어린 아이같은 믿음).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서 남자 아이의 경우 13 세(*바르 미즈바*)이며 여자 아이의 경우 12 세(*발 미즈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8:16 이 절에는 두 개의 명령이 있다.

1. “용납하라” - 부정과거 능동(참조, 마 5:40)
2. “금하지 말라” -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에게 속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린이처럼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함을 뜻한다(참조, 마 19:13-15 및 막 10:13-31).

18:17 “진실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멘”이다. 4:2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 여럿 있다.

1. “누구든지” - 복음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2. “받아들이다” - 이것은 요 1:12 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 두 절의 어휘는 서로 다르지만 그 신학적 개념은 동일하다.
3. “하나님의 나라” -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 1:12 에서 “그를 영접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온전히 또 전적으로 그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신뢰하고/신앙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다. 어린이가 단순하게 한계없이 신뢰하는 모습은 참된 믿음을 특징짓는다.

4.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 참조, 13:24; 18:24,25; 마 18:3; 막 10:15; 행 14:22.

▣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중 부정으로서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이 아니다”를 뜻하는 강한 표현이다. 어린 아이처럼 단순히 신뢰함이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사람의 덕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의 공급하심에 의지함이 신자에게 필요하다 (참조, 롬 3:21-31). 이 일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율법주의적 삶을 사는 모든 세대와 문화권의 종교적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개역개정 18:18-27

<sup>18</sup>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sup>19</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sup>20</sup>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sup>21</sup>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sup>22</sup>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sup>23</sup>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sup>24</sup>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sup>25</sup>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sup>26</sup>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가 <sup>27</sup>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8:18 “어떤 관리” 이 호칭(알콘)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요 3:1 에서는 산헤드린의 구성원인 니고데모에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23:13,35; 24:20). 이것은 지역 회당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 있다(참조, 8:41; 14:1). 이것은 존경을 깊이 받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아마도 재판관을 뜻한다(참조, 12:58).

▣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10:25 에서 서기관이 개인의 행위에 관하여 질문한 내용과 완전히 같다. 이것은 17 절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된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평행을 이룬다. 30 절에서 영생에 대한 설명을 보라.

18:19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다루는 신학적 본문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신 것으로 주장하려 든다. 그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진술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노력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이해한 점을 드러낸다. 이 본문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마 19:16 의 본문과 비슷하다.

18:20 십계명은 출 20 장과 신명기 5 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계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1)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및 관계 (2) 인간이 언약적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관점 및 관계. 이 목록은 언약적 관계에 있는 백성과의 적절한 관계성에 대한 말씀으로서 출 20 장과 신 5 장에 있는 맞소리 본문에 있는 순서를 따르지 않고 제시한다.

18: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13 세인 바르 미즈바 이후로 당시의 종교적 규정과 전통이 말하는 모든 규정을 지키며 살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바울은 이같은 진리를 빌 3:6 에서 주장한다.

우리는 롬 1:18 에서부터 3:23 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진리를 인간의 마음 속에 드러내실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첫 번째 진리이다. 아무도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기 전에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잔인하면서도 속이는 감독자이다. 복음은 창 3 장에 있는 나쁜 소식과 인간의 반역을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복된 소식”이 된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참조, 엡 2:8-9).

18:22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우선순위의 구조를 알고 계셨다. 이와 평행을 이루는 마 10:21 및 누가복음의 고대 대문자체 일부 사본(A, W)에서는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한 크신 사랑과 배려로써 말씀하시지만 그가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복음의 수준을 낮추려 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낸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획일적 요구사항이 아니다(참조, 삭개오, 눅 19 장). 하지만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28 절; 12:33-34).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음을 아셨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참조, 마 6:24).

예수께서 이 사람을 열둘처럼 제자로 부르시고 계셨음이 가능한 일이다(참조, 마 19:21; 막 10:21). 이 사람은 유능한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부에 이끌려(참조, 8:14) 그 가능성을 망가뜨렸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명령 (“와서 나를 따르라”)의 말씀으로써 여러 사람을 부르셨다:

1. 레위(마태), 막 2:14; 눅 5:27; 마 9:9
2. 베드로와 안드레, 마 4:19
3. 빌립, 요 1:43

한편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제자도로 부르시는 말씀으로서 단지 열 두 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다(참조, 마 8:22; 16:24; 막 8:34; 눅 9:23,59; 요 10:27; 12:26; 21:22). 복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그 분(예수님)을 환영함
2. 그 분에 대한 믿음의 신뢰(복음서, 신약)
3. 그 분과 같은 삶을 사는 것(그리스도를 닮는 삶)

▣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다. 그는 항상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가난한 자와 결부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우선순위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참조, 마 6:24). 당시의 유대인들은 재물을 의로운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이해했다(참조, 신 27-29 장). 바울은 고전 13:3 에서 바로 이것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다.

▣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 6:19-21 의 본문을 상기시킨다. 사람이 “보화”로 여기는 것은 그가 가진 보화의 세계를 드러낸다.

▣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는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부사이다(참조, 마 19:21; 막 10:21). “나를 따르라”는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계속해서 따름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어떻게 핵심을 “선을 행함”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전환시키셨는지를 주목하라.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서 영생의 열쇠가 되신다.

신약의 강조점은 최초의 결심이 아니라(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다) 계속해서 믿고 제자가 되는 삶이다. 신약은 교리적인 내용과 삶의 양식보다도 관계를 더 중시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신약에서 삼중적인 확신을 이룬다(참조, 막 2:14; 8:34; 10:21; 마 4:19; 8:22; 9:9; 16:24; 19:21; 눅 5:17; 9:23,59; 18:22; 요 1:43; 10:27; 12:26; 21:22).

18:24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6 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재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증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게 된다. 18 절에서 단수형 동사와 대명사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것이 복수형(일반적 진리)으로 바뀌어 있음을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여기서 세상의 물건과 소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유를 신뢰하는 경향을 가졌음을 말씀한다(참조, 마 19:23-30; 막 10:23-31). 예수께서는 이 관원의 경우를 예로써 사용해서 재물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18: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보다 쉬우니라” 이 진술의 설명에 있어서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바늘 귀”는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작은 문을 뜻하며 사람들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2. “낙타”(카멜론)은 원래 “밭줄”(카밀론)을 잘못 번역한 용어이다
3. 이것은 요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동양적 과장법이다(참조, 6:41)
4. 이것은 불가능을 나타내는 일반적 잠언이다

나는 3 항이나 4 항이 맞다고 생각한다. 1 항의 설명은 역사적 신빙성이 없으며(피와 스투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5 쪽) 2 항의 설명은 후기에 속하는 한 대문자체 헬라이어 사본(S)과 약간의 소문자체 사본에서만 발견된다(즉, #13, 59, 124,130, 437, 472, 543). UBS<sup>4</sup>는 “낙타”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마태와 마가는 이 가르침을 기록함에 있어서 라프로(레메다)라는 단어에서 온 라피스(바늘)라는 헬라이어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사인 누가는 벨로넬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상처를 꿰뚫 때 사용하는 바늘을 말한다(의학적 용어).

18:26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하” 바로 이것이 핵심적 사항이다! 이것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받아주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이해한 전통적 유대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었다(참조, 신 27-29 장). 이 비유는 욥기와 시 73 편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가정(전제)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다. 한편, 이 문맥에서 볼 때 예수께 순종하고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의 열쇠이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거나 또는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를 갖는 일이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18:27 이것은 야웨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구약의 암시일 것이다(참조, 창 18:14; 욥 42:4; 렘 32:17,27; 슥 8:6; 마 19:26; 막 10:27; 눅 1:37).

하나님께서서는 부유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아브라함(또한 모든 족장들), 다윗(또한 경건했던 유대인의 모든 왕들), 니고데모,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성경의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었다. 재산과 하나님 가운데 어디에 믿음과 신뢰를 두는가가 핵심이다. 12:21 의 특별주제: 재물을 보라.

개역개정 18:28-30

<sup>28</sup>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sup>29</sup>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sup>30</sup>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8:28 예수께서 이 도덕적이고 신실하며 변영하는 유대 지도자에게 하시는 답변을 인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놀랐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음을 재강조하기 원했다(참조, 5:11).

18:29 “진실로” 4:24 의 특별주제: 아멘을 보라.

18:30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 19:29 와 막 10:29-30 을 보라. 거기서는 버릴 목록이 다르게 나타난다.

▣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성령께서 주신다. 평화와 기쁨을 지금과 미래에 누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누는 사귄이 있을 것이다.

▣ “없느니라” 이것은 강한 이중 부정으로서 그들이 미래의 상급을 분명히 받게 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사람이 버린 가족이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으로 배가될 것이다.

▣ “내세” 9: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영생” 이것은 요한 복음을 특징짓는 주제이지만(참조, 3:15; 4:36; 5:39; 6:54,68; 10:28; 12:25; 17:2-3) 공관복음에서도 몇 번 언급되었다(참조, 마 19:16; 25:46; 마 10:17,30; 눅 10:25; 18:11). 이것은 단 12:12 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영원히 있는[올람; BDB 761] 삶”).

헬라이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세 개 있다(비오스와 프쉬케—지상에서의 생명; 조에- 영적인 생명). 이것은 시간적 길이를 갖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생명으로서 원래 의도되었던 생명을 뜻한다!

개역개정 18:31-34

<sup>31</sup>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sup>32</sup>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sup>33</sup>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sup>34</sup>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18: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또 하나의 예고이다(참조, 9:22,44; 17:25).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에 대한 암시가 5:35; 12:50; 13:32-33 에 나온다.

▣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것은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심, 배반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가리킨다(참조, 창 3:15; 시 22 편; 41:9; 118 편; 사 53 장; 눅 9:8; 11:12-13). “인자”에 대하여는 17: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18:32 이 예언은 22:63,65; 23:11 에서 성취되었다.

18:33 “삼 일 만에”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부분일지라도 그것을 만 하루로 계산했다.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 6 시 이전에 죽으셨기에 그날도 하루로 계산하였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출근 무덤에 계셨다; 이 날은 둘 째 날이었다. 예수께서 일요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살아 나셨다(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 6 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음을 기억하라); 그 날은 제 삼일 이었다.

18:34 평행을 이루는 세 구를 주목하라.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의미를 잘 몰랐다는 점이 나에게 매우 위안이 된다(참조, 2:50; 9:45; 18:34).

▣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이것은 우회적 완료 수동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많은 내용은 부활(참조, 요 12:16) 이전과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기(참조, 요 14:26; 15:26; 16:13-15) 이전에는 사도들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들이 아직까지 복음 메시지의 완전성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그들이 배우고 예상하는 바와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개역개정 18:35-43**

<sup>35</sup>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 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sup>36</sup>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나고 물은대 <sup>37</sup>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sup>38</sup>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sup>39</sup>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sup>40</sup>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sup>41</sup>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sup>42</sup>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시매 <sup>43</sup>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18:35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공관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난다: (1)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으로 말한다(참조, 20:30) (2)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로 말한다(참조, 10:46).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눅 18:35)과 떠나는 것(마 20:29; 막 10:46)에서 보듯이 위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모순은 여리고가 두 도시였음에 기인한다. 곧 옛 도시와 헤롯대왕이 건축한 새 도시가 있었다.

▣ **“한 맹인”** 복음서에서는 고침을 받은 여러 맹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맹인을 메시아께서 고쳐주시는 일은 구약의 예언으로 나와 있다(참조, 사 29:18; 35:5; 42:7,15). 신체적으로 눈이 먼 일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었다(참조, 사 42:18-19; 59:9-10; 요 9 장).

**18:37 “나사렛 예수께서”** 4:34 의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를 보라. 5 세기의 헬라이어 대문자체 사본인 베자(D)에는 나자렌으로 되어 있다(참조, 4:34; 24:19).

**18:38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삼하 7 장과 관련을 가지는 분명한 메시아적 언급이다(참조, 1:27,32; 2:4; 마 9:27; 12:23; 15:22; 20:30,31; 21:9,15; 22:42).

**18:39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것은 1-8 절에서 언급한 바 불굴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이다.

**18:41 “주여”** 문맥을 통해 이것이 하나의 예의를 나타내는 호칭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소경은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불렀다. 그는 예수께 대하여 들었고 또 자기가 들은 내용에 의지하여 행했다.

**18:42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에 두 개의 중요한 복음적 용어가 담겨 있다:

1. 믿음(*πίστις*) -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을 도우실 수 있으며 또 돕기를 원하신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갖고 행동했다.
2. 구원하다(*σώζω*) - 이 단어는 보통 “구원하다”로 번역된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여기서와 같이 신체적으로 구출됨을 뜻한다.

이 사건은 예수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인 것과 이 거지 소경이 가진 믿음을 드러낸다. 이 맹인은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믿음을 인해 모든 것(신체적 및 영적)을 받았다. 한편 부자였고 젊은 관원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을 놓치고 말았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2-8 절에 있는 비유에 나타난 주된 신학적 가르침은 무엇인가?
2. 바리새인과 죄인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3. 신약이 어린 아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4. 18-30 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타난 주된 진리는 무엇인가?
5. 19 절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입증하는 신약의 한 가지 증거가 되는가?
6.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 누가복음 1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님과 삭개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다	삭개오	예수님과 삭개오	삭개오
19:1-10	19:1-10	19:1-10	19:1-5 19:6-7 19:8 19:9-10	19:1-10
열 파운드의 비유	므나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	금 동전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
19:11-27	19:11-27	19:11-27	19:11-14 19:15-27	19:11-14 19:15-26 19:27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	승리의 입성	종려주일 (19:28-23:56)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19:28-36	19:28-40	19:28 19:29-40	19:28-31 19:32-33 19:34-36	19:28-34 19:35-38
19:37-40			19:37-38 19:39 19:40	예수께서 자신을 환호한 제자들을 옹호하시다 19:39-40
19:41-44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다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
19:41-44	19:41-44	19:41-44	19:41-44	19:41-44
성전을 청결케 하심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다	성전을 청결케 하심	예수께서 성전에 가시다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심
19:45-46	19:45-46	19:45-46	19:45-46	19:45-46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19:47-48	19:47-48	19:47-48	19:47-48	19:47-4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9:1-10

<sup>1</sup>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sup>2</sup>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sup>3</sup>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냐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sup>4</sup>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sup>5</sup>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sup>6</sup>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sup>7</sup> 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sup>8</sup>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sup>9</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sup>10</sup>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9:1 “여리고” 여리고는 세계에서 매우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30km 떨어진 곳으로서 요단 강 서안에 위치하며 사해의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이곳은 발삼나무와 대추나무로 유명했다(참조, 요세푸스, 고대사 15.4.2). 이 도시는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했던 도시였다. 이 도시가 구 성읍과 새 성읍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공판복음에서 “들어가심”(눅 18:35; 19:1)과 “나가심”(마 20:29; 막 10:46)으로 인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 “지나가시더라” 누가는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디아*와 *에르코마이*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이 단어는 **미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으로서 어떤 행동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이 **시제**는 과거에 반복된 행동을 강조하여 나타내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맞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나 헬라어 문법이 아니라 문맥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단어와 그 형태는 특정한 문학적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 누가가 어떻게 이 용어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다.

1. “가까이 가다,” 2:15(참조, 행 9:38)
2. “뚝고 가다,” 3:35
3. “지나가다,” 4:30
4. “소문을 널리 퍼트리다,” 5:15
5. “넘어가다,” 8:22
6. “다음으로 나아가다,” 9:4
7. “어떤 지역을 두루 여행하다,” 9:6

19:2 “삭개오” 이것은 “순수한” 혹은 “무흠한”이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 단어이다(참조, BDB 269). 그가 예수를 이번에 만난 일은 그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성취하게 된다.

▣ “세리장이요” *알키테로네스*라는 용어는 아주 드물게 사용된 단어로서 70 인역, 코이네 과피루스, 헬라 문학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용어는 그가 여리고 지역을 총괄하는 관세국장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지위를 로마의 권력가들에게 돈을 주고 샀을 것이다.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소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종종(항상은 아닐지라도)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다.

▣ **“또한 부자라”** 그가 비록 부를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18:24-27 에 나오는 진리의 완벽한 예로 보인다. 삭개오는 18 장에 나오는 젊고 부유한 관원의 경우를 드러나게 하는 문학적 역할을 한다. 12:21 의 특별주제: 부를 보라.

19: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의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계속적 행위를 뜻한다. 이 사람을 이끄심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셨다.

▣ **“키가 작고”** 이 용어는 보통 “나이”를 뜻하지만(참조, 2:52; 요 9:21,23; 히 11:11), 신약에서는 “키”도 뜻할 수 있다(참조, 12:25; 아마도 2:52; 엡 4:13; 마 6:27). 문맥에서 이 구가 삭개오나 예수님의 키나 신장을 뜻할 수 있지만 삭개오의 키를 가리킴이 보다 확실하다.

19: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 일은 동양의 갑부가 행하기에는 아주 특이한 일이었다. 그의 교만이 사라졌다. 그는 예수께서 세리들을 받아주셨고 또 그들과 사귀을 가지신 일에 대해 들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도 세리가 있었다(즉, 레위, 마태).

▣ **“들무화과나무”** 이것은 미국에 있는 플라타너스와 다르다. 이 나무는 뽕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포함하는 뽕나무 속에 속한다. *쉬카모레*이라는 헬라어는 “무화과”(쉬콘)와 “뽕나무”(모론)로 된 말이다. 이것은 가지를 낮게 드리운 큰 나무로서 올라가기가 쉬웠다(참조, 세계성서공회, *성경의 동식물* 179-182 쪽).

19: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명령의 의미로 사용됨)**가 **부정과거 능동 명령**과 함께 사용되어 “속히 내려오라”를 뜻한다. 나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셨는지 궁금하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요 1:47-48 과 더불어 예수님의 초자연적으로 아심에 대해 말하는 본문으로 설명한다.

▣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신적 약속을 주셨다( *타이* 용법). 나는 예수께서 소외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랑해 주셨음을 인해 상당히 기쁘다!

19:6 삭개오는 놀랐고 황홀했다! NET 성경(1864 쪽 각주 29)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기쁨으로 응답함”이 누가 복음의 특징을 이룬다고 말한다(참조, 1:14; 2:10; 10:20; 13:17; 15:5,32; 19:37; 24:41,52).

19:7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 이것은 또 다른 **미완료 시제**이다. “수군거리다”의 어근은 벌이 뿔뿔거림에서 왔다(참조, 5:30).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이스라엘이 두덜두덜거림(수군거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였다(참조, 출 15:24; 16:2,7,8; 민 14:2).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두 곳에서만 사용되었는데 둘 다 누가복음에 나온다(참조, 15:2; 19:7).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구전 전통을 지킬 수도 지키려는 마음도 없는 자들)과 교제함으로써 자신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하고 신학적으로 의혹을 낳게 하신다고 생각했다(즉, 5:30-32; 7:37-50; 15:1-2).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그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그가 하는 말은 공격 고백이요 회개요 배상에 대한 선언으로서,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이다.

▣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이 그가 정규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로 본다(고벨료와 같이, 참조, 행 10:2). 그러나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그가 축적해 놓은 재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사람은 18 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인물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진실로 여겨지는 것을 말한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사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구약에서 강제로 빼앗은 경우에 배상하는 일을 다룬 본문인 출 22:1 및 삼하 12:6 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비율은 레 6:5 과 민 5:7 에서 정한 오분의 일을 얻어 배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그가 배상하는 일은 변화된 마음의 증거이지 변화받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아니다. 앞에서 한 약속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이 선언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18 장에 있는 내용과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19: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의 변화된 자세와 행동이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입증한다. 변화된 삶은 그의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다(참조, 행 10:2; 11:14; 16:15,31-33; 18:8). 이 구원은 현재적인 실재이며(참조, 고후 6:2) 미래에 완성될 일이다.

“이 집에”라는 구는 삭개오의 회심을 인해 그의 온 집과 종들에 영향이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가족 단위의 전도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온다(참조, 10:2; 11:14; 16:15,31-34; 18:8). 서구의 개인주의는 유일한 성경적인 모델이 아니다.

▣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가 이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었다(참조, 롬 2:28-29; 3:22; 4:11-12; 10:12; 갈 3:9,26,28,29; 4:5,12; 5:6; 6:15). 그의 혈통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 왔다. 이 구원은 그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배상함에 의해 확증되었다. 참으로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다!

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70 인역의 겔 34:16 을 암시하며 또 눅 1:68-79 과 확실히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은 눅 15 장에 나오는 비유들의 신학적 강조점이다. 이것은 또한 마가복음의 요약적 진술의 핵심과 비슷한 내용이다(참조, 막 10:45; 딤펢전 1:15).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다:

1. 성부를 드러내심
2. 죄를 위해 죽으심
3. 회개한 사람들이 따를 모본을 주시기 위함

이 문맥에서 구속의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찾다”와 “구원하다”라는 두 동사 모두 부정과거 능동 부정사이다.

“인자”에 관하여는 5:24 의 특별주제를 보라.

“잃어버린”이란 단어는 멸망을 의미하는 *아폴뤼미*의 원료 능동 분사이다. 여기서 이 단어는 영속적인 영적 손실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마 10:6 을 보라).

**특별주제: 멸망(*아폴뤼미*)**

이 용어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해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데, 신학적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영원한 심판 대 멸절시킴과 같은 혼동을 가져온다. 글자적인 기본 의미는 *아포*(~로부터)와 *올뤼미*(과괴하다, 멸망시키다)이다.

이 용어의 상징적인 용례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것은 로우와 니다의 *의미적 개념에 기초한 신약헬라이어-영역사전* 제 2 권 30 쪽에서 잘 다루고 있다. 이 사전은 이 단어가 지닌 여러 가지 뜻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멸망시키다(예, 마 10:28; 눅 5:37; 요 10:10; 17:12; 행 5:37; 롬 9:22, 제 1 권 232 쪽에서)
2. 얻지 못하다(예, 마 10:42, 제 1 권 566 쪽)
3. 잃다(예, 눅 15:8, 제 1 권 566 쪽)
4. 장소를 모르다(예, 눅 15:4, 제 1 권 330 쪽)
5. 죽다(예, 마 10:39, 제 1 권 266 쪽)

게르하르트 키틀(*신약신학사전* 제 1 권 394 쪽)은 4 가지 의미를 열거함으로써 다른 용법을 나타내려고 시도한다.

1. 멸망시키다 혹은 죽이다(예, 마 2:13; 27:20; 막 3:6; 9:22; 눅 6:9; 고전 1:19)
2. 잃다 혹은 손해보다(예, 막 9:41; 눅 15:4,8)
3. 망하다(예, 마 26:52; 막 4:38; 눅 11:51; 13:3,5,33; 15:17; 요 6:12,27; 고전 10:9-10)
4. 잃어버려지다(예 마 5:29-30; 막 2:22; 눅 15:4,6,24,32; 21:18; 행 27:34)

키틀은 이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2 번과 4 번 항목이 이 단어가 공관복음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사용된 용법을 의미하는 한편, 1 번과 3 번 항목은 마술서신과 요한복음에서의 용법과 같이 다음 세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394 쪽).

여기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 서로 다른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이 용어를 광범위한 범위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는 이렇듯 넓은 범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는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들*(275-277 쪽)을 좋아한다. 그는 이 용어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도덕적으로 멸망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연관시키고 있다. 전자의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후자의 사람들은 멸망받았다.

로버트 B. 거들스톤(*구약의 동의어들* 276 쪽)은 이 용어를 멸절이 아니라 “사물이 원래 의도된 바에 실제적으로 소용이 되지 않게 만드는 손상”로 번역해야 할 여러 본문을 지적한다.

1. 기름의 낭비, 마 26:8
2. 낡은 포도주 부대의 손상, 마 9:17
3. 머리카락의 손상, 눅 21:18
4. 음식의 손상, 요 6:27
5. 금의 손상, 벧전 1:7
6. 세상의 파괴, 벧후 3:6
7. 몸의 손상, 마 2:13; 8:25; 12:14; 21:41; 22:7; 26:52; 27:20; 롬 2:12; 14:15; 고전 8:11

이 단어는 결코 사람이 멸절됨을 가리키지 않고 신체적 존재의 마침을 말할 뿐이다. 이 단어는 도덕적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인류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실패하였다”(276 쪽).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요 3:15-16 및 벧후 3:9).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앞으로 있을 멸망 곧 신체와 영혼이 관련된 멸망을 받게 된다(참조, 고전 1:18; 고후 2:15; 4:3; 살전 2:10). 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후지의 *삼키는 불*을 보라.

나는 개인적으로(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역자들* 276 쪽) 이 용어가 멸절됨을 뜻한다고 생각지 않는다(참조, E. 후지 *삼키는 불*). 마 25:46에서 “영원한”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양쪽을 의미한다. 어느 한 쪽을 경시하는 것은 두 쪽을 다 경시하는 일이 된다!

#### 개역개정 19:11-27

<sup>11</sup>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sup>12</sup>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sup>13</sup>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sup>14</sup>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sup>15</sup>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sup>16</sup>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sup>17</sup>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sup>18</sup>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sup>19</sup>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sup>20</sup>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sup>21</sup>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sup>22</sup>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을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sup>23</sup>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sup>24</sup>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sup>25</sup>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sup>26</sup>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sup>27</sup> 그리고 내가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19:11 “비유” 비유의 해석을 위한 해석학적 원리에 대하여는 8 장의 서론을 보라.

▣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8 절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다

9 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많은 주석가들은 누가복음이 지어진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비유는 한 가지 증거이다(참조, 로버트 H. 스타인, *예수께서 가르치신 방법과 메시지*, 54-55 쪽).

▣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역사에 획기적으로 한 번 오셔서 의의 세대를 세우시고 유대인들이 다스리게 할 것으로만 기대하였다! 많은 이들은 이 일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4:21의 특별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및 2:17의 특별주제인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보라.

19:12 이것은 마 25:14-30의 내용과 비슷하다. 예수께서는 같은 주제와 같은 가르침을 다른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셨음이 분명하다.

▣

NASB, NRSV, NJB

“한 귀인”

NKJV

“어떤 귀인”

TEV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 비유는 “어떤”으로 대개 번역되는 *τις*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누가복음의 여러 비유가 이러한 본문적 표시로 시작된다(참조, 7:41; 10:30; 14:16; 15:11; 16:1,19; 19:12).

▣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을 헤롯대왕의 죽음 및 그의 아들인 아겔라오스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시도한 일에 대한 암시로 이해한다(참조, 14 절, 이것은 독특한 각주이다). 이 역사적 사건은 요세푸스의 *고대사* 17.9,1-3; 11.1-2에 기록되어 있다.

19:13 “그 종 열을 불러” 그가 비록 열 명을 불렀지만 단지 세 명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다루고 있다. 둘로스라는 용어는 집에서 일하는 종을 가리킨다.

▣ “은화 열 프나를 주며” 이것은 마네라는 헬라어(셈어의 프나에서 유래한 외래어)로서 100 *드라크마*에 해당한다(한 달란트의 1/6 임).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나 군인의 일당인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을 가졌다. 따라서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연봉의 1/3 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 이점은 이 주인의 인색함 내지 검소함을 나타낸다. 15:8 의 특별주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을 보라.

▣

NASB, NRSV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사업을 하라”  
 NKJV “내가 올 때까지 사업을 하라”  
 TEV “내가 가있는 동안 이것으로 네가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NJB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명령(“사업을 하라”)으로서 현재 중간태(디포) 직설법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이 이를 뒤따른다. 요 14:3 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나타낸다. 주인이 자기 종의 실력과 신실함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얼마간의 책임을 맡겼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 회계를 위해 그들을 부를 것이다(참조, 15-20 절).

19:17

NASB “너는 열 고을에 대해 권세를 차지하라”  
 NKJV “열 고을에 대한 권세를 가져라”  
 NRSV “열 고을을 다스려라”  
 TEV “내가 너로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리라”  
 NJB “네가 열 고을 다스리는 권력을 갖게 하리라”

이것은 우회적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계속적으로 권세를 행함을 나타낸다.

19:20 “수건으로” 아마도 “땅”(평행구절인 마 25:25 을 보라)과 “손수건”이라는 아람어 사이에 혼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땅에 묻어 놓았을 것이다. 한편, 이 용어는 요 11:44 에서 옷을 가리킨다.

19:21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것은 미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으로서 과거에 반복된 행위를 나타낸다. 심각한 두려움은 효과적인 섬김을 위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

▣

NASB, NJB “당신이 까다로운 사람인 것을”  
 NKJV “당신이 준엄한 사람인 것을”  
 NRSV “당신이 냉혹한 사람인 것을”  
 TEV “당신이 지독한 사람인 것을”

이 헬라어는 70 인역의 마카비 2 서 14:30 에서 “냉혹한,” “거친,” “신랄한 태도”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코이네 파피루스에서 까다롭고 엄격하며 쪼쪼하고 조문 그대로 따르는 성품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비유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것은 심판 때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참조, 고후 5:10).

19:22 어떤 번역본은 이 절을 질문으로 취하고(NASB, NRSV, NJB, NIV), 어떤 번역본은 이것을 긍정문으로 취한다(NKJV, TEV, NAB).

19:24-26 이것이 과장법을 자주 사용하는 근동의 비유임을 기억하라. 이야기의 세세한 내역을 우회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과장적 진술은 비유의 주요 요점을 나타내는 충격적인 변형을 이룬다. 아마도 이 부분은 8:18 과 유사하다.

복음의 핵심적 역설은 구원이 메시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거저지만, 그 결과로 일어난 실재는 모든 것을 지불하는 섬김에 있다는 점이다(참조, 엠 2:8-9,10). 10:12 의 특별주제: 상과 벌의 정도를 보라.

19:25 KNJV 와 NRSV 는 이 절을 중괄호에 넣는데 그 이유는 어떤 고대 헬라어 본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D, W, 여러 성구집, 일부 고대 라틴역, 시리아역, 콕틱역). UBS<sup>4</sup>는 이것이 들어 있는 것에 “확실함”의 등급을 주고 있다!

19:26 이(또한 모든) 비유의 상세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다룰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1. 귀인을 예수님으로(12 절)
2. 종들을 제자로(13 절)
3. 백성들(14 절)

만일 그렇다면 26 절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종이 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집 안에 있는가(참조, 8:18; 마 13:12; 25:29; 막 4:25; 고전 3:10-15; 유 23 절)? 밭의 비유(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는 어떤 이는 처음에는 응답하였으나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6:46 의 특별주제: 배교를 보라.

비록 그러한 추측이 흥미롭긴 하지만 비유는 대개 한 가지의 주된 진리를 나타내거나 한 명의 주요 인물이 한 가지 진리와 관련을 가질 뿐이다. 종종 세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다. 8 장의 서론을 보라.

19: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진술은 14 절을 가리킨다. 주인이 다스림을 거부한 백성들과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종이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두 그룹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1. 주인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
2.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행동을 취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11 절에 있는 서론은 이 부분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일과 관련시킨다.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할 것이며 여러 이유로 예수께서 거부를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1 항과 관련을 가진다. 삭개오가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또 그의 행동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2 항과 관련을 가진다.

**개역개정 19:28**

<sup>28</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19:28 이 문단 구분은 NRSV 의 것과 일치한다. 이 문단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심을 다루는 누가의 주제를 이어간다. 여행의 대단위는 9:51 에서 시작하여 예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것으로 끝맺는다.

**개역개정 19:29-40**

<sup>29</sup>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sup>30</sup>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sup>31</sup>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sup>32</sup>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sup>33</sup>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sup>34</sup>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sup>35</sup>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sup>36</sup>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겂옷을 길에 찌더라 <sup>37</sup> 이미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sup>38</sup>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sup>39</sup>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sup>40</sup>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19:29 “벳바게” 탈무드는 이곳이 예루살렘의 교외라고 말한다. 그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이름은 “익지않은 무화과의 집”을 뜻한다(참조, 마 21:1; 막 11:1).

▣ “베다니” 이 이름은 “대추의 집”이다(참조, 마 21:17; 막 11:1).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한 부분을 이루는 산능선의 반대쪽으로 약 3 km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주로 머무셨다.

19:30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이 말씀은 속 9:9 의 예언적(모형적) 성취이다(참조, 마 21:2). 나귀(노새, 참조, 삼하 18:9; 왕상 1:33)는 이스라엘의 왕이 타는 짐승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근동에서 나귀는 몸집이 크고 위엄이 있는 동물이었다(세계성서공회, 성경의 동식물, 제 2 판 5-7 쪽). 이 짐승을 타신 일은 예수께서 단순히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왕이심을 상징한다. 이것이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는 사실은 왕이 자신의 나귀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그것을 타지 못함을 의미한다(참조, 왕상 1:33). 예수께서 미리 이 짐승을 예약해 놓으신 것이든지(참조, 31,33-34 절) 아니면 자신의 초능력적 지식을 사용하신 경우에 속한다.

19:31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19:36 “그들이 자기의 겂옷을 길에 찌더라” 이것은 왕되심을 상징한다(참조, 왕하 9:13). 누가는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으로 불린다(참조, 마 21:1-9; 막 11:1-10; 요 12:12-15).

19:37 “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M. R. 빈센트(*단어 연구*, 제 1 권 208 쪽)는 그 지형에 대해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사람들이 그 성을 훑어 볼 수 있지만(37 절) 그 후에는 잠시 이 성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41 절은 흰 색의 석회석 성전이 한 눈에 다 들어오는 마지막 내리막길에서 보는 입체적 장관에 대해 설명한다.

▣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제자의 온 무리”는 다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1. 제자들(참조, 39 절)
2. 그들과 함께 여행한 자들
3.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그들과 합류하심(참조, 39 절)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은 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9:51 에서부터 행하신 일들을 가리킨다.

19: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것은 시 118:26 의 인용이지만 변경이 된 내용이다:

1. “오시는 분”을 “왕”으로 대치함
2. 마가복음에 있는 “호산나”를 생략함(이는 이방인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임)

이 인용(또한 마가복음의 내용)은 맛소라 본문이나 70 인역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할렐루야(찬송하라) 시편(시 113-118 편)의 일부분으로서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던 내용이다

1.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례자들에 대한 인용
2.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도살하는 동안 찬송한 내용
3. 유월절의 첫 날에 부른 찬송(또한 다른 주요 축제의 첫 날에)
4. 유월절 주간 동안 식사 전과(시 113-114 편) 식사 후에(시 115-118 편) 사용한 인용

나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해마다 선포되었던 내용으로 생각한다. 한편 예루살렘 주민들과 순례자들이 이 본문을 특별히 나사렛 예수께 적용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독특한 것으로 이해했음을 나타낸다. 이 번의 유월절은 매우 특별한 절기가 되었다!

▣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구는 시 118:26 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일부였다(참조, 눅 2:14). 약속하신 평화를 위해 놀랄만한 구속의 값을 치르려 하고 있다(갈보리, 참조, 사 53 장).

19: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이것은 다음을 가리킨다

1.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을 영접한 바리새인들
2. 유월절 축제를 위해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베레아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의 일부였던 바리새인들
3.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기 위해 어떤 잘못을 잡기 위해 무리 속에 잠입시킨 바리새인들(참조, 13:31; 14:1,3; 15:2; 16:14; 17:20; 19:39)

이 진술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다(참조, 40 절).

19:40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다(예안을 사용함, 행 8:31).

▣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내재하는 신적 심판을 나타내는 잠언일 것이다(참조, 함 2: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즉, 방문하심, 참조, 44 절) 자연이 진동함과 관련이 있다.

개역개정 19:41-44

<sup>41</sup>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sup>42</sup>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sup>43</sup>날이 이르리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짊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sup>44</sup>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19:41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 의해 자신이 거부당하는 비극을 인해 예수께서 인간의 정서를 나타내고 계셨음을 본다(참조, 13:34-35). 구약의 조건적인 약속이 무효로 되었다. 오직 심판만 남았다!

▣ “만일” 이것은 불완전한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이다(A. T. 로벗슨, *워드 픽처*, 제 2 권 246 쪽). 유대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주민의 대다수(“너희까지”)는 예수께서 오심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

NASB, NRSV  
NKJV  
TEV  
NJB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네게 평화를 주는 일들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평화하는 방법을”

이것은 불완전하고 요소가 빠진 문장이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으로 인하여 슬픔이 예수님께 벽차 올랐다! 이 영적 평화 및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일(이것은 “예루살렘”(BDB 436) 및 “평화의 소유”와 관련된 언어유희이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예수께서는 만일 그들이 전적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만 하면 이 평화를 주실 것이다(참조, 사 48:18).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셨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외적(예루살렘의 파괴) 및 영적(개인과 공동체가 잃어버린 바 됨) 죽음을 인쳤다.

▣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누가는 이 내용을 9:45; 10:21; 18:34 에서 언급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심을 뜻하거나(참조, 롬 11:7,25) 거부하심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19:43-44** 이 본문은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주후 70 년에 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구약에서 성읍을 포위하여 벌이는 전쟁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구, 참조, 램 6 장) 및 종말의 심판을 미리 드러내는 내용일 것이다(참조, 눅 21 장; 시 2 편; 사 29:1-4; 겔 38-39 장; 단 9:24-27; 숙 13-14 장; 계 20:7-10).

성경은 재림에 앞서 박해의 기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 한편, 어떤 주석가들은 주후 70 년에 일어난 사건이 이 예언을 완전히 성취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들은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preterists)로 불린다. 이 입장을 나타내는 좋은 예는 존 브레이(*성취된 마태복음 24 장*)이다.

다른 주석가들은 이것이 장차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예루살렘 성읍과 이스라엘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다. 이 입장을 나타내는 두 권의 책은 찰스 C. 라이리(개혁적 세대주의)의 *오늘날의 세대주의* 및 블레이징과 북(점진적인 세대주의)의 *점진적 세대주의*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조지 E. 래드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에 속한다. 래드는 마지막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이 본문은 다중으로 성취되는 예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약이 구약의 예언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로써 제시하기 때문에 지리적 혹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개념은 더 이상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지금은 모든 민족을 포함시키고 있다.

**19:43 “날이 이를지라”** 이것은 (1) 신랑이 마지막 때에 오심(참조, 5:35)과 (2) 예루살렘의 멸망(참조, 23:29)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 표현은 70 인역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예언에서 사용되었다: (ㄱ) 엘리와 그의 집(참조, 삼상 2:31) 및 (ㄴ) 히스기야의 교만한 행동으로 인해 유대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참조, 왕하 20:17).

**19:44 “이는 내가 . . . 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것은 42 절(조건절의 제 2 유형)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임을 알아 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전통이 그들의 눈을 어렵게 하여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한 모든 후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남은 자”라는 용어를 따로 언급하지 않으시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 및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나온 믿음의 남은 자들이다(참조, 눅 12:32 의 “작은 때”). 구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야웨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 19:10 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는 이스라엘도 분명히 포함한다!

▣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구약에서 이 방문의 날은 축복 혹은 심판을 위한 것이었다(참조, 사 10:3; 23:17; 24:22; 29:6, 70 인역에서는 *에피스코피*). 눅 1:68,78 및 뱀전 2:12 에서 이 방문은 신자들에게는 축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위한 방문이다(즉, 재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뀌게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참조, 19:11-27 의 비유).

▣

NASB  
NKJV  
NRSV  
TEV  
NJB

“또 그들이 너와 및 네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며”

“또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들이 너를 땅에 던질 것이되, 너와 및 네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그들이 너와 네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며”

“그들이 너와 네 울타리 안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땅에 던질 것이며”

자녀의 죽음은 시 137:8-9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 시편에서는 70 인역에서 사용한 것과 똑 같은 동사가 나온다.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평평하게 하다”(참조, 사 3:26)를 의미하지만 은유적으로는 “땅에 메어치다”를 뜻한다(참조, 호 10:14; 나 3:10). 이 동사는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나온다. 구원이 삭개오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듯이(참조, 19:9) 심판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즉,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44-45 절).

내가 서구의 개인 중심적 문화에서 자랐기에 나는 종종 성경의 믿음이 갖는 공동체적 면을 생각해 본다. 한편, 성경은 심판이 삼 사대에 미치지(참조, 신 5:9) 언약적인 충성에 대하여는 천 대까지 미침(참조, 신 5:10; 7:9)을 말한다!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도왔다(하지만 이 점은 개인이 선택하여 그에 상응하는 결과에 책임지는 여지를 없애지 않는다).

개역개정 19:45-46

<sup>45</sup>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sup>46</sup>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19:45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것은 말 3:1-2 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 여겨진다(“갑자기”란 단어와 “심판”이 결합되었다). 요 2:13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사역의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 저자들이 주제별로 그 내용을 제시하며 각 자 그러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한 번만 있었는지 아니면 두 번 있었는지를 확실히 하기는 어렵다. 사두개인들이 감람산과 이방인의 뜰에 대한 상권을 소유했다. 그들은 (1)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두로의 세겔로 환전해 주면서 폭리를 취했고 (2) 사람들이 희생제물로 사용하려고 고향에서 가져온 가축이 흠이 있다고 서둘러 판정함으로써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다. 이 상인들이 파는 희생제물용 짐승은 가격이 매우 비쌌다.

예수께서 하신 이 행위는

1. 그의 권위를 드러내고
2. 하나님의 집에 있는 부패를 드러내며
3. 그가 유대 지도자들(사두개인, 헤롯당, 바리새인, 참조, 47 절)에 의해 죽임 당할 것을 확실하게 하였다

**19:46 “기록된 바”** 이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을 반복적인 주제로 삼는 누가(삭개오의 경우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좋은 예이다)에게 그것이 적합하게 보이기 때문에, 누가 “만민이~”에 이어 나오는 본문 전체(참조, 사 56:7, 맛소라 본문과 70 인역 모두 에서)를 인용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는 사 57:6 과 렘 7:11(“강도의 굴”)을 함께 사용하고 계신다. 렘 7 장은 야웨 대신에 성전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지자가 성전에서 행한 유명한 설교이다.

**개역개정 19:47-48**

<sup>47</sup>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sup>48</sup>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19: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것은 **우회적 미완료**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 동안 정규적으로 대중 앞에서 가르치셨다. 성전의 일부 구역은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장소는 솔로몬의 회랑으로 알려진 곳으로서 여인들의 뜰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성전에 온 모든 방문객들(유대인 남자와 여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19:48** 이 절은 6:11 과 11:53-54 에서 시작된 적대감의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의 인기로 인해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 한편, 예수님의 인기가 지속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섬기라는 말씀을 들은 무리가 값을 치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다른 종류의 복음을 원했고 백성들은 쉬운 복음을 원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10 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자세와 18:18-23 절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의 자세를 비교하라.
2. 12-27 절에 있는 비유의 신학적 핵심진리는 무엇인가?
3. 승리의 입성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4. 예수께서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예수께서 성전을 몇 번 깨끗하게 하셨는가?

# 누가복음 2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예수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의 권위에 대한 질문	유대인들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
20:1-8	20:1-8	20:1-8	20:1-2 20:3-4 20:5-7 20:8	20:1-8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20:9-19	20:9-19	20:9-19	20:9-15a 20:15b-16a 20:16b 20:17-18 세금을 냄에 대한 질문 20:19-22	20:9-15a 20:15b-18 20:19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기	바리새인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이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기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에 대하여
20:20-26	20:20-26	20:20-26	20:23-24a 20:24b 20:25 20:26	20:20-25 20:26
부활에 대한 질문	사두개인들: 부활에 대하여는 어떠합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	죽음에서 일어남에 대한 질문	죽은 자의 부활
20:27-40	20:27-40	20:27-33 20:34-40	20:27-33 20:34-38 20:39-40	20:27-33 20:34-38 20:39-40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	예수: 다윗이 어떻게 그의 자손을 주님으로 불렀는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질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그의 주님이심
20:41-44	20:41-44	20:41-44	20:41-44	20:41-44
서기관들을 비난하심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예수께서 율법의 선생들에 대해 경고를 하시다	예수께 정죄받은 서기관들
20:45-47	20:45-47	20:45-47	20:45-47	20:45-4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20:1-47 에 대한 문맥적 통찰

이 장은 일련의 대면을 다룬다.

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공격하다

1.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즉, 산헤드린)은 예수께서 가지신 권위의 원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였다, 1-8 절
2. 산헤드린이 스파이들을 보내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로마 정부에 제시할 죄목을 찾으려 했다, 19-26 절
3.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관련이 있는 신학적 질문을 하였다, 27-40 절

나. 예수께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도전하시다

1. 예수께서는 산헤드린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신다  
ㄱ. 질문으로써, 3-8 절  
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을 거부하심에 대한 비유로써, 9-18 절
2. 예수께서는 논란이 있는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자신을 책잡으려는 자들에게 인간이 하나님과 정부에 대해 가지는 책임과 관련이 있는 강력하면서도 실제적인 답을 주신다, 23-25 절
3. 예수께서는 레위혼(죽은 자의 형제가 형수와 결혼)과 관련이 있는 책략적이고 엉터리 같은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 질문을 하심으로써 답하신다, 41-44 절
4.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대답하시면서 무리에게 단호한 경고를 주신다, 45-47 절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0:1-8

<sup>1</sup>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sup>2</sup>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sup>3</sup>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sup>4</sup>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sup>5</sup>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sup>6</sup>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sup>7</sup>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sup>8</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1 앞에 있는 이 구는 예수께서 반복적이며 정규적으로 백성을 가르치셨음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누구라도 자신에게 나아와 듣고 받으려는 자에게 진리를 전해 주셨다. 기독교는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다. 이것은 어떤 학위나 특별한 소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잔치에 와서 먹을 수 있다(참조, 사 55:1-13). 자신이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특별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특별히 주장하는 선생이나 강사나 설교가들을 조심하라! 성경적 기독교에는 어떤 전문가(구루)나 예지를 터득했다고 자랑하는 철인이 설 자리가 없다!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은 산헤드린을 뜻하는 공식적 명칭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70 인의 지도자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법정이었다. 9:22의 특별주제: 산헤드린을 보라.



NASB, NKJV                    “그를 대면하였다”  
 NRSV, TEV                    “왔다”  
 NJB                                “다가왔다”

누가는 *에피스테미*라는 헬라어 단어를 종종 자신의 글에서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바울서신에서만 나온다. 이 용어는 여러 종류의 의미를 나타낸다:

1. 갑자기 다가가다, 2:9; 21:34; 24:4; 행 12:7; 23:27
2. 공격하다, 20:1(또한 10:40 에서도); 행 4:1; 6:12; 17:5
3. 나타나다, 행 10:17; 11:11; 23:11

미리 정해 놓은 단어의 정의가 아니라 문맥이 그 단어의 뜻을 규정함을 기억하라. 단어가 각각 넓은 의미의 범위를 갖지만 문맥(문장과 문단)에서 원 저자가 무슨 뜻을 나타내기 위해 그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를 알게 된다.

종교 지도자들(산헤드린을 사두개인들이 장악했다)은 예수의 유명세 및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인하여 근심했다(참조, 19:45-46).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위(그는 하나님의 새 성전이셨다, 참조, 마 26:41; 27:40; 막 14:58)를 가지고 그들의 권위(성전)에 맞닥뜨리셨다.

20:2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권위(*엑수시아*)에 대한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1. 하나님께 대하여(세계 종교들)
2. 성경에 대하여(경전들)
3. 나사렛 예수께 대하여(성인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피조물인데, 문제는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이다.

**특별주제: 권세(*엑수시아*)**

누가의 *엑수시아*(권위, 권력, 혹은 법적 권리)용법을 살펴보는 일이 흥미롭다.

1. 4:6에서는 사탄이 예수께 권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4:32,36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심을 보고 유대 백성들이 놀랐다.
3. 9:1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다.
4. 10:19에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권세를 70 명의 선교사들에게 주셨다.
5. 20:2,8에서는 예수의 권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6. 22:53에서는 예수를 정죄하고 죽일 수 있도록 악한 자들에게 권세가 허락되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대 위임의 서두에 나오는 말썬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는 놀라운 진술이다(마 28:18).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 하신 답변은 다음의 내용을 뜻할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예수께 직접 말씀하심
  - ㄱ. 침례(세례), 눅 3:21-22
  - ㄴ. 변화산 사건, 눅 9:35
2.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
  - ㄱ. 유다 지파 (참조, 창 49:10)
  - ㄴ. 이새의 뿌리(참조, 삼하 7 장)
  - ㄷ.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참조, 미 5:2)
  - ㄹ. 다니엘 2 장에 나오는 네 번째 왕국(로마)의 시기에 태어나심
  - ㅁ. 가난한 자와 소경과 불쌍한 자들을 도우심(이사야서)
3.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은 사탄과 그의 왕국에 대하여 가지신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낸다.
4.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은 신체적 생명과 죽음에 대해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을 보여준다.
5.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과 육신을 뛰어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음을 드러낸다.
  - ㄱ. 자연
  - ㄴ. 많은 사람을 먹이심
  - ㄷ. 고치심
  - ㄹ. 마음을 읽으심
  - ㅁ. 물고기를 잡으심

20:3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시는 질문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세례)를 주는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인가이다(참조, 요 1:19-25). 침례(세례)요한은 이전에 예수의 존재와 권위에 대해 증거하였다(참조, 7:18-23; 요 1:29).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면 그들은 예수의 권세에 대하여 이미 답을 가진 셈이 된다. 요한과 예수님은 공식적인 서기관이나 선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밝히 드러내었으며,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아보고 그들을 인정하였다. 권위에 대한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과 그 결과로 연결되는 실제적인 사항이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삶과 가르침과 행하신 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났다.

20:5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6 절도 그러하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그들이 전적으로 고려했다.

20:6 “그들이 다 우리를 둘로 칠 것이라” 이 동사(미래 능동 직설법)는 70 인역에 나오지 않는다. 이 일은 신성모독자를 처리하는 구약의 방법이였다(참조, 레 24:14-23; 민 15:35-36; 신 13:1-5; 21:21). 진리를 말함이 중요했다.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 심각한 결과가 따랐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인정하니”라는 용어는 우회적 완료 수동이다. 백성들은 침례(세례)요한이 선지자라고 확실히 인정했다(참조, 마 21:26). 그는 말 4:5 에 있는 엘리야야 대한 예언을 성취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20:7 그들은 질문을 회피하여 답했다. 그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중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위협에 빠트리려 하지 않았다. 개인적 이득을 추구함으로 인해 정직이 흐려져 버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위선적 자세에 응답하기를 거부하셨다(참조, 8 절). 그들이 진리를 원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기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예수를 정죄하고 공격할 기회만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개역개정 20:9-18**

<sup>9</sup>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sup>10</sup>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sup>11</sup>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sup>12</sup>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sup>13</sup>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sup>14</sup>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sup>15</sup>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sup>16</sup>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sup>17</sup>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냐 <sup>18</sup>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20:9 이 내용은 막 12:1-12 및 마 21:33-46 과 평행을 이룬다.

▣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8 장의 서론에서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을 보라. 이 비유는 다음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리킨다

1. 이스라엘 국가(참조, 사 5 장)
2. 유대 지도자들(참조, 19 절)

이것은 신약에서 제 1 세기의 유대교를 강하게 거부하는 내용이다. 예수를 거부한 일은 하나님을 거부한 일이다(참조, 요일 5:10-12). 이것이 어렵고 충격적이며 문화적(포스트 모던주의)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며 배타적인 가르침에 속하지만 사실이다(만일 신약이 영감된 말씀이라면)!

▣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마가복음에 있는 평행구절(12:1-11)에서 마가(그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였고 조직화했다)는 70 인역의 사 5:1-2 의 인용문으로 비유를 시작한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였다(마 21:18-22 과 막 11:12-14, 20-25 에 있는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거부하신 것이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1.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의 비합법적 대체사장들
2.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스라엘의 율법주의
3. 민족 전체의 불신앙

이 절에 있어서 고대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어떤 사본(A 와 W, 또한 시리아역과 알메니아역 및 사복음 대조서)은 *티스*(어떤 사람)를 추가하고 있다. 누가가 비유의 서두에서 종종 *티스*를 사용하였다(참조, 7:41; 10:30; 12:16; 14:16; 15:11; 16:1,19; 19:12). 이 단어가 **κ**, B, L, 벨게이트역, 콕틱역, 또한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서는 빠져 있다. UBS<sup>4</sup>는 이 단어를 꺾쇠괄호에 넣고 있으며 “C”등급(결정하기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오래 있다가” 이것은 누가의 저작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학적 관용어이다(참조, 8:27; 23:8; 행 8:11; 14:3; 27:9).

20:10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에서 제 1 세기에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문화적으로 예상되는 일을 반영한다. 지주는 소출의 일정 비율을 받았다.

▣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에 비유의 “경악할 내용” 혹은 예상치 못한 뒤틀림이 나타난다(참조, 11-12,15 절). 소작하는 농부들이 반복적으로 행한 이러한 일은 모든 이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

20:12 “상하게 하고” 영어의 “trauma”(상처)는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이다. 의사인 누가만 신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참조, 10:34; 20:12; 행 19:16).

20:13,15 “내 사랑하는 아들 . . .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특별히 이 두 진술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즉, 내 사랑하는 아들, 참조, 3:22; 9:35; 마 3:17; 17:5; 막 9:7!)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20:16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롬 11 장; 요 10:16).

▣ 마가복음에 있는 평행구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질문을 하신다(참조, 막 12:9). 그들의 답변이 자신들의 멸망을 인쳤다!

▣	
NASB	“결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NKJV	“안됩니다”
NRSV	“당치도 않습니다”
TEV	“설마”
NJB, REB	“그런 일이 없기를”
NIV	“이 일이 결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NET 성경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말아지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부정의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회구법)로서 바울서신(특히,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되었지만 복음서에서는 여기서만 나온다. 누가는 바울이 가르치고/설교하는 것을 자주 들었음이 틀림없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알았다(참조, 마 21:45)
2. 이것은 무리들이 즉각적으로 발설한 말이다. 그들은 막 12:9 에 비추어 볼 때 주인이 다른 소작인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주는 일로가 아니라 악한 소작인들이 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회구법(바람이나 기도) 형태의 관용어으로써 대답을 하였다. 이 구는 70 인역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창 44:17; 수 22:29; 24:26; 왕상 20:3). 이 구는 복음서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드물게 사용한 이 구를 자주 사용하였다(참조, 롬 3:4,6,31; 6:2,15; 7:7,13; 9:14; 11:1,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예수님의 비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심판 및 구약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는 일은 너무나 엄청난 일로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받아 들일 수 없었다!

20:17 “그러면 기록된 바” 이 절은 70 인역 시 118:22 의 인용이다. 이 시편은 할렐 시의 하나로서 유월절 기간 동안 인용되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분(예수)이 우두머리와 핵심적 지도자요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구약의 이 인용문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 거부받으심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

▣ “머릿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모퉁이 돌**

**I. 구약의 용법**

- 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 좋은 기초를 이루는 물질인 돌이라는 개념은 야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시 18:1).
- 나.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발전되었다(참조, 창 49:24; 시 118:22; 사 28:16).
- 다. 이것은 메시아에 의한 야웨의 심판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8:14; 단 2:34-35; 44-45).
- 라.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은유로 발전했다.
  - 1. 처음 놓이는 기초석으로서 안전하며 또한 그 위에 놓이는 건물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모퉁이 돌”로 불렸다
  - 2. 이것은 또한 벽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얹은 돌을 가리킬 수도 있다(참조, 슥 4:7; 엡 2:20,21). 이것은 히브리어 로쉬(즉, 머리)에서 온 “머릿돌”로 불린다.
  - 3. 이것은 “열쇠 돌”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것은 아치형 문의 중앙에 위치하며 벽 전체의 무게를 견딘다.

**II. 신약의 용법**

- 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118 편에서 여러 번 인용했다(참조, 마 21:41-46; 막 12:10-11; 눅 20:17)
- 나. 바울은 시 118 편을 야웨께서 믿음이 없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것과 연결한다(참조, 롬 9:33)
- 다. 바울은 “머릿돌”의 개념을 엡 2:20-22 에서 그리스도께 대해 사용한다
- 라. 베드로는 이 개념을 뱀전 2:1-10 에서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고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즉, 신자들은 성전[참조, 고전 6:19])으로서 그 위에 지어졌다(예수는 새 성전이시다, [참조, 막 14:58; 마 12:6; 요 2:19-20]).

**III. 신학적 진술**

- 가. 야웨는 다윗/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다.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킨다면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참조, 왕상 9:1-9)!
- 나. 랍비들의 유대교는 형식과 의식을 강조했지만 믿음의 개인적 측면은 소홀히 했다(이 말은 전체가 다 그랬다는 말은 아니다; 경건한 랍비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과 매일 인격적이고 경건한 교제를 하기 바라신다 (참조, 창 1:26-27). 눅 20:17-18 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다.
- 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기 위해 성전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개인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은 야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쇠이다.
- 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존재에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됨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목적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새 성전)를 따라 지어진/형성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
- 마. 예수는 우리 믿음의 기초시며 우리 믿음의 머릿돌(즉,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럼에도 그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 그를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20:18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각 사람이 스스로 한 선택과 행동이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이 됨을 주목하라.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부받는 결과를 낳는다!

▣ “깨어지겠고” 이것은 미래 수동 직설법이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문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사 5:26; 9:53; 시 110:5; 미 3:3).

▣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불신앙에는 영원한 벌이 따른다(참조, 사 8:14-15; 단 2:34-35). “무릇 누구든지”와 “누구라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가 어떤 지위나 국적이거나 계층에 속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나타낸다.

▣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 곡식을 키질하여 걸겉질이 바람에 날리게 함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것은 70 인역에서 심판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사 17:13; 30:22,24; 41:16; 램 30:27; 암 9:9).

18 절의 내용은 이 말씀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완전하며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

개역개정 20:19-26

<sup>19</sup>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sup>20</sup>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sup>21</sup>그들이 몰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sup>22</sup>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sup>23</sup>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sup>24</sup>테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sup>25</sup>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sup>26</sup>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20:19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 . . 즉시 잡고자 하되”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비난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다. 이 비유의 의미가 그들에게 가려져 있지 않았다(참조, 마 21:45). 이 비유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은 예수께 죽음이 임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였다.

▣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1) 백성들의 진노함(참조, 20:6; 22:2) 혹은 (2) 로마가 폭동에 반응할 일(참조, 20 절) 가운데 하나를 두려워하였다. 문맥상 1 항의 설명이 더 맞는다.

▣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께서 앞서 말씀하신 비유가 특별히 자신들에 대한 것임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음이 분명하다(참조, 마 21:45).

20:20 “그들이 엿보다가” 이 용어는 기회를 잡으려고 주의깊게 봄을 뜻한다(참조, 6:7; 14:1). 우리는 마 22:15-16 및 막 12:13 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 넘어 한 편이 되었음을 안다.

▣ “정탐들을 보내어” 이것은 “어떤 이를 고용하여 매복하게 하다” 혹은 “잠복하다”를 뜻한다(참조, 70 인역의 수 8:9; 겔 35:5; 마카비 1 서 10:52).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과 관련이 있는 구약의 관용적 표현이다.

▣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이것은 연극과 관련된 용어로서 “배우노릇하기” 또는 위선을 뜻한다(참조, 70 인역의 읍 34:30; 36:13; 마카비 2 서 5:25; 6:21,24,25).

▣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총독”이라는 용어는 로마 사람인 통치자를 가리킨다(참조, 마 27:2; 눅 2:2; 3:1). 이 문장은 이 정탐꾼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정치적 죄목을 찾아내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산헤드린은 사람을 사형시킬 공식적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 때때로 그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했다(행 7 장에 나오는 스테반 사건이 그러한 경우임).

예수께서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했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신 21:23 에 있는 저주에 기초하여 십자가형이 하나님께 저주받음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메시아인체 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원했다!

나는 바로 이 사실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행 9 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 되심을 보았다(참조, 갈 3:13).

“권세”에 대하여는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20:21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듣다”이다. 원래 이것은 히브리 재판관이 판결에 앞서 고소를 당하는 자로 하여금 얼굴을 듣게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어떤 사법적 호의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들은 예수께 아침을 함으로써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하여 예수께서 의심받을 만한 진술을 하시도록 피하고 있었다.

▣ “하나님의 도를” 진리가 의인화되어 합당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제시된다(참조, 시 119:105; 잠 6:23; 또한 시 16:11; 139:24 을 주목하라).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가진 처음 이름은 “도”였다(참조, 행 9:2; 19:8,23; 22:4; 24:14,22).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거나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정의된 생활양식이다.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20:22 “~것이 옳으니이까” 이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가?”를 뜻한다. 그들은 정치적 질문을 종교적 질문으로 모양새를 꾸며 묻고 있다.

▣ “세” 마태복음(22:27)과 마가복음(12:14)에서는 “인두세”(켄소스)로 나온다. 이것은 14 세에서 65 세 사이의 남자와 12 세에서 65 세 사이의 여자에게 매년 부과된 세금이었다(참조, 제임스 S. 제퍼스, *그리스-로마 세계* 143 쪽). 그 금액은 한 *테나리온*이었고 황제의 금고에 귀속되었다.

누가복음에서는 *포르스*(20:22; 23:2; 또한 바울이 쓴 로마서 13:6,7)로 나오는데 대개는 “공세”로 번역되었다. 로마에 내는 세금은 열심당원들이 크게 문제로 삼는 내용이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로 하여금 백성들(열심당원 및 대중들의 여론)과 로마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지지기를 바랐다.

20:23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마 22:18 에 있는 평행구절을 보라.

20:24 “테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것은 로마인의 은화로써 티베리우스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주후 14-27 년에 다스렸다. 은화의 한 면에는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그의 얼굴과 함께 나온다. 은화의 다른 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쓰여 있다. 이 화폐는 로마의 힘과 다스림을 나타내었다. 이 돈은 또한 시저를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20:25 “그런즉 가이사란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께서는 사람이 자신들 위에 있는 정치적 권세자들에게 충성할 것을(*아포도도미*, 합당한 것을 돌려 줌 또는 해야 할 것을 이행함을 뜻한다) 명령하셨다(부정과거 능동 명령, 참조, 롬 13:1-7; 딤후 2:1-4; 딤후 3:1). 한편, 예수께서는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을 침범하려 들 때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신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을 거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셨다(참조, 요한의 계시록).

교회와 국가를 정치적으로 분리시키는 오늘날의 논의가 그 주제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이 본문에 기초한다는 점은 나로 놀라게 한다.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해 갖는 대부분의 생각은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 선례에 기초하고 있다.

20:26 나중에 이 그룹에 속한 정탐꾼들은 예수의 진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내용을 바꾸어 놓았다(참조, 23:2).

**개역개정 20:27-33**

<sup>27</sup>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sup>28</sup>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sup>29</sup>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sup>30</sup>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sup>31</sup>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sup>32</sup>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sup>33</sup>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0:27 “사두개인” 이들은 부유한 귀족들로서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을 인해 현상을 유지하기 원했다. 그들은 대제사장직을 손에 넣었는데 이것은 한 가족이 로마사람에게서 산 직업이었다. 요세푸스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대중적인 구전 전통을 거부하였고 단지 모세의 글(즉, 창세기-신명기)만 인정하였다고 전한다. 그들은 사후의 개념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참조, 행 23:6-8), 그 개념은 바리새인들이 두루 받아들인 개념이었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2.8.14; 유대 고대사 18.1.4;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욥 14:14; 19:25-27; 시 16:9-11; 사 25:8; 26:19; 단 12:1-2 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절은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정치 종교 집단을 언급하는 경우에 속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사두개인**

I. 이 그룹의 기원

- 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름이 사독에게서 왔다고 보는데 사독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었다(참조, 삼하 8:17; 15:24). 후에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아도니야의 반역을 도운 것을 인해(참조, 왕상 2:26-27) 그를 쫓아내고 사독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참조, 왕상 2:35).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제사장의 계보는 여호수아의 것으로 재확립되었다(참조, 학 1:1). 레위족속은 성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선택을 받았다. 후에 이러한 제사장의 가계와 그들의 지지자들은 사독 가족 혹은 사두개인으로 불렸다.
- 나. 주후 9 세기의 랍비적 전통(랍비 나단의 *아봇*)은 사독이 소코(주전 2 세기)의 안티고누스의 제자였다고 말한다. 사독은 “죽음 이후의 상”과 관련하여 자기 스승이 한 유명한 말을 오해하여 사후의 세계를 부인하는 신학을 정립했다. 따라서 그들은 몸의 부활도 부인했다.
- 다. 후기 유대교에서 사두개인들은 비수시안으로 불린다. 비수스 역시 소코의 안티고누스의 한 제자였다. 그는 사독과 비슷한 신학을 발전시켰고, 그도 사후의 삶을 부인했다.
- 라.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은 요한 힐카누스(주전 135-104 년)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용되었는데, 이 기록을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다(참조, *유대 고대사* 13:10:5-6). *유대 고대사* 13:5:9 에서 요세푸스는 “세 학파”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가 있었다고 말한다.

- 마. 한편 안티오쿠스 IV 에피파네스(주전 175-163년) 때에 셀루시드 통치자들이 제사장들을 헬라화 시키려는 시기에 이들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설이 있다. 마카비 반란기 동안 새 제사장제도가 시몬 마카비(주전 142-135년)와 그의 자손(참조, 마카비상 14:41)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 하스모니안 계열의 새 대체사장들은 귀족정치적인 사두개인들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같은 시기에 하시딤(즉, “분리된 자들,” 참조, 마카비상 2:42; 7:5-23)에서 발전되었다.
- 바. 오늘날에 제기된 이론(즉, T. W. 맨슨)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헬라어 용어인 *칸디코이*의 철자에서 왔다. 이 용어는 로마의 권력과 결부한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 설은 왜 어떤 사두개인들은 귀족정치적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II. 독특한 신앙

- 가. 그들은 하스모니아와 로마의 통치 기간에 살았던 유대인 가운데 보수적인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분파였다.
- 나. 그들은 특별히 성전의 예배, 의전, 의식, 예배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 다. 그들은 기록된 토라(즉, 창세기-신명기)의 권위를 받아들인 반면 구전(즉, 탈무드)을 배격했다.
- 라. 그들은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소중히 여기며 발전시킨 여러 교리들을 거부했다.
  1. 몸의 부활(참조, 마 22:23; 막 12:18; 눅 20:27; 행 4:1-2; 23:8)
  2. 영혼의 불멸성(참조, *유대 고대사* 18.1.3-4; *전쟁* 2.8.14)
  3. 천사의 세분화된 계급의 존재(참조, 행 23:8)
  4. 그들은 “눈에는 눈”(즉, *텍스 탈리오니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고 육체적 형벌과 사형제도(벌금형 대신에)를 지지했다
- 마. 신학적 논란을 가져온 또 다른 영역은 예정 대 자유의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요세푸스가 언급한 세 그룹의 사람들인
  1. 에센파는 일종의 결정론을 받아들였다
  2.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강조점을 두었다(참조, *유대 고대사* 13.5.9; *전쟁* 2.8.14)
  3. 바리새인들은 앞의 두 견해의 중간 입장을 취했다
- 바. 어떤 면에서 이 두 그룹(즉, 사두개인 - 바리새인)의 갈등은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갈등을 보여준다.

또 다른 종류의 갈등은 사두개인들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땅을 소유한 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들은 귀족들이었지만(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3.10.6; 18.1.4-5; 20.9.1),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학자였고 일반 백성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긴장은 예루살렘 대 전역에 있는 각 지역의 회당으로 대별되었다.

또 다른 갈등은 바리새인들의 신학에 영향을 미쳤던 조로아스터교를 사두개인들이 거부한 사실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그러한 신학의 예로서는 정교하게 발전된 천사론, 야웨와 사탄의 이원론, 사후세계를 강력하게 육체적인 용어로 이해한 점을 들 수 있다. 에센파와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과도한 견해는 사두개인들의 반대를 야기했다. 사두개인들은 다른 유대 종파의 사람들의 견해를 좌절시키기 위해 오직 모세의 글에 나타난 신학만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III. 정보를 주는 자료

- 가. 요세푸스는 사두개인들에 관한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요세푸스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헌신한 점과 또 그가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삶의 긍정적인 면을 그리는데 관심을 가진 사실은 그로 하여금 치우친 견해를 갖게 하였다.
- 나. 또 다른 자료는 랍비들의 글이다. 그런데 이 자료도 강한 편견을 분명히 드러낸다.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의 구전적 전통(즉, 탈무드)의 상관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글도 자기들의 반대자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과장하여(즉, 하찮은 사람, 혹은 책략을 사용하여) 묘사했다.
- 다. 사두개인들이 남긴 글로써 남아 있는 것은 없다. 주후 7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로 인해 제사장들의 모든 서류나 자료가 파괴되었다.

그들은 지역적인 안정을 추구했는데, 1 세기의 환경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에 협력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참조, 요 11:48-50).

20:28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이것은 신 25:5-10 을 가리킨다. 70 인역에서 이 부분은 “레비레이트혼”으로 대개 불린다. “레비레이트”라는 용어는 “레위 지파의”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시동생”을 뜻하는 레비르에서 왔다. 이 규정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상속에 대한 것이다(참조, 민 27:6-11; 룻 4:1-2). 요세푸스는 이 결혼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참조, *고대사* 4.8.23).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20:33 이 질문은 사후의 삶이 지상에서의 육체를 가진 삶을 흉내내는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개역개정 20:34-40

<sup>34</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sup>35</sup>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sup>36</sup>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sup>37</sup>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sup>38</sup>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sup>39</sup>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sup>40</sup>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20:34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의 아들들”은 셈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9:2의 특별주제: 이세상과 오는 세상을 보라.

20:35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 이것은 욥 14:7-15; 19:25-27; 단 12:1-2에 기초한 바리새인의 신학의 기본 교리를 나타낸다. 한편, 그들은 현재의 삶의 연속으로 이것을 이해했다. 예수께서는 새 시대가 이 세대의 사회구조와 다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결혼은 창 3장에 있는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구조를 이루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였다(참조, 창 1:28; 9:1,7).

▣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되 유대인(바리새인)의 신학적 틀 안에서 답하셨다. “~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이라는 구는 70 인역의 마카비 2서 13:12; 마카비 3서 3:21; 4:11; 마카비 4서 18:3에서 사용되었고, 헬라 문학에서도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것은 행위로 의롭게 됨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다. 신약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가르친다(참조, 행 13:46).

▣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자손을 낳는 일과 관련된 사회구조는 이 세상(세대)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구조이나 영적이고 영원한 영역에서는 이 일이 계속되지 않는다. 사회적 안정을 피하거나 자녀를 낳기 위한 결혼생활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 가족적 단위가 지속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대 가족으로서 우리는 친밀한 가족적 유대는 계속될 것이다!

20:36 “천사와 동등이요” 이 문맥의 강조점이 성생활이 없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상태에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20:36a). 나는 창 6:1-4; 유 6절; 예녹 1서에 기초하여 적어도 어떤 천사들은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잠정적으로 믿고 있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 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절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세 가지 주된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 이것은 경건한 셋의 계보를 의미한다(참조, 창 5장, 4:14의 설명을 보라)
  - 2. 이것은 천사적 존재의 무리를 의미한다
  - 3. 이것은 가인의 계보에 속한 왕들 또는 전체 군주를 의미한다(참조, 창 4장)
- 나. 이 구절이 셋의 계보를 의미하는 증거
  - 1. 창 4장과 5장에 곧 이어지는 문학적 문맥은 가인의 반역적 계보와 택함을 입은 셋의 계보의 전개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문맥상의 증거는 이것이 경건한 셋의 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운다.
  - 2. 랍비들은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 중 일부는 이 구절이 셋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대부분은 천사들이라고 주장한다).
  - 3.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비록 대부분의 경우 천사적 존재를 가르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드물게 인간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ㄱ. 신 14:1 -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자녀”
    - ㄴ. 신 32:5 - “하나님의 자녀”
    - ㄷ. 출 22:8-9; 21:6(아마도 레위 재판관)
    - ㄹ. 시 73:15 - “주의 아들들”
    - ㅁ. 호 1:10 -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 다. 이 구절이 천사적 존재를 의미하는 증거
  - 1. 이 관점은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이해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랍비들은 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초자연적인 악에 대한 또 하나의 예로써 창세기의 좀 더 큰 문맥이 이 관점을 지지할 것이다.
  - 2. 구약에서 천사들을 말할 때 복수형(“하나님의 아들들”)이 압도적으로 사용된다
    - ㄱ. 욥 1:6
    - ㄴ. 욥 2:1

- 다.   
 3.   
 4.   
 5.
- 라. 이 구절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왕들이나 전체군주를 의미하는 증거
1. 이 관점을 지지하는 여러 고대 번역이 있다.
  - ㄱ. 온켈로스의 탈군(주후 2 세기)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귀족의 아들들”로 번역한다.
  - ㄴ.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심마쿠스(주후 2 세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의 아들들로 번역한다.
  - ㄷ.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사용된다(참조, 출 21:6; 22:8; 시 82:1,6, NIV 성경과 NET 성경을 보라).
  - ㄹ. *네페림*은 창 6:4 에 있는 *깁보림* 과 연결된다. *깁보림*은 “용기와 힘과 부와 능력이 있는 용사”를 의미하는 *깁볼*에서 왔다.
2. 이 번역과 이것의 증거는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106-108 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 마. 두 용법을 지지하는 자들의 역사적 증거
1. 이 구절은 셋 족속을 의미한다
 

ㄱ.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ㄱ. 칼빈
ㄴ. 데오도렛	ㄴ. 카일
ㄷ. 어거스틴	ㄷ. 글리슨 아처
ㄹ. 제롬	ㄹ. 왓츠
2. 이 구절은 천사적 존재를 의미한다
 

ㄱ. 70 인역 저자들	ㄱ. 터틀리안	ㄱ. 올포드
ㄴ. 필로	ㄴ. 오리겐	ㄴ. 웨스터만
ㄷ. 요세푸스( <i>고대사</i> 1:3:1)	ㄷ. 루터	ㄷ. 웬함
ㄹ. 순교자 저스틴	ㄹ. 에발트	ㄹ. NET 성경
ㅁ. 이레니우스	ㅁ. 텔리취	
ㅂ.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ㅂ. 행스텐버그	
- 바. 창 6:4 의 “네페림”이 창 6:1-2 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음의 이론들을 보라:
1.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의 연합으로 생긴 거인들(참조, 민 13:33)이다.
2. 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창 6:1-2 사건을 기록할 때나 또는 그 이후에 지구상에 있었던 존재들을 단순히 언급한 것이다.
3. R. K. 해리슨의 *구약개론* 557 쪽에는 “*호모 사피엔스*와 아담 이전의 인종(이 구절이 포함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학자들이 동의할 만한)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매우 귀중한 인류학상의 통찰력을 전적으로 놓친 것”이라는 신비한 내용이 있다.
- 그(R. K. 해리슨)는 이 두 그룹을 인간에 가까운 다른 그룹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다고 나는 이해한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또한 *호모 에렉투스*로의 진화론적 발전을 의미할 것이다.
- 사. 이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본문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밝히는 것이 분명히 공정하다.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의 이 본문이 간략하고 모호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처음 모세의 말을 들은 청중은 부가적인 역사적 통찰력을 가졌음이 틀림없거나 또는 모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족장 시대로부터 내려 온 구전이나 기록된 전통을 사용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아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이 간략히 언급하여 모호한 내용에 호기심을 갖는다. 이런 것에서나 단편적인 성경의 내용에 기초하여 잘 정리된 신학을 세우려는 것은 불행하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지식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그것을 주셨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천사들과 인간들이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1. 구약에서 완전히 배제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구절이 천사들에게 계속 사용된다
2. 70 인역(알렉산드리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번역한다(주전 1 세기 말)

3. 위경적 목시록인 예녹 1 서(아마도 주전 200 년경에 쓰인)는 매우 특별하게 이것이 천사를 의미한다(참조, 6-7 장)고 말한다.
4. 이것은 신학적으로 뱀후 2 장과 유다서에 나오는 죄를 짓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과 연결된다.

나는 이것이 마 22:30 과 어느정도 대조된다고 보지만 이 특정한 천사들은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감옥(탈타루스)에 있다는 것을 안다.

5. 창 1-11 장에 나오는 많은 사건이 다른 문화에서 발견(즉, 비슷한 창조 이야기, 비슷한 홍수 이야기, 천사가 여자를 취하는 비슷한 이야기)되는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있었고 그 시기 동안 그들이 야웨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이후에 이 지식들은 왜곡되었고 다신적인 틀에서 각색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에 대한 좋은 실례는 타이탄으로 불렸던 반 인간/반 초인간인 거인이 탈타루스에 감금된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타루스라는 이름은 처소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를 잡아두는 장소로서 성경에서 오직 한번 사용(참조, 뱀후 2 장)되었다. 랍비들의 신학에서 하데스는 의인을 위한 곳(천국)과 악인을 위한 곳(탈타루스)으로 나누어졌다.

▣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들(하나님의 아들들, 참조, 70 인역의 창 6:2; 욥 1:6)이 하나님의 영역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듯이, 선택함을 받은 많은 수의 합당한 인간(부활함을 입은 신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함께 참여한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공교한 천사론을 사두개인들이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 진술은 다소 모순적 혹은 풍자적으로 보인다(예수께서도 그들의 천사론을 부인하셨지만, 천사들의 존재는 인정하셨다).

성경은 합당하지 않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도 말한다(참조, 단 12:2; 행 5:29; 24:15). 한 그룹의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고 또 한 그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원히 축복된 교제를 갖기 위해 부활한다.

20:37 “모세도 ... 주를 ...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 절은 출 3:6 의 인용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 이름은 “~ 이다”라는 동사에서 왔다. 1:68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20: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37 절에 나오는 족장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은 야웨의 언약적 관계가 계속되며 또 택함을 받은 이 가족이 죽은 후에도 그 관계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지구에 있는 생명적 존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참조, 롬 14:8).

구약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은 엘로힘(참조, 창 1 장)과 관련을 가지지만 영적 생명은 이스라엘(즉, 족장들)의 하나님이신 야웨와 관련을 가진다.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공휟하심을 아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진 자들 뿐이다. 구약에서는 이들을 ‘신실한 남은 자’로 일컫는다. 신약에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아를 영접한 자’로 규정한다. 이들은 부활로써 ‘의의 새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13:23 의 특별주제: 남은 자의 세 가지 의미를 보라.

20:39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논점을 완패시키심을 기뻐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음이 분명하다.

20:40 이 절은 19-26 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27-39 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강한 의미를 갖는 이중 부정이다. 아무도 예수께 어떤 신학적 질문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참조, 41-44 절).

개역개정 20:41-44

<sup>41</sup>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sup>42</sup>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sup>43</sup>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sup>44</sup>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20:41 예수께서 지금 그들에게 성경퀴즈를 하고 계시다!

▣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은 삼하 7 장과 사 11 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참조, 마 1:1; 롬 1:3). 그들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시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2: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시기에 군사적 지도자로서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림 때에 이사야 53 장에 기록된 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셨다(참조, 창 3:15; 시 22 편; 스펀 9 장; 요 3:17-18).

**20:42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이것은 70 인역의 시 110:1 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이 절에서는 “주님”을 뜻하는 두 용어가 나온다. 앞에 나오는 “주님”은 야웨를 번역한 말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주님”은 *아뎜*(주인, 주, 남편, ~님)을 번역한 말이다. 두 번째로 나오는 “주님”은 다윗의 씨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1:68 의 특별주제를 보라.

**20:43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은 신인동형적 구로서(1:5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우주에 편재하시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단어와 세상적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앉았으라”는 동양의 왕궁에 있는 보좌 및 위엄있는 통치자를 가리킨다. 하나님께는 보좌가 따로 없으시다(참조, 왕상 8:27).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를 조심하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 성경은 영적 실재를 베일을 덮은 형태로 묘사한다(참조, 고전 13:9-12).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신실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은유적 표현으로 묘사된 제한적 지식에 만족해야만 한다. 성경은 부정하는 표현(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심)과 비교 및 은유적 묘사로서 하나님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개념조차도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시다(또 이 점에 관한 한 여성도 아니심!)

**20:44** 예수께서 하신 질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메시아의 선재성(신성), 2: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의 인성, 참조, 1:32-33; 3:31

아무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사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상치 못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나 왕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덧입히신 사람을 기대했다.

메시아의 완전한 인성 및 신성과 관련된 이 주제는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제기한 신학적 주제의 핵심을 이루었다(참조, 골로새서, 에베소서, 요한 1 서, 목회서신). 요일 4:1-3 은 이 두 가지 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다!

구약(특히 단 7:13)은 이 진리에 대해 여러 암시를 준다. 다니엘서에는 사람의 아들(인간이심)이 옛부터 계신 이(야웨)로부터 영원한 왕국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온다. “사람의 아들”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은 예수께서 이 호칭을 왜 자신에 대하여 사용하셨는지를 설명한다. 시 110 편과 단 7:13 은 예수께서 눅 22:69 과 마 14:62 에서 대제사장에게 하신 답변과 관련을 가진다. 5:24 의 특별주제: 인자를 보라.

**개역개정 20:45-47**

<sup>45</sup>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sup>46</sup>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sup>47</sup>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0:46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것은 *프로스*(~를)와 *에코*(가지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로서 **현재 능동 명령**이다. 여기서는 이 단어를 *아포가* 뒤따라 사용되어 “~를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참조, 마 6:1; 7:13).

영적 지도자들(“서기관들”에 대하여는 5:21 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반드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일 및 교만한 영적 상태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해야한다. 이들은 매우 신실하고 또 아주 숭고한 동기를 가진 종교적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기준에 가진 관념과 자아 중심적 태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못하였다(참조, 6:39-40; 마 15:14; 23:16,24).

예수께서는 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일부 지적하신다:

1.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그들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긴 옷을 입는다, 46 절
2. 그들이 대중 앞에서 존경어린 문안을 받는 것과 높은 호칭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46 절
3. 그들이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한다(즉, 두루마리 옆에 있는 높은 단상), 46 절
4. 그들이 잔치의 윗자리 즉 주인과 같은 식탁에서 주인 바로 옆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46 절
5. 그들이 합법적이지만 비윤리적 방법으로 과부의 집과 유산을 속여 빼앗는다, 47 절
6.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와 경건함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이 길게 기도한다, 47 절.

이 말씀이 오늘날의 상황과 오늘날의 종교적 윤리에 대한 지적으로 들리기에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을 들을 수 없다!

**20:47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행함에 근거하여 천국과 지옥에서의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본문으로는 마 11:22,24; 눅 12:47-48 을 들 수 있다. 10:12 의 특별주제: 상과 벌의 등급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산헤드린의 예수께 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왜 요한이 베포 침례(세례)의 배경에 있는 권위가 중요한 사항이 되었는가?
2. 9-16 절에 있는 비유의 중심진리는 무엇인가?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3. 미국에서 왜 25 절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말하는가?
4. 36 절은 천국에 대해서와 성생활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 천국과 지옥에는 등급이 있는가?

# 누가복음 2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과부의 헌금	과부가 드린 적지만 정성어린 두 개의 동전	과부의 헌금	과부의 헌금	적지만 정성어린 과부의 헌금
21:1-4	21:1-4	21:1-4	21:1-4	21:1-4
미리 말씀하신 성전 파괴	예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다	미리 말씀하신 성전 파괴	예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다	성전이 파괴됨에 대한 말씀: 서론
21:5-6	21:5-6	21:5-6	21:5-6	21:5-7
징조와 박해	때의 징조와 마지막 세대	세상 끝에 대하여	어려움과 박해	
21:7-19	21:7-19	21:7-8  21:9-11  21:12-19	21:7  21:8-9  21:10-19	경고를 주는 징조들  21:8-11  21:12-19
미리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시다	포위됨
21:20-24	21:20-24	21:20-24	21:20-24	21:20-23  재난과 이방인의 시대  21:24
인자의 오심	인자의 오심		인자의 오심	우주적 재난과 영광스러운 인자의 오심
21:25-28	21:25-28	21:25-28	21:25-28	21:25-28
무화과나무의 교훈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교훈	그가 오시는 때
21:29-33	21:29-33	21:29-33	21:29-31  21:32-33	21:29-33
깨어있으라는 권고	깨어있음의 중요성		깨어있어야 할 필요	깨어있으라
21:34-36	21:34-38	21:34-36	21:34-36	21:34-36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
21:37-38		21:37-38	21:37-38	21:37-3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1-4  
<sup>1</sup>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sup>2</sup>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sup>3</sup>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sup>4</sup>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1:1-4 이것은 막 12:41-44 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다.

21:1 “헌금함” 이것은 “보화”와 “지키다”의 합성어이다(참조, 70 인역의 왕하 23:11; 예 3:9; 스 5:17; 6:1; 7:20). 유대인들의 전통(《세카림》6 [모에드에 나오는 네 번째 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5.5.2; 6.5.2; *고대사* 19.6.2; 알프레드 에텔샤임, *성전* 48-49 쪽)은 여인의 뜰에 쇠로 만든 나팔 형태의 상자가 13 개 있었다고 주장한다. 예수께서는 이 뜰에서 정규적으로 가르치셨다(참조, 20:1). 각 상자가 독특한 목적의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참조, 요 8:20). 이러한 금속 상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는 없다.

21:2 “어떤 가난한 과부”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특히 여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은 모든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헌금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두 렵돈” 이것은 유대인들이 렵돈으로 부르던 두 개의 동전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얇은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유대인의 동전이다. 15:8의 특별주제를 보라. 두 렵돈은 한 *콰드란트*에 해당하였고, 네 *콰드란트*는 한 *앗사리온*에 해당했으며, 16 *앗사리온*은 한 *테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한 *테나리온*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주석가들은 사람이 한 렵돈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종종 말하지만(랍비적 전통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의 탈무드를 오해하여 하는 말에 불과하다.

21:3 “참으로” 이것은 *알레소스*라는 헬라 용어로서(참조, 9:27; 12:44) 32 절에 나오는 *아멘*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막 12:43 에서는 *아멘*으로 나온다. 4:24의 특별주제: 아멘을 보라.

21:4	
NASB	“헌금에”
NKJV	“하나님을 위한 헌금에”
NRSV	“기여를 했다”
TEV	“그들의 선물을 드렸다”
NJB	“돈을 소비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선물을 집어 넣다”를 뜻하는데(**σ**, B, L 사본), 어떤 대문자체 사본(A, D, W) 및 대부분의 고대 역본은 “하나님의”란 단어를 추가하여 이것이 이방인을 위해 드리는 헌금인 것을 분명히 한다. UBS<sup>4</sup> 위원회는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에 대한 이같은 영적 원리가 고후 8:12 에 나온다. 신약이 정규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고후 8-9 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를 위해 이방인 교회가 일회적으로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십일조는 구약의 원리이다(11:42의 특별주제: 십일조를 보라).

▣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했다(참조, 마 6:33). 누가는 세상적인 소유와 부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많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12:21의 특별주제: 부를 보라). 헌금생활은 영적 온도계이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와 우선순위를 드러내 보여준다.

개역개정 21:5-6

<sup>5</sup>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sup>6</sup>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1:5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 . .을 말하며” 막 13 장(또한 마 24 장)에서 성전 건물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 말한 사람은 제자들의 핵심 그룹에 속한 이들로 나온다. 기드론 계곡을 건너 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들이 보고 앉았을 때 말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는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을 성전 안 곧 여인의 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성전은 주후 63 년에 이르러서야 완공되었다. 완공된 성전은 7년 후에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파괴당한다. 개축되고 확장된 이 국가적 성소는 구약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참조, 램 7 장) 유대인의 종교적 중심을 이루었다. 이 절에 대한 같은 설명이 마 13:1 및 마 24:1-2 에 나온다.

▣ “아름다운 돌과” 헤롯성전은 잘 다듬은 커다란 석회암(즉, *벛제*)로 건축되었다. 그 돌은 12m x 4m x 6m 에 달하는 크기였다(규빗은 45-53cm 입, 12:2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요세푸스는 *고대사* 15.11.3 에서 이 정보를 제공한다.



NASB	“봉헌 선물”
NKJV	“기증물”
NRSV	“하나님께 바친 선물”
TEV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
NJB	“봉헌물”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세나*로서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

1. 봉헌물(참조, 마카비 2 서 9:16)
2. 저주받은 물건(즉,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기에 거룩하게 되었고 따라서 인간이 사용할 수 없게된 물건, 참조, 신 7:26)

이러한 종류의 헌물에 속하는 한 가지 예는 헤롯이 아낌없이 드린 황금으로 된 큰 포도나무로서 이것은 성전 벽에 걸렸다. 그 포도는 사람의 키 만큼 컸다(참조, 요세푸스, *고대사* 15.2.3).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였다(참조, 시 80:8; 사 5:1-7).

21:6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철저한 파괴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씀은 주후 70 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일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겨진 돌들은 오늘날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들 뿐이다. 이러한 철저한 파괴는 마 3:12 및 램 26:18 에서 예언되었다.

개역개정 21:7-9

<sup>7</sup>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sup>8</sup>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sup>9</sup>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21:7 “그들이 물어 이르되” 막 13:3 에 의하면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2. 오고 있는 멸망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이 세대가 끝나며 새 시대가 시작되는 때는 언제인가(마 24:3 에만 기록됨)

누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강조점을 둔 반면 마태와 마가는 세상의 끝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누가가 즉각적으로 임할 임시적인 심판 사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 마태와 마가는 세상의 끝에 강조점을 둔다(재림, 심판의 날).

21:8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문장은 **현재 능동 명령과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 이 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와 로마전쟁(주후 60-70 년) 사이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국수주의적인 종교적 광신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게 한 요인이 되었다(참조,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6.54).

▣ “미혹” 이것은 *플라나*라는 헬라어 **동사**로서 이 단어에서 “행성”(planet, 즉, 떠돌아 다니는 물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별자리(별들)에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궤도를 갖는 행성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대개 “잘못”으로 번역되지만 은유적으로는 속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감을 나타낸다(참조, 마 24:4,5,11,24).

▣ “내가 그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언약적 이름(참조, 출 3:14; 1:68의 특별주제를 보라)을 예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신 경우에 속한다(참조, 요 8:24,58; 13:19; 18:5). 여기서서는 자신이 신 18:18-19에 기록된 바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거짓 메시아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바 지연된 재림에 대한 또 하나의 예가 된다.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루살렘의 멸망 사이의 시기를 가리킨다.

▣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디포) 가정법이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막 13:7은 현재 명령임). 이것이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였다. 열광적인 큰 무리가 이 거짓 메시아들을 따랐다.

21:9-11 이 일들은 어느 세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조적 징조이다. 이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떠한 지를 나타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만 독특하게 있는 일은 아니다(참조, 존 L. 브레이, 성취된 마태복음 24 장, 25,28 쪽).

21:9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이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또 하나의 경우이다. 이것은 또한 70 인역에서 취한 관용적 표현이다.

개역개정 21:10-11  
<sup>10</sup>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sup>11</sup>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1:9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전조적 사건들을 “새 시대가 태어남에 따른 극심한 고통의 시작”으로 부른다(참조, 막 13:7-8).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타이*(반드시)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필요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남을 알고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오늘날 이러한 나쁜 사건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있기 보다 오늘날의 통신 수단에 의해 사건들이 신속히 전달됨에 있다.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 재앙이나 전쟁일지라도 우리가 거의 즉각적으로 알고 있다.

21:11  
NASB “공포”  
NKJV “무서운 광경들”  
NRSV “두려운 전조들”  
NJB “무서운 사건들”

“두려움”을 가리키는 이 형태의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단어는 70 인역의 사 19:17에서 사용되었다.

▣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사건을 나타내는 구약의 묵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막 13:25). 베드로는 요엘 2:28-32의 예언(이것도 묵시적 용어로 되어 있다)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한다(참조, 행 2 장). 그의 설명은 그가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참조, D. 브렌트 샌디, *쟁기의 날과 전정용 낫: 예언과 묵시에 사용된 성경의 용어를 다시 생각함*).

헬라어 사본에는 이 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이는 이 문맥에 있어서 구의 의미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5 가지의 변이 가운데 어느 것이 원래의 본문이라고 결정을 내릴 길이 없다.

개역개정 21:12-19  
<sup>12</sup>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sup>13</sup>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sup>14</sup>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sup>15</sup>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sup>16</sup>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sup>17</sup>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sup>18</sup>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sup>19</sup>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1:12 사도행전과 교회사에는 신자가 이러한 종류의 박해를 받은 일에 대하여 많은 기록이 있다. 박해의 종류가 다름을 주목하라(즉, “~을 붙잡다,” 70 인역의 관용적 표현).

1. 회당 - 모세의 율법이나 법정의 결정을 어김에 대하여 매질함(참조, 신 25:1-3; 마 19:17; 23:34; 막 13:9; 행 6:9-10)
2. 각 지역에 있는 정부 관리(즉, 헤롯의 여러 아들)

3. 로마 관리(총독 혹은 행정관리)
  - ㄱ. 지역의
  - ㄴ. 로마에 있는

NASB 연구성경(12 절의 각주, 1503 쪽)은 회당이 재판이 있기 전까지 사람을 가두워 두는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한다.

**21:13** 박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의 바울). 이 절에 있어서 누가가 마가복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음이 놀라운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즉, 막 13:10,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21:14-15** 이것은 규칙적으로 설교와 성경공부를 준비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박해와 재판에 직면하여 정부 관리들 앞에서 행할 특별한 증언에 대한 말씀이다(참조, 12:11-12).

**21: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가족 및 죽마지우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올 것이다(참조, 마 10:21; 막 13:12).

**21:17**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것은 **우회적 미래 수동**이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과장법(과장)에 속함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이 나사렛 예수와 같은 편에 섭을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1) 무신주의 (2) 반역 (3) 근친상간 (4) 식인풍습 등의 이유로 비난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의 교회와 용어 및 예배 절차를 오해함에서 생긴 비난이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박해는 신자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신약적 증거이다.

**21: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강한 **이중 부정**이다. 18 절의 내용이 16 절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기서의 주된 관점이 (1)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2) 육신의 죽음은 신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사항이 아님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박해에 대한 이 구약의 관용적 표현(참조, 삼상 14:45; 삼하 14:11; 왕상 1:52)을 이전의 설교에서 사용하셨다(참조, 12:7; 마 10:30).

▣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폴뤼미*라는 헬라어 용어이다. 19:10의 특별주제를 보라.

로버트 B. 거틀스톤(*구약의 동의어*, 276 쪽)은 이 용어를 멸망으로 번역할 수 없고 “어떤 물건을 상하게 하여 사실상 원래 목적에 소용이 없게 되는 일”을 가리키는 여러 경우를 제시한다.

1. 기름을 허비함, 마 26:8
2. 낡은 포도주 부대가 땅가짐, 마 9:17
3. 머리털이 상함, 눅 21:18
4. 음식이 상함, 요 6:27
5. 금이 없어짐, 뱀전 1:7
6. 세상이 망함, 뱀후 3:6
7. 육신이 망함, 마 2:13; 8:25; 12:14; 21:41; 22:7; 26:52; 27:20; 롬 2:12; 14:15; 고전 8:11

이 단어는 결코 사람의 멸망을 뜻하지 않고 단지 육신적 존재의 마침을 뜻한다. 이 단어는 보통 도덕적 개념을 가진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여겨졌다. 즉 각 민족이 부르심을 받은 바 목적(의도)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패했다”(276 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셨다(참조, 요 3:15-17 및 뱀후 3:9).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이제 더 큰 멸망 곧 몸과 영에 미치는 멸망을 받게 된다(참조, 고전 1:18; 고후 2:15; 4:3; 살후 2:10). 이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에 관하여는 휘지의 *삼키는 불*을 보라.

**21:19** 인내에 대해 36 절에서도 이같은 강조를 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다! 8:13의 특별주제: 인내를 보라.

이 **동사**에 있어서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1.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명령**(참조, **8**, D, L, W 사본)
2. **미래 중간태 직설법**(참조, A, B 사본 및 대부분의 고대 역본)

UBS<sup>4</sup>는 1 항을 지지하지만 이에 대해 “확증하기 어려움”(“C”등급)을 준다. UBS<sup>3</sup>은 1 항에 D 등급(“확증하기 아주 어려움”)을 주었다.

▣ “**너희 영혼**” 이것은 *프뤼케*(*혼*)라는 헬라어 단어로써 히브리어의 *네페스*(BDB 659, 즉 육신의 생명)를 반영한다. 16 절을 고려할 때 이것은 사람의 영적 생명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참조, 마 10:28). 막 8:35-37에서 두 가지 의미와 관련된 언어유희를 보라.

개역개정 21:20-24

<sup>20</sup>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sup>21</sup>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sup>22</sup>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sup>23</sup> 그 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젓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sup>24</sup>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1: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베스파시안은 네로의 장군으로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 그러나 네로가 죽은 지 일 년도 못되어 세 명(갈바, 오토, 비트렐로)이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로마로 돌아가야 되었다.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주후 70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멸망시켰다. 이 일은 예루살렘을 포위한지 5 개월이 지난 4 월 초에 일어났는데, 당시 이 도시는 순례자들로 넘쳤다.

21: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전통(유세비우스, *교회사* 3.5.2-3)에 따르면 로마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도시인 벨라로 도피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하는 무서운 일을 피하였다고 주장한다.

21:23 이것은 재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뜻함이 분명하다. 급히 도망하여야 함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을 묶어서 다루고 계시다.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이같은 평행법이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음도 주목하라. 23 절과 24a 절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평행구절을 제시하고 있다.

21: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요세푸스는 1,100,000 명이 죽임을 당했고 97,000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한다(*유대 전쟁사* 6.9.3). 요세푸스가 종종 숫자를 과장하여 제시하지만, 이 사건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는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

▣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노예로 로마제국 곳곳으로 팔려갔다(패배한 모든 민족들의 경우처럼). 로마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2/3 가 노예였다.

▣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구에 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참조, 20:16; 막 13:10; 롬 11:12,25).

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방인
2. 팔레스타인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이방인
3.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축복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이방인 신자
4.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됨

개역개정 21:25-28

<sup>25</sup>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sup>26</sup>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sup>27</sup>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sup>28</sup>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1:25-26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들어오심에 대한 구약의 묵시적 표현이 사용된 또 하나의 경우에 속한다. 베드로가 행 2 장에서 욥 2:28-32 의 내용을 사용함에 비추어 볼 때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11 절에 대한 설명을 보라.

21:25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묵시문학은 구약의 지혜문학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진다. 이 문맥에는 동의어적 평행법이 나타난다. 민족들에 대해 사용한 바다라는 은유적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왔다(참조, 7:2-3).

21:26 “세상에 임할 일을” 이 구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알려진 세계를 가리킨다.

▣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여러 본문을 가리킨다: 13:10,13; 24:22; 34:4; 51:6. 이 회화적 표현에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된다.

1. 만일 이것이 별신들에 대한 문맥이라면 이 표현은 그들의 사악함과 이에 대한 심판을 가리킬 것이다.
2. 만일 이것이 야웨의 오심을 뜻하는 문맥이었다면(또 그러한 문맥이라면) 이 표현은 창조자께서 다가오심으로 인해 피조물이 일으키는 경련을 가리킨다.

21:27 “그 때에 사람들이 ~을 보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은 비밀스러운 휴거를 지지하지 않는다.

▣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5:24의 특별주제를 보라)는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신 호칭이다. 이 호칭은 겔 2:1 및 단 7:13에서 왔음이 분명하다. 두 본문은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묶어 제시한다(참조, 마 17:5). 구름에 대한 이곳의 언급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동수단으로써 구름을 암시하는 것과 일치한다. 종말에 있을 중요한 여러 사건에 구름이 나온다(참조, 마 24:30; 26:64; 살전 4:17; 계 1:7).

**특별주제: 구름을 타고 오심**

이 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매우 중대한 종말론적 표시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세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영광의 *쉐키나* 구름(참조, 출 13:21; 16:10; 민 11:25)
2.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기 위해(참조, 출 33:20; 사 6:5)
3. 하나님의 이동수단으로써(참조, 사 19:1)

단 7:13에서 구름은 인간이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신약에서 30번 이상 암시된다. 메시아와 하늘의 구름이 연관된 같은 내용을 마 24:31; 막 13:26; 눅 21:27; 14:62; 행 1:9,11; 살전 4:17에서 볼 수 있다.

21: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막 13장, 마 24장, 눅 21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다음의 사람을 격려하시기 위함으로 보인다

1. 예수의 죽으심과 예루살렘의 멸망 사이의 시기에 사는 신자들
2. 모든 세대에서 핍박을 받는 신자들
3.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세대(참조, 살후 2장과 요한계시록)

이 내용은 박해받는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에 대한 상당히 문자적 성격의 예언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를 명시하기는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함이지 분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것은 둘 다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신자가 핍박과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용기를 내는 일은 두려움으로 떠는 불신자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된다(참조, 25-26절).

▣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29-36절의 내용은 28절에 있는 약속에 기초한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커다란 확신을 가짐을 나타낸다.

▣ “속량” 이것은 “사서 놓아줌”을 뜻한다(복음서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롭게 행하심을 나타내는 구약의 용어로서 자주 사용되었다. 1:68의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를 보라.

▣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마 24:32-33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마 24:32-35과 막 13:28-32에 나오는 비유는 눅 21:29-33에서도 나온다.

**개역개정 21:29-33**

<sup>29</sup>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sup>30</sup>씨가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sup>31</sup>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sup>32</sup>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sup>33</sup>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1:29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이것은 마 24:32-35과 막 13:28-31에도 기록되었다. “그리고 모든 나무”라는 이 짧은 구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내용으로서 전 세계에 대한 경고로 확대하고 있다. 예수께서 정확히 언제 오실지를 신자가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 대략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있다(참조, 30-31절).

21:31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종말적인 왕국을 가리킨다. 4:21의 특별주제를 보라.

NASB	“인식하라”
NKJV, NJB	“알라”
NRSV	“네가 안다”
TEV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알다”의 어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현재 능동 명령 (NASB, NKJV, NJB)
2. 현재 능동 직설법 (NRSV, TEV)

▣ “가까이 온 줄을” 신자는 예수께서 오시는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모르신다(참조, 마 24:36). 그들은 이 일로 놀라게 될 것이지만(참조, 마 24:44) 그들은 그 계절에 대해 알기 때문에(마 24:32-35; 막 13:28-31) 이에 대해 준비한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개념은 2,000 년의 간격을 인해 해석가들에게 어려움이 되었다. 계 1:1 에서 가져 온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곧 오심**

“때가 가까움”의 개념에 대하여는 계 1:3; 2:16; 3:11; 22:7,10,12,20 의 본문을 비교하라. 이것은 구약의 단 2:28,29,45 절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요한이 구약을 한 번도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 대한 암시를 여러 곳에서 나타낸다. 전체 404 절 가운데 275 절은 구약적 배경을 가진다. 번역가들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대한 자신들의 신학적 전제를 인해 이 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 가. 갑자기
- 나. 한 번 시작된 일이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 다. 곧 시작됨
- 라. 반드시 일어난다
- 마. 임박하여

계 22:7,12,20 에 나타난 이 용어의 용법은 요한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이 일들이 신속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음을 나타낸다(3 절 및 10:6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 책을 기록한 시기와 우리가 사는 시대 사이에 2,000 년의 간격이 있기에 많은 이들은 요한이 틀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일이 신속히 일어날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구약 예언의 전형적인 용법으로서, 현재의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사야와 에스겔이 회복된(포로기 이후의) 유다로써 또 다니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IV 세를 언급함으로써 종말(마지막 날들)을 묘사하였듯이 요한은 제 1 세기의 로마를 사용하여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의 새 시대가 도래함은 모든 세대에 있는 신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준다. 22:6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D. 브렌트 샌디의 책(*쟁기의 날과 전정용 낫*, 101-102 쪽)을 보라. 예언서에서 심각성과 예상치 못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에 대하여는 173-175 쪽을 보라.

21: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아멘”이다. 이것은 3 절에 나오는 관용적 표현과 평행을 이룬다. 4:2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강한 이중 부정이다. 이 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두 가지의 주된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이것은 특별히 주후 70 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
2. 이 구는 구약에서 한 백성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신 32:5,20)

두 가지 다 참이며 이 문맥에 들어 맞는다.

21:33 이것은 또 하나의 강한 이중 부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영원성을 강하게 입증하는 말씀이며(참조, 사 40:8; 55:11) 16:17 및 마 5:18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신자들은 조건적이지 않은 이 진리를 신뢰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성품
2. 하나님의 약속
3. 하나님의 아들
4. 하나님의 임재
5. 하나님의 목적

마 5:18 의 비슷한 표현에 나타난 강조점을 주목하라. 마태복음의 본문은 이제 예수의 말씀이 구약을 대치하였음을 나타낸다(참조, 21-48 절)!

**개역개정 21:34-36**

<sup>34</sup>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sup>35</sup>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sup>36</sup>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21:34 “조심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고의 말씀이며(참조, 12:40,45; 막 4:19; 마 24:42-44)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1. 준비하라
2. 경계하고 있으라
3. 나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 **“마음”** 1:51의 특별주제: 마음을 보라. 이 문맥에서 “너희”와 “마음”은 평행을 이룬다.

▣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긴장으로 가득찬 순례의 삶이다. 많은 신자가 이 세대의 유희와 염려로 인하여 자신의 증거와 효과적인 사역에 손상을 입었다. 구원은 갈등의 끝이 아니다. 여러 경우에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막 4장과 마 13장에서 평행 본문으로 나오는 밭의 비유는 단지 최초의 반응(씨를 킁) 뿐 아니라 열매맺음과 인내의 필요를 말하는 충격적인 가르침이다. 구원은 지속적인 관계이지(참조, 마 10:32; 막 13:13) 천국행 표나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아니다! 매일의 선택은 마음상태와 참된 자아가 어떠한지를 드러낸다. 신실함과 인내는 거저받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8:31의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를 보라.

▣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은 하나님께서 축복 혹은 심판을 위해 임하심을 말하는 구약의 관용적 표현이다. 아래에 있는 8 세기의 예언서에 관한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그 날**

“그 날” 혹은 “그 날에”라는 이 구는 8 세기의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임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1:11	1:5		1:14 (2)		2:4
	2:3		2:16		3:6
2:15			3:14	4:6	
2:16			5:18 (2)		5:10
2:21	3:18 (2)		5:20		7:4
	5:9		6:3	7:11 (2)	
	7:5		8:3	7:12	
	9:5		8:9 (2)		
	10:14		8:10		
		9:11	8:13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행동을 취하시려고 하신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자들에게 회개와 용서함의 날을 주신다! 구속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백성을 갖게 되신다. 창조의 목적(하나님과 인간의 교체)이 성취될 것이다!

**21:35** 이것은 70 인역에서 사 24:17에 대한 암시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절의 구분은 약간 변경되었다.

재림(“그 날,” 34 절)은 산 자 및 죽은 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삶에 대해 아뢰게 될 것이다(참조, 마 25:31-46; 고후 5:10; 계 20:11-15).

이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부활과 재결합과 기쁨의 날이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날은 어두움과 거부당함과 영속적인 심판(분리)의 날이다.

**21:36 “항상 . . . 깨어 있으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을 뜻하는 **현재 능동 명령**이다(참조, 막 13:33; 엡 6:18). 이 절은 나에게 엡 6:19을 상기시킨다. 하루의 임금이 지불될 것이다!

바울은 고후 6:5과 11:27에서 이 용어의 형태를 사용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설명하고 있다.

▣ “기도하며” 이것은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현재 중간태(디포) 분사이다. 누가는 다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1. 탄원하다 혹은 기도하다, 5:12; 8:38; 10:2; 21:36; 22:32; 행 4:31; 8:22,24; 10:2
2. 구걸하다, 8:28; 9:38,40; 행 21:39; 26:3
3. 제발 말하라, 행 8:34

이 의미가 모두 70 인역에 나온다.

▣

NASB, NRSV	“너희가 피할 힘을 갖기 위하여”
NKJV	“너희가 피하기에 적합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TEV	“너희가 안전하게 지나갈 힘을 가지게 되어”
NJB	“피할 힘을 위해”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절(히나)이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만일의 경우를 나타냄) 및 부정과거 능동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어떤 신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급격히 나타날 때에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갖고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참조, 고전 3:10-15; 고후 5:10).

이 구에 있어서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1. 카타시오세태(부정과거 수동 가정법), “적합한 자로 판단/여김 받도록(참조, A, C, D 사본)
2. 카티스퀴세태(부정과거 능동 가정법), “힘을 가지도록(참조, **8**, B, L, W 사본 및 UBS<sup>4</sup>에서)

개역개정 21:37-38

<sup>37</sup>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sup>38</sup>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21:37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는 숨거나 자신의 공개적 사역을 줄이지 않으셨다(참조, 20:1).

▣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여러 번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신 일 및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서 항상 머물지 않으신 것임을 나타낸다. 이 장소를 유다가 잘 알고 있어 그가 예수를 잡는 장소가 되었다.

21:38 이것은 유월절에 온 순례자 및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예수께 대한 인기가 많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대중적 인기는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두려워하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는 1-4 절에서 청지기직에 대하여 어떠한 영적 진리를 주시는가?
2. 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 그렇게 많이 금지를 가졌는가?
3. 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섞여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4. 25 절에 있는 바 “이방인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무엇에 있는가?
6. 34-36 절은 신자에 대한 내용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 적용점은 무엇인가?

# 누가복음 2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22:1-6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22:1-6	예수의 죽음 (22:1-23:56) 22:1-2	예수를 해하려는 음모 22:1-2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에 동의하다	예수를 해하려는 공모: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다 22:1-2
유월절의 준비 22:7-13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다 22:7-13	최후의 만찬 22:7-13	예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하려고 준비하시다 22:7-8 22:9 22:10-12 22:13	유월절 식사의 준비 22:7-13
성만찬 예식 22:14-23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다 22:14-23	22:14-23	성만찬 22:14-16 22:17-18 22:19-20 22:21-22 22:23	만찬 22:14-16 22:17-18 성찬 제도 22:19-20 유다의 배반을 미리 말씀하심 22:21-23
위대함에 대한 논란 22:24-30	제자들이 위대함에 대한 논란을 벌이다 22:24-30	22:24-27 22:28-30	위대함에 대한 논쟁 22:27 22:28-30	누가 큰 자인가? 22:27 사도에게 상을 약속하심 22:28-30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심 22:31-34	예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다 22:31-34	22:31-34	예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다 22:31-32 22:33 22:34	베드로가 부인할 것과 회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심 22:31-34
지갑, 자루, 칼 22:35-38	손지갑, 자루, 칼 22:35-38	22:35-38	지갑, 자루, 칼 22:35a 22:35b	위기의 때 22:35-38

			22:36-37	
			22:38a	
			22:38b	
감람산에서의 기도	정원에서 기도	갓세마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감람산
22:39-46	22:39-46	22:39-46	22:39-40	22:39-40
			22:41-44	22:41-44
			22:45-46	22:45-46
예수께서 배반당하고 잡히심	갓세마네에서의 배반과 체포		예수께서 잡히심	잡히심
22:47-53	22:47-53	22:47-53	22:47-48	22:47-51
			22:49-50	
			22:51	
			22:52-53	22:52-53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슬프게 울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베드로의 부인
22:54-62	22:54-62	22:54-62	22:54-56	22:54-62
			22:57	
			22:58a	
			22:58b	
			22:59	
			22:60a	
			22:60b-62	
예수를 모욕하고 때림	모욕과 매를 맞으신 예수		예수께서 모욕과 매를 맞으시다	경미병에게 모욕받으신 예수
22:63-65	22:63-65	22:63-65	22:63-65	22:63-65
산헤드린 앞에 서신 예수	예수께서 산헤드린 앞에 서시다		산헤드린 앞에 서신 예수	산헤드린 앞에 서신 예수
22:66-71	22:66-71	22:66-71	22:66-67a	22:66-23:1
			22:67b-69	
			22:70a	
			22:70b	
			22:7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고전 11:20 이하는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 최초로 기록된 내용이다. 이것을 바울이 기록했다. 누가는 여러 면에서 바울이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나. 주님의 만찬시 있었던 대화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요 13-17 장에 나온다. 여기에는 식사에 관한 실제적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다. 이 장의 17-20 절과 43-44 절에 있는 본문과 관련하여 커다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의 설명을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2:1-2

<sup>1</sup>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sup>2</sup>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22:1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 두 명절은 출 12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유월절, 1-14 절, 21-36 절; 무교절, 15-20 절). 원래 이것은 별개의 절기였지만 후에 니산(3 월-4 월)월의 14 일에 시작되는 8 일간의 한 가지 절기로 합해졌다(참조, 민 28:16-31).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유대인 노예들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일 및 창 15:12-21 에 약속된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해내신 일을 기념한다.

22: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최고법정인 산헤드린을 가리킨다. 9:22 의 특별주제: 산헤드린을 보라.

▣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1. 이단적이고
2. 로마와의 문제를 야기시키며(참조, 마 26:5)
3.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느끼게 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죽이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언급한다(참조, 7:30,44; 8:59; 10:31,39; 11:53)

▣ “죽일까” “죽음”(아나이레오)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기 위해 누가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참조, 22:2; 23:32; 행 2:23; 5:33,36; 7:28; 9:23,24,29; 10:39; 12:2; 13:28; 16:27; 22:20; 23:15,21, 27; 25:3; 26:10). 이러한 용법은 70 인역에서도 나타난다(참조, 창 4:5; 출 15:9; 삼하 10:18).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아폴뤼미 혹은 아포크테이노를 사용하여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세운 살인계획에 대해 말한다.

신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 누가는 주로 아랍어를 사용했던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른 어휘를 사용했다. 누가는 구약의 헬라이어 번역인 70 인역의 용어와 어휘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마 21:26,44; 막 11:18,32; 12:12; 눅 20:19).

개역개정 22:3-6

<sup>3</sup>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sup>4</sup>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매 <sup>5</sup>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sup>6</sup>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22:3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는 사탄에 대해 종종 언급한다(참조, 4:13; 10:18; 13:16; 22:3,31). 유다가 수 년 동안 아주 가까워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으며 또 주님을 관찰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써 갖는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전혀 가지지 못했음이 분명하다(참조, 마 7:21-23). 베드로도 유다처럼 강한 유혹을 경험했지만 아주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유다가 배반한 동기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1) 주로 돈에 대한 동기에서였다(참조, 요 12:6) (2) 주로 정치적인 동기에서였다(참조, 윌리엄 클라센, *유다는 예수의 배반자인가? 친구인가?*) (3) 이것은 영적인 일이었다(참조, 요 13:27).

사탄의 영향 혹은 귀신들림의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좋은 자료가 있다(내가 신뢰하는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1. 메릴 F. 영거, *성경의 귀신론,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의 귀신*
2. 클린톤 E. 아놀드, *영적 전쟁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
3. 쿠르트 코흐, *기독교 상담과 신비주의, 귀신론의 과거와 현재*
4. C. 프레드 디카슨, *귀신들림과 그리스도인*
5. 존 P. 뉴포트, *귀신, 귀신, 귀신*
6. 존 워윅 몽고메리, *권세자들과 능력자들*

내가 4:2(사탄)과 4:33(귀신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주제도 보라.

문화적 신화나 미신들을 조심하라. 사탄은 마 16:23 에서 이와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영향을 주어 예수를 시험하게 했다—그로 하여금 대속의 죽으심을 피하도록. 사탄은 여전히 그러하다. 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예수의 대속적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려 들고 있다.

1. 사탄이 예수를 시험함, 눅 4 장; 마 4 장
2. 베드로, 마 16 장
3. 유다와 산헤드린, 이곳

예수께서는 요 6:70 에서 유다를 악마로 말씀하기까지 하셨다. 성경은 귀신들림 및 그것이 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자가 자신이 하는 선택 및 개인이 행하는 악에 의해 영향을 받음이 분명하다!

▣ “가롯인”

특별주제: 가롯

이 단어의 어원은 약간 불명확하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1. *케리웃*, 유다의 성읍(참조, 수 15:25)
2. *카르탄*, 갈릴리의 성읍(참조, 수 21:32)
3. *카로이테스*, 예루살렘이나 예리고에 있는 대추 야자 숲
4. *스코테아*, 앞 치마 혹은 가죽 가방(참조, 요 13:29)
5. *아스카라*, 교살하다(히브리어), 마 27:5 에서
6. 암살자의 칼(헬라어), 이 뜻은 그가 시몬처럼 열심당이었음을 말한다(참조, 눅 6:15).

▣ “열둘 중의 하나인” 이들은 예수께서 택하신 특별한 제자들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친밀하게 드러내셨고 또 그들을 “새 이스라엘”이 되도록 훈련하셨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은 로버트 쿨만의 *주님의 전도계획*이다. 이들은 “열둘”로 알려지게 되었다. 6: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4 “성전 경비대장들”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찰을 가리킨다. 레위인의 한 무리는 경비업무와 질서를 유지하는 일과 성전의 지경에서 처벌을 가하는 일을 담당했다. 제사장들이 성전 자체를 경비했지만 성전 경비대(우리는 필로, *De Specialibus Legibus*[Loeb 7,1.156]의 글을 통해 알고 있다)는 다음의 일을 감당했다

1. 성전 지역의 외곽 문들을 열고 닫는 일
2. 이방인의 딸과 여인의 딸 사이에 있는 문을 지키는 일
3. 이방인의 딸로 알려진 상업지역을 순찰하는 일

밤에는 성전 주위에 21 명의 경비원이 지켰다(M. M. dd. 1.1).

그들은 대개 성전에서 모임을 가진 산헤드린의 지휘를 받았다. 그들은 주로 다음의 일과 관련하여 언급된다

1. 관리들 혹은 부하들, 요 7:32,45,46; 18:18
2. 예수를 잡음, 요 18:3,12

3. 밤에 행한 재판, 요 18:18,36
  - ㄱ. 베드로가 부인할 때, 마 26:58; 막 14:54,65; 요 18:18
  - 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으실 때에, 요 19:6
4. 사도행전 4:1; 5:22-26; 21:30 에서

22:5 “그들이 기뻐하여” 그들은 이제 순례자들이나 시민들이 모르게 은밀히 일을 진행하되 신중을 기하면서도 신속히 예수를 체포할 수 있게 됨을 인해 기뻐했다(참조, 6 절).

▣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우리는 마 26:15 을 통해 그 금액이 은 30 개임을 안다. 이것은 속 1:2 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22:6 “예수를 . . .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을 지키는 밤은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특별히 거룩한 저녁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다.

▣ “우리가 없을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매우 저명한 인물이었고 또 이 절기에 수 만명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바로 이 사실은 왜 대제사장이 막 14:2 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했는가를 설명한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배반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때 그들은 계획을 바꾸었다.

**개역개정 22:7-13**

<sup>7</sup>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sup>8</sup>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sup>9</sup>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sup>10</sup>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sup>11</sup>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sup>12</sup>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sup>13</sup>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22: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정확히 어떤 날에 주님의 만찬이 행해졌는지에 대해 공관복음(유월절)과 요한복음(예비일, 참조, 출 12:6; 요 13:1; 18:28) 사이에 연대기적 차이가 나타난다. 유대인의 하루가 창세기 1 장을 인해 저녁에 시작됨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날은 네 복음서 모두 금요일로 일치하여 말한다. 만일 우리가 음력을 역산하면 예수님 당시인 주후 30 년 니산월 제 14 일(참조, 레 23:5-6)은 목요일에 또한 니산월의 제 15 일은 금요일에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2: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누가만 준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다. 대개의 경우 야고보가 이 사도의 핵심그룹에 포함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 “가서 . . . 준비하여” 이것은 분사가 명령 앞에서 사용된 관용적 용법의 좋은 예이다. 둘다 명령의 의미를 가진다(참조, 마 28:19).

이 준비는 니산월 제 14 일 오후에 행해졌을 것이다. 그 식사를 그 날 밤(니산월 제 15 일)에 먹었을 것이다.

▣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이 그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유대의 배신으로 인하여 식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 하신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22:10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대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갔지만, 때때로 남자들도 짐승가족으로 만든 부대에 물을 담아 날랐다. 이것은 복음서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예 가운데 하나이다: (1) 예수님의 초능력적 지식 (2) 미리 예약해 놓은 환경. 예루살렘 사람들 및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제 기간에 순례자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개방하였다.

22: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것은 요한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회합장소가 되었고 다락방으로 알려졌다(참조, 행 12:12).

▣ “객실” 2:7 의 설명을 보라. 그곳에서는 “여관”으로 번역되었다.

개역개정 22:14-23

<sup>14</sup>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sup>15</sup>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sup>16</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sup>17</sup>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니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sup>18</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sup>19</sup>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니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sup>20</sup>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sup>21</sup>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sup>22</sup>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시니 <sup>23</sup>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2:14 “때가 이르매” 이 시간은 니산월 제 15 일이 시작되는 황혼이었을 것이다.

▣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주님의 만찬이 다른 유대인의 모든 식사처럼 발굽 모양의 낮은 탁자를 중심으로 왼쪽 팔꿈치에 기대어 앉아 하는 식사였음을 기억하라.

22:15 이 절에 두 가지의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1. “원하고(*επιθυμια*) 내가 원하였노라(*επεθύμησα*),” 이것은 70 인역에서 “강하게 소원했다”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된 말이다
2. “유월절”(파스카)와 “고난”(파스코)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문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잔혹한 로마의 형벌(십자가형)을 받게 됨을 여러 번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참조, 9:22-27; 막 8:31-9:1; 마 16:21-28; 17:9,12,22-23; 20:18-19).

22:16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중 부정으로서 유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대한 내용으로 여겨진다(참조, 18,30 절; 14:15; 마 8:11; 26:29; 계 19:9).

친밀한 교제에 대한 이 은유적 표현은 해석하기 어렵다. 이것은 명백히 식탁에서의 교제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교제는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한편,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부활한 몸은 육신의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관용적 표현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이 개념을 지상에서의 육체적 용어로 이해하게 만들었다(이슬람도 그러하다). 인간이 사후 세계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 상징적이고 관용적이며 유추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아마도 고전 2:9(이 본문은 사 64:4 과 65:17 의 인용임)이 이에 대해 가장 상세히 말한다!

▣ “하나님의 나라” 4: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17-20 이 본문에 있어서 사본적인 변이가 나타난다. 긴 본문(17-20 절)이 NASB, NRSV, NJB, NKJV, TEV 에 기록되어 있다. 이 본문은 KJV 역이 주로 기초로 하고 있는 D 사본에는 없지만, 네 개의 중요하면서도 가장 오래된 사본(P<sup>75</sup>, X, A, B)에 들어 있으며 순교자 저스틴이 주후 150 년경에 인용한 내용에 나온다.

짧은 본문(17-19a 절)에서는 포도주가 빵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순서는 고전 10:16 의 순서와 같다(또한 디다케 9:1-3 과도 같다). 만일 긴 본문을 따른다면 그 순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전 11:23-27 에 나온 것과 반대로 되어 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다른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브루스 M. 메즈거의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 173-177 쪽
2. 바르트 D. 에흐만의 *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198-209 쪽

이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기독교 교리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평행본문을 인하여), 단지 누가복음에서 저자의 저작목적과 개인적 특이성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더 적합한 본문인지에 관계될 뿐이다. 본문비평의 단계는 어떤 것이 누가 처음에 기록한 원본(최초로 손으로 쓴 원본)인지를 결정지를 여지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 두 형태 모두 제 2 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22:17 “잔” 유월절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축복의 잔의 순서가 네 번 있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축복의 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행하던 식사에서 교회가 행하는 새로운 식사로 바꾸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특별주제: 1 세기 유대교에서의 유월절 의식 순서

- 가. 기도
- 나. 포도주 잔
- 다. 주례자가 손을 씻고 대야를 모두에게 전해 줌

- 라. 쓴 나물과 소스에 찍기
  - 마. 어린 양 및 주된 식사
  - 바. 기도후 쓴 나물과 소스에 두 번째로 찍기
  - 사. 두 번째 포도주 잔과 더불어 자녀들과 갖는 질의응답의 시간(참조, 출 12:26-27)
  - 아. 할렐 시편인 시 113-114 편으로 찬송하고 기도함
  - 자. 주례자가 자기 손을 씻은 후 각 사람을 위해 포도주에 적신 빵을 준비함
  - 차. 모두 배 부를 때 까지 먹고, 한 조각의 양고기로 끝냄
  - 카. 손을 씻은 후 세 번째 포도주 잔
  - 타. 할렐 시편인 시 115-118 편으로 찬송함
  - 파. 네 번째 포도주 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나타냄
- 주의 만찬규정이 “카”의 단계에서 생긴 것으로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22:18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I. 성경적 용어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 9:21; 출 29:40; 민 15:5,10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가 즙을 짜낸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특징적인 구절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 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율 1:5; 사 49:26).
4. *세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를 가리킨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야인*과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티로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이다.

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율 2:19,24; 암 9:13; 슥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장).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를 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중말론적인 배경을 나타내었다(암 9:13; 율 3:18; 슥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집회서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후 5:23).
5.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후 3:3,8; 딤후 1:7; 2:3; 뱀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2: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뱀전 4:3; 롬 13:13-14).

### III. 신학적인 통찰

####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심각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권에서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 다. 남용의 여부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물질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참조, 막 7:18-23; 롬 14:14,20; 고전 10:25-26; 딤후 4:4; 딤후 1:15).

###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 나.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이 포도주를 십일조로 드리기에 적당하다 (마 아세로쓰 1:7)고 유대의 전통은 말했다.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렀다.

####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체단에 체사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엔류요쓰 6:1).

#### 마. 포도주의 앙금(오래된 포도주) 위에 있었던 포도주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야 했다.

####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숙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반드시 물로 묽게 해야만 했다.

#### 사. 최근 100 년 동안에서야 평균적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의 사용으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 V. 맺음말

#### 가. 당신의 경험, 당신의 신학, 당신의 성경해석을 가지고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적/교파적 편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적 자세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 라. 만약 우리가 완전한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22:19 “떡을 가져”** 어린 양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 식사는 완전히 교회에게 적합한 것이었고 매년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지키는 축제와 전혀 관계없는 예식이었다. 이 식사는 죄로부터의 새로운 구출(출애굽)을 상징한다(즉, 새 언약, 참조, 렘 31:31-34).

☐ **“이것은... 내 몸이라”** 이 식사에 대해 교회 안에 네 가지 종류의 설명이 제시되었다:

1. 로마 천주교의 화체설, 이것은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장이다
2. 마틴 루터의 성체공재설, 이것은 1 항의 주장보다는 약간 덜 문자적인 주장이다
3. 존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것은 1 항 및 2 항의 주장보다 덜 문자적인 주장이다
4. 쾰빙글리의 상징적 이해

그 물질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해석은 요 6:43-58 에서 온 내용이다. 그러나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오천 명을 먹이신 일 및 모세가 했듯이 메시아께서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란 유대인의 기대에 대한 내용이다(성만찬에 대한 것이 아님).

▣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 문장은 누가의 복음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다. *아남네시스*라는 용어가 고전 11:24,25 에 있는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기록에서 두 번 나온다. 누가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를 얻었을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은 누가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형태 및 용어들이 록 22:19b-20 에 있는 것을 설명해준다.

22:20

NASB, NRSV, TEV, NJB  
NKJV

“붓다”  
“흘리다”

**특별주제: 붓다**

*케오*라는 용어는 자주 사용된 용어로서 “붓다”를 의미한다. 강조형인 *엑케오*에는 두 가지의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1.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 마 23:35; 행 22:20
2. 바쳐진 제물, 마 26:28; 막 14:24; 록 22:20

이 두 가지 의미가 같보리 사건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다(참조, 콜린 브라운 편저, *신학신학의 새 국제 사전* 제 2 권, 853-855 쪽).

▣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은 렘 31:31-34, 겔 36:22-36; 슥 9:11 에 나타나 있다.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는 일을 끔찍한 일로 여겼다(참조, 레 17:14). 예수께서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로서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특별주제: 요한복음 6 장에 있는 주의 만찬(나의 주석, 제 4 권, 요한복음)**

- 가. 비록 13-17 장에 다락방에서의 대화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주의 만찬 자체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생략은 고의적인 것 같다. 제 2 세기의 교회는 이 규례를 성례적인 의미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례식을 은혜의 통로로서 보았다. 예수님의 침례(세례)와 주의 만찬을 기록하지 않으므로써 요한이 이러한 성례적인 관점으로의 발달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요한복음 6 장은 오천 명을 먹이신 일을 그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만찬 예식의 관점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화체설을 주장하는 출처가 된다(53-56 절).  
6 장이 어떻게 성만찬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복음서들의 이중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복음서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 년 뒤에 기록되었고, 또한 각 저자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저자가 가진 세 가지 수준의 의도가 담겨 있다: (1) 성령 (2) 예수님과 처음의 청중 (3) 복음서 기록자들과 그들의 독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유효한 유일한 방법은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문맥적, 문법적, 사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지 그 반대 방법이 아니다.
- 다. 우리는 청중들이 유대인이었고 문화적 배경으로는 그들에게 “만나”와 같은 출애굽적 경험과 관련하여 모세를 초월하는 메시아에 대한 랍비적 기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30-31 절). 랍비들은 시 72:16 을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진술(참조, 60-62, 66 절)은 군중의 잘못된 메시아적 기대를 바로 잡기 위한 의도였다(참조, 14-15 절).
- 라. 초대교회의 모든 교부들은 이 본문이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는 이 본문을 다른 그들의 글에서 한 번도 주의 만찬을 언급하지 않았다.
- 마. 이 본문의 은유는 요한복음 4 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 이 세상의 물과 떡은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은유로서 사용되었다.
- 바.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은 4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다!

22:21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주님의 만찬에 줄곧 함께 한 것으로 말한다. 요 13:21-30 에서는 그가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만찬의 절반을 참여한 것으로 말한다. 우리는 복음서가 현대적인 역사 기술서가 아니라 복음전도적 소책자였음을 계속하여 기억해야만 한다! 유다의 배신은 시 41:9 의 성취이다(참조, 요 13:18).

22:22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에 대하여는 5:24의 특별주제를 보라.

여기에 있는 동사는 어떤 경계나 한계를 나타내는 단어인 호리조의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인 “horizon”(수평선)이 왔다. 예수께서 희생제물로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일의 일부였다(참조, 창 3:15; 사 52:13-53:12; 행 2:23; 3:18; 4:28; 10:42; 13:29; 17:26,31).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중에 덧붙여 놓은 일이나 대안(plan B)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참조, 막 10:45; 요 3:16; 고후 5:21)!

▣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일찍부터 또 자주 언급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다(참조, 6:70; 12:4; 13:2,26,27; 17:12; 18:2-5).

22:23 이 절은 열 두 제자가 가졌던 혼동과 불확실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으며 그가 보내신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한 명이 배신자가 되는 일조차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본문과 같은 종류의 본문은 내게 회의와 혼동과 두려움이 생길 때 나에게 위로를 준다. 기독교는 믿음과 신뢰와 소망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삶이다; 이 일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놀랍고도 놀라운 일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개역개정 22:24-27

<sup>24</sup>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sup>25</sup>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sup>26</sup>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sup>27</sup>앞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앞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2: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주님의 후임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참조, 마 18:1-5; 20:24-28; 막 9:33-37; 10:41-45; 눅 9:46-48). “다툼”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이 논쟁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요 13장의 문맥에서도 이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보다 더 큰 문맥은 “객실”에서 주님의 만찬을 하는 동안 나눈 대화로서 요 13-17장이 된다. 그들은 마음 속에 여전히 세상적 왕국 곧 유대인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다(참조, 행 1:6).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누가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22:25-27 예수께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지칭함에 있어서 여러 단어를 사용하셨다: “왕들,” “권세를 가진 자들,” “은인들”(왕을 일컫는 시리아 말). 이 용어들은 모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섬기는 지도자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요 13:3-5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일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지상명령에 헌신한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

타락은 이기주의를 가져왔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자아를 버리는 일을 촉진시키고 이를 가능하게 한다(참조, 갈 2:20). 우리는 섬기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것이다(참조, 9:48).

특별주제: 섬기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엡 4:11), 그들은 상전이 아니라 여전히 섬기는 자들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섬기는 자/사역자라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 여러 용어를 사용한다.

- 가. 가정에서의 도움(원래 “먼지를 일으키는 자”)
  - ㄱ. 디아코노스, 고전 3:5; 고후 3:6; 6:4; 11:15(2회),23
  - ㄴ. 디아코니아, 고전 16:15; 고후 3:7,8,9(2회); 4:1; 5:18; 6:3; 8:4; 9:1,13; 11:8
  - ㄷ. 디아코네오, 고후 3:3
- 나. 종 혹은 조수, 휘페레테스(신약에서 이 용어는 여러 종류의 조수를 가리킨다), 고전 4:1
- 다. 노예(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명령을 받는 자)
  - ㄱ. 둘로스, 고전 7:21,22(2회),23; 고후 4:5
  - ㄴ. 둘로오, 고전 9:19
- 라. 협력자, 함께 돕는 자(쉬+일군), 켈에르고스, 고후 1:24
- 마. 공급자(원래 합창단을 지원하는 자)
  - ㄱ. 코레게오, 고후 9:10
  - ㄴ. 에피코레게오, 고후 9:10

마. 사역자(70 인역에서 요셉이 보디발을 위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사무엘이 엘리에게, 아비삭이 다윗을 위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 *레이투르기아*, 즉, 70 인역에서 섬김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 고후 9:12)

이 용어들은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나타낸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을 섬기셨듯이(참조, 막 10:45), 신자들은 다른 이를 섬겨야 한다(참조, 요일 3:16).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들이다(참조, 마 20:20-28; 막 10:32-45; 눅 22:24-27). 거만과 자랑을 내세우는 과별주의는 복음을 철저히 오해함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22:27 27 절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예”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이것은 성경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뒤 바뀐 역할”에 대한 진술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참조, 사 55:8).

개역개정 22:28-30

<sup>28</sup>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sup>29</sup>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sup>30</sup>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22:28

NASB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NKJV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계속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NRSV

“내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TEV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즐곤 나와 함께 머물렀은즉”

NJB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인즉”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이다. 그들이 수 년 동안 여행하며 사역에 함께 한 일과 어려움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커다란 무리가 왔다가 떠났지만 이 핵심적 추정자들은 남아 있었다. 이 그룹의 사람들 중에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였던 다수의 여인들(참조, 눅 8:1-3) 및 오순절 때 다락방에 있던 120 명의 일부가 포함되었을 것이다(참조, 행 1:13-15).

특별주제: 예수님 및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여행한 여자들

마 27:55-56	막 15:40-41	눅 8:2; 23:49	요 19:75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야고보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안나 (헤롯의 청지기) 수산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

나의 마가복음 15:40-41 주석에서 이 여인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여러 여인들이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다(즉, 요리, 빨래 등, 참조, 41 절; 마 27:55; 눅 8:3).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로서 티베리아스에서 약 5 km 북쪽에 위치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마리아는 예수를 따랐다(참조, 눅 8:2). 그녀는 억울하게 창녀로 불리웠는데 그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마 27:56 에서 그녀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불린다. 마 28:1 에서 그녀는 “다른 마리아”로 불린다. 우리가 갖는 질문은 그녀가 누구와 결혼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다. 요 19:25 에서 볼 때 그녀는 글로바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그녀의 아들인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로 불린다(참조, 마 10:3; 막 3:18; 눅 6:15).

“살로메” 이 여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 그 두 아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그룹에 속했다. 그녀는 세베대의 아내였다(참조, 마 27:56; 막 15:40; 16:1-2).

나의 요한복음 19:25 주석에서 이 여인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세 사람의 이름인지 혹은 네 사람의 이름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것은 네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린 두 자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는 막 15:40 과 마 27:56 에서 이름이 나온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께서는 사촌간이었다. 제 2 세기의 전통에 의하면(해계실푸스) 글로바는 요셉의 형제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여인으로서 예수께서 부활 후에 자신을 드러내신 처음 사람이었다(참조, 20:1-2,11-18; 막 16:1; 눅 24:1-10).

22:29-30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다(참조, 요 15:1-7). 그는 성부께서 자신에게 주신 곳(주인과 함께 앉는 영예로운 상석)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앉히실 권세를 가지셨다(참조, 마 28:18).

22:30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일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과 목적과 다스림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참조, 마 19:28; 딤후 2:11-12; 계 3:21). 이 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구분시키지 않고 품고 연결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함**

그리스도와 다스린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리는 더 커다란 신학적 주제의 일부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구약의 개념의 연장이다(참조, 삼상 8:7).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참조, 창 49:10)인 이새의 후손(참조, 삼하 7 장)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메시야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는 베들레헬에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중심적인 기둥을 이룬다. 왕국이 그 분 안에서 전적으로 도래했다(참조, 마 10:7; 11:12; 12:28; 막 1:15; 눅 10:9, 11; 11:20; 16:16; 17:20-21).

그러나 왕국은 또한 미래적이기도 하다(종말론적). 왕국이 나타났지만 최종적인 단계의 것은 아니었다(참조, 마 6:10; 8:11; 16:28; 22:1-14; 26:29; 눅 9:27; 11:2; 13:29; 14:10-24; 22:16, 18). 예수님은 처음엔 고난받는 종(참조, 사 52:13-53:12)으로서 겸손하게(참조, 눅 9:9) 오셨지만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마 2:2; 21:5; 27:11-14). “다스림”의 개념은 참으로 이러한 “왕국”신학의 일부분을 이룬다. 하나님은 왕국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다(눅 12:32 을 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은 고려할 여러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른 질문을 제기한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왕국”을 주신 것을 말하는 구절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인가(참조, 마 5:3, 10; 눅 12:32)?
2. 예수님께서 1 세기의 유대적 배경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한 내용인가(참조, 마 19:28; 눅 22:28-30)?
3. 위의 경우와 대조되거나 혹은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는가(참조, 롬 5:17; 고전 4:8)?
4. 어떻게 고난은 다스림과 관계가 있는가(참조, 롬 8:17; 딤후 2:11-12; 뵤전 4:13; 계 1:9)?
5.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다
  - ㄱ. 지상의, 5:10
  - ㄴ. 천년왕국의, 20:5,6
  - ㄷ. 영원한, 2:26; 3:21; 22:5; 단 7:14,18,27

**개역개정 22:31-34**

<sup>31</sup>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sup>32</sup>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sup>33</sup>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sup>34</sup>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22:31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신 것은 그를 점잖게 꾸짖고 계심을 나타낸다(참조, 6:46; 10:41; 22:31; 행 9:4; 22:7; 26:14). 예수께서 그를 베드로(반석)가 아니라 시몬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주목하라. 그는 얼마 안있어 바위같은 사람으로 될 것이다.

▣

NASB  
NKJV  
NRSV  
TEV  
NJB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 까부르듯 함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까부르듯 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농부가 알곡을 쭉정이로부터 분리시키듯이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사탄이 너희 모두를 시험하는 일에 승인을 받았으나”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까부르듯 하려는 소원을 이루었으나”

“너희”는 복수형으로서 모든 제자를 가리킨다. 이 내용은 욥 1:12; 2:6 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사탄이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TEV 와 NJB 는 *엑사이테오*(여기서는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라는 동사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과피루스 자료에 나타난다(물론과 밀리간, *헬라어 성경의 어휘* 221 쪽).  
 까부르는 것은 (1)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기 위해 흙이나 작은 돌이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체로 거르는 과정 혹은 (2) 키질을 통해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여기서는 시험/분리의 때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사용되었다.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 . . 기도하였노니” 대명사 *에고*가 앞에 위치하여 “나, 곧 나 자신”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 후에는 계속하여 다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 17 장에 나온다. 예수께서는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신다(참조, 히 7:25; 9:24; 요일 2:1). 같은 동사가 21:36 에서 사용되어 신자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것은 정신이 번쩍나게 하는 내용이다(6:46 의 특별주제를 보라).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될 것이다! 후러나 베드로는 뉘우치고 믿음으로 주님과 의 관계를 회복한다(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일 사도들의 그룹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가 종종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실패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나머지 사람들은(과거와 현재) 어떠하겠는가?

▣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께서는 시험의 한 복판에서조차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강하게 하셨다. 나는 요 21 장이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후에 그를 다시 사도들의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복권시키는 내용이라고 믿는다. 놀랍게도 오순절 때에 그가 사도행전 2 장에서 기독교의 처음 설교를 하게 된다!

22:33 이 절은 의지적인 씨름이 있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베드로가 자신의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진심으로 원했으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참조, 엡 6:10-19). 자아, 자신의 이익, 자신을 보전함이 궁극적 문제를 일으킨다(참조, 롬 7 장). 베드로는 예수께서 갓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에 그를 위해 죽으려 했지만, 대제사장의 집 바깥 뜰에서 불을 쬐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참조, 마 26:41; 마 14:38).

22:34 “닭 울기 전에” 닭이 우는 때(오전 3 시 이전) 및 닭이 우는 횟수(참조, 막 14:30)는 예수께서 초자연적 지식을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 “네가 . . . 나를 모른다고” “알다”라는 동사는 완료 능동 부정사로서 과거의 행위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단어는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뜻한다(참조, 창 4:1; 렘 1:5).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노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개역개정 22:35-38  
<sup>35</sup>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sup>36</sup>이르시되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겹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지어다 <sup>37</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sup>38</sup>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겹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22:35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이것은 열두 사도와 70 인의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이다(참조, 9:3; 10:4).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를 보호해 주시며 공급해 주심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했던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질문은 “아니오”라는 답을 예상하고 있다.

**22:36 “검 없는 자는 걸옷을 팔아 살지어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취하였다(38 절을 보라). 이 내용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벨 일의 배경이 될 것이다. 나는 예수께서 문자적 의미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압박한 투쟁에 대해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과 인간이 준비해야 함 사이에 역설적 내용이 있다. 둘 다 필요하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갖는 언약적 관계의 한 부분이다. 신자가 자신의 노력을 인해 축복을 받거나 목적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역을 위해 자기 자신을 거저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절에는 세 개의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 있어 이 모든 명령을 글자 그대로 취하여서는 안됨을 나타낸다. 인간의 언어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문맥과 상호관계를 가진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한 가지 영역은 우리의 언어적 능력에 대한 것이다.

**22:37 “기록된 바 . . . 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가리킨다(여기서는 사 53:12). “기록된 바”에서 사용된 동사는 **완료 수동 분사**로서 영감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행하신 일은 구약 예언과 관련을 가진다.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친밀히 대하심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성경)의 유효성과 권위를 세우시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언에 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은 모형적인 성취를 나타내며(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나중에 예수님의 삶에서도 일어난다, 참조, 시 22 편; 호 11:1) 이 같은 종류의 내용이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미래적 사건으로서 독특하게 기록되었다(참조, 사 53 장; 미 5:2). 세계에 있는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가진 초자연적 특성 및 하나님께서 역사를 알고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심을 분명히 보여준다.

▣

NASB	“이는 내게 관한 것이 그 성취됨이니라”
NKJV	“이는 내게 관한 일들이 결말남이니라”
NRSV	“그리고 실로 내게 관하여 쓰여진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니라”
TEV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 사실로 되어 가고 있음이니라”
NJB	“그렇다,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 지금도 그 성취를 이루어 가고 있음이니라”

이것은 (1)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나 (2)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건 사역이 마쳐지려 하고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그의 때가 이르렀다. 찰스 B. 윌리엄스는 *사람들의 언어로 된 신약*에서 “그렇다, 내에 관한 말이 성취되었다”가 37 절에서 히브리어의 동의어적 평행법을 이룬다고 제시한다.

▣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사 52:13-53:12 에 있는 종의 노래에서 취한 인용이다(참조, 53:12). 이것은 메시아께서 거부받으신 후에 죽임을 당하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으로서 매우 특별한 내용이다.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참조, 창 3:15)!

**22:38 “죽하다”** 이것은 (1) 충분한 검이 있다 혹은 (2) 이러한 종교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죽하다(참조, TEV 각주)를 뜻한다.

A. T. 로벗슨(*워드 낱초*)과 요셉 A. 피츠마이어(*앵커 바이블*, 제 28A 권)은 예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취한 것이라고 본다: 제자들이 가진 세계관/마음 상태를 인해 예수께서 더 말씀하실 수 없어서 이야기를 끝내고 계신다. 그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큰 무리의 군인들과 벌일 육체적 싸움을 위해 자신의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성격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F. F. 브루스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여기서 어떤 모순적인 슬픈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 인자가 범죄자(더 정확히 말하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두 명의 강도)의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기에, 그의 제자들이 이전에 가지고 다니지 말도록 명하셨던 물건과 더불어 검을 소지하고 옷을 싸움에 적합하게 입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주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검이 두 자루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죽하다, 그만 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지키려고 검을 사용하는 일을 분명하게 원치 않으셨다(뒤이어 일어난 일에서 분명히 보게 되듯이). 사실 두 자루의 검은 그들의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았다”(63 쪽).

이 설명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486-487 쪽)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개역개정 22:39-46

<sup>39</sup>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sup>40</sup>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sup>41</sup>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sup>42</sup>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sup>43</sup>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sup>44</sup>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 <sup>45</sup>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sup>46</sup>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22: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분명히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이곳에 자주 가셨다. 또한 이곳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밤을 지내신 곳일 가능성도 있다.

감람산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4 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등성이였다. 이곳은 도시보다 90-120 m 더 높은 곳에 있었기에, 이곳에서 성시와 성전을 잘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곳에서 밤을 지내셨음이 분명하다(참조, 21:37).

22:40 “그 곳에 이르러” 마가(참조, 14:32)와 마태(참조, 26:36)와 달리 누가는 겐세마네 동산이라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통해 성부와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시련의 때를 맞이하셨다. 누가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더불어 예수님의 기도생활을 강조한다.

“유혹”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형이다. 4:2의 특별주제를 보라.

22:41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사도(유다를 제외한)와 함께 겐세마네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이루어진 핵심 그룹으로부터도 떠나 계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사 조금 더 가신 후에 기도를 시작하셨다(미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 이 단어의 형태는 어떤 행동이 과거에 시작됨 혹은 반복하여 그 행동을 함을 나타낸다(참조, 마 26:39,42,44).

▣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한다(참조, 마 26:39; 막 14:35).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으로 나온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자세는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린 자세였다. 예수께서 현재 취하신 자세는 어떤 면으로도 아주 특별하였다!

22:42 “아버지”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아버지

구약은 친밀한 가족적 은유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한다

1.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야웨**의 “아들”로서 묘사된다(참조, 호 11:1; 말 3:17)
2. 심지어 이른 시기에 속하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 대해 아버지라는 유추를 사용한다(신 1:31; 32:6)
3.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로 불린다
4. 이 유추는 시 103:13에서 진술되며, 시 68:5에서 발전된 형태로 제시된다(고아의 아버지)
5. 예언서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사 1:2; 63:8;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63:16; 64:8; 렘 3:4,19; 31:9).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의 *파테르*로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것 중 많은 경우는 아람어의 *아바*(참조, 14:36)를 반영하는 용어일 것이다. 가족적 용어인 “아버지”나 “아빠”는 예수님과 성부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한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심은 그들과 성부와와의 친밀함을 격려하시기 위함이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라는 용어를 오직 **야웨**께만 사용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호칭을 종종 사용하시며 두루 사용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 신자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계시이다(참조, 마 6:9).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예수님의 요청이 가능한 일임을 암시한다. 이 구는 세 공관복음에서 나타난다(참조, 마 26:39; 막 14:35).

▣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성부의 뜻에 예수님의 인성이 몸부림치는 거룩한 현장에 와 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을 뜻하는 구약의 은유적 표현이었다(참조, 시 16:5; 23:5; 렘 51:2; 마 20:22). 이 표현은 주로 심판(즉,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참조, 시 11:6; 75:8; 사 51:17,22; 렘 25:15-16,27-28; 49:12; 애 4:21; 겔 23:31-33; 합 2:16). 이 관용적 표현은 심판을 뜻하는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인 술취함과 종종 관련을 가진다(참조, 욥 21:20; 사 29:9; 63:6; 렘 25:15-16,27-28). 예수께서는 그만두고자 하신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써 두려움에 직면하셨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믿음이 빛난다! 예수께서 자신의 인성을 인해 구출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지만, 그는 성부의 대속을 위한 영원한 속량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마음을 두셨다(참조, 창 3:15; 사 53장; 막 10:45; 눅 22:22; 행 2:23; 3:18; 4:28; 13:29; 고후 5:21; 엡 2:11-3:13).

“되기를”이라는 동사는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십자가를 피하려는 유혹이 있었다! 이것은 4장에 기록된 바 광야에서 사탄이 한 시험과 똑같은 종류의 시험이다(제임스 S. 스투어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39-46 쪽).

22:43-44 이 두 절은 것은 고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인  $\aleph^*$ ,  $\aleph^2$ , D, K, L, X 및 델타에 나온다. 이 두 절은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힐폴리투스, 유세비우스 제롬이 사용한 인용문에서도 나온다. 한편 이 본문은 P<sup>69[아마도]75</sup>, ( $\aleph^1$ , A, B, N, T, W 및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사용한 사본에서 빠져 있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이 없는 것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바르트 D. 에흐만(*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187-194 쪽)은 이 두 절의 내용이 제 2 세기 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가현설(영지주의)을 거부하기 위해 추가된 내용으로 본다. 이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 및 고통받으신 일을 부인했다. 교회가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여러 이단적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에 많은 사본적 변이가 일어났을 것이다.

UBS<sup>4</sup>, NASB, NRSV 는 이 두 절을 각쇠괄호에 두는 반면, NKJV, TEV, NIV 는 각주에서 “어떤 고대 사본은 43 절과 44 절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내용이다.

▣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만 왜 제자들이 깨어있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역개정 22:47-53**

<sup>47</sup>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sup>48</sup>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sup>49</sup>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sup>50</sup>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sup>51</sup>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 <sup>52</sup>예수께서 그 잡으려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sup>53</sup>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22:47 “한 무리가” 누가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예수를 따른 무리에 대해 종종 언급한다. 이 절과 23:4 에서는 무리가 적인 반면, 23:48(십자가)에서는 와서 보고 슬피하며 흠어진 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반되게 나온다.

▣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것은 자기의 스승에게 제자가 일반적으로 행하던 인사였다(참조, 막 14:45). 이것이 애정을 나타내는 표시였지만(참조, 48 절), 여기서는 예수를 붙잡을 자로 지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막 14:44; 막 26:49).

22:50 요 18:10 은 제자의 이름(베드로)과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말고)을 말한다.

22:51

NASB  
NKJV  
NRSV  
TEV  
NJB

“멈추라, 더는 이 일을 하지 마라”  
“이것까지 허용하라”  
“더는 이 일을 하지 마라”  
“이것으로 족하다”  
“그만하자”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아마도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1. 만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것은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게 허용하라는 의미이다
2. 만일 예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더는 대적함을 참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3. NASB(1970)의 각주는 이 구를 예수께서 베인 귀를 고쳐주시는 일과 관련되며 더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일을 언급하고 있다. 누가복음만 그것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1) 그가 흘리는 피를 멈추게 하셨는지 (2) 귀가 회복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나로서는 말고가 신자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일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이 모든 무리에게 상당히 극적인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22:52 “대제사장들” 이들이 복수형으로 나오는 이유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손에 넣은 후에 대제사장직이 한 가족이 돈을 주고 사는 정치적 지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직접 동산에 왔는지는 의문이 간다. 아마도 그가 보낸 산헤드린(장로들)의 대표자들을 뜻할 것이다.

▣ “검과 몽치” 검은 로마인들이 몽치는 성전 경비병들(관리들, 4 절의 설명을 보라)이 소지했을 것이다.

22:53 이 절은 성전 경비병들을 산헤드린의 대표자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요 비난이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예언된 “때”(정관사, 참조, 마 26:45; 막 14:35,41)를 가지셨듯이 악(어두움의 세력)의 군대와 앞잡이들도 그러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재판관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는 요소였다.

**개역개정 22:54-62**

<sup>54</sup>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sup>55</sup>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sup>56</sup>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sup>57</sup>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sup>58</sup>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sup>59</sup>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sup>60</sup>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sup>61</sup>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sup>62</sup>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2: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아마도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로 된 큰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참조, 마 26:57-58; 요 18:13,15,24). 재판관을 받으신 순서는 (1) 안나스 앞에서 (2) 가야바 앞에서 (3) 온 산헤드린 앞에서 (4) 빌라도 앞에서 (5) 헤롯 앞에서 (6) 또 다시 빌라도 앞에서 였다.

▣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겐세마네에서 붙잡히신 일은 대부분의 제자로 하여금 잡힐 것을 두려워 하여 도망치게 만들었다. 한편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족들과 알고 지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행해지는 재판자리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 역시 예수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멀리서 따라갔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고 또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참조, 마 26:58; 막 14:54).

22: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들은 (1) 성전 경비대 혹은 (2)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가리킬 것이다.

22:56 “한 여종”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언제 비난했는가에 대하여 복음서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불주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그들 알아 보고 의문을 제기했음이 분명하다.

22:57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구의 해석을 위한 열쇠는 동사에 있지 않고 이 단어가 “알다”라는 히브리적 의미를 가짐에 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와의 어떤 개인적 관계도 부인하고 있었다.

22:58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임을 부인하고 있다.

22:59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것은 베드로의 억양을 가리킨다. 아람어의 후음을 발음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과 갈릴리 사람의 소리가 달랐다. 베드로는 자신의 억양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22: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일은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동정을 나타낸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안나의 집무실에서 같은 집에 있는 가야바의 집무실로 옮김을 당하셨을 것이다. 이 일은 34 절에 있는 바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한다. 이 일은 베드로로 하여금 슬픔에 가득 찬 회개를 시작하게 했다(참조, 62 절; 마 26:75)!

**개역개정 22:63-65**

<sup>63</sup>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sup>64</sup>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sup>65</sup>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22:63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께서는 유대인 경비병들, 헤롯의 경비병들, 로마 경비병들에게 매를 맞으셨다. 이러한 매맞음은 사 53:2의 성취일 것이다.

22:64-65 이 로마 군인들은 유대민족의 배타주의 및 계속적인 반란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예수께 쏟아 부었다. 그는 그들의 조소를 받는 대상이 되셨다!

**개역개정 22:66-71**

<sup>66</sup>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sup>67</sup>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sup>68</sup>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sup>69</sup>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sup>70</sup>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sup>71</sup>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22:66 “날이 새매” 만일 밤에 행해진 심문이 목요일(니산 14 일)에 행해진 것이라면 이 절의 내용은 금요일 아침(니산 14 일)에 일어났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정오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며(니산 14 일, 참조 23:44)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이전(니산 15 일, 참조, 23:54)에 무덤에 묻히시게 된다.

재판을 받으시는 때와 순서에 대하여는 복음서마다 차이가 난다. 우리는 복음서들이 서구의 역사책이나 자서전이 아니라 목표로 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구원의 소책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그 사건 자체의 진실성이나 이것의 영감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일은 밤에 불법적으로 행해진 심문에 합법성을 주기 위해 산헤드린이 행한 일이다(9: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산헤드린이 밤에 재판한 일의 불법성, 마 26:57-68**

- 가. 사형 판결을 위한 법정을 밤에 열 수 없었다.
- 나. 사형 판결과 그 집행을 같은 날에 행할 수 없었다.
- 다. 축제일이나 축제일 전날에 어떤 재판도 행할 수 없었다.
- 라. 이 날 아침은 특별히 성구함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도록 정해진 시간이었다(참조, 신 6:8; 11:18).
- 마. 이 날 아침은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시간이었다(참조, 출 23:15).

22:67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다. 이 표현은 대개 어떤 진술의 진실성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비꼬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절은 본문적 문맥이 어떻게 문법적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확일적으로 어떤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

▣ NASB, NKJV, NJB “그리스도”  
NRSV, TEV “메시아”

아람어로 말한 내용을 헬라어로 기록하였음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여기에 나타난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기름부으신 자인지—메시아—아닌지를 묻고 있다!

▣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그들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를 명확히 듣기 원했다.

▣ “만일” 이 절에서 두 번째 “만일”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산헤드린이 원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기를 원했다. 이 일이 밤새 안나사와 가야바 앞에서 받은 긴 심문 이후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54 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들의 마음과 심장이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 믿음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행한 것이다. 11: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절(68 절에서와 마찬가지로)에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가장 강하게 부정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가 나온다.

1. 이중 부정, *οὐ + μή*
2. 부정과거 가정법

22:68 “만일” 이것은 또 하나의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지려 시도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려 들지 않았고 답을 할 수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셨다!!

▣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은 부정과거 가정법과 함께 사용된 강한 이중부정으로 강력한 부정을 나타낸다!

22:69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것은 시 110:1 을 가리키는 내용으로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본문으로서 다윗의 특별한 자손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신 것처럼 나타내는 구이다. 사실상 하나님은 영이시며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보좌나 손이 필요 없으시다(1:51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아주 분명한 구약의 예언적 용어를 사용하여 대답하셨다!

22:70 “다 이르되” 이것이 복수형임을 주목하라. 거기에 있는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는 막 14:55-59 을 통하여 거짓 증인들이 그를 정죄함에 있어서 실패하였음을 알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산헤드린은 예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꾸미고 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일은 불법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구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명확히 메시아를 의미한다. 1:35의 특별주제를 보라.



NASB “그렇다, 내가 그다”  
NKJV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한다”  
NRSV, TEV, NET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말한다”  
NJB, REB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이는 바로 너희다”  
NIV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맞게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우회적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다(참조, 막 14:62). 그는 그들이 이 호칭을 빌미로 로마에 자신을 정죄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

모팻의 번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에 담긴 미묘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우 도움을 준다. “그것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다. 나는 그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에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 마 26:64).

A.T. 로벗슨(신약의 워드 픽처, 제 2 권 277 쪽)은 예수께서 다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셨다고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다

1. 그리스도(메시아)이심, 67 절
2.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인자이심, 69 절
3. 하나님의 아들이심, 70 절

이 구들은 모두 평행적인 관계에서 사용되었다.

**22:71** 이 절은 그들이 질문한 목적을 드러낸다. 그들은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로 여기는 일을 예수께서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 유다의 행위가 예정되었기에 유다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가?
3.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했는가?
4. 성만찬은 어떻게 유월절 식사와 관련을 가지는가?
5. 성만찬이 제정된 요일에 대하여 왜 복음서가 다르게 말하는가?
6.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일에 대하여 왜 복음서의 기록이 많이 다른가?
7. 산헤드린은 왜 예수께서 메시아되심을 거부했는가?

# 누가복음 2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보내지심 23:1-5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심 23:1-5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23:1-5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23:1-2  23:3a 23:3b 23:4 23:5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23:2-7
헤롯 앞에 서신 예수 23:6-12	예수께서 헤롯을 대면하시다 23:6-12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서신 예수 23:6-12	헤롯 앞에 서신 예수 23:6-12	헤롯 앞에 서신 예수 23:8-12
예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심 23:13-25	바라바의 자리를 대신하심 23:13-25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23:13-17 23:18-25	예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다 23:13-17 23:18-19 23:20-21 23:22 23:23-25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다시 서심 23:13-19 23:20-23 23:24-25
십자가형 23:26-31 23:32-38	십자가에 달리신 왕 23:26-43	십자가형 23:26-31 23:32-38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 23:26 23:27-31 23:32-34a 23:34b-35 23:36-37 23:38	갈보리로 가는 길 23:26-32 십자가형 23:33-34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다 23:35-38 착한 도적 23:39-43
23:39-43		23:39-43	23:39 23:40-42 23:43	23:39-43

예수님의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23:44-49	23:44-49	23:44-49	23:44-46	23:44-46
				죽으신 후에
			23:47	23:47-48
			23:48-49	23:49
예수를 장사함	예수를 요셉의 무덤에 장사함		예수를 장사함	장사
23:50-56a	23:50-56	23:50-56a	23:50-54	23:50-54
			23:55-56a	23:55
		23:56b	23:56b	23:5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3:1-5

<sup>1</sup>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sup>2</sup>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sup>3</sup>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sup>4</sup>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sup>5</sup>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23:1** NJB 는 이 절을 22:66 에서 시작된 문단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우리가 다”는 산헤드린을 의미하기에(참조, 마 26:59) 이 절은 전 날 밤에 그들이 재판의 절차를 밟은 것을 적법화하기 위해 아침 일찍 그들이 모였음을 나타낸다.

**23:2 “고발하여 이르되”** 비록 산헤드린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였지만 그 일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해 빌라도에게 선동죄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1. 민족을 부패시키고
2.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금하고
3.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한다(유대인의 메시아, 2: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23: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께서 긍정적이되 제한적인 내용으로 대답하셨다(대제사장에게 22:70 에서 하신 대답과 비슷하다). 빌라도(3:1 의 특별주제를 보라)는

이것을 소요죄라는 정치적 죄목에 대해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로마정부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일이었다(참조, 마 26:25; 요 18:36-36).

23:4

NASB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NKJV “나는 이 남자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NRSV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한 고소의 근거를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TEV “나는 이 사람을 정죄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NJB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누가도 예수께서 반역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빌라도가 이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진리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참조, 14,15,22 절; 요 18:38; 19:4,6).

23:5

NASB “그러나 그들이 계속 고집하여”  
NKJV “그러나 그들이 더욱 거칠어져”  
NRSV “그러나 그들이 고집하여”  
TEV “그러나 그들이 더욱 강하게 고집하여”  
NJB “그러나 그들이 집요하게 하여”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επισκη*이라는 헬라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지만 70 인역에서는 같은 의미로 두 번 사용되었다(참조, 마카비상 6:6; 집회서 29:1).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κατηγορε*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참조, 마 27:12; 막 15:3; 요 18:29; 누가복음에서도 23:10). 누가가 마가복음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그는 종종 자기만의 어휘를 사용한다. 영감의 교리에 관하여는 신약의 각 저자의 어휘 사용에 있어서 성령께서 관여하셨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 쓴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뜻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타자수들이 아니었다.

▣

NASB, NKJV, NRSV “그가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TEV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반란을 시작하고 있나이다”  
NJB “그가 백성을 격분시키고 있나이다”

여기서 누가는 마가복음(15:11)에서와 같은 **동사**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정죄하려고 이 말을 추가시켰다. 갈릴리지역은 소요의 온상이었다. 한편, 빌라도는 이 언급을 헤롯에게 재판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참조, 6-7 절).

개역개정 23:6-7

<sup>6</sup>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sup>7</sup>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23:6 이것은 **조건적의 제 1 유형**이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했다.

23:7 “헤롯의 관할”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이다. 3:1의 특별주제: 헤롯대왕과 그의 가족을 보라.

▣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매년 갖는 세 축제의 하나였다(참조, 레 23 장). 모든 유대인 남자가 이 축제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다.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개역개정 23:8-12

<sup>8</sup>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sup>9</sup>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sup>10</sup>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sup>11</sup>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엮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sup>12</sup>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23: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누가복음만 헤롯이 재판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헤롯은 예수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참조, 마 14:1-2; 눅 9:9). 누가가 사용한 자료는 헤롯과 함께 자라난 마나엔에게서 왔을 것이다(참조, 행 13:1).

▣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헤롯은 예수께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 들었다. 여기에 기적의 문제가 나타난다. 기적 행함이 복음 메시지에 적합한 응답인 개인의 믿음과 회개로 이끌지 못하고 단지 호기심이나 놀람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탄이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또 기적을 행할 것이다(참조, 마 24:24; 막 13:22; 계 13:13; 16:14; 20:20). 구약은 이러한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신 13:1-3 에서 경고한다!

**23:9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사 53:7 의 b 행과 e 행의 성취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대답지 않으셨다

1. 산헤드린(참조, 마 26:63), 그러나 후에는 간략히 대답하심(참조, 마 26:63-64)
2. 빌라도(참조, 마 27:12,14; 막 15:5; 요 19:9), 그러나 후에는 간략히 대답하심(참조, 요 18:34,36-37; 19:11)
3. 헤롯(참조, 마 26:63),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대답지 않으셨다

**23:10** 산헤드린은 예수를 동행하여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정죄했다. “힘써”(유토노스)라는 **부사**는 누가의 저작에서만 사용되었다(참조, 23:10; 행 18:28). 이 단어는 70 인역에 나온다(참조, 수 6:8). 그들은 자기들의 고소 내용에 신성모독죄를 추가시켰을 것이다. 헤롯은 성전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일에 예민하였을 것이다.

**23:11**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네 가지 기록을 하나로 묶어 이해함에 있어서 주석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역사적 어려움의 한 가지 실례가 될 것이다. 누가는 헤롯의 군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 조롱하였다고 기록하지만, 마태복음(27:27-31)과 마가복음(15:16-20)과 요한복음(19-1-5)은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해석적 선택의 여지가 있다:

1. 두 그룹의 군인이 모두 예수를 조롱했다
2. 헤롯의 군인들만 예수를 조롱했다
3. 로마 군인들만 예수를 조롱했다

우리는 복음서가 서양의 역사가가 아니라 동양의 복음전도 소책자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세세한 내용은 불명료한 상태로 남겨두어야 한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취사선택하고 그 위치를 정하고 각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이나 행동이나 사건을 만들어 낼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 누가 언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하여는 애매한 상태로 남겨두어야만 한다.

▣	
NASB, NKJV	“아주 멋진 예복”
NRSV	“우아한 예복”
TEV	“좋은 예복”
NJB	“비싼 외투”

캄프로스라는 헬라이어는 기본적으로 “밝은”(참조, 계 19:8) 혹은 “빛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화려한”을 뜻한다. 야고보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부자가 입는 옷에 대해 말한다(약 2:2,3). 막 15:17; 요 19:2 은 자주색 예복(왕이 입는 옷의 색깔)으로, 마 27:28 은 자주색(군인의 외투)로 말한다.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가장시켜 조롱하고 있었다!

**23:12** 빌라도와 헤롯의 친분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다.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이 친분이 무엇을 내포하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개역개정 23:13-17  
<sup>13</sup>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sup>14</sup>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sup>15</sup>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sup>16</sup>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sup>17</sup>(없음)

**23:13**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고(참조, 1 절) 또 예수님과 동행하여 헤롯에게 간 일(참조, 10 절)은 놀랍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다른 일들을 수행할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23:15 “그가 행한 일에는”** 이것은 **우회적 완료 수동**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애에 십자가형을 받으실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누가는 여기서 로마의 가장 높은 관리가 예수께 대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인정치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23: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은 로마법에 따른 일반적 절차였다. 십자가형에 앞서 행하는 혹독한 채찍질에 비교할 때 이것은 가벼운 처벌이었다. 이 용어는 *파이스*(아이들)이라는 어근과 훈계라는 단어에서 왔다. 후자는 고후 11:32 과 히 12:6,7,10 에 나오는데 고후 6:9 에서는 더 강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빌라도의 행위가 여러 요소를 내포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수께서 무죄하심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
2. 산헤드린 뒤에서 일을 조중함과 위협하고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다(참조, 요 19:12)
3. 그의 부인이 그에게 경고를 보냈다(참조, 마 27:19-20)
4. 그는 축제 기간에 폭동이 일어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참조, 눅 23:18)
5. 빌라도가 매우 미신적인 사람이었다(참조, 요 19:7-8)

23:17 17 절은 P<sup>75</sup>, A, B, K, L, T, 070, 0124, 고대 라틴역, 콕틱역본에서 빠져 있지만, 대문자체 사본인 **N**, D(19 절을 따라), W 및 063 에는 들어있다. 이 내용은 마 27:15; 막 15:6 및 요 18:39 에 포함되어 있다. NASB 와 NKJV 는 이 본문을 대괄호 안에 둔다. NRSV, TEV, NJB 는 이 절을 생략하고 있으며 각주에 두고 있다. UBS<sup>4</sup> 는 이 내용이 없는 것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개역개정 23:18-25**

<sup>18</sup>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sup>19</sup>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sup>20</sup>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sup>21</sup>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sup>22</sup>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sup>23</sup>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sup>24</sup>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sup>25</sup>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3:18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 “우리”는 산헤드린과 군중을 가리킨다(참조, 13 절). 이 군중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지지자들 및 일부 지도자들(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무리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바라바(열심당)의 지지자들이 소식을 듣고 그가 풀려 나게 하기 위해 모여들었을 것이고, 사두개인 지도자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또한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불러 모아들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이 사람을 없이하고” 이 명령형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인 *아이로*의 현재 능동 명령이다. 여기서는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없이하여 죽이라”를 뜻한다(참조, 요 19:15). 이러한 의미가 70 인역에서도 사용되었다(참조, 마카비 1 서 16:19; 예 4:1). 이러한 은유적 용법은 “손을 들어 적대하다”라는 히브리어적 관용법에서 왔을 것이다(참조, 욥 15:25).

▣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 주는 일(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은 로마의 일반적 관행이었음이 분명하다(참조, 마 27:15; 막 15:6; 요 18:39). 예수께서 고소받은 바로 그 죄를 행한 사람이 풀려난 일은 모순적이다(참조, 19 절, 이 내용은 누가가 인용한 자료에서 취한 내용일 것이다, 참조, TEV).

23:20 이것은 놀라운 내용이다. 빌라도가 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을까?

1. 그가 로마법을 의식함
2. 그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가진 반감
3. 그의 미신적 신앙 혹은 그의 부인이 준 경고
4. 유월절에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그의 바람

23:21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문장이 다 현재 능동 명령이다. 우리가 외친 이 정죄의 말은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1. 마 27:22,23, 부정과거 수동 명령
2. 막 15:13,14, 부정과거 능동 명령
3. 눅 23:21(2 회), 현재 능동 명령
4. 눅 23:24, 부정과거 수동 부정사
5. 요 19:6(2 회), 부정과거 능동 명령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신체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참조, 시 22:16). 이러한 형태의 사형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고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이를 이어 받아 사용했다. 이러한 처형은 여러 날에 걸쳐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처형의 목적은 죄수를 비참하게 하고 또 로마에 대해 반역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자세한 내용이 *존더반 픽토리얼 성경 백과* 제 1 권 1040-42 쪽에 나온다.

**23:22 “세 번째 말하되”** 누가는 예수의 무죄함에 대해 빌라도가 세 번 말한 것을 밝힘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께서 반란을 피하지 않으셨다!

**23: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것은 **미완료 중간태** (디포) **직설법**으로서 반복된 행위를 나타낸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실상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었다(참조, 요 19:12)

**23:25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용어가 70 인역의 사 53:12 에 있는 “넘겨지셨다”에서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23:26**

<sup>26</sup>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3:26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흠어져 있던 유대인이었다. 구레네(북 아프리카)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그들 자신의 회당이 있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참조, 행 2:10; 6:9; 11:20; 13:1). 나는 그가 흑인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구레네는 헬라 상인들이 세운 도시로서(주전 7 세기) 헬라어를 사용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그는 축제 기간에 참석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후에 교회에서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참조, 눅 15:21; 아마도 롬 16:13).

▣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가 아마도 교외에 머물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외에 있는 사람들은 매년 오는 이 순례자들에게 집을 개방하였다.

▣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우리는 십자가의 정확한 형태(소문자체 “t,” 대문자 “T,” 또는 “X”)나 십자가의 어느 부분을 1 세기에서 정죄받은 죄수가 지고 갖는지에 대해 확실히는 모른다. 예수께서는 심하게 맞아(참조, 사 52:14; 53:3; 눅 22:63; 23:11; 마 20:19; 막 10:34; 15:15; 요 19:1) 십자가혀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언제나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개역개정 23:27-31**

<sup>27</sup>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sup>28</sup>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sup>29</sup>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sup>30</sup>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sup>31</sup>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23:27-31**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온다. 그는 예수께서 여인들과 나눈 대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3:27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무리는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를 이제 자각하고 깨달은 순례자들일 것이다.

▣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이들은 제자들과 동행했던 여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로 보인다(참조, 49,55-56; 18:13).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로 부르시기 때문이다(참조, 28 절).

**23:28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 말씀은 아마도 주후 70 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일 것이다(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마 27:25 에 있는 바 무리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내용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신앙의 영적 및 종말적 결과를 가리키는 내용일 것이다.

**23:29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말씀은 주후 70 년에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적인 심판을 드러낸다.

▣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긴 이 유대 여인들에게 상당히 모순적인 말씀으로 들렸다.

23:30 이것은 반역적인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인 호 10:8의 인용이거나 심판의 문맥에 속하는 사 2:19의 암시일 것이다. 이 구약 본문은 계 6:16에서도 인용되었다.

23:31 이것은 잘 알려진 잠언으로서 그 핵심은 “내가 무죄함에도 그들(즉, 로마 정부)이 만일 나를 이렇게 대했다면, 너희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하겠는가?”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개역개정 23:32  
<sup>32</sup>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23: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다(참조, 사 53:9; 마 27:38).

개역개정 23:33-38  
<sup>33</sup>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sup>34</sup>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뉘 제비 뽑을새 <sup>35</sup>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sup>36</sup>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sup>37</sup>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sup>38</sup>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때가 있더라

23:33  
NASB, NRSV, TEV  
NJB, NIV  
NKJV

“해골”  
“갈보리”

헬라어 본문과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개골”로, 아람어에서는 “골가타”로, 라틴어에서는 “갈보리아”로 부른다. 이 지명의 정확한 위치와 지형적 상태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용어는 두개골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마’만 가리킨다. 이곳은 낮고 나무가 없는 언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주요 도로변에 위치했을 것이다. 이 사형제도의 목적이 앞으로 있어날 수 있는 반란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라.

▣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동정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사건의 무서움은 신체적 고통 자체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영적 반역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참조, 창 3:15; 막 10:45; 고후 5:21).

23:34 34 절의 앞부분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은 헬라어 사본인  $\kappa^{*2}$ , A, C, D<sup>2</sup>, L, 0250에서 발견된다. 이 내용은 말시온, 디아테사론, 저스틴,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크리소스톰, 제롬(빌게이트),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어 사본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P<sup>75</sup>,  $\kappa^1$ , B, D\*, W, 070에서 생략되어 있다. UBS<sup>4</sup>(1993)는 이 내용이 없는 것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UBS<sup>3</sup>(1975)는 이 내용이 없는 것에 “C”등급(결정하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는 평행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스테반이 행 7:60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과 비슷하다. 그의 말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 “그들이 그의 옷을 나뉘 제비 뽑을새” 이것은 로마 군인들을 위한 몫이었다. 정죄받은 죄인의 모든 소유는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의 소유물이 되었다. 이 내용은 시 22:18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 보인다(참조, 마 27:35; 요 19:24).

23:35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것은 시 22:6-8의 성취로 보인다.

▣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제 1 세기의 유대교에서 십자가형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로 여겼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신 21:33). 바로 이 이유에서 산헤드린은 메시아인척 하는 그를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원했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모든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은 어떤 것이 진리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관점에서 사실이거나 여기에서와 같이 화자(지도자들)의 목적(조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법이다.

**23:36 “신 포도주를 주며”**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군인들이 제공하는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참조, 마 27:34; 막 15:23). 하지만 후에는 싸구려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옥소스, 참조, 요 19:29). 이 일은 군인들의 동정심어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의 고통을 연장시켜 반란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였다. 이 일은 70 인역의 시 69:21의 성취로서 그 본문에서도 옥소스가 사용되었다. 상당한 갈증으로 인하여 그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못 듣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것을 받으셨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23:37 “만일”** 이것은 또 다른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조롱의 의미를 나타낸다(참조, 35 절).

**23: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요한은 이것이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말한다(참조, 요 19:20). 빌라도가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 지도자들을 자극하려 했음이 분명하다(참조, 요 19:19-21).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의 죄목을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 위에 나타내었다.

어떤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그의 위에” 다음에 “세 언어로 기록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요 19:20에서 온 것이다. 이 구는 P<sup>75</sup>, **N**<sup>1</sup>, B, L에 들어 있지 않다. UBS<sup>4</sup>는 그 내용이 없는 것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개역개정 23:39-43**

<sup>39</sup>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sup>40</sup>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sup>41</sup>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sup>42</sup>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sup>43</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23:39** 조롱이 계속되고 있다(미완료 능동 직설법).

▣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질문은 문법적으로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하지만, 이 문장은 조롱하는 문장이다.

**23: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마 27:44와 막 15:32은 두 도적이 예수를 모욕했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누가복음은 그 중 한 명이 회개하고(참조, 40-41 절) 예수의 편이 되었음을 말한다(참조, 42 절). 예수께서 이전에 항상 응답하셨듯이 예수께서 지금도 항상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23:42** 이 죽어가는 범죄자가 복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였음에도 완전히 환영받고 또 용서 받았다. 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이르기여!

**23:43 “오늘”** 만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취한다면 예수께서는 약 40 일 동안(참조, 행 1:3)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참조, 행 1:9).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문맥에서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데스*에 있는 의로운 자의 지역을 뜻할 것이다(아래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매우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데스*와 전혀 상관이 없음이 분명하다(3:17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내용은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이다! 예수께서 함께 계심이 참으로 낙원을 만든다!

▣ “낙원” 이것은 벽으로 둘러 싸인 귀인의 정원을 가리키는 페르시아의 용어로서 70 인역에서 에덴동산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창 2:8; 13:10). 랍비들은 이 용어를 대개 *하데스*나 스올의 한 구획인 의인이 거주하는 곳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즉, 아브라함의 품, 참조, 16:22,23; 레위 1서 18:10-11; 솔로몬의 시 14:3; 예레미야 17-19 장; 60:7,8,23; 61:12). 바울은 이 용어를 천국의 의미로 사용했다(고후 12:3, 또한 계 2:7을 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데스로 가셨으며 30-40 시간 후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께서는 40 일 후에 승천하실 때에 자신과 함께 스올의 의로운 지역에 있던 모든 자를 데리고 가셨다(참조, 엠 14:7-10). 이제 바울도 고후 5:6,8에서 말하기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말한다.

**개역개정 23:44-49**

<sup>44</sup>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sup>45</sup>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sup>46</sup>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sup>47</sup>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sup>48</sup>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sup>49</sup>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23:44 “때가 계속시쯤 되어”** 이것이 로마인의 시간인지 아니면 헬라인의 시간인지에 대하여 약간의 혼동이 있다. 여기에 내가 막 15:1 에서 한 주석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가복음은 다른 모든 유대인의 저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밤 시간과 낮 시간을 4 시간씩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12 시간으로 구분하였음이 분명하다(참조, 요 11:9). 하루를 24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왔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이러한 구분을 도입했다. 해시계는 12 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다.

15 장에서 마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식을 사용한다:

1. 해 뜰 때, 1 절(오전 6 시경. 일 년의 어느 시기인가에 의해 조금씩 다름)
2. 세 시, 25 절(오전 9 시경)
3. 여섯 시, 33 절(대략 정오)
4. 구 시, 34 절(오후 3 시경)
5. 저녁, 42 절(해질 때, 오후 6 시경)

▣ **“은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것은 구약에서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 가운데 하나로서 언약적 의미(참조, 출 10:21; 신 28:28-29) 혹은 묵시적 의미(참조, 욥 2:2; 암 8:9-10; 습 1:15)를 나타낸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신 성자로부터 자신의 임재하심을 거두심을 상징한다. 이 일은 예수께서 겐세마네에서 가장 두려워 했던 일이었다(막 15:34 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온 세상의 죄를 지셨다(참조, 고후 5:21). 예수께서는 성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분리되심을 경험하셨다. 어두움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부터 돌아서심을 상징하였다.

▣ **“해가 빛을 잃고”** 우리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의 “일식”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여기서 일식현상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여러 헬라어 사본에서 이 특별한 구에 대한 변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본문의 분명한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막 15:38 은 우리에서 이것이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찢어진 것임을 밝힌다(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길은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렸다. 탈무드의 한 전통에서는 십자가 처형시 “성전의 문들이 자동적으로 열렸다”라고 말한다. 내가 막 15:38 에 대해 주석한 내용을 여기서 인용하고자 한다([www.freebibliccommentary.org](http://www.freebibliccommentary.org)):

“성전의 안쪽 성소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다. 하나는 성소에 또 하나는 지성소에 있었다. 만일 후자가 찢어진 것이라면, 앞 쪽에 있는 휘장이 일상적으로 양 옆으로 당겨져 묶여지지 않는 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휘장들에 대하여는 출 26:31-37 에 나온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재건축해 놓은 성전에서 이 휘장은 150 cm x 75 cm 였으며 약 10 cm 두께였다! 만일 겉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면 바깥 쪽에 있는 여러 띠에 있던 모든 예배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았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가능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창 3:15; 출 26:31-35). 마 27:51-53 에는 다른 여러 기적의 일어난 표적을 지지하는 표징으로서 기록되어 있다.”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것은 다음에 평행으로 나온다

1. 마 27:50,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2. 막 15:37,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3. 요 19:30, 여기서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

▣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시 31:5 의 인용이다. “영혼”이라는 용어는 인성을 가리킨다.

1:80 의 특별주제: 신약에서의 영(*프뉴마*)를 보라.

▣ **“숨지시니라”** 마지막 숨을 쉬는 일은 영이 떠나는 것으로 여겨졌다(임종). 같은 의미를 가지는 히브리 단어(*루아흐*, BDB 924)는 (1) 숨 (2) 영 (3) 바람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썬어적 관용법이다(참조, TEV).

**23:47 “백부장이 그 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마태복음(27:54)과 마가복음(15:39)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플러머는 이 표현의 핵심을 잘 살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름에 있어서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로마 군인이 한 말은 그가 구원받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께서 아주 특별한 분으로서 매우 독특한 형태로 죽으셨음을 그가 인식하였음을 나타낸다. NET 성경(1882 쪽)에 흥미로운 설명이 있다, “이 장에서 네 번째로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셨음을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빌라도, 헤롯, 강도, 그리고 이곳의 백부장).” 내가 마 27:54 에 대해 주석한 내용을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아들”에 **판사**가 없다. 이 군인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인해 분명히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인정했다. 한편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눅 23:47 에서는 예수께서 “의로운 자” 혹은 “무죄한 자”이심을 그가 선언한다. 유대 지도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이 로마 군인이 보고 있음을 아이러니이다(참조, 마 27:19 절; 요 1:11).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이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친밀한 교제가 다시금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곳에 **관사**에 빠져 있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그 아들이 아니심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참조, 마 4:3,6; 14:33; 27:43; 눅 4:3,9). 이 사람은 마음이 강박한 로마 군인이었다. 그는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이미 보았던 사람이다(참조, 마 27:54).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룬 본문”인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라틴어 단어가 나오는 한편 매우 적은 수의 구약 인용이 나온다. 유대인의 관습과 아람어 표현을 번역하고 설명한다. 여기서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 반란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행인들과 대제사장들 및 함께 처형을 받고 있는 죄수들까지 예수를 조롱했지만 로마 백부장은 예수께 대한 지지를 나타내며 또 그를 경외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의미있는 제시이다!”

**23:48 “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인해 슬퍼하지 않았기에 이것은 분명히 과장법에 속한다.

▣ **“가슴을 치며”** 이것은 슬픔 혹은 회개를 나타내는 표였다(참조, 18:13; 10:13의 특별주제: 슬픔을 나타내는 예식을 보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의 지지자와 친구들이었다(하지만 사도들로서는 요한만 있었다, 참조, 요 19:20-27). 예수와 함께 여행했던 여자들도 그곳에 있었다(참조, 막 15:40-41; 22:28의 특별주제를 보라).

후기에 속하는 여러 헬라이어 사본에는 슬픔을 강화하여 말하는 여러 추가적 표현이 나타난다. 브루스 M. 메츠거의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 182 쪽을 보라

**23:49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여인들의 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적 필요를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8:3의 특별주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을 보라.

개역개정 23:50-56a

<sup>50</sup>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sup>51</sup>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sup>52</sup>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sup>53</sup>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관 무덤에 넣어 두니 <sup>54</sup>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sup>55</sup>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sup>56</sup>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23:50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그는 니모데모와 더불어 남들이 모르게 믿던 제자로 보인다(참조, 마 27:57; 요 12:42). 한편,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그는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인도할 것을 요청한다(참조, 요 19:38).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한 반도의 친구로 알려지는 일은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다.

당시의 정통주의적 유대인인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의식상 부정하게 됨으로써 유월절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1. 이방인의 집에 들어감
2. 죽은 자의 몸을 만짐

한편, 그는 신 21:22-23에 있는 바 저주가 예수께 임하지 않게 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경우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의 시신을 장사지내지 못하게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장사되지 않은 시신을 인해 매우 역겨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도록 그들에게 허용했다.

▣ **“공회 의원”** 9:22의 특별주제: 산헤드린을 보라.

▣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신자였다(참조, 마 27:57). 하지만 이 구는 그가 유대교에서 갖는 위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적 관용어이다. 이 표현은 그가 죄없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노아의 경우처럼(참조, 욥 1:1)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길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았음을 나타낸다. 니고데모도 이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참조, 요 3:1).

**23:51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것은 저자가 자신이 조사한 바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내용이다(참조, 1:1-4).

▣ **“아리마대 사람이요”** 이 용어는 “높음”을 뜻하며 *라마*(BDB 928)라는 도시를 가리키는 이름일 것이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8 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은 **미완료 중간태** (디포) **직설법**이다. 4:21의 특별주제를 보라.

**23:52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이것은 의식상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일로써 매우 중요한 유월절의 안식일 주간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일이었다. 이 일은 또한 자신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한 예수의 친구로 알리는 일이었다. 이것은 대담하면서도 단호한 결심을 내려 행한 일이었다.

▣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로마인들은 반란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신을 십자가에서 썩도록 내버려두었다. 이 시신들은 로마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유대인들이 적절한 장례를 치르는 일을 아주 중요히 여겼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들에게 시신을 넘겨 주어 적절한 장례를 치르도록 하지 않았다. 지금 그가 하는 이 요청은 매우 특별하면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요청이었다. 유월절 기간 동안 시신으로 땅을 의식적으로 더럽히는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매우 민감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23:53 “세마포로 싸고”** 니고데모도 그곳에 있었다(참조, 요 19:39-40).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신속히 예수의 시신을 위해 준비했다(즉, 오후 6 시에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이집트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시신에 방부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마포와 향료로 시신을 감쌌다.

**특별주제: 장례 관습**

I. 메소포타미아

가. 행복한 내세를 위해 적절한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

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한 저주의 예는, “땅이 당신의 시신을 받아주지 않기를 . . .” 이었다.

II. 구약

가. 적절한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참조, 전 6:3).

나. 장례가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참조, 창 23 장의 사라와 창 35:19 의 라헬의 경우. 또한 신 21:23 를 주목하라).

다. 부적절한 장례는 거부됨과 죄의 표식이었다.

1. 신명기 28:26
2. 이사야 14:2
3. 예레미야 8:2; 22:19

라. 가능하다면 장례는 집 근처에 있는 가족 묘지나 굴에서 행해졌다.

마. 이집트에서와 같은 방부처리는 하지 않았다. 사람은 흙에서 왔기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예, 창 3:19; 시 103:14; 104:29).

바. 랍비들의 유대교에서는 시신에 대한 적절한 존경 및 취급을 하는 일과 죽은 자의 몸에 접촉됨으로서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하게 되는 개념을 조화시키기가 어려웠다.

III. 신약

가. 장례는 임종 후에 신속히 진행되었는데, 대개 24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종종 무덤을 3 일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 올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참조, 요 11:39).

나. 장례를 위하여 시신을 씻는 일과 향신료를 사용하여 감싸는 과정을 거쳤다(참조, 요 11:44; 19:39-40).

다. 1 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행해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독특한 장례 방법에 차이가 없었고, 무덤 안에 넣어 두는 독특한 물품의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 **“바위에 판 무덤에”** 이것은 예언적인 내용의 또 다른 성취이다(참조, 사 53:9; 마 27:66). 예수께서는 땅 속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묘지에 묻히셨다. 이 장소는 바위 틈을 파내 만든 공간으로서 장지에 여러 돌판이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인근에는 이러한 종류의 무덤이 많이 있다.

▣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 구에는 세 개의 부정어가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우회적 미완료 수동**이다.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직 한 번도 이곳에 시신을 둔 일이 없었다(참조, 요 19:41).

**23:54 “이 날은 준비일이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은 8 일 간의 축제였다(무교절과 유월절, 참조, 출 12 장). 따라서 두 번의 안식일이 있었다. 이 용어는 안식일에 대한 정규적인 준비 및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특별한 일을 가리킬 것이다.

▣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내가 막 15:42 에서 주석한 내용을 인용하려고 한다. “저녁이 벌써 되었다”: “따가복음은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유일한 복음서이다. 출 12:6 에는 두 종류의 “저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오후 3-6 시 (2) 오후 6 시 및 그 이후. 문맥에서 볼 때 이 시간은 오후 3 시 이후이며(이 시각은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각이었다) 또한 오후 6 시 이전이었음이 분명하다(유월절 안식일의 시작, 즉 니산월 15 일).”

**23: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8:3 의 특별주제: 예수님을 따라던 여인들을 보라.

23: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았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즉, 오후 3-6 시) 일상적인 유대인의 장례절차에 속하는 어떤 종류의 일(아마도 향기나는 초와 어떤 특별한 향료를 두는 일)을 남겨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전통적 절차에 따라 장례를 적절하게 마치려 하고 있었다. 24:1의 특별주제: 장례에 사용한 향료를 보라.

개역개정 23:56b  
<sup>56b</sup>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3:56b “계명” 이것은 출 20:8-11 혹은 신 5:12-15 을 가리킨다. 그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또 이를 지킨 유대 백성이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빌라도가 거듭 거듭 예수께서 무죄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2. 예수께서 왜 헤롯에게 어떤 답변도 하지 않으셨는가?
3. 누가 무리로 하여금 바나바를 살리라고 요청하게 했는가?
4.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었는가 아니면 흑인이었는가?
5. “갈보리”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
6. “낙원”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
7. 47 절에 나오는 로마 군인은 구원받았는가?

# 누가복음 2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부활 24:56b-24:12	그가 살아나셨다 24:1-12	첫 부활절 24:1-12	부활 24:1-12 24:8-12	빈 무덤. 천사의 메시지 24:1-12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다 24:9-11 무덤에 간 베드로 24:12
엠마오로 걸어 감 24:13-27	엠마오로 가는 길 24:13-2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24:13-27	엠마오로 걸어 감 24:13-17a 24:17b-18 24:19a 24:19b-24	엠마오로 가는 길 24:13-17 24:18-24
24:28-35	열린 제자들의 눈 24:28-35	24:28-35	24:25-27 24:28-32 24:33-34 24:35	24:25-27 24:28-32 24:33-35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24:36-43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24:36-43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다 24:36-43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24:36 24:37-39 24:40-43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다 24:36-43 사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
24:44-49	열린 성경 24:44-49	24:44-49	24:44 24:45-49	24:44-48 24:49
예수의 승천 24:50-53	승천 24:50-53	24:50-53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가시다 24:50-53	승천 24:50-5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v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네 복음서가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 모습은 복음서가 진실된 목격자적 기록이며 또한 각 복음서가 각기 목표로 하는 그룹을 염두에 둔 복음전도적 기록임을 증거한다. 피와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7-148 쪽을 보라.
- 나. 복음서의 저자가 오늘날 서구인의 관점에서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를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이를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들의 목적은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학적 진리를 기술함에 있었다(참조, 요 20:3-31). 성경의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함에 있다.
- 다. 누가가 사용한 부활절 이후의 사건에 대한 자료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다르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까지의 40 일에 걸친 일이 마치 하루(부활절 주일)에 일어난 것 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 라. 이 장에 있어서 여러 헬라이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누가복음의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계열(**A**, B)에 속하는 본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본문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서방 계열(D와 W)에 속하는 헬라이어 사본을 많이 담고 있다. 짧은 본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참조, A. T. 로벳슨, *신약의 본문비평 서론*, 226-227 쪽에서).
- ㄱ. 눅 5:39
  - ㄴ. 눅 10:41-42
  - ㄷ. 눅 12:19,21,39
  - ㄹ. 눅 22:19b,20,62
  - ㅁ. 눅 24:3,6,9,12,36,40,52,53
- 24 장에 이 짧은 본문(아마도 원래의 본문에 속하는)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주목하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4:1-12

<sup>1</sup>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sup>2</sup>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sup>3</sup>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sup>4</sup>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sup>5</sup>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sup>6</sup>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sup>7</sup>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sup>8</sup>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sup>9</sup>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sup>10</sup>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sup>11</sup>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sup>12</sup>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러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24:1 “안식 후 첫날” 일할 수 있는 첫날은 토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일요일 저녁까지 이르는 하루였다. 이 표현은 창 1:5,8,13,19,23,31 에 거슬러가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며, 저녁이 항상 먼저 언급된다. 이 날은 첫 소산을 성전에 드리는 바로 그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여러 일요일 저녁에 연속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일은 신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만나는 특별한 날로 주일을 정함에 있어서 선행적인 배경을 이루었다(참조, 요 20:19,20; 눅 24:36 이하; 행 20:7; 고전 16:2).

▣ “새벽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깊은 새벽에”이다. 요한복음은 이 시각이 아직 어두운 때였다고 말한다(참조, 요 20:1).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머무는 장소를 새벽 이전에 떠나 무덤에는 해뜰 무렵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의 이름이 24:10 및 막 16:1 에 나온다. 8:3 의 특별주제: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을 보라.

▣ “무덤에 가서” “묘지”(memorial)라는 영어 단어는 무덤이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왔다.

▣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 물건은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막 16:1). 이 여자들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일을 몰랐거나 혹은 그들이 서둘러 준비함으로 인해 물품이 부족했음이 분명하다.

**특별주제: 장례향품**

- 가. 아라비아 나무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고무인 몰약
  - 1. 이 향품은 구약의 지혜서에서 대부분 향유로서 12 번 언급되었다
  - 2. 박사들이 예수께 드렸던 선물 중 하나였다(참조, 마 2:11)
  - 3. 이것의 상징은 두드러진다
    - ㄱ. “거룩한 관유”에서 사용되었다(출 30:23-25)
    - ㄴ. 왕의 선물로 사용되었다(마 2:11)
    - ㄷ. 예수님의 장사에서 그에게 부여된 것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요 19:39 과 요 11:2 에서 상징적으로). 이것은 탈무드에 묘사된 유대관습이었다(즉, 브락호스 53a).
- 나. 나무의 향기로운 종류인 침향
  - 1. 향기로운 향유와 관계가 있다(참조, 민 24:6; 시 45:8; 잠 7:17; 아 4:14)
  - 2. 이것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몰약과 섞어서 사용하였다
  - 3.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에 이것의 많은 양을 가져왔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참조, 요 19:39). 이것은 탈무드에 묘사된 유대관습이었다(즉, 벨샤 6a).

24: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예수의 시신을 놓은 무덤의 돌 앞쪽에는 동산이 있었고, 둥근 돌로 무덤을 막는 구조였다. 이 돌은 매우 컸고 또 무거운 돌로서(참조, 막 16:4), 이 여인들이 옮겨놓을 수 없었다. 지진이 일어나(천사가 이것이 일어나게 했음이 분명함) 돌을 무덤 입구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 놓았다고 마 28:2 는 말한다. 돌이 옮겨진 일은 예수께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24:3 이 절은 예수의 인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다. 후에 영지주의(부록에 있는 용어해설에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라)로 불린 초기의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 NASB, NKJV, TEV “주님의 몸”  
 NJB, REB “예수”  
 NRSV “몸”

짧은 본문(즉, “몸”)이 사본 D 와 일부 고대 라틴어역에 나타난다. 한편 이 절은 누가복음에서 “주님 예수”로 예수님을 부르는 유일한 본문이다. 이 호칭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타난다.

후기에 속하는 일부 사본(즉, 13 세기에 속하는 579; 12 세기에 속하는 1071; 12 세기에 속하는 1241; 12 세기에 속하는 성구집 1016)에서는 “예수의 몸”으로 되어 있다.

긴 본문은 P<sup>75</sup>, **א**, A, B, C, L, W, 070 및 대부분의 역본에 나온다. UBS<sup>4</sup> 는 짧은 본문에 “A” 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24:4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것은 천사를 가리킨다(참조, 23 절; 행 1:10; 요 20:12).

천사는 눅 5:9 을 제외하고는 항상 남자로 묘사된다. “찬란한”이라는 분사는 누가가 이곳과 17:24 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다. 후자의 본문은 변화산 사건과 관련을 가진다. 누가는 이 용어를 “빛남”과 여러 번 관련하여 사용한다(참조, 10:18; 11:36; 17:24). 마태복음은 천사를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참조, 마 28:3).

이것은 네 복음서에 나타나는 다양성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1. 막 16:5 에서는 “어떤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우편에 앉아 있었다”
2. 마 28:2-3 에서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 . . 그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 같이 흰색이었다”
3. 요 20:12 에서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서구인의 마음 속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1. 어느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정확한가
2. 어느 것이 실제로 참인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서구인이 추구하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역사적 귀결로 복음서를 바꾸어 놓으려 한다. 하지만 복음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복음서는 모두 복음을 소개하는 소책자로서 서로 다른 대상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복음서의 각 저자는 영감을 받은 자들로서 다음의 일을 할 권리를 가졌다

1. 자료를 선택하는 일
2. 자료를 배열하는 일
3. 자료를 각색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신학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세세한 내역이 큰 그림과 큰 목적을 가리지 않게 하라!

**24:5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것은 존경과 두려움의 표시였다(참조, 막 16:8).

▣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 있는 자”는 **관사와 현재 능동 분사**로 된 구이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죽은 자 가운데서)에서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구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이다.

**24: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기둥을 이룬다(참조, 고전 15 장).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가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나타낸다. 이 주제는 베드로(참조, 행 2:24-28,32; 3:15,26; 4:10; 5:30; 10:40; 벧전 1:13; 8:18,21)와 바울(행 13:30,33,34,37; 17:31; 롬 4:24; 8:11; 10:9; 고후 4:14)이 반복하여 말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성자의 대속적 죽음을 성부께서 받으셨음을 확인하는 말이다(참조, 고전 15 장).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관여하셨다: 성부(행 2:24; 3:15; 4:10; 5:30; 10:40; 13:30,33,34; 17:31); 성령(롬 8:11); 성자(요 2:19-22; 10:17-18).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구는 P<sup>75</sup>, **Ⓝ**, A, B, C<sup>\*</sup>(C<sup>\*</sup>는 “그러나”가 빠진 상태의 같은 문장이다) L, 070 에 나온다. 이 문장은 D 및 여러 고대 라틴역에서만 생략되어 있다. 천사가 말한 같은 내용이 마 28:6 및 막 16:6 에 나온다.

24:27 의 특별주제: 초대교회의 케리그마를 보라.

▣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을 가리킨다(참조, 9:21-22,44; 17:25; 18:31-34). 이것은 공관복음서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을 만날 일에 대해 사도들에게 말하라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지만(참조, 마 26:32; 28:7,10)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 계시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한다.

1. 천사가 두 가지를 다 말한 것인가?
2.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내용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였거나 혹은 그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다르게 들은 것을 나타내는가?
3. 복음서의 저자들 혹은 그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천사가 전한 말을 일부러 각색하여 나타내는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서의 저자들을 인도하셨음을 신자들이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각 복음서가 영감으로 된 것임을 동시에 주장한다.

**24:7 “인자”** 이 용어는 랍비들의 유대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단어의 중요성은 겔 2:1(인성)과 단 7:13(신성)에 기초하며 이 두 본문을 통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합쳐진다(참조, 요일 4:1-3). 이것은 예수께서 손수 택하여 사용하신 호칭이었다. 17: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해야 하리라”** 이것은 *테이*라는 헬라어로서 “도덕적인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 장에서 이 단어가 세 번 사용되었다.

1.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반드시 넘겨져야 된다, 7 절
2.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하는 필요, 26 절
3.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44 절

이 본문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구속적 계획을 나타낸다(참조, 행 2:23; 3:18; 4:28; 13:29).

▣ **“제삼일에”** 나는 예수께서 무덤에 대략적으로 30-38 시간만 머무셨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이 구는 불안정한 구약적 배경을 가진다. 즉 호 6:2 의 본문 또는 욥 1:17 의 본문이 이 내용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마 12:39; 고전 15:4).

24:8-9 “그들이 . . .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경험한 자들이 이 여자와 사도들 이외에도 많이 있었다(참조, 33,36 절; 마 28:17; 고전 15:5; 행 1:15).

24:10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의 목록이 막 16:1 에 있는 것과 약간 다르다. 이 절 전체가 여러 고대 헬라어 사본에 빠져 있다(참조, A, D, W 사본, 고대 라틴역, 두 개의 시리아역). UBS<sup>4</sup>는 이 절이 들어 있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8: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셨다(참조, 막 16:9; 눅 8:2).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 여인들의 명단에서 항상 먼저 나온다.

▣ “**요안나**” 요안나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이곳과 8:3 에서만 나온다.

▣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녀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다(참조, 막 15:40; 마 27:56).

▣ “**다른 여자들**” 이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들어 있다(참조, 막 15:40; 마 27:56). 8: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4:11	
NASB, TEV	“터무니없는 일”
NKJV	“실없는 소리같이”
NRSV	“실없는 소리”
NJB	“아주 터무니없는 일”

*레로스*라는 이 용어는 70 인역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고(마카비 4 서 5:11) 신약에서도 이곳에서 한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히스테리 또는 고열로 생기는 환각을 가리키는 의학용어이다.

24:11 “**믿지 아니하나**”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이 여인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해 미리하신 말씀을 사도들은 완전히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지만 산헤드린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일은 상당히 놀랍다(경비를 세움). 이들의 부정적 반응은 이것이 정확한 기록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24:12 이 내용이 D 사본과 몇 고대 라틴역을 제외한 중요한 모든 헬라어 사본(P<sup>75</sup>, **8**, A, B, L, W, 070, 079)에 나온다. UBS<sup>4</sup>는 이 절이 없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는 반면, 바르트 D. 에흐만(*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212-217 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동의하여 이 내용이 없는 것을 원본의 내용으로 주장한다(참조, RSV, NEB, REB). 이 본문의 내용은 요 20:3,5,6,10 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개역개정 24:13-27  
<sup>13</sup>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sup>14</sup>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sup>15</sup>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sup>16</sup>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sup>17</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sup>18</sup>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sup>19</sup>이르시되 무슨 일이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sup>20</sup>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sup>21</sup>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sup>22</sup>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sup>23</sup>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sup>24</sup>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sup>25</sup>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sup>26</sup>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sup>27</sup>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4:13 “**그들 중 둘이**”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성경이 밝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아마도 글로바(참조, 24:18)와 그의 아내 혹은 유월절에 다른 곳에 가던 두 명의 제자였을 것이다.

▣ “**그 날에**” 이 날은 부활절 주일이었음이 분명하다(참조, 22 절). 이 날은 유월절 이후의 첫 날이었고, 보리의 첫 소출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참조, 고전 15:20,23).

- ▣ **“엠마오”** 이 지명의 위치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는 장소가 있다.
1.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압바로 가는 길을 따라 약 32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소. 이곳은 주전 166 년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셀루시드의 장군인 골지아스의 진을 공격하여 불태운 장소였다(마카비 1 서 3:40,57; 4:1-15).
  2.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소. 이곳에 세워진 “엠마오 성채”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성채를 십자군이 발견했다.
  3.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6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소. 이곳에 로마황제 베스파시아가 800 명의 군인을 주둔시켰다(요세푸스, *전쟁사* 7.6.6).
  4.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4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소. 이곳에 있는 로마 성채의 터 위에 십자군이 교회를 세웠다.

(이 자료는 *존더반 픽토리얼 성경백과*, 제 2 권 291-301 쪽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이것은 정확히 로마의 60 스타이온이다. 그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에 이 두 사람이 그곳에 갔다가 당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거리에 대하여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1. “60 스타디온”이 P<sup>75</sup>, A, B, D, K<sup>2</sup>, L, W, 070 에 나타난다(UBS<sup>4</sup>는 이것에 거의 확실함을 뜻하는 “B”등급을 주고 있다)
  2. “160 스타디온”이 **κ**, K\*, 079 및 일부 교부들의 글에 나타난다
- (참조, 요셉 A. 피츠마이어, *앵커 바이블*, 제 28a 권 1561 쪽).

**24:15 “예수께서”** 누가는 “예수”라는 이름을 관사없이 여러 번 사용하였다(참조, 4:1; 8:41; 9:36,50; 18:37,40; 22:48; 23:28). 따라서 이 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나타내심을 강조하는 문법적 표현이 아니다.

**24: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것은 **미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여기서 수동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암시하고 있다(31 절의 설명도 보라). 예수님의 신체적 모습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여러 추종자들이 그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없었다(참조, 요 20:11; 마 28:16-17; 요 21:1-7).

1. 막달라 마리아, 요 20:11
2. 여러 사도들, 요 21:1-7
3. 500 여 형제들, 마 28:16-17

**24:17 “슬픈 빛을 띠고”** 이것은 “심각한,” “음울한”(참조, 마 6:16) 또는 “낙담한”을 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난 주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이 일은 장안의 화제였다(참조, 18 절).

**24:18 “체류하면서도”** 매년 세 가지 주요 명절 기간에는 디아스포라에서 온 순례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시의 3 배로 불어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렇고 그런 순례자일것으로 생각했다.

**24:19 “무슨 일이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하며 증거하기를 요구하셨다(참조, 19-24 절).

▣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 용어에 있어서 두 종류의 철자법이 나타난다:

1. *나자레누*, P<sup>75</sup>, **κ**, B, L, 070, 079, 0124 및 일부 고대 라틴역과 벌게이트역.
2. *나조라이우*, A, D, K, P, W, X, 063 및 어떤 고대 라틴역과 콥틱역과 알메니안역. 이 형태가 눅 18:37 에서 사용되었다.

UBS<sup>4</sup>는 1 항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4:3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것은 존경을 나타낸다(참조, 7:16,39; 9:8,19). 유대교에 의하면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반드시 선지자였다. 여기서 이 용어는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웨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자들을 뜻한다. 한편, 이 용어가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을 뜻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신 18:15,18 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

▣ **“모든 백성 앞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과장법에 속한다(예, 18:43). 동양의 문학(및 표현)은 회화적이고 과장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이점이 서구인들이 신약을 오해하기 쉬운 이유가 된다.

**24:20 “우리 대체사장들과 관리들이”** 이같은 구가 23:13 에 나온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산헤드린은 이러한 형벌을 집행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참조, 눅 9:22). 로마인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하려고 그들이 날조한 내용으로 예수를 고소했다! 그들은 또한 신 21:23 에 기록된 바 랍비들이 저주로 여기는 죽음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죽이기 원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설교에서 행한 비난이다.

**24:21 “바랐노라”**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됨을 뜻한다.

▣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여전히 국수적이고 군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참조, 행 1:6-7).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단 한 번 오심을 기대했고 그 오심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강력하고 뛰어난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속량”** 이것은 노예시장에서 “되사다”를 뜻하는 말이다(참조, 막 10:45). 1:6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사흘째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자의 영이 삼일 동안 몸 근처에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소생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믿었다(참조, 요 11:6,39).

**24:24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들이 요한과 베드로임을 알 수 있다(참조, 요 20:3-10 또한 눅 24:12 에서는 베드로만 말할 것이다).

**24:25** 사도행전의 앞 쪽에 나오는 설교는 종종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암시하고 있다(창 3:15; 신 18:15; 삼하 7 장; 시 16:10,22,118; 사 53 장).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이 두 제자에게 그 내용을 알게 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다고 나는 생각한다(참조, 27 절). 초대교회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자신을 나타내신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45 절도 그러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놀랍다.

▣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것은 이 제자들이 구약을 모름에 대한 책망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을 아는 수준에 대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의심과 두려움과 혼동은 실제로 성경에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11:40 의 특별주제: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보라.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 할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하셨다(참조, 9:22; 17:25; 24:26,46). 이 일이 바로 유대인들을 놀라게 한 내용이었다(참조, 고전 1:23). 하지만 이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었다(참조, 창 3:15; 시 22 편; 사 53 장; 숙 10:12; 마 16:2). 제 1 세기의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전혀 강조하여 말하지 않았다.

▣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영광에 앞서 고난을 경험하는 이 양식은 영적 성숙의 원리를 이룬다(참조, 롬 8:17; 히 5:8).

**24:27** 이 절과 45 절은 사도행전의 *케리그마*에 대하여 우리에게 통찰력을 준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초대교회의 케리그마**

1.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야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현재 성취되었다 (행 2:30; 3:19,24; 10:43; 26:6-7,22; 롬 1:2-4; 딤후 3:16; 히 1:1-2; 뱀전 1:10-12; 뱀후 1:18-19).
2. 예수님은 침례(세례)받으실 때 메시야로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행 10:38).
3. 예수님은 침례(세례)받으신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행 10:37).
4.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과 능력의 일을 행하신 것으로 특성지워진다(막 10:45; 행 2:22; 10:38).
5. 메시야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막, 10:45; 요 3:16; 행 2:23; 3:13-15,18; 4:11; 10:39; 26:23; 롬 8:34; 고전 1:17-18; 15:3; 갈 1:4; 히 1:3; 뱀전 1:2,19; 3:18; 요일 4:10).
6.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행 2:24, 31-32; 3:15,26; 10:40-41; 17:31; 26:23; 롬 8:34; 10:9; 고전 15:4-7,12 이하; 살전 1:10; 딤후 3:16; 뱀전 1:2; 3:18,21).
7.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으셨고 그에게 “주”라는 이름이 주어졌다(행 2:25-29,33-36; 3:13; 10:36; 롬 8:34; 10:9; 딤후 3:16; 히 1:3; 뱀전 3:22).
8.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행 1:8; 2:14-18,38-39; 10:44-47; 뱀전 1:12).
9. 그는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행 3:20-21; 10:42; 17:31; 고전 15:20-28; 살전 1:10).

10.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모두 회개하고 침례(세례)받아야 한다(행 2:21,38; 3:19; 10:43,47-48; 17:30; 26:20; 롬 1:17; 10:9; 뱀전 3:21).

비록 신앙의 다른 저자들이 그들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것을 남기고 다른 특징을 강조했지만, 위의 개요는 초대교회의 선포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이루었다. 마가복음 전체는 사도베드로의 *케리그마* 와 근접한다.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기초하여 기록한 복음서로 보여진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마가복음의 기본적 골격을 따른다.

#### 개역개정 24:28-35

<sup>28</sup>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sup>29</sup>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sup>30</sup>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sup>31</sup>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sup>32</sup>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sup>33</sup>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sup>34</sup>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시니라 <sup>35</sup>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24:28-30 이것은 매우 상세한 내용의 목격자적 기록이다. 누가가 이 두 사람을 면담했을 것이다.

24: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으로서 16 절에 있는 미완료 수동 직설법과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예수께서 음식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의 특징적인 면을 그들이 인식하였음을 35 절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누가는 “밝아져”(디아노이교)라는 이 용어를 이 문맥에서 세 번 사용하고 있다:

1.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31 절
2. 그들이 구약 성경을 깊이 알게 되었다, 32 절
3. 사도들의 마음이 성경에 대해 열렸다, 45 절

성경은 인간이 발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다. 영적 진리는 눈 먼 죄인인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은 왕하 6:17(70 인역의 *디아노이교*)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 일의 정확한 기작은 우리에게 신비롭다. 예수께서 36 절에서 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심과 빌립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도 마찬가지로이다(참조, 행 8:39). 영적 영역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다중적 차원의 세계이다.

24:32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우회적 미완료 수동이다(A. T. 로벗슨은 이것을 중간태로 부른다). 이것은 참으로 흥분되는 성경공부였다(참조, 시 19:7-14)! 이 용어(*카이오*)는 70 인역 신 32:22 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심판의 때를 뜻한다.

24:33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참조, 33,36 절; 행 1:15).

24:34 “말하기를” 이 내용은 열 한 제자가 방금 도착한 다른 두 명에게 하는 말임이 분명하다(참조, NJB).

▣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수께서 자신을 부인했던 자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성경은 이 만남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다.

#### 특별주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심

예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증하게 하셨다.

1.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마 28:9
2. 열 한 제자들에게, 마 28:16
3. 시몬에게, 눅 24:34
4. 두 사람에게, 눅 24:15
5. 제자들에게, 눅 24:36
6.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 20:15
7. 열 제자에게, 요 20:17
8. 열 한 제자에게, 요 20:26
9. 일곱 제자에게, 요 21:1
10. 게바(베드로)에게, 고전 15:5

11. 열 두(사도)에게, 고전 15:5
12. 500 여 형제들에게, 고전 15:6(마 28:16-17)
13. 야고보(예수님의 땅의 가족)에게, 고전 15:7
14. 모든 사도들에게, 고전 15:7
15. 바울에게, 고전 15:8(행 9 장)

이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은 같은 경우에 속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

24:35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이 문맥에 사용된 또 하나의 **미완료형**으로서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되었거나 반복되어 일어남을 뜻한다. 그들은 이제 22-23 절에 있는 바 여인들의 간증을 확증할 수 있었다.

**개역개정 24:36-43**

<sup>36</sup>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sup>37</sup>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sup>38</sup>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sup>39</sup>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sup>40</sup>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sup>41</sup>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sup>42</sup>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sup>43</sup>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24:36 일부 고대 헬라어 사본(P<sup>75</sup>, κ, A, B, K, L 및 여러 후기사본)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추가하고 있다(참조, 요 20:19,26). UBS<sup>4</sup>는 그 내용이 있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이것은 D 사본 및 일부 고대 라틴역에서 빠져 있다. 이것은 특징적인 히브리 인사이다(참조, 10:5). 여러 면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고난 및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4: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 크게 놀라고 있었다.

▣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마태복음(14:26)과 마가복음(6:49)은 *판타스마*라는 단어로 평행을 이룬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phantom”(유령)이 유래했다. 누가가 *프뉴마*라는 단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참조, 행 3:19). 그가 23:46 에서 예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개인적 면을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법은 육체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참조, 39 절). 23:46 의 특별주제: 신약에서의 영(*프뉴마*)를 보라.

24:38 이것은 두 개의 수사적 질문의 형태를 지닌 온화한 책망이다. 의심과 두려움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은 특히 영적 세계에 직면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편, 그것은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도약하게 하는 도움들이 될 수 있다.

처음 질문은 **우회적 완료 수동**이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 문맥에서 **동사형**을 번역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대화에서 이 단어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1.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두 사람
2. 두 사람과 예수님
3. 두 사람과 다락방에 있던 이들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선을 드신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 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생선을 드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 십자가에서의 상흔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의 표였다. 시 22:16 과 이 절은 예수님의 말이 못박힘에 대해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이다. 요 20:27 은 그의 손과 옆구리만을 언급하고 있다.

▣ “나인 줄 알라” 이것은 매우 강조적인 문장이다—*에고*(내가), *에이미*(나는 ~이다), *아우토스*(나 자신).

▣ “나를 만져 보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그리고 보라”도 마찬가지임). 초대교회는 39-43 절을 사용하여 영지주의를 배격했는데 그들은 육체적 영역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참조, 요일 1:1-3). 영지주의에 대한 2:40 의 특별주제를 보라.

24:40 이것은 D 사본 및 일부 고대 라틴역에서는 짧은 본문으로 되어 있으나 더 오래된 대부분의 대문자체 사본 및 P<sup>75</sup> 에 나와 있어 논란이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이 있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24:42 “구운 생선 한 토막을” 8 세기에서 11 세기에 속하는 일부 대문자체 사본은 “꿀 송이”라는 구를 추가시킨다(참조, NKJV). 초대교회는 성찬식과 침례(세례)식에서 우유와 꿀을 함께 사용했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이 없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개역개정 24:44-49**

<sup>44</sup>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sup>45</sup>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sup>46</sup>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sup>47</sup>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sup>48</sup>너희는 이 모든 일의 중언이라 <sup>49</sup>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24:44-49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온다.

24:44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40 일 동안 나타나신 일에 대한 요약적 진술로 보인다(참조, 25-26 절).

▣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히브리 성경의 세 부분인 율법, 선지자, 성문서를 가리킨다. 이 문맥은 기록론에 대한 일치된 구약의 증거를 나타낸다(E. W. 헝스텐베르그, *구약의 기록론*을 보라).

▣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직접적인 예언의 내용으로 제시된다(참조, 마 5:17 이하).

24: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31 절에 대한 설명을 보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 사역이 주로 성령님의 사역에 속하지만(참조, 요 14:16; 16:8-15)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제시된다(참조, 행 16:14).

24:46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용어이다(2:11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진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지만(참조, 고전 1:23; 2:2) 희생제사를 통해 속량함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46-47 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위임이다. 세 부정과거 부정사라는 문법적 면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다.

1. 그가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 46 절(참조, 26 절)
2.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시기 위해 오셨다, 46 절(참조, 7 절)
3.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게 하려고 그가 오셨다, 47 절(참조, 행 5:31; 10:43; 13:38; 26:18)

9:22의 특별주제를 보라.

▣ “제삼일에” 이것은 예언된 일이었다(참조, 호 6:2; 은 1:17; 마 12:40; 16:4; 고전 15:4). 아마도 이 내용은 은 1:17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24:47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적을 제시한다. 이 내용은 창 3 장 이래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목적을 충분히 드러낸다. 이 절을 놓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놓치는 것이다. 신자는 반드시 중요한 것을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한다(참조, 마 28:18-20; 행 1:8). 다른 모든 종류의 일은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역에 비해 부차적이다. 복음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다!

▣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회적 수동 직설법으로서, 성경의 영감을 말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44 절).

▣ “회개” 이 헬라어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킨다. 히브리에서 이 단어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 다 함께 간다. 이것이 구원의 소극적 면에 속한다면 믿음은 적극적 면에 속한다(참조, 막 1:15; 6:12; 마 4:12; 11:20; 눅 13:3,5; 행 20:21) 3:3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주제가 스가랴의 예언에서 강조되어 나타난다(참조, 1:67-79).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이다(야웨께서 구원하신다, 참조, 마 1:21). “침례”(세례)가 여기서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눅 11:4). 이 절은 종종 “누가복음에 있는 대위임”으로 불린다(참조, 마 28:19-20).

▣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서 ‘이름’은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셈어적 관용어이다.

1. 그의 능력
2. 그의 존재
3. 그의 권세
4. 그의 성품

따라서 이 단어는 내용과 태도를 함께 나타낸다!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 뿐 아니라 선포하는 자들의 삶 또한 매우 중요하다! 9:48의 특별주제: 주님의 이름을 보라.

▣ “모든 족속에게” 이 전세계적 요소는 이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음이 분명하다. 바로 이 일이 마 28:14; 28:19; 막 13:10에서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 2:2-4; 51:4-5; 56:7의 설명을 보라; 또 2:10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24:48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다(참조, 요 15:27)! 누가는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참조, 1:8,22; 2:32; 4:33; 5:32; 10:39,41; 13:31).

24:49 “내가...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 절은 성부의 뜻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예수께서 가지시는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

▣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다(참조, 요 14-16 장; 20:22; 행 1:4)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부활하신 주일에 이루어졌다!

▣ “이 성에 머물라”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적대적인 분위기로 인해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 머무를 수 없었을 것이다(참조, 행 1:4).

▣ “능력으로 입혀질” 여기서 이것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실 일을 가리킨다.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이다.

이것은 영적 생명을 나타내는 성경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욥 29:14; 시 132:9; 사 59:17; 61:10; 롬 13:14; 갈 3:27; 엡 4:24; 골 3:10,12).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받음으로써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즉, 조건적 언약). 이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개역개정 24:50-53

<sup>50</sup>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sup>51</sup>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sup>52</sup>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sup>53</sup>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4:50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약 2.5 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능선에 속했다.

▣ “손을 들어”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취한 일반적 자세였다. 여기서는 아마도 제사장의 자세를 나타낼 것이다(참조, 레 9:22).

▣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기도내용이 요 17 장에 있다).

24:51 “[하늘로 올려지시니]”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구름으로”를 언급하고 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이동수단이였다(참조, 단 7:13).

이 구가  $\aleph^*$ , D 사본 및 일부 고대 라틴역과 시리아역에 빠져 있다. 승천하심에 대한 이 언급은 행 1:2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 본문은 P<sup>45,75</sup>,  $\aleph^2$ , A, B, D, K, L, W, X 사본에 들어 있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이 있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일은 그가 이전에 가지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심을 뜻한다(참조, 요 17:5). 예수께서 성취하심을 인해 영예롭게 되었다. 밀라드 에릭슨의 그리스도인의 신학 제 2판 796-797 쪽을 보라. 9:51의 특별주제: 승천을 보라.

24:52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것은 D와 일부 고대 라틴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대 헬라이어 사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장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소위 “삼입구가 없는 서방 본문”으로 부르는 본문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장이다(24:3,6,9,12,36,40,52,53). 이 본문 비평가들은 서방 본문의 27 곳에 나타나는 짧은 본문(즉, P<sup>37,38,48,69</sup>, 0171, O 사본)을 제외하고는 알렉산드리아 계통에 속하는 헬라이어 사본(즉, P<sup>46,66,72,75</sup>,  $\aleph$ , A, B, C, Q, T, 0220 사본)이 다른 계통에 속하는 사본들 보다 더 원문에 가깝다고 믿는다.

▣ “큰 기쁨으로” 누가복음은 “기쁨”을 강조한다(참조, 1:14; 2:10; 8:13; 10:17; 15:7,10; 24:41,52). 이 일은 그들이 37-38 절에서 나타내었던 반응과 상당히 다르다.

24:53 “성전에서”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의 모임 장소는 믿는 제자들이 함께 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장소였다. 예식적인 “아멘”이 A, B, C2 사본에 추가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P<sup>75</sup>,  $\aleph$ , C\*, D, L, W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USB4 는 이 단어가 없는 것에 “A”등급(확실함)을 주고 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자주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2. 제자들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3. 왜 그들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는가?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인가?
4. 왜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가?
5. 영감으로 된 성경이 부활 사건을 제시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왜 나타나는가?
6. 예수께서 왜 40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셨는가?
7.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가?

# 부록 1

##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종종 헬라적 그리스어로 불리는 코이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주전 336-323)의 정복 시기부터 시작하여 800 년간(주전 300-주후 500) 지중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언어였다. 이것은 간소화된 고전 헬라어였고 또한 여러 면에서 헬라어의 새로운 모습을 지니고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제 2 언어가 되었다.

신약의 헬라어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데 그 이유는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글은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과 구조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읽었고 인용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대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점은 우리로 신약성경을 융통성없는 문법구조로 밀어넣을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신약의 헬라어는 독특하면서도 (1) 칠십인역 (2) 요세퍼스 등의 유대 저작 (3)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약성경의 문법적인 분석을 할 것인가?

코이네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코이네 헬라어의 문법적 특성에는 유동성이 있다. 여러 면에서 이 헬라어는 단순화한 문법의 시기였다. 문맥이 우리의 주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단어들은 오직 커다란 문맥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법적인 구조를 오직 (1) 저자의 특징적인 스타일 (2) 특별한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헬라어 형태와 구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코이네 헬라어는 우선적으로 동사적인 언어였다. 종종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해석의 열쇠가 된다. 대부분의 주절에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오므로써 그 중요성을 보인다. 헬라어 동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3 가지 사항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제, 태, 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강조점(어형론 또는 형태론) (2) 어떤 동사의 기본적인 뜻(사전적 의미) (3) 문맥의 흐름(구문론).

### I. 시제

가. 시제나 시상은 동사가 완료된 행동 또는 미완료된 행동에 관련됨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완료적 “미완료적”으로 불린다.

1. 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일어남에 초점을 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외에는 다른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그일의 시작, 계속, 또는 결과는 말해지지 않는다.
2. 미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계속적인 과정에 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직선상에 일어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진행적인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나. 시제는 저자가 그 일을 어떻게 되어진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1. 그 일이 발생했다 = 부정과거
2. 그 일이 발생하여 결과가 남아있다 = 완료
3. 그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결과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 과거완료
4.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5. 그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미완료
6.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미래

어떻게 이 시제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구원하다”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이 단어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시제가 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부정과거- “구원받았다”(참조, 롬 8:24)
2. 완료- “구원받아 그 결과가 계속된다”(참조, 엡 2:5, 8)
3. 현재- “구원받고 있다”(참조, 고전 1:18; 15:2)
4.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참조, 롬 5:9, 10; 10:9)

다. 동사의 시제에 초점을 두면서, 해석자는 원저자가 왜 이러한 시제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장식이 없는” 기본적인 시제는 부정과거이다. 이것은 보통의 동사형태로서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표시가 없는” 혹은 “약하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광범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문맥에서 그 정확한 뜻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과거의 시간은 직설법에서만 나타난다. 만일 다른 시제가 사용되었다면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1. 완료시제. 이것은 결과로 남아있는 완료된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과거와 현재시제의 결합이다. 보통은 남아있는 결과 혹은 완료된 행동에 초점이 있다. 예: 었 2:5 과 8 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2. 과거완료시제. 이것은 결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료와 같다. 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요 18:16).
3. 현재시제. 이것은 끝나지 않았거나 미완료인 행동을 말한다. 보통 사건의 계속성에 강조가 있다. 예: “그의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요일 3:6, 9).
4. 미완료시제. 이 시제가 현재시제에 대해 갖는 관계는 완료와 과거완료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미완료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일이 지금은 그쳐졌거나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예: “그 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오오고 있었다” 혹은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오오기 시작했다”(마 3:5).
5. 미래시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조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있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남에 있지 않다. 이 시제는 종종 어떤 사건의 확실성을 말한다. 예: “~자들은 복이 있나니”(마 5:4-9).

II. 태  
가. 태는 동사의 행동과 주어와의 관계를 말한다.

나. 능동태는 일반적이고 예측되며 강조점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 수동태는 동사의 행동을 외부의 것에 의해 주어가 받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의 요인은 전치사와 격으로 표시된다:

1. 직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ὑπο*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행 22:30)
2. 간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δι*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3. 사람이 아닌 경우로 *ἐκ*와 기구격으로 표시됨
4. 어떤 때는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경우로 기구격으로만 표시됨

라. 중간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일으키며 또한 그 동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말한다. 종종 저자의 고조된 관심을 나타내는 태로 불린다. 이 형태는 절이나 문장의 주어에 어떤 면에서 강조점을 둔다. 영어에는 없는 태이다. 의미와 번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융통성이 있다. 몇 가지 형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귀 - 주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 예: “자신을 목 매달았다”(마 27:5).
2. 강조 - 주어가 자신을 위해 행동을 함. 예: “사탄이 빛의 천사들처럼 자신을 가장한다”(고후 11:14).
3. 상호작용 - 두 주어의 상호작용. 예: “그들이 서로 상의했다”(마 26:4).

III. 법(혹은 “모드”)

가. 코이네 헬라어에는 4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동사와 사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저자 자신의 생각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사실을 나타내는 것(직설법)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가정법, 명령법, 회구법).

나. 직설법은 적어도 저자의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헬라어의 법중 유일하게 한정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시상은 이차적이다.

다. 가정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직설법 미래와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차이점은 가정법은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종 “했었을 지도” “였을 지도” “할 지도” “했을 지도”로 표현된다.

라. 회구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희망을 나타낸다. 가정법보다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회구법은 어떤 조건에서의 가능성을 말한다. 신약에서 드물게 나온다. 바울의 유명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그럴수 없다”(흠정역,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 15 회 사용되었다(참조, 롬 3:4, 6, 31; 6:2, 15; 7:7, 13; 9:14; 11:1, 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다른 예는 눅 1:38; 20:16; 행 8:20; 살전 3:11 에 있다.

- 마. 명령법은 가능한 명령을 강조하지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의지적인 가능성만을 말하며 다른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도와 3 인칭으로 한 요구에서 명령법은 특별한 용법을 갖는다. 신약에서 이러한 명령은 현재형과 부정과거 시제로만 나온다.
- 바. 어떤 문법가들은 분사를 또 하나의 법으로 본다. 이것은 신약 헬라어에서 매우 흔하며 대개는 동사적 형용사로 정의된다. 이것은 본 동사와의 관계에서 번역된다. 분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영어성경을 참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번역본 성경*은 매우 유용하다.
- 사.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은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원저자가 나타내려는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

IV. 헬라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책들은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 가. 프리벡, 바바라와 디모티.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그랜드래피트: 베이커, 1988.
- 나. 마샬, 알프렌. *헬라어-영어 행간 신약성경*.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76.
- 다. 마운스, 윌리엄 D.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93.
- 라. 섬머즈, 레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핵심*. 내쉬빌: 브로드만, 1950.
- 마. 코이네 헬라어에 대한 학문적 과목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연구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V. 명사

- 가. 구문적으로 명사는 격으로 구분된다. 격은 어떤 어형변화를 가진 명사가 한 문장에서 동사와 다른 품사와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많은 경우 격의 의미는 전치사에 의해 표현된다. 격변화는 여러가지 다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의 구분을 위해 전치사의 사용이 발달되었다.
- 나. 헬라어의 격은 다음의 8 가지로 구별된다:
  1. 주격은 이름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개 문장이나 절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서술적인 명사나 형용사가 “~이다” 혹은 “~이 되다”의 동사와 사용된다.
  2. 소유격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단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 격은 “어떤 종류?”를 묻는 질문에 답을 준다. 종종 “~의”란 의미를 갖는다.
  3. 탈격은 소유격과 같은 어형변화를 갖지만,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시간, 장소, 자료, 기원, 정도 등에 있어 분리를 뜻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종 “~로 부터”에 해당한다.
  4. 여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 면을 가질 수 있다. 종종 이것은 간접목적어를 나타낸다. 종종 “~에게”란 의미를 갖는다.
  5. 위치격은 여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위치, 공간적 장소, 시간이나 논리의 한계를 나타낸다. “안에, 위에, ~에, 가운데, 동안, 에 의해, 더불어” 등의 의미를 갖는다.
  6. 기구격은 여격 위치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도구나 협력관계를 나타낸다. 종종 “에 의해” 혹은 “와 함께”로 번역된다.
  7. 목적격은 행동의 결말을 나타내며, 한계를 표현한다. 이것은 주로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답을 준다.
  8. 호격은 직접화법에서 사용되었다.

VI. 접속사와 관계사

- 가. 헬라어는 매우 많은 관계사를 갖고 있기에 매우 정확한 언어이다. 접속사는 생각(절, 문장, 문단)을 연결한다. 전치사없이 자주 나오기에 종종 석의에 있어 중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접속사와 관계사는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지를 보여준다. 종종 접속사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

- 나. 여기에 몇가지 접속사와 관계사의 뜻을 제시하였다(이 자료는 주로 H. E. 다나 줄리어스 K. 만티가 공저한 *신약성경헬라어의 매뉴얼 문법*에서 발췌했다).
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 ㄱ. *에피, 에페이테, 호포테, 호스, 호테, 호탄*(주어) - “언제”
    - ㄴ. *헤오스* - “하는 동안”
    - ㄷ. *호탄, 에판*(주어) - “언제나”
    - ㄹ. *헤오스, 아크리, 메크리*(주어) - “까지”
    - ㅁ. *프리브*(부정사) - “이전에”
    - ㅂ. *호스* - “이래,” “언제,” “할 때”
  2. 논리적 접속사
    - ㄱ. 목적
      - (1) *히나*(주어), *호포스*(주어), *호스* - “하기 위하여,” “그래서”
      - (2) *호스테*(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3) *프로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에이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ㄴ. 결과(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가 서로 가깝다)
      - (1)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2) *히나*(주어) - “그 결과”
      - (3) *아라* - “그래서”
    - ㄷ. 원인 또는 이유
      - (1) *카르*(원인/효과 또는 원인/결론) - “위하여,” “왜냐하면”
      - (2) *디오티, 호티* - “왜냐하면”
      - (3) *에페이, 에페이테, 호스* - “때문에”
      - (4) *다이*(목적격과) 그리고 (관사와 쓰인 부정사와) - “왜냐하면”
    - ㄹ. 추론의
      - (1) *아라, 포이눈, 호스테* - “그래서”
      - (2) *디오*(강한 추론적인 접속사) - “그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 (3) *운* -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따라서”
      - (4) *토이눈* - “따라서”
    - ㅁ. 부사적 또는 대조
      - (1) *알라*(강한 부사) - “그러나,” “외에는”
      - (2) *에*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편”
      - (3) *카이* - “그러나”
      - (4) *멘토이, 운* - “그러나”
      - (5) *플렌* - “그럼에도”(주로 누가복음에서)
      - (6) *운* - “그렇지만”
    - ㅂ. 비교
      - (1) *호스, 카소스*(비교절을 이끔)
      - (2) *카타*(합성어에서, *카소, 카스티, 타소스페르, 카사페르*)
      - (3) *호소스*(히브리서에서)
      - (4)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5) *에* - “보다”
    - ㅅ. 계속 또는 시리즈
      - (1) *테* - “그리고,” “지금”
      - (2) *카이* - “그리고”
      - (3) *테이* - “그리고”
      - (4) *히나, 운* - “그래서”
      - (5) *운* - “그 때”(요한복음에서)
  3. 강조적 용법
    - ㄱ. *알라* - “확실히,” “정말,” “사실상”
    - ㄴ. *아라* - “정말,” “확실히,” “정말로”
    - ㄷ. *카르* - “그러나 정말로,” “확실히,” “사실”
    - ㄹ. *테* - “정말”
    - ㅁ. *에안* - “조차”
    - ㅂ. *카이* - “조차,” “정말,” “사실”
    - ㅅ. *멘토이* - “정말”
    - ㅇ. *운* - “정말,” “결단코”

## VII. 조건절

- 가. 조건절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조건절을 가지는 문장이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해석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 이유, 원인을 제공하여 왜 본동사의 행동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해주는 때문이다. 4 가지의 조건절이 있다. 조건절은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단지 그가 바라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 나. 조건절의 제 1 유형은 비록 “만일”이라는 말로 나타나지만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여러 문맥에서 이것은 “~이므로”로 해석된다(참조, 마 4:3; 롬 8:31).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제 1 유형이 사실상 진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것은 논쟁에 있어서 논쟁점을 드러내거나 오류를 뚜렷이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참조, 마 12:27).
- 다. 조건절의 제 2 유형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으로 종종 불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논지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로서는:
1.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눅 7:39).
  2.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요 5:46).
  3.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전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갈 1:10).
- 라. 조건절의 제 3 유형은 가능한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그 행동의 개연성을 예측한다. 대개 우연히 일어남을 내포한다. 본동사의 행동은 “it”절에 있는 행동에 부수하여 일어난다. 예로서는 요일 1:6-10; 2:4, 6, 15, 20, 21, 24, 29; 3:21; 4:20; 5:14, 16 이 있다.
- 마.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한층 더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드물게 사용된다. 사실상 이런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는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없다. 뱀전 3:14 의 앞 부분에 제 4 유형의 부분적인 예가 나온다. 행 8:31 에서는 뒤 부분에 제 4 유형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 VIII. 금지

- 가. 현재 명령형과 함께 사용된 *ἵνα* 불변화사는 종종(그러나 항상은 아님)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나타낸다. 예로서는: “땅위에 너의 재물 쌓기를 멈추어라”(마 6:19); “너의 인생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어라”(마 6:25); “너의 육체의 부분을 잘못함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것을 멈추어라”(롬 6:13);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를 멈추어라”(엡 4:30); “포도주에 취해 있기를 멈추어라”(5:18).
- 나. 부정과거 가정법과 함께 사용된 *ἵνα* 불변화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조차 하지 않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로서는: “이라고 가정하기 시작조차 말라”(마 5:17); “근심하기를 결코 시작하지 말라”(마 6:31); “너는 결코 수치로 여기지 말라”(딤후 1:8).
- 다. 이중부정과 함께 사용된 가정법은 부정을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 “결코, 절대로 아니” 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니.” 예로서는: “그는 결코,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요 8:51); “나는 결코, 절대로 아니...”(고전 \*13).

## XI. 관사

- 가. 코이네 헬라어에서 정관사 “그”는 영어의 관사와 유사하다. 이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시하는 것”으로서 단어, 이름, 또는 구에 관심을 끌게한다. 신약에서 저자마다 그 사용법이 많이 다양하다. 정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시대명사처럼 대비를 하는 기능
  2. 이 전에 나온 주제나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
  3.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에 연결시키는 기능. 예: “하나님은 영” 요 4:24; “하나님은 빛” 요일 1:5; “하나님은 사랑” 4:8, 16.
- 나. 코이네 헬라어는 부정관사(a, an)를 갖지않는다.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1. 어떤 것의 특징이나 특성에 초점이 있다

2. 어떤 것의 그룹적 성격에 초점이 있다.

다. 신약의 저자들이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 XI.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강조점을 나타내는 경우들

가. 신약에서 저자들이 강조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일정하고 격식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이미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과 그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말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에 아무런 문법적인 고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 롬 6:10(2 회).

다. 코이네 헬라어의 어순

1. 코이네 헬라어는 여형변화가 있는 언어로서, 어순이 영어처럼 고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저자는 기대되는 일반적인 어순과 다음의 이유에서 달라질 수 있다

- ㄱ. 저자가 독자에게 강조하기 원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 ㄴ. 저자가 생각하기를 독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 ㄷ. 저자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2. 헬라어의 일반적 어순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추정되는 일반적 어순은 다음과 같다:

- ㄱ. 연결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보충어
- ㄴ. 타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목적어
  - (4) 간접 목적어
  - (5) 전치사 구
- ㄷ. 명사 구에서
  - (1) 명사
  - (2) 수식어
  - (3) 전치사 구

3. 어순은 석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

- ㄱ. “오른손을 그들이 주었다 나에게와 바나바 교제의”(갈 2:9). 이 구에서 “교제의 오른손”이 나뉘어져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한다.
- ㄴ. “그리스도와”(갈 2:20)이 맨 앞에 나온다. 그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다.
- ㄷ. “그것은 조금씩 많은 다른 방법으로”(히 1:1)가 맨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가 대비되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강조의 강도는 다음에 의해 나타난다

- 1. 동사의 어형변화에 이미 나타나 있는 대명사의 반복. 예 “나, 나 자신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
- 2. 예상되는 접속사의 부재 혹은 단어 구 절 문장을 잇는 연결용어의 부재. 이것은 접속사의 생략으로 불린다. 연결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없음으로서 주의를 끈다. 예:
  - ㄱ. 산상수훈, 마 5:3 이하(항목을 강조)
  - ㄴ. 요 14:1(새 주제)
  - ㄷ. 롬 (:1(새 단락)
  - ㄹ. 고후 12:20(항목을 강조)
- 3. 단어 혹은 구를 같은 문맥에서 반복함.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엡 1:6, 12, 14). 이 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4. 관용어 혹은 언어(소리)유희를 이루는 용어의 사용
  - ㄱ. 완곡어법 - 타부시 되는 주제를 대신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죽음대신 “잠”(요 11:11-14) 혹은 남성 성기대신 “발”(룻 3:7-8; 삼상 24:3).

- ㄴ. 돌러서 표현하기 - 하나님의 이름대신에 “하나님의 왕국”(마 3:21) 혹은 “하늘에서의 소리”(마 3:17)로 표현.
- ㄷ. 수사법
  - (1) 불가능한 과장(마 3:9; 5:299-30; 19:24).
  - (2) 다소의 과장(마 3:5; 행 2:36).
  - (3) 의인화(고전 15:55).
  - (4) 모순(갈 5:12).
  - (5) 시적 본문(빌 2:6-11).
  - (6) 단어들의 발음을 사용한 언어적 기교
    - ㄱ) “교회”
      - 1) “교회”(엡 3:21)
      - 2) “부르심”(엡 4:1, 4)
      - 3) “부르심을 입은”(엡 4:1, 4)
    - ㄴ) “자유로운”
      - 1) “자유한 여인”(갈 4:31)
      - 2) “자유”(갈 5:1)
      - 3) “자유한”(갈 5:1)
- ㄹ. 관용적 언어 - 대개 문화와 언어에 독특한 표현법:
  - (1) “음식”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4:31-34).
  - (2) “성전”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2:19; 마 26:61).
  - (3) “미워함”은 히브리어의 불쌍히 여김에 대한 관용적 표현임(창 29:31; 신 21:15; 눅 14:36; 요 12:25; 롬 9:13).
  - (4) “모든” 대 “많은.” 사 53:6(“모든”)을 53:11, 12(“많은”)과 비교하라. 이 용어들은 롬 5:18, 19에서 처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 5. 한 단어 대신에 완전한 언어적 구를 사용하기. 예: “주 예수 그리스도.”
- 6. 아우토스의 특별용법
  - ㄱ. 관사와 함께(설명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같은”으로 번역된다.
  - ㄴ. 관사없이(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강화된 재귀대명사로 번역된다—“그 자신,” “그녀 자신,” 또는 “그 자신.”
- 마. 헬라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러 사항들에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 분석적 사전과 헬라어/한국어 행간 성경.
  - 2. 여러 현대 번역본, 특히 다른 번역이론을 가진 번역본의 비교연구. 예: “축어적 번역본”(KJV, NKJV, ASV, MAB, RSV, NRSV)와 “등가번역본”(윌리엄스, NIV, NEB, REB, JB, NJB, TEV).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개언어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된다.
  - 3. 요셉 브라이언트 로더햄의 *강조 성경*(크레겔, 1994)의 사용.
  - 4. 매우 문자적 번역본의 사용
    - ㄱ. 1901년판 *미국표준역*
    - ㄴ. 로버트 영이 쓴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가디안 출판사, 1976).

문법의 연구는 지루하지만 적절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 위의 간략한 정의, 설명, 예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 책에서 제공한 문법적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함이다. 이 정의들은 너무 간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정의들은 교조적이고 융통성없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신약의 구문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역할을 할 뿐이다. 바라기는 이 정의들이 신약성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문법은 이런 항목 중 가장 유용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역사적 상황, 문학적 문맥, 그 당시의 단어 사용법, 병행되는 성경구절이 있다.

# 부록 2

## 본문비평

이 주제는 본 주석에 나오는 본문비평적 용어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개요를 사용할 것이다

-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 가. 구약
  - 나. 신약
-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으로 불리는 이론과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II.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 가. 구약

1. 맛소라본문(MT) - 히브리 자음 본문은 주후 100 년에 랍비 아퀴바에 의해 고정되었다. 모음 부호, 악센트, 난외주, 삽표, 본문비평 각주는 6 세기에 첨가되기 시작했고 9 세기에 완성되었다. 이 일은 맛소라로 알려진 유대인 학자의 가족에 의해 되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본문의 형태는 미쉬나, 탈무드, 탈굼, 페쉬타, 별게이트의 것과 같은 종류였다.
2. 칠십인역(LXX) - 전통은 70 명의 유대학자들이 프톨레미 2 세(주전 285-246)의 후원 아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 70 일 동안 번역을 하여 마쳤다고 말한다. 이 번역본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와 있다. 칠십인역은 자주 랍비 아퀴바의 본문(MT)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한다.
3. 사해사본(DSS) - 사해사본은 주전의 로마시대(주전 200-주후 70)에 “에세네파”로 불리는 유대교 분리주의파에 의해 쓰여졌다. 사해주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은 맛소라사본과 칠십인역을 뒷받침하는 히브리어 본문과는 약간 다른 계열로 보인다.
4. 어떻게 이들 본문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는
  - ㄱ. 칠십인역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 칠십인역의 사 52:14, “많은 이가 그를 보고 놀라게 되듯이.”
    - (2) 맛소라본문의 사 52:14, “많은 이가 너를 인해 당황하게 되듯이.”
    - (3) 사 52:15 에서 칠십인역의 대명사적 차이는 확인된다
      - ㄱ) 칠십인역,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 나) 맛소라본문, “그래서 그는 많은 나라를 흠을 것이다”
  - ㄴ. 사해사본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 사 21:8 의 사해사본, “그 때 보는 자가 외쳤다, 내가 파수대위에 섰다.”
    - (2) 사 21:8 의 맛소라본문, “그리고 나는 외치기를 사자! 내 주여, 나는 낮에 . . . 계속해서 파수대 위에 서 있습니다.”
  - ㄷ. 칠십인역과 사해사본이 사 53:11 을 명확하게 한다
    - (1) 칠십인역과 사해사본, “그의 영혼이 구로한 후에 그는 빛을 보게 된가, 그는 만족하게 된다”
    - (2) 맛소라본문, “그는 보게 된다. . . 그의 영혼의 구로, 그는 만족하게 된다.”

#### 나. 신약

1. 5,300 개가 넘는 헬라이어 신약성경 사본의 전체나 일부분이 현존한다. 85 개 정도가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268 개는 전체가 대문자로(언설)로 된 사본이다. 후기인 9 세기 경부터 흘림체(소문자체)가 사용되었다. 헬라이어 사본이 기록된 형태의 숫자는 약 2, 700 개이다. 우리는 또한 성구집이라 불리는 예배에 쓰인 대략 2,100 개의 성경 필사본의 목록을 갖고 있다.
2. 신약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대략 85 개의 헬라이어 사본이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어떤 사본은 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3-4 세기의 것이다. 어떤 사본도 신약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적은 변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급하게 쓰여졌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변이를 갖는다.
3. 시내사본은 히브리 자음 **א**(אלקפ) 혹은 (01)로 알려져 있는데, 티센도르프에 의해 시내산에 인는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것이며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4. “A” 혹은 (02)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 세기의 헬라이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5. “B” 혹은 (03)로 알려진 바티칸 사본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으며 4 세기 중엽의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6. “C” 혹은 (04)로 알려진 에프라미 사본은 5 세기의 사본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7. “D” 혹은 (05)로 알려진 베자 사본은 5-6 세기의 사본이다. 이것은 중요한 “서방 본문”이다. 이것은 많은 첨가를 갖고 있고 흠정역본의 기초가 되는 주요 헬라이어 사본이다.
8. 신약의 사본들은 세 그룹 또는 네 그룹으로 대별되며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을 함께 갖는다.
  - ㄱ.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
    - (1) P<sup>75</sup>, P<sup>66</sup>(주후 200 경), 복음서
    - (2) P<sup>46</sup>(주후 225 경), 바울서신
    - (3) P<sup>72</sup>(주후 225 경), 베드로서 유다서
    - (4) B 사본으로 불리는 바티칸 사본(주후 325 경), 구약과 신약 전체
    - (5) 오리겐은 이 본문그룹을 인용한다
    - (6) 이 그룹에 속한 다른 사본들은 **Ⓝ**, C, L, W, 33
  - ㄴ. 북 아프리카의 서방 본문
    - (1) 북 아프리카의 교부인 터툴리안, 사이프리아의 인용과 고대 라틴역
    - (2) 이레니우스의 인용
    - (3) 타티안의 인용과 고대 시리아역
    - (4) 베자 사본(D)은 이 그룹에 속한다
  - ㄷ.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비잔틴 본문
    - (1) 이 본문 그룹에 속한 사본은 5,300 사본의 80%에 이른다
    - (2) 시리아 안디옥의 교부인 캅바도시안, 크리소스톰, 데오오렛의 인용
    - (3) C 사본, 복음서만
    - (4) E 사본(8 세기), 신약 전체
  - ㄹ. 네 번째로 가능한 그룹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본문”이다
    - (1) 이것은 주로 마가복음에만 있다
    - (2) P<sup>45</sup>와 W가 이에 속한다.

##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의 이론과 문제점

### 가. 어떻게 변이가 생겼는가

1. 부주의 혹은 실수(아주 많은 경우가 해당됨)
  - ㄱ. 손으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두 비슷한 단어의 두 번째 단어로 눈이 옮겨져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를 놓치게 되는 것(비슷한 단어 탈락)
    - (1) 중복되는 글자나 구를 보지 못하고 빠트리는 것(중자탈락)
    - (2) 헬라이어 본문의 구나 문장을 반복하는 실수(중복오사)
  - ㄴ. 귀로 듣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철자가 틀리는 것. 종종 철자의 오류는 헬라이어의 비슷한 소리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 ㄷ. 이른 시기의 헬라이어 본문은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고, 마침표가 전혀 혹은 거의 없었고 단어사이의 구분도 없었다.
2. 고의적
  - ㄱ. 필사자의 본문에서 문법적인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
  - ㄴ. 다른 귀절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문에 만들어진 변화(병행귀절의 조화)
  - ㄷ. 차이를 보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본문을 하나로 길게 조합하는 데서 만들어진 변화(합성)
  - ㄹ.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본문을 고치는 것에서 만들어진 변화(참조, 고전 11:27; 요일 5:7-8)
  - ㅁ. 이전의 서기관이 난외에 기록한 본문의 역사적 상황이나 적절한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자료를 그 다음 서기관이 본문으로 생각하여 생기는 변화(참조, 요 5:4)

### 나. 본문비평의 기본 원리(본문에 상이점이 있을 때 원래의 본문을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 지침)

1. 가장 이상하거나 문법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2. 가장 짧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3. 다른 것은 모두 같은 수준에 있을 때, 가장 오래된 본문이 역사적으로 원본에 더 근접하기에 더 무게가 있다.
4. 지역적으로 변이를 보이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5. 요일 5:7-8의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으로 주요한 논제를 다룬 시기의 사본적인 다양성이 있는 경우에, 교리적 색채가 약한 본문이 더 선호되는 본문이다.
6. 다른 본문에 있는 상이점들의 기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7. 이러한 어려운 차이점들을 다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용을 두 가지 소개하면
- ㄱ. J. 해롤드 그린리의 책, 신약의 본문비평 개론, 68 쪽:  
“어떤 기독교 교리도 논란이 되는 본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학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감받은 원래의 본문이야말로 가장 정통이고 교리적으로 강하기 위해 그가 가져야 할 본문이라는 것이다.
  - ㄴ. W. A. 크리스웰은 *버밍햄 뉴스*의 그렉 개리슨에게 그(크리스웰)는 “적어도 오늘날의 대중에게 전해지기까지 수 세기에 걸쳐 번역가들을 거친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영감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나는 본문비평을 대단히 신뢰한다. 따라서 나는 마가복음 16 장의 마지막 절반은 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감되지 않았고, 단지 조제되어졌다...당신이 그 사본들을 고찰해 볼 때, 마가의 책의 결론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군가 그것을 첨가했다...”  
남침례교단의 주요 순회전도자도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베테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인 요 5 에서도 명백히 “삽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다의 자살(참조, 마 27 과 행 1)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록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살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만일 이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성경에는 유다의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크리스웰은 덧붙이기를 “본문비평은 놀라운 과학 자체이다. 이것은 단명하지 않는다, 부적절하지도 않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중심적이다...”

### III. 사본의 문제(본문비평)

- 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 1. R. H. 해리슨의 *성경적 비평: 역사적, 문학적, 본문적*
  - 2. 브루스 메츠거의 *신약성경의 본문: 전승, 개약, 회복*
  - 3. J. H. 그린리의 *신약본문비평 개론*

# 부록 3

## 용어해설

**고등비평.**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과 문학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성경해석의 방법이다.

**고의적 다의성.**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뜻을 갖거나 혹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결과를 낳는 표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요한은 일부러 다의성(두 가지 뜻)을 지닌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성경.** 이것은 1633년에 발행된 엘제빌의 헬라이어 신약성경에 적용되었다. 이 역본은 기본적으로 후기의 몇 헬라이어 사본과 에라스무스(1510-1535)의 라틴어 역본, 스테타누스(1546-1559), 엘제빌(1624-1678)에 기초한 헬라이어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의 본문비평개론*, 27 쪽에서 A. T. 로벳슨은 말하기를 “비잔틴사본은 실제적 공인성경이다.” 비잔틴사본은 초기의 헬라이어 사본의 세 계열(서방, 알렉산드리아, 비잔틴)에서 가장 가치가 적다. 이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손으로 쓰여지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 한편, A. T. 로벳슨은 또한 말하기를 “공인성경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본문을 우리들을 위해 보존해 왔다”(21 쪽). 이 헬라이어 사본전통은(특히 1522년에 출판된 에라스무스의 3 판) 1611년에 출판된 흠정역의 기초를 이룬다.

**관용적 표현.** 이 단어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각 단어의 일상적 의미와는 맞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구의 사용을 가리킨다. 현대적 예로서는: “그것은 상당히(끔찍하게) 좋았다” 혹은 “당신은 나를 정말 웃긴다(죽인다)”이다. 성경 역시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구문.** 이것은 문장의 구조를 가리키는 헬라이어 용어이다. 완전하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문장에서 각 품사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다룬다.

**귀납법.** 이것은 논리나 추론의 방법으로서 부분에서 출발하여 전체로 나아간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경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접근방법이었다.

**그리스도 중심적.**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 되심을 나타낸다. 나는 이 용어를 예수께서 모든 성경의 주님이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는 성경의 완성이요 목적이시다(참조, 마 5:17-48).

**동의어.** 이것은 어떤 단어들에 정확하게 혹은 매우 비슷하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비록 어의적으로 어떤 두 단어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어떤 문장에서 의미의 변함없이 단어들을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시의 세 평행법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다. 즉 시의 두 행이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03:3).

**네스토리안주의.** 네스토리우스는 5세기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였다.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훈련받았고, 예수께서 완전히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신 두 본질을 가지셨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정통적인 교리인 한 본질과 달리하는 것이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요 관심사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에 있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과 그 자신이 교육받았던 안디옥학파의 연루에 의해 반대되었다. 안디옥은 역사적-문법적-본문중심의 성경해석의 본산지였고, 알렉산드리아는 4중해석(우화적)의 본산지였다. 네스토리우스는 완전히 면직되었고 추방되었다.

**디아스포라.** 이것은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용한 특별한 헬라이어 용어이다.

**랍비적 유대교.** 이것은 바빌론 유수(주전 586-538)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었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각 지역에 있던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문화, 사교, 예배, 성경연구의 장이 된 회당은 국가적으로 종교생활의 중심점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의 종교”는 제사장들의 종교와 쌍벽을 이루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있던 서기관적 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의 지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탈무드)의 실제적이고 율법적 해석으로 특징을 짓는다.

**맛소라본문.** 이것은 9세기히브리 구약성경 사본으로서 유대 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왔으며 모음부호와 다른 본문주석과 관련된 참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구약성경에 기초를 이룬다. 이 사본은 역사적으로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 특히 사해사본 이사야서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약어로 “MT”라고 불린다.

**무라토리안 단편.** 이것은 신약의 정경목록이다. 주후 200년 이전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기독교의 신약성경과 똑같은 27 권을 제시한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지역교회들이 4세기에 있었던 주요 교회회의 이전부터 이미 “실제적으로” 정경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모형론.** 이것은 특별한 해석방법이다. 유추적인 심볼에 의해 구약의 성경귀절과 연관되는 신약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해석방법이었다. 이것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신약에 기록된 명확한 경우로만 그 사용을 한정지어야 한다.

**묘사적 표현.** 이것은 구약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용된 관용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오감으로 알 수 있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목시문학.** 이것은 유대문학에서 독특하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세계열강들이 유대를 공격하여 지배하던 시기에 비밀스런 형태로 기록된 글을 뜻한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구속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문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많은 용어들로 인해 매우 상징적이고 환상적이다. 이 방법은 진리를 여러 가지의 색, 숫자, 환상, 꿈, 천사의 증계, 비밀 암호같은 단어들, 선과 악의 날카로운 이원론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장르에는 (1) 구약에서 에스겔 (36-48 장), 다니엘 (7-12 장), 스가랴 (2) 신약에서 마 24; 막 13; 살후 2와 계시록이었다.

**문단.** 이것은 산문으로 된 문학형태의 기본적 해석단위이다. 이것은 하나의 중심주제와 그것의 전개를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중심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 미미한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원저자의 의도를 놓치는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문자적.** 이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본문중심의 역사적 해석방법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이 인간 언어의 정상적이고 분명한 의미와 연관됨을 뜻한다.

**문학장르.** 이것은 시나 역사적 이야기체처럼 사람의 의사전달이 취하는 독특한 표현을 가리킨다. 모든 종류의 문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들 외에 각 문학장르마다 독특한 해석학적 절차가 있다.

**문학단락.**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주요 개념에 따른 구분을 지칭한다. 단락은 몇 절, 몇 문단, 혹은 몇 장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중심주제를 갖는 독립적인 단위이다.

**바티칸역.** 이것은 주후 4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원래 구약 외경 신약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본은(창, 시, 히, 목회서신, 몬, 계) 유실되었다. 이것은 원본의 글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본이다. “B”로 표시된다.

**벌게이트역.** 이것은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의 이름이다. 로마천주교회의 기본적 또는 “공통의” 역본이 되었다. 주후 380년에 번역되었다.

**반대의.** 이것은 히브리 시행의 평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세 가지 설명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시행의 관계를 나타낸다(참조, 잠 10:1; 15:1).

**배자사본.** 이것은 주후 6세기의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사본이며, “D”라고 명명된다. 이 사본은 복음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 사본은 서기관의 수 많은 추가기록으로 특징을 이룬다. 이 사본은 “공인성경”의 기초를 이루며, 흠정역본의 배후에 있는 주요 헬라어 사본이다.

**변증론자(변증론).** 이것은 “법적방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증거와 이성적인 논증을 제시하기 위한 신학의 한 분야이다.

**변증법.** 이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역설적인 양면을 포함하는 통일된 답을 구하는 사고방법이다. 많은 성경적 교리는 변증법적 짝을 이룬다, 예정—자유의지; 안전—성도의 견인; 믿음—행위; 결단—제자도; 기독교인의 자유—기독교인의 책임감.

**병행귀절.**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경자체가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자이며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불확실하거나 이중적인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용하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관한 성경귀절을 모두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가장 명확한 본문을 파악하게 돕는다.

**본문비평.** 이것은 성경사본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원래의 본문이 남아있지 않고 사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문비평이 요구된다. 이것은 상이점들을 설명하고, 구약과 신약의 원본(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을 파악하려고 한다. 종종 “하등비평”이라 불린다.

**분석적 사전.**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모든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돕는다.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 단어의 변화와 기본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행간에 번역이 들어가 있는 성경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신약성경의 헬라어 문법과 구문적 형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본.**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개 다른 종류로 구별하는 방식은 (1) 사본이 기록된 재료(파피루스, 가죽) 혹은 (2) 글자자체의 형태 (대문자체 혹은 흘림체)이다. 약어로는 “MS”(단수) 혹은 “MSS”(복수)로 나타낸다.

**사해사본.** 이것은 1947년에 사해근처에서 발견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일련의 고대사본들을 가리킨다. 이 사본들은 1세기 유대 분파의 종교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사본들이었다. 로마의 점령으로 인한 압력과 열심당원들이 60년 대에 시작한 전쟁은 그들로 두루마리 사본들을 동굴이나 구멍속에 있는 항아리에 밀봉하여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고, 맛소라 사본이 매우 정확하며 주전의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확인해 준다. 이 사본들은 “DSS”라는 약어로 표현된다.

**석의.** 이것은 어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행해지는 어떤 접근법을 의미하는 전문적 용어이다. (본문으로부터) “읽어 내움”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의 목표가 역사적 상황, 문자적인 문맥, 구문과 당시의 단어 의미에 비추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선협적.** 이것은 “전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기준에 받아들여진 정의나 원리 혹은 사실이라고 가정되는 견해에 기초한 논리전제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점검이나 분석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성경의 유추.**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성경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전제적 확신은 성경에서 평행되는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성경적 권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이것은 원저자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 한 바를 이해하는 것과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권위는 성경자체를 우리의 유일한 권위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부적절한 성경해석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 의미를 제한하여 역사적-문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구사전.** 이것은 성경연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구사전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성경의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한다 (2) 같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포함하는 절을 비교 할 수 있게 한다 (3)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가 한글성경의 어디에서 같은 단어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4) 어떤 단어가 성경의 어떤 책, 혹은 저자별로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5) 성경에서 어떤 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참조, 월터 클락의 *어떻게 신약성경헬라어 연구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54-55 쪽).

**세계이해와 세계관.** 이것은 서로 같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둘 다 창조와 연관된 철학적 개념이다. “세계이해”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세계관”은 “누가” 창조했는지를 말한다. 이 개념은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창조인지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창세기 1-2 장의 해석에 있어 중요하다.

**시내사본.** 이것은 주후 4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이 사본은 독일 학자인 티첸도르프에 의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예벨 무사에 세워진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인 “알레프”[א]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전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가운데 하나이다.

**신인동형.** “인간과 관련된 특성을 갖는”의 뜻을 지닌 이 용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말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용어으로써 표현되고 있다(참조, 창

3:8; 왕상 22:19-23). 물론 이것은 유추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과 관련된 용어외에는 달리 우리가 사용할 용어가 마땅히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되지만 제한적이다.

**아리안주의.** 아리우스는 3 세기와 4 세기 초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는 예수께서 선재하신 분이심을 인정했으나 아마도 잠 8:22-31 에 기초하여 신성은 부인했다(성부와 같은 본질이 아님). 그의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에 의해 거부되었는데, 그 주교는 주후 318 년에 시작되어 여러해 동안 계속된 논쟁을 일으켰다. 아리안주의는 동방교회의 공식적 신조로 받아들여졌다. 주후 325 년의 니케아회의에서는 아리안주의를 정죄하고 성자의 신성과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제자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많은 영역에 미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관찰과 분류에 의한 지식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특색을 이룬다.

**안디옥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법은 주후 3 세기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한 우화적 방법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방법의 핵심은 성경의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점이었다. 이들은 성경을 인간의 일반적인 문학작품으로 이해했다. 이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질을 갖고 계신지(네스토리안 주의) 혹은 한 본질을 갖고 계신지(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신)에 대한 논쟁에 연관이되었다. 이들은 로마카톨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페르시아에 다시 정착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들의 해석학적 기본원리는 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되었다(루터와 칼빈).

**알렉산드리아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방법은 주후 2 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플라톤주의자였던 필로의 해석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이것은 종종 우화적 방법으로 불린다. 종교개혁 때까지 이 방법이 횡횡했다.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이 학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모이셋 실바, *교회가 성경을 잘못해석했는가?* (아카데미사, 1987)을 보라.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것은 5 세기의 헬라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졌으며, 구약, 외경, 대부분의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주요 사본중의 하나이다(마태복음 일부분과 요한복음, 고린도후서를 제외한). “A”라고 칭해진 이 사본과 “B”(바티칸사본)이 일치할 때,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원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야웨(여호와).**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다. 출 3:14 에서 그 의미가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이다”의 뜻을 갖는 히브리 동사의 원인을 야기하는 형태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하게 부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이름 발음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뜻하는 *야도나이로* 대신하여 사용했다. 이것이 이 언약적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이유이다.

**양자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초기의 견해중 하나였다. 이 견해는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이었으나 그의 침례시(참조, 마 3:17; 막 1:11) 혹은 부활시(참조, 롬 1:4)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양자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침례, 부활)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양자삼았다(참조, 롬 1:4; 빌 2:9). 이것은 초대교회와 8 세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성육신)을 바꾸어 놓아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 견해는 성자이시고 선재하신 하나님인 예수께 그의 모범적인 삶을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상 주시고 그를 높이셨는가를 말하기가 어렵다. 만일 그가 이미 하나님이셨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선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그가 더 명예를 얻게 될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부의 뜻을 그가 온전히 이루심을 인해 성부께서는 어쨌든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를 영예롭게 하셨다.

**어원론.** 이것은 어떤 단어의 원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단어 연구를 말한다. 어원적인 뜻을 앎으로써 특별한 용례에 따른 의미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석에 있어서 주요 관점은 어원론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단어가 동시대에 지닌 뜻과 용례에 있다.

**어의론적 세계.** 이것은 한 단어와 관련된 뜻이 미치는 범위 전체를 통털어 지칭한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문맥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역동적 등가번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 “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투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게 읽을 것인가*, 35 쪽과 로버트 브렛처의 TEV 서론에 나와 있다.

**역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사실이면서 서로 간에 긴장이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역설은 반대방향에서 진리를 제시한다. 성경의 많은 진리는 역설적(혹은 변증적) 짝으로 나타난다. 성경적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별들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이루는 별들로 구성된 성단과 같다.

**연역법.** 이것은 논리에 의해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별한 적용으로 나아가는 논리나 사고방법이다. 이것은 귀납법과 반대되는데, 귀납법은 관찰된 특별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이론)으로 나아가는 과학적인 방법을 뜻한다.

**영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개념이다. 이것의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영지주의.** 이 그룹에 대한 우리의 대부분의 지식은 2 세기에 쓰여진 영지주의 작품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의 초기적인 모습은 1 세기(혹은 그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

2 세기의 발렌티안과 세린티안 영지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물질과 영은 상호-영적(존재론적 이원론)이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형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2) 하나님과 물질사이에 유출(에너지 혹은 천사적 수준의)이 일어난다. 가장 마지막 혹은 가장 낮은 존재는 구약의 야웨인데, 그는 우주(코스모스)를 형성했다 (3) 예수는 야웨와 같은 유출의 결과이지만 좀 더 높은 계급, 즉 참 하나님과의 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를 가장 높지만 아직 하나님에 비해 낮고, 성육신한 신은 확실히 아니었다(참조, 요 1:14).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었고 아직 신적 존재였다. 그는 영적 환영(참조, 요일 1:1-3, 4:1-6)이었다 (4) 구원은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데,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지식(암호)은 천상의 영역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주의 또한 요구되었다.

영지주의의 거짓교사들은 두가지 상반되는 윤리적 가르침을 전했다; (1)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을 위해 구원과 영성이 천사적인 영역(에너지)을 통과하여 비밀스런 지식(암호)으로 합쳐졌다 (2) 다른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금욕적 삶을 참된 영성의 증거로 강조했다.

**영해.** 이것은 성경귀절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무시하고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는 점에서 우화화와 동의어이다.

**왜곡.**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한 강한 선입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하여 공평한 견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선입관적 입장을 취하게 한다.

**우화.** 이것은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에서 출발한 성경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성경을 자신의 문화나 철학적인 체계에 상응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아래 성경의 역사적 상황과/혹은 문학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뜻을 찾으려고 했다. 예수께서 마 13 장에서 바울은 갈 4 장에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우화적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화가 아니라 모형적인 해석방법이다.

**원저자.** 이것은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저자/사람을 의미한다.

**율법주의.** 이것은 규정이나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규율을 지키는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관계를 덜 중요시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기록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둘 다 중요한 요소이다.

**의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 “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투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게 읽을 것인가*, 35 쪽에 있다.

**인용을 위한 성경사용.** 이것은 성경의 어떤 절을 그것의 문학적 단위가 갖는 직접적 포괄적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저자의 의도로부터 그 절(들)을 빼내게 되고, 대개 자신의 개인적 견해에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여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읽어 들어가기.** 이것은 석의의 정반대 방향이다. 만일 석의가 원저자의 의도를 “읽어 내는 것”이라면, 이 용어는 이질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읽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방법이다. 이것은 자연질서(롬 1:19-20)와 도덕적 의식(롬 2:14-15)을 포함한다. 이것은 시 19:1-6 과 롬 1-2 에서 말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되 특히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특별계시와 구별된다.

이 신학적 용어는 크리스찬 과학자(예, 휴지 로스의 글)들의 “헌 지구”운동에 의해 재 강조되었다. 그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자연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다; 이것은 특별계시(성경)와 구별된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자연질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점은 현대의 서구의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놀라운 새 기회이다.

**장르.** 이것은 문학의 다른 종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이 용어의 핵심은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형태로 문학작품을 구별짓는 것에 있다: 역사적 이야기체, 시, 잠언, 묵시문학, 법률.

**전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해를 뜻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이슈에 대해 성경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의 견해나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 전제는 왜곡, 선협적인 생각, 가정, 또는 기존 지식 등으로 불린다.

**정경.** 이것은 독특하게 영감되었다고 믿어지는 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일컫는다.

**조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조직신학.**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항목별(신, 인간, 죄, 구원 등)로 제시한다.

**종합.** 이것은 히브리시의 세 가지 평행법 가운데 하나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어떤 것에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행이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 “점증적”인 평행법으로 불린다(참조, 시 19:7-9).

**주석.** 이것은 특별한 형태의 연구도서이다. 이것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그 책의 각 부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책은 적용에, 어떤 책은 보다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다루고 있다. 이 책들은 유용하지만, 반드시 자기 스스로 기초적인 공부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주석을 사용하든지 그 주석가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된다.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여러 종류의 주석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지혜문학.** 이것은 고대 근동(그리고 현대)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문학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시, 잠언, 짧은 글 등을 통하여 자라가는 세대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그 내용은 공동체 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다. 성경에서 욥기 부터 아가서 까지 야웨의 존재와 그분께 대한 예배를 전제하고 있지만, 인간 경험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종교적 사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장르이다. 이 장르는 모든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술로서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현인들은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탐구했다. 그들은 종종 전통적인 종교적 견해에 도전했다(욥기와 전도서). 그들은 인생의 비극에 대한 가벼한 견해들에 대항하여 균형잡히고 긴장이 느껴지는 답을 주고 있다.

**취사선택.** 이것은 본문비평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다른 헬라어 사본들로부터 원래의 필사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을 찾기 위해 본문을 선택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 방법은 어느 한 헬라어 사본의 계열이 원본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배격한다.

**친필본.** 이것은 성경의 원본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맨 처음 손으로 쓰여진 원본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사본들의 사본들만 남아 있다. 이 사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인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에 나타나는 본문의 상이점들에 대한 원인이 된다.

**칠십인역.** 70 인역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다. 전통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위해 유다의 70 명의 학자들이 70 일동안 마쳤다고 한다. 전통이 말하는 연대는 주전 250 년 전후(사실상 그 번역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이 번역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이 사본은 히브리 맛소라 사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고대 역본이다 (2) 이 사본은 주전 2-3 세기에 유대인들이 해석한 내용을 보여준다 (3) 이 사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기 전에 이해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사상을 알게 한다. 약어로 “LXX”로 칭한다.

**탈무드.** 이것은 경전화된 유대 구전전통을 일컫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두로 이 내용을 주셨다고 믿는다. 사실상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걸친 유대 교사들의 지혜를 집대성한 것이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다른 본문이 있다: 바빌론 탈무드와 짧으면서 미완성의 팔레스타인 탈무드.

**토라.** 이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히브리어 용어이다. 이것은 모세의 책(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을 일컫는 공식적인 명칭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권위있는 부분이다.

**파피루스.** 이것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책의 재료이다. 강에서 자라는 갈대로 만들었다. 그 위에 가장 오래된 헬라이어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다.

**편협.** 이것은 지역에 따른 신학적/문화적 배경으로 둘러싸여 생기는 왜곡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를 뛰어넘는 성경진리의 이해와 그 적용에 장애를 준다.

**플라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였다. 이집트의 알렌산드리아 학자들과 후기의 어거스틴을 통하여 그의 철학은 초대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환영으로 이해했고 영적 원형의 복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신학자들은 후에 플라톤의 “형태/개념”을 영적 세계와 동일시했다.

**하등비평.** “본문비평”을 보라.

**해석학.** 이것은 석의를 하는 원리들을 일컫는 전문적 용어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들과 예술/은사의 조합이다. 성경해석학은 대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일반적 원리들과 구체적인 원리들. 이 원리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문학적 종류에 기인한다. 각기 다른 타입(장르)에 적합한 지침들이 있지만 어떤 공통의 전제들과 해석의 과정을 공유한다.

**행간삽입성경.** 이것은 성경원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뜻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자료이다. 한글로 된 성경을 원어마다 그 바로 밑에 해당되는 뜻을 제시한다. “분석사전”과 더불어 사용함으로써 이 책은 히브리어와 헬라이어의 형태와 기본적 뜻을 제공한다.

**환유법.** 이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이 그것과 관련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면, “주전자가 끊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끊고 있다”는 뜻이다.

## 부록 4

###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의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받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